

전함 팔라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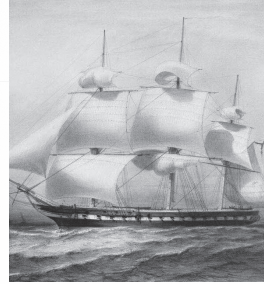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이 책의 한국어판 저작권은 동북아역사재단에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하여 한국 내에서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전함 팔라다



이반 알렉산드로비치 곤차로프 지음 | 문준일 옮김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곤차로프의 세계항해

김영수*

1. 머리말

곤차로프는 자신의 작품 세계를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나는 본능과 상상으로 글을 쓰며, 이성보다는 ‘기술’으로 글을 쓰는 ‘무의식의 작가’다.”

곤차로프의 『전함 팔라다』(Фрегат Паллада)는 19세기 중엽 세계 여행기라는 측면에서 문학적으로 주목받았다. 팔라다호는 젊은 시절 안톤 체호프(А.П. Чехов)를 비롯한 여행을 동경하는 당대 사람들의 베스

*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대표저서로 『명성황후 최후의 날』(2014), 『미젤의 시기: 을미사변과 아관파천』(2012) 등이 있다. 이 글의 해제에서는 러시아 표기는 이미 굳어진 표기만 제외하고 러시아 원음에 가깝게 표기했다. 예를 들면 페테르부르크를 ‘베찌르부르크’로 표기했다. 단, 본문은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 표기방식을 기준으로 했다.

¹ Гончаров И.А. Собр. соч.: в 8 т. М., 1980, Т. 8, С. 104~105; 김종민 (2006), 「곤차로프의 비평논문에 관한 고찰」, 『러시아문학연구논집』 21, 189쪽.

트셀러였다. 팔라다호는 영국·일본 등의 식탁을 소개해주는 ‘식유기(食遊記)’라는 점에서도 주목을 받았다.²

러시아 사실주의 대문호 이반 알렉산드로비치 곤차로프(Иван Александрович Гончаров)는 1812년 6월 6일(러시아력) 심비르스크(Симбирск)에서 부유한 상인의 아들로 태어났다. 1820년에 사제 트로이츠키가 운영하는 기숙학교에 입학하여 독일어와 프랑스어를 배웠다. 1822년에는 모스크바 상업학교에 입학하였고, 1831년 모스크바 국립대학교 문학부에 입학하였다. 당시 이 학교에는 게르첸·레르만토프·푸르계네프 등이 다녔고, 그는 이곳에서 푸시킨을 직접 만날 수 있었다.

곤차로프는 1834년에 대학을 졸업하고 심비르스크 현의 관리로 임명되어 정부 관료 생활을 하였다. 1847년에는 장편소설 『평범한 이야기』를 발표하면서 소설가로서 인정받기 시작하였다. 1849년에 잡지 『현대인』에 「오블로모프의 꿈」을 발표하였다. 1852년 10월 7일, 제독 뿌쨌진(Е.В. Путятин)의 비서(секретарь)로 전함 팔라다호를 타고 삐제르부르크를 출발하여 1855년 2월 13일에 돌아왔다.

그는 항해 중에 일지를 작성하고 편지를 보냈는데, 이 여행기는 1855~1857년 사이 『전함 팔라다』라는 제목으로 발간되었고, 1858년에 2권의 책으로 발간되었다. 1855년에 문부성 검열관이 되었지만 1860년에 사직하였고, 1859년에 10년 동안 준비해온 『오블로모프』를 완성하였다. 1862년 정부 기관 신문인 《북방우편》의 편집장, 1865~1867년 출판과 관련된 위원직을 지냈다. 1869년에는 『평범한 이야기』, 『오블

² Лотман Ю. и Погосян Е. Великосветские обеды, Спб, 1996, С. 37; 석영중(2010), 「오블로모프의 맛있는 음식」, 『러시아문학연구논집』 35, 65쪽.

로모프』와 함께 3부작을 이루는 『단애(절벽)』을 20년 만에 완성하였다.

말년에는 창작을 그만두고, 「백만의 가책」(1872)과 「늦었지만」(1879) 등의 비평만 썼다. 1891년에는 그가 쓴 모든 작품과 편지 단상을 소각하고, 80세의 나이로 사망하였다.³

『전함 팔라다』는 일찍이 조선과 러시아 관계사의 연구자들이 주목했다.

박보리스(Б.Д. Пак)는 『전함 팔라다』의 연구를 통해 팔라다호의 주요 인물과 함대 구성, 조선 항해 이유, 조선 동해안 조사 일정 등에 관한 기초적인 정보를 제공했으며 팔라다호가 거문도에서 만난 김유의 해상기문 정보, 1854년 5월 8일 뿌짜찐이 조선 정부에 보낸 문서까지 포괄적으로 조사하였다. 박보리스의 연구는 팔라다호의 조선과 관련한 포괄적인 정보를 제공했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의미를 갖는다. 그에 따르면 1854년 2월 크림전쟁의 가능성이 높아지자 팔라다호는 안전한 장소로 거문도를 선택했다.⁴ 영국과 프랑스 연합군은 1854년 10월 러시아 크림반도 세바스토폴을 공격했고, 1855년 러시아 흑해함대 기지인 세바스토폴을 함락했다.

박태근은 팔라다호의 출발배경, 청국 및 일본과의 교섭 과정, 거문도와 동해안 탐사의 구체적인 일정과 지명에 대해서 러시아와 한국 자료를 교차하며 조사했다. 그에 따르면 팔라다호는 청국 5개항의 통상

³ Русские писатели, 1800~1917: биографический словарь, Советская энциклопедия, Т. 1, М., 1989, С. 628; 최윤락(2002), 「곤차로프와 그의 장편소설 오블로모프」, 『오블로모프』 2권, 문학과지성사, 351~356쪽.

⁴ 박보리스(2010), 『러시아와 한국』, 동북아역사재단, 124~144쪽.

권 교섭, 러시아와 일본의 수교를 위해서 출발했다. 하지만 청국 양광 총독(兩廣總督) 엽명침(葉名琛)은 1853년 6월 18일 팔라다호의 5개항 무역 교섭을 거절했다. 팔라다호는 그해 8월 10일 일본 나가사키에 도착했지만 일본은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며 협상을 지연시켰다.

박태근은 팔라다호의 조선 동해안 탐사 일정과 지명을 구체적으로 조사했는데 팔라다호는 1854년 4월 20일부터 5월 11일까지 강원도 초산만(울산만)부터 함경도 두만강까지를 실측했다. 1854년 4월 21일 북위 36도 양일만에 상륙, 4월 24일 강원도 초진 통과, 4월 26일 강원도 금란진 정박, 4월 27일 함경도와 강원도 사이 송전만(라자레프항)에 정박했다.⁵

박보리스와 박태근의 연구는 팔라다호의 조선 동해안 조사에 관한 개략적인 정보를 제공해주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하지만 팔라다호의 구체적인 조선 동해안에 관한 세부적인 정보까지 주지는 못했다. 무엇보다도 조선에만 주목했기 때문에 팔라다호의 전체적인 항해 과정과 기록자인 곤차로프의 시선에 관한 정보를 알 수가 없었다.

2000년 이후 곤차로프의 팔라다호는 러시아인의 시선을 통한 한국이라는 주제로 다시 주목받았다. 기존에 조선과 러시아 관계사라는 측면에서 팔라다호가 주목을 받았다면 이번에는 팔라다호에 비친 조선의 모습과 사람이라는 측면이 부각되었다.

이영은은 러시아의 조선 탐사와 인식이라는 측면에서 곤차로프의 팔라다호를 살펴보면서 곤차로프의 개인적인 설명과 관찰에 관한 조선

⁵ 박태근(1984), 「러시아의 동방경략과 수교 이전의 한러교섭」, 『한러관계100년사』, 34~37쪽.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였다.⁶

이희수에 따르면 곤차로프는 한국인을 ‘대식가에 게으르며 거친 성격’, ‘침묵하며 척박한 환경과 궁핍한 생활에 순응하는 모습’ 등으로 묘사했다. 이희수는 곤차로프의 팔라다호에 관한 러시아의 텍스트 분석도 소개했다. 곤차로프가 구조적 완결성을 위해 여행과정의 일부인 실제 항해과정의 탐사활동과 외교협상 내용 및 여행과정의 일부를 누락시켰다는 것이다.⁷

선행 연구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팔라다호의 장교 이름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팔라다호의 여행 과정, 곤차로프의 출발 이유 등에 관한 연구는 초보적인 상황이다. 필자는 팔라다호의 내용을 중심으로 곤차로프의 여행 이유와 과정에 주목할 것이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II. 곤차로프의 출발 이유와 팔라다호의 구성인물

항해 관련 출발 소식을 접한 ‘한 매력적인 부인’은 곤차로프를 찾아와 울음을 터트렸다.

당황한 곤차로프는 짓궂게 질문했다.

“꿈꾸기조차 어려운 기적을 보는 운명의 뭉이 저에게 할당된 게 안타깝나요? 누구도 아직 첫 페이지를 읽지 못한 책이 나에게 열리는 것

6 이영은(2011), 「근대전환기 러시아인의 조선인식」,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7 Тюнькин. К. Примечание//Собрание сочиненийИ.А. Гончарова в 6 Томах. М., 1956, Т. 3, С. 371; Знгельгардт Б.М. Фрегат Паллада// Избранные труды, Спб, 1995, СС. 225~269 ; 이희수(2008), 「교류 초기 러시아인의 한국인식」, 『대동문화연구』 61집, 20~21쪽.

이 부럽나요?”

그녀는 울음을 멈추며 대답했다.

“저도 다 알아요, 당신이 그 책을 읽으려면 어떤 대가를 치러야만 하는지요!”

“당신이 어떤 것을 겪을지, 얼마나 많은 기회들을 놓치게 될지! 난 당신이 겪을 운명이 안 되어서, 눈물을 흘렸던 거예요.”

창피한 그녀는 앞뒤가 맞지 않는 변명까지 늘어놓았다.

“하지만 난 당신을 위해 운건 아니에요. 그냥 눈물이 났을 뿐이에요.”

사실 곤차로프는 1년에 세 번 정도 만나는 부인이라, 3년의 세계여행 동안 만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사모하는 곤차로프가 떠나자 한없이 안타까운 자신의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다. 보내는 사람과 떠나는 사람의 미묘한 감정이었다.

곤차로프는 “자신이 아주 필요할 때가 아니면 자신의 편안한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고 적었다. 그리고 도시 생활과 습관을 버리고 ‘출렁이는 대양의 수면으로 돌진’한 이유를 기록했다.

그는 항상 여행을 꿈꿔왔다고 밝혔다. 학교에서 선생님이 손가락으로 가리킨 적도와 극지방, 열대지방을 직접 가보고 싶었다. 또한 “여행을 떠난다는 생각은 술기운처럼 내 머리를 흐리게 만들었다”고 기록했다.

곤차로프는 자신의 삶은 둘로 나뉘었다고 주장했다.

하나는 제복을 입은 평범한 관리였다.

“나는 상관의 시선 앞에 어쩔 줄 몰라 하고, 감기 걸리는 걸 두려워하고, 수십 명의 제복들과 함께 사망의 벽에 간헐했다. 보고서와 통보서, 명령서 등을 손질하고 있다.”

또 하나는 미지의 탐험에 나선 모험 여행가였다.

“나는 밀짚으로 된 모자에 하얀 외투를 걸치고 입에는 껌을 씹으면서 그루지야의 심연을 따라 금빛 양털을 찾으러 간다. 매달 기후와 하늘과 바다와 나라를 바꾸어가며 여행한다. 항해를 노래한다.”

곤차로프는 여행을 떠나기 직전 자신의 고민도 토로했다.

“어떻게 이런 다른 삶을 견뎌낼 수 있을까, 다른 세계의 시민이 될까?”
물입하면 할수록 위협적인 환영까지 그에게 나타났다.

“과연 나 같은 식견을 지닌 여행자가 나의 동포들과 사회에 지게 될 의무는 무엇일까 하는 것이었다.”

“지금 나에게 부과된 일은 세계일주를 하고, 그 이야기를 그것을 지루하거나 초조하지 않게 경청하게끔 말해주는 것이다.”

곤차로프는 지식인으로 사회적 의무와 작가적 능력에 관한 고민을 안고 팔라다호에 승선했다.⁸

제독 뿌차핀은 1852년 함대를 구성했다. 전함 팔라다호, 감차가 함대 소속 코르벳함(군함) 올리부차호(корвет Олибуца), 스쿠너 범선 보스톡호(шкуны Восток), 수송선 공작 멘쉬코프호(транспорт Князь Меньшиков) 등이다. 제독은 스쿠너 범선 보스톡호의 함장으로 소령(капитан-лейтенант) 꼬르사코프(Корсаков)를 임명했다. 팔라다호는 함장 소령 운콥스키(И.С. Унковский)를 비롯하여 장교 22명과 승무원 439명으로 구성되었다. 이 중에서 보스톡호에 승선했을 장교 6명과 수병 37명도 포함되었다. 수도원(Alexander Nevsky Lavra) 아바꿈(Аввакум)

⁸ Гончаров И.А. Фрегат Паллада. М., 1957, СС. 11~35, I. От Конштадта до мыса Лизарда.

신부는 중국어 통역을 맡았다.⁹

러시아 황제 니콜라이 1세(Николай I)는 1852년 중국과 일본의 개항을 추진하기 위해서 러시아 제독 뿌짜진을 특사로 임명하였다. 팔라다호는 1852년 10월 7일 크론슈타트(Кронштадт)를 출항하여 영국에서 구입한 스쿠너 범선 '보스톡'호와 함께 극동으로 향했다.¹⁰ 이들은 1851년 극동함대 소속 코르베츠 '올리부차'호와 수송선 '공작 멘쉬코호프(Князь меншков)'호와 합류하여 1853년 8월 10일 일본의 나가사키[長崎]에 도착했다.¹¹

전함 팔라다호에 승선한 인원은 다음과 같다.

소령 운콥스키는 함장으로 전함 팔라다호를 지휘했다. 소령 뱌시예트(К.Н. Посьет)는 제독 뿌짜진의 전속 부관이었다.

대위(Лейтенант) 부따코프(И.И. Бутаков), 찌흐멘예프(П.А. Тихменев), 크리드네르(Н. Криднер), 트르코프(С. Тырков), 사비치(Н.Н. Савич), 슈바르츠(С.П. Шварц), 벨라브네츠(И. Белавнец), 쉘리벤바흐(А.Е. Шлипенбах) 등이 승선했다. 또한 소위 안주(П. Анжу), 볼찐(А.А. Болтин), 콜로콜리체프(А.А. Колокольцев), 질료누이(П.

⁹ Путятин Е.В. Всеподданнейший отчет о плавании отряда военных наших судов в Японию и Китай, за 1852~1855 гг.//Морскойсборник. Т. XXIV, No. 10, Спб., 1856, С. 2.

¹⁰ Всеподданейший отчет генерала-адъютанта гр. Путятина, о плавании отряда военных судов наших в Японии и Китай 1852~1855 гг., Морской Сборник(해양선집), Т. 24, No. 10, 1856, СС. 1~2.

¹¹ Всеподданейший отчет генерала-адъютанта гр. Путятина, о плавании отряда военных судов наших в Японии и Китай 1852~1855 гг., Морской Сборник(해양선집), Т. 24, No. 10, 1856, С. 20.

Зеленый) 등이 참가했다. 포병 대위 로세프(К.И. Лосев)와 하레조프(А.А. Халезов), 중위 뽀뽀프(Л. Попов)와 이스토민(Я. Истомирин), 소위 모이세예프(И. Моисеев), 의사 아레피예프(А. Арефьев)와 베이리흐(Вейрих), 통역관 고쉬께비치(О.А. Гошкевич) 등이 승선했다. 또한 4명의 해군 소위 후보생(Гардемаринов), 1명의 육군사관학교 생도(юнкер), 32명의 하사관(унтер-офицеров), 365명의 수병(рядовых), 30명의 비전투 장병(нестроевых), 26명의 악사(музыкантов) 등이 승선했다.¹²

III. 발트 해-보닌 제도와 나가사키-시베리아 항해 과정

곤차로프는 1852년 10월 7일 전함 팔라다호가 러시아 크론슈타트를 출항하는 그 순간을 기록했다.

“나는 출발과 함께 매 순간의 움직임과 걸음들, 인상들이 이전과 다르게 시작되었다.”

그는 스웨덴 동쪽의 발트 해에 위치한 고틀란드(Gotland)를 통과하며 기록했다.

“거기서 나는 바다에 관한 미신 하나를 들었다. 이 섬을 통과하는 배는 이 섬을 지키는 영혼에게 폭풍 없이 무사히 지나가기 위해 동전을 던진다.”

하지만 덴마크에 도착하기도 전에 팔라다호에 콜레라가 발생했고 세 명의 장례식을 치렀다.

¹² Гончаров И.А. Фрегат Паллада, М., 1957, С. 627.

팔라다호는 스웨덴과 덴마크의 젤란드 섬 사이에 있는 순드(Sund) 해협, 덴마크 남쪽 카테가트(Kattegatt) 해협, 노르웨이 남쪽 스카게라크(Skagerrak) 해협을 항해했다.

팔라다호는 1852년 10월 20일경 영국 남부 포츠머스(portsmouth)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팔라다호는 맞바람이 부는 바람에 열흘 동안이나 영국해협(English Channel)으로 들어설 수가 없었다.

팔라다호는 영국 동남부 항구도시 도버(Dover)를 지났고, 곤차로프는 ‘흐릿한 회청색을 띤, 울퉁불퉁하고 가파른’ 프랑스의 해안을 보았다. 팔라다호는 화이트 섬(The Isle of Wight)과 포츠머스 요새 사이에 있는 스피트헤드(Spithead) 정박지에 닻을 내렸다.¹³ 제독 뿌짜쨌은 전함 팔라다호의 정비, 스쿠너 범선 보스톡호 건조 그리고 강력하고 거친 바람 때문에 1853년 1월 6일까지 영국에서 머물렀다고 기록했다.¹⁴

1852년 11월 20일 곤차로프는 영국에서 장기간 체류하는 동안 그 나라에서 받은 인상을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자선이 사회적 의무의 수준으로 승화되었다. 이 도덕적인 국민은 일요일마다 딱딱한 빵을 먹는다. 당신이 포르테피아노를 방에서 연주하거나 거리에서 휘파람을 부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현명하고 실무적이고 종교적이며 도덕적이고 자유로운 영국의 평판에 대해 깊이 생

¹³ Гончаров И.А. Фрегат Паллада. М., 1940, СС. 11~35, I. От Конштадта до мыса Лизарда.

¹⁴ Путятин Е.В. Всеподданнейший отчет о плавании отряда военных наших судов в Японию и Китай, за 1852 – 1855 гг.//Морскойсборник, Т. XXIV, No. 10, Спб., 1856, С. 4.

각해보시기를!”¹⁵

또한 곤차로프는 ‘동물을 사랑한다’는 영국인이 ‘아프리카에서 총과 화약을 수출한다’며 영국의 이중성을 비판했다.

“총과 화약이 아프리카에 없다면 영국인은 한번의 전쟁으로 아프리카의 약탈을 멈출 수 있다. 영국인은 자국을 위해 화약을 아프리카에 실어날랐다. 정말 끔찍이도 나쁜 상업적 민족이다.”¹⁶

팔라다호는 1853년 1월 12일과 13일 향해 도중 거친 바람을 만났다. 팔라다호는 스페인 북서부 해안 비스케이 만(Bay of Biscay)을 통과했고, 스페인 서쪽 끝에 위치한 피니스테레(Finisterre) 곳에 도달했다. 1853년 1월 18일, 영국을 출발한 지 8일째 되는 날, 아침 9시 대서양 북쪽 포르투갈령 마데이라(Madeira) 섬을 지나갔다.¹⁷ 1853년 1월 22일 팔라다호는 북회귀선을 지났다.

곤차로프는 1853년 2월 3일 적도를 통과하는 그 순간을 기록했다.

“우리 모두는 갑판 위로 쏟아져나와서 의심스럽다는 듯이 사방을 둘러보았다. 마치 지구의 허리를 둘러싼 적도라는 이름의 나무 테두리를 보기라도 할 듯 말이다.”¹⁸

팔라다호는 1853년 3월 9일 남아프리카 희망봉 동쪽 폴스 만(False

¹⁵ Гончаров И.А. Фрегат Паллада. М., 1940, СС. 11~35, I. От Конштадта до мыса Лизарда.

¹⁶ Гончаров И.А. Фрегат Паллада. М., 1940, СС. 149~166, X. Шанхай.

¹⁷ Гончаров И.А. Фрегат Паллада. М., 1940, СС. 35~47, II. Атлантический океан и остров Мадера.

¹⁸ Гончаров И.А. Фрегат Паллада. М., 1940, СС. 47~53, III. Плавание в Атлантических тропиках.

Bay)을 지나갔다. 팔라다호의 일부 승무원은 케이프타운인 카프스타드(Kaapstad)로 떠났다. 하지만 곤차로프는 배에서 머무르면서 갑판을 산책하며 시간을 보냈다.

“책을 읽으려 하였으나 읽지 못했고, 뭘 쓰고 싶었으나 쓸 수가 없었다. 사나흘 그렇게 시간이 지나갔고, 타성은 계속되었다.”¹⁹

곤차로프는 1853년 4월 12일 남아프리카 폴스 만을 출발한 이후 항해의 어려움을 기록했다.

“인도양은 대서양보다도 더 나쁘게 우리를 맞아주었다. 대서양에서는 바람이 거셌지만 그래도 순풍이었는데, 여기는 바람도 거세고 또 역풍이었다. 그리고 그 바람은 폭풍으로 변하였다.”

팔라다호는 1853년 5월 17일 자카르타의 인근 마을 안예르(Anyer)의 정박장에 도착했다. 곤차로프는 정박 직후 마닐라로 병력을 실어나르는 스페인 수송선을 목격했다.²⁰

그 후 팔라다호는 싱가포르에 도착했고, 1853년 6월초에 싱가포르를 출발했다.

곤차로프는 싱가포르에 도착한 선원의 기쁨과 이곳의 자연을 생생히 묘사했다.

“늘 전함에 감돌던 긴장과 그 지역에 대한 세밀한 조사, 선원들의 부산한 움직임은 태평한 휴식으로 바뀌었다.”

¹⁹ Гончаров И.А. Фрегат Паллада. М., 1940, СС. 53~55, IV. На мысе Добрай Надежды.

²⁰ Гончаров И.А. Фрегат Паллада. М., 1940, СС. 55~59, V. От мыса Добрай Надежды до острова Явы.

“이곳의 하늘은 아무리 읽어도 지겹지 않은 책과 같다. 하늘은 마치 땅과 더 가까운 듯이 더 열려 있고 선명하다. 밤마다 밝게 빛나는 새벽, 특히 불꽃처럼 빛을 내며 가끔씩 온갖 방향으로 하늘에 지나간 자국을 내는 혜성들을 감상했다. 나는 대위 프리드네르와 오랫동안 당직용 긴 의자 위에 함께 서 있었다.”²¹

곤차로프는 팔라다호가 홍콩에 도착한 이후 단상을 적었다.

“해는 천정(天頂)에 걸려 있었고, 햇빛은 직선으로 내리쬐었다.”

“영국이 홍콩에 돌을 다듬어 벽을 쌓고 흉벽(胸壁)을 만들어서 대포를 설치했다.”²²

팔라다호는 1853년 6월 26일 홍콩에서 출발했으나 역동풍(逆東風)을 만나 7월 5일까지 겨우 300마일 정도만 항해했다. 곤차로프는 홍콩에서 서태평양 보닌(Bonin Is., 오가사와라) 제도까지 총 1,600마일이고 순풍을 만나면 7~8일 정도 걸린다고 기록했다.

팔라다호는 1853년 7월 7일 인도네시아 바탄(Bataan) 섬으로 접근했다. 곤차로프에 따르면 팔라다호는 영국 해군장교 벨처(Edward Belcher)의 표시처럼 닻을 내릴 장소가 있어야 했지만 거대한 절벽과 사방에서 해안을 때리는 물결의 하얀 테두리만 보았다.

팔라다호는 태평양으로 출발했지만 태평양의 바람과 파도 때문에 지체되었다.

“저녁 무렵 신선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나는 글을 써보려 했지만 헛수고였다. 잉크병도 촛불도 탁자에 서 있지를 못했고, 종이는 손아래

²¹ Гончаров И.А. Фрегат Паллада, М., 1940, СС. 59~61, VI. Сингапур.

²² Гончаров И.А. Фрегат Паллада, М., 1940, СС. 61~63, VII. Гон-Конг.

로 미끄러 떨어졌다. 몇 자 쓴다고 해도, 뒤로 자빠지지 않으려면 바로 손을 뒤로 뻗쳐 벽에 기대야 했다.”

“바람은 울부짖고 있었다. 파도는 꼭대기 부분을 편평하게 만들고, 그 파도를 마치 채를 통해 뿌리듯이 대양에 뿌리고 있었다. 파도 위에는 물 분말이 구름을 이루었다. 광란에 싸여 서로를 갈기갈기 찢고 있는 사자와 호랑이 등의 야생 동물 같았다.”

곤차로프는 1853년 7월 16일 보닌 제도까지 여전히 500마일 정도 남았으며 항해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일주일 내내 70마일 정도만 갔다. 폭풍이 지나간 다음 무풍이 왔다. 이게 무슨 농담이란 말인가? 태평양은 우리를 결정적으로 우롱하였다. 이제 태평양은 그가 정말로 태평하다는 걸 증명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거대한 구름 덩어리들이 움직이면서 수평선을 보여주었지만, 우리에게 속도를 붙여주지는 않았다. 무더웠고, 대기에 움직임은 없었다.”²³

팔라다호는 30일 넘는 항해 끝에 1853년 7월 26일 보닌 제도 로이드 항구(Port Lloyd)에 정박했고 8월 4일 세 척의 함정과 함께 나가사키로 출항했다.²⁴ 곤차로프는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보닌 제도는 중국어나 일본어로 ‘사람이 살지 않는 섬들’이다. 여러 국가의 포경선들이 끊임없이 들린다. 그중 제일 많은 것은 미국 포경선이다.”²⁵

²³ Гончаров И.А. Фрегат Паллада. М., 1940, СС. 63~71, VIII. Острова Бонин-Сима.

²⁴ Путятин Е.В. Всеподданнейший отчет о плавании отряда военных наших судов в Японию и Китай, за 1852~1855 гг.//Морскойсборник, Т. XXIV, No. 10, Спб., 1856, С. 19.

²⁵ Гончаров И.А. Фрегат Паллада. М., 1940, СС. 63~71, VIII. Острова

팔라다호는 10개월의 항해 끝에 1853년 8월 9~10일 사이 나가사키 항구에 정박했다(일본 1차 방문).²⁶ 곤차로프는 일본의 첫인상을 기록했다.

“바로 여기가 열쇠를 잃어버리고 굳게 닫혀 있는 보석함. 이제껏 한번 들여다보기 위해 보람 없는 노력을 들인 그 나라. 황금이나 또는 무력으로 또는 간교한 정치로 서로의 만남을 이끌어내려는 나라다.”

팔라다호는 한 달간의 협상 끝에 1853년 9월 9일 나가사키 영주를 접견했으나 일본의 협상 지연 때문에 1853년 11월 5일 식료품을 보충하기 위해서 상하이로 떠날 것을 결정하고 11월 11일 출발했다.²⁷

곤차로프는 상하이로 출발하는 순간 또다시 항해하는 심정을 표현했다.

“물에 떠다니는 삶, 또다시 바람의 의지대로 움직이거나 바람의 자비에 따라 평온해지겠지. 지금 바람은 얼마나 울부짖고 또 얼마나 차가운지! 나는 석 달 동안 바다가 낯설었다.”

팔라다호는 1853년 11월 14일 450마일가량을 항해해서 상하이 인근에 도착했다.

팔라다호는 1853년 11월 23일 스쿠너 범선 보스톡호를 만났던 순간

Бонин—Сима.

²⁶ Путятин Е.В. Всеподданнейший отчет о плавании отряда военных наших судов в Японию и Китай, за 1852~1855 гг.//Морскойсборник, Т. XXIV, No. 10, Спб., 1856, С. 20. 곤차로프는 나가사키에 8월 10일에 도착, 뿌짜핀은 8월 9일 도착했다고 기록했다.

²⁷ Гончаров И.А. Фрегат Паллада, М., 1940, СС. 149~166, IX. Русские в Японии.

을 기록했다.

“보스톡호는 상하이에서 야채, 살아 있는 황소·닭·오리들, 말 그
대로 신선한 식료품과 새로운 소식들, 하지만 신선하지 않은—지금은
11월인데 8월자—소식들을 가지고 왔다.”

팔라다호는 상하이 근처 새들 군도(Saddle Islands)를 출발하여 4일
동안 항해한 후 1853년 12월 24일 나가사키에 정박했다(일본 2차 방문).
곤차로프는 다시 도착한 나가사키를 묘사했다.

“그런 날을 잊기는 힘들다. 하늘과 바다는 하나의 푸른 덩어리가 되
었다. 공기는 따뜻했고 움직임이 없었다. 나가사키는 얼마나 좋은지,
그리고 햇볕을 듬뿍 받은 무언가 훌륭해 보였다. 갈색의 언덕들 사이
어딘가에서 쌀·밀·채소가 새롭게 파종되고 새싹이 올라와서 선명한
파란색을 띠고 있다. 바다를 쳐다보면 그것은 끝없이 펼쳐진 감청색 휘
장이었다.”²⁸

곤차로프는 1854년 1월 1일 나가사키에 도착한 일본 전권대표를 만
났다. 이 특별한 날의 감정을 곤차로프는 기록했다.

“1월 1일입니다. 항상 그렇듯 모여서 늘 했던 대로 춤을 추고 떠들면
서 카드놀이를 하고 자정에 싸움을 기다리면서 여러 번 하품을 하고 결
국 고대했던 순간을 맞이해서 잔을 잡았겠죠. 생애 처음으로 나는 지난
해의 마지막 날을 다르게, 이전과는 다르게 보내는 일이 발생했다. 나
는 이날 일본 귀족 집에서 식사를 했다.”²⁹

이날 곤차로프와 함께 소령 운콤포스키와 나지모프(Н.Н. Назимов), 소

²⁸ Гончаров И.А. Фрегат Паллада. М., 1940, СС. 149~166, X. Шанхай.

²⁹ Гончаров И.А. Фрегат Паллада. М., 1940, СС. 166~210, XI. 1854 год.

령 꼬르사코프와 대위 프리드네르, 소령 푸루겔름(И.В. Фурugelьм), 중국어 통역관 고쉬께비치 등이 참석했다.³⁰

일본 전권대표는 1854년 1월 4일 답방으로 팔라다호를 방문했다.³¹ 팔라다호는 러시아와 일본의 수교 협상이 지연되자 1854년 2월 15일 마닐라 만에 도착했다. 곤차로프는 마닐라에 도착한 순간을 다음과 같이 묘사했다.

“우리는 항로로 조용히 조심스럽게 다가갔으며, 바람은 잠잠했다. 밤이 왔다. 당신은 빛이 없이도 밝고 따뜻하며 짧고 고요한 열대의 밤을 모를 것이다. 바람 한 점, 소리 하나 없이 별들이 떨어 있다. 나는 도시의 불빛을 쳐다보았다. 주의의 모든 것은 저녁노을 속으로 사라졌다. 나의 머릿속에서 호기심이란 즐거운 감정이 피어올랐다. 가톨릭을 믿는 남쪽의 그림과 형상들이 망각의 잔해들에서 떠올랐다.”³²

팔라다호는 1854년 4월 2일부터 4월 7일까지 거문도에 정박했다(한국 1차 방문). 곤차로프는 거문도에서 첫인상을 이렇게 기록했다.

“여기저기 조선인의 농가가 다닥다닥 붙어 있었다. 보이는 것은 초가지붕뿐이었고, 드물게 주민이 보였다. 모두들 마치 수의를 입은 것처럼 흰옷을 입고 있었다.”

그는 거문도를 직접 답사했고, 필담으로 조선 주민과 대화했다.

³⁰ “И.С. Уньковский, капитан-лейтенант Римский-Корсаков, Назимов и Фурugelьм, лейтенант барон Криднер, переводчик с китайского языка О.А. Гошкевич.(Гончаров И.А. Фрегат Паллада, М., 1957, С. 401, XI. Русские в Японии)

³¹ Гончаров И.А. Фрегат Паллада, М., 1940, СС. 166~210, XI. 1854 год.

³² Гончаров И.А. Фрегат Паллада, М., 1940, СС. 210~230, XIII. Манилла.

팔라다호는 1854년 4월 9일 나가사키에 정박했고, 곤차로프는 그 순간을 기록했다(일본 3차 방문).

“나가사키까지의 이동은 마치 강에서 배를 항해하듯 훌륭했고 정속했다. 일본인은 우리가 그렇게 빨리 도착한 것을 믿으려 하지 않았다.”³³

제독 뿌짜핀은 일본 전권대표와 면담을 요청하는 문서를 나가사키 영주에게 전달한 다음 조선 동해안의 조사를 결정했다.³⁴ 팔라다호는 1854년 4월 18일 쓰시마 섬을 통과했다.³⁵

1854년 4월 20일 조선 연안에 도착해서 동해안 조사를 시작했다(한국 2차 방문). 팔라다호는 1854년 4월 25일 위도 39도의 조선 동해안을 측량했고, 5월 5일 위도 41도의 동해안을 측량했다. 1854년 5월 9일 두만강에서 6마일 거리에 정박했다. 팔라다호는 4월 20일부터 5월 11일까지 22일간 초산만(울산만)에서 북위 42도 31분(두만강 하구) 지점에 이르는 동해안 전역을 실측했다.

팔라다호는 1854년 5월 17일 스쿠너 범선 보스톡호를 만나 유럽의 소식을 듣고 편지를 받아가지고 왔다. 팔라다호는 1854년 5월 18일 시베리아와 사할린 섬을 가르는 타타르 해협(Tatar Strait)에 들어섰다.

팔라다호는 1854년 5월 20일 만주 해안에 배를 정박하였다. 이미 공

³³ Гончаров И.А. Фрегат Паллада. М., 1957, СС. 505~539, XIII. От Маниллы до берегов Сибири. 1.

³⁴ Путятин Е.В. Всеподданнейший отчет о плавании отряда военных наших судов в Японию и Китай, за 1852~1855 гг.//Морскойсборник, Т. XXIV, No. 10, Спб., 1856, С. 3.

³⁵ Гончаров И.А. Фрегат Паллада. М., 1957, СС. 505~539, XIII. От Маниллы до берегов Сибири.

작 멘쉬코프호는 해안가에 정박해서 천막을 쳐놓았다. 곤차로프는 시베리아 퉁구스족을 만났고 길라크족(Gilyak, Nivkh)에 대해 기록했다.

“길라크족은 바람에 부러져 떨어진 나뭇가지 무더기 아래서 영하 36도에서도 살아간다고 한다. 심지어는 젓먹이 아이들을 데리고 있는 엄마들도 그렇게 산다고 한다. 몸을 녹이고 싶으면 모닥불을 피우고, 송어와 곰 마늘(마늘의 한 종류)을 먹는다.”

팔라다호는 1854년 8월 시베리아 연안에 닻을 내렸다.³⁶ 곤차로프는 바다에서 육지로 내려야 하는 자신의 심정을 다음과 같이 표현했다.

“사람은 참으로 이상하다. 육지에 가고 싶지만, 전함을 떠나는 것도 아쉽다! 하지만 이 배가 얼마나 아름답고 우아한지, 이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이들인지 여러분들이 아신다면, 내가 억지로 팔라다호를 떠난다는 것에 놀라지 않으실 것이다.”³⁷

팔라다호의 장교와 수병은 1854년 9월 니콜라예프 검문소로 파견되었다. 팔라다호는 1854년 9월 26일 정박하여 전함의 무장 해체를 진행하였다.³⁸ 곤차로프는 오흐츠크 연안 아얀(Аян)에 상륙했고, 야쿠츠크(Якутск)와 이르쿠츠크(Иркутск)를 거쳐 1855년 2월 13일 삐쎌르부르크로 돌아왔다.

³⁶ Гончаров И.А. Фрегат Паллада, М., 1957, С. 539, XIV. Обратный путь через Сибирь.

³⁷ Гончаров И.А. Фрегат Паллада, М., 1957, СС. 505~539, XIII. От Маниллы до берегов Сибири.

³⁸ “제독 뿌썬은 1854년 10월 3일 전함 디아나호를 타고 일본으로 다시 출항했다.”(Путятин Е.В. Всеподданнейший отчет о плавании отряда военных наших судов в Японию и Китай, за 1852~1855 гг.//Морскойсборник, Т. XXIV, No. 10, Спб., 1856, С. 50).

IV. 맺음말

서양에서 최초로 독도의 서도와 동도를 명명한 국가는 러시아였다. 조선의 동해안을 조사한 함대는 러시아 제독 뿌짜핀이 이끄는 ‘팔라다’ 호였고, 독도를 발견한 함정은 ‘올리부차’호였다. 러시아는 19세기 중반 조선의 동해안을 탐사하면서 서도와 동도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면서 독도의 명칭을 표기했다. 이는 러시아도 독도를 한국의 영역으로 파악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뿌짜핀 제독은 1854년 4월 타타르 해협에서 빙하와 안개를 만날 가능성을 예상하고 한국의 동해안 탐사를 결정했다. 그래서 팔라다호는 “한반도 동해안 남동쪽부터 만주와 국경을 접하는 두만강까지, 그리고 만주 연안을 따라 몇십 마일 더 먼 곳에 이르기까지 등의 동해안 지역을 조사하고 사진을 찍었다”고 기록했다. 팔라다호는 라자레프 만(송천만) 등을 측량했고, “날씨가 좋았던 첫날에는 잠수 도구를 이용하여 그곳의 수중 지형을 조사했다.”³⁹

팔라다호의 소속 함정 중 올리부차호는 1854년 4월 6일 대한해협을 지나 북쪽의 타타르(Татарский) 해협으로 향해하던 도중 독도를 발견하고, 서도를 ‘올리부차(Оливуца)’, 동도를 ‘메넬라이(Менелай)’라고 명명했다.

“아침에 발견한 두 개의 높은 바위는 만나질 동안 시야에 있었으며, 이제 명확해졌다. 두 개의 제법 높고 예각의 발가벗은 바위는 약 300사젠(642m) 떨어져 있었다. 이들 중 서쪽 섬은 북위 37-13도, 동경

³⁹ РГАВМФ. Ф. 296, Оп. 1, Д. 75, ЛЛ. 219~223, 1854. 5. 25/6. 6.

131-55도에 위치하고 있다. 이들 중 더 높은 서쪽 섬을 ‘올리부차’라 명명했다. 동쪽 섬을 현재는 발틱함대 그 후에 캄차카 전단으로 소속되기 전에 1846년까지 흑해함대 소속이었을 때 함정의 최초 이름을 기념하여 ‘메넬라이’라고 불렀다. ‘올리부차’에서 북서쪽으로 2마일가량 물 위에 나타난 암초였다. 올리부차 및 메넬라이 도는 청명한 일기 상태의 30마일(1.6093km) 거리에서 발견했다. 1854년 4월 6일(신력 18일) 우리 함정은 올리부차 도서 서쪽 4마일 해상에서 만나질 동안 머물렀다.”⁴⁰

팔라다호는 1854년 4월 20일부터 5월 11일 사이에 한국 동해안의 북위 35-30도 지역에서부터 북위 42-30도, 동경 131-10도 지역까지 약 600마일의 해안을 조사했다. 그 결과를 러시아 해군지 1855년 1월 호에 게재했다.

“다젤레트’는 보스톡호가 북위 37-22도, 동경 130-56도에서 관측했는데, 둘레 20마일 크기의 원형 모양이고, 해안은 협소하며, 거의 접근할 수가 없었다. ‘다젤레트’ 최고봉의 높이는 2,100피트다.

아르고나트 섬은 존재하고 있었는가 의심스럽기만 하다. 그 섬은 보이지가 않는다.

해조의 배설물로 뒤덮여 있으며, 서로 상당히 떨어져 있는 섬은 올리부차호가 북위 37-14도, 동경 131-57도에서 발견했으며, 메넬라이 및 올리부차 도라 불렀다. 이 섬의 발견은 항해에 적지 않은 도움을 준다. 이들 섬은 근접한 섬들로부터 분리되어 떨어져 있어서 동해 북방으

⁴⁰ РГАВМФ. Ф. 870, Оп. 1, Д. 7208, ЛЛ. 87~88. Шханечный Журнал Корвета Олибуца(1854년 올리부차호의 항해일지): 최명복(1999), 앞의 글, 217쪽.

로 향해하는 선박의 십자로에 위치하고 있다.”⁴¹

먼 여행을 돌아온 곤차로프는 전함 팔라다호에 자신이 깨달은 진실들을 쏟아부었다. 예를 들면, 그는 절대 악의 비판과 처벌에 관한 이중성을 꼬집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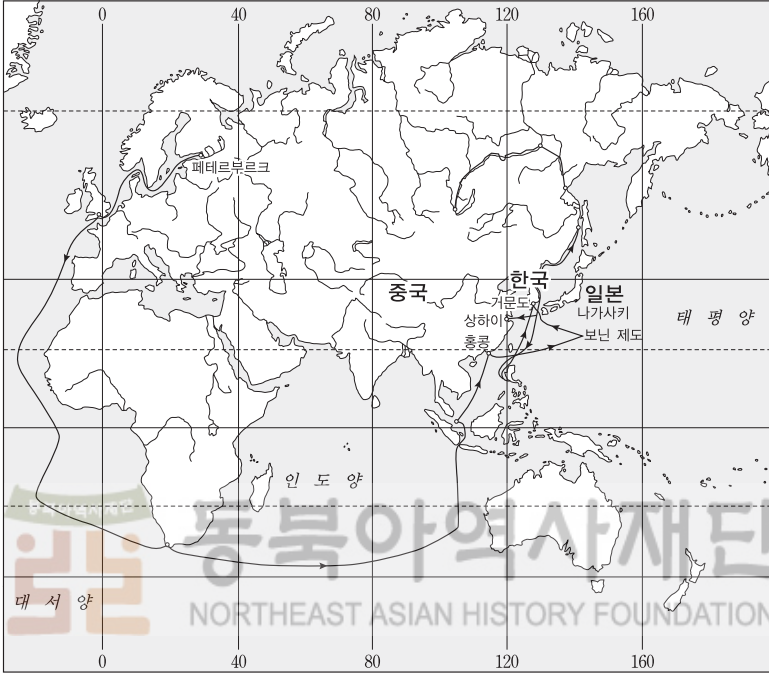
“천 개의 돌을 던져보아 소용 없던 악에 또 하나의 작은 돌을 쓸데없이 던져야 할까? 일은 논쟁의 여지가 없이 분명하다. 비난받는 쪽은 죄를 인정하면서 침묵한다. 재판은 선고를 내렸지만 선고를 이행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⁴²



⁴¹ Описание Восточного берега Полуострова Кореи, Морской Сборник(해양선집), T. 14, No. 1, 1855, CC. 34~35.

⁴² Гончаров И.А. Фрегат Паллада. М., 1940, CC. 149~166, X. Шанхай.

전함 팔라다의 항해 과정



일러두기

- 곤차로프의 『전함 팔라다』는 1858년 2권으로 최초 발간되었다. 『전함 팔라다』 번역본은 1940년에 발간된 축약본에 기초하였다(Гончаров И.А. Фрегат Паллада, М., 1940). 그런데 본문의 내용 중 ‘13장 마닐라부터 시베리아’ 부분은 1954년 발간된 완역본에 기초하여 번역되었다(Гончаров И.А. Фрегат Паллада, М., 1957).

- 도량형은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미터법으로 환산했다. 환산수치는 다음과 같다.

구분	단위
길이	베르스타(верста) = 1,0668km
길이	사젠(сажень) = 2,1336m
길이	아르шин(аршин) = 71.12cm
길이	푸트(фут) = 30.479cm
길이	파디(пядь) = 17.78cm
길이	베르쇼크(вершок) = 4.445cm
넓이	제곱사젠(квадратный сажень) = 4.552m ²
넓이	데샤티나(десятина) = 10,930m ² (1.093헥타르)
무게	푸드(пуд) = 16.38kg
무게	푼트(фунт) = 409.51g
무게	졸로트닉(золотник) = 4.266g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곤차로프의 주요 이니셜 표기 인물

* Капитан(대령), Капитан-лейтенант(소령), Лейтенант(대위),
мичман(소위)

I.S.U.(I.S.; U.)=Капитан-лейтенант И.С. Унковский 팔라다호
함장 소령 운콥스키(본문 운코프스키)

V.K.=Лейтенант Н. Криднер. 대위 남작 크리드네르(본문 크리드
네르)

V.Sh.=лейтенант А.Е. Шлипенбах 대위 쉘리펜바흐(본문 쉘리
펜바흐)

V.(A.A.; A.A.B; M.B.)=мичман А.А. Болтин 소위 볼찐

K.=мичман А.А. Колокольцев 소위 콜로콜리체프

V.A.K.=лейтенант В.А. Римский-Корсаков 대위 꼬르사코프(본
문 코르사코프)

K.N.P(P-t)=Капитан-лейтенант К.Н. Посьет 소령 포시에트(본
문 포시에트)

P.A.T.(P.; P.A.)=лейтенант П.А. Тихменев 대위 띠흐멘네프

K.I.L(L.; K. I.)=Морская артиллерия капитан К.И. Лосев 대위
로세프

N.N.S(N.N.)=Лейтенант Н.Н. Савич 대위 사비치

O.A.G.(O.A.; G.)=O.A. Гошкевич 외무부 통역관 고쉬게비치(본
문 고쉬케비치)

M.Z.(Z.; Зеленый)=мичман П. Зеленый 소위 질료누이

N.N.(N)=Капитан-лейтенант Н.Н. Назимов 올리부차 함장 소령
나지모프

S.P.Sh.(S-ch)=Лейтенант С.П. Шварц 대위 쉬바르츠

I.V. 푸루겔림=капитан-лейтенант И.В. Фуругельм 소령 푸루겔림

P-v=мичман А.А. Пешуров 소위 빼수로프

L.A.P.=поручик Л.А. Попов 중위 뽀뽀프

영국과 러시아 해군 표기

Midshipman — мичман(소위)

Sublieutenant — младший лейтенант(중위)

Lieutenant — лейтенант(대위)

Lieutenant-Commander — лейтенант-командер(소령)

Commander — командер(중령)

Captain — капитан(대령)

Commodore — коммодор(준장)

Rear Admiral — контр-адмирал(소장)

Vice Admiral — вице-адмирал(중장)

Admiral — адмирал(대장)

Admiral of the Fleet — адмирал флота(제독)



차례

해제: 곤차로프의 세계항해 · 4

일러두기 · 26

I. 크론쉬타트에서 리저드 반도까지 · 31

II. 대서양과 마테이라 섬 · 71

III. 대서양 열대지역에서의 항해 · 91

IV. 희망봉에서 · 103

V. 희망봉에서 자바 섬까지 · 109

VI. 싱가포르 · 117

VII. 홍콩 · 123

VIII. 보닌 제도 · 129

IX. 일본에서의 러시아인들 - 1853년 말과 1854년 초 · 141

X. 상하이 · 255

XI. 1854년 · 283

XII. 마닐라 · 343

XIII. 마닐라에서 시베리아 해안들까지 · 375

찾아보기 · 454



I.

크론슈타트에서
리저드반도까지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여러분들은 내가 바다와 뱃사람들, 덴마크와 스웨덴, 영국의 해안들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자세히 물어보고는 한다. 또 당신들은 몹시도 알고 싶어 한다. 어떻게 내가 갑자기 아주 필요한 때가 아니면 나가지 않는 나의 편안한 방에서 나와 출렁이는 대양의 수면으로 갔는지, 당신들 모두처럼 도시생활과 낮의 분주함과 밤의 평화로운 고요함에 습관지어진 내가 어떻게 어느 하루, 어느 시간 이 질서를 내던져버리고, 뱃사람들의 무질서한 삶으로 돌진했는지 말이다. 나도 당신들처럼 큰 파리 한 마리가 방에 들어와선 웅웅거리는 소리를 내며 돌아다니며 창문이나 천장에 부딪쳐대서 잠을 못 이룬 적이 있었고, 창문에서 바람이 불어와서 멀쩡이 떨어진 것도 있었고, 길에 흙이 꽤어 있다고 욕을 한 적도 있었다. 저녁에는 도시 외곽으로 가는 걸 거절한 적도 있다. “멀리 가야 되네”라고 구실을 대고는 말이다. 정해진 시간에 잠자리에 드는 걸 어기는 것을 두려워도 했다. 수프에서 탄 내가 나거나, 고기가 너무 구워졌거나, 물이 수정처럼 빛나지 않으면 불평도 했다. 그리고 갑자기 바다로 갔다.

“거기서 어떻게 걸어 다니시려구요? 흔들리지 않나요?” 실력이 형편 없는 제조업자에게 사륜마차를 주문하면, 마차가 참 많이 흔들거린다

* 크론슈타트, 페테르부르크에서 서쪽으로 약 32km에 위치하고, 핀란드 만에 있는 코틀린 섬에 위치한 해군기지.

** 리저드 반도, 영국 잉글랜드 콘월 주의 커리어 행정구에 있는 반도, 영국 최남단에 있는 지역이다. 앞바다에 있는 바위섬들과 해안에 있는 높이가 75m나 되는 험준한 절벽들과 작은 만(灣)들로 이루어진 해안 풍경이 웅장하다. 내륙은 평평하고 탁 트인 경관을 이룬다. 서쪽에서 영국해협으로 진입하는 항해사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된다. 전통적으로 영국에서 미국으로 가는 해로의 출발점이다.

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렇게 묻는다.

“거기서 어떻게 주무실 거며, 무얼 드실 겁니까? 생판 모르는 사람들과 어떻게 사실려고요?” 질문들이 쏟아진다. 그리고 나를 마치 고문에 처해지도록 운명 지어진 희생물처럼 병적인 호기심으로 바라본다. 이런 것에서 명확해지는 것은, 아직 바다에 가보지 못한 모두에게는 기억 속에 아직 쿠퍼¹의 옛 소설들이나 마리에트²가 쓴 이야기들, 그 속에는 배의 승객들을 사슬에 묶어놓거나, 선원들을 화형시키거나, 교수형에 처하기도 하는 선장 이야기나 난파나 지진에 관한 내용들이 나오기도 한다. “배에서 선장은 당신을 제일 꼭대기 층에 태울 겁니다.” 나에게 친구들이나 지인들은 이렇게 말한다. “먹을 것을 주지도 않을 거고, 빈 해안가에 내려놓을 겁니다.” “왜요?” 나는 물어보았다. “그들처럼 앉지도 않고 그들처럼 다니지도 않죠, 또 피우지 말라는 데서 시가도 피우시잖아요.” “난 거기서 하는 대로 다 할 겁니다.” 난 짤막하게 대답했다. “당신은 밤늦도록 앉아 일하시는 게 익숙하시잖아요, 거기서는 해가 넘어가자마자, 불을 모두 다 꺼버립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리고 소음들은 어떻구요. 똑딱거리는 소리며, 냄새에 고태소리는!” “거기서 당신은 술에 취해 몸도 못 가누실 겁니다!” 몇몇

1 제임스 쿠퍼(James Cooper, 1789~1857). ‘나티 범포’ 또는 ‘호크아이’라고 불리는 황야의 사나이를 주인공으로 변경지방에서의 모험을 그린 ‘가죽양말’ 이야기들로 유명하다. 이 시리즈에 속하는 작품으로는 「개척자(The Pioneers)」(1823) · 「모히칸족의 최후(The Last of the Mohicans)」(1826) · 「평원(The Prairie)」(1827) · 「탐험자(The Pathfinder)」(1840) · 「사슴 사냥꾼(The Deerslayer)」(1841) 등이 있다.

2 오거스트 마리에트(Auguste Mariette, 1821~1881). 프랑스의 고고학자. 이집트 전역에서 중요한 발굴을 해 초기 이집트 역사에 대한 많은 것을 밝혀냈다.

은 이렇게 겁을 주었다. “배에서는 물이 귀하기 때문에 모두가 럼주를 더 많이 마시거든요.” “바가지로 마신다니깐요. 내가 직접 봤어요. 배에 있었거든요.” 누군가가 덧붙였다. 한 노파가 나를 바라보며 슬픈 표정을 짓고 고개를 저었다. 그리고는 ‘육로로 세계일주를 하는 게 나올 거라고’ 간곡히 설득했다. 또 한 명의 귀부인은, 현명하고 매력적인 그 부인은 내가 작별인사를 하러 들렀을 때 울기 시작했다. 나는 놀랐다. 나는 그녀를 1년에 세 번 정도 보는 게 다였고, 세계일주 항해를 하는 3년 동안 만나지 못한다 해도 괜찮았기 때문이다. 그녀는 내가 주변에 없는 것도 알아채지 못했을 것이다. “왜 그렇게 우시는 거죠?” 내가 물었다. “난 당신이 안됐어요.” 눈물을 닦으며 그녀가 말했다.

나는 벽에 부딪혔다. 그녀는 도대체 왜 눈물을 흘렸던 걸까? “나는 당신이 그냥 안됐어요. 아무도 모르는 데로 가시잖아요.” 불쾌감이 몸을 감쌌다. 우리나라에서는 여행자의 부러운 운명을 이렇게 바라본다. “나는 당신의 눈물이 부러움의 눈물이라면 이해를 하겠습니까만,” 나는 이야기했다. “만약 당신이 안타까운 게 말입니다. 당신들 중 아무도 가보지 못한 곳에 가보고, 여기서는 꿈꾸기조차 어려운 기적들을 보는 운명의 뭉이 당신에게 떨어진 게 아니라 나에게 할당된 게 안타까운 게 아닌가요. 누구도 아직 첫 페이지를 읽지 못한 위대한 책이 나에게 열리는 게 안타까우신가요.” 나는 그녀에게 훌륭한 문체로 이야기했다. “그만 됐어요.” 그녀는 슬프게 이야기했다. “나도 다 알아요, 하지만 당신이 그 책을 읽으려면 어떤 대가를 치러야만 하는지요? 생각을 좀 해보세요. 당신을 기다리는 게 무엇인지, 당신이 어떤 것을 겪을지, 얼마나 많은 기회들을 놓치게 될지! …… 난 당신과 당신이 겪을 운명이 안 되어서, 눈물을 흘렸던 거예요. 그런데 당신은 눈물을 믿지 않으시는군

요.” 그녀가 덧붙여 말했다. “하지만 난 당신을 위해 온 건 아니에요. 그냥 눈물이 났어요.”

여행을 떠난다는 생각은 술기운처럼 내 머리를 흐리게 만들었다. 그리고 나는 모든 예견이나 경고들에 태평스럽게 농담처럼 대답했다. 아직 떠날 여행은 저 멀리 있어 보였다. 나는 이 여행을 항상, 그리고 오래전부터 꿈꾸어 왔었다. 아마도 학교에서 선생님이 이렇게 말해주었던 그 순간부터일 것이다. 선생님은 어떤 지점에서 멈추지 않고 계속 간다면 다른 편에서 그 지점으로 되돌아올 수 있다고 했다. 난 내가 태어난 불가 강 오른쪽 강기슭에서 출발해서 왼편 기슭으로 돌아오고 싶었고, 선생님이 손가락으로 가리킨 적도와 극지방들, 열대지방을 직접 가보고 싶었다.

그리고 전혀 기대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이 꿈들을 다시 태어나게 하고, 그 기억들을 넓히고, 벌써 오래전에 잊고 있었던 전 세계일주의 영웅들을 기억하게 운명이 다가왔다. 갑자기 나는 그들의 뒤를 이어 세계 일주를 떠나게 되었다.

나의 삶은 둘로 나뉘어져버렸다. 아니면 마치 나에게 두 개의 삶을 준 것 같기도 하고, 두 개의 세계에 살 곳을 준 것 같다. 나는 한 곳에서는 제복을 입은 평범한 관리다. 상관의 시선 앞에 어쩔 줄 몰라 하고, 감기 걸리는 걸 두려워하고, 얼굴들이 서로 비슷비슷해 보이는 수십 명의 제복들과 함께 사방의 벽에 갇힌 평범한 관리다. 다른 곳에서 나는 미지의 땅에 탐험을 나선 새로운 모험 여행가다. 밀짚으로 된 모자에 하얀 아마 외투를 걸치고 아마도 입으로는 껌을 씹으면서 다다르기 힘든 콜히다³로 심연을 따라 금빛 양털을 찾으러 가는, 매달 기후와 하늘과 바다와 나라들을 바꾸어가며 여행을 하는 여행가다. 그곳에서는 보

고서와 통보서, 명령서를 손질하고 있지만, 여기서는 비록 직무상이기는 하지만 항해를 노래 부르는 사람이다. 어떻게 이런 다른 삶을 견뎌낼 수 있을까, 다른 세계의 시민이 될까? 관리의 소심함과 러시아 문학가의 냉담함을 대양 항해자의 에너지로, 또한 도시민의 연약함을 선원들의 거친 성격으로 바꿀 수 있을까? 이런 전망 뒤에 내가 여행에 몰입하게 되면 될수록 생긴 위협적인 환영이 나타났다. 그 환영은 바로 이런 생각들이었다. 과연 나 같은 식견을 지닌 여행자가 나의 동포들과 사회에 지게 될 의무는 무엇일까 하는 것이었다. 일본으로의 탐험여행은 바늘이 아니어서, 숨길 수도 잃어버릴 수도 없는 것이다. 요즘 세상은 글을 쓰는 사람들이 대중에게 알리지도 않고 이탈리아도 갔다 오기 힘든 형편이다. 그런데 지금 나에게 부과된 일은 세계일주를 하고, 그 이야기를 지루하고, 초조하지 않게 경청하게끔 말해주는 것이다. 하지만 무엇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묘사해준다는 말인가? 이 건 “어떤 얼굴을 하고 사회에 모습을 나타낼까요?” 하고 묻는 것과 같은 것이다.

마침내 10월 7일 전함 ‘팔라다’는 돛을 걷어올렸다. 이것과 함께 나에게서는 매 순간의 움직임, 매 순간의 걸음들, 매 순간의 인상들이 이전의 어떤 것보다도 같지 않은 삶이 시작되었다.

곧 이제껏 움직임이 없었던 전함에 모든 것이 정연하게 분주해지기 시작했다. 사백 명의 승무원들 모두가 갑판에 정렬하였고, 명령을 내리는 말들이 들렸다. 많은 수병이 마치 활대에 들러붙은 파리들처럼 돛대 꼭대기에서 양쪽으로 매달린 밧줄을 타고 올라갔다. 그리고 배는 돛을

3 서부 그루지야를 부르는 고대 그리스식 명칭.

펼쳤다. 하지만 바람은 완전히 순풍이 아니어서 힘센 증기선이 우리를 만까지 끌어주고, 새벽녘에 돌아갔다. 그리고 우리는 일기 시작한 세찬 바람, 뱃사람들이 말하는 식으로 하면 ‘신선한’ 바람과 싸우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 첫 번째 폭풍은 나에게 그렇게 영향을 주지는 않았다. 바다란 곳에 한 번도 나와 보지 않았던 나는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러니까 배는 항상 이렇게 좌우로 요동을 치는 것이고, 갑판은 발밑에서 미끄러지고, 바다는 마치 머리로 뒤집어지는 것이라 생각했다.

나는 밧줄 사이로 휘파람 불듯 치는 바람과 배의 측면을 때리는 파도 소리를 들으며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몰라 병병해하며 장교 휴게실에 앉아 있었다. 갑판 위는 추웠다. 비껴치는 얼음장 같은 비는 얼굴을 때렸다. 장교들은 근심 없는 듯 마치 자기 방이나, 육지에서처럼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다른 사람들은 책을 읽고 있었다. 갑자기 빼익고 날카로운 호각소리가 났다. 인건 바람소리가 아니라 갑판장의 호각소리였다. 그러자 곧이어 모든 갑판에서 십여 명의 고함소리가 울려 퍼졌다. “…… 모두 갑판으로!” 순식간에 전함의 모든 인원이 갑판 아래에서 위로 뛰어 올라갔다. 뒤쳐진 남은 수병들은 갑판장들이 불러모으고 있었다. 장교들도 하던 대화를 중단하고 책과 지도를 던져버리고는 그곳으로 쏠살같이 달려갔다. 이런 것에 익숙지 않은 사람에게는 무슨 재난이나 벌어졌거나, 어디가 망가지고 터져서 바닥으로 내려앉는 것처럼 보일 것이다. “왜 승무원 모두를 갑판으로 부르는 거죠?” 내 옆으로 달려가는 소위에게 물었다. “모두 위로 오라고 호각을 부는 건 선원 전원작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급히 말해주고는 사라져버렸다. 사다리와 줄에 매달려서 나는 겨우 갑판으로 나가서는 구석에 자리 잡

고 섰다. 모두가 분주하였다. “선원 전원작업이 무업니까?” 나는 다른 장교에게 물어보았다. “그건 전원 갑판에 집합하라고 호각을 불 때 하는 겁니다.” 그는 이렇게 대답하고는 선원 전원작업을 하였다. 나는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을 보면서 선원 전원작업이 도대체 무언지 알아보려 노력했다. 하지만 도대체가 알 수가 없었다. 모두가 어제했던 일들을 하고 있었다. 아마 내일도 이렇게 일할 것이다. 밧줄을 당기고, 활대를 돌리고, 돛을 정리하고 있었다. 장교들이 내게 진짜 본질을 설명해주었다. 진작 그렇게 이야기해주었더라면 쉽게 이해를 했을 텐데 말이다. 모든 비밀은 거기에 있었다. 선원 전원작업은 공동작업이라는 뜻이었다. 만일 당직 근무인원으로 모자란다면, 모든 일손이 필요한 법이다. 그래서 모두에게 ‘갑판 위로 집합!’이라고 호각을 부는 것이다. 내가 틀리지 않았다면 영어로는 ‘모든 일손은 위로 집합!’이라고 명령한다. 5분쯤 지나서 필요한 일을 마치고 나서는 모두가 자기 자리로 흩어졌다. B.K.⁴는 내게서 세 발짝쯤 떨어진 곳에서 폭풍의 바람소리 아래서 오페라의 한 소절을 휘파람으로 불고 있었다. 나는 그에게 다가가려고 헛되이 힘을 쓰고 있었지만, 발이 마음먹은 대로 움직이지를 않았다. 그는 나의 이런 노력에 웃음을 지었다. “당신 발이 아직 바다에 익숙해지질 않았군요.” 그가 말했다. “언제쯤 익숙해집니까?” 내가 물었다. “한 두 달쯤 지나야죠.” 나는 한숨을 깊이 쉬었다. 나는 이 말을 듣자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나는 아직도 두 달 정도를 이렇게 유모 치맛자락을 쥐고 걷는 애기처럼 걸어야 하나’ 하고 말이다. 조금 있자 젊은

4 작가는 이 작품에 등장하는 전함 팔라다호의 인물들을 모두 이니셜로 표기하고 있다.

친구들이나 뱃멀미 쉽게 하는 사람들, 아니면 항해에 오랫동안 나오지 않았던 이들이 뱃멀미를 하기 시작했다. 나는 바다에 바치는 이 지켜온 공물을 내가 언제 바칠 건지 기다렸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을 살펴보았다. 여기 소위보인 젊은 친구는 얼굴이 하얗져서, 의자 쪽으로 고개를 숙였다. 그의 눈은 흐려지고, 머리가 기울어졌다. 여기 근무교대를 한 초병은 무기를 건네주고는 이물 쪽으로 부리나케 달려간다. 장교는 수병들에게 뭐라 고함을 지르려다가, 얼굴을 바다 쪽으로 돌리고는 뱃전을 붙잡고 있다.

“보드카를 마세요.” 나에게 한 사람이 이야기해준다. “아냐, 레몬 주스 마시는 게 나아.” 다른 사람이 이렇게 충고한다. 세 번째 사람은 파와 무를 권한다. 나는 뱃멀미를 예방할 방법을 어떻게 결정할지 알 수가 없었고, 시가를 피우기 시작했다. 뱃멀미는 나지 않았다. 뱃멀미가 언제 시작될까 기다리면서 나는 근심스럽게 병자들 사이를 걸어 다녔다. “당신은 배가 흔들리는 속에서도 시가를 피우시네요. 그러곤 뱃멀미를 기다리시다니, 공연한 일이세요!” 나에게 동반자들 중 한 사람이 이야기했다. 정말로 공연한 일이었다. 항해하는 동안 나는 한 번도 어떤 조그만 메스꺼움조차 느끼지를 못했다. 그래서 심지어 뱃사람들 사이에 질투를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나는 배에 오른 첫 발걸음부터 배를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제 항해가 끝나갈 무렵인 지금까지도 내가 처음 배의 부속시설들을 둘러보았을 때, 선창과 쥐구멍 같은 좁은 구석들, 손바닥만한 유리창으로 창백한 빛이 겨우 들어오던 그곳을 보았을 때 느꼈던 무거운 인상을 기억하고 있다. 그 인상 때문에 가슴이 죄어오고는 했다. 나중에 익숙해진 시선에서 보면 편리한 것들이 처음엔 좋지 않은 억측을 만

들곤 하는 것이다. 빛의 부족, 횡한 공간, 사람들이 마치 빠져버리는 듯한 해치, 벽에 못으로 고정된 옷장, 그리고 마루에 고정된 소파와 탁자·의자들, 무거운 대포들, 그리고 마치 쟁반에 담긴 듯 포탄거치대에 차곡하게 무더기로 쌓여져 대포 옆에 놓여 있는 포탄과 산탄들, 걸려 있거나 바닥에 놓여 있거나 움직이거나 움직이지 않거나 한 밧줄들, 침대 대신 놓여 있는 간이침대, 필요 없는 모든 것은 제외된 기능성, 아름다운 무질서와 아름답지 않은 해이함 사이의 질서와 균형.

배에 처음 오른 사람들은 매우 조심스럽게 겁을 내며 다닌다. 선실은 그들에게 마치 관처럼 보인다. 하지만 여기 대양에 있는 단단한 범선에서보다 많은 사람이 모여 있는 도시의 소란스러운 거리에서 그들이 더 안전하지는 않다. 하지만 이 진리에 나는 곧 도달하지는 못했다.

하지만 페테르부르크의 주민에게 무엇이 갑판이고 돛대고 활대고 선창이며 사다리인지, 선수가 어디인지 선미가 어디인지 배의 주요부분이 어디인지 부속시설이 어디인지를 아는 것은 어려운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대개 뱃사람들 중에 아는 이가 없기 때문에, 또 뱃사람들이 어떻게 맞이할지를 몰라서 배를 방문하기를 꺼리는 것을 정당화한다. 하지만 그들은 마치 예전부터 잘 아는 지인처럼 당신들을 맞이할 것이다.

여름에 크론슈타트의 정박장에 가서 어떤 군함이든 함장이나 고참장교, 아니면 당직장교에게 배를 한번 둘러보고 싶다고 부탁을 해보시라. 만약 배에 '선원 전원작업'이 없다면, 난 당신이 아주 흡족히 응대받을 걸 보증할 수 있다.

전함에 도착해서 짐까지 들고 나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아무도 모르는 사람들 속에 완전히 고아로 남겨졌다. 나는 어쩔 줄 몰라서

주위를 둘러보고, 무더기처럼 쌓여 있는 내 짐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몇 분이 지나자 나에게 장교 세 명이 다가왔다. B.Sh.와 소위인 B.와 K.가 말이다. 그들은 나의 미래에 길동무이자 훌륭한 친구가 되었다. 그들과 함께 한 무리의 수병들이 와서 내 옆에 있던 짐들을 한꺼번에 집어들었다. 거의 나도 들어올릴 듯했다. 그리고 나에게 배정된 선실로 옮겼다. B.Sh.가 나를 선실에 들게 하는 동안 B.는 젊고 다부져 보이는 머리를 뺏뺏 깎은 수병 한 사람을 데려왔다. “여기 이 수병이 당신의 전령으로 배정되었습니다.” 그가 말했다. 그는 파제예프였다. “인사드리게 되어 영광입니다.” 그가 차렷 자세를 하고, 나를 향해 얼굴이 아니라 가슴을 돌려서 말했다. 그의 얼굴은 항상 그가 쳐다보는 물건 쪽으로 약간 비켜 향해져 있었다. 연한 갈색의 머리칼과 하얀 눈, 하얀 얼굴, 가는 입술은 그가 태어난 코스트로마가 아니라 핀란드를 연상시켰다. 이 순간부터 우리는 지금까지 항상 같이 있었다. 나는 그를 한 3주 정도, 그러니까 영국에 도착할 때까지 찬찬히 관찰하고 완전히 이해했다. 내 생각에 그는 아마 나를 한 3일 정도만에 파악한 것 같다. 이 총명함과 빠른 눈치가 외면상 코스트로마 출신의 굼뜬 수병의 엄격한 복종체계에 감추어져 있는 그의 마지막 장점은 아니었다. “선실에 짐을 놓는 걸 좀 도와주게.” 나는 그에게 첫 번째 명령을 내렸다. 그리고 내 하인이 3일 아침이나 걸려 할 일을 파제예프는 세 번 정도에 해냈다. 어떻게 해냈는지는 물어보지 말아주시기를 빈다. 그런 민첩성과 집요함은 수병들이 대부분 가지고 있다. 하지만 파제예프는 특별히 더했다. 반시간이 지나자 모든 게 제자리에 정리되었다. 그중에서도 책들은 옷장 위 구석에 반원형으로 쌓았는데, 배가 흔들릴 경우를 대비해 줄로 묶어놓았다. 그의 괴물 같은 힘과 기술이 아니면 한 권도 거기서 빼낼

수가 없을 정도였다. 결국 영국까지 가는 동안 나는 다른 사람의 책을 빌려서 보았다.

“당신은 아직 식사를 안하셨죠.” B가 말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점심을 다 끝냈습니다. 요기라도 조금 하시죠?” 그는 나를 장교 휴게실로 데리고 갔다. 그곳은 맨 아래 갑판에 있는 넓은 방으로 창문이 없이, 위쪽에 해치가 있어 그곳을 통해 빛이 많이 들어왔다. 장교 휴게실 주 위로는 장교들의 조그마한 선실들이 있고, 방 중간에 고물 돛대가 통과해 있는데, 둥그런 소파로 돛대를 둘러 싸놓았다. 장교 휴게실에는 긴 탁자가 있는데, 초등학교 교실에 있는 책상처럼 긴 의자가 붙어 있다. 그 탁자에서 장교들은 식사도 하고 일도 보고는 한다. 침대 겸용 소파가 하나 있고,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이 탁자가 크기는 하지만 배가 세계 요동칠 때는 이쪽에서 저쪽으로 내동댕이쳐지고는 했다. 한번은 우리의 선량하고 친절하고 자그마한 지휘관인 P.A.T.를 거의 깔아버릴 뻔했다. 장교 선실에는 침대와 옷장, 의자를 위한 공간만 있다. 옷장은 동시에 탁자로도 쓰인다. 하지만 모든 게 더 이상 좋을 수 없게 이 공간에 들어맞았다.

옷들은 칸막이에 걸려 있고, 속옷은 침대에 설치된 상자에 넣어 있으며, 책들은 선반에 꽂혀 있다.

장교 휴게실에는 장교들이 아무도 없었다. 모두 갑판 위에 있었다. 아마도 ‘선원 전원작업’에 가 있는 것 같았다. 차가운 전채요리가 나왔다. A.A.B.가 나를 대접했다. “죄송합니다. 뜨거운 음식이 아무것도 없네요.” 그가 말했다. “불을 모두 다 꺼버렸거든요. 화약 적재작업을 해서요.” “화약이라고요? 화약이 이 배에 많은가요?” 나는 큰 관심을 가지고 물어보았다. “한 오백 퍼드⁵ 정도 적재했죠. 아직 삼백 퍼드 더 받

아야 됩니다.” “화약이 어디 있는 거죠?” 나는 더 큰 관심이 생겨 물어 보았다. “바로 여기요.” 그는 바닥을 가리키면서 이야기했다. “당신 밑이에요.” 나는 내 밑에 500푸드의 화약이 있고, 지금 ‘선원 전원작업’이 다름 아닌 300푸드의 화약을 선창에 있는 창고에 적재하고 있는 것이라는 생각에 음식 씹는 걸 잠깐 멈추었다. “잘했군요. 불을 모두 꺼버렸더니.” 나는 미리 예견한 준비성에 칭찬을 하였다. “잘했다구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담배를 못 피우거든요.” 선실로 들어오면서 다른 사람이 이야기를 했다. ‘한 가지 똑같은 대상을 놓고도 견해의 차이가 이렇게 있구나!’ 당시에 나는 그렇게 생각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 포츠머스⁶에서 전함을 수리하기 위해 우리는 영국 해군성에 화약을 보관하러 맡길 때가 있었다. 그때 나는 불도 주지 않고, 담배도 피우지 못하게 한다고 무섭게 툄들거렸다.

저녁 무렵이 되자 모두가 모였다. 취사시설에 불이 붙여졌고, 차와 저녁을 주었다. 그리고 시가 연기가 피어올랐다. 나는 모두와 인사를 하였다.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마치 집에 있는 듯 편히 지냈다. 나는 전에 들은 풍문으로 판단해서 뱃사람들 사이에서 ‘차’라는 단어는 펀치 술을 뜻하는 알레고리로만 쓰인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장교들이 식탁에 다 모이자, 펀치 술을 마시는 ‘선원 전원작업’이 시작되고, 생기 넘친 대화가 타오르면서 마침내 우정 속에서 모든 게 설명되면서 일이 끝나고, 심지어 포옹과 말로 이 주연의 모든 프로그램이 종료될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리고 만족스럽게도 긴 식탁

5 러시아의 무게 단위. 1푸드는 16.38kg이다.

6 영국의 항구.

에는 단 한 병의 헤레스 포도주가 있을 뿐이고, 그나마 두 명 정도가 작은 잔에 따라 마셨고, 나머지는 그 술이 있는지도 모르고 있었다. 나중에 저녁 식사에 포도주를 아예 내놓지 말자고 제안하자 모두가 한마음으로 찬성하였고, 포도주를 아낀 여유분을 도서관에 정해진 금액에 보태자고 결정하였다. 그것에 관해서 저녁 먹으면서 긴 대화가 오고 갔다. 하지만 보드카에 대해선 어떤 언급도 없었다! 어느 늙은 뱃사람이 나에게 옛 시절에 대해 다른 것을 이야기해주었다! “얼어붙고 흠뻑 젖어서 당직 교대를 하고 나서는 편지 술을 여섯 잔이나 들이기곤 했대구요!”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다.

파제예프는 침대를 봐주었고, 나는 바깥이 지금 10월이고 비가 내리며, 발밑에 800푸드의 화약이 있음에도 배까지 이동하느라 지친데다, 신선한 공기의 자장가 소리와 새롭고 불쾌하지 않는 느낌들에 취해 물에서도 이렇게 자기는 드물게 폭 잠이 들었다. 아침에 잠에서 깨자마자 선실에서 나의 도시인 하인을 보았다. 그는 어제 저녁 물으로 돌아가지 못해 수병들과 함께 밤을 보냈던 것이다. “주인님!” 그는 불안에 싸인 애원하는 목소리로 말했다. “제발 바다로 가지 마세요!” “어디로 가지 말라고?” “가시는 데가 세상 끝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가는데?” “수병들이 말하기를 육로로도 가능하답니다.” “왜 바다로는 안 된다는 거지?”

“무슨 일이 벌어진거야?” “폭풍우가 칠 때 바람에 15명이 바다로 끌려갔답니다. 가까스로 끄집어냈는데, 한 명은 결국 물에 빠져 죽었대요. 제발 가지 마세요!”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가 파제예프가 지적해주었다. 배가 흔들리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바다에는 물이 소용돌이치는 곳이 있어서 배가 그런 소용돌이에 빠지면 곧바로 용골이 위로 뒤집혀버린다는 것이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나는 물었다. “그러

면 그런 장소가 어디 있는 거지?” “그런 장소가 어디 있냐구요?” 그는 내 질문을 반복했다. “항해사가 알고, 그리로 안 가죠.”

이리하여 우리는 닻을 올렸다. 바다는 사나웠고 노랬다. 구름은 젓빛이고, 불투명했으며, 비와 눈이 번갈아 내렸다. 이렇게 조국에서 떠나는 우리를 바라다주었다. 가로고정밧줄과 로프들은 얼어 있다. 플란넬 외투를 입은 수병들은 한 무더기로 바짝 달라붙어 있다. 전함은 삐걱거리는 소리와 신음소리를 내면서 이 파도에서 저 파도로 휘청거렸다. 우리가 떠나온 해안은 안개에 가려졌다. 가죽외투를 입고, 방수포 정모를 쓴 당직사관은 주위를 주의 깊게 둘러보고 있다. 그는 수염 말고는 어떤 것도 바깥에 내놓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수염은 얼어붙고 젖을 수 있는 완전한 자유를 만끽하고 있다. 누구보다 걱정이 많은 이는 ‘할아범’이었다.

고참 항해장교인 그에게는 배의 항로를 관찰하는 임무가 부여되어 있다. 핀란드 만은 모래톱들이 가득 차 있지만, 등대들로 훌륭하게 둘러쳐져 있어서, 맑은 날씨에는 넵스키 대로만큼이나 안전하다. 그러나 지금은 안개 속을 할아범이 바짝 긴장해서 시선을 집중시키고 있지만, 네르바 등대를 볼 수가 없다. 그의 걱정은 끝이 없었다. 그의 대화 내용은 단지 하나 오직 등대에 대한 것뿐이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지?” 그는 등대와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다녔다. 나에게도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계산상으로는 이미 반시간 전에 우린 그 등대를 봐야만 한다구. 그 등대는 저기 있어, 반드시 저기 있어야 돼,

7 네르바 등대는 네르바(Nerva) 섬에 있는 등대를 말한다. 네르바 섬은 핀란드 만 동쪽에 있는 암석으로 이루어진 작은 섬이다.

여기 이 밧줄 반대편에 말이야.” 그는 짧은 손가락으로 안개를 가리키면서 투덜댔다. “질은 안개가 방해할 하는구만. 잠깐, 너 좀 봐라! 안 보여?” 그는 수병 중 한 사람에게 말했다. “저기 마치 화살처럼 생긴 건 뭐죠? ……” 내가 이야기했다. “어디요, 어디?” 그가 활기차게 물었다. “저기요, 제 생각엔 ……” 내가 저 멀리 가리키면서 이야기했다. “아이고, 정말로, 그래, 맞아요, 맞아! 보인다, 보여.” 그가 선장과 고참장교, 그리고 당직사관에게 정중히 말하고는 선실에 지도를 보러 뛰어갔다. 그리고 다시 갑판 위로 나왔다. “보인다. 저기, 저기. 등대가 보인다!” 그는 마치 친아버지를 만난 것처럼 기뻐하면서 같은 말을 계속 반복했다. 그리고 결점을 재고, 계산하러 갔다.

우리는 고틀란드⁸를 통과했다. 거기서 나는 바다의 미신 하나를 알게 되었다. 이 섬과 나란히 서는 위치에서 지나가는 배는 이 섬을 지키는 영혼에게 폭풍 없이 무사히 이 섬을 통과하기 위해 동으로 만든 동전을 던진다는 것이다. 고틀란드는 평평한 옆면을 지닌 큰 돌섬이어서 배를 댈 만한 곳이 없다. 지나는 배들이 화난 폭풍의 영혼에게 전리품이 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고, 난폭한 바다는 난파한 뱃조각들, 가끔씩은 손님을 받기 않는 이 섬의 측면에 시체들을 높이 던져 올렸다. 우리는 보른홀름 섬⁹도 통과하였다. 여러분들은 기억하시죠. ‘다정한 보른홀름’과 카람진¹⁰의 비밀스럽고 다 말해지지 않은 전설을 말입니다.

8 고틀란드(Gotland). 스웨덴 동쪽의 발트 해에 있는 작은 섬이다.

9 보른홀름(Bornholm). 발트 해에 있는 덴마크의 섬이다. 코펜하겐에서 남동쪽으로 169km, 스웨덴에서는 남동쪽으로 35km 떨어져 있다.

10 니콜라이 카람진(1766~1826). 러시아의 뛰어난 작가이자 역사가. 문학에서는 러시아 감상주의를 이끌었다. 그가 쓴 「가련한 리자」(1792)는 감상주의 문학

모든 게 चु고 음침했다. 전함에는 콜레라가 발병했다. 그리고 우리는 덴마크까지 가기도 전에 세 명의 장례식을 했고, 한 용감한 수병은 발을 헛디더 폭풍우치는 바다에 떨어져서 빠져 죽었다. 이렇게 우리는 바다와 약혼식을 했고, 내 하인의 예언은 일부분 이루어진 셈이 되었다. 물에 빠진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것은 거센 물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희생하지 않고는 불가능했다.

하지만 날들은 자신의 순서대로 갔고, 배에서의 삶도 마찬가지로였다. 근무를 하고, 점심을 먹고, 저녁을 먹는다. 모든 게 호각소리에 따라서 말이다. 심지어는 호각소리에 따라 흥겹게 놀기도 한다. 점심, 이것도 또한 일종의 선원 전원작업이다. 포갑판에 ‘탱크’라고 이름 붙여진 큰 용기가 설치되었고, 공동의 큰 가마솥에서 퍼낸 음식을 거기에 담아놓았다. 한 가지 음식만 주어졌다. 소금에 절인 고깃국·생선국·쇠고기국. 아니면 죽이 나왔다. 저녁에도 마찬가지로, 가끔 죽을 주었다. 어느 날 나도 한번 맛을 보러 갔다. “맛있게들 들게!” 내가 말했다. 수병들 중 하나가 예의를 차리느라 자신의 나무 숟가락을 깨끗이 훑아서 내게 주었다. 국은 강한 양파 냄새와 함께 맛있었다. 물론 수병들 같은 위가 요구되는데, 무슨 뜻이냐 하면 수병들이 좋아하고 바다에서 유익한 음식인 소금에 절인 고기 조각이나, 삶은 양배추와 섞은 양파를 소화시키려면 수병들 식으로 움직여야만 된다는 말이다. 하지만 점심에 한 가지 음식만 주는 것은 너무 적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수병들은 아마도 배고플 텐데 말이다. “여러분들은 많이들 드시나요?” 내가 물어보았다. “아주 실컷 먹습니다, 나리님.” 점심 식사를 하던 수병들이 일제

을 대표한다. 1793년에 「보른홀름 섬」이라는 작품을 발표했다.

히 대답했다. 실제로 밥을 먹는 이 그룹 저 그룹에서 수병들이 빈 접시를 가지고 공동 가마솥으로 부리나케 뛰어가서는 접시 끝까지 가득 채워서 조심스럽게 돌아왔다.

나는 호각소리에 따라 흥겹게 여흥을 가진다고 말했다. 400명의 사람들이 밀집해 있는 이곳에서는 여흥도 공동의 순서에 따른다. 점심식사를 마친 후 작업이 종료되면 특히 일요일 같은 때 통상 이런 명령이 떨어진다. “가수들 갑판에 집합!” 그리고 여흥이 시작된다. 나에게 기괴한 놀라움을 주었던 특별히 기억되는 한 일요일이 있다. 차가운 안개가 하늘과 바다를 덮었고, 가는 비가 내리고 있었다. 나는 그런 날씨에는 생각에 잠기거나 집중하기를 원하는데, 수병들은 노래 부르고 춤을 추었다. 하지만 그들은 이상하게 춤을 추었다. 힘이 잔뜩 들어간 동작들은 몰두하는 것과는 달리 분명히 그리 조화롭지 않았다. 춤을 추는 수병들은 말이 없고, 그들의 표정에는 켜켜하는 모습이 있는데, 심지어 침울하기까지 했다. 하지만 그들은 열심히 다리를 움직였다. 주위에서 지켜보던 사람들도 그들과 똑같이 켜켜하는 침울함으로 뿔어지게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들의 춤은 집중된 노동과 같은 모습이었다. 아마도 오늘은 축제일이니, 따라서 즐거워야만 한다는 생각 하나로 춤을 추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이 기쁨을 취소하기라도 한다면 그들은 매우 불만스러울 것이다.

항해는 단조로워졌다. 솔직히 말하자면 조금 지겨워졌다. 모든 게 회색 하늘과 노란 바다. 눈이 섞인 비 아니면 비가 섞인 눈, 누군들 지겹지가 않겠는가. 나는 벌써 이빨과 관자놀이가 아파왔다. 류머티즘은 어느 때보다도 더 자신에 대해 기억을 해달라고 아우성쳤다. 나는 뺨을 칭칭 감싼 채 따뜻한 담요로 온몸을 둘둘 말고는 며칠 누워 있었다.

덴마크 해안에 다다라서야 따듯한 바람이 불어왔고, 우리는 생기를 찾았다. 콜레라는 자신의 모든 흔적과 함께 사라졌고, 내 류머티즘도 진정되어서 나는 길거리 - 나는 갑판을 이렇게 불렀다 - 로 나가기 시작했다. 하지만 폭풍우는 우리를 아직 버리지 않았다. 발트 해는 가을에 이런 식이다. 하루 이틀 날들이 평온하게 지나간다. 이때는 마치 바람이 자신의 힘을 모으는 것 같다. 그리고는 갑자기 돌발해서 가없는 배는 마치 살아 있는 생물처럼 신음소리를 낸다. 낮이나 밤이나 배에서는 기상 상태를 매우 주의해서 살핀다. 기압계가 모두의 신탁(神託)이 되었다. 수병과 장교는 교대할 때까지 폭 자는 걸 기대하지 못하게 되었다. “전원 갑판으로!” 명령소리가 밤의 정적 속에 울려 퍼졌다. 나는 내 방 간이침대에 누워서 모든 기척들, 고함소리, 돛의 움직임, 명령들을 들었고, 명령들의 의미를 이해하기 시작했다. “상측 돛과 보조 돛을 펼쳐라.” 이 명령을 들을 때는 편안히 담요를 덮고 걱정 없이 잠을 잘 수가 있다. 모든 게 조용하고 편안하다는 뜻이다. 그렇지만 “돛을 접어 줄여라”라는 명령이 들릴 때는 주의 깊게 듣고 있어야 한다. 그 때는 잠을 자지 않은 편이 낫다. 어차피 억지로 깨게 될 테니 말이다.

우리는 순드 해협¹¹으로 들어섰다. 우리의 평평한 스텝 지방밖에 보이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여기에서 처음으로 태양과 거리에 따라 황금색으로, 연자색으로, 회색으로 빛나는 산들의 풍경이 안개 속에서 나타났다. 스웨덴의 해안은 산이 많지만, 덴마크 해안은 흰히 보였다. 덴마크 해안은 우리에게 시들어버린 가을 초목과 군데군데 나무가 있는 풍경

11 순드(Sund) 해협. 스웨덴과 덴마크의 젤란드 섬 사이에 있는 해협으로 북해와 발트 해를 연결한다.

을 선사했다. 낭만주의자들은 양 해안의 요새들을 보면서 햄릿의 무덤을 회상했다. 좀 더 긍정적인 사람들은 스톤 관세조약의 불공정에 대해 논의를 했고, 가장 긍정적인 사람들은 신선한 식료품을 저장해야만 하는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했다. 하지만 모두가 공통으로 꿈꾸고 원하는 것은 하루 동안 육지에 상륙하여 덴마크 땅을 밟아보고, 코펜하겐을 돌아다니면서 도시의 얼굴을 구경하고, 사람들과 풍속들을 구경하면서 배 요동에 시달린 다리를 풀고, 신선한 굴을 먹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다음 날 폭풍이 울부짓기 시작했고, 육지와 의 연락이 두절되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하기로는, 3일간을 슬픈 무위 속에서 머물러 있었다. 해안이 뻗히 보이는 곳에서 그곳에 상륙할 가망 없이 정박해 있는 것은 바다에서 해안을 보지 못하고 한 달간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지루하다. 나는 이것을 전적으로 확신한다. 점심 식사를 하고, 차를 마시고, 이야기를 나누고, 책을 읽고, 양 해안의 지도를 외울 정도로 공부해도, 그래도 시간이 많이 남았다. 이따금 뜻하지 않은 오락거리가 이런 단조로움을 깨트리기도 했다. 가끔 선장실로 당직장교가 뛰어 들어와서는 황급히 이야기한다. “상인이 덤벼듭니다, 각하!” 책이며 식사 모두 던져버리고, 갑판으로 달려갔다. 나도 위로 갔다. 정말로 상선이 - 바다에서는 간단히 ‘상인’으로 불린다 - 군함과는 달리 조류에 끌려갔거나, 아니면 조종할 능력이 없었던지, 선수와 선미를 이리저리 부스러뜨리고 있었다. 자칫하면 부딪쳐서 석탄재를 상하거나 활대를 부러뜨리고, 자기와 다른 배에게 얼마나 피해를 입힐지 예측할 수도 없을 정도였다. 고함소리, 왁자지껄한 소리, 위협들이 시작되었다. 한쪽에서는 러시아어로, 다른 쪽에서는 원기 있는 대답과 변명들이 네덜란드어와 영어·독일어로 오고 갔다. 북새통 속에서 서로가

듣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했다. 하지만 서로 떨어지는 걸로 일은 마무리되었다. 그리고 모든 게 잠잠해졌다. 배는 조용해졌고, 다시금 움직이지 않고 고정되었다. 단지 보초병만 생각에 잠겨 총을 들고 앞으로 뒤로 다닐 뿐이다.

밤에 빛이 멀리서 보이면 더 큰 경보다. 상선의 주의를 기대해서는 절대 안 된다. 상선은 모든 게 경제원칙에 희생되어 있다. 그래서 상선에는 선원들이 적다. 조타수는 거의 대부분 혼자다. 밤에 그가 키를 붙잡고 즐지 않거나, 다가오는 불빛을 놓쳐버리지 않기를 기대하고 있을 수는 없다. 두 배가 충돌하면 두 배 중 하나, 작은 배가 침몰하는 것은 피치 못할 일이 된다. 하지만 가끔은 두 배가 다 침몰하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편에서 다가오는 불빛을 멀리서 보게 되면 배에서는 왠지 자지결한 요란한 소음을 항상 만들어올리고, 고함을 지르고, 북을 두드리고, 신호용 불꽃을 태운다. 만일 그래도 방향을 바꾸지 않으면 대포를 쏜다.

이것이 참으로 싫었던 것은 많은 이들이 선실에서 자고 있고 무슨 일인지도 모르는데 갑자기 두들기는 소리가 울려퍼지고 이 소리에 배가 진동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것에도 역시 적응하게 된다.

B.Sh. 혼자 일을 보러 물으로 보내졌고, 그다음 수로 안내인을 불러서 폭풍우가 잠잠해졌을 때 우리는 슌드 해협을 통과하였고, 카테가트 해협¹²과 스카게라크 해협¹³으로 향했다. 그 해협들을 우리는 하루 만

¹² 카테가트(Kattegatt) 해협. 서쪽으로 덴마크의 유틀란트 반도, 남쪽으로 셸란 섬, 동쪽으로 스웨덴 사이에 남북으로 나 있는 해협이다. 북쪽에 있는 스카게라크 해협을 통해 북해와 연결되고, 외레순드 해협, 그레이트벨트, 리틀벨트를 통해 발트 해와 연결된다. 이 해협은 면적 25,485km², 길이 220km, 너비

에 통과했다.

나는 이때 훌륭한 책 한 권을 읽고 있었는데, 완전히 새로 읽는 것도 아닌데 도저히 손에서 뗄 수가 없었다. 그것은 『선박 난파의 역사』로 예전이나 오늘날의 유명한 난파의 경우를 그 후 결과들과 함께 모아놓은 책이었다. V.A.K.는 먼저 읽고 나서, 그의 말을 빌리면 ‘나의 상상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나에게 읽어보라고 주었다. 100여 개의 무시무시하고 비참한 난파 이야기를 연달아서 읽는 것은 참 좋은 진정이었다. 바다에서 3년쯤 보낼 예정으로 배를 탔는데 말이다. 그 책에는 배가 바위와 어떤 식으로 부딪혔는지, 어떻게 배가 옆으로 기울어졌는지, 돛대와 갑판이 어떻게 허물어졌는지, 수백 명의 사람들이 어떻게 죽었는지, 어떤 사람들은 대포에 깔려 죽고, 다른 사람들은 물에 빠져 죽고 …… 이런 이야기들만 하고 있다. 자기 주위를 둘러보면 돛대·갑판·대포들이 보이고, 가까이에서는 웅변적인 정적 속에 짐승처럼 울부짖는 바람소리가 들리고, 아름다운 절벽이 서 있다. 여러분들은 여행자의 운명에 몸서리쳐지는 게 한두 번이 아닐 것이다! …… 하지만 나는 위험한 여행에 대한 이야기들을 읽고 듣는 것이 그것을 경험하는 것보다 훨씬 더 무섭다는 것을 확신한다. 죽어가는 이를 바라보는 사람이 죽는 이보다 훨씬 더 무섭다고들 하지 않는가.

60~142km, 수심 26m이다. 발트 해에서 흘러드는 민물 수면(水面) 해류가 해협의 염도를 3%까지 저하시킨다. 래쇠·안홀트·삼쇠 등의 덴마크 섬들이 이 해협에 있으며, 스웨덴의 예테보리·할름스타드와 덴마크의 오르후스 등이 주요항구다. 이 해협은 중요한 무역항로이며, 여름 휴양지로도 인기가 높다.

13 스카게라크(Skagerrak) 해협은 노르웨이의 남해안, 스웨덴의 서남해안과 덴마크의 월란 반도 사이의 해협이다. 북해와 카테가트 해협을 잇는다.

나중에 배의 구조와 난파의 모든 이야기들을 깊이 알게 되면, 여러분들은 배가 그렇게 쉽게 그렇게 빨리 침몰하지 않는다는 것을, 배는 마지막 판대기까지 바다와 싸우며 자신을 방어하고 보호하기 위한 많은 방법들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또 배는 자신의 모든 선원과 거의 모든 부분들을 잃고 뼈대만 남은 상태로도 파도를 따라 1,000마일을 더 가면서, 오랫동안 사람의 삶을 보호한다는 것도 말이다.

어찌할 수 없는 난파의 운명과 몹시도 사나워진 바다 사이에서 완강한 투쟁이 시작된다. 한쪽은 불가항력적인 힘이 있고, 다른 한쪽은 절망, 그리고 침몰을 단계적으로 규칙에 따라 진행시키려는 명철한 계획이 있다. 침몰을 대비하는 많은 이론들이 존재한다. 폭풍이 배의 돛대 세 개를 모조리 부러뜨려버렸다면, 어떻게 침몰하지 않게 할 수 있을까? 이걸 마치 날뛰는 말에게서 고삐를 떼버린 것이나 같지 않은가? 그런데 사실은 예비 목재로 임시 돛을 만들어 세우면 배는 간다. 키가 뿔뿔해버렸다면, 놀라운 민첩성이 구조의 희망을 준다. 그리고 임시 키를 만든다. 배에 큰 구멍이 생겼다면 우선 첫 번째로 돛으로 덮고는 아마 포로 구멍을 ‘빨아들이고’, 물을 통과 못하게 한다. 그러는 사이 수십 명의 손들이 새로운 널빤지를 준비해서 틈에 박아넣는다. 마침내 배가 투쟁을 포기하고 바닥으로 가라앉으면, 사람들은 탑재한 보트로 달려간다. 이 보잘것없는 쪽배로 가장 가까운 해안에 도달하는 것이다. 가끔씩은 1,000마일을 가기도 한다.

게르만 해¹⁴에서 폭풍이 잠잠해졌을 때 우리는 그런 희망 없는 배 한

14 게르만 해(German Ocean)는 북해(北海, North Sea)의 옛 이름이다. 북해는 노르웨이와 영국 제도 사이에 있는 대서양 북동부의 수심이 얇은 부속해로 노

척을 보았다. 우리는 처음에 그 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몰랐다. 우선 깃발을 볼 수 없었다. 우리가 자신의 깃발을 올리면서, 당신들 깃발을 보여달라고 요청을 해도 깃발을 올리지 않았다. 좀 더 가까이 다가가자 우리는 그 배에 아무런 움직임이 없는 것을 알았다. 마침내 보트로 그 배에 가보았는데 아무도 없었다. 배는 버려진 것이었다. 선창은 점점 물이 차오르고 있었고, 만일 우리가 그곳에 계속 머물러 있었더라면, 그날이 끝날 무렵에는 그 배가 바닥으로 가라앉는 것을 보았을 것이다. 아시겠습니까, 희망이 없는 배라도 침몰하려면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 그날의 끝 무렵까지 말입니다! 하지만 그 배는 자신의 이성과 의지, 즉 선원들을 모두 잃었다. 때문에 싸우기를 멈추고, 유순히 죽어갔다. 배의 선수가 물에 기울어졌다. 모든 죽음의 광경처럼 슬픈 모습이다.

이날 이 배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우리는 멀리 몇 개의 짐들이 있는 것을 보았고, 외침소리를 들었다. 망원경으로 살펴보니 보트 몇 척이 있었다. 좀 더 다가가니 사람의 목소리를 확실히 분간할 수 있었다. “필경 어부들이야.” 선장이 말했다. “아닙니다.” O.A.가 반대 의견을 말했다.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시지요. 이건 아마도 죽어가는 이들이 도움을 요청하는 것 같습니다. 배를 돌리지 않으시겠습니까?” 선장은 아니라고 확신했지만, 영혼에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어부들 쪽으로 노선을 잡았다. 그렇지만 그는 쓸데없이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 매우 마음에 들지 않았다. 군함은 바다에서 노닐고 있을 시간이 없기 때문이다.

르웨이 해 남쪽에 있다. 노르웨이와 덴마크 사이에 있는 스카게라크 해협과 영국과 프랑스 사이에 있는 영국해협을 연결한다.

“만약 그렇다면.” 그가 으르렁거렸다. “어부들이 물고기 사라고 외치고 있는 거라면 …… 소방호스를 준비하도록!” 그는 당직장교에게 명령했다. 수병들에게 물을 퍼올리고, 호스를 준비 상태로 대기하도록 명령이 내려졌다. 검은 점들은 그러는 사이에 보트로 변했다. 사람들이 보였는데, 보트에 서서는 내 생각에는 네덜란드에서도 들을 수 있을 만큼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더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들은 우리에게 손을 뻗어 물고기를 사라고 애원하고 있었다. 보트에 바싹 배를 붙이라고 명령이 떨어졌다. “소방호스!” 당직장교가 고함쳤다. 그리고 어부들에게 푸짐한 샤워가 쏟아졌다. 이걸 우리 수병들에게 말할 수 없는 만족감을 주었는데, 어부들도 마찬가지로였던 것 같다.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와 함께 깔깔대고 웃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선장은 공연히 그렇게 시간을 아낀 셈이 되어버렸다. 우리는 10월 20일에서 21일에 포츠머스¹⁵에 도착할 것으로 계산했다. 하지만 게르만 해에서 눈에 보이는 어부들이 있으면 전부 배를 돌려서 돌아볼 수 있을 정도의 시간만큼 머물러 있게 된다. 계속 맞바람이 부는 바람에 열흘 동안이나 영국해협¹⁶으로 들어설 수가 없었다. “당신은 열흘 동안 도대체 무얼하셨죠?” 여러분들은 물어본다. 페테르부르크에서 크론슈타트 사이 한 시간의 이동도 지켜온 당신들은 배에서 열흘을 어떻게 보낼 수 있는지 상상하기가 힘들실 게다. 예, 바다에서 몇 시간 있

¹⁵ 포츠머스(Portsmouth)는 영국 잉글랜드 남부의 항구도시로, 영국에서 가장 중요한 군항도시다.

¹⁶ 영국해협(英國海峽, the English Channel)은 영국 남해안과 프랑스 북서 해안 사이에 있는 해협이다. 프랑스어 명칭은 라 망슈(la Manche)다.

는 것은 지겹습니다. 하지만 몇 주일은 괜찮습니다. 몇 시간은 그 시간에 무얼 할 수가 없지만, 몇 주는 이미 무슨 일에 이용할 수 있는 밀천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우리에게는 오락거리가 있었다. 제비와 쇠돌고래가 나타난 것이다. 그것들은 검고 살찐 등을 보여주면서 파도 사이를 아주 재미있게 솟구쳐올랐다. 밤이면 우리는 뱃전에 기대어 깊은 바다 속에서 빛을 발하는 조그만 생물들이 내는 인광 빛의 반짝임을 지켜보곤 했다.

발트 해를 향해하면서는 우리의 식사는 매우 호화로웠다. 예비식량은 신선했고, 주방장은 솜씨가 훌륭했다. 하지만 맞바람이 불기 시작하자, 맞바람 때문에 바다에 오래 지체하지나 않을까 우려하기 시작했고, 신선한 예비식량은 아껴놓기로 결정했다. 그 우려는 정확한 것이었음이 드러났다. 포츠머스까지는 300마일 정도 거리가 남아 있었다. 그 거리는 하루 만에 지나갈 수도 있었다. 그런데 우리는 바다에서 열흘을 항해를 한 것이다. 그것도 오직 한 노선을 따라서 말이다. “우리가 지금 어디 있죠?” 아침에 깨자마자 할아범에게 물어들 본다. “바다에 있지.” 그는 화가 나서 말한다. “그건 당신한테 안 물어봐도 알 수 있소.” 더 화가 나서들 대답한다. “대체 어느 위치에 있는 거요?” “저기 둘러보시오. 안 보이십니까? 어제 있었던 곳과 모두 똑같죠. 깰로퍼 등대 근처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린 어디로 가는 겁니까?” “어제 우리가 가려고 했던 곳으로요. 도저 뱅크¹⁷로요.” 뱅크¹⁸는 전반적으로 깊이가

17 도저 뱅크(Dogger Bank)는 영국 동부의 북해에 있는 얇은 바다다. 청어·대구·정어리·가자미 따위가 풍부한 세계적인 어장이다.

18 천퇴(淺堆) 또는 해퇴(海退)라고도 불리는 해저지형으로 대륙붕(大陸棚)에 언

얇은 바다다. 하지만 큰 배도 지나갈 만큼의 깊이는 가지고 있다. 뱅크에서는 안전할 뿐만이 아니라, 심지어는 파도치는 것도 느끼지 못할 정도다. 그곳에는 특히 네덜란드 어선들이 진을 치고 있으려고 한다.

“자, 이제 움직이는 겁니까?” 저녁에 우리의 신탁인 할아범에게 물어본다. “당연하죠. 돛을 활짝 펴고, 7과 2분의 1노트로.” “이제 앞으로 움직이는 겁니까?” 참지를 못하고 물어뜯는다. “물론입니다. 앞으로, 깰로퍼 등대로.” 할아범이 대답한다. “이제 틀림없이 보일 겁니다!”

그 결과로 식탁에는 소금에 절인 고기가 자주 올라왔다. 바다의 폭풍우로 늪어버린 닭이나 오리, 다 큰 돼지 수준까지 자란 새끼돼지는 아주 맛있는 음식에 들어갔다. 심지어는 민물도 매일 배급을 주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1인당 하루에 두 컵씩 주다가, 나중에는 한 컵만 주었다. 이것도 음료용만이었고, 씻는 것은 바닷물로 하는 걸 권했고, 아니면 아예 씻지 말든지 아드리비툼¹⁹이었다. 여러분들께 비밀 하나를 이야기하면, 파제예프는 선창 담당 하사관인 테렌치예프의 주의를 살짝 속이고는 매일 아침 그의 면전에서 물저장 탱크에서 한 항아리씩 물

덕 모양으로 높게 발달된 것을 말한다. 이는 육지에서 하천이나 빙하가 운반해 온 여러 물질이 퇴적된 돌출부로, 부근에는 상승류가 일어나고, 이에 따라 심층의 풍부한 영양분을 표면 가까이 가져오게 되고, 또 일광도 투입되기 쉽기 때문에 많은 어류가 모여 자연히 좋은 어장이 된다. 북해의 도거 뱅크, 그레이트 피셔 뱅크, 북미 대서양 연안의 그랜드 뱅크, 생피에르 뱅크가 이에 해당된다.

¹⁹ 아드리비툼(ad libitum). 라틴어로 ‘뜻대로’, ‘마음대로’, ‘자유롭게’ 라는 뜻이다. 음악 용어로 쓰이며 악보에서 자유롭게 연주하라는 말이다. 연주자의 자유에 맡긴다는 표시로, 기본적인 속도를 변화시켜 연주하거나 어떤 성부나 악기의 파트를 추가 또는 생략할 수 있다.

을 떠서 나에게 씻으라고 가져오고는 했다. “가져왔어요.” 그는 선실로 항아리를 들고 뛰어 들어오면서 매번 기쁘게 이야기했다. “자, 나리, 빨리 씻어요. 괜히 누구 만나서, 어디서 물 구했느냐고 물어보기 전에. 난 나리 닳을 닳을 수건 갖고 올 테니 말이요!” (정말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짓말이 아닙니다!) 나는 이런 코스트로마식의 순박함이 정말 마음에 들어서 판 사람들에게 파제예프가 나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올바른 것인지 절대 가르치지 말라고 부탁했다. 그는 이렇게 한 3일 물을 가져왔다. 그런데 하루는 빈 항아리로 돌아와서는 뒤통수를 손으로 헹클고, 등을 긁고 허허 웃고 있었다. 웃고는 있는데 웬지 어떤 부자연스러움이 보였다. “에이! 제길, 악마 같은 놈, 머리를 그렇게 후려치다니!” 그가 등과 머리를 쓰다듬다가 마침내 이야기했다. “누구 얘기야? 또 무슨 일로?” “테렌치예프 말입니다. 망할 놈 같으니! 봐버렸거든요. 그 개자식이! 물을 퍼서 사다리를 이미 올라가고 있는데, 그놈이 어디 선가 뜻밖에 나타나서는 항아리를 뺏더니, 물을 다시 부어버렸습죠. 그리고는 뒤통수를 후려치지 않겠습니까. 나는 사다리로 도망치고, 그놈은 뒤쫓아와서는 활차 밧줄로 등을 갈기고!” 그리고 다시 웃기 시작했다. 나는 이미 여러분에게 쓴 적이 있다. 누가 관계됐든 모든 종류의 실패는 파제예프를 기쁘게 한다고 말이다. 지금 경우는 자신이 겪은 실패도 기쁨의 동기가 된 모양이다.

선창에 관련된 주 감독은 P.A.T에게 맡겨져 있었다. 그는 언제나 착하고 친절한 사람이다. 그에게 조금만 비위를 맞추어주면 그가 들어주지 않을 부탁이 없을 정도다. 모두가 이걸 알고 있었고, 그의 선량함을 조금씩 이용하기도 했다. 그는 모두의 선택으로 장교 식당의 일을 맡고 있었다. 이 일은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신세를 지을 많은 경우가 생기고,

이 사람은 이 음식을 좋아하고 저 사람은 싫어한다는 등의 것들을 기억해야 한다. 그는 종종 자신이 지고 있는 의무에 희생이 되기도 했다. 어떻게 많은 사람을 만족시킬까 어려워했지만, 대개는 이 어려움에서도 승리자가 되고는 했다. 그리고 가끔씩은 성급한 성격이 튀어나오기도 했다. 이 모든 것들이 깰로퍼 등대에서 도거 뱅크 사이의 시간뿐만 아니라, 회귀선과 적도, 사대양에서 우리를 즐겁게 해주었고 그리고 지금까지도 즐겁게 해주고 있는 수많은 장면을 만든 원인이 되었다. 예를 들면, 누군가 수프를 먹지 않는 걸 그가 발견했다. “왜 수프를 안 드시죠?” 하고 그가 물어본다. “그냥요, 별로 먹고 싶지가 않아서요.” 보통 이렇게들 대답을 한다. “아닙니다,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가 이렇게 고집을 부린다. 자신의 일에 소홀하거나, 아니면 능력이 부족하다고 뭐라고 할까 하는 걱정 때문에 그는 괴로워한다. 특히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는 능력이 부족하다고 할까 매우 걱정한다. 그래서 극히 꼼꼼하게 챙기는 편이다. “예, 정말입니다. 먹고 싶지가 않네요. 뭔가가……” “아닙니다, 아마 수프가 맛이 없겠죠. 괜히 안 드시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말씀을 해주세요!” 결국, 그 사람은 뭔가를 이야기하기로 결심하게 된다. “예, 오늘은 뭔가 수프가 맛이 없네요…….” 그 사람이 말을 다하기도 전에 온순한 P.A.가 사나워진다. “수프가 뭐가 맛이 없다는 겁니까? 여쭙봐도 되겠습니까?” 그는 격분해서 갑자기 물어본다. “제가 직접 식료품을 구입했고, 여러분들을 만족시키려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 보답이군요! 수프가 뭐가 안 좋다는거죠?”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정말로…….” 그 사람이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한다. “아닙니다, 말씀을 해주십시오. 이 수프가 뭐가 안 좋은지. 저는 그것을 요구합니다.” 그는 전체를 둘러보면서 말을 계속한다. “스무 명의 사람이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는데, 유독 당신만 …… 여러분! 저는 여러분께 묻습니다. 이 수프가 뭐가 안 좋단 말입니까? 저는 모든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 눈물이 어리고, 걱정적인 어조로 말한다. “여러분들은 저에게 신뢰를 표시해주셨습니다. 희망컨대 이때껏 제가 이 신뢰에 보답해왔다는 데에 대해 누구도 반대하지 않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저에게 주어진 신뢰를 소중히 여깁니다 …….” 그리고 모두가 다 함께 요란하게 웃기 시작하고, 마침내 그 자신도 웃을 때까지 이런 식의 말을 계속하였다. 가끔씩은 식당 다른 편 끝에서 낮은 소리로 채소가 신선하지 않다느니, 비싸다느니, 누가 육지에 가서는 더 좋고 더 싼 것을 본 것처럼 이야기들을 하고는 했다. “거기 당신들 뭘 그렇게 소곤거리는 거요? 여쭙봐도 되겠습니까?” 그가 준엄하게 물었다. “당신이 무슨 관계인데요?” “만약 식사에 관계된 거라면 이 음식이 뭐가 좋지 않다거나 비싸다는 걸 찾아내 주십시오. 그리고 저를 이 책임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나는 당신들의 신뢰를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만약 제가 의심을 불러일으켰거나, 여러분들에게 어울리지 않는다면, 나는 이 직책을 사양할 준비가 …….” 그는 심지어 일어나서 냅킨을 내려놓았다. 하지만 모두의 요란한 웃음이 다시금 그를 자리에 앉게 했다.

모두의 관심과 동정에 습관이 붙은 그는 이따금 까다롭게 구는 것을 좋아하였다. “아이고!” 하고 탄식을 하면서 한숨을 크게 쉬고는 몸이 편치 않다거나, 임무에 지쳐서 힘들다고 불평을 하면서 위로를 요구하였다. ‘비틀비틀!’ 잠을 자러 가면서 그는 피곤한 듯 맥없이 자신의 연락병을 큰소리로 불렀다. “난 오늘 너무 피곤하다. 내 옷을 좀 벗기고, 눕혀라.” 옷을 벗기는 동안 한숨과 불평이 쏟아져나왔고, 그건 칸막이 너

머 모두에게 들렸다. “내일 당직 서러 일찍 일어나야 돼.” 그는 한숨을 쉬면서 이야기했다. “베개를 좀 더 놓아줘, 좀 더 높이, 잠깐만, 가지 말고, 내가 무슨 생각이 날 것 같아!”

이런 그에게 나는 씻을 물을 한 컵 내줄 수 있냐고 부탁하러 갔다. 바닷물에는 비누가 잘 안 풀어지고, 나는 뱃사람이 아니고, 바다의 생활방식에 익숙하지가 않다. 그러니 엄격한 기준을 나에게 적용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등의 이야기였다. “당신은 아십니까.” 그가 나의 손을 붙잡으면서 이야기를 시작했다. “제가 얼마나 당신을 존경하고, 또 당신이 여기 머무르고 계신 걸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요. 당신은 이걸 의심치 않으시지요?” 집요하게 그는 캐물었다. “예.” 나는 혹시나 그가 민물을 주지나 않을까 하는 기대에서 감정을 담아 확인조로 말하였다. “믿으십시오.” 그는 자기 이야기를 계속했다. “만일 제가 바다 한가운데서 목이 말라 죽을지라도, 전 마지막 물 한잔은 당신께 드릴 겁니다. 당신은 이걸 믿으시지요?” “예 ……” 나는 이미 주저하면서 대답을 했다. 물을 얻을 수 없을 거라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걸 믿으십시오.” 그는 계속했다. “하지만 저는 괴롭고 부끄럽습니다. 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 신이시여! 왜 이게 …… 당신은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 제가 바라지 않는다고, 원치 않는다고 …… (같은 말이 흘러 쏟아졌다). 아닙니다. 제가 원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명령이 없었습니다. 제발 믿어주십시오. 만약 아주 조그만 가능성이라도 있으면, 당신은 의심치 않으시길 희망합니다 ……” 그리고 자신의 독백을 반복하였다. “뭐, 할 수 없지요!” 내가 말했다. “나는 이게 그렇게 엄격하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는 완전히 거절하기가 쉽지 않았다. “당신은 파제예프가 몰래 물을

가져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말했다. “예.” “그 대가로 전 그놈을 선수감판으로 보내버릴 겁니다.” “당신은 테렌치에프가 활차 밧줄로 한 대 먹인 걸로 모자란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지적했다. “당신은 더 뭘 보태고 싶으십니까? 게다가 나는 그 이야기를 당신을 믿고서 했는데, 당신은 그럴 권리가 없으십니다.” “예, 예, 맞습니다. 그건 제가 그냥 ……” 그가 중간에 내 말을 끊었다. “그놈이 계속 물을 한 항아리씩 떠가도록 하시죠. 하지만, 항아리 이상은 안됩니다. 만약 그놈이 테렌치에프에게 붙잡힌다면 활차 밧줄로 맞거나, 뒤통수를 맞을 겁니다. 매일 그러진 않겠죠.” “만약 테렌치에프가 당신에게 알려거나, 당신이 직접 붙잡았을 땐, 그때는 ……” “선수감판으로 보낼 겁니다!” 한숨을 쉬면서 P.A.가 덧붙였다.

지금 나는 파제에프가 나에게 민물을 갖다주기 위해서 선창으로 탐험을 계속했는지 이미 잊어버렸다. 심지어 우리가 등대와 뱅크 사이에서 여행의 남은 5일 동안을 어떻게 보냈는지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 단지 기억나는 것은 어느 날 선실에 오래 앉아 있다가, 나는 점심 식사 후 다섯 시쯤 갑판으로 나와 보았다. 그리고 아주 가까이에서 긴 바위 해안과 텅 빈 푸른 평원을 보았다.

나는 눈빛으로 누군가에게 물어보았다. 이게 뭐죠? “영국입니다.” 그가 내게 대답해주었다. 나는 무리 속에 들어가서 말없이 다른 이들과 함께 절벽들을 주의 깊게 보기 시작했다. 해안에서 바로 우리 쪽으로 보트 한 대가 왔다. 파도에 오랫동안 흔들리면서도 마침내 뱃전에 도착했다. 갑판에 푸른색 점퍼와 바지를 입은 키가 작고 땅딸막한 사람이 나타났다. 그는 우리 전함을 영국해협을 따라 인도하기 위해 부른 수로 안내인이었다.

두 구릉 사이에 많은 집들이 달라붙어 있었다. 어떤 집은 숨겨져 있고, 또 어떤 집은 해안으로 달려와 부딪쳐 거품을 내는 물결 뒤에서 나타났다. 구릉 꼭대기에는 안개구름이 끼어 있다. “저게 뭐죠?” 내가 수로 안내인에게 물었다. “도버²⁰입니다.” 그가 까마귀가 까악하고 울 듯 대답했다. 나는 왼쪽을 살펴보았다. 거기에는 흐릿한 회청색을 띤, 울퉁불퉁하고 가파른 프랑스 해안이 보였다. 밤에 우리는 화이트 섬²¹과 포츠머스 요새 벽 사이에 있는 스피트헤드²² 정박지에 닿을 내렸다.

첫 번째 편지

1852년 11월 20일(12월 2일)

나 자신 방금 여러분께 영국에 대해 쓰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려던 참이었다. 하지만 여러분은 내가 쓰기를 요구하고, 이때껏 영국에 대해

20 도버(Dover). 영국 잉글랜드 동남부에 위치한 도버 해협에 면하여 있는 항구 도시다. 마주보고 있는 프랑스의 해안과 34km 떨어져 있다. 도버 부근의 해안은 백악(白堊)의 하얀 단애를 이루는 것으로 유명하다. 영국의 별칭인 엘비언(하얀 나라)은 이것에서 유래했다. 런던에서 벨기에와 프랑스로 가는 주요 항로들이 지나는 곳이며, 고대 로마의 성터와 백악의 절벽, 아름다운 해안 따위가 있어 관광지로 유명하다.

21 화이트 섬(The Isle of Wight). 영국 잉글랜드 남단 영불해협에 있는 섬으로 행정상으로 한 주를 이룬다. 주도는 뉴 포트(New Port)다. 양이 사육되고, 절벽·협곡·삼림지대 등 아름다운 자연과 온난한 기후의 혜택을 입어 화원의 섬(Garden Isle)이라는 애칭을 가지고 있다.

22 스피트헤드(Spithead). 영국 잉글랜드 남해안의 포츠머스와 화이트 섬 사이의 정박지다.

아무것도 이야기하지 않아서 화를 내고 계신다.

런던은 교훈이 될 만하고 흥미로운 도시다. 그러나 흥미로운 것은 단지 아침뿐이다. 저녁이면 이 도시는 외국인에게는 감옥이 된다. 특히 연극이나 다른 대중적인 오락이 없는 시기, 즉 가을이나 겨울에는 특히 더 그렇다. 아마 흥미가 있는 사람은 이 민족의 내면, 즉 풍습을 알고 싶기도 할 것이다. 하지만 그러려면 영국 사람들의 가정생활에 함께 어울려봐야만 되는데, 그게 쉽지 않다. 런던에서는 6시부터 저녁을 먹기 시작한다. 그리고 사는 처지나 방식에 따라 10시, 11시, 12시까지 식사를 하고, 그다음 잠자리에 든다.

경축일의 만찬 외에는 왕궁에서나 시장 댁에서나, 아니면 다른 집에서 평일에는 식탁에 두세 번 요리 접시를 가져올 뿐이다. 그리고 그 음식들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먹는 것들이다. 고기·가금류·들새·채소, 이 모든 것들이 순서도 없이, 음식들 간의 관계에 대한 이해도 없이 나온다.

영국의 자연에 대해서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겠다. 그곳에 무슨 자연이 있단 말인가! 그곳에 자연은 없다. 그곳의 자연은 모든 것이 계획에 따라 자라고 서식하는 수준까지 재배되고 있다. 사람들은 자연을 소유하고 자유의 흔적들을 없었다. 거기서 들판은 색칠된 쪽나무를 붙여서 깐 마루다. 나무나 풀도 말이나 소들에게 하는 것과 같이 해놓았다. 풀들에는 종류, 색깔, 빌로드의 부드러움이 주어졌다. 들판에는 노는 땅 한 조각도 찾아볼 수 없고, 공원에는 저절로 난 관목이 하나도 없다. 그리고 동물들도 마찬가지로의 운명을 겪는다. 여기서는 모든 동물이 순혈종이다. 그리고 모든 동물이 크고, 아름답고, 활기차다. 보견대 동물들에게는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려는 욕구가 이성적인 인식의 수준까

지 확장되어 있는 것 같다. 반대로 사람들에게는 동물의 본능수준까지 끌어내려져 있다. 동물들에게 얼마나 행동의 규칙을 주입했는지 마치 소가 자기가 왜 살이 썬야 되는지 이해하는 것 같아 보인다. 하지만 사람은 반대로 왜 그가 매일, 매년 그리고 일생 동안 보일러에 석탄을 집어넣거나, 아니면 어떤 밸브를 열었다 닫았다 하는 일만을 하고 있는지 잊어버리려 애쓰고 있다. 사람에게는 직접적인 목적에서 벗어나는 것이 억압되어 있다. 그래서 첫눈에 보기에다 시야가 한정적인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것 같다. 그들은 단지 전문적인 사람들이다. 그리고 이 전문성이 성공의 근거가 된다. 여기서는 대장장이는 철공일은 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는 세상에서 제일가는 대장장이이다. 그리고 모든 것이 그런 식이다. 기계공이나 기계기사는 정치·경제를 모르는 것에 대한 비난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는 이 분야에 대한 책을 전혀 읽지 않는다. 그들과는 자연과학에 대한 이야기도 시작하지 마시라. 공학에 관한 것을 제외하고는 어떤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면 안 된다. 안타깝게도 너무 한정되어져 있다. 하지만 이 한정성 아래 엄청난 재능이나 강한 지능이 숨겨져 있기도 하다. 하지만 이 지능은 전부 공학에 가 있다. ‘다방면으로’ 교육받은 사람은 거실에서 그와 이야기하는 게 지겹게 느껴진다. 하지만 공장을 염두에 둔다면, 그나 그의 생산품을 자신에게 등록시키고 싶어 할 것이다.

도둑에 대한 법령들은 많기도 하고 준엄하다. 하지만 그럼에도 런던은 사기꾼들의 전형적인 양성소로 여겨지고 도둑은 수만 명으로 추산된다. 그들은 마치 상품처럼 대륙에 공급되기도 한다. 그리고 열쇠를 잠그는 기술은 그것을 여는 기술과 다룬다. 말을 덧붙이자면 이 세상 어디에도 이런 류의 밀수업자들은 없다. 가는 곳마다 차단기들, 양심을

점검하는 기구들, 이렇게 어떤 추진력들이 사회의 미덕을 지탱하고 있는지, 그리고 은행이나 상인들의 사무실에 있는 금고는 자주 도둑들의 수확물이 된다.

자선은 사회적 의무의 수준으로 승화되어 있다. 하지만 한 개인이나 가족뿐만이 아니라 나라 전체가 영국의 통치 아래서 가난으로 죽어가고 있다. 그런데 이 도덕적인 국민은 일요일마다 딱딱한 빵을 먹고, 당신이 방에서 포르테피아노를 연주하거나 거리에서 휘파람을 부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현명하고 실무적이고 종교적이며 도덕적이고 자유로운 민족의 평판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시라!

산책길에 나는 파제예프를 데리고 갔다. 내가 산 물건들을 집으로 나르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곧 그것을 후회했다. 그는 누구의 실수도 용서하지 않았고, 누구에게도 길을 양보하지 않았다. 그를 밀치기라도 하면 주먹으로 대답하는 기회를 놓치지 않거나 아이들에게 달라붙어 싸움을 걸었다. 그는 남의 땅에 자신의 코스트로마식 원리를 가지고 와서는 그것을 한 방울도 외국의 것과 희석시키지 않으려 했다. 자신의 것과 같아 보이지 않는 모든 관습들과 질서를 그는 적의와 경멸을 가지고 마치 잘못된 것처럼 보았다. “개자식들, 이런 아세이!” (수병들은 영국인들을 영어에서 끊임없이 쓰이는 I say로 불렀다). 보초를 서고 있는 스코틀랜드 병사를 보고는 얼마나 놀려대는지! 그 병사는 밝고 빛나는 웃, 즉 스코틀랜드의 격자무늬 천으로 만든 치마를 입었는데, 바지를 입지 않아서 맨무릎을 드러내었다. “여왕이 화가 나서 바지를 주지 않았구먼.” 병사의 맨다리를 가리키며 그가 요란스럽게 웃으며 말했다.

‘영국 가족’으로 불리는 모직 천이 있는데, 평민들이 웃을 만들어 입을 때 사용한다. 그것에 대해서만은 그는 예외를 두는데, 왜냐하면 그

천으로 만든 바지는 겨우 2실링밖에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는 나에게 자신과 동료들을 위해 이 천을 사달라고 부탁하기도 했다. 부탁을 받고 그도 나와 함께 천을 사러 출발하였다. 하지만 오 신이시여! 영국 상인을 어떻게 그렇게 멸시를 하는지! 그럴 필요가 전혀 없었다. 그 상인은 점잖은 신사처럼 쳐다보고 있었다. 그들이 서로 이해를 못하는 것이 얼마나 다행스런 일인지! 하지만 파제예프의 표정과 목소리만으로도 그가 그 상인을 추홀로마²³ 어디에서 양고기 파는 놈 같은 너절한 놈으로 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정도였다. “거짓말하고 있구먼. 판결 보여주고 있어.” 그가 천을 내던지며 말했다. “각하, 이놈한테 말씀 좀 해주십시오. 테렌치예프하고 쿠즈민한테 잘라 팔았던 바로 그걸 달라고 말입니다요.” 상인은 다른 조각을 주었다. “이게 아냐, 이 개자식, 너한테 이야기하는 거야!” 그리고 모든 게 이런 식이었다.

한번은 포츠머스에서 그가 나에게 뛰어왔다. 기쁨으로 온통 빛나고 웃음을 억누르고 있었다. “뭐가 그리 기뻐?” 내가 물었다. “모트이긴…… 모트이긴……” 그는 웃으면서 되뇌었다(모트이긴은 그의 친구로 마르고 얼굴이 얇은 수병이다). “그런데, 모트이긴이 왜?” “육지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각하, 그놈을 불러서 육지에서 뭘 했는지 한번 물어보십시오.” 하지만 나는 그걸 깜빡했고, 저녁에 눈 주위에 파란 멍이 든 모트이긴을 만났다. “너 왜 그래? 어디서 멍이 든 거야?” 나는 물었다. 수병들은 킬킬대고 웃기 시작했는데, 파제예프가 누구보다도 즐거워했다. 마침내 설명된 바로는 모트이긴이 생선 파는 포츠머스의

²³ 추홀로마(Chukhloma), 러시아의 코스트로마 주에 있는 작은 도시. 코스트로마는 파제예프의 고향이다.

여지들과 ‘조금 놀아볼’ 생각을 했다는 것이다. 이진 숲 속에서 암늑대들과 노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다. 그녀는 한 다발의 주먹질로 대답을 해주었고 그 주먹질 중 하나가 눈에 맞은 것이다. 하지만 수병도 또한 순한 양은 아니었고, 그래서 이 늑대의 쓰다듬기는 모트이긴에게는 멧쟁이의 적절치 못한 친절함에 대해 귀부인이 보내는 조소 정도밖에 안 되었다. 하지만 파제예프는 모트이긴 눈가의 파란 멍이 어느덧 노랗게 되었지만, 아직까지도 거기서 위안을 얻고 있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II. 대서양과 마테이 라섬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수로 안내인을 내려주는 동안 우리는 모두 갑판 위에 있었다. 나는 양묘기¹에 기대어 서서는 바다를 바라보며 무언가를 생각하고 있었다. 갑자기 누군가 나의 손을 덥석 쥐더니, 짝 쥐고 격렬하게 흔들기 시작했다. 이게 무슨 농담이란 말인가? 아! 그건 수로 안내인이 작별인사를 하는 것이었다. 래커 칠한 모자와 파란 점퍼를 입은 수로 안내인은 차례차례 모든 이들과 그렇게 악수하면서 멀어져갔다. 말없이 모두의 손을 움켜쥐고는 고개를 끄덕하고 다음 사람에게로 갔다. 나는 그에게 준비해놓았던 편지를 주었다. 그는 편지를 쥐고는 그걸 주머니에 넣었다. 고개도 또한 끄덕해보였다. 그의 주머니라니! 나는 거기서 눈길을 주었다. 거의 커다란 우물과 같았다! 서른 개가 넘어 보이는 편지가 있었는데 아직 바닥을 뚫진 못하였다. 우리는 빠르게 대양 쪽으로 나아갔다. “할아범!” 누군가 A.A.에게 물었다. “우리는 언제 대양에 가게 되는 겁니까?” “우린 지금 대양에 있는 거요.” 그가 대답했다. “그럼 우리가 이미 영국해협을 벗어난 거라구요?” 해협의 양쪽 해안가를 보면서 다른 이가 물었다. “아직 아니요. 이건 해협이고, 우린 아직 해협에 있는

* 마테이라(Madeira) 섬. 대서양 북쪽에 위치한 포르투갈령(領)의 섬으로 마테이라 제도에서 가장 큰 섬이다. 포르투갈에서 남서쪽으로 1,000km, 아프리카 해안에서 서쪽으로 500km 떨어진 곳에 있다. 이 섬에서 생산되는 마테이라 포도주가 유명하다. 알코올 성분이 높으며, 마테이라 섬은 통상 유럽과 신대륙을 잇는 무역로의 기항지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이 독한 포도주는 아메리카 대륙 식민지 곳곳에 널리 보급되었다.

1 양묘기(揚錨機). 배의 닻을 감아올리고 내리는 데 사용하는 특수한 윈치.

거요.” “누가 당신 말을 알아먹겠소?” 불만에 찬 이들이 그에게 대답했다. “표식을 해두시오.” 할아버지가 말했다. “나중에 되돌아갈 때 어디에서 해협이 끝나고, 어디서 대양이 시작되는지 내 여러분들께 말해주리다. …… 저기 보시오, 저기 좀 봐요!” 그가 바다를 가리키면서 나에게 말했다. “뭔데요?” 내가 사방을 둘러보며 물었다. “정말 안 보이십니까? 저기 좀 보세요, 우리한테서 카벨토프² 안 되는 곳에.” 저기를 보니 여기저기서 분수같이 가느다란 물줄기가 뿜어져 올라왔다 떨어지고 있었다. 그리고는 다시 물줄기가 올라갔다 떨어졌다. “이럴 수가, 여기에 고래가 있다니!” 내가 말했다. “진짜 고래는 아닙니다. 고래 종류 중 작은 것들이죠.” 할아버지가 이야기해주었다.

나는 아침나절 선미 갑판에서 떠나지 않았다. 나는 대양과 서로 인사를 하고 싶었다. 나는 시인들로부터 그것이 ‘광막하고, 어두우며, 쓸쓸하고, 무한하며, 헤아릴 수 없고, 진정시킬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 하지만 지리 선생님은 언젠가 그것이 단순히 대서양이라고 말했다. 지금 나는 초상화를 통해 알던 사람을 실제로 쳐다보듯이 그 얼굴을 정신없이 바라보고 있다. 내 앞에 누워 있는 이 거인의 진짜 형상을 지닌 초상화를 믿고 싶었다. 그의 권력에 나는 오랫동안 자신을 내맡겼다. ‘정녕 이것은 어떤 것일까?’ 나는 주위를 돌아보면서 생각했다. ‘이 무한한 심연 속에는 무엇이 숨겨져 있을까? 무엇으로 이 대양은 항해자를 대접할는지?’ 그는 고요했고, 얼굴을 따라 흐르는 조용한 생각들처럼 잔잔한 파도가 가볍게 움직이고 있었다. 열정과 충동은 침

² 해양에서 비교적 멀지 않은 거리를 측정하는 데 쓰이는 길이 단위로 1카벨토프는 185.2m이다.

목했다. 순풍과 적당한 파도가 부드럽게 더 멀리 가보자고 유혹하였다. 그런데 그곳에는 …… ‘어디에 이 바다가 진정시킬 수 없다는 거지?’ 나는 다시 생각했다. ‘늙은이의 얼굴에 주름살이 하나도 없는 걸!’ 물론 이 바다가 끝이 없이 아득한 건 사실이다. 6마일 이상은 볼 수가 없고, 그곳에는 수평선이 더러운 커튼처럼 드리워져 있다. 지구의 표면은 이 공간에서 둥근 호를 이루고 더 먼 곳을 가리워버린다. ‘웅대하고, 어둡구나. 흠! 한번 볼까!’ 그리고 오른편으로 바다를 돌아보다가 왼편으로 몸을 돌렸다. 그리고 정면에서 파제예프의 얼굴을 보았다. 그는 내 앞에서 손에 군모를 들고 서 있었다. “왜 그래?” “나리, 밥 먹으러 가야죠. 한참 전부터 불렀는데, 못 듣고 말이오.” 나는 이 제안을 기쁘게 받아들였다. 갑판 위는 무척이나 추웠다. 북쪽의 바람은 얼마나 차가운지 플란넬 외투로는 북풍에서 몸을 숨기기가 힘들었다.

식탁에서 할아범은 내 옆에 앉았다. 그리고 매우 즐거워했다. 심지어는 나에게 대양에 들어선 기념으로 와인 한 잔씩을 같이 마시자고 제안하기까지 했다. “대양에 진입한 걸 축하합니다.” 그가 말했다. “당신은 대양이 마치 옛 친구라도 되는 것처럼 기뻐하시는군요.” 내가 물었다. “예, 우리는 서로 서로 알죠.” 그가 대답했다. “그리고 정말 기쁩니다. 이제 지도를 보지 않아도 되고, 밤마다 잠을 좀 잘 수도 있으니까요. 암초, 벙크, 해안은 이제 한동안 없을 겁니다.” “폭풍우네요?” “무슨 폭풍우요?” “아, 풍파 말입니다.” 나는 고쳐 말했다. “그건 내 담당이 아닙니다.” 그가 말했다. “나는 이제 자러 갈 겁니다. 하지만 I.S.와 I.I.는 못 자죠. 그리고 대양에 폭풍우가 다 무엽니까? 만일 계속 순풍이 불어준다면, 그건 빠른 삼두마차를 타고서 말도 갈지 않고 전속력으로 질주하는 걸 의미합니다!”

1월 12일과 13일에 바람은 강하고 거칠게 바뀌었다. 이제껏 우리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그런 바람이었다. 모든 갑판 배수구와 현창³들을 단단히 닫았고, 위쪽 돛은 모두 걷어냈으며, 대포들은 그 무게로 뱃전을 짓누르지 않도록 뒤쪽의 기중기 활차로 고정시켜놓았다. 나는 이미 어디건 손이나 발로 의지하지 않으면 서 있는 것은 물론이고 앉아 있을 수도 없었다. 가까스로 나는 어제부터 가보지 않았던 선실까지 다다랐다. 문을 열었으나 들어간 것이 아니라 - 모든 이런 용어들이 요동속에서 의미를 잃었다 - 충격으로 밀려 들어갔다고 하는 편이 낫겠다. 그리고 반대편의 양쪽 벽들을 주먹을 쥐고 의지하면서 두 발로 서으려 노력했다. 나는 “아이구” 하고 소리를 질렀다. 옷들 · 속옷 · 책들 · 시계 · 신발 그리고 서랍에 넣어 사무용 책상에 정리한 내 문구류들이 무더기가 되어 바닥에 흩어져 있었고, 요동칠 때마다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었다. 서랍들은 제자리에서 빠져나와 있었고, 솔들 · 빗들 · 종이들 · 편지들, 모두 서로 앞서거나 뒤서거나 바닥을 돌아다니고 있었고, 튀어올라 구석으로 갔다가는 거기서 다시 중간으로 돌아왔다.

“파제예프!” 나는 공포에 싸여 소리를 질렀다. “파제예프!” 한 수병이 내 말을 따라 복창했다. “파제예프!” “파제예프!” 다른 수병이 또 복창을 했고, 그의 뒤를 이어 세 번째 수병이 복창했다. 그런 후에 세 번째 수병이 선실에 있는 나를 들여다보았다. “나리님, 그들은 맨 아래 갑판에 있습니다.” 그가 말했다. “곧 올 겁니다.” “그들이 누구지?” 내가 물었다. “파제예프입죠.” 이런 경우 말고는 수병들은 ‘그들’이나, ‘수

3 현창(舷窓), 선실(船室)의 채광과 통풍을 위해 선측에 설치한 창을 말한다.

병'이라고 서로를 삼인칭으로 부르지는 않는다. 한 수병이 다른 수병과 직접 이야기할 때는 돈을 바꾼다. “센카, 이 악마새끼야, 빨리 와! I.A.가 벌써부터 널 찾으신다.” 나와 이야기한 바로 그 수병이 파제에프가 나타나자 이렇게 이야기한다. “뭐라는 거야, 이 개자식아!” 그에게 주먹을 보이며 파제에프가 꺾속말로 대답했다. 이것은 그들에게는 전혀 욕이 아니다. 그들은 화가 나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방식이다. 정다움을 표현하고 싶을 때는 서로를 ‘형제’라고 부른다. “이것 좀 보게!” 나는 내 방의 혼돈을 가리키면서 파제에프에게 말했다. 그리고는 손을 내젓고는 선장실(船長室)로 갔다.

아마도 이것은 해안에서 바라보았다면 서정적인 풍경일 것이다. 하지만 자연이 때때로 항해자들에게 대접해주는 이 극의 주인공이 되는 것은 정말로 재미있지 않다.

여러분 스스로 판단해보시길 바란다. 거기에 좋을 게 뭐가 있다는 것인지? 하얀 물마루의 짐채만한 구렁이 울부짖는 소리를 내며 서로 밀치면서 일어섰다간 주저앉고, 그리고는 갑자기 자유롭게 풀린 미친 짐승떼들이 격렬하게 뒤엉켜 싸우듯이 다시 일어난다. 마치 연기처럼 포말이 일어 올랐고, 울부짖는 소리가 공기 중에 퍼졌다. 전함은 파도 꼭대기로 올라갔다가 물마루에서 흔들렸다가는 그다음 측면으로 떨어지면서 두 개의 산 같은 파도 사이에 있는 바닥으로 내려가면서 그 언덕에서 미끄러져 떨어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몸을 다시 바로 하자마자 다른 쪽 측면으로 넘어갔다가는 그다음 언덕으로 다시 기어올랐다. 배가 아래로 떨어질 때는 양 사방에서 물 벽들이 올라갔다. 선실에는 램프, 그림들, 걸려 있는 기압계 등이 수평으로 나란히 섰다. 의자 몇 개는 자유롭게 되어 자기 자리에서 뿔뿔히 구석으로 날아갔다가 붙잡혀

서는 다시 묶여졌다. 물건들이 떨어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 어떤 대비를 세워놓았더라도 매번 요동칠 때마다 무언가 하나씩 떨어져나왔다. 책들이 선반에서 떨어지거나, 종이뭉치나 지도가 탁자에서 흘러내렸고, 그 위에서 돌아다니는 잉크병이나 촛대를 움켜잡기도 했다. 저녁에 한 번은 불이 켜져 있는 초가 지도 위에 바로 떨어졌다. 선실에는 나 혼자 있었다. 벌떡 일어섰고, 달려가고 싶었는데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무거운 것이 나를 바닥에 기울이게 만들었다. 그러는 사이 촛불은 확 타 올랐는데, 자칫하면 지도도 불붙을 것 같았다. 나는 기어서 촛불까지 겨우 가서는 제자리에 돌려놓았다.

“강력하고, 흑독한 바람이군!” 비틀비틀 춤을 추듯 선실에 들어오면서 선장은 가끔씩 이렇게 말했다. “그런데 당신은 계속 앉아 계십니까? 아직 다리가 바다에 익숙해지지 않았나 보네요.” “난 원래 내 다리도 잃어버렸어요.” 내가 말했다. 하지만 그에겐 믿기지가 않았다. 어떻게 다리가 있는데 사람이 걸어나다니지 못하는지 말이다. “한번 일어서보세요, 자, 한번 해보세요.” 그는 나를 설득했다. “해봤다니깐요.” 내가 말했다. “소용 없어요. 나도 다치고 가구도 상하게 하고 …… 아마도 ……” 하지만 바닥이 거의 수직으로 기울자 나는 잡아당겨지듯 구석으로 달려갔다. 마치 오랫동안 내달려보지 않았던 것처럼 말이다. 거기서 나의 한 손은 거울에 부딪혔고, 다른 손은 벽에 부딪혔다. 선장은 우스웠던 모양이다. “차 마시러 가지 않겠습니까?” 그가 말했다. “됐어요!” 나는 악에 받쳐 이야기했다. “뭐 그러시면 여기서 드시도록 지시하겠습니다.” “됐다니깐요!” 나는 대답을 되풀이했다. 나는 매우 악의에 차 있었다. 처음에는 배의 요동이 처음 겪어보는 거라 공포스러웠다. 배가 파도 꼭대기에서 바닥 쪽으로 미끄러지고, 다시 다른 파도로

옮겨갈 때는 모든 게 산산조각이 나 부서져 흩어져버릴 것만 같은 그런 흔들림을 만든다.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배가 부서지지는 않는다는 확신이 생기고나면, 진저리나고 억울하게 된다. 그리고 억울함은 악으로 바뀌고, 다음에 울적하게 된다. 시간은 천천히 갔다. 시간은 분과 시가 아니라 배의 흔들림과 측면과 선미에 치는 파도의 부딪힘으로 측정되었다. 이것은 복종과 체념(resignation)의 조용한 감정이 아니라, 당신을 갹아먹는 순수한 악의, 노여움이며, 피와 간, 위를 상하게 하고 쓸개를 격분시킨다. 입안은 바싹 마르고, 혀는 화끈 달아오른다. 먹고 싶지도 않고, 잠도 오지 않는다. 빈 시간과 비어버린 위를 채우기 위해 먹을 뿐이다. 잠도 자지 못한다. 왜냐하면 자고 싶지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반쯤 잠에 잠긴 상태에서야 피곤을 잊을 수 있다.

나는 내 선실에서 잠을 자지 않았다. 선장은 거기서 옷을 입은 채로 자다가 끊임없이 뛰어올라 갑판으로 달려가고는 했다. 파제에프는 아침에 빨랫감을 들고 나타나서는 장교 휴게실로 차를 마시러 오라고 불렀다. “마시고 싶지 않아!” 한번 대답했다. “이리로 가져올까요?” 그가 나에게 물었다. “좀 조용하다 싶더니 또 울부짖네요. 또 이렇게 성난 바다네요. 여긴!” 그는 거품과 물방울들을 흩뿌리면서 파도가 일어났다 가라앉는 것을 창문으로 보면서 덧붙였다.

파제에프는 점심 전에도 식사하라고 부르러 왔다. 하지만 나는 걸음을 걸을 수가 없어 쓰러질 듯하면 재빨리 제자리에 앉고는 했다. “먹고 싶지 않아!” 나는 악에 차서 말했다. “세 번째 종입니다! 나리, 부르는 데요.” 하고 그는 평소처럼 벽을 쳐다보면서 이야기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가 무엇 때문인지 웃고 있었다. “뭐가 그리 우스워?” “아니 그냥 웃음이 ……” “말해봐, 뭐야?” “쉬베도프가 갑판에 머리를 세게 부

뒹눅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된거야?” “침대에서 떨어졌죠. 우리 세 명이 한 갈고리에 침대를 걸었죠. 갈고리가 떨어지면서 우리 모두가 떨어졌는데, 저도 괜찮고 파니소프도 괜찮았습죠. 그냥 떨어졌는데, 쉬베도프만 타박상을 입은 거죠. 그래서 생각하면 웃음이 납니다. 갠 지금 앉아서 신음소리를 내고 있죠”.

나는 전령에게서 이런 특징을 이미 한두 번 알아차린게 아니다. 누가 떨어졌다든지, 누가 단단히 혼이 났든지 간에 이것은 그에게 웃음을 안겨주는 것이다. 한번 분석해보시라. 러시아인은 어떤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그러나 이게 악의에 따른 것은 아니다. 그는 전혀 악의에 차 있지도 않았다. 그러니 이것은 섬세한 분석과 특별한 정의가 요구되는 특징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남의 고통에 대한 기쁨이 그냥 지나가진 않았다. 쉬베도프의 추락에 대해 미처 다 이야기를 마치기도 전에 연락병이 문가에 나타났다. “누가 쉬베도프와 함께 갈고리에 침대를 걸었지?” 그가 물었다. “누가요?” 파제예프가 질문으로 대답했다. “파니소프 아닌가?” “파니소프요?” “그래, 빨리 말해, 누가 또 있지?” 연락병이 또 물었다. “누가 또?” 파제예프가 물어보기를 계속했다. “당직 장교한테 가봐.” 연락병이 말했다. “모두 집합이야!” 파제예프는 매우 심각해져서 갔다. 돌아와서는 더욱 심각하였다. 나는 무슨 일인지 알아차렸다. “왜 웃지를 않아?” 내가 물어보았다. “아마도 쉬베도프 혼자 혼나는 건 아닌가 보지?” 그는 말이 없었다. “그러면 파니소프도 별받나?” 그는 다시금 웃음을 터트렸다. “혼나죠, 그놈도 혼나죠!” 그가 즐겁게 말했다.

“아니야, 우린 아직 그걸 겪어보진 않았어!” 나는 선실 문이 바다 쪽으로 기울어지고, 거울은 옷장 쪽으로 기울어지는 걸 쳐다보면서 소파

에 흔들리면서 생각했다. 파제예프는 가야만 했는데, 나는 갑자기 여기서 식사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나한테 뭐 좀 먹게 접시에 담아주지 않겠어?” 내가 물었다. “뜨거운 음식이든 차가운 음식이든 부탁 좀 해봐.” “왜 안 갖다 드리겠소, 나리. 갖다 드리리다!” 그가 대답했다. 반시간쯤 지나 그가 접시 두 개를 들고 나타났다. 한 접시에는 빵과 소금그릇, 나이프, 포크 그리고 냅킨이, 다른 접시에는 먹을 게 있었다. 그는 한쪽 발과 다른 발로 의지하면서 손의 균형을 유지해가며, 또 바닥이 매우 심하게 기울어질 때는 군데군데 조심하면서 잠시 앉기도 하면서 매우 능수능란하게 왔다. “자, 여기!” 그는 말했다.

그는 접시를 쥐고는 내 옆의 바닥에 앉았다. “뭘 가져온 거야?” 내가 물었다. “거기 다 있어요, 모든 음식이.” 그가 말했다. “모든 음식이 아니?” 접시를 보니 정말 모든 음식이 다 있었다. 쌀을 곁들인 닭고기, 뜨거운 파쉬테트, 또 구운 양고기, 이것들이 모두 한 접시에 담겨져 있고, 와플로 싸여 있었다. “미안해, 이건 예술품이라 먹으면 안 되겠는데. 여기다 수프만 부어왔으면 완벽했겠구만!” “그럼 안 되지요.” 그가 순박하게 대답했다. “넘쳐버리잖아요.” 나는 무언가를 입에 집어넣으면서, 하나씩 하나씩 그 무더기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러다보니 점차 와플까지 도달했다. “넌 왜 수프를 거기 안 부은 거야!” 나는 접시를 돌려주면서 말했다.

“신이시여, 누가 이런 여행을 생각해낸 겁니까?” 나도 모르게 슬프게 절규가 튀어나왔다. “사 개월 동안 회색 하늘만 보고 흔들리기만 하니!” 누군가 웃기 시작했다. “아이고! 당신이시군요!” 손으로 천장을 잡고는 선실에서 서 있는 내 동료 중 키가 가장 큰 K.I.L.을 보면서 내가 말했다. “대체 파란 바다와 푸른 하늘, 그리고 따듯한 온기와 새들, 물고

기들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내 투덜거림에 때맞추어 할아버지가 나타났다.

“누가 파란 하늘과 따듯한 온기에 대해 이야기했는지!” K.I.L.이 말했다. “어디가 따듯하다는 겁니까? 나한테 파란 하늘과 따듯함을 주세요!” 나는 성가시게 굴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잔걸음으로 날썰게 지도로 가서는 킴퍼스로 각을 측량하고 연필로 선을 그었다. “제 말 들으셨어요?” 나는 그에게 말했다.

“42와 18!”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그에게 내 불평을 되풀이 했다.

“비스카야 만을 통과하면 따뜻해질 겁니다! 조금만 있어 보세요, 더위가 지켜워질 테니까요. 그땐 추위를 그리워할 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앉아만 계세요? 같이 갑시다.”

“안 돼요, 나는 일어설 수가 없어요.”

“같이 갑시다. 내가 당신을 끌어줄게요!” 그는 이렇게 말하면서 나를 선미갑판으로 데리고 갔다. 그에게 기대어 나는 ‘거리’로 나갔다. 그 순간 갑판이 갑자기 발밑에서 빠져나가 없어져버린 것만 같았고, 눈 앞에서 푸른 파도들의 거대한 연록색 산이 나타났다가, 번쩍 빛을 내고는 뱃전 뒤로 사라졌다. 나를 대포에 바싹 붙어 있게 하더니, 거기서 해치 쪽으로 가게 했다. 나는 양손으로 뱃전의 안전밧줄에 매달렸다.

“날 돌아가게 해주세요!” 내가 할아버지에게 말했다.

“왜 그러세요? 보세요, 훌륭하지 않습니까?”

그에게는 모든 것이 다 훌륭했다. 시간당 10노트의 순풍이 분다고 하자 “굉장하군요, 훌륭합니다!” 그가 말한다. 바람이 정면으로 불어서 배를 뒷걸음질치게 하면 “대단하군요!” 그가 감탄한다. “1과 2분의 1

노트로 갑시다!” 어떠한 기후도 그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더위 속에서나 추위 속에서나 그는 항상 옷의 단추를 채우고 있었고, 항상 활기가 넘쳤다. 다만 더위 속에서는 그의 턱이 기름에 칠한 듯 빛나고 있었다. 요동이 치거나 치지 않거나 짧은 팔을 항상 등이나 그 조금 밑에 다 대고서는 굳건히 서 있었다. 걸을 때는 켜걸음로 다녔다. 폭풍우도 무풍도 그를 화나게 하지 않았다. 그는 모든 게 똑같았다. 해안이 가까이 있든 멀리 있든 그에게는 또한 문제가 될 게 없었다. 그는 거기가 어디든지 거의 모든 곳에 있었고, 만약 그곳에 있지 못하였다더라도 애통해 하지 않았다. 나는 그가 무엇에 대해서나 아니면 누구에 대해서나 불평하는 것을 듣지 못했다. 항상 같은 말을 되풀이할 뿐이었다. “훌륭합니다!” 만약 누군가가 그가 보는 데서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거나 말을 하면, 그는 단지 주위를 찬찬히 바라보다가는 그의 방식대로 웃을 뿐이었다. 그는 쿠퍼의 등장인물들을 연상시켰다. 그들은 바다나 아메리카의 깊은 숲속에서 나고 자라고,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자연이 그들에게 지워지지 않는 흔적을 남겨놓은 그런 등장인물들을 연상시켰다. 그리고 그는 또한 열세 살부터 바다에 다녔고, 2년을 물에 오르지 않기도 했다. 그의 독특한 캐릭터 때문인지, 아니면 그의 선량함 때문인지 모두가 그를 사랑했다. “안녕하세요, 할아범! 어딜 그리 바쁘게 가시오?” 한 젊은이가 말했다. “방해하지 마시오. 위치 측정하러 가요.” 그는 이렇게 대답하고는 주위도 둘러보지 않고 태양을 잡으러 갔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는 거죠?” 다시 그 젊은이가 물어본다. “신이 만든 바다에 있소!” “압니다. 그런데 어딥니까?” “북위 38도, 서경 12도에 있지.” “어디하고 평행입니까?” “지도를 보시오.” “말씀해주세요.” “비키세요, 비켜주세요!” 어린애들 무리처럼 그 젊은이를 밀치면서 그는 말

한다.

“추워요, 할아범! 나를 선실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내가 말했다.

“뭐가 춥습니까. 훌륭합니다!” 그가 대답했다.

그를 기다리지 못하고, 나는 혼자서 다시 선실로 돌아가려고 발을 떼었다. 하지만 이 용기를 나는 값비싸게 치렀다. 선실로 들어가서 커다란 반원형 소파에 미처 다다르기도 전에 밑에서 쳐올렸다. 버티고 서 있을 수도 바닥에 앉을 수도 없겠다고 느낀 나는 작은 소파에 앉아보려 했다. 그게 나를 구해줄 것이라 생각했던 것이다. 하지만 그게 아니었다. 넘어지지 않으려면 벽에 딱 붙어 있어야 했다. 소파는 못질이 되어 있어서 떨어지지 않았지만, 나는 아무리 소파에 붙어 있으려 해도 매우 슬프게도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소파에서 떨어지자 가슴이 안락의자에 매우 세게 부딪혔다. 얼마나 세게 부딪혔는지 의자는 바닥에 고정되어 있어서 제 자리를 지키고는 있었지만, 다리가 부서졌고, 나는 의자 너머 더 멀리 바닥으로 내동댕이쳐졌다. 그 외중에 나는 무릎에 타박상을 입었고, 무언가가 뺨에 스쳤다. 원래 자리로 재빨리 돌아가서 나는 몇 분간 고통에 겨워 바닥에서 꼼짝을 못하고 앉아 있었다.

다행히도 타박상은 어떤 흔적도 남기지 않았다. 일주일간 가슴이 옥신옥신했으나 그다음 없어졌다.

이때 K.I.L.이 선실로 들어왔다. 나는 나의 고통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한편으로 끌어당겨질 때는 바닥에 재빨리 앉으셔야 됩니다.” 그가 말했다. “그러면 괜찮습니다. 끌려가지 않아요.”

갑자기 이때 배가 내 쪽으로 기울기 시작했다.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바닥에 앉으면서 그는 나를 가리켰다. “아이구!” 그다음 그는 무언

가 붙잡을 것을 주위에서 손으로 찾으면서 소리를 질렀다. 물건들이 쌓인 무더기에서 그가 끌어당겨져서 거의 내 쪽으로 쏠살같이 내려왔다. 나는 그가 건장한 몸으로 나를 짓누르지 못하도록 겨우 다리를 받치는데 성공했다.

이런 상황에서 나는 한나절 반 동안 앉아 있던 선실에서 나와 적의에 차서 대양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공동선실을 힘들게 찾아 들어가면서 나는 바이런·푸시킨·베네딕토프와 다른 이들이 대양에게 붙여주었던 형용어들을 머릿속으로 검토해보았다. ‘침울한, 어두운, 강력한’. 또 파제예프가 붙여준 것도 있다. ‘성난, 짠, 지루한, 흥포한 그리고 단조로운!’ 사다리를 따라 아래로 내려가면서 나는 그 목록에 이렇게 첨가를 해보았다. ‘같은 것만 되풀이되고 끝이 없구만!’

아래는 가는 곳마다 물이 있고 축축했다. 어디서든 되는대로 잠들을 잤다. 나도 거기서 잠시 누웠다. 그리고 삐걱거리는 소리, 누군가의 갑작스런 고함, 사람들의 발소리, 호각소리에 밤에 열 번 정도 놀라 일어났다. 잠결에 할아범이 유쾌한 표정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았다.

“배가 흔들려요, 할아범!” 내가 불평했다.

“어떻게 안 흔들릴 수가 있어요. 바람을 옆에서 받고 있거든요!” 그가 말했다. “훌륭합니다!”

“뭐가 훌륭하다는 겁니까?”

“뒤킨요. 우리 지금 10과 2분의 1노트로 가고 있어요. 비스케이 만⁴

4 비스케이 만(the Bay of Biscay). 스페인 북서부 오르테갈 곳에서 프랑스 브르타뉴 반도 서쪽 끝까지 이어져 있으며 삼각형 모양을 이루고 있다. 해안선 길이는 약 640km에 이른다. 비스케이라는 이름은 스페인 해안지방에 사는 바스크인의 이름에서 따온 것이다.

을 통과했고, 아침이면 피니스테레 곶⁵이 있는 위도에 도달합니다.”

“거참 모를 일이네, 훌륭하다구요?”

1월 18일, 영국을 출발한 지 8일째 되는 날, 아침 9시에 누군가 내 방문을 두드렸다. “누구세요?” 내가 물었다. “집니다.” 대답이 들렸다. “아! 당신이셨군요. 내 사랑스런 이웃!” “뭐하고 계세요?” 그가 물었다. “뭘하다뇨?” 나는 파제예프가 하는 식으로 물음으로 대답했다. “누워 계셨던 모양이죠?” “예, 거의 ……” 나는 침대에서 베개로 흔들림을 어떻게 이겨보려고 안간힘을 쓰면서 대답했다. “부끄러워하십시오!” “부끄러워하고 있습니다. 또 더 뭘 해야 되겠습니까?” 나는 손과 발로 베개를 푹푹 밟아 뭉개며 이야기했다. “마테이라 섬이 보입니다.” “뭘라고요? 파제예프, 파제예프!” 나는 고함치기 시작했다. 그가 들어왔다. “넌 왜 나를 깨우러 오지 않았어? 마테이라 섬이 보여?” 나는 내 이웃이 나한테 농담을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하며 물었다. “마테이라 섬요?” 어디 외교관들이나 가졌을 성실은 그런 섬세함으로 나를 바라보면서 파제예프가 물었다. “그래?” 나는 초조해하며 이야기했다. 그는 평소처럼 심드렁하게 벽을 쳐다보기 시작했다. “해안이 보입니다.” 그가 대답했다. 한동안 말이 없다가, “벌써 일곱 시부터 보였죠.” “넌 왜 나한테 말해주지 않았어?” 나는 그를 질책했다. “뜨거운 물이 없었거든요. 면도하려면 필요한데.” 그가 대답했다. “게다가 장화도 닦아놓질 않았고.” “자, 옷 입자! 위에 갑판은 어때?” “아이고! 얼마나 따듯한지, 갑판 따라서 걷기 좋습니다. 우리는 모두 장화를 벗었습니다.” 그가 심드렁

5 피니스테레 곶(Finisterre), 스페인 북서부에 있는 곶. 스페인 서쪽 끝에 위치한다.

하게 대답했다.

“빨리 빨리 옷 입자!” 내가 덧붙여 말했다. “나리, 시간 충분합니다.” 그가 대답했다. “자, 먼저 세수 좀 하세요!” 나는 웃기가 두려웠다. 나는 유럽 문명으로 이 코스트로마식 순박함을 망치기가 아까웠다. 게다가 우리는 이미 유럽을 벗어나서 …… 어떻게 보면 코스트로마 쪽으로 가고 있지를 않는가.

나는 갑판으로 나갔다. 이런 광경이라니! 거품과 물방울로 만들어진 흉악한 언덕 대신에 높기는 하지만 고른 파도가 치고 있었다. 바람은 얼굴을 베듯 하지 않고 목 근처에서 실크 천처럼 놀았고, 기분 좋게 신경을 자극했다. 태양은 매우 따사롭게 쬐이고 있다. 눈앞의 한 3마일 정도 되는 곳에 수많은 갈색의 구릉들이 누워 있고 서로 높이를 다투고 있으며, 한 무리로 던져진 다양한 땅덩이와 절벽들이 서로를 거쳐 지나면서 더 높이 기어 올라가고 있다. 어느 절벽 하나는 마치 그 무리에서 떨어져 나와 홀로 바다로 추락한 것처럼 그 절벽 아래로 궁륭(穹窿)이 관통되어 나 있다. 모든 것들이 초목이 없는 별거숭이 같고 짙은 이끼로 덮여 있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먼 거리가 나를 속였다. 그것은 이끼가 아니라 가득 찬 숲이었다. 어디에도 사람이 사는 곳은 보이지 않았다. 그 구릉들은 마치 텅 빈 무대장치처럼 물에서 솟아올라 있어 가까이 다가가기만 해도 와르르 무너져내릴 것처럼 보였다. 왼편으로는 저쪽 먼 곳에 포르투산투 섬⁶이 보였다. 그리고 더 멀리에는 데제르타

⁶ 포르투산투(Porto Santo) 섬. 마테이라 군도로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포르투갈의 섬. 대서양의 마테이라 섬에서 북동쪽으로 43km에 위치해 있다.

제도⁷가 보였다. 작은 섬들, 아니면 바위들이라고 말하는 게 더 적합해 보인다. 할아범은 손가락으로 조타수에게 해협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유지해야 되는지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아직 마테이라 섬의 옆에 있다. 섬은 얼굴을 남쪽으로 보고 있다. 섬 모서리를 우회해서 돌아가기 시작했다.

섬의 동쪽 해안을 우회하자 마치 바다에서 우뚝 솟아올라 하늘과 대양을 다 가려버릴 듯한 거대하고 장엄한 광경이 우리를 눈부시게 했다. 화폭에서 보지만 실제 있다는 것을 믿지 않고 환상적인 그림으로만 간주했던 그런 그림들 중의 하나 같았다. 무리 지은 산들은 제일 주된 산 하나 쪽으로 달라붙어 밀집해 있다. 이 산이 제일 큰 산인데, 우리들 중 많은 이들이 본 산이다. 이 산은 산들로 보면 귀족 계층에 들어간다. 다 해봐야 해수면에서 6,000피트 정도 되는 높이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포도주 때문이다.

산의 경사면을 따라 포도밭들이 늘어져 있다. 그 푸른 녹음 뒤로 저택들이 내다보고 있다. 산 중턱의 오목한 곳에 정원들과 도시에 군림하고 있는 교회가 보였다. 도시 풍살⁸ …… 정말로 이게 도시인지. 아래쪽 산기슭과 해안가에 하얗게 보이는 집들, 마치 설탕 조각들이나 어디서

7 데제르타 제도(Desertas Islands), 마테이라 섬에서 남동쪽에 위치한 바위섬들이다. 마테이라 제도는 마테이라 섬과 포르투산투 섬, 무인도인 데제르타 제도와 셀바젠 제도로 이루어져 있다.

8 풍살(Funchal), 마테이라 섬의 주요한 도시며 항구다. 마테이라 섬 남쪽 해안에 자리 잡고 있다. 1421년 포르투갈의 항해가인 주앙 곤살세스 자르코가 세웠으며, 스페인과 영국의 지배를 받았다. 건물들은 대부분 흰색 도료로 칠해져 있으며, 열대식물 정원으로 둘러싸여 있다.

떨어져나온 회칠 같은 이 집들이 도시란 말인가? 해안으로 다가갈수록 더 더워졌다. 얼굴에 누군가의 가깝고 뜨거운 숨결을 느끼게 된다. 산 들은 오른쪽·왼쪽에서 절벽이 되어 해안 쪽으로 내려갔다. 도시의 왼쪽에 있는 그 절벽들 중 한 곳에 포진지가 구축되어 있다. 저 아래 다른 절벽의 측면 아래로는 상선 하나가 정박지로 들어가고 있다. 우리는 망 원경을 그 배로 돌렸다. 배는 글자 그대로 승객들로 뒤덮여 있어서 그 들로 인해 거의 깔려 죽을 지경이었다. 모두가 유럽에서 미국이나 호주 로 가는 이민자들이다. 신이 그들을 목적지까지 무탈하게 데려다주시 기를! 우리가 보기에 그 배의 승객들은 300명이 넘어 보였다. 어떻게 거기에 다 탔을까? 그들은 모두 해안을 보려고 배 안에서 나왔다.

마테이라 섬에는 항구가 없었다. 그리고 정박지는 배를 대기에 너무 불편했다. 해안에서 멀지 않아 약 60이나 50사젠쯤 되는 곳인데 깊이가 얇거나 아니면 너무 깊어서 닻을 내리고 정박하기가 적당하지 않았다. 마침내 선착장 근처에 오자 아직 15사젠쯤 되었지만 배에서 육지와 대화를 할 수도 있었다. 군함들은 여기에 닻을 잘 내리지 않는다. 하지만 상선들은 정박하곤 하는데, 남쪽에서 바람이 살짝 불어오면 섬의 북 쪽으로 가고, 반대로 북쪽에서 바람이 불면 여기에 숨는다.

우리는 여기서 살아 있는 소와 채소를 얻기 위해 정박했다. 그래서 닻을 내리지 않고 돛을 펴고 하루를 버티기로 결정했다. 따라서 정박은 짧은 시간 동안만 할 것이고, 우리는 이 기회를 이용하려고 서둘렀다.

놀랍도록 아름다운 새로운 해안을 유심히 보다가 우리는 선착장 근처에 온 것도 몰랐다. 아, 죄송하다. 여기는 선착장이 없다. 항구가 당연히 있어야 할 곳이라고 하자. 단정들은 여기에 접안을 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물결과 함께 해안가 자갈한 돌무더기가 떨어졌다. 노 젓는 수병

들은 바지를 걷어올리고 물속을 걸어서 마른 곳까지 단정을 끌어올렸다. 그런 다음 승객들을 내렸다.

많은 사람들이 마테이라 섬의 공기가 치료효과가 있다고 이야기한다. 아마도 이 공기가 건강에 미치는 작용은 결과로 알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 공기에 가득 차 있는 달콤함은 섬에 발을 디디기만 해도 맛볼 수 있다. 나는 불가 강 높은 강변의 공기를 마신 적이 있다. 여름 날 아침 창문을 열면 얼굴에 신선하고 건강하며 서늘한 기운이 불어온다. 마테이라 섬에서 나는 불가 강 공기와 같은 그런 신선함과 서늘함을 느꼈다. 마치 가장 깨끗한 샘물을 마시는 것 같은 그런 공기 말이다. 게다가 이 공기는 마치 마테이라 섬에 녹아 있는 듯하지 않은가? 여기에 이 섬의 특별함과 유명함이 있다.



Ⅲ.
항해 대서양 열대지역에서의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여기 해도(海圖)가 있다. 이 지도에는 선과 점들, 화살표들이 표시되어 있고, 문구들이 써 있다. “이 위도에는,” 한 문구는 이렇게 말한다. “이 위도 몇 도에서 당신은 이런 바람을 만날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달과 날짜까지 볼 수 있다. “거기서 대략 이즈음에 폭풍우를 만날 것이다.” 계속해서 그 폭풍우에서 어떻게 벗어나는지도 말해주고 있다. “하지만 거기서 이러한 위도로 계속 가면, 계절풍¹을 만나는데 그 계절풍은 너를 중국이나 일본까지 실어 보내줄 것이다.” 계속 적혀 있는 것들은 더 멋지다. “몇 도에서는 처음으로 상어를 보게 될 것이다. 거기는 날치도 있다.” 분명히 그것들을 보실 게다. “남위 30도, 동경 75도에서는 새들이 배에 앉아 있을 거다.” “음.” 나는 생각했다. ‘이건 좀 엉터리인데. 그 장소에는 새들이 앉아 있지 않을 것 같은데.’ 그리고 지도를 따라 가보기 시작했다.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 위치에 도착하면 나에게 알려달라고 부탁했다. 어느 날 아침 나에게 말해주기를 도착했다는 것이다. 나는 망원경을 들고 넓은 공간에서 네 개의 점을 발견했다. 더 가까이 다가가보니 물새 떼가 파도에 흔들리고 있었다. 마침내 지도에 쓰여 있기를 대서양 열대지방에서는 레오뮴르² 온도계가 그늘에서 열씨 23도 이상을 가리키지 않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다. 그리고 정확히

1 계절풍(季節風). 몬순(monsoon)이라고도 한다. 계절에 따라 방향을 바꾸어 주기적으로 일정한 방향으로 부는 바람. 겨울에는 대륙에서 바다를 향해 불고, 여름에는 바다에서 대륙을 향해 불어, 약 반년 주기(週期)로 풍향이 바뀐다.

2 르네 앙투안 페르쇼 드 레오뮴르(René-Antoine Ferchault de Réaumur, 1683~1757). 프랑스의 과학자다. 자신의 이름을 딴 온도계를 고안했으며, 그가 제안한 온도체계를 열씨온도(列氏溫度)라고 한다. 물의 어는점을 0℃로 하고 대기압하에서 물의 끓는점을 80℃로 설정했다. 한때는 널리 사용되었으나 20세기 후반부터는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다.

그렇게 되었다.

“할아범, 지금 우리가 어디 있죠?” 어느 날 내가 물었다. “오늘만 당신께 세 번이나 말해줬습니다. 또 반복하기 싫으네요.” 그가 투덜댔다. 그다음 평소대로 그가 말했다. “가십시다.” 나의 옷소매를 당기며 나를 후잡판으로 끌고가며 그가 말했다. “저게 뭐니까? 한번 보세요.” “구름 인데요.” “뭐가 구름입니까? 잘 좀 찬찬히 보세요. 뭐죠?” “먹구름인가요.” “아이고, 참 당신도, 먹구름이라구요! 뭐가 먹구름입니까? 팔마 섬입니다.” “뭐라구요! 카나리아 제도라구요!” “여긴 구름이 마치 해안처럼 보이고, 해안은 구름하고 비슷해 보이니 어떡하겠습니까? 그럼 테네리페 섬은 어디 있는 거죠?” 하고 나는 물었다. 노란색 안개를 뚫어지게 아무리 봐도, 나에겐 처음에 그렇게 보았던 것처럼 ‘구름’의 연파랑색 걸모습만 보일 뿐이었기 때문이다. “볼 수가 없죠.” 할아범이 말해주었다. “그 섬하고 평행으로 있기는 한데, 멀리 있거든요.” “산타 크루스 섬에는 들르나요?” “또 들르다구요! 그렇게 자주 들르다간, 우린 일본까지 가보지도 못할 겁니다.” “팔마 섬은 어느 위도에 있나요?” “직접 가서 지도를 보세요.” 나는 가지 않았다. 그가 이야기해줄 걸 알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실제로 그가 이야기했다. “27도에 있죠. 어제 한 시간이나 설명해주지 않았습니까.” “잊어버렸어요.” “그럼 난 왜 잊어버리질 않는 거죠?” “그래서 당신이 할아범이잖아요. 이게 무역풍이 지금 부는 건가요?” 내가 물었다. 때때로 배가 흔들리고 있었기 때문에 난 밧줄에 지탱하고 있었다. “누가 당신을 알 수가 있을까요? 도대체 알 수가 없군요!” 할아범이 투덜댔다. “비슷하긴 한데 아직 일러요. 아직 이틀이나 사흘 더 기다려야 됩니다.”

하지만 이틀 사흘이 지났지만 변화는 없었다. 똑같은 바람이 돛을

부풀리고, 또 우리에게 서늘한 기운을 불러일으키며 우리 배를 끌고 가고 있었다. 러시아어로 무역풍을 영원한 바람이라고 이름 붙였으면 더 적절했을 것이다. 아득한 태곳적부터 무역풍은 책을 읽거나 글을 쓰거나 생각하거나 꿈을 꾸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 그런 적당하고 잔잔한 파도를 일으키며 똑같이 불고 있다.

1월 22일 항해장교인 L.A.P.가 아침에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했다. “축하합니다. 오늘 8시에 우린 북회귀선을 지났습니다.” “그런데 나는 밤에 몸이 뽕뽕 얼었어요.” 내가 말했다. “어떻게요?” “갑자기 그렇게 됐네요. 아마 우리 중 누군가, 그러니까 나나 북회귀선 중 하나가 차가 워진 모양입니다. 옷을 얇게 입고 해치 아래 누웠는데, 밤의 서풍이 기운을 정확히 나를 향해 쏟아부었나 봐요.”

“이게 뭘니까, 할아범. 열대지방의 더위, 신비로운 밤, 남십자성에 대해 잔뜩 이야기하시더니? 우리가 보는 모든 건 ……” “지금은 겨울이에요, 일월이고.” 그가 정모로 얼굴을 부채질하고, 면도하지 않은 아래턱에서 떨어지는 땀을 닦아내면서 말했다. “적도를 넘기만 하면 좀 더 따뜻해질 겁니다. 그리고 남십자성은 지금 여기 있어야 되는데, 저기 좌측 가로고정밧줄 뒤에 말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짧은 손가락으로 가로고정밧줄을 가리켰다. “남십자성이 관심의 대상이 되버렸구만.” 할아범은 해치로 내려가면서 투덜댔다. “십자가는 그냥 꾸며낸 거라니까! 십자가는 없어요. 그냥 네 개의 크지 않은 별들인데 …… 가서 자는 게 나을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또 ……” 그리고 해치로 사라졌다.

마테이라 섬에 상륙한 지 정확히 일주일 지나서, 마찬가지로 일요일에 우리는 저 멀리 수평선을 따라 흩뿌려져 있는 작고 큰 섬들을 보았

다. 그것들 중 한 섬은 저기 멀리 있었고 짙은 푸른색이었다. 다른 섬들은 좀 더 가까이에 있었고, 갈색 무리처럼 보였다. 가장 가까운 산티아고 섬은 빨간 진흙의 거대한 덩어리처럼 누워 있었다. 우리는 좀 더 가까이 다가갔다. 무더기처럼 보였던 것이 점차 또렷해지고, 절벽들은 하나하나 분리되면서, 섬의 전체적인 그림이 우리 앞에 그려졌다. 우리는 1,5마일 부근에서 닻을 내렸다. 마테이라 섬에서 카보베르데 제도까지는 자오선을 따라 1,000마일 정도로 계산된다. 이것은 우리 식으로 하면 1,750베르스타³다.

우리에게 관리가 왔는데 흑인이었고, 금줄을 단 연미복을 입고 있었다. 그는 통상적으로 하듯이 선원들의 건강을 물어보았고, 그다음에 배의 이름과 선원 수, 여행 목적을 물었다. 그리고 물어본 것들 모두를 매우 힘들게 얼굴을 찌푸려가며 공책에 자세히 적었다. 나는 곁에 서서 그가 어떻게 뽀뽀글글 글씨를 쓰는지 지켜보았다. 그에게 읽고 쓰는 게 쉽지 않아 보였다.

곧 우리는 해안으로 출발했다. 마테이라 섬에서처럼 향기와 음악으로 우리를 맞이하진 않았다. 단지 가까이 다가갈수록 절벽들이 커져만 갔고, 배에서는 풀처럼 보였던 것은 야자나무 숲이었다. 하지만 나는 여행자의 기쁨으로 아프리카 자연의 슬픈 모습을 지닌 이 해안을 바라보았다. 북쪽 사람의 눈에는 모든 것이 놀라웠다. 가장자리가 그을린 절벽들과 황야의 침묵, 과도한 태양으로 인한 생명의 혹독한 절멸, 습기의 부족 그리고 모래에서 자라 40도의 열기 아래서 사계절 푸름을 제공하는 이 야자수들. 아마도 그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황야가 있

³ 러시아의 길이 단위. 1베르스타는 1,068km.

고, 공기가 건조하고, 생명의 혹독한 절멸이 있고, 마침내 소나무의 사철 푸름이 있고, 심지어 40도의 기온도 있다.

2월 2일, 저녁 잠자리에 들면서 나는 아침에 적도를 통과할 때 꼭 그 자리에 있으리라 준비하였다. 하지만 3일 아침 8시에 할아범은 상관에게 우리는 이미 남반구에 있다고 보고하였다. 5시에 우리 배는 서경 18도에 적도를 통과하였다는 것이다. 그래도 우리 모두는 갑판위로 쏟아져 나와서 의심스럽다는 듯이 사방을 둘러보았다. 마치 지구의 허리를 둘러싼 적도라는 이름의 나무 테두리를 보기도 할 듯 말이다.

모두가 생각에 잠겨 있었다. P.A.T.는 팔꿈치를 외가름대에 고이고 기대어서 저 멀리 바라보고 있었다. 모두가 적도에 빠져 있었다. “어때요, P.A. 지금 우리는 적도를 넘었어요.” 그에게 말을 걸었다. “곧 희망봉에 도착합니다!” “예.” 그는 깊게 한숨을 쉬고는 무심한 눈으로 옥색의 잔잔한 수면을 보며 대답했다. “그건 물론 매우 기쁜일이죠 …… 그런데 그곳엔 효모가 있을까요?” 자신이 맡은 임무가 어떤 것이든 지간에, 예를 들어 동료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일일지라도 자신의 직무를 이렇게 진심으로 걱정할 수가 있을까?

선량한 P.A.! 갑자기 그의 눈이 남다른 광채를 내면서 반짝 빛났다. 나는 그가 적도를 보았다고 생각했다. 그가 손을 뻗었다. “또 누가 바나나를 먹었군요!” 그가 격분해서 고함을 질렀다. “Z.가 분명해. 오늘 아침 당직을 썼거든.”

밤에는 과일의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갑판에 걸어놓는데 항상 몇 개씩 줄어들고는 한다. T.는 엄격히 조사를 하였으나, 능청맞은 미소 말고는 아무것도 얻지 못하였다.

회귀선도 적도도 넘어라

그리고 뱃사람들의 이 축제를 축하하라! ……

고 블라디미르 그리고리예비치 각하께서 나에게 지시하였다. 나는 머릿속에서 당신들이 이 축제에 초대하였다. 하지만 그 축제는 실현되지 않았다. 축제를 하려는 생각도 없었다. 수병들은 우리들의 신화를 몰랐고, 그래서 넵툼을 부르는 것을 생각해내지 못할 뿐 아니라 심지어 그의 영원한 소유지에 들어왔음을 축하해줄 줄도 몰랐고, 돈이나 술을 공물로 바치지도 않았다. 그리고 또 우리는 그들에게 그것을 상기시키지도 않아서 그렇게 그 하루는 평범하게 지나갔다. 단지 밤이 되자 선장이 우리를 자신의 방으로 식사초대를 하였다. 명예손님은 할아범이었다. 그는 이 항로를 처음 지나가본 것이 아니었고, 그래서 따뜻한 삼페인이 든 잔은 그의 건강을 위해 비워졌다. “당신은 적도를 몇 번 통과해 보았습니까?” 우리는 그에게 물었다. “열한 번째입니다.” 그가 대답했다. “너무 자랑하는데요, 할아범. 당신은 세계일주를 세 번 했잖아요, 그러면 여섯 번이 되야죠!” “그렇습니다. 하지만 한번은 바로 적도선에서 무풍을 만나 우리를 서너 번 적도 이쪽 저쪽으로 끌어날랐죠.”

나중에 알게 됐지만 영국에서 구입해 우리와 함께 길을 떠난 스쿠너⁴ ‘보스톡’⁵호에서는 넵툼 축제를 치렀다는 것이다. 나는 우리 배에서 이 축제가 열리지 않은 게 기뻐다. 아시기를 원한다면, 이 축제는 과도하게 억지스럽다. 만일 사람이 스스로 어리석은 짓에 끌리거나 아니면

4 스쿠너(schooner)선. 두 개 이상의 돛대에 세로돛을 단 범선.

5 보스톡(Vostok). 러시아어로 동양, 동쪽이란 뜻이다.

남을 끌리게 해서 순진하게 어리석은 짓을 할 때는 어리석은 행동도 즐겁다. 하지만 관례에 따라 의도적으로 자신과 남들을 조롱할 때는 부끄럽고 불편해진다. 만일 이것을 기분전환이나 웃고 즐길 기회로 본다면 그것으로 충분할 것이다.

축제일뿐만 아니라 평일에도 훈련과 모든 작업이 끝나면 가수와 악사들을 갑판으로 소집하는 호루라기 소리가 울린다. 그리고 바다 저 먼 곳 푸르고 화창한 하늘 아래에서 떠들썩하게 러시아 노랫소리가 울려 퍼진다. 그 노래들은 격렬한 즐거움으로 연주되는데, 어떤 즐거움인지는 신만이 아실게다. 또 노래에는 질박한 춤도 항상 함께한다. 아니면 어떤 고래의 역사적인, 이미 예전에 잊고 있었던 고통에서 나온 여러분들에게 너무 익숙한 가슴을 쥐어짜는 통곡소리와 절규가 들리고는 한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간격을 두지 않고 함께 일어난다. 거친 광분, 트레파크⁶춤의 발 딛는 소리나, 아니면 발작적인 통곡이 바다의 물결소리와 밧줄의 빼겨거리는 소리를 삼켜버린다. 이런 오락은 넵툰 축제보다 수병들에게 더 큰 의미를 가진다. 적어도 거기에는 부자연스러운 꾸밈이 없다. 여기에 여분의 술잔이 더해지면 특히 더 그렇게 된다. 배에 서는 술이 부족한 법이 없다. 수병들의 모든 시중과 비위 맞춤에 장교들은 보드카로 값을 치러준다. 장교가 자신의 볼일로 물에 다녀온다면, 돌아오는 길에 그는 노 젓는 수병들에게 보드카를 한잔씩 돌린다는 등등이다. 이런 식으로 이 술잔들은 많아지고, 수병들은 편안하게 일정량을 마실 수 있게 된다.

⁶ 트레파크(trepak). 러시아 및 우크라이나 지방의 3박자 춤곡과 그 춤을 이른다. 빠른 박자로 발을 요란히 구르며 추는 러시아 민속 무용이다.

남반구에서의 항해는 역으로 부는 남동무역풍을 만나 지체되었다. 자오선을 따라서는 이미 갈 수가 없었고, 대각선으로 우리를 아메리카 쪽으로 끌고 갔다. 6, 7 노트가 최고 속도였다. “자, 이제 당신한테 여름이 왔군요!” 할아버지가 말했다. 온몸이 땀투성이가 되었는데 그는 프루넬라⁷ 신발을 신고 있었다. 하지만 평소와 같이 단추는 모두 다 채워져 있었다. “자, 저기 상어가 있고, 이게 남십자성입니다.” 저쪽에서는 특히 눈에 뜨이게 날치가 한 무리를 이루어 물 표면을 쏙살같이 달리기 시작하였다.

P.A.는 나에게서 물러갔다. “당신은 아직 이야기를 끝까지 안 하셨어요!” 내가 그에게 말했다. 그는 두려운 듯 사방을 살폈다. “구운 오리 요리.” 나를 쳐다보지 않으려 노력하면서 뒷갑판 건너에서 목이 갈린 소리로 무섭게 말했다. “파이 ……” 선장의 하얀 정모가 뒷갑판 근처에 잠시 보였다가 사라졌다. “파이는 생강잼을 바른 호떡 …… 날 좀 내버려두시오. 당신들은 모두 나를 곤란하게 만들어요!” 그는 나에게서 가능한 한 멀리 떨어지려고 하면서 화가 나서 속삭였다. 그래서 거의 배바깥으로 나갈 기세였다. “디저트가 없겠구만!” 그는 혼자서 결론을 냈다. “Z.와 B.가 밤마다 다 먹어치웠어. 그러므로 일요일에는 한 사람당 오렌지 하나와 바나나 두 개만 줄 거야.” 이따금씩 나에게서 물어보지 않아도 그 자신이 말을 참지를 못하였다. “오늘 나는 햄을 사오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통조림 콩을 꺼낼 겁니다” 등등 모든 식사에 대해 다 이야기를 해주었다.

다섯 시쯤 전 승무원을 해수욕시켰다. 바다에 돛을 내렸고, 거기에

7 프루넬라. 신발가죽을 짓거나 가구에 씌우는 데 쓰는 단단한 천.

물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수병들이 마치 구멍으로 뛰어내리듯 뱃전에서 뛰어내렸다. 하지만 그들을 매우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만 했다. 수병들은 전부 돛의 경계 너머로 뛰어내리려 하였고, 자유롭게 대양에서 수영하고 싶어 했기 때문이다. 그들이 물에 빠질까 염려할 필요는 전혀 없다. 그들 모두 능숙하게 수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상어는 두려워했다. 한번은 장루⁸에서 수병이 고향을 질렀다. “큰 물고기가 온다!” 수영하는 사람들에게 상어가 조용히 접근했다. 수병들 모두를 물에서 밖으로 빼내고, 상어에게 양의 내장을 던져주자 순식간에 그것들을 삼켜버렸다. 그다음에 작살로 상어를 찢었다. 그놈은 자신의 몸에 핏빛 반점을 남기고 용골 밑으로 사라졌다. 상어 주위에는 항상 따라다니는 두세 마리의 물고기들이 – 우리는 그것들을 수로 안내인이라 부른다 – 마치 뱀처럼 물속에서 흔들거리고 있었다. P.A.는 해수욕 시간에도 매우 성실한 참가자였다. 그는 중대장으로서 모든 갑판을 돌아다니며, 게으른 수병들을 물에 들어가도록 하였다. “들어가, 들어가란 말이다.” 그는 고향을 질렀다. “넌 왜 옷을 벗지 않는 게냐? 비틀은 어디 있어? 파제 예프는 어디 간 거냐? 물을 향해 앞으로 갓! 쿡(요리사)도 전부 이리 나오라고 하고 전부 목욕시켜!”

⁸ 장루(檣樓). 돛대에 설치한 망루.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IV.

희망봉에서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3월 7일 아니면 8일, 맑고 따듯한 날씨 속에서 배의 흔들림이 잠잠 해지자 우리는 물을 따라 부유하는 거대한 반점 같은 무수한 빨간 덩어리들을 볼 수 있었다. 두 양동이에 가득 잡아 떠올려 보니 물고기 알이었다. 그 무리들을 만나기 직전에 전함의 바로 밑으로 지나가는 물고기 떼를 보았는데 우연이 아니었다. 나는 해수욕을 계속하고 싶었으나, 이미 열대지방이 아니어서 추웠고, 특히 시원한 바람이 분 다음에는 더 그랬다. 파제에프는 단지 나에게 양동이로 물을 부었을 뿐인데 나는 비명을 지르면 너무 좋아서 허리가 끊어지도록 웃어댔다.

9일, 우리는 폴스 만¹에 들어갈 것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밤에 그 근처를 미끄러져 지나쳐버렸고, 희망봉 저쪽으로 15마일이나 넘어왔다. 거대한 성의 성가퀴 같은 바람에 검게 그을린 거대한 절벽들이 아프리카의 남쪽 해안을 둘러막고 있다. 여기에는 거인들-바다, 바람 그리고 산들의 영원한 싸움이 있고, 영원한 파도, 거의 영원한 폭풍이 있다. 특히 행립 산(Hanglip mountain) 절벽이 절경이었다. 그 절벽의 정상은 중간으로 거칠게 휘어졌고, 아랫부분은 바다로 돌출되어 있다. 행립 산 정상은 사암으로 이루어졌고, 산기슭은 화강암으로 되어 있다. 마침내 3월 10일 저녁 6시경 나는 사다리를 따라 내려가다가 위를 쳐다보고는 충격으로 굳어져버렸다. 산이 그대로 우리를 향해 기어 내려오고 있었다. “우리가 여울에 걸린 겁니까?” 나는 할아범에게 물었다. “뭐라고요! 쓸데없는 말 하지 마세요. 닳을 내리고 정박할 겁니다!” 정말로 명령이 내려왔다. “닳줄에서 떨어져!” 그다음에 “닳을 내려라!” 떨어지는 쇠사슬의 굉음이 잠시 울려 퍼졌고, 전함은 흔들리다가 멈추어 섰다. 우리

1 폴스 만(False bay). 남아프리카공화국 남부의 희망봉 동쪽에 있는 만.

는 해안에서 1.5베르스타 거리에 정박했다. 하지만 그 해안은 산으로 이루어졌고, 사이먼스타운²의 집들과 교회의 높이로 억누르면서 거리 감각을 잃게 할 만큼 그 산은 나에게 매우 높아 보였다.

나의 길동무들은 쉴 새 없이 물에 다녀왔고, 몇몇은 카프스타드³로 떠났다. 하지만 나는 배에서 산을 바라보거나 갑판을 산책하였다. 책을 읽으려 했으나 읽지 못했고 뭍 쓰고 싶었으나 쓰이지가 않았다. 사나흘이 그렇게 지나갔고 타성은 계속되었다. 한번은 물에 다녀온 사람들이 이야기해주기를 정박장에서 한 노인이 다가오더니 정확한 러시아어로 이렇게 말하더라는 것이다. “건강을 바랍니다,⁴ 나리님!” “넌 누구냐, 어디서 왔는가?” 우리 장교가 물었다. “러시아 사람입니다.” 그가 대답했다. “1812년에 프랑스군에게 포로로 잡혔습죠. 그다음엔 워털루에서 영국군과 싸우다 붙잡혔고, 이리로 실려왔습죠. 흑인 여자와 결혼해서 아이들이 여섯 명 있습니다.” “어디 출신이지?” “오를 현입니다.” 하지만 그에게서 다른 정보를 얻기는 힘들었다. 그는 이미 러시아어로 이야기하기 힘들어했기 때문이다. 우리 배는 무방비 상태에 놓였다. 돛대장비를 내렸고, 가로고정밧줄을 풀었다. 그리고 작업들이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단정들이 쉴 새 없이 해안과 배를 왔다 갔다 했다. P.A.T.는 누런 외투에 파란 띠를 두른 밀짚모자를 쓰고 매일 텅 빈 단

2 사이먼스타운(Simon's Town).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군항이며, 케이프타운 부근에 위치해 있다.

3 카프스타드(Kaapstad). 케이프타운의 옛 이름이다. 케이프타운은 1652년 네덜란드 동인도회사가 아시아 무역의 보급기지로 건설하여 처음에는 네덜란드어로 카프스타드라고 하였다.

4 ‘건강을 바랍니다’는 러시아 군대에서 상관에 대한 인사다.

정으로 떠났다가 고기와 채소, 과일을 싣고 돌아왔다. 밀짚모자가 우족과 수박들 사이에서 마치 꽃처럼 보였다.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지?” 하루는 지루해서 파제예프에게 물어보았다. 그냥 하는 질문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채고는 그는 겹눈으로 의심스럽게 나를 보았다. “모르겠는뎡쇼.” 무관심하게 벽을 쳐다보며 그가 말했다. “어디에 도착했는지 모르는 건 바보 같은 거야.” 그는 침묵했다. “말해봐.” “내가 어떻게 압니까?” “왜 물어보지도 않지?” “물어봐서 나한테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집에 돌아가면 어디 갔었냐고 물어볼 건데, 넌 뭐라고 대답해줄래. 잘 들어. 내가 이야기해줄 테니 잘 듣고 기억해. 우리가 어디에서 여기로 왔지?” 그는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이해해보려고 그리고 가능한 한 만족시키려고 나에게 눈을 돌렸다. 나는 그에게 생각을 좀 붙여넣고 싶었다. “어디서 출발해서 여기에 도착했지?” 내가 질문을 되풀이했다. “영국에서요.” “영국 어디서?” 그는 더욱 나를 의심스럽게 흘겨보았다. 나는 그가 내 질문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알았다. “프랑스에서는, 이태리에서는 어디야?” “모르겠습니다.” “그럼 러시아에서는?” “크론슈타트에서죠.” 그가 짹짹 말했다. “지금 우리는 아프리카에 도착했어. 아프리카 남쪽 끝, 희망봉에 말이야.” “알겠습니다.” “기억해두어.”

4일째 되던 날 나는 의사들과 B.K.와 함께 해안에 내려갈 준비를 하였다. 의사들은 식물채집을 하려 하였으나, 나와 B.K.는 그들에게 방해가 되었다. 해안가에는 돌들이 여기저기 내버려져 있었는데 그것들로 괜찮은 집을 지을 수도 있을 정도였다. 내가 갈 준비를 할 때 파제예프가 나에게 왔다. “저도 같이 가게 해주십시오, 나으리.” 그가 말했다. “어디를?” “아프리카예요.” 내가 가르쳐준 것을 기억하고 그가 대답했

다. “거기서 뭘 하려고?” “저기 저 산에 올라가보고 싶습니다!”

나는 파제예프에게 이런 싹싹함이 있을 것이라고는 전혀 기대하지 않았다. 배로 돌아와서 보니 내 선실에 아름다운 꽃이 하나 있었다. 찻잔만한 크기에 장밋빛 꽃잎과 안에 짙은 갈색 이끼가 있고 긴 줄기를 가진 산에서 나는 툴립이었다. “어디서 구했지?” “아프리카에서요. 산에서 구했습니다.” 그가 대답했다.



V.
희망봉에서
자바
섬까지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희망봉에서 큰 원형의 호를 따라서 갈 예정이었다. 남위 38도까지 내려가서 위도를 따라 동경 105도까지 간다. 그곳에서 남위 30도 교차점까지 올라간다. 우리는 4월 12일 폴스 만을 떠났다.

인도양은 대서양보다도 더 나쁘게 우리를 맞아주었다. 대서양에서는 바람이 거셴지만 그래도 순풍이었는데, 여기는 바람도 거세고 또 역풍이었다. 그리고 그 바람은 폭풍으로 변하였다.

유명한 희망봉은 마치 여행자들 앞에서 자신의 감미로운 명칭을 창피하게 생각해서 그 여행자들 모두에게 그에게는 더 잘 어울리는 예전 이름이 있었음을 기억시키는 것을 의무로 여기는 듯했다. 그리고 실제로 고대에 폭풍의 곳¹에서 폭풍을 겪지 않은 배는 드물었다.

나는 희망봉이 우리에게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지 아무것도 모른 채 점심을 먹고 나서 고물돛대 근처의 공동선실에 있는 긴 의자에 앉아 있었다. 돛을 접어 줄이기 위해 전원 갑판에 집합하라는 호각소리가 몇 번 울렸다. 나는 이미 지금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물어보지 않는다. “바람이 세집니다!”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장교들이 말했다. 하지만 이것도 바다에서는 일상적인 것이다. 마치 육지에서 “비가 온다, 날씨가 흐리다, 맑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흔들림이 시작되었고, 굉장히 심했는데 나중에는 이걸 아무것도 아니었다. 자연 연구 애호가는 늘 하던 대로 배멀미로 괴로워하며 침대로 향했다. 하인들이

¹ 폭풍의 곳(Cape of Storms). 희망봉의 옛 이름. 1488년 포르투갈의 항해자 바르톨로메우 디아스는 희망봉을 발견하고, 폭풍의 곳(Cabo das Tormentas)이라고 이름 붙였다. 그 후 1497년 바스코 다 가마가 이 곳을 통과하여 인도로 가는 항로를 개척한 데서 연유하여 포르투갈 왕 후안 2세가 희망봉이라고 개칭하였다.

의자들·킥들, 이리저리 굴러다니는 모든 것들을 붙잡았고, 선실의 가구를 밧줄로 땀다. 비가 왔고, 선실에 푹푹 물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내가 앉아 있는 자리는 가장 조용한 자리였다. 그리고 나는 그 자리를 끝까지 지켰다. 바람이 울부짖는 소리가 선실까지 날아왔고, 배의 진폭은 점점 더 커져갔다. 폭풍은 모든 면에서 전형적이었다. 폭풍을 보라고 저녁 동안 갑판에서 두어 번 나를 부르러 왔다. 한쪽에서는 먹구름을 뚫고 나온 달이 바다와 배를 밝히고, 다른 쪽에서는 참을 수 없는 섬광으로 번개가 치고 있다고 이야기해주었다. 그들은 내가 이 광경을 묘사하여 기록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내가 앉아 있는 이 조용하고 마른자리에는 이미 서너 명의 경쟁자가 있었다. 나는 그 자리에 밤까지 앉아 있고 싶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는 못했다. 저녁 10시쯤에 무자비하게 배를 밑에서 때리자 높은 파도가 밀려들었고, 안 그래도 빗물이 가득 고여 있는 갑판 전체에 넘쳐흘렀다. 그 물은 통풍을 위해 닫지 않은 승강구 쪽으로 냇물을 이뤄 돌진했다. 견잡을 수 없는 급류가 폭풍이 되어 선실로 들이닥쳐 탁자, 긴의자, 마루와 우리들을 내리쳤다. 나와 내 자리도 예외가 될 수 없었다. 모두가 다리를 오그리거나 어디로 갈 수 있는 사람은 사방으로 뛰어갔다. 우리 동행자들 중 어리고 가장 쾌활한 Z는 긴의자로 뛰어올라가 구석 어딘가에서 고양이를 움켜쥐더니 늘 그랬던 웃음소리를 내며 고양이를 폭포 아래로 던졌다. 네덜란드인 소년은 최후의 순간이 왔다고 생각했는지 슬프게 울기 시작했다. B는 자신의 선실에서 밖을 내다보고는 대걸레로 물을 선창으로 쓸어내라고 당직병들에게 고향쳤다. 나는 다리의 4분의 1 정도 높이로 차 있는 물속에서 있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다. 게다가 나는 반장화를 신고 있었다. 이미 북회귀선에서부터 우리는 장화

를 신지 않았다. 나는 위쪽으로, 내 선실이나 선장실로 빠져나가고 싶었다. 그리고 물이 줄어들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다.

“거기에 왜 그렇게 서 계세요? 위로 올라갑시다.” N.N.S.가 지나가는 길에 말하더니 나를 움켜잡고는 끌고 뛰어가기 시작했다.

사다리를 따라 물이 냇물을 이뤄 다시 돌진해 들어왔다. 하지만 내 다리는 이미 무릎까지 물에 잠겨 있다. 어떻게 물에 젖지 않고 통과할까 궁리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위로 겨우 빠져나왔다. 어두움이 끄찍했다. 바람이 울부짖는 소리는 더 끄찍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보이지가 않았다. 갑자기 번개가 쳤다. 번개는 바다는 비추지 못했지만, 갑판 위에 물이 만들어놓은 호수, 로프를 당기고 있는 사람들 무리 그리고 배가 흔들릴 때 붙들고 있기 위해 팽팽히 당겨져 있는 안전밧줄을 밝게 비추었다.

나는 물속에서 밧줄을 잡고 사람들을 지나갔다. 어떻게 내 선실 문 앞까지 도달해서는 거기서 어느 구석으로 처박히지 않기 위해서, 아마도 대포에 부딪히지 않기 위해서였을 것인데, 말뚝을 붙잡고 멈추어 서서는 칭송을 들은 폭풍을 쳐다보았다. 번개는 흔히 보던 번개였는데, 단지 천둥소리가 없었다. 아니면 바람소리 때문에 못 들었던 것이다. 달은 없었다.

“달은 어디 있습니까? 달을 주세요!” 나를 위로 올라오라고 부르기 위해 내 뒤를 쫓아오던 할아범에게 말했다.

“없습니다. 달은 이미 아메리카로 떠났어요.” 그는 말했다. “당신은 내일까지도 선실에 앉아계실 텐데요 뭐!”

다음 날 조금 잠잠해졌다. 하지만 흔들림은 여전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의 수요일²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다. 고난주간의 나머지 날과 부활절 아침도 조용히 지나갔다. 흥분했던 것은 이날 우리

는 페테르부르크가 있는 자오선에 있다는 것이다.

“그래 보여.” 누군가 말했다. “비도 완전히 우리식으로 내리는구먼.”

5월 13일 우리는 고글랜드 섬³과 형태상 약간 비슷해 보이는 무인도 크리스마스 섬⁴을 지나갔다.

하루는 나는 기진맥진해서 선장실 소파에 앉아 뜻하지 않게 잠들어 버렸다. 고태소리를 듣고 깨보니 날이 밝아 있었다. 몇 시냐고 물었더니 다섯 시라고 했다. “대포에 포환을 장전하라!” 당직장교가 고태를 질렀다. 이게 뭐지, 저기 누가 있는 거지? 나는 생각했다. 이때 당직을 서던 수병이 와서 말하기를 배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 뭇지 모를 것이 보인다고 했다. 나는 위로 갑판으로 뛰어갔다. 대포에 올라가서 보니 가까이 반 베르스타 정도 거리에서 우리를 향해 정말로 ‘뭇지 모를 것’이 질주해오고 있었다. 연기가 피어오르는 시키멧고 돌면서 날아오르는 기동인데, 배와 비슷해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하늘의

2 고난주간(苦難週間, Passion Week)의 수요일. 고난주간은 예수가 로마군에 붙잡혀 빌라도의 재판을 거쳐 십자가에서 사형을 받기까지 지상에서 겪은 고난을 기념하는 주간이다. 예수의 마지막 일주일을 묵상하는 교회력의 절기며, 고난주간의 다음 날이 부활절이다.

3 고글랜드(Gogland), 핀란드어로는 수르사리(Suursaari), 스웨덴어로는 호글랜드(Hogland)라고 불린다. 발트 해의 핀란드 만에 있는 섬으로 페테르부르크에서 서쪽으로 180km에 위치해 있다. 크기는 21km²이고 러시아 레닌그라드 주에 속해 있다.

4 크리스마스 섬(Christmas Islands). 인도양에 있는 호주령의 섬이다. 1643년 영국의 동인도회사 소속 선박인 로열 메리호의 선장 윌리엄 마이노스(William Mynors)가 크리스마스 날 이 섬을 발견하여 이렇게 이름 붙였다. 1888년부터 영국의 식민지가 되었으며, 1958년 호주의 요청으로 영국은 이 섬의 점유권을 양도하였다.

구름에서 검고 가느다란 줄이 마치 지류처럼 그 기둥을 향해 뻗어 있다. 점점 더 가까워졌다. “대포는 준비됐나?” 당직장교가 외쳤다. “준비됐습니다!” 아래쪽에서 대답했다. 하지만 그 현상은 희미해지고 분해되기 시작하더니 곧 우리에게서 150사젠 정도쯤 되는 거리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회오리나 물기둥을 배에서 대포를 쏘아 분쇄하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들이 배를 덮쳐 돛대를 상하게 하거나 돛을 찢을 수도 있다. 포를 쏘면 그것들은 사방으로 흩어져 엄청난 비로 변한다. 이후에도 우리는 이런 현상을 두어 번 보았지만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지는 않았다.

무풍은 우리를 거의 이틀 동안 한곳에 머물게 했다. 마침내 우리 달력으로 5월 17일에 조금 세진 바람을 따라서 낮고 녹음이 파묻혀 보이지 않는 해안을 지나 안예르⁵의 정박장에 도착해서 닻을 던졌다. 몇 시간 뒤에 그곳으로 스페인에서 마닐라로 병력을 실어나르는 스페인 수송선이 도착했다.

나는 마침내 어떤 과거나 역사도 없는 해안에 도착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 책을 뒤적거리거나 알아볼 필요도 없고, 이 도시나 국가가 언제 세워졌고, 무엇을 하는지 등에 대해 여러분에게 확신시킬 필요도 없다. 안예르는 어떤 곳인가? 말레이인들의 마을로 어떤 변화도 겪지 않은 곳이다. 이곳에 대해서는 이미 툰버그도 언급한 바 있다. 안예르는 지금 그런 것처럼 그때에도 똑같았다. 안예르 인근의 정박장에서는 치명적인 열병, 특히 외국인들에게는 더 위험한 열병이 맹위를 떨치고 있

⁵ 안예르(Anyer). 자카르타 근교의 마을 이름. 지금은 해변 휴양지로 유명하다. 현재는 자카르타에서 안예르까지는 차로 두 시간 거리다.

는 바타비아⁶로 가기를 원치 않는 배들이 정박해서 식수를 채우고 채소를 저장했다. 바타비아는 여기서 육로로 말을 이용하면 하루에 갈 수 있는 거리다. 우리는 바타비아로 가서 거기서 하루 머물고 돌아오는 것을 기대했다. 우리는 포장도로와 편리한 승용마차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런 것은 없었다. 2주에 한번 안예르에서 바타비아로 우편물이 발송되는데, 우편배달부는 말을 타고 갔다.

그다음 날 아침 우리는 안예르에 다 합쳐 세 명 있다는 유럽인들 중 한 명도 만나보지 못하고 떠났다. 우리는 자바와 수마트라의 습하고 꽃이 만발한 해안들 사이로 해협을 따라 항해했다. 해협의 거울 표면 같은 매끈한 수면 위에는 곳곳에 마치 채소를 담은 바구니 같은 작은 섬들이 있었다. 그 섬들은 두 형제, 세 자매 같은 이름으로 해도에만 표시되어 있다. 군데군데 돌섬들이 떨어져 있는데, 이름은 없고 녹음으로 무성히 뒤덮혀 있다.

⁶ 바타비아(Batavia). 인도네시아의 수도 자카르타의 옛 이름. 네덜란드인들이 이렇게 불렀으며,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일본에서 독립한 후 다시 자카르타로 이름이 바뀌었다.

VI. 싱가포르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마치 매복한 비밀스런 적을 찾아내기라도 하듯이 우리는 어둠 속에 서 조심스럽게 천천히 싱가포르의 정박장으로 다가갔다. 이 해역의 수심과 특성을 연구한 저명한 호스버그¹의 표기들과 측심기가 매 순간마다 우리를 이끌었다. 마침내 닻이 내려지자 전함에 감돌던 긴장된 주의와 그 지역에 대한 세밀한 연구, 선원들의 부산한 움직임은 곧 무사태평한 휴식으로 바뀌었다.

순드 해협에서 시작해서 우리 모두는 밤을 즐겼다. 여기 하늘은 아무리 읽어도 지겹지 않은 책과 같다. 이곳의 하늘은 마치 땅과 더 가까운 듯이 더 열려 있고 더 선명하다. 밤마다 별들과 밝게 빛나는 새벽, 특히 불꽃처럼 빛을 내며 가끔씩 온갖 방향으로 하늘에 지나간 자국을 내는 혜성들을 감상하면서 나는 B.K.와 오랫동안 당직용 긴 의자에 함께 있었다.

어느 날 밤의 정적 속에서 갑자기 유쾌한 소음이 프리깃함(전함 팔다호) 주위에서 울렸다. “저게 뭐지? 넓은 바다에 보트가 있어?” 나는 이렇게 묻고는 포문으로 뚫어지게 살펴보기 시작했다. 그러자 포 위에 걸터앉아 배 밖에서 물을 길어 나에게 퍼부어주던 파제예프도 쳐다보기 시작했다. 보트에는 세 사람이 타고 있는데 어두워서 누군지는 알

1 제임스 호스버그(James Horsburgh, 1762~1836). 스코틀랜드의 수로지리학자다. 동인도회사에서 일하며, 18세기 말과 19세기 초에 싱가포르 주위의 수로를 조사하고 작성하였다. 그가 작성한 인도양에 대한 「수로지(水路誌, sailing directions)」는 당시 매우 유명하였다. 수로지는 항해자에게 항해할 때 필요한 정보와 보안상의 예비지식을 주기 위해 만든 지도 또는 안내서를 말한다. 여기에는 해상의 기상, 해류, 조류 등과 같은 여러 현상 및 연안의 지형, 항만의 상황과 시설들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처음으로 항해하는 항해자에게도 그 지역에 관한 상세한 예비지식을 제공하기 때문에 해도와 함께 아주 중요하다.

수 없었다. “저 사람들은 대체 누구지?” 나는 그들의 출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몰라서 물어보았다. “또 핀란드놈들이죠, 뭐. 나으리!” 파제예프는 그가 자바 섬에서 본 말레이 사람들²을 염두에 두고 심드령하게 이야기했다. “아니면 리투아니아³ 사람들이든지.” 다른 수병이 이야기했다. 더 심드령하게 말이다.

덴마크 코르벳함 ‘갈라테아’의 함장이자 여행기 저자인 스텐 빌⁴은 지금의 싱가포르를 상업적 측면에서 고대 베네치아와 비교하였다. 적절치 못한 비교이고, 싱가포르로서는 완전히 기분 좋은 비교는 아니다. 영국이 등장하기 전에 베네치아 공화국 시대의 자본이 도대체 무어란 말인가? 싱가포르가 지금 인도, 중국, 말레이 반도, 호주, 삼,⁵ 코친차이나,⁶ 버마제국과의 관계에서 가지는 위치 앞에 당시의 동양과 서양 사이에서 베네치아가 가졌던 위치는 또 무어란 말인가? 위의 나라들은 모두 자신의 생산물들을 싱가포르로 보내고 그 생산물들은 거기서 유럽으로 보내진다. 또 유럽에서 여기로 가져오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지금의 편이함 앞에 소위 말하는 당시의 사치는 또 무어란 말인가? 사

2 말레이 사람. 말레이제도와 그 부근에 사는 여러 민족의 총칭. 피부는 황색·갈색이며, 머리는 검정색이고 입술이 두툼하다.

3 리투아니아(Lithuania). 유럽 동북부 발트 해 연안에 있는 나라. 발트 3국의 하나며, 러시아 북서부에 위치한다.

4 스텐 빌(Sten Bille, 1797~1883). 덴마크의 해군장교. 해군성장관과 부제독을 역임했다. 1845~1847년까지 ‘갈라테아’호로 세계일주 항해를 하고 여행기를 썼다. Bille S., Bencht uber die Reise der Corvette “Galatea” um die Welt in den Jahren 1845, 46 und 47, Copenhagen: Leipzig, 1852, Bd. 1-2.

5 삼(Siam). 태국의 옛 이름.

6 코친차이나(Cochinchine).

치는 최악이고 기형적인 것이며 자연스러운 욕구의 경계를 넘어서는 인간의 비정상적인 끌림이고 방탕이다. 새의 뇌나 혀로 만든 요리나 생선살 요리에 그 요리가 다른 비싸지 않은 요리보다 훨씬 맛있기 때문이 아니라 이 뇌 요리나 생선 요리가 희귀하다는 이유로 천 개의 금화를 지불하는 것이 방탕과 기형적인 것이 아니면 무어란 말인가? 아니면 자기 재산의 절반을 주어야만 살 수 있는데도, 다른 사람들에게 없는 그런 식기로 식사를 하는 게 미친 짓이 아닌가? 자신을 금과 보석으로 묶어놓아 몸을 돌리기도 어렵게 만들거나, 거미줄 같은 레이스를 입어 어디에 함부로 앉거나 기대는 것도 두려운 게 또한 어리석은 짓이 아닌가?

우리 수병들이 토착민들에게 과일이나 여러 물건들, 자그마한 상자들, 부채, 면으로 된 천 등을 어떻게 사는지 보는 것은 매우 흥미로웠다. 어떤 언어를 만들어내는지 그들은 서로 이해를 하는 것이다! 파제예프는 내 부탁으로 돈을 가지고 보트에 내려서 파인애플과 다른 것들을 샀다. 나는 거기서 그가 말다툼을 하고 화를 내는 것을 보았다. 마침내 흥정이 이루어져 그는 필요한 것을 가져왔다. “제길, 저들을 이해 못하겠습니다!” 돌아오면서 그가 말했다. “어제는 반 실닉⁷을 달라더니, 지금은 1실닉을 요구하고 말입니다.” “넌 거기서 어떻게 그들과 이야기를 했어?” “영국 사람 말로 했습죠.” “어떻게 물어보았어?” “여기 물건을 손에 들고, 아마치(how much)? 하고 물어보았죠.”

6월 초에 우리는 싱가포르를 떠났다. 일주일은 이곳을 알기에는 너무 많은 시간이었다. 만일 우리에게 하루가 더 남아 있었다면 지겨움과

⁷ 파제예프는 영국의 옛 화폐인 실링(shilling)을 실닉이라고 발음하고 있다.

더위 때문에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을 것이다. 인도는 우리에게 맞지 않았다! 그리고 영국인들은 기회가 생겼을 때 이 기후에서 빠져나가 희망봉으로, 적손항으로 갔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적도에서 더 멀리, 이 작열하는 날들과 선선하지 않는 밤들에서 도망쳐간 것이다.

나는 싱가포르에 갔던 것이 기쁘다. 하지만 유감없이 그곳을 떠나왔다. 그리고 만일 그곳에 다시 돌아간다면 기꺼이는 아니고, 어쩔 수 없이 가게 될 것이다.



VII.

홍콩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나는 곤콩(혹은 중국어로 바르게 발음하면 홍콩)¹에서 여러분들께 편지를 쓰지 않았다. 도저히 쓸 수가 없었다. 너무나 더웠기 때문이다. 그곳에서 어떻게 사람들이 사무실에 앉아 있고 글을 쓰고 셈을 하고 잡지들을 발행하는지 나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우리가 그곳에 도착했을 때 해는 천정(天頂)에 걸려 있었고, 햇빛은 직선으로 내리쬐었다. 무언가를 하고 있기를! 지금은 바다에서 글을 쓰고 있다. 그리고 언제 어디서 이 편지를 보낼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 중국에서 보낼 수 있을까, 하지만 중국은 일본을 거친 다음에야 갈 텐데. 어쨌든 여러분들에게 홍콩에 대해 몇 마디 간단히 이야기하고 싶다. 들렸던 모든 곳들에 대해 이야기하기로 약속한 것 때문에 그러지만, 사실인즉 홍콩에 대해선 할 말이 없다. 아니면 꼭 해야 되기 때문에 말을 하기 시작하면 무역이나 정치 논문을 써야만 하는데, 이건 내 일이 아니다. 무엇을 쓰기로 약속했는지 기억하시기 바란다!

홍콩의 정박장에 처음 자리를 잡으면 꽤 괜찮은 곳에 왔다는 생각이 들 것이다. 주위를 아무리 둘러봐도 모두가 높은 푸른 언덕들이다. 언덕에 나무들은 없었다. 하지만 적도나 열대지방에서 조금만 멀어져도 해변에는 식물들이 거의 없다. 나무들이 좀 더 먼 곳에, 골짜기에 있으리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는 훨씬 더 멀리 있을 것으로 여겨야만 한다. 나무가 있는 곳까지 갈 수 있다는 희망은 버리고 말이다. 홍콩 섬 인근을 한번 둘러보시라. 여러분의 시선은 가는 곳마다 벽이나 군데군데 풀들이 나 있는 적황색 산에 막히게 될 것이다. 그 산기슭에는 해안을 따라 집들이 무리지어 있고, 그 집들 사이로

1 러시아어로 홍콩은 곤콩(Gon-Kong)으로 표기된다.

마치 치장한 것처럼 파인애플 잎사귀 묶음이 곳곳에서 보였다. 그리고 담장 밖으로 햇빛에 말라죽은 나무꼭대기가 가끔씩 보이기도 했는데, 마치 널찍한 빗자루 같았다.

그 대신에 모래와 돌은 무진장 풍부하다. 영국인들은 이 재료들도 이용할 줄 알았다. 여러분은 산의 높은 곳의 이곳저곳에 외따로 있는 석조 주택이나 뿔 짓기 위해 깨끗하게 닦아놓은 장소들을 볼 수 있을 것이다. 해안가의 훌륭한 집들을 보면서 여러분은 이 산이 앞으로 가지게 될 모습을 머릿속에서 반드시 그려볼 것이다. 1842년 난징조약²에 따라 중국인들이 당시 번성하던 주산열도³ 대신 영국인들에게 이 불모의 돌투성이 땅을 줄 때 빨간 머리 야만인들이 이 황무지를 어떻게 바꾸어 놓을지 그들은 상상도 못했을 것이다. 또한 중국인들은 자신의 손으로 스스로를 해롭게 하게 될지를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다. 영국인들이 돌을 다듬어 벽을 쌓고 흉벽(胸壁)을 만들어서 대포를 설치할 것을 말이다.

늦은 저녁 열정적이고 빛나는 매혹적인 밤이 도래했을 때 나는 선착장으로 돌아왔다가 거기서 단정을 기다리고 있던 P.를 만났다. 그런데 거기에 중국 보트가 있었고, 우리는 달빛에 두 여성의 형체를 보았다. “단정을 기다릴 필요가 뭐 있어요?” 내가 말했다. “저기 사공들이 있네

² 난징조약[南京條約, Nanjing]. 1842년 아편전쟁의 결과로 영국과 중국 청나라가 맺은 조약. 이 조약에 따라 영국은 홍콩을 할양받았다.

³ 주산열도(舟山列島). 중국 절강성에 속해 있는 열도다. 아편전쟁이 발발하자 1840년 7월 영국은 2척의 전함으로 절강성의 주요 무역항인 옹포를 봉쇄한 후 그 외곽에 위치한 주산열도를 점령하여 거점으로 삼았다. 영국인들은 원래 홍콩이 아니라 주산열도를 중국과의 교역 거점으로 만들려 하였다.

요. 저기 탑시다.” 우리는 보트에 앉았고 두 여성은 보트 뒤쪽에 고정되어 있는 하나뿐인 노를 쥐고는 그것을 오른쪽 왼쪽으로 활기차게 젓기 시작했다. 달은 그들의 얼굴을 바로 비추었다. 한 여자는 노파였고, 다른 여자는 열다섯 살쯤 되어 보였는데, 얼굴은 창백했고 작긴 하지만 까맣고 아름다운 눈이었다. 머리카락은 뒤통수에 은빛 핀으로 고정했다. “러시아 프리깃함에 데려다주세요!” 우리가 말했다. “Two shillings(2실링!)” 젊은 여자가 선언했다. “100파운드 줄게, 요 예쁜이!” 내 동료가 말했다. “비싸.” 내가 지적했다. “Two shillings!” 그녀가 무미건조하게 다시 말했다. “넌 여기 사람이 아니네, 너무 하얗거든. 어디서 왔어? 이름이 뭐야?” 그녀 쪽으로 가까이 다가가려고 하면서 P.가 캐물었다. “마카오에서 왔어요. 이름은 에톨라예요.” 그녀는 영어로 대답했는데 중국인들이 통상 그러듯이 몇 음절의 소리를 들리지 않게 삼키듯 이야기했다. “Two shillings!” 침묵하다가 그다음에 덧붙여 말했다. “예쁘구먼!” 내 동료는 계속했다. “손 좀 보여줘, 말해봐, 몇 살이야? 넌 누가 더 마음에 들어, 우리 영국인이야 중국인들이야?” “Two shillings!” 그녀가 대답했다. 우리는 프리깃함에 다다랐다. 내 길동무는 그녀의 팔을 잡았다. 하지만 나는 벌써 트랩을 오르고 있었다. “나한테 뭐라 말 좀 해봐, 에톨라!” 팔을 붙들고 그는 그녀에게 이야기했다. 그녀는 말이 없었다. “말 좀 해봐, 너는 ……” “Two shillings!” 그녀가 반복했다. 나는 웃으면서, 하지만 그는 한숨을 쉬면서 돈을 치르고 각자의 선실로 헤어졌다.

어느 날 잡다한 물건들을 많이 살 때였다. 나는 구입한 것들을 모두 쿨리⁴에게 주었고, 그는 그것들을 바구니에 넣고 내 뒤를 따라왔다. 하지만 나와 함께 있던 파제예프는 그것을 참지 못하였고 그에게서 바구니

니를 빼앗아서 직접 날랐다. 나는 그에게 외국인과 나으리의 노릇을 하고 싶은 욕망을 도저히 불어넣을 수가 없었다. 그리고 선착장까지 가는 우리의 길은 바구니를 든 파제예프와 쿨리의 계속되는 싸움이었다. 나는 보트를 한 척 빌렸고, 거기에 파제예프를 앉혔다. 하지만 쿨리가 그를 쫓아와 싸움이 다시 재개되었다. 보트에서 중국인들이 고향을 질렀다. 쿨리는 마치 중국 관리처럼 보트에 편안히 앉아서 두 손으로 바구니를 꼭 쥐고 있던 파제예프에게 달라붙었다. 사공은 이 일이 끝나기를 기다리면서 우리를 데려다주려 하지 않았다. 파제예프는 바구니를 들고 다시 선착장 기슭으로 나가려 했지만 그를 보내주지 않았다. “잠깐만요, 나으리, 해결하겠습니다.” 그는 한손으로 바구니를 들고, 다른 손으로는 힘차게 중국인들을 밀어젓히면서 기슭으로 겨우 빠져나갔다. 나는 그가 결판을 내도록 남겨두고 출발했다. 멀리서 보니 그는 마치 개떼들 속의 곰같이 중국인들을 쥐어박으며 떨구어내고 있었다. 그 다음에 의기양양하게 우리 단정에 타고 오는 그를 보았는데 물건들만 들고 있었고, 바구니는 없었다. 그 바구니는 쿨리의 것이었고, 이 싸움의 원천이 되었다. 우리의 이해가 더뎠던 것이다.

4 쿨리(苦力, coolie). 제2차 세계대전 이전의 중국과 인도의 하층 노동자. 쿨리의 어원은 ‘쿠리[苦力]’며, 힘든 일을 한다는 뜻이다. 짐꾼이라는 뜻으로 쓰이기도 한다.

VIII. 보닌 제도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홍콩에서 우리가 가야 되는 보닌 제도(오가사와라 제도)¹까지는 총 1,600마일이다. 이 거리는 세계일주 항해에서 그렇게 긴 항해 여정은 아니다. 좋은 순풍을 만난다면 7일이나 8일에 완주하는 거리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6월 26일 홍콩에서 나와서 7월 5일까지 겨우 300마일을 갔을 뿐이다. 다시 말하자면 하루하고 조금 더 걸리면 갔을 그 거리를 말이다. 그렇게 역동풍(逆東風)은 우리를 지체시켰다. 하루에 겨우 8~12 베르스타 가면서, 맞바람에 돛을 번갈아 좌우로 돌리면서 가는 것도 지겨워지자 우리는 남쪽으로 조금 내려갔다. 행여나 그곳에서 다른 바람을 만나지나 않을까, 또 말이 난 김에 포르모사 섬 남쪽에 있는 바시의 작은 섬들에 들러서, 어떤 섬인지 살펴보고는 채소나 과일 등 여러 가지를 장만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걸었다. 거기에는 스페인 관리와 몇 명의 수도사들이 살고 있고, 인도 아가씨들이 있다고 했다.

7일 저녁 우리는 그 섬들 중 주 섬인 바탄 섬으로 다가갔다. 그곳에는 벨처²가 표시한 대로라면 돛을 내릴 장소가 있었다. 하지만 북쪽 면에서 그리고 남쪽 면에서도 섬을 한 바퀴 둘러보았지만, 우리는 거대한

1 보닌 제도(Bonin Is.). 일본 본토에서 남으로 약 1,000km 떨어진 서태평양에 있는 제도다. 다양한 생물이 서식하고 있어 동양의 갈라파고스라 불리며, 2011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되었다. 오가사와라 제도[小笠原諸島, Ogasawara Islands]라고도 한다. 면적은 106km²이다. 무코지마 섬[鰐島]·지치지마 섬[父島]·하하지마 섬[母島] 등 3열도와 지치지마 섬 서쪽 30km 해상에 있는 하나레지마 섬[離島]·니시노 섬[西之島] 등 30여 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다.

2 에드워드 벨처(Edward Belcher, 1799~1877). 영국의 탐험가, 해군장교. 지리에 관한 여러 글을 남겼으며, 특히 1836~1842년간의 세계일주 항해에 대한 책이 유명하다. 1845년 6월에 사마랑(Samarang)호를 타고 제주도와 거문도를 측량하였다.

절벽과 사방에서 해안을 때리는 거품 이는 물결의 하얀 테두리만 보았다. 거주 지역에서는 항상 그랬지만, 섬에서는 우리한테로 보트 한 척 나오지 않았다. 해안에는 한 사람도 보이지 않았고, 단지 해안 근처인가, 물결의 하얀 테두리 속에서 두 개의 불빛이 반짝했다가 사라졌다. 갈 곳이 없었다. 밤에 선착장을 찾기는 어두웠다. 그렇다고 돛을 펴고 아침까지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섬의 북쪽 끝을 이루는 침울한 바위 절벽을 구경하면서 우리는 더 내려와서 태평양으로 나왔다. 태평! 태평양은 마치 우리가 그 이름을 고안하기라도 한 것처럼 우리를 포함한 불쌍한 항해자들에게 태평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저녁 무렵 신선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나는 글을 써보려 했지만 헛수고였다. 잉크병도 촛불도 탁자에 서 있지 못했고, 종이는 손 아래에서 미끄러 떨어졌다. 몇 자 쓴다고 해도, 뒤로 자빠지지 않으려면 이내 손을 뒤로 뻗쳐 벽에 기대야 했다. 나는 모든 걸 버리고 선미갑판³을 따라 걸어다니려고 나갔다. 하지만 내 다리가 바다에 익숙해졌음에도 이것도 성공적이지 못했다.

가끔씩은 내동댕이쳐져서 대포 도르레나 제일 먼저 잡히는 밧줄을 꼭 붙들어야만 했다. 그러는 사이 바람은 더욱더 엉뚱거렸다. 내 방문은 반쯤 열려 있는데, 갑판의 모든 소음과 움직임은 들을 수 있었다.

내 작은 선실, 특히 침대에는 머물러 있으면 안 되었다. 침대 머리맡 쪽으로 쓸러가게 되면 부딪쳐 머리에서 피가 나고, 또 반대로 흔들리면

3 범선의 선미 부분에 일반 갑판보다 한 단계 높게 있는 갑판이다.

베개 등 모든 물건들과 함께 벽 쪽으로 쓸려가게 된다. 선반에 놓아둔 것들, 못에 걸려 있는 것들, 서랍장에 넣어둔 모든 것들이 움직이고 들썩거리기 시작했다. 책들은 바닥과 침대로 떨어졌고, 솔과 군모들이 위에서 흩어졌다. 컵과 조그만 유리병들이 소리를 내면서 깨졌다. 그러는 사이 날이 밝았다. 나는 일어나 갑판으로 나갔다. 거기에는 결정적으로 모든 것이 있었다. 파도는 그물망보다 더 높이 넘실거렸고, 갑판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보려고 동물처럼 거기를 들여다보았다. 흔들림과 진동은 더 심해졌다. ‘이게 도대체 어디까지 가려는지?’ 바람의 점진적인 힘을 지켜보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

바람은 울부짖고 있었다. 파도는 꼭대기 부분을 편평하게 만들어 그것을 마치 채를 통해 뿌리듯이 대양에 뿌리고 있다. 파도 위에는 물 분말이 구름을 이루고 있었다. 나는 다시금 내가 예전에 했던 비유가 옳았음을 알았다. 광란에 싸여 서로를 갈기갈기 찢고 있는 야생 동물 무리였다. 사자와 호랑이 몇 마리가 달려들고 한 마리가 다른 놈을 물어 뜯기 위해 뛰어올라 뒷발로 섰다가 위로 뛰어오르고, 그리고 위에서 갑자기 한 무더기가 되어 아래로 떨어졌다. 그리고 물 연무만 기둥처럼 위에서 있고, 배는 그 짐승들을 따라 저쪽 심연으로 날아간다. 하지만 새로운 힘이 배를 다시 위로 밀어올리고, 그다음 옆으로 세운다. 단정들은 단정주에서 우지끈 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두세 명이, 그 속에는 나도 포함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 이쪽 구석에서 저쪽으로 빠르게 움직였다. 거기서 어마어마한 파도가 갑자기 그물을 때리고 뱃전을 뛰어넘었다. 그리고 수병들의 발을 적시며 갑판을 따라 흘러넘쳤다. 수평선은 온통 회색 물 연무로 가득했다. 정상적인 물결은 없었다. 바닷물은 끓는 물처럼 북받쳐올랐고, 파도는 형체를 잃었다.

계속 기압계를 알아보러 다녔다. “어때, 떨어졌어?” 30에 15. 다시 29에 75. 그다음엔 29에 45, 그다음 29에 30, 29에 15. 마침내 28에 42. 기압계는 빠르게 떨어졌다. 하지만 점차적으로 100분의 1씩 하루에 30에 75에서 28에 42까지 떨어졌다. 이 지점에 이르자 바람은 난폭함의 끝에 다다랐다.

선실의 창문은 활짝 열려 있어서, 바다는 내 눈앞에서 자신의 모든 거친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창문과 포문들은 해양식으로 높이 위치해 있어서 물이 다다르지는 않는다.

가는 곳마다 축축했고 어두웠다. 상층 선실을 제외하고는 피난처는 어디에도 없다. 하지만 마침내 거기도 창문을 닫아야만 했다. 바람이 파도의 윗부분을 기구와 바닥, 벽들에 뿌려댔기 때문이다. 저녁 무렵이 되자 폭풍이 얼마나 심해졌던지 바람 부는 소리와 천둥 치는 소리를 분간하지 못할 정도였다. 갑자기 소동이 일어났다. 급박한 명령소리가 들렸고, S-ch가 폭풍우의 울부짖는 소음 위로 확성기로 격하게 소리치고 있었다.

“무슨 일입니까?” 난 누군가에게 물어보았다.

“앞 돛대의 돛이 찢어졌어요”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30분이 지나자 세로돛이 뜯겨나갔다. 마침내 앞 돛대의 가운데 돛이 반으로 찢겨졌다. 상황이 심각하게 되었다. 하지만 더 심각한 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돛을 어떻게 다른 것으로 교체하였다. 저녁 7시경 지휘관들의 얼굴에 근심이 가득 퍼졌다. 그리고 왜 그런지 알게 되었다. 가로고정밧줄이 약해지더니, 가는 밧줄이 아래로 처지고, 무너질

뚝이 위협스럽게 주 돛대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여러분은 주 돛대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넘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시니까? 주 돛대는 약 100피트 길이에 무게는 800파운드 가 나가는 통나무인데, 그것은 돛대 꼭대기에서 그물망 쪽으로 뻗어 있는 두껍고, 수지를 먹인 로프나 밧줄로 지탱되고 있다. 한번 상상을 해 보시라. 어떤 탑이 있고, 그 탑 아래에 당신들이 살고 있는데, 무너질 위험에 처해 있다. 그런데 당신은 그 탑이 어느 방향으로 넘어질지 안다고 가정해보자. 당신은 당연히 아주 멀리 도망치겠지요. 그런데 여긴 배 안이다! 무너지는 걸 기다리는 건 고통스럽기 짝이 없고, 고통스런 감정은 표현을 못할 정도다. 주 돛대가 넘어지면, 그 주 돛대가 배를 어떻게 옆으로 기울게 하고, 그물망(즉, 배의 끝부분)을 쳐서 넘어뜨리고, 파도가 갑판으로 어떻게 흘러 들어올 것인지, 물론 모두가 잘 알고 있다. 갑자기 한쪽 측면에 가해지는 무거운 압력에서 배를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바람 받는 쪽의 돛 줄을 조금 잘라내야만 된다. 그렇지 않으면 배는 뱃전으로 물을 깊이 뒤집어쓰고는 다시 일어나지 못할 수도 있다.

모든 이들의 머릿속에는, 물론 이런 생각들이 솟아오르고 있다. 하지만 아무도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지는 않는다. 할 틈이 없는 것이다. 움직여야만 했고, 그리고 움직였다. 그 순간 얼마나 많은 이들이 에너지와 영리함, 그리고 침착성을 보여주었는지! S.에게는 마치 축제날 같았다. 반짝이는 눈빛의 그는 물을 흠뻑 뒤집어쓴 채 바람이 자신을 뒤로 하고 파괴의 흔적을 남긴 곳마다 날아다녔다.

이미 밤이 되었지만 작업은 활기 있게 진척되었고, 일을 마치기 전

까지는 수그러들지를 않았다. 다음 날 가로고정밭줄을 당겨 퍼기 시작했다. 다행히도 날씨가 조용해져서 그것을 해낼 수 있었다. 기회가 좋았다. 오늘 뚝대가 거의 단단히 세워졌다. 그래도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여분의 가로고정밭줄을 가져왔다. 새로운 강풍을 불시에 맞이했을 때를 위해서였다.

우리는 조금 쉬었지만 아직 완전히 숨을 돌리지는 않았다. 다시 그런 폭풍이 불어온다면 무슨 일이 있을지 보장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모든 시선이 뚝대와 가로고정밭줄에 쏠려 있었다. 수병들은 마치 파리 들처럼 밀집해서 가로고정밭줄에 앉아 줄을 당기고 돌리며 나무 망치로 두드렸다. 이 모든 작업들을 정박해 있을 때 하는 것처럼 할 수는 없다. 그렇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폭풍 후에는 강한 물결이 일기 때문이다. 흔들림은 이전보다는 덜하지만 그래도 계속된다. 해안까지는 아직 500마일, 즉 875베르스타나 남아 있다. 많은 이들이 불면증과 고된 작업으로 헐쭉해졌고, 마치 술판을 벌인 다음 날처럼 비틀거리며 다녔다. 그리고 지금 전함이 한번 어떻게 기우뚱하고 기울어졌는지 기억 속에서 끄집어낸다면, 마치 어떤 모욕을 기억해내기라도 한 듯이 그렇게 아파올 것이다. 심장은 그런 순간에 대한 나쁜 기억을 오랫동안 간직한다!

7월 16일. 나는 9일에 보낸 제도까지 약 500마일 남았다고 썼다. 지금은 16일인데 아직도 마찬가지로 500마일이 …… 뭐, 420마일이라고 하자. 일주일 내도록 70마일 정도는 갔을 테니. 더 이상은 못 갔을 것이다. 폭풍이 지나간 다음 무풍이 왔다 …… 이게 무슨 농담이란 말인가? 태평양은 우리를 결정적으로 우롱하였다. 이제 태평양은 우리에게 정말로 태평하다는 걸 증명하기로 마음먹었다. 거대한 구름 덩어리들

은 한무더기로 움직이면서 수평선을 가렸다 열었다 했지만, 우리에게 속도를 붙여주지는 않았다. 무더웠고, 대기에 움직임은 없었다. 그런데 간간히 위협적인 먹구름이 갑자기 나타났다. 배에서는 이 변화에 대비하였고, 돛을 걷었다. 하지만 먹구름은 비만 조금 뿌리고는, 이내 무풍이 횡포를 계속하였다. 게다가 항해 계획에 대한 생각도 바뀌어졌다. 일은 정상적으로 되지 않았다. 서로 거의 말을 하지 않았다. 아침에 일어나면 “얼마나 왔어요?” “1.5노트” 하고 대답한다.

이 시간에 총으로 사격 연습을 하였다. 두들기는 소음에 귀에서 웅 웅 소리가 날 지경이다. 무덤고 지루했다. 하지만 ……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그동안 겪은 흔들림, 축축함, 부서짐보다는 나았다.

마침내 150마일 무렵에서 갑자기 바람이 불어왔다. 그리고 다음 날 나는 일상적인 소음과 어수선한 소리를 들었다. 밧줄이 꺼내졌다. 모두가 새로운 해안을 맞이하기 위해 상층갑판에서 무리를 지었다. 내가 아팠을 때 내 선실은 통상적으로 방문객으로 가득 찼다. 선실에는 세 사람 정도가 들어올 수 있는데, 일곱 명이 오기도 했다. 오늘 아침에는 아무도 없었다. 모두가 상층갑판에서 바라보고 있었다. B.K.만 잠시 들렀다.

“좁은 뱃길을 통과해요!” 그는 이렇게 말하고 이내 사라졌다.

로이드 항에 도착할 때 우리는 많은 기대를 품었다. 그런 까닭에 우리는 새로운 해안에 관심을 가지고 접근하였다. 해안이 비어 있는 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곳에는 캄차카에서 온 코르벳함, 수송선, 러시아에서 온 우편부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우편부들은 물론 편지를 가지고 왔다. 모두가 편지를 받으리라는 희망에 흥분했다.

“집들은 어디에 있죠?” 나는 눈으로 헛되이 농가나 지붕, 사람이나 아니면 동물들이라도 찾으려 하면서 물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우리 러시아인들은 이미 이 해안에 왔었다. 이 작은 만에는 작은 오막살이들이 있었다. 저쪽에 두 개 정도 있고, 저쪽 언덕 너머에 몇 개의 목조 농가가 있다.

배들이 이곳에 있고, 우편부들도 여기에 있다. 그리고 그들은 편지를 가지고 왔다.

얼마나 많은 질문과 소식들인가! 모두의 손에 편지가 쥐어졌다. 나에게서는 거의 한 다스 묶음이다.

이 섬은 필이라고 많이 불린다. 항구는 내가 말했듯이 로이드라고 이름 붙여졌다. 보닌 제도는 1829년부터 알려지기 시작했다. 여행자들 중 이곳에 온 사람들은 비치, 우리 러시아인들 중에서는 리트케 대위, 그리고 얼마 전에 본랴르스키가 왔던 것 같다. 이들 외에도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많은 영국인과 미국인들이 이곳에 다녀갔다. 현재는 여러 국가의 포경선들이 끊임없이 들른다. 그중 제일 많은 것은 미국 포경선이다. 보닌 제도는 중국어나 일본어로 ‘사람이 살지 않는 섬들’이라는 뜻이다.

어느 날 아침 갑자기 파제예프가 나에게 차를 가져오지 않고, 다른 사람이 왔다.

“파제예프는 어디 있지?” 나는 물었다.

“그놈은 등에서 살가죽이 벗겨졌습죠.” 수병은 간결하게 대답했다.

“어떻게 벗겨졌다고, 어째서?”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런 놈들이 한 사십 명 됩니다. 태양 때문입니다. 해안에서 벌거벗고 다녔는데, 태양이 따갑게 내리쬐인거죠. 지금

은 셔츠도 못 입습니다.”

나는 파제예프를 만나러 갔다. 이게 무슨 광경인지! 아래 갑판에는 정말로 한 40명의 사람들이 앉아 있었다. 어떤 이는 머리에서 다리까지 큰 흠이불을 뒤집어쓰고 있었고, 다른 이들은 흠이불도 없이 있었다. 특히 한 늙은 수병이 나의 동정을 불러일으켰는데, 그는 얼굴을 찡그리고 작은 통에 손과 머리를 의지하고는 벌거벗은 상태로 앉아 있었다. 그 통이 그에게는 탁자 역할을 하는 셈이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게요?” 내가 물어보았다.

“누가 알겠습니까, 이게 무슨 일인지, 프, 프! 등이 이렇게 됐습죠!” 그는 나에게 등을 조금 돌리면서 말했다.

등은 쳐다보기가 끔찍했다. 온통 적자색이었고, 마치 끓는 물을 끼얹기라도 한 듯 기포로 뒤덮여 있었다.

“왜 햇볕 아래 있었던 게요, 게다가 옷도 입지 않고?” 나는 그를 책망했다.

“탐보프에서는, 프, 프, 항상 온종일 햇볕 아래 앉아 있고, 머리를 내놓고 있어도 아무렇지도 않았소. 풀밭에 누워 있으면 등과 배가 따뜻해지고 좋았습죠. 그런데 여긴 어떻게 된 건지 햇볕이 마치 반창고처럼 들러붙어요!” 그는 억울해하며 대답했다.

화상을 입은 이들은 모두 신음을 하고, 아이고 하며 탄식소리를 내며, 얼굴을 찡그리고 있다. 쳐다보고 있으니 우습기도 하고, 안돼 보이기도 했다. 파제예프도 완전히 불구가 되어 그들과 마찬가지로 아이고 아이고 신음을 하고 있다. 난 그를 시원하게 욕을 좀 해주었다.

“그만하슈! 프, 프!” 고통스러워하며 그가 말했다.

밤에 닳을 올리고 출항했어야 했다. 그러나 바람이 역풍이었다. 다

음 날도 마찬가지로였다. 마침내 8월 4일 아침 4시경 나는 잠에서 깨어 소음과 목소리들, 호각소리를 들었다간 다시 잠이 들었다. 그리고 7시 즈음 할아범이 내 선실을 능청스럽게 들여다보았다.

“안녕하세요! 축하드립니다 ……”

“뭘 말입니까?”

“바다에 있잖습니까!”

“멀리 왔어요?”

“저기 나가사키가 보입니다!”

“이런 늙은이 같으니라고! …… 진짠지 한번 봐야겠다!” 나는 갑판으로 나갔다.

내 앞에는 푸른 바다, 머리 위에도 푸른 하늘, 그리고 태양은 작열하는 석탄처럼 얼굴을 따갑게 내리쬐었다. 뒤를 보니 산들이 마치 우리를 배웅이라도 하며 잘 가라고 기원해주듯이, 무리지어 서로 어깨를 대고 달라붙어 있었다. 저것이 보닌 제도의 해안이다. 잘 있겠다, 보닌 제도여!

IX.

일본에서
러시아
인들

1853년말과 1854년초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보닌 제도에서 일본까지는 여행이 아니라 산책이다. 특히 8월에는 그렇다. 그 지역에서 이맘때는 일 년 중 가장 좋은 계절이다. 하늘과 바다는 누가 더 좋고, 누가 더 조용하며, 누가 더 파란지 한마디로 말하자면 누가 더 여행자들의 마음에 드는지 서로 다툰다. 우리는 5일 동안 850마일을 항해했다. 우리 배는 기함으로 다른 세 척의 배들에게 신호를 주었고, 그들 중 한 척을 밧줄로 견인했다. 로프 두 줄로 그 배를 끌면서, 우리는 그곳에 타고 있는 예전의 우리 동료들을 볼 수 있었다. 큰 판자에 정자로 글씨를 써서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8월 9일. 화창하긴 하지만 불행히도 몹시 더운 날씨 속에서 우리는 머나먼 곳에 있는 나라를 보고 있었다. 여기는 일본의 가장 남쪽의 섬들, 경계 구역들이다. 일본 열도의 작은 섬과 절벽들만 있는데, 유럽식이나 일본식 이름을 가지고 있다. 울리야·클라라, 계속해서 야쿠노시마·노미시마·이보시마, 그다음에는 사키로 간다. 다가사키·고사키·나가사키. ‘시마’는 섬을 의미하고, ‘사키’는 곳을 뜻한다. 아니면 그 반대이던가, 기억은 나지 않는다.

마침내 10개월에 걸친 항해와 노력으로 목적지에 도달했다. 바로 여기가 열쇠를 잃어버리고 굳게 닫혀 있는 보석함, 이제껏 한번 들여다보기 위해 보람 없는 노력을 들인 그 나라, 황금이나 또는 무력으로, 또는 간교한 정치로 서로의 만남을 이끌어내려는 그 나라다.

이런 상태가 오래 지속될까? 하고 60파운드짜리 대포를 손으로 쓰다듬으면서 우리는 이야기했다. 일본 사람들이 자신의 나라를 연구하고, 일본의 자원만이라도 알게 허락해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지구상에

정착 인구가 사는 지역의 지리학과 통계학에서 단 하나 공백으로 남아 있는 곳이 일본이다. 아직 자신의 미지로 말미암아 이상아릇하고 흥미를 끄는 이 땅은 32도에서 40도의 위도에 펼쳐져 있다. 따라서 한쪽으로는 마테이라보다 더 남쪽에 있다. 일본에는 폭염과 혹한이 지배하고, 종려나무와 소나무, 복숭아와 월굴나무가 자란다. 그곳에는 우리의 높은 산과 견줄 만한 산들이 있고, 불꽃이 번쩍이는 산꼭대기들이 있다. 그리고 산악에서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세상에서 가장 질 좋은 구리가 난다. 하지만 다이아몬드나 은, 금, 황옥(黃玉), 그리고 마침내 금보다 더 귀중한, 19세기의 가장 값비싼 광물인 질 좋은 석탄이 여기에 있는지 없는지 우린 아직 모른다.

우리는 나가사키 정박장으로 들어가는 입구를 의미하는 노모반도(野母半島)를 멀리서 알아보았다. 모두가 뒷갑판에 모여서 태양을 받아 선명하게 빛나는 녹색의 해안들을 감상하였다. 하지만 여기서는 자바 섬이나 싱가포르에서처럼 과일과 조개껍질, 원숭이나 앵무새를 싣고 오거나, 특히 해안으로 우리를 옮겨주겠다고 몇 마일 전에 우리를 맞이하려 나온 작은 보트들은 없었다. 정반대였다!

우리는 좀 답답한 심정으로 들어섰다. 적어도 나의 경우는 마치 감옥에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었다. 물론 이 감옥은 푸른 나무들이 심어져 있긴 해도 말이다.

하지만 우리 곁을 지나 스쳐지나가는 이것들, 다양한 색깔의 삼각깃발들로 치장된 조그만 장난감 배들은 도대체 무엇인지? “이건 그들의 종교 의식이야”라고 우리들 중 하나가 이야기했다. “아니야.” 다른 사람이 말을 끊었다. “이건 단순히 미신적인 풍속이네.” “이건 점을 쳐 보는 거야.” 세 번째 사람이 지적했다. “보라구, 또 흘러나오지? 이걸

접이야. 복을 시험해보는 거지.” “아닙니다. 잠깐만요.” 누군가 말문을 열었다. “캠퍼¹의 책을 보면 나와 있기를 ……” “그냥 장난감이랍니다. 꼬마 애들이 띄운 거예요.” 이빨 사이로 할아범이 중얼거렸다. 이 의견이 모든 학자들의 소견들보다 더 정확했다. 하지만 여기서는 온갖 사소한 일이라도 의미가 있는 특질적인 것처럼 보인다.

갑자기 보트가 나타났다. 이미 장난감 배가 아니었고, 그 안에는 세 명인가 네 명의 일본 사람들이 타고 있었다. 두 명은 옷을 입고 있었고, 두 명은 맨몸이었는데, 그을려서 밝은 붉은색이었고, 머리카락이 날리지 않도록 머리에 하얗고 얇은 띠를 두르고 있었다. 똑같은 띠를 허리에 매고 있었다. 몸에 걸친 건 그게 다였다. 하지만 우리들은 아침에 일본 사람들을 보았다.

나는 방금 잠에서 깬었다. 파제예프가 별거벗은 사람들이 왔고, 막대에 무슨 종이를 건네주었다고 알려주었다.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지?” 내가 물었고, “일본 사람인 것 같은데요.”라고 그가 대답했다. 일본 사람들은 우리 배에서 3사젠² 정도 거리를 두고 멈추어 섰는데, 뭔가 우리에게 말을 했지만 더 가까이 다가오려고는 하지 않았다. 그들은 대포구멍에서 머리를 내밀고 있는 대포에서 뒷걸음질쳤다. 우리는 그들에게 배에 오라고 손과 수건을 흔들었다.

마침내 그들은 배에 올라올 마음을 먹었고, 우리는 그들을 에워쌌

1 캠퍼(Kämpfer, Engelbert, 1651~1716). 독일의 박물학자. 1690년 일본의 네덜란드 상관(商館)에 의사로서 따라와, 일본의 사회·풍속·지리·동식물을 관찰하고 「일본지(日本誌)」를 저작하였다.

2 사젠(Sazhen). 러시아의 길이 단위로 1사젠은 2.134m에 해당한다.

다. 이들은 일본에서 우리들에게 온 첫 손님이었다. 그들은 겁을 내면서 주위를 둘러보았고, 손을 무릎에 대고는 무릎을 꿇고 몸을 낮추어 거의 땅에 닿을 정도로 절을 하였다. 들은 매우 가난한 복색이었다. 그들은 넓은 소맷자락의 푸른색 상의와 허리와 다리에서 꼭 조여진 긴 옷을 입고 있었다. 긴 옷은 널따란 허리띠로 매여 있었다. 그리고는 더 이상은 없었다. 바지도 아무것도 없었다.

신발은 윗부분에서 단추로 고정된 짧은 푸른색 양말들로 만들었는데, 엄지와 두 번째 발가락 사이의 끈이 짚으로 만든 신발 밑 부분과 발을 고정시켰다. 이것은 부자나 가난한 자나 마찬가지로였다.

머리는 전체가 얼굴처럼 면도를 하였는데 뒷부분 머리카락만 위로 올려서는 마치 중간에 싹둑 자른 머리카락처럼 좁고 짧게 빗질하여 머리 꼭대기에 단단히 자리 잡고 있었다. 이런 까다롭고 꼴사나운 머리 모양을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들였을까? 한 늙은 사람은 허리에 두 개의 칼을 차고 있었는데, 하나가 다른 것보다 짧았다. 우리는 칼을 보여줄 것을 부탁했는데 아주 훌륭한 칼날이었다.

우리는 손님들을 선장실로 안내했다. 거기서 과실주와 차, 사탕과자를 대접했다. 그들은 보트에서부터 모두 우리의 가운데 돛대를 가리켰는데, 거기에는 '러시아 국가의 배' 라고 일본어로 쓴 천 조각이 날리고 있었다. 그들은 그것을 베껴서 적어주기를 부탁했다. 그들이 명령받은 대로 도시로, 즉 자기들 우두머리에게 가져가기 위해서라고 했다.

반시간이 지나서 좀 더 잘 차려입은 다른 사람들이 나타났다. 그들은 종이를 가지고 왔는데, 그 종이에겐 일반적인 경고들이 적혀 있었다. 해안으로 내려가지 말라, 일본인들을 무례하게 대하지 말라 등등. 그들은 과실주가 무척 마음에 들었던지 노 젓는 사람들 주려고 그런다

며 병에 남은 걸 달라고 간청했다. 하지만 난 그들이 노 젓는 사람들에
게 술 냄새도 맡게 하지 않을 것으로 확신했다.

중이에는 또한 프랑스어, 영어 그리고 네덜란드어로 첫 번째 정박지
의 코발스키 관문이라고 불리는 곳에 정박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불쾌
한 일을 피하기 위해 더 이상 움직이지 말라고 덧붙여 적혀 있었다. 하
지만 누구를 위해서 그래야 되는지 어떤 불쾌한 일이 있을 것인지 하는
설명은 없었다. 현지사의 배를 위해 생각해주어야만 할 게 있다.

우리가 서적을 통해 알고 있던 대로, 또 이번 경우를 통해서나 나중
에 스스로 확신하게 된 것은 일본 정부는 하달한 명령을 완전무결하게
수행할 것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만약 명령이 수행되지 않았을 경우에
는 그것이 집행한 사람의 책임이든 아니든 책임을 져야 한다. 예를 들
어 외국배들은 영주의 허가가 반드시 있어야만 두 번째나 세 번째 정박
지로 진입할 수 있다. 우리는 허가를 요청하지 않았다. 하지만 우리에
게 세 번째 일본인 일행이 나타났다. 그들은 노 젓는 사람을 제외하고
여덟 명쯤 되었는데, 두 번째 정박지로 갈 수 있는 ‘허가서’를 가지고 왔
다. 이 모든 방문들이 차례차례 매우 빠르게 이어졌다. 영주는 우리가
첫 번째 통지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 머물러 있을지를 몰라서 서둘러 허
가서를 보내온 것이다. 만약 그에게 예를 들어 우리를 몰살시키라고 명
령이 내려온다면, 그는 물론 그럴 능력이 안 되지만, 어쨌든 시도는 해
야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실패했을 경우에는 자신의 배를 갈라야 한다.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몇 년 전 나가사키 영주들 중 한 명이
할복한 경우로 미루어 짐작한 것이다. 그가 할복한 이유는 영국 선박의
지휘관이 일본 궁정에서 이 영주를 통해 보내온 선물을 받지 않았기 때
문이다. 영주에게 선물을 전해주라는 명령이 내려왔다. 선장은 받지 않

있고, 영주는 죄인이 되는 것이다. 선물을 전달해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할복하는 것은 이곳에서는 가장 널리 사용되는 타의에 의한 죽음의 방법이다. 최소한 예전에는 그랬다. 누군가 할복을 하지 않겠다고 고집을 부리면 정부는 이 수고를 자신이 감당한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공개적인 처형의 수치 말고도 재산 몰수도 겪게 된다. 그리고 이것은 그의 가족에게도 해당된다. 여행자들 중 누군가가 이야기해주시를 여기서는 젊은이들의 교육 과정에 숨겨 좋게 자신의 배를 가르느 방법도 들어가 있다고 했다. 이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더 자세히 알고 난 뒤에 이야기하도록 하겠다. 지금은 도저히 시간이 없다.

세 번째 일본인 일행은 잘 차려입고 있었다. 그들의 상의는 얇고 반쯤 비치는 검은색의 직물이었는데, 몇몇 사람의 등과 소매자락에는 하얀 표지들이 새겨져 있었다. 그것은 문장이었다. 여기서는 모두가, 심지어 농부도 문장을 가지고 있고, 자신의 상의에 그것을 새기고 다닐 권리가 있다. 하지만 몇몇은 자신의 주군, 그리고 고위급 인물에게서 그들의 문장을 가질 권리를 획득한다. 그리고 고관들은 쇼군에게서 그 권리를 얻는데, 마치 우리의 훈장과 같다고 보면 된다.

하지만 모두가 허리에 두 개의 칼을 차고 다닐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상류계층이나 장교들에게만 허락된 명예다. 병사들은 칼을 하나만 차고 다니고, 평민계층은 아예 칼을 차고 다니지 않는다. 그리고 그들은 맨몸으로 돌아다니니 칼을 찰 곳도 없다. 심지어 겨울에도 말이다.

우리에게 온 손님들의 상의는 실크로 만든 긴 끈으로 채워져 있었다. 그들은 자신을 역관들이라고 소개했다. 그들은 네덜란드 상관(商館)과의 교류를 위해 임명된 사람들이다. 우리는 그들을 선장실에 앉혔

다. 그들은 종이를 꺼냈는데, 거기엔 많은 질문들이 적혀 있었다.

역관들은 여기서 큰 집단이다. 짧은 시간 동안 우리에게 거의 30여 차례 왔다 갔는데 역관들 수는 60여 명쯤, 수를 센다면 70명에 조금 못 될 것 같다. 그들은 네덜란드어만 알았고, 네덜란드인들과의 교류를 위해 사용되었다. 그런데 그 네덜란드인들은 일본에서 오랜 시간 체류했기 때문에 스스로 충분히 일본어를 익힐 수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누가 그들에게 일본어를 가르쳐줄 것인가? 그것은 사형으로 금지되어 있다. 일본인들은 중국어를, 우리가 프랑스어를 알듯이, 스웨덴인들이 독일어를 알듯이, 학자들이 라틴어를 알듯이 모두가 알고 있다. 쓰는 것은 일본어나 중국어를 따로 쓰지만, 읽을 때는 중국 글자를 자신의 방식으로 발음한다. 대체로 언어, 종교, 풍속, 의복, 문화와 교육 등 모든 것들이 중국에서 온 것이다.

일본에 가면 많은 질문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이미 이야기를 해주었다. 그래서 최대한 솔직하게 대답을 준비해왔다. 그들은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얼마나 오래전에 출항했는지, 며칠날 출발했는지, 각 배마다 몇 명인지, 수병과 장교들은 몇 명인지, 대포는 몇 문인지 등을 물어보았다.

우리가 영주에게 보내는 서한을 한 통 가지고 왔다고 말하자 그들은 배는 4척인데 왜 서한은 하나만 가지고 왔느냐고 물었다. 이 아이러니한 질문에서 우리의 도착에 대한 순진한 불신과 우리에게 어떤 적대적인 의도가 있지 않나 하는 의심이 엿보였다. 우리는 그들을 서둘러 안심시키려 했고, 모든 질문에 진심으로 또 일관되게 답해주었다. 그리고 동시에 이 보드랍고 매끈하고 연약한 얼굴들과 교활해 보이고 영리한 표정들, 그리고 뒷꼭지에 올려붙은 머리채를 쳐다보면서 웃음을 감출

수가 없었다.

그들은 우리에게 대해 알게 되었고, 친절한 응대에 기운을 차렸다. 그들에게 달콤한 파이프와 과실주, 포도주를 내왔다. 그들은 모든 것을 호기심에 차서 둘러보았고, 선실의 모든 것들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포르테피아노의 건반을 누군가 눌러보았을 때는 놀라움에 입을 크게 벌렸다. 시가를 권했는데, 어떻게 피워야 하는지 몰랐다. 한 사람은 시가의 끝을 자르지도 않고 피우기 시작했고, 다른 사람은 반대쪽으로 피웠다. 시가는 그들 맘에 들지 않았다. 독했기 때문이다. 한 사람은 선실이 답답했는지, 아니면 배의 흔들림 때문이었는지 매우 힘들어 했다. 파도는 약했고, 전함의 움직임은 겨우 알아차릴 정도였는데 말이다. 그들은 대체로 연약한 사람들이었다. 예를 들면 선실에 전혀 앉아 있지를 못했고 끊임없이 머리와 얼굴에서 흐르는 땀을 닦고 숨을 헐떡이면서 계속 부채질을 하였다. 그들은 폼속에서 담배와 야자나무로 만든 담뱃대를 꺼냈다. 담뱃대는 은색 물부리에 대가 매우 짧았다. 담배는 종이 싸지에 담겨 있는데, 동전지갑(porte-monnaie)보다 크지 않았다. 일본 사람들은 거기서 담배를 아주 조금 집어서는, 마치 귀를 팔 때 쓰는 솜같이 덩어리로 뭉쳐서 담뱃대에 넣고 한 세 번 피우고는 재를 버리고 폼속에 다시 넣었다. 이 모든 과정이 놀라울 정도의 빠르기로 이루어졌다. 담배는 매우 얇아서 마치 아마처럼 가늘었고 적황색 빛깔이었다. 터키담배 맛을 떠올리게 했는데 매우 약했고 모양은 무성한 붉은색 머리카락 같았다. 갑판에서 무슨 소리라도 들릴라치면 그들은 귀를 기울이며 주의를 집중했다. 갑자기 사람들이 가로고정밧줄을 따라 뛰어다니거나, 밧줄을 당기거나 밧을 구르는 소리들에 그들은 놀라고 예민해 했다. 그들은 우리와 함께 배를 타고 이동했다. 하지만 그들의 배는 노 젓는 사람

들이 타고 있는 채로 우리 배의 밧줄에 묶여서 끌려갔다.

마침내 우리는 첫 번째 정박지에 들어섰고, 섬과 언덕들 사이에 있게 되었다. 여기서 우리는 무풍을 만났고 다음에는 맞바람이 불었다. 맞바람을 향해 돛을 번갈아 좌우로 돌리면서 가야만 했다. “어디로 가시는 겁니까?” 우리가 맞바람을 헤쳐나가고 있는 걸 알지 못하고 이야기했다. “당신들은 이리로, 왼쪽으로 가야만 합니다.” 마침내 두 번째 정박지의 지정된 장소로 들어갔다.

이게 도대체 무엇인지? 무대장치인지 현실인지 구별이 되지 않았다. 이런 데가 다 있다니! 가깝고 먼 구릉들은 모두 푸르고 잣나무나 다른 많은 수종으로 덮여 있어서 어떤 나무들인지 알아볼 수가 없고 서로 반원형 극장처럼 무리지어 있었다. 아무것도 이상한 것은 없었다. 모든 게 미소짓는 듯한 자연이었다. 아마 저 구릉들 너머에도 미소짓는 계곡과 별판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민족이 미소를 잘 지을까? 폭염에 탄 맨몸의 노 젓는 사람들로 판단해서는 이 구릉들 사이에서 이 민족들이 미소를 잘 짓는다고는 결코 생각할 수가 없을 것 같았다. 그들 중 세 명은 보트에 앉아 있느라, 태양에게서 받은 알락달락한 모포로 몸을 감싸고 있다. 산들은 모두 고랑으로 조각조각 잘라져 있고, 산꼭대기에서 끝자락까지 경작되어 있다.

저기 마을들은 산골짜기에 촘촘히 모여 있고, 군데군데 조그만 농가들이 흩어져 있다. 그런데 이것은 또 무엇인가? 하얗고 검은 물감으로 그려진 휘장들이 주위에서 맴돌고 있다. 히젠번주와 사츠마번주의 문장이 우리에게 손님이 왔음을 말해주었다. 바람이 조금 불자 휘장이 날리기 시작했고, 그러자 가려졌던 대포들이 보였다. 한 곳에는 3문의 대포가 허물어진 포가 위에 놓여 있고, 다른 곳에는 1문의 대포가 포가도

없이 있었다. 정말 이상했다! 우리 포병들은 이 포진지에는 나무로 만든 대포도 있는 것 같다고 의심했다.

나가사키는 어디에 있는 것인가? 도시는 아직 보이지 않는다. 아! 저기에 나가사키가 있다. 어째서 난가사키가 아닌 거지? 왜냐하면 진짜 이름이 나가사키이기 때문이다. 철자 ‘L’은 몇몇 단어에서 다른 철자들이 그런 것처럼 멋부리기 위해서 붙여놓은 것이다. “나가사키는 네덜란드인들만 출입이 허가된 유일한 항구다.”라고 지리 서적에 쓰여 있다. 그 책에 벌써 예전에 첨가를 했어야 되는 게 이미 다른 사람들도 허가 없이 드나들고 있다. 그러므로 많은 경우에서 네덜란드인들에게만 특권이 있는 것은 아니다.

“여기가 나가사키구나!” 세 번째 정박지를 염두에 두면서 두 번째 정박지에 닿을 내렸을 때 사방에서 이런 소리가 들렸다. 나가사키에는 세계의 정박지가 있다. 첫 번째는 바다로 개방되어 있고 양 측면이 가려져 있다. 그곳의 왼쪽, 가려진 언덕에 포진지가 만들어져 있다. 우리 포병들의 말에 따르면 상당히 괜찮은 포진지라고 한다. 하지만 도시는 물론 전체가 보이지 않는다. 우리들은 우리에게 보이는 도시의 이 부분은 아마 도시의 일부, 가장 형편없는 교외지역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거기에는 자그마하고 보잘것없는 집과 오막살이들밖에 없었다! 켐퍼나 다른 이들이 책에 썼던 건물과 궁들, 사원들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인가? 특히 켐퍼는 그것들의 수가 엄청나다고 하지 않았는가? 아마도 저기 곳 너머에 있을 것이다.

하지만 주위의 모습은 어떠한가! 저 멀리 전망은 또한 어떤지! 여기 두 번째 정박지 입구, 파펜버그 섬 옆에서 있으면 바다를 보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나가사키의 모습을 가려주는 곳의 옆모습만 보게 된다.

하지만 키바치의 좁은 만 전체를 볼 수는 있다. 정박지 중간으로 이동하면 바다는 자취를 감추고 갑자기 왼편으로 전체 만이 가겐 섬, 가타카시마, 가메노시마 섬들과 함께 물러나면서 곳을 보게 된다. 그리고 오른쪽에서 해안은 산 전체를 따라 파도치는 해안에서 구름 낀 정상까지 거대한 계단처럼 경작된 자신의 테라스들을 보여준다.

우리는 훌륭하게 정박했다. 거대한 광경을 한번 상상해보시길 바란다. 그 장면의 깊숙이, 우리 배에서 3베르스타 정도 떨어진 곳에 거의 산과 같은 높은 언덕들이 보이고 그 언덕 밑자락에는 하얀 석회석벽에 기와나 나무 지붕을 인 집들 무리가 있다. 반원형으로 생긴 만의 해안가에 위치한 도시다. 만에서 거의 네바 강처럼 넓은 해협이 흐르고 있다. 그 해협에는 녹색의 구릉 해안들과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조그만 농가들, 포진지들, 마을들, 잣나무숲들과 같이놓은 밭들이 있다.

수많은 작은 배들이 있는 만과 정박지의 배경, 희색빛 집이 무리지어 있는 이상스러운 도시의 풍광들, 구릉이 있는 해협들, 가까이서는 선명하고 먼 언덕에서 희미한 녹음-이 모든 것들이 너무도 조화롭고 그림 같아서 현실의 한 장면 같지가 않았다. 이 장면 전체가 그려진 것이 아닌지 환상과 같은 발레에서 통째로 가져온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울 정도였다.

저기 골짜기가 구릉 속 깊숙이 지나가고 있다. 복도처럼 어둡고, 숲으로 뒤덮인 골짜기는 너무도 가늘어서 마치 매 순간 저 멀리 숨어 있는 작은 마을을 깔아뭉개려 위협하는 듯했다. 무대장치처럼 나무들이 심어져 있는 작은 만, 잠자고 있는 듯한 정적의 상태, 그곳에는 항상 어둡고 서늘하고 그곳에는 강한 바람도 잔물결을 일으킬 뿐이다. 거기에

해안으로 올려진 작은 배 한 척이 근심걱정 없이 쉬고 있다. 한쪽 끝은 바다에 한쪽은 모래에 박고서.

왼쪽에는 만곡들이 많은 넓고 긴 만이 있다. 그 만의 중간쯤에 파편 버그와 가메노시마, 두 장난감 같은 산이 있는데 이 산을 덮은 숲은 마치 동물의 털이 곤두서 일어선 듯해서 형클어진 머리카락을 가진 두 개의 사람 머리 같았다. 그 두 섬을 사방에서 자그마한 해협들이 굽이 돌고 있다. 그리고 저 멀리 가파른 절벽과 바다가 보였다.

오른쪽에는 약간 경사진 기슭의 높은 구릉이 가고 있다. 그 구릉은 자신의 테라스와 이랑들이 만든 녹색 계단을 따라 자기에게 올라오라고 유혹하고 있다. 비록 일본인들은 그걸 금지하고 있었지만 말이다. 그 구릉 뒤로는 높이가 낮고 신경질적으로 던져진 듯한 여러 구릉들이 이어져 있다. 그 낮은 구릉들 뒤에서 신중하고 우울한, 충분히 높은 구릉들이 보였다. 그것들은 아이들에게 어른들이 하듯이 작은 구릉들 약간 뒤에 서 있다. 그 이후에 해협은 바닷속에 묻혀 사라졌다. 해협의 밝은 표면을 따라 흩어져 있는 암석들이 검어졌다. 마지막에 이르자 노모 반도가 푸르스름하게 보였다.

해협은 나가사키 해안과 가겐 섬을 갈라놓았는데, 가겐 섬은 또한 다른 해협으로 인해 이오시마 섬과 나뉘어져 있다. 그리고 그곳은 깨끗했고 바다 이외에 다른 것은 일체 없었다.

도처에 우묵하게 들어간 만곡과 작은 곳들 아니면 초목이 무성한 해안가에서 조금 들어가 있는 땅덩어리들. 곳곳에 풀과 나무들이 마치 거대한 꽃다발처럼 절벽에 바싹 달라붙어 있다. 가는 곳마다 장대한 전망이고 그림이며 예술가의 까다로운 고안품 같았다.

하지만 난 이렇게 경쾌하게 만들어진 웃고 있는 해안을 이상한 감정

으로 바라보았다. 이 꿈같은 휴면상태, 움직임의 부재를 보고 있는 것이 유쾌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아주 가끔씩 보였고, 동물들은 보지 못했다. 나는 단지 한번 개 짖는 소리를 들었다.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부산스러움이 없었고, 생활의 징후들이 적었다. 순시선을 제외하고 다른 배들은 해안가를 조심스럽게 또 서두르면서 미끄러져갔다. 그 배들에 는 두세 명의 맨몸의 노 젓는 사람들이 있었고 침을 흘리는 꼬마 남자 아이나 아니면 눈매가 매서운 여자아이가 있었다.

이 해안가에서는 이렇게들 살고 있는 것인가? 주민들은 어디로 사라진 것인가? 왜 그들은 이 해안가에 무리지어 움직이지 않는 것인가? 왜 일하는 모습이나 부산스러움을 볼 수가 없는 것인가? 소음도 왁자지껄 떠드는 소리도 고함소리도 노랫소리도 없었다. 한마디로 삶의 끓어오름, 아니면 시인의 표현대로 “쥐들의 움직임”이 없었다. 어쩌서 이 넓은 바다를 따라 배들이 분주히 왔다 갔다 하지 않는 것인가? 청색과 흰색, 적색의 천으로 휘장이 쳐진 어떤 굵튼 큰 배 한 척이 느릿느릿 가고 있었다. 그 배에서 일본 북의 단조로운 소리가 봄·봄·봄 들려왔다. 나중에 우리가 들은 바로는 이것은 히젠 번주나 사쓰마 번주가 자신의 영지를 둘러보는 것이라고 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일본은 번(藩)으로 나뉘어 있다. 번들은 모두 쇼군에게 종속되어 있으며, 그에게 조공을 바치고 군대를 유지한다. 나가사키는 히젠과 사쓰마 번주에게 소속되어 있고, 주위에는 그들의 영지가 있다.

내가 말한 것처럼 이 아름다운 해안들은 어쩌서 이리도 텅 비어 있고 활기가 없는 것인가? 왜 이 해안들을 바라보고 있기가 이리도 따분한 것인지? 심지어 선실에서 나가고 싶지가 않을 정도였다. 조만간 이

해안가에 사람들이 들고, 활기를 띠게 될 것인지?

우리는 왜 그런지 일본 사람들에게 물어보았다. 그 후에 그들이 와서 우리는 대답을 얻을 수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관리들은 이렇게 말했다. 영주에게 여쭙보아야만 한다. 또 영주는 에도³의 쇼군에게 질문을 보내고, 쇼군은 미야코⁴에 있는 미카도[御門],⁵ 하늘의 아들에게 다시 보낸다. 우리가 대답을 기다리는 동안 차라리 스스로 풀도록 하시오! 이것이 그들의 말이었다.

우리 모두는 갑판에 있었다. 모두들 무언가로 바빴다. 어떤 이들은 돛을 정돈하고, 다른 이들은 부지런히 지도를 살펴보고 있었다. 그들 중에는 할아범도 있는데 지도를 보고 뒷갑판으로 뛰어갔다, 다시 지도를 보러 뛰어오고는 했다. 그리고는 지도가 정확하지 않다거나 또는 장소를 알 수가 없다고 투덜대긴 했지만, 그의 일은 이제 끝났다고 만족했다. 또 다른 이들은 이리저리 시선을 주고는 보고 있는 것들에 대해 그냥 생각하고 있다. 그들 중에는 나도 포함되어 있다. 새로운 사물들이 나의 흥미를 끌기는 했지만, 나는 주위의 자연 풍경들에 매혹되었다. 하지만 이런 매혹적인 느낌과 함께 나는 권태로움을 느꼈다. 나는 일본을 마닐라나, 브라질 아니면 샌드위치 제도와 기꺼이 바꿀 것이다.

히! 히! 히! 도착한 지 며칠 지나서 아침녘에 일어나니 이웃 선실에

3 에도[江戸]. 도쿄의 옛 이름.

4 미야코[都]. 수도를 의미하는 보통명사로 당시 수도인 교토[京都]를 가리키는 고유명사로 사용되었다. 콘차로프는 본문에 미야코(Miako)로 음차하고 있다.

5 미카도[御門]. 과거 일본 천황에 대한 칭호.

서 이런 소리가 나는 걸 들었다. 그다음에 조용히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고, 어떤 때는 어떤 단어를 말할 때 목소리가 높아지기도 했다. 파제예프는 내 곁에 차를 들고 서 있었다. “넌 언제부터 거기 있었던 거야?” “일곱 번째 종소리 시작할 때.” “그럼 지금은 몇 신데?” “지금 들리지 않아요?” 그때 북이 울리고, 음악이 울려 퍼졌다. 여덟 시라는 뜻이다. “엣 선실은 대체 무슨 일이야?” 내가 물었다. “일본인이라고 알고 있지!” 그가 대답했다. “왜 온 거지?” “직접 물어보시지 그래요.” “어떻게 물어봐? 내가 일본 사람들과 얘기하는 건 돼지가 닭하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은데 ……”

일본인들의 방문은 귀찮을 정도로 많았다.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몇 번씩 왔다. 오퍼바니오스, 온더바니오스, 오퍼톨크, 온더톨크 그리고 그다음에 또 한 무리의 어중이 떠중이들과 그들의 수행원들.

그다음 날, 아마도 역관들이 가고 난 지 한 이틀 지나서일 것이다. 큰 깃발과 작은 깃발, 표지와 문장들 그리고 창들로 치장된 배 서너 척이 다가왔다. 그 배들에는 병사는 한 명도 없고, 맨몸의 노 젓는 사람들만 있었는데 앞서 말한 깃발·표지·문장과 달려 있는 창들은 전함의 징표들이다. 우리에게 여기는 아직 새로워서, 이게 무엇인지 초조해하면서 기다렸다. 배들은 어디 내놓아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훌륭했다. 러시아의 농민들이 겨울에 타는 로즈발니⁶와 좀 닮았다. 넓고 편평한 바닥과 개방된 고물. 그 배들 다 하얀 목재로 깨끗하게 만들었다. 노 젓는 사람이 쓰는 노는 길고 두 부분으로 만들어졌는데 가운데서 연결되어 있다. 노는 배에 고정되어 있어서 노 젓는 사람들은 서서 노를 자신

6 폭이 넓고 낮아 앉을 자리가 없는 농민들의 썰매.

쪽으로 끌었다 밀었다 하였다. 배의 크기로 보아서 노 젓는 사람들은 네 명에서 여덟 명까지 심지어는 열두 명까지도 있었다. 배는 떠다니는 집이다. 거기에는 모든 것이 다 있다. 취사를 하는 조그만 아궁이나 모든 생활용품 등이 다 구비되어 있다. 순시선들에서는 관리들이 교대로 지켜 서서 우리의 행동을 관찰하고 있었다. 이런 규칙은 오래 전부터 모든 외국 선박에게 시행되고 있다.

처음에 갑판으로 역관들이 올라왔다. “오퍼바니오스들입니다.”라고 그들은 배들을 가리키면서 경의를 담아 소곤소곤 이야기 했다. 그리고는 열을 이루어 섰다. 곧 트랩을 지나 갑판으로 두 명의 일본인이 들어왔다. 그들은 다른 이들보다 좀 더 단정했고, 더 잘 차려입고 있었다. 역관들은 손을 무릎에 대고 거의 땅에 닿을 정도로 절을 하면서 그들을 맞이했다. 그들 뒤로 약 스무 명의 수행원들이 따라 들어왔다.

오퍼바니오스들 중 한 사람은 좀 말랐고 호감 가는 얼굴이었다. 위턱이 돌출되었고 많은 일본 사람처럼 짐승의 엄니같이 큰 이빨이 보였다. 다른 사람은 살짝 엷었고 현명해 보이는 얼굴인데 첫 번째 사람과 같은 턱 모양을 하고 있다. 그들은 마 재질로 된 상의와 긴 실크 가운 위로 채색된 실크 치마를 입었는데, 옆이 갈라져 있고, 실크로 된 술이 달려 있다. 그들의 품속은 별별 것들이 다 있는 상점 같았다. 그 속에는 담뱃대, 지갑, 땀 닦는 수건과 얇지만 풀을 먹여 단단한 종이 뭉치도 있었다. 그들은 그 종이를 한 장씩 뜯어서 무얼 쓰기도 하고, 코를 풀기도 하고, 마침내는 그 종이로 필요한 걸 싸기도 했다. 그들은 손을 무릎에 대고는 무릎을 꿇고 몸을 낮추었다. 그건 우리에게 인사를 하는 것이다.

일본어로 그들은 고케닌[御家人]⁷이라고 한다. 그들은 도시에서 영주

나 그의 가신 다음으로 높은 사람들이다. 그들을 의자를 준비한 뒷갑판으로 데리고 갔다. 고케닌들은 앉았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공손하게 그들을 가리키면서 앉기를 사양하였다. 차와 사탕, 건과자와 달콤한 파이들을 내왔다. 그들은 차를 마시고, 담배를 피우고, 사탕을 맛보았다. 그리고는 가지고 가려고 종이에 하나씩 싸다. 심지어는 품속에 빵이나 건과자 조각을 숨기기도 했다. 과실주는 매우 흡족해하면서 마셨다.

왜 왔는지 이유를 묻는 질문을 하자, 좀 살이 찌고 얼굴이 엷은, 료다(依田)라는 이름의 역관이 고케닌 앞에 서더니 몸을 숙여 인사를 하였다. 그리고 그렇게 몸을 구부린 상태에서 우리의 질문을 전달하였다. 고케닌도 역관에게 몸을 숙여서는 조용히 조용히, 거의 속삭이듯이, 하지만 빠르게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모든 다른 역관과 고케닌들, 그리고 수행원들 몇 명도 몸을 숙여서는 경청을 하였다. “히, 히, 히”, 역관은 고케닌이 그에게 답을 말해주고 있을 때, 이렇게 딱딱 끊어서 같은 말을 되풀이했다. ‘히’는 예와 비슷하게 말의 확인을 의미하는 것처럼 들렸다. 그 말은 윗사람들의 말을 들을 때, 아랫사람들만 사용하였다. 고케닌이 말을 끝내자 료다는 숨을 들이쉬고는 갑자기 우리 앞에서 자세를 바로 하더니 그들은 몇 가지 질문을 하러 왔다고 통역을 하였다.

7) 고케닌[御家人]. 곤차로프의 원문에는 ‘고케인스(gokejns)’로 음차되어 있다. 중세 가마쿠라막부 시대 쇼군의 직속 무사를 뜻하는 말로 점차 무사의 신분을 나타내는 말이 되었다. 에도 시대의 고케닌은 쇼군 직속 가신단에서 하급무사를 가리키는 말로 바뀌었다. 당시 고케닌의 녹봉은 많지 않아 경제적 궁핍에 시달렸으며, 에도 시대 후기에 와서 부유한 상인이나 농민이 곤궁한 고케닌의 신분을 돈으로 획득하는 것이 공공연히 이루어지기도 했다.

그는 평상시 목소리로 이야기를 했는데, 가끔씩 갑자기 어떤 단어들에서는 거의 고함지르는 수준까지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고 고개를 끄덕거리고 미소 지었다. 나머지 역관들은 침묵하였다. 그들에게는 위사람이 있으면 다른 이는 침묵하고 줄곧 듣기만 하는 규칙이 있었다. 그렇게 그들은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였다.

이런 상호 정탐체계는 예수회의 그것과 좀 달랐다. 이런 식으로 해서 료다가 말을 할 때면 사다고라가 침묵하고 료다가 없으면 사다고라가 말을 하고 그러면서 나라바요시[檜葉吉田]가 침묵하는 식이다. 사다고라는 백발의 타래머리를 하고 있어서인지 늙은 처녀와 참 많이도 닮아 보였다. 단지 손에 안경과 긴 양말만 안 들고 있을 뿐이었다.

“왜 당신들은”, 일본어가 가득 적힌 종이를 꺼내면서, 그들은 물었다. “프리깃함에서는 말하기를 코르벳함이 캄차카에서 5월에 출발했다고 했는데, 왜 코르벳함에서는 7월에 출발했다고 하는 겁니까?” “왜냐하면”, 갑자기 뒤쪽에서 우연히 자리하게 된 그 배 함장의 목소리가 들렸다. “내가 두 달을 지워버렸기 때문이요. 그때 어디에 있었느냐, 무얼 했느냐 트집 잡고 이것저것 캐물어보지 못하게 말이요.” 우리는 모두 웃기 시작했다. 하지만 P.는 무언가 궁리를 하더니, 그들에게 설명을 하였다.

코르벳함은 실제로 5월에 캄차카에서 출항했다. 하지만 샌드위치 제도를 들러서 온 것이다. 우리는 일본인들에게 물어보았다. 왜 이걸 물어보는지? “우리가 어디에 있었는데 당신들에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당신들에게는 우리가 여기 왔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까.”

이 불일치를 바로 하기 위해서 료다가 갑자기 이렇게 말할 것을 제안하였다. 코르벳함은 캄차카에서, 그리고 우리는 페테르부르크에서

동시에 출항했다고 말이다. “3개월 만에 동시에 도착했다고 말하는 게 더 좋을 겁니다.” 료다에게 지도를 보여주고 설명을 해주었다. 캄차카에서는 일주일이나 이주일 정도면 일본에 도착을 할 수 있지만, 페테르부르크에서는 반년이 걸려야 올 수 있다고. 그는 당황하여 찢찢매터니 스스로를 조소하였다.

그러는 김에 그에게 지도에서 러시아와 일본을 보여주었다. 그는 지도에서 일본이 얼마나 작은지 보고는 선량하게 껄껄 웃기 시작했다.

이런 질문들로 쓸데없이 스스로와 다른 이들을 괴롭히고 있다고 그에게 말해주었다. “에도[江戸]에 보내야 합니다.” 그가 대답했다. 그다음 다른 질문, 세 번째 질문이 이어졌다. 모두가 똑같은 종류였다. “이 것들 모두 에도에 보내야 하는 겁니까?” “모두요.” 료다가 숨을 들이쉬면서 이야기했다. “당신들은 에도에 참 일이 많겠군요!” 내 바로 옆에서 누군가가 자신의 생각을 들리도록 이야기했다. 하지만 나는 우리의 그 유명한 포로 골로브닌에게 일본인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어떤 질문세례를 퍼부었는지 기억이 났고, 또 그 질문들이 그렇게 어리석은 질문들이 아니었다는 걸 발견했다. 그들은 밤늦게 떠났다. 웃으면서 무릎을 꿇고 몸을 낮추어서 인사를 하면서 말이다.

헤어질 때 바니오스(영주 밑의 고위관료)들에게 말을 해두었다. 편지가 두 통 있는데, 하나는 영주에게 가는 것이고, 다른 것은 더 윗분에게 가는 것이다. 첫 번째 편지를 수령하기 위해서 영주께서 관리를 보내주고, 다른 편지는 영주께서 직접 수령했으면 한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영주께 말씀드리겠소.” 그들이 대답했다. 그들은 우리가 일본에 온 이유를 알아내고 싶어서 이렇게 물어보았다. 혹시 난파당한 일본인들을 데리고 오지는 않았는지 물어보고 다음에는 식량과 물이 필요한지 우

리에게 물어보았다. 일본인들이 생각하기에 이 두 가지 이유가 외지인들이 그들에게 온 이유로는 충분한 것이었다. 최근에는 특히 더 그러했다. 하지만 예전에 알려지기로는 그들은 난파를 겪은 일본인들을 다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너희들은 니폰(Nipon)을 떠났다.” 그들은 이야기한다. “그러니 너희들이 가고 싶은 대로 가라.” 외국인들은 더 엄격하게 다루어서 포로로 억류했다.

하지만 세월이 이미 바뀌었고 일본인들은 이미 40년 전, 50년 전, 심지어 1년 전의 그들이 아니었다. 그들은 우리에게 매우 친절했다. 우리 모두의 이름과 관등, 직위를 물어보고는 품속에서 우리가 예전에 쓰던 양초 심지 집게와 비슷하게 보이는 매끈한 철제 잉크병을 꺼내서 다 기록을 하였다. 거기엔 먹과 붓이 있었다. 그들은 붓을 매우 잘 다루었다. 나는 오퍼바니오스들 중 한 명에게 일본어 서명 옆에 내 이름을 붓으로 써주려 해보았다. 그리고는 창피만 당하였다. 라틴철자를 전혀 알아볼 수가 없었다.

이틀이 지나갔다. 그때쯤 일본인들에게 우리는 해안에 장소와 식료품이 필요하다고 알렸다. 그들은 약간의 식료품을 선물로 주었으나, 장소에 대해서는 에도로부터 허가가 없이는 내줄 수가 없다고 선언했다.

이로부터 셋째 날에 두 명의 바니오스가 왔다. 한 명은 지난번에 왔던 우리의 친구 바바 고로다이몬이었다. 그는 이미 우리와 면을 트고 있었고 우리 배에 익숙해서 농담을 던지기도 하고 우리를 이름으로 부르고 그의 눈에 들어오는 모든 것들의 명칭을 물어보고 또 기록했다. 그는 보기에 매우 선량하고 활기찼으며 붙임성이 좋았다. 다른 한 명은 사브로[三郎]다. 일본인들의 생각이나 말과 행동에서 유럽인들을 놀라게 하는 야만적이고 이상한 것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말기를 바란다

(예외적으로 종이에 코를 풀거나, 사탕을 숨기거나 하는 게 있긴 하지만, 러시아 사람들의 3분의 2가 코를 어떻게 푸는지, 또 우리 귀부인들이 식사 자리나 파티에서 자신들의 손가방에 사탕을 가득 채웠는지 기억을 해보시길 바란다). 그런 것은 전혀 없다. 단지 의복과 정말로 우스꽝스러운 머리 모양에 눈길이 갈 뿐이다. 다른 모든 것들에서 이 민족은 유럽인들과 비교를 하지 않는다면 교제하는 데 충분히 성숙하고 거리낌 없으며 유쾌한 사람들이며 자신들의 독특한 예절이 매우 흥미로운 민족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야기하도록 하겠다.

바니오스들은 역관들, 료다와 사다고라를 대동하고 왔다. 그들을 처음에는 P-t가 접견하였고, 나중에 제독이 자신의 선실에서 맞았다. 바니오스들을 커다란 안락의자에 앉혔고 수행원들 몇 명은 그 뒤쪽 의자에 앉았다. 제독은 그들 맞은편 소파에 자리를 잡았고 우리는 창가에 있는 긴 벤치에 네 명이 앉았다. 료다와 사다고라는 몸을 굽히고 서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 단지 장갑만 위로 불쑥 빠져나와 있었다. 바바 고로다이몬은 료다 쪽으로 조금 몸을 기울이고는 숨을 들이쉬더니 속삭이듯 빠르고 길게 말을 하기 시작했다. 그의 말투가 그렇게 기분 좋지는 않았다. 그는 마치 여자처럼 말을 했는데, 그가 말하는 거절과 반대 의견들이 이 조용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해서 완화된 것이다. “히, 히, 히” 하고 딱딱 끊어서, 또 열심히 료다가 반복해서 말했다. 그는 어깨를 잔뜩 잡아당기고, 관자놀이에 땀을 흘리고 있었다. 선실 안은 숨막혔고 바깥은 20도 가량으로 더웠다.

료다는 다 듣고 나서 자세를 바로 하더니 바니오스 곁에 앉아 있던 P-t에게 설명했다. 영주가 청하기를 그에게 보내온 편지는 보내달라고 한다는 것이다. 에도로 보내야 되는 다른 편지에 대해서는 말하기를 그

편지는 의례에 따라서 인수해야만 한다. 하지만 영주가 그 의례를 직접 정할 수가 없으므로 수도로 허가를 요청하러 보냈다고 하였다. “거기까지 왕복하는 데 얼마나 빨리 가능하겠습니까?” 우리는 왕복하는 길이 3주 정도 걸린다는 걸 알고 있었다. 심지어 영국 여행가 벨치는 2주 정도면 된다고 말하였다. 우리는 이렇게 다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그들에게 물어보았다. 하지만 바바는 말하기를 아마도 대답을 얻으려면 30일 정도 걸릴 것이라고 하였다. 그는 대답을 위해서는 깊이 숙고가 필요하다 고 죄송하다는 뜻을 전했다. 하지만 제독은 대답을 빨리 보낼 것을 고집했다. 그러자 사다고라가 대답하기를 파발꾼이 새처럼 질주할 것이라고 하였다.

수행원들 중 한 명은 천으로 감싼 어떤 상자를 계속 가지고 다니고 있었다. 바바 고로다이몬에게 편지를 전달할 때 그 수행원은 래커칠한 나무함을 풀더니 그것을 탁자에 올려놓고 두 손으로 편지를 받고는 존경의 표시로 그 편지를 이마까지 들어올렸다가 나무함에 넣고는 영주들의 문장으로 장식된 천으로 다시 싸맸다. 그리고 나서는 끈으로 매듭을 매서 묶고는 품속에서 작은 봉인을 꺼내어 끈에 붙이고 나서 역관에게 무어라 하면서 자신의 관리에게 그 함을 건네주었다. “히, 히, 히”, 그 역관은 반복해서 말하더니 우리를 향해 통역을 하였다. 편지는 그날 정확히 전달될 것이라고 말이다.

제독은 그들에게 자신의 선실에서 아침을 먹자고 권했다. 하지만 우리에게 그들을 접대할 것을 맡기고는 자신은 응접실에 남았다. 우리는 넓은 탁자에 앉았다. 평소처럼 차가 나왔고 그다음에 단것들, 일본인들이 몹시 좋아하는 파이들과 기억은 못하겠는데 또 무언가와 포도주, 과실주 그리고 사탕들을 대접했다. 일본인들은 모든 것들을 유심히 살

펴보고 조금씩 맛을 보았다. 그리고 사탕과 타르트 조각을 종이에 썼다. 료다는 여기에 잼까지 추가하였다. 그들 중 누군가가 나를 큰소리로 부르고 손을 덥석 잡았다. “아, 바바, 아듀(Adieu)!” “아듀.” 그도 반복해서 말했다.

날들이 가는 줄 모르게 빠르게 지나갔다. 벌써 8월의 후반이었다. 일본인들은 우리를 애먹였다. 그들은 매일 두 번 왔다. 식료품을 가지고 오거나 질문을 가지고 오거나 아니면 대답을 가지고 왔다.

바바는 거의 항상 왔는데 매번 누군가 새로운 바니오스를 데리고 왔다. 아마도 큰 배와 4아르신의 대포들과 사람 머리 크기만한 포탄을 보고 싶어 하고 우리의 음악을 듣고 싶어 하거나 훈련 광경, 전투정보, 로프 위를 뛰어다니는 모습들, 돛을 이용한 기동연습을 보고 싶어 하는 친구들이지 않나 싶었다. 언젠가 그들 앞에서 수병들에게 행진을 시켜 보았다. 일본인들은 뒷갑판에 발꿈치를 세우고 앉아서는 4백 명이 손에 무기를 마치 팬처럼 쥐고 음악에 발맞추어 마치 하나의 거대한 생명체같이 행진하는 것을 탄복해하면서 쳐다보았다.

일본인들은 조용히 만족과 놀라움의 미소를 띠고는 자신들의 잘 올려퍼지는 언어로 서로 의견을 말하였다.

그날 저녁, 즉 일본인들이 편지를 받아간 그날에 그들은 약속대로 ‘편지를 전달했다’는 걸 이야기해주기 위해 왔다. 우리는 그들이 편지를 전달하리라는 것에 추호의 의심도 없었지만 말이다.

3일인가 지나서 고케닌들이 다시 왔다. 다시 말하면 바바와 다른 한 명이 우리 배를 보러 왔는데, 늘 그랬듯이 다른 한 명은 새로운 사람이었다. 그들은 제독과 페테르부르크의 편지에 대한 영주의 답을 가져왔다고 말하고 제독을 보기를 원했다. 바니오스들은 다음과 같이 전했다.

그의 주군께서 “편지를 만족스럽게 보셨고, 잘 이해하셨다.” 그리고 모든 것을 이행하도록 노력하겠다. 영주가 제독을 접견하는 것은 허가 없는 할 수가 없다. 하지만 이미 에도로 파발꾼을 보냈으니 곧 대답을 받기를 기대한다.

그러는 사이 시간은 가서 마침내 9월 9일에 이르렀다. 에도로부터 대답을 기다렸고, 무언가를 하면서도 지루했고, 무언가를 하지 않고도 또한 지루했다. 오락거리가 될 만한 것은 거의 없었다. 우리가 코르벳함으로 가거나, 코르벳함에서 우리에게로 와서 밥을 먹거나 차를 마셨다. 연극을 올리려 희곡을 한 편 준비하기도 했다. 일본인들이 우리를 방문했지만 이전보다 드물게 왔다. 그런데 갑자기 자주 방문하기 시작했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처음 도착했을 때 우리는 식량을 보내줄 것을 요청하였다. 당연히 돈을 주고 구입할 것이며, 그것이 아닐 경우에 우리는 받지를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이 요청에 대한 대답으로 일본인들은 다시 자신의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즉, 에도의 막부로 보내야 하고 막부는 쇼군에게 보고를 하고 쇼군은 미카도에게 알린다. 이런 연유로 대답을 빨리 받는 것은 불가능하다. 대신 영주는 약간의 가금류와 채소를 선물로 받아달라고 보내왔다. 우리는 영주가 답례선물, 그들이 말하는 식으로 ‘맞선물’을 받는다는 조건으로 이것을 받을 것이라고 그에게 이야기했다.

중국과 보닌 제도에서 가지고온 식료품, 오리와 닭들은 일부가 상했는데, 시간 때문이라고보다는 배의 요동과 대포 발사 그리고 항해 길의 다른 여러 동요들 때문이었다. 그리고 일부는 먹어 없어졌다. 소와 가금류를 보충하기 위해 중국으로 수송선을 보내야 했다. 그리고 스쿠너선 한 척은 특별명령을 가지고 북쪽으로 시베리아 연안으로 보내야만

했다. 이 일에 대해 우리는 나중에 영주에게 말을 해두었다. 우리 배들이 돌아왔을 때 정박지로 지장 없이 들여보내도록 그가 명령을 내려주기를 바라면서 말이다. 그는 매우 불안해했다. 혹시 증원을 위해 배가 간 것이 아닌가 걱정을 한 모양으로, 서둘러 사람을 보내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수송선을 보내지 않았으면 한다. 신선한 식료품은 네덜란드인들에게서 구입할 수가 있고 그 식료품들은 일본인들이 가져다줄 것이라는 것이다.

우리는 기뻐했고 제독은 이 제안을 받아들였지만 그래도 수송선은 보냈다. 왜냐하면 일본인들은 소를 유용한 가축으로 도축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일본인들은 고기를 먹지 않고, 생선과 가금류만 먹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소고기를 구할 수가 없었다. 게다가 우리는 홍콩과 동인도를 거쳐 유럽으로 서류와 편지들을 보내야 했다. 영주는 엄청나게 실수를 했다. 우리는 이익을 보게 되었고, 일주일에 두 번 이런 저런 가금류와 채소 등을 보낸다는 긴 목록을 받았다. 이것 때문에 수요일과 금요일마다 많은 일본인이 갑판에 북적댔다. 오를 한 무리의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하기를 돼지를 가지고 올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정확히 돼지를 가지고 왔다. 어제는 식수를 가지고 온다는 걸 먼저 알리고, 그다음 식수를 가지고 왔다. 심지어 코르벳함에 필요한 식수도 먼저 우리 배로 가지고 와서 식수를 가지고 왔다고 알린 다음에 코르벳함으로 갔다. 코르벳함은 도시 쪽으로 150사젠 정도 더 가까이 위치해 있었다. 지금 계다 바닥이 딸깍거리는 소리가 쉴 새 없이 들리고, 그다음에 트랩으로 끌고 오는 돼지들의 찌지는 듯한 소리, 그리고 무와 양배추가 든 자루가 둔탁하게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저쪽에서는 계란 바구니를 끌어올린 다음에 과일과 배가 든 바구니를 부

리고 있다. 배는 크고 단단해서 킴포트나 만들 수 있을 듯하다.

한번 실수를 하고 나서는 일본인들은 매우 조심하기 시작했다. 우리에게 장소를 내주는 것에 대한 에도에서의 대답을 기다릴 때 제독이 말하기를 우리 옆에 있는 빈 암석에 조사를 위해 크로노미터⁸를 운반해야 할 것 같다고 하였다. 이걸 일본인들에게 슬쩍 이야기하였다.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다음 날 암석에 나무를 꽂아놓아서 암석이 해안과 비슷하게 보이게 만들어놓았다. 해안에는 우리가 내려가지 않기로 약속을 했었다.

8월 30일, 알렉산드르의 날이었다. 명명일을 맞은 B.Sh.를 위한 아침 식사가 코르벳함에서 있었다. 매우 즐거웠다. 여러 오락들 중에 가장 눈에 띄는 것이 하나 있었다. 갑판에 열두 살에서 열여섯 살까지의 18명의 소년이 등장했다. 그들은 가락에 맞추어 조화롭게 로망스와 합창곡들을 불렀다. 한 소년은 깨끗하고 낭랑한 소프라노였고, 다른 소년은 아름다운 콘트라토⁹였다. 마침내 가장 어린 소년 두 명이 러시아식으로 춤을 추기 시작했다. 그들에게 크릴로프의 우화를 암송시키기도 했다. 그 소년들은 모두 러시아인의 얼굴이 아니었다. 그들은 대체 누구인가? 캄차달인들이다. 그들은 페트로파블로프스크의 학교에서 공부하면서 도선사나 항법사가 될 준비를 한다. 계몽과 예술의 불꽃이 타오르는 곳은 이리하다. 이 소년들은 축제일마다 배를 돌아다니고, 아름

⁸ 크로노미터(chronometer). 항해 중인 배가 배의 위치를 산출하거나, 특히 위도의 측정에 사용하는 정밀시계.

⁹ 콘트라토(contralto). 여성 음역을 내는 알토. 중세 교회음악에서는 여성이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에 테너보다 높은 성역도 남성이 불렀으며 이를 콘트라토라고 하였다.

다운 합창으로 오전예배를 노래한다.

9월 초에 이 지역의 네덜란드인 구역장의 조수가 우리를 방문했다. 젊은 사람으로, 이름은 기억나지 않는다. 구역장의 이름은 돈커-커티우스였다. 그는 오래된 네덜란드 가문 출신이다. 조수와 함께 한 무리의 일본인 역관들이 같이 왔다. 그들은 그에게서 한 발짝도 떨어지지 않았다.

그와 프랑스로 이야기를 시작했으나, 그는 일본인들을 경계하면서 네덜란드어로만 이야기해달라고 부탁했다. 기없는 처지였다. 감옥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신만이 왜 그런지 알고 있었다. 이 젊은이는 이미 9년이나 이곳에 있었다. 그는 다음 날 지역장이 직접 올 것이라고 이야기했으나 다음 날도 그다음 날도 오지 않았다. 나중에 지역장이 건강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마침내 우리 수송선이 중국에서 돌아왔을 때 제독은 지역장에게 여기에서는 귀한 소고기의 절반을 보내주었다. 그는 짝막하게 감사하다는 쪽지를 보냈다. 하지만 그 쪽지에는 매우 큰 기쁨이 나타나 있어, 제독은 그의 거짓 무례의 진짜 이유를 이해했다.

9월 2일, 밤 2시쯤에 무자비한 바람이 불었다. 산과 계곡에서 불어 오는 돌풍은 무시무시했다. 밤 3시가 되자 달이 있는데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되었다. 희미한 번개만 반짝였는데, 천둥소리가 없었다. 아니면 바람 때문에 소리를 못 들었던 것 같다.

해안에 살면서도 그런 바람은 상상하기 힘들었다. 바람이 둔중하게 으르렁거리는 소리, 로프들이 부딪혀 내는 소음, 명령들을 외치는 소리, 지옥이 따로 없었다. 나는 창문으로 등불의 흔들리는 불빛을 보았고, 늦추어진 닻줄이 부딪치는 소리와 또 다른 닻이 둔탁하고 무겁게

떨어지는 소리를 들었다. 마치 지하로부터의 굉음과 같았다. 날이 밝았다. 나는 갑판으로 나왔다. 날은 무더웠다. 습기 자욱한 더운 공기로 숨쉬는 것은 우울할 지경까지 힘들었다. 나는 선장실로 가서 거기 창문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았다. 바다는 중국해에서 우리가 견뎌낸 폭풍을 떠올리게 했다. 정박장 전체는 마치 하나의 거대한 소용돌이 같았다. 물은 휘몰아치고 끓어올랐다. 바람은 울부짖는 소리를 내며 물을 먼지처럼 날렸고, 물결을 헤치고 있었다. 그 물결은 따라오는 짐승 떼처럼 해안의 암석들에 내던져졌고, 그다음 해안으로 들이쳤다. 순식간에 농가들과 포진지, 울타리와 요새에 박아놓은 나무말뚝들이 잠겨버렸다. 일본 배들은 해안 근처에 몸을 숨기고는 조각배처럼 흔들렸다.

아침 7시쯤에 갑자기 바람이 멈추었고, 아름다운 날씨가 찾아왔다. 그다음 날 밤, 그리고 어젯밤은 너무 좋아서 열대의 밤에 견주어도 뒤지지 않을 정도였다. 밤하늘의 부드러운 색채는 처음에는 장밋빛이었다가 나중에는 보랏빛으로 변했고 우아하고 장난스러운 구름들이 떠있었다. 달은 하얗고 투명했고 그 부드러운 빛은 모든 것에 흘러내렸다.

하지만 지루했고 무더웠다. 1월에 마테이라 섬 연안에서 시작된 우리의 끝없는 여름은 마치 악몽처럼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언제 이 여름이 지나갈 것인지? 오늘은 조금 서늘하긴 했는데, 이게 계속될 건지? “조금만 기다리시오. 이제 회귀선에서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서늘해질 겁니다.” 마치 시빌라¹⁰처럼 할아범이 투덜거렸다. 날들은 단조롭

¹⁰ 시빌라(Sybylla). 원래는 트로이 부근 마르페소스에 살면서 아폴론한테서 예언 능력을 물려받은 한 여인의 이름이었으나, 후대로 내려오면서 무녀의 총칭으로 사용되었다.

게 지나갔다. 수병들은 4시에 일어나서(8시에 그들은 자리에 든다) 갑판을 모래와 자갈로 청소하기 시작한다. 이것은 내 머리 위에서 벌어진다. 깻다가 그 소리를 듣고는, 다시 잠이 든다. 자갈과 모래가 판자에 쓸리는 소리는 마치 나무 지붕에 부딪히는 잣은 빗방울소리처럼 편안했다. 6시에서 7시 반까지 장교들이 일어나고, 깃발을 게양하러 간다. 그다음 차를 마시고 각각 갈 곳으로 간다. 훈련과 경보, 돛을 이용한 기동이 시작된다. 나는 날씨가 좋을 때면 뒷갑판으로 가서 주위 경치를 감상하였다. 망원경으로 언덕들을 바라보았고, 마을과 농가들, 사람들의 움직이는 모습을 살펴보거나, 넓은 대문과 창틀이나 유리창 없는 창문 너머로 농가 내부를 유심히 주시하거나, 아니면 일본인들을 태우고 지나가는 배들을 쳐다보았다. 그런 다음에는 자리에 앉아 점심때까지 일하였다. 1시부터 2시 반까지 점심을 먹고는 잠깐 오수를 취하고, 그 다음에 산책하였다. 갑판에는 차가 준비되어 있고, 우리 오케스트라의 음악에 맞춰 갑판을 따라 산책하였다. 그 후에는 저녁노을의 광경과 이 지역의 투명한 공기 속에서 마치 불꽃처럼 장대하게 빛나는 별들이 있었다. 저녁이면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찾아가 앉았다가, 마침내 다 둘러보아서 더 이상 갈 곳이 없으면 내 방으로 돌아와 다시 일을 하였다.

일본인들의 방문이 우리의 일과를 중단시킨 적은 한번도 없다. 그들의 딸깍거리는 신발소리가 갑판에서 들리면, 펜을 놓아두고 정모를 챙겨 왜 왔는지 보러 나갔다. 9월 5일에 그들이 왔다. 나는 건강이 좋지 못하였다. 힘이 없어서 점심 때까지 자고 있었다. 파제예프가 깨웠다. “거참, 나으리, 일본인들이 왔어요. 새로운 놈이 왔는데, 엄청 뚱뚱한 덤쇼.” 나는 제독실(提督室)에서 그를 다른 일본인들과 함께 만났다. 그는 둥그스럼하고 살찐 거무스럼한 얼굴이었다. 다른 모든 일본인들처럼

럼 얼굴에 흥조는 없었으며, 윗니가 매우 돌출되어 있었다. 그 돌출된 이 때문에 항상 본의 아닌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는 매우 급했고, 분주했다. 그의 이름은 기치베[吉兵衛]였다. 그는 우리 쪽 사절과 서류를 막부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등의 의례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왔다. 이견 에도에서 대답을 받은 것을 의미했다. 하지만 그들은 받지 않았다고 이야기했다.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를 받아들지 아닐지도 모르면서 의례에 대해 논의할 수가 없었을 것이다. 나에게서는 의례 계획을 작성하도록 위임하였다. 즉, 제독이 도시로 어떻게 갈 것인지, 어떤 수행원들이 제독을 수행할 것인지, 어떤 만남이 준비되어야만 하는지 등등이다. 이것은 여기서는 매우 중요한 일이다.

6일이다. 그랬었다. 대답은 받은 것이었다. 오늘 새로운 상급 역관인 기치베가 다시 와서는 방금 대답을 받은 것처럼 이야기하였다. 일본인들이 있는 제독실로 나를 불렀을 때 의례에 대한 서류는 준비가 되어 있었다. K.N. 포시에트는 그들에게 네덜란드어로 의례 조항을 구두로 전달하였다. 기치베는 그의 말을 들으면서 미소를 짓기도 하고, 신음소리를 내기도 하고, 조급해하며 거의 의자에 앉아 있지를 못하였다. 그는 우리 사절 레자노프¹¹를 인용하면서, 그의 수행원은 훨씬 적었다고 이야기했다. 그에게 대답하기를 그것이 우리에게 예가 되지 못하는 것이, 지금의 사절단은 큰 규모이니 수행원도 더 많아야 된다고 하였다. 제독은 더 나아가서 모든 장교들이 상륙하고 싶어 한다고 주장하였다.

9월 5, 6일 그리고 7일, 매일 고케닌들이 우리 방문의 의례에 대해

¹¹ 니콜라이 페트로비치 레자노프(1764~1807). 러시아의 전권 사절로 1803~1805년까지 일본과의 통상관계를 수립하려 노력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협의하려고 왔다. 여러분은 유럽에서 이 시각에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로 걱정하고 있을 때 우리는 온종일 앉느냐 앉지 않느냐, 서느냐 서지 않느냐, 어디에 어떻게 앉느냐 등의 문제로 애를 쓰고 있었다. 일본인들은 자신들 식으로 바닥에 무릎 꿇고 앉을 것을 제안했다. 무릎을 대고 섰다가, 다시 꿇고 앉는 게 일본식으로 앉는 방법이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면 5분을 채 못 앉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일본인들은 몇 시간이고 앉아 있다. 우리들은 그렇게 앉아 있을 수가 없다고 선언하고 영주께서 우리 식으로 의자에 앉기를 원하지 않는지 물었다. 하지만 일본인들도 또한 우리 식으로 앉지를 못한다. 아마도 익숙하지 않아서 발이 저린 모양이다. 학과 여우가 서로 어떻게 식사를 대접했는지 기억해 보기를 바란다. 말 그대로 똑같은 상황이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본인들이 왔다. 낮에도 다시 일본인들이 왔고 저녁 무렵에도 다시 왔다. 그들의 길고 넓은 보트가 도착했는데 선수에는 비단으로 만든 끈리가 있고 선미는 여러 토막으로 잘라져 있다. 이들은 하급역관들로 상급역관들이 지금 올 거라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왔다. 그리고 상급역관들은 고케닌들의 도착을 통보하였다. 왜 또 온 거죠? “전부 의례에 대한 것들입니다.” “영주의 의견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요?” “영주께서 청하기를 여러분들이 바닥에 앉으실 수는 없으신지? ……” 기치베가 웃으면서 그리고 상을 찡그리면서 말하였다.

그는 에도로 보내졌었는데 아마도 거기서 미국인들과의 협상에 참석했던 것 같다. 에도에서 돌아와서는 상급역관으로 료다와 사다고라를 대신하여 나섰다.

“아이고, 하느님, 이미 말하지 않았소. 앉지 않는다고, 못 앉는다고, 그리고 우리 웃은 그렇게 앉기에 적당하지 않고, 무릎을 꿇고 앉는 것

은 우리에게 힘든 일이라고 ……” “무릎을 꿇고 앉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발을 어디든 뺨으시면 됩니다.” “배에서 저 사람들을 치워버리시죠?” 우리 속에서 투덜대기 시작했고, 마침내 화를 냈다. 우리는 우리 의자를 가지고 가서 거기에 앉을 것이라고, 그리고 영주는 원하시는 대로 어디든 앉으시라고 선언했다.

기치베, 료다 그리고 사다고라는 모두 고개를 숙였지만, 나중에 동의하였다. 그들은 이 모든 것들을 선장실에서 이야기하였다. 제독은 아침에 그들에게 자신의 대답을 알렸다. 그리고 그들이 저녁에 또 자질구레한 문제들을 들고 오거나, 어떻게 앉는지를 설명하려고 올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을 접견하지 않고 우리에게 그들과 이야기하라고 위임했다. “아, 또 있습니다.” 그들이 부탁했다. “영주께서 당신들을 대접하시길 원합니다. 아침을 하시자고 청하십니다.” “기꺼이 그러겠소.” 제독이 이렇게 말하라고 명령했다. “일에 관한 이야기가 끝나고 나면,” 기치베가 계속 이야기했다. “영주께서는 자신의 방에 가서 휴식을 취하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다른 방에 쉬러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의자에서 안절부절 못하고, 발작적으로 웃으면서 다시 다음과 같이 말을 덧붙였다. “그리고 …… 거기서 아침식사를 하시면 됩니다.” “우리들만?” 그에게 물었다. “당신들 미친 것 아니요? 유럽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소.” “일본식으로는 많이들 그렇게 합니다.” 그들이 이야기했다. “우리는 항상 그렇게……”

하지만 보아하니 거짓말을 하는 것 같았다. 그들은 제독을 흉내 내려 하는 것이었다. 제독은 전함에서 일본인들과 처음 만났을 때 고케닌들을 위해 아침을 준비하라고 지시했는데, 우리에게 그들을 접대하려고 위임하고는 자신은 참석하지 않았다. 신이시여, 얼마나 부탁과 간청

들이 많은지, 기치베는 안절부절 못하고 부산을 떨었고, 관자놀이를 따라 식은땀이 줄줄 흘렀다. 료다는 절을 하고 미소를 지었다. 준엄한 사다고라도 헤벌쭙이 웃고 있었다. 깊이 숨을 한번 쉬고는 그들은 다른 문제들로 넘어갔다. 예를 들면 우리가 누구의 보트로 갈 것인지 하는 문제 말이다. 그리고는 다시 자신의 보트를 열심히 권하기 시작했다. 말하기를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존경을 표하고 싶다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회피하면서, 우리는 우리 보트가 많다고 이야기했다. 다시 그들 편에서 간청과 우리 쪽에서의 거절. 그들의 얼굴에 유감의 빛이 어렸다.

이 모든 것들은 사실 논의를 하는 것이 이상하리 만큼 사소한 것들이었다. 문제는 이 사소한 것들이 이후에 다분히 중대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것이다. 사소한 일에서 그들의 강한 요구에 양보하게 되면 그들이 심각한 문제들에서 양보를 요청하는 빌미를 줄 수도 있고, 우리와의 관계에서 거만해질 수도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제독은 그들을 대할 때 자신이 정한 방식을 항상 지켰다. 그것은 사소한 일에서든 중요한 일에서든 온순함, 정중함, 그리고 굳건함을 지키는 것이다. 우리의 관계가 시작되는 이 사소한 일들로 인해 일본인들은 우리에게 대한 개념을 잡을 것이고, 우리는 앞으로의 협상들에서 우리가 가지고 갈 주된 방향을 정립할 것이다. 그래서 첫눈에 보이는 것보다 이 상황은 훨씬 중요했다.

우리는 이제껏의 거절들을 완화시키려고 그들에게 무엇으로 배려를 할까 생각하기 시작하다가, 아마포나 옥양목으로 가벼운 반장화를 만들기로 하였다. 일본인의 방에 들어갈 때 부츠 위에 신으려는 것이다. 방에 들어갈 때 신발을 벗는 것은 동양의 관습이다. 일본인들은 그들이

먹고 마시고 자는 방바닥을 우리가 밟아서 더럽히지 않으려는 것이 당연히 마음에 들 것이다. 복새통이 벌어졌다. 하루 만에, 당연한 말이지만 대강대강 반장화를 만들어야 되었다. 손에 바늘을 쥌 수 있는 모든 사람이 이 일에 달라붙었다. 내 반장화가 형편없는 솜씨로 만들어진 것으로 보아 나는 파제예프가 직접 만들지 않았나 의심을 했다. 비록 그가 돛 만드는 사람에게 부탁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말이다. 몇몇은 덧신을 신고 가서 입구에서 덧신을 벗고 들어갈까도 생각했지만, 통일을 기하기 위해 공통의 규칙을 따르기로 하였다. 하지만 나는 이 의례에 참가할 수만 있다면 부츠를 벗거나, 심지어 바닥에 앉는 것도 반대하지 않았을 것이다.

저녁에 일본인들이 다시 오는 것을 보았다. “이번이 몇 번째죠? 이번은 왜 오신 겁니까?” “모두 의례에 관한 것입니다.” “또 무엇이죠?” “영주께서 청하기를 여러분들은 영주 없이 식사하실 수 없으신가요. 그렇게 하는 게 일본식으로는 괜찮은 겁니다.” 기치베가 이야기했다. “하지만 러시아식으로는 괜찮지 않소.” 그에게 대답했다. 절과 간청이 시작되었다. “그래, 좋소. 그에게 이야기하십시오.” 그들이 왜 왔는지 알고는 제독은 다음과 같이 선언하도록 명령했다. “그들은 차는 내올 수 있소. 왜냐하면 그건 그들의 관례니까. 하지만 아침은 없던 것으로 합시다.”

일본인들은 기뻐했다. 특히 기치베가 그러했다. 보건대 영주는 그에게 우리가 아침을 꼭 먹도록 조정해오라고 명령을 내린 것 같았다. 영주에게는 당연히 막부가 지시를 하였고, 막부에게는 쇼군이 지시했을 것이다. “영주께서는 또한” 기치베가 말을 시작했다. “보트에 대해 청하시기를 우리 보트로 오실 수는 없는지 ……” “안 되요.” 짧고 간단하

게 그에게 대답했다.

그다음 수행원과 사람들의 숫자, 위병, 가마에 대해 협상하기 시작했다. 가마는 우리가 모든 장교들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에 대해 거의 눈물이 날 정도로 논의를 하였다. 음악에 대해서는 우리 생각과는 반대로, 그들은 어떤 반대도 하지 않았다. 아마도 영주를 포함해서 모두가 음악을 듣고 싶어 했나보다. 그들은 떠났다.

다음 날 8일에 다시 나타나서는 평소대로 아침 대접을 고집했고, 그들의 보트로 갈 것도 고집했다. 하지만 헛되었다. 그들은 몹시도 그걸 관찰하고 싶어 했다. 나중에 국민들에게 우리가 스스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데리고 간다는 것을, 즉 일본에서 타지인들은 자유를 가지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을 것이다.

다음에 역관들은 의례의 모든 조항들을 네덜란드어로 기술하기를 부탁했고, 그것을 영주에게 가져가기 위해 그들에게 서류로 만들어달라고 하였다. 그들에게 말해주기를 서류는 저녁때나 준비될 것이니, 서류를 가지러 오라고 하였으나, 그들은 기다리는 것이 좋겠다고 선언했다. 나는 식사를 하러 나갔고, 그들은 계속 기다렸다. 그다음에 잠을 자고 나서 다시 왔는데, 그들은 떠나지 않고 있었다. 그리고 그렇게 밤까지 기다렸다. 뒷갑판에서 그들에게 식사를 하게 했고, P.가 그들과 함께 식사했다.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었다. 그들은 고기를 먹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들은 우리가 주는 소고기 만두와 닭고기 수프를 먹었다. 보트에서 자신들의 식사를 가져오게 시켰는데, 납작하고 각지게 자른 구운 생선이었다. K.N.P.는 맛이 괜찮았다고 말했다. 그게 정말로 그런지는 잘 모르겠다. 그는 맛에 대해서는 너무 관대한 편이었다.

역관들은 만남이 내일 9일로 정해졌고, 도시에서 영주 다음가는 관리와 두 명의 영주 가신이 와서 언제 영주가 우리를 접견할 수 있을지 알려주러 올 것이라고 이야기하고는 떠났다. 우리는 그들에게 아침 10시로 정했다. 그때부터 우리에게 올 관리와 가신들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지, 관리들을 어디에 앉힐 것인지 협의를 시작했다. “팔걸이 의자, 소파, 바닥이든 앉고 싶으신 대로 앉게 하시오.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탁자에 앉으시든 마음대로 하시오.” 그들에게 말했다. “그들이 어떻게 앉을 건지 그려주실 수는 없나요?” 기치베가 이야기했다.

제발 부탁인데, 이런 민족과 어떻게 일을 해야 할지 말씀해주실 수는 없나요? 하지만 일에 대해 이야기를 해야만 한다. 신이시여, 인내를 주소서!

열망하는 아침이 왔다. 우리는 꼬박 한 달을 여기에 있었다. 일본의 돼지와 사슴, 심지어 가재에 대해 상세히 알게 되었다. 일본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하지만 일본에 대해서는 아직 아무것도 말을 할 수가 없다. “파제예프, 내 예복을 모두 준비해줘. 그리고 너도 갈 것이니, 옷 입고.” 모두가 예복으로 차려입었다. 나는 하얀 조끼를 가져오라고 했는데, 보니 이미 하얀 조끼가 아니라 노란 조끼였다. 실크 빅타이·양 가죽 장갑, 모든 것에 크기가 같고 둥그스런 상당히 아름다운 얼룩이 여러 모양으로 저 있었다. 예를 들어 색깔을 보면 하얀 장갑에는 초록색 얼룩이 져고, 미색 장갑에는 오렌지색 얼룩이, 갈색 장갑에는 검붉은 얼룩이 져 있는 식이다. 이게 전부 바다의 습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다. “넌 왜 통풍을 안 시켰니?” 나는 파제예프에게 엄하게 지적했다. “봐, 한 짝도 쓸 만한 게 없잖아.” “아, 그건 일부러 그렇게 만든 겁니다.” 둥그스름하고 정확한 형태로 얼룩이 저 있어 좀 놀란 그가 이렇게

대답했다. “그럼 넥타이들도 일부러 그렇게 얼룩을 만든거네?” 파제에 프는 결눈질로 넥타이를 보았다. “넥타이들도 얼룩이 졌네.” 그는 혼잣말을 했다. “굉장하구만!”

하지만 장갑에 대해 신경 쓸 여유가 없었다. 우리는 4월부터, 그러니까 희망봉에서부터 장갑을 끼지 않았다. 그 더위에 공연한 일이었고, 낀다고 해도 기분 좋지는 않았을 것이다. 낀 다음에 벗기도 힘들었을 것이다.

10시에 처음에는 오퍼바니오스들이, 그리고 나중에 가신들이 왔다. 나와 K.N.P.는 그들을 중부감판에서 맞이해서 제독에게 안내하는 책무를 맡았다. 프리깃함 주위에는 별거벗은 사람들이 타고 있는 100척이 넘는 일본 보트들이 운집했다. 모두가 똑같은 옷을 맴시 있게 입고 있었는데 형형색색의 다양함은 없었지만 굉장했다. 나와 P.는 앞돛대에서 그들을 기다렸다. 손님들이 곧 나타날 것인지 일본의 가신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우리의 가신들과 비슷한지?

지금 배의 출사닥다리를 타고 갑판으로 올라오기 시작했다. 한 사람씩 줄지어서 높고 짧은 일본인들이 칼을 하나를 차기도 하고 두 개를 차기도 하고 검은색 상의나 회색 상의를 입고, 특히 꼼꼼히 빗질한 뒷머리와 깨끗하게 면도한 이마와 턱수염을 하고, 말 그대로 모두가 신통하게도 같았다. 기다란 얼굴과 둥그스런 얼굴들, 매우 거무스름하거나 누르스름한 얼굴들, 그리고 좀 밝은 색의 얼굴들, 눈이 잘 보이지 않는 사람과 푹 볼거진 눈을 가진 사람들,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을 만큼 매끈한 얼굴과 극도로 얇은 얼굴들. 그런데 저 턱과 이빨은 어떻게 된 것인지! 그리고 모두가 갑판으로 기어오르고 또 기어오르고 있다. 이 행렬의 끝이 있을까?

역관들이 보이고 그리고 그들 뒤로 가신들이 보였다. “가신들이 어떤 사람ियो? 어디 었소?” 우리가 물었다. “여기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즉 수행원들은 갑자기 모두가 마치 구령소리에 맞춘 것처럼 모두 똑같이 무릎에 손을 대고는 깊이 절을 했다. 그리고 마치 등 뛰어넘기 놀이를 하려는 듯이 오랫동안 그 상태를 유지하였다. “이 사람이 가신입니까?” 배의 줄사닥다리로 한 걸음 한 걸음 휘청거리면서 두 명의 노인이 왔다. 둘 다 나이가 70세쯤 되어 보였고, 머리가 성기어서 드문드문해 보이는 머리채를 하였다. 부유한 꽃무늬 비단 바지를 입었는데, 옷자락을 따라 빌로드천으로 테두리 장식을 하였고, 하얀 종이로 된 양말을 신고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짚으로 된 샌들을 신었다. 그들은 우리와 주위를 살피려 겨우 눈꺼풀을 들었다가는 금방 내렸다. 음악소리가 광 울렸다. 그들은 다시금 눈꺼풀을 들어올렸다가 다시 내리깔았다. 그리고는 우리가 그들을 이끄는 대로 주위도 돌아보지 않고, 샌들을 끌면서 조용히 겨우겨우 걸어갔다. 오퍼바니오스들은 거기서 가신의 수행원 줄에 합류하여 그들 뒤를 따라갔다. 그리고 가신들이 말을 걸면 “히, 히, 히”하고 되풀이해서 말했다. 가신들을 처음에는 선장실로 안내하여서, 어제 그려준 대로, 두 개의 팔걸이 의자에 앉혔다. 나머지 사람들은 감히 앉으려 하지 않았다. 가신들은 제독 뵈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선장실로 올 때처럼 그렇게 무기력하게 주위의 아무것도 둘러보지 않으면서 그들은 또 제독실로 내려갔다. 그곳에서는 그들에게 경의를 극진히 표시하기 위해 수행원들과는 달리 의자 밑에 양가죽 방석을 받쳐놓았다. 그들의 다리가 바닥에 닿지 않았기 때문이다. 어떤 것이 더 존경을 표하는 방법이었을까? 가신들에게 차와 과실주를 내왔다. 그들

은 차는 쪽 들이켰으나 과실주는 사양하였다. 그들은 시간이 없고, 단지 영주께서 러시아인들을 기다리고 계시다는 말을 하기 위해서 왔다고 말하였다. 그들은 우리에게 자기들 뒤를 따라 바로 출발하지 말라고 부탁하였다. 그들이 제시간에 도착해서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그런다고 하였다. “우리 보트는 당신들 보트처럼 그렇게 빠르게 갈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덧붙였다.

우리는 보트에 앉기 시작했다. 이때 호각소리가 나자 위쪽으로 로프를 따라 말려 있던 깃발들이 빠르게 올라갔다. 그리고 사람들이 활대를 따라 뛰기 시작했다. 제독의 단정에는 러시아 국기만 보였다. 단정이 자리에서 가볍게 움직이기 시작하자 만국기가 순식간에 양쪽 배에서 펼쳐졌고, 햇빛을 받아 눈부시게 알록달록해 보였다. 국가인 ‘신이시여, 황제를 보호하소서’가 연주됨과 동시에 만세소리가 세 번 울려 퍼졌다.

보트에 있던 500명가량의 일본인들 모두는 잠시 굳어서 움직이지 않다가, 그다음 전원 다 경탄과 황홀에 찬 고함소리로 대기를 울렸다.

제일 앞에는 제독의 쾌속보트가 갔다. K.N.P-는 해안에 의장대를 도열시키기 위해 그 보트에 타고 있었다. 그 뒤로 의장대를 실은 단정이 따라갔고, 그 뒤에는 악사들과 하인들이 탄 단정이, 그 뒤를 이어서 장교들이 탄 보트가, 그 보트 뒤를 따라 제독과 수행원들이 탄 단정이 갔다. 그 뒤로는 구명보트도 따라갔는데, 거기에는 장교들 중 한 명이 앉아 있었다. 앞과 뒤에서, 또 양쪽 옆에서 많은 일본 배들이 서둘렀는데, 어떤 배들은 우리와 나란히 가려고, 또 다른 배들은 우리를 앞지르려고 서둘렀다. 대략 한 시간 정도 천천히 갔다. 포진지와 선착장, 언덕을 따라 가는 곳마다 수두룩한 먼도한 머리와 다양한 색깔의 - 파란색

이 많긴 했지만 - 가운데들이 무리지어 있었다. 보트들은 마치 오리들처럼 주위를 빙빙 헤엄쳤으나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지는 않았다.

우리들은 호기심에 차서 우리가 지나쳐온 해협이 아름다운 해안을 쳐다보았다. 나는 이 장소들을 바라보면서 다시금 유감을 금할 수가 없었다. 자연은 인간에게 자신의 창조적인 손을 대서 기적을 만들어주기 위해 모든 것을 다했는데, 인간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저기 언덕이 아무리 푸르고 살기가 좋더라도 무언가 부족하다. 그 언덕은 흰색 열주, 주랑(柱廊) 현관이나 시골 저택, 사방으로 난 발코니, 메아리를 따라 달려나가는 오솔길로 월계관이 씩워져야 한다.

저기 움푹한 곳에는 바다로 내려가는 길과 선착장을 만들면 좋을 것 같다. 그 선착장에는 증기선들이 쇠 소리를 내고, 사람들이 와글와글 할 것이다. 저기 높은 산에는 탐과 둥근 지붕, 그리고 멀리서 빛나는 십자가가 있는 수도원이 있었으면 한다. 여기에는 잘 만들어진 창고들이 있으면 좋을 텐데. 창고들 앞에는 배들이 혼잡을 이루고, 목재를 싣고 …….

“일본인들에게서 나가사키를 가져오면 어떨까요?” 나는 꿈에 몰두해서 크게 말했다. 몇몇이 웃었다. “일본인들은 이용할 줄 몰라요.” 내가 계속 이야기했다. “이 항구를 다른 사람들이 소유했다면, 여기가 어떻게 되었겠어요? 한번 보세요, 어떤 장소들인지. 전 동쪽 해양¹²이 무역역으로 번창할 텐데 …….”

나는 일본이 중국과 한국을 거쳐 유럽과 시베리아로 이어지는 무역역으로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에 대한 나의 생각을 발전시켜보려 했지

¹² 태평양의 러시아식 명칭.

만, 우리는 이미 해안에 접근하고 있었다. “도시는 어디에 있는 거지?” “저기 있잖아요.”라고 누군가 말했다. “저기가 전부인가요? 곳 뒤쪽으로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보는 이것이?”

다닥다닥 모여 있는 볼품없는 회색의 단층집들 더버기를 보면서 우리는 눈을 의심했다. 내가 도시가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한 왼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텅 빈 해안, 조그만 마을들과 어부의 오두막 같은 집들이 몇 개 떨어져 있었다. 해협을 둘러싸고 있는 곳을 따라서 보잘것없는 포진지들과 어떤 낮고 긴 건물들이 있는데 병영 같았다. 둔해 보이는 큰 배 몇 척이 해안에 달라붙어 있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을 휘장을 쳐서 가려놓았다. 집도 배도 거리도. 그러나 가려놓아도 괜찮은 사람들은 너무 열어젖히고 돌아다니고 있었다.

나는 일본의 도시들이 인구가 많다고 여기저기서 읽었는데, 지금은 툰버그¹³가 이야기한 것 같은데, 6만 명이나 되는 주민이 어디에 거주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나가사키의 인구는 몇 명입니까?” 한번은 내가 바바 고로다이몬에게 물어보았다. 물론 역관을 통해서였다. 그는 일본어로 질문을 다시 반복해서 말하더니, 다른 바니오스를 쳐다보았다. 그 바니오스는 세 번째 바니오스를 쳐다보았고, 이 바니오스는 온더바니오스를, 온더바니오스는 역관을 쳐다보았다. 그리고 그렇게

¹³ 칼 피터 툰버그(Carl Peter Thunberg, 1743~1828). 스웨덴의 자연학자. 의사로 나가사키의 네덜란드인 구역에서 1년 4개월 동안 체류했다. 그동안 일본인들에게 의술과 자연과학을 가르쳤고, 일본의 식물계를 연구했다. 실상 그는 나가사키의 인구에 대해 언급하지는 않았다. 단지 그의 책에 “시골이 인구밀집지역으로 변모하였다.”라고 이야기했을 뿐이다. 나가사키의 인구가 6만 명이 된다고 쓴 사람은 질볼트였다.

질문과 시선은 대답 없이 바바에게 다시 도달했다. “어떨 때는 좀 적기도 하고” 마침내 사다고라가 이야기했다. “또 다른 경우에는 많아지도 합니다.” 자, 이게 여러분들에게 온 대답이다. 그들은 모든 것을 경계했다. 그들에게 모든 것은 금지되어 있었다. 나는 한번은 쇼군의 이름이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았다. “모릅니다.”라고 대답했다. 게다가 군주의 이름은 실제로 비밀이거나, 적어도 공경심 때문에 그 이름을 소리내어 부르지 않는다. 그가 죽은 후에는 다른 이름이 주어진다. 일본인들은 살면서 삶의 여러 단계에서, 예를 들어 결혼이나 여러 상황에서 몇 번 이름을 바꾸는 풍습이 있다.

우리는 점점 더 가까이 도시로 다가갔다. 구릉에서나 해안을 따라서나, 배에서나 어디서든 도처에 무수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마침내 저기가 네덜란드인 구역이다. 몇 명의 네덜란드인들이 발코니에 앉아 있었다. 우리가 그들과 나란해졌을 때 그들 중 한 명이 우리에게 인사하는 것을 나는 보았다. 앞서 간 우리 단정들이 접안했지만, 내가 타고 있던 제독의 보트는 해안에서 모든 것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면서 노를 잡고 대기하고 있었다.

해안이다! 마침내 우리는 일본 땅을 밟았다. 우리는 돌로 된 정박장으로 나갔다. 그렇지만 해안은 그렇게 흥미롭지 못하였다.

거친 돌로 만든 다분히 높아 보이는 계단이 정박장으로 올라가게 해주고 있다. 해변은 모래가 촘촘히 다져져 있고, 면적이 꽤 넓었다. 집들은 온통 파란색이나 흰색 아마포로 장막이 쳐져 가려져 있다. 의장대는 2열 횡대로 정박장 오른편에 정렬했고, 장교들은 왼편에 정렬했다. 뒤쪽에는 몇 명 안 되는 사람들이 무리지어 있는데, 키가 작고 대부분 볼품이 없으며, 맨몸이었다. 아마도 해안으로는 극히 일부만 접근을 허락

한 것 같았다. 나머지 사람들은 지붕이나 장막 뒤에서 구멍을 뚫고 보거나, 테라스나 산에서, 사방에서 보고 있었다. 군중 속에서 어떤 노인이 부산스럽게 돌아다니고 있는데, 독기 어린 얼굴이고 그도 옷을 제대로 입고 있지는 않았다. 그는 군중들이 앞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억제시키고 있는데, 타이르는 말 말고도 그의 손에 들려 있는 긴 작대기가 많은 것을 가능하게 하였다.

제독이 해안에 발을 디디자마자 음악이 연주되기 시작했고, 위병과 장교들은 거수경례를 하였다. 그런데 만남이 어디서 진행되고, 누가 맞이하는 것인가? 역관들만 보였다. 아니다, 이게 무슨 농담이란 말인가! 물어보고, 알아보고, 요구할 것을 명령하였다.

역관들은 부산스럽게 돌아다니고 뛰어다니기 시작했다. 그러는 사이 우리는 약속한 대로 해안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가마들, 일본말로는 '노리모노'를 살펴보았다. 그것들은 열두 개이거나 우리 장교 숫자대로 좀 더 많아 보이기도 했다. 내 생각에는 전 도시에서 모은 것 같았다. 일본에서는 그 가마들이 우리의 마차를 대신하였다. 가마는 보기에 매우 아름다웠다. 다양한 천으로 씌워졌고, 휘장과 술로 장식되었다. 하지만 거기에 앉을 수가 없다. 다리나 아니면 머리를 둘 데가 없다. 여러분들이 가마를 보게 되면, 우리를 고문하려고 가져왔나? 라고 생각하게 될 것이다. 반쯤 벗은 가마꾼들은 가마 위쪽에 달려 있는 굵은 장대를 어깨에 얹고 노리모노를 이고 갔다. 이 모든 것이 중국에서의 가마와 같지 않게 매우 불편했다. 홍콩에서 나는 매우 조용하고 편한 가마를 탔는데, 마치 수난주간에 우리 민중들이 타는 그네와 비슷했다. 그 가마에 타는 것은 마치 안락의자에 타는 것과 같았다. 가마 말고 말도 있다고 했는데 나는 말을 보지 못했고 왜 말이 필요한지도 몰랐다.

이 북새통 속에서는 코끼리를 보지 못해도 용납될 것이다. 우리들 중 누군가가 이 새장, 즉 가마에 들어가보려 했으나, 금방 뛰어내려서 걸어갔다.

마침내 어떤 노인이 나타났는데 졸리운 듯한 눈에 잘 차려입고 있었다. 그의 뒤에는 수행원들이 있었다. 그는 우리 앞에서 움직이지 않고 서서는 우리를 맥없이 쳐다보았다. 그들은 이런 무관심한 눈길로 엄숙함을 표현하려고 했는지 모르지만, 익숙하지 않아서인지 처음에는 치마를 입고, 길게 드리운 머리채와 맨살의 무릎을 한 이 모습들을 웃음 없이는 바라보기 힘들었다.

나는 제독의 수행원들 속에 있었는데, 우리 행렬의 뒤쪽이었다. 갑자기 앞쪽에서 명령이 들렸다. 앞으로 갓! 음악이 갑자기 연주되기 시작했고, 전 부대가 그 자리에서 움직이기 시작했다. 행진하는 수병들의 같은 속도의 잣은걸음 소리가 들렸다. 모래 해안을 따라 약 100사젠 정도 걸어왔고, 또 다른 돌계단을 오르기 시작했다. 양쪽 편을 따라 일본인들이 열을 지어 있었다. 이 사람들이 정말 병사들인가? 한번 그들을 보세요. 키 작은 일본인들만 선발한 듯 작은 키에 깔때기 모양의 래커 칠한 모자를 쓰고 졸리운 듯한 눈을 하고 있었다. 그들은 몸을 뒤로 젖히고는, 다리를 벌리고 무릎을 구부리고 서 있었다. 그들의 어깨에는 총이 있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의심을 해봐야 되는 것이 그들의 총은 커버 속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총 없이 커버만 있을 수도 있다. 여기서는 다른 곳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가능하기도 하다.

우리는 좀 더 아래로 내려갔다. 행렬은 이미 계단을 따라 구불구불 돌아갔고, 총검이 햇볕에 반짝거렸다. 음악은 앞서 나가면서 점점 소리가 잦아들었다. 명령이 떨어졌다. 오른쪽으로 돌아! 행렬은 마치 뱀처

럼 원형으로 뭉쳐지더니, 그다음 넓어지면서 오른쪽으로 틀었다. 음악은 아치 아래로 들어가듯 점점 소리가 분명치 않게 되더니 갑자기 잠잠해졌다.

우리 머리 위에는 아름다운 푸른 하늘이, 저 멀리에는 산의 계단식 텃밭이 있었다. 주위에는 우리의 집과 전혀 비슷하지 않은 이상한 거리가 있었다. 사람들도 또한 비슷하지 않았다.

우리는 행렬의 오른쪽으로 돌아서 대문을 통과해서 깨끗하게 포장한 마당에, 문이 없는 넓은 목조 현관 앞에 왔다.

맨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마당과 돛자리로 가려진 나무계단, 그리고 일본인들 자체의 극단적인 깨끗함이었다. 이 문제는 정당하게 평가해주어야만 한다. 일본인들 모두 자신의 개인적인 것에서나 의복에서나 매우 청결하고 깨끗하다. 어떻게 이렇게 슬 많은 머리타래에서 냄새가 없고, 그들의 가운에는 얼룩이 없는지? 전혀 없다. 관리들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겠다. 그들은 깨끗하고 땀시 있게 옷을 입는다. 더구나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 벗고 있거나, 헤어진 가운을 입고 있어도 얼룩이 있거나 더럽지는 않다. 예를 들어 중국인들 무리 속에 있으면 많이 꺾게 되는 것들, 백단나무¹⁴ 향기가 그럴 것이고, 또는 마늘을 먹고 난 후의 입김에는 아마도 파리가 날다가 죽을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일본인들에게서는 아무 냄새가 없다. 그들의 머리를 보면 머리타래 사이로 면도한 깨끗한 두개골이 보인다. 맨손은 넓은 옷소매 속에도

14 백단(白檀). 일명 백단향(白檀香)이라고도 한다. 영어로는 샌들우드(sandalwood)다. 나무줄기의 심부와 뿌리에서 정유가 추출되며 향은 이국적인 수목향으로 오랫동안 지속되어 향수의 원료로 쓰인다.

멀리서도 보인다. 거무스름하지만 그래도 깨끗하다. 그들의 몸가짐은 훌륭해서,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예의바르다. 한마디로 모두가 정직한 사람들이다. 하지만 그들과 같이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일을 천천히 미루고, 피를 부리고, 속이기도 하고 그다음에는 거절한다. 일본인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규칙이 있다. 만약 어떤 일을 거절해야 하거나, 아니면 전에 전혀 없던 일을 해야 하는 상황에 접하면 그 일이 좋은 일이라도 그것을 적어도 자발적으로 하지는 못한다. 예를 들어 일본인들은 200여 년 전에 유럽인들은 유해하다고, 또 그들과 어떤 관계도 맺으면 안 된다고 결정했다. 하지만 지금 그들은 당연히, 특히 새로운 시대에 외국인들을 받아들이면 많은 것을 배워 더 잘 살고 모든 것을 더 많이 알게 되고, 더 강해지고, 더 부유해질 것을 확신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옛 기억에 따라 기독교가 그들의 법률과 권력에 해를 미칠 것을 두려워한다. 일본 정부로 하여금 작금에 이것은 터무니없는 생각이고, 이국 사람들과 친교를 구축해야만 한다고 결론을 내리게 해보자.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누가 시작할 것이며, 누가 제안할 것인가? 막부의 대신이 제안할 것인가? 쇼군이 그에게 할복을 명령할 것이다. 쇼군이 할까? 막부가 그에게 다른 사람에게 자리를 양도하라고 권할 것이다. 미카도는 제안을 하지 못한다. 만약 그가 혹시 그렇게 마음을 먹는다면, 쇼군은 그에게 새로운 가운을 지어주지 않을 것이고, 똑같은 식기에 이틀 연속 식사를 하게 할 것이다.

잘 알려진 대로 이 미카도(권력찬탈자 대신, 혹은 쇼군이 뒷전으로 물러나게 한 진정한 법률적 군주)는 같은 의복을 두 번 입을 수 없고, 같은 식기에 두 번 식사할 수 없다. 의복과 식기는 매일 바뀐다. 쇼군이 그에게

날마다 정확하게 신품을 공급해준다. 하지만 소박하고 값싼 것을 준다.

일본인들은 내부 통치체계를 잘 구축해 놓아서, 막부는 쇼군 없이 아무 일을 할 수가 없고, 쇼군은 또한 막부 없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그리고 막부와 쇼군은 영주 없이는 또한 마찬가지로 어떤 일도 할 수 없다. 그리고 그들의 이러한 체계는 자신들의 인위적인 근거들에서 유지되었고, 또 유지될 것이다. 그 체계를 일본인들이 전복하도록 도와주지 않는 한 말이다. 그 도움은 미국인들이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라도 …….

지금 일본인들은 아직 자신들을 단단히 덮고 있는 이 덮개 아래에서 신의 빛을 볼 생각을 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 그들은 우리의 갑작스런 출현에 얼마나 놀라고 슬펐는지. 4척의 큰 배, 어마어마하게 큰 대포들, 많은 사람과 제안을 하는 데에 단호하고 유례없는 어조, 행동의 독자성, 도대체 이것들이 무엇이란 말인가?

갑시선을 우리 배에서 더 멀리 데려가라고 요청했을 때, 또 갑자기 결정을 해서 우리 배들 중 한 척은 중국으로, 다른 한 척은 북쪽으로 영주의 허락도 받지 않고 보냈을 때 일본인들이 얼마나 분주히 돌아다니기 시작했는지. 게다가 영주는 그의 허가 없이는 일본 바다에서 배가 움직이지 못하고, 심지어는 유럽인들의 보트조차 항구에 접근하지 못하는 것에 익숙한 사람이 아니었는가. 우리는 지금 일본인들에게 냉정하게 설명해준다.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원하지 않는지. 그들은 맞서 대항해 보려 하였고, 가끔씩은 예전처럼 수없이 많은 말로 우리를 지치게 하고, 또 이것저것 요구하려 했지만, 그들의 눈동자는 윗분들한테 벌받지 않도록 제발 거절하지 말아달라고 애원하고 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우리가 잘못된 것으로 돌렸다. 내일 우리 배가 바다로 나갈 것을 알고는 그

들은 영주에게 달려가서 허가서를 받아오려 서둘렀다. 우리는 껄껄 웃었다.

그들은 바다에서 항해하는 배를 멀리서 보게 되면 포진지에서 사격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것으로 그들에게는 사격할 수 있는 포가 있다는 것을 암시한 것이다. 사격하세요, 웃으면서 우리는 대답했다. 정박장에서 멀리 나가지 말라고 청을 하였다. 우리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나갔다. 하지만 영주는 여전히 콧대를 높였다. 공식적으로 질의를 하였고, 자기주장을 고집했다. 그러다 갑자기 물러서서는 양보를 하였다.

유럽인들에게 문호를 개방하라는 네덜란드 왕의 조언에 일본인들이 조소로 대답한 것이 오래전이었던가? 그들은 중국인들의 예를 들었다. 중국인들은 단지 하나의 항구에 유럽인들의 출입을 허락했다. 그리고 이로부터 나온 결과는 다섯 개 항구의 개방, 통상조약들, 제약의 철폐 등이다. “이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일본인들은 대답했다. “만약 그들이 하나의 항구를 개방하지 않았더라면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외국인들은 양쪽에서 그들의 금지된 문을 두들기고 있다. 유럽인들을 들여놓을 것인가 들여놓지 않을 것인가 하는 문제를 실질적으로 풀어야 되는 그들의 차례가 왔다. 일본인들에게 이 문제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와 같다. 들여놓는다면 손님들은 다시금 자신의 종교와 이념, 관습, 생활 질서, 상품 그리고 악덕들을 가지고 올 것이다. 들여놓지 않는다면 …… 하지만 그들은 지금 4척의 배로 왔는데, 아마 나중에는 더 큰 대포를 가진 10척의 배가 올지 모른다. 하지만 그들은 대포가 짧고, 포가가 없거나 짊으로 만든 포가에 설치되어 있다. 게다가 그들의 총은 심지에 불을 붙이는 화승총이고 각자 허리에 두 개씩

차고 있는 칼은 훌륭하지만 …… 이 장남감들로 무엇을 할 수가 있겠는가?

들여놓을 것인가, 들여놓지 않을 것인가, 말하기는 참으로 쉽다. 일본인들이 평안하고, 자고 먹는 데 문제가 없을 때는 들여보낼 것이다. 들여보내지 않았는데 …… 손님들이 스스로 와서, 영주가 허가를 얻기 위해 파발꾼을 보낼 시간이 없으면? 누구와 의논을 할 것이며, 누구에게 물어볼 것인가? 영주는 감히 결정할 수 없다. 그는 막부에게 물어보러 보내야 하고, 막부는 쇼군에게 보고하고, 쇼군은 미카도에게 보고해야 한다. 하늘의 직접적인 친척이며, 달의 형제, 아들, 아니면 조카인 미카도는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열두 명의 아내와 몇백 명의 시녀들과 함께 앉아서 시를 짓고, 비파를 연주하고 매일 새 식기에 밥을 먹고 있다. 영주에게는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여 외국인들은 쫓아버리거나 퇴치하라고 명한다. 아니면 적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에도로 그들을 들여놓지 말아야 한다. 만약 우리가 나가사키를 들르지 않고 지나쳐서 에도로 곧장 가버렸다면, 영주는 훨씬 더 좋았을 것이다. 그는 자신의 임기를 마치고, 교대를 위해 도착한 다른 이에게 직위를 내어주고는 에도로, 자신의 집으로, 가족에게로 갈 준비를 한다. 그의 가족은 그곳에 정부가 붙잡아두고 있는데, 영주가 국경에서 다른 일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보증인의 역할을 한다. 하지만 우리가 아직 여기에 있는 동안은 그는 심지어 다른 영주가 와도 에도로 갈 수가 없다. 그래서 그는 손님들을 쫓아내려고 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떠나가지를 않는다. 영주가 크게 소리를 지르더라도 하거나, 부탁을 들어주지 않고 신선한 식료품을 보내주지 않거나, 보트를 움직이는 걸 방해라도 할라치면, 에도로 가버리겠다고 위협하지 않는다. 우리가 요청

을 했는데도 영주가 관리를 보내주지 않으면, 우리가 나가사키에 가서 직접 그 관리들을 찾겠다고 그에게 말한다. 그러면 관리들이 온다. ‘정말 진절머리 나는구만.’ 아마 영주는 이렇게 생각했을 것이다. 관리들도 마찬가지로일 것이고, 단지 역관 기치베만 아무 생각을 하지 않았다. 그에게는 일본이 잡혀 먹히든 말든 아무 상관이 없다. 그는 시종 미소를 짓고, 입에서 자신의 하얀 건반 같은 이들을 보여주었고, 영주 앞에서나 우리 앞에서나 히, 히 하고 이야기했다.

하지만 그들이 어떻게 해야 했을까? 우리를 들여놓는 건 금지되어 있고, 들여놓지 않는 것도 힘들었다. 그들은 계교를 부렸다. 우리가 나가사키의 돼지들을 다 먹어치웠기 때문에 곧 신선한 식료품이 떨어질 거라고 이야기하고는, 오리를 한 마리당 1탈러¹⁵를 받고 팔았다. 이것에 우리가 질릴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그들은 아무것도 얻어내지 못했다. 탈러를 지불하고 비싼 오리를 먹었다. 그래도 우리에게겐 싼 편이었다. 이제 어떻게 할까? 예전처럼 우리를 거만하게 대할 것인지, 아니면 시간과 상황이 요구하는대로 할 것인가? 그들은 어찌할 바를 몰라 이렇게도 저렇게도 해보았다. 일본인들은 그들이 유일한 구원을 찾고 있는 고립과 소외의 시스템이 그들에게 어떤 것도 가르쳐주지 못하고 단지 그들의 성장을 멈추고 있는 것을 보고 있다. 그 시스템은 학교 시절의 장난처럼 선생님이 나타나면 한순간에 무너져버린다. 일본인들은 도움도 없이 혼자뿐이다.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눈물에 잠겨 “잘못했어요, 우리가 애들 같았어요.”라고 말하는 것과 아이들처럼

¹⁵ 탈러(Taler), 3마르크에 해당하는 예전 독일의 은화 이름. 16~19세기에 유럽에서 국제무역 통화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어른들의 지도에 맡기는 것 말고는 말이다.

누가 이 어른이 될 수 있을까? 저기에 교활하고 가만히 있지 못하는 기업가들, 미국인들이 있다. 여기엔 작은 숫자의 러시아 사람들이 있다. 러시아의 총검은 손님으로 있을 동안 아직 평화적이고 해를 끼치지 않는다. 하지만 이미 일본의 햇빛을 받아 반짝거리고 있고, 일본 해안에서는 “전진!”의 명령이 울려 퍼진다.

만약에 우리가 아니라면 미국인들이, 미국인들이 아니라면 그들 뒤에 오는 누군가가 곧 일본의 혈관에 건강한 체액을 부어넣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다. 일본은 그 체액을 자신의 몸에서 피와 함께 파멸적으로 쏟아버리고는 노쇠하여 무기력과 애처로운 유년 상태의 암흑에 빠질 것이다.

나는 몇 번 회복에 대해 언급하였다. 지금은 이 관습이 그리 자주 쓰이지는 않는 것 같다. 우리가 온 다음에 정부가 국민들뿐만 아니라 정부 자신도 많은 것을 바꾸어야 한다는 것을 납득한 후에는 물론 회복하는 경우가 더 드물어질 것이다. 하지만 아직은 이 관습에 대해 내가 이 편지의 처음에 몇 번 인용했던 한 학자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회복자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회복하게 된다. 자신의 부모를 모시고 다 같이 절로 간다. 절 가운데는 돛자리와 웅단이 깔려 있다. 그 위에 앉아 주연을 한다. 이별에 앞서 달게 먹고 많이 마신다. 그리고 주연이 끝났을 때 죽어야만 되는 사람은 일어나서 십자로 배를 갈라 그의 내부의 모든 것이 나오도록 한다. 더 용감한 사람은 그렇게 해서 자신의 목구멍을 자르기도 한다. 회복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며, 그 방법에 따라 고통은 다섯 배에서 열 배까지 달라진다.”

만약 일본 정부가 양보하기만 한다면, 외국인들과 일본 백성들의 관

계에서 걱정거리는 특별히 크게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들은 발전에 대한 강력한 필요를 느끼고 있고, 이 필요는 많은 곳에서 강력하게 이야기되고 있다. 게다가 일본 백성들은 가난하고, 다른 나라 사람들과의 교류를 필요로 한다. 올바른 사람들, 특히 유럽인들과 교류하는 역관들 사이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 그들은 내가 이미 썼던대로 권태와 지적이고 도덕적인 삶의 부족으로 탄식하고 있다. 하층민들 또한 부러움과 놀라움으로 우리 배들과 우리들을 바라보며 포도주를 달라고 부탁하고, 보드카를 게걸스럽게 마시고, 던져준 빵 조각을 재빨리 잡아채고, 어린아이 같은 호기심으로 사소한 일들을 유심히 쳐다보고, 그들의 보트에서 어떤 천 조각을 서둘러 붙잡아서 감춘다. 얼마 전 우리에게 보트가 하나 다가왔다. 그 보트에는 두 명의 노 젓는 사람이 있었고, 뱃머리에는 잘 차려 입은 소년이 태연히 누워 있었는데, 열세 살 정도 되어 보였다. 아마도 그 소년은 배와 다른 나라 사람들을 보러 나가는 것을 간청하여 허락받은 모양이었다. 노 젓는 사람들은 늘 그렇듯이 우리가 던져주는 것이 무엇이든 재빨리 잡았다. 하지만 먹지 않고 그 소년에게 주었다. 그는 호기심에 차서 보고는 그것을 감추었다. 그에게 포도주와 보드카를 줄에 매달아서 내려주었고, 건과자와 사탕을 주었는데 모두 받았다. 상층민들도 세계로부터 소외된 것과 자신들의 생기 없고, 무익한 삶에 고통을 받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역관들 중 누군가가 잘못해서 입 밖에 내기를, 레자노프가 왔을 때는 막부의 일곱 명인이 여덟 명이 되는 신하들 중 두 명만이 유럽인들과의 교류의 필요성에 찬성했으나, 지금은 단지 두 명만이 반대한다는 것이다. 함성만 한번 지르면 일본인들은 무리지어 자신의 감옥 문을 헤치고 나올 것이다. 그들은 사교적이며 새로운 것에 매우 열중한다.

이 냉담 아래 그들의 삶과 즐거움과 활기가 얼마나 숨어져 있는지. 능력과 재능은 엄청난데, 그것이 단지 사소한 것들이나 공허한 대화 속에서만 보인다. 하지만 그것도 내용이 없고 삶의 모든 기력들이 너무 끊어넘치고 다 타고 소진되어버려 새로운 원기를 회복시키는 원칙들이 요구되는 것도 또한 보인다. 일본인들은 매우 활달하고 자연스럽다. 그들에게는 중국인들에게서 볼 수 있는 불합리성, 예를 들면 난해하고 현학적이며 낱아빠져 필요 없는 박학함 같은 것들이 적다. 중국인들은 그런 박학함 때문에 어리석어진다. 일본인들은 반대로 모든 것을 알아내고, 모든 것에 대해 물어보고 그 모든 것들을 기록한다. 에도에 갔던 거의 모든 네덜란드 여행자들이 말한 바에 따르면, 무언가 새롭고 쓸모 있는 것들을 얻기 위해 그들에게 학자들을 일부러 보냈다고 한다. 그런데 중국 학자는 자신의 생각을 생생하고 통상적인 언어로 표현하지 못한다. 그것은 금지되어 있다. 그는 책에 쓰여진 대로만 표현해야만 한다. 만일 일본인들이 옛것을 지킨다면, 그것은 단지 새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다. 비록 새것이 더 좋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어도 말이다.

하지만 아직 그들 일본인들에게 나쁜 일이 아니라 좋은 일을 해주려 한다는 것을 설명해주지 못했고, 특히 설득하지 못했다. 그들은 비록 원하기는 하지만 변화를 두려워하고, 남의 나라 사람을 믿지 못하고 마치 아이들처럼 행동한다. 그들은 지금 조준하고 대포를 측정하고 있다. 그들이 대포들에 향했을 때, 한순간에 포진지를 건설하고, 대포와 포탄을 주물하고, 심지어 발사하는 것을 배우려 하였다. 만약 모든 나라들에 문을 걸어잠그고 있었으면 무역이나 전쟁이나 모든 부분에서 러시아가 지금의 러시아가 될 수 없었고, 영국이 지금의 영국이 될 수 없었

을 것이라는 것을 그들은 이해하지 못한다. 그들이 원하지 않으면 것으로 충분하고, 그들을 건드리지도 그들에게 오지도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너무 아이들 같은 생각이 아닌가? 일본인들은 난파당해 해안에 버려진 외국인들을 포로로 가두고, 상선은 쫓아버리고, 군함은 정중히 떠나라고 요청하면서도 말이다. 그들은 모든 것이 그렇게 될 것이라고, 그들에게까지 이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그들은 자신들의 법률과 관습을 구실로 삼는다. 그것으로 구실이 충분하다고, 자신의 법률과 관습이 틀림없이 존중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말이다. 하지만 그들은 다른 나라의 법률과 관습을 알고고도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다. 완강함의 이면에는 두려움이 숨어 있다. 요청을 거부하고 싶으면서도 거절하고 한 다음에는 어떻게 될 것인지 알고 싶어 한다. 정말 싸우게 될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고통스러울 것인지? 정말로 일본인들을 용서하지 않을까? 그러지는 않을 것 같다. 그리고 아마도 모든 것을 되새겨볼 것이다. 기독교인들이 흘린 피, 사절들이 겪은 모욕, 포로들의 감옥, 무례함, 교만함, 거만함.

배에 관해서 일본인들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들은 보트 외에 아무것도 없다. 그들의 보트는 중국의 정크선처럼 돛자리로 만든 돛을 쓰고, 아마포 돛은 거의 쓰지 않는다. 게다가 개방형 선미다. 그래서 그 배들은 연해만 왕래할 뿐이다. 캠퍼가 말하기를 쇼군은 배들이 타국을 다니지 못하도록 다른 식으로 배를 건조하는 것을 금지하였다. “그들은 거기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나는 나가사키의 영주인 오사와[大澤] 분고노 카미 사마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다. 우리는 현관에서 멈추어 섰고,

의장대와 군악대는 마당에 서 있었다. 하얀 돛자리가 깔려 있는 현관 방, 혹은 첫 번째 방에서 우리는 역관들을 보았다. 역관들 맨 앞에 기치 베가 있었다. 그는 초조해서 기진맥진해 있었다. 그는 보건대 자신의 부동상태에서 깨어나서 부산을 피우고, 말하고, 소음을 일으키고, 뛰어 다니기를 오래전부터 원했던 것 같았다. 우리가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그는 벌떡 일어나서 절하기 시작했고, 이빨을 드러내며 열심히 손으로 한 줄로 이어진 몇 개의 방을 가리키면서 가라고 권했다. 그곳에서 옥양목 반장화를 신는 의식이 시작되었다. 우리는 반장화를 신으려고 잡아당겼는데, 파제예프와 함께 잡아당겨서 겨우 신었다. 나는 파제예프를 알아보지 못했다. 그는 깃이 세워진 온통 빨간색 제복을 입고 차렷 자세를 하고 얼굴은 땀 쪽을 보고 있었다. 흥내도 내지 못하겠다. 그는 내 시중을 들라는 명령을 받고 제독의 선실에 배치되었다.

우리는 방들을 따라갔다. 방 한쪽에는 유리 대신 종이를 붙인 창틀이 방바닥까지 내려와 있고, 다른 쪽은 이동이 가능한 종이로 만든 접이식 칸막이들이 있었다.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상당히 괜찮아 보였고, 아니면 금칠이나 은칠을 한 종이를 만들어졌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거대한 홀인지 아니면 몇 개의 방인지 알 수 없었다.

홀의 깊은 곳에 사람들이 몇 열로 밀집해서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다. 부유한 옷차림을 하였고 희극적인 거만함이 보였다. 눈썹도 눈도 움직이지 않았다. 소리가 들리지도 않았고, 보이지도 않았다. 숨을 쉬는지, 눈을 깜빡거리는지, 정말로 이 사람들은 살아 있는지? 그리고 그들은 또 얼마나 많은지. 여기 큰방에 또 큰 줄이 있다. 머리가 센 두 명의 흰칠한 노인이 작은 통로에 마치 도자기 인형처럼 앉아 있는데, 그 뒤에 다시 긴 열이 이어졌다. 그 열에는 무성하거나 성긴 머리채를 한

젊은이와 늙은이들이 있었다. 그들의 머리채는 쥐 꼬리와 흡사했다. 어떤 얼굴이며, 어떤 표정들인지! 한 사람도 우리를 바라보지 않았고, 탐욕스런 호기심으로 우리 뒤를 좇지 않았다. 그런데 이런 일은 그들에게 40년 동안 없었던 일이다. 그들 중 아무도 자신과 유사한 사람들 말고 다른 나라 사람들을 보지 못했었다. 그럼에도 그들 모두는 벽이나 바닥을 응시하고 있었다. 누가 더 얼굴을 명칭하게 하는지 내기를 하는 것 같았다. 모두가 얼마간은 그것에 성공하였다. 많은 사람들은 당연히 일부러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었다.

이 광경의 일반적인 모습은 독창적이었다. 나는 이상하고 환상적인 광경에 더할 나위 없이 만족스러웠다. 정적은 완벽했다. 우리 발걸음 소리만 들렸을 뿐이다. “반장화, 반장화.” 갑자기 누군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다. 보았더니 내 발에 장화가 보였다. 그런데 반장화는 어디 있지? “셋째 방 뒤에 내버려져 있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말해주었다. 나는 몰두해서 벗겨진 줄을 몰랐다. 나는 돌아갔다. 정말로 옥양목 반장화가 바닥에 있었다. 그 방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없어도, 마치 우리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똑바로 앉아 있었다. 그 사람들은 나를 쳐다보지 않았다. 동료들을 따라잡았다. 하지만 뒤쳐진 사람은 나 혼자 아니었다. 이 사람도 저 사람도 몸을 구부려 반장화를 줌고 있었다. 마침내 우리는 홀로 들어갔다. 다른 방보다 더 밝았고 더 넓었다. 홀의 오른쪽 벽 흠에 금칠을 한 큰 활이 있었다. 영주의 직위를 나타내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장식물인지 알 수 없었다. 다른 모든 방들처럼 홀도 부드러운 돗자리가 깔려 있는데, 매트리스를 걷는 것처럼 부드러웠다. 여기서도 바닥에 앉아 있는 사람들의 효과가 더욱 선명하였다. 나는 그들을 세어보았는데 30명이었다.

우리와 동시에 홀에 오사와 분고노 카미 사마가 등장했다. 키가 크고 마른 남자였다. 나이는 50세쯤 되어 보였다. 얼굴 표정은 위엄이 있고 엄격하며 아주 현명하게 보였다. 오사와는 그의 이름이고, 분고-노는 성과 같은 것으로 몇몇 유럽 국가에서처럼 높은 신분에서 영지나 봉토, 아니면 소유지에서 비롯되는 것 같다. 조사 ‘노’는 대부분 성에서 반복되는데 문법적 형태처럼 보인다. 카미는 명예 칭호로 우리의 ‘훈장수여자’와 같은 것이다. 사마는 모든 관리의 이름 뒤에 붙이는 것으로 님, 각하 같은 칭호다.

우리는 서로 허리를 굽혀 인사하였다. 절을 하면서 나는 우연히 발을 보았다. 저주받을 반장화가 없었다. 반장화는 장화 곁에 놓여 있었다. 애처로워하면서 나에게 내민 B.K.의 손에 의지해서 나는 겨우 반장화를 끼워넣었다. “좋지 않아요.” B.는 속삭이면서 나에게만 들리게 웃었다. 그의 웃음소리는 기침 같았다. 나는 대답 대신 그의 발을 가리켰다. 그의 발에도 반장화는 없었다. “좋지 않아요.” 나도 속삭였다.

그러는 사이 영주는 첫 번째 인사를 한 후 그에게 편지를 건네달라고 부탁했다. 그는 탁자 위에 놓여 있는 옷칠한 작은 상자를 가리키면서 편지를 그 상자에 넣어달라고 했다.

그때 일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졌어야 할 것 같았는데, 무슨 일을 했다고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영주는 먼저 휴식을 취한 다음 대화를 재개하자고 청하고는 사라져버렸다. 만남의 첫 부분은 약속한 것처럼 이렇게 서서 지나갔다.

우리를 인도해 데리고온 그 방에는 이미 아무도 없었다. 우리가 휴게실이라고 별명을 붙인 그 방은 우리가 지나쳐온 방이었다. 앉아 있던 사람들은 물러가버렸다. 거기에는 우리가 가져온 팔걸이 의자와 의자

네 개가 있었다. 우리는 곧 의자에 자리를 잡았다. 하지만 의자가 없는 사람들은 서 있게 되었다. 내가 휴게실에 반장화 없이 온 걸 이야기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접견이 이루어진 홀에 반장화가 벗겨져서 나는 그 걸 가지러 다시 갔다 와야만 했다.

우리를 따라 시끌벅적한 무리의 낮익은 얼굴들이 나타났다. 역관들이었다. 그들은 바닥에 돌진해서 3열로 자리 잡고 앉았다. 우리는 그들과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당신네 집에는 문틀에 우리가 아예 없습니까?” K.N.P.가 물었다. “없습니다”라고 대답한다. “당신네는 모든 집들이 일층입니까, 아니면 이층도 있습니까?” P.가 물었다. “이층도 있습니다.” 기치베가 대답했다. 그리고 료다를 쳐다보았다. “삼층도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하고 사다고라를 보았다. “오층도 있습니다.” 사다고라가 말했다. 우리는 웃기 시작했다. “지진이 자주 있습니까?” P.가 물었다. “예, 있곤 합니다.” 료다를 쳐다보면서, 사다고라가 대답했다. “얼마나 자주 있지요, 십 년에 한 번씩인가요 아니면 이십 년인가요?” “예, 십 년에도 한 번씩 있고, 이십 년 만에 한 번씩 있습니다.” 기치베와 사다고라를 보면서 료다가 이야기했다. “산들이 무너져 내려왔고 집들이 쓰러집니다.” 사다고라가 덧붙였다. 이런 어조로 대화 전체가 계속되었다.

갑자기 문 뒤에서 손님 수대로 12명의 하인이 줄줄이 들어왔다. 모두 양손으로 찻잔을 날라왔는데, 찻잔 접시는 없었다. 손님들에게 다가와서 하인들은 민첩하게 무릎을 꿇고 인사하고 바닥에 찻잔을 놓았다. 탁자가 없었기 때문이다. 방에는 어떤 가구도 없었다. 그리고 일어나서 인사를 하고 나갔다. 우리가 앉아 있는 의자에서 바닥까지 다리 뻗기가 우리가 입은 옷으로는 끔찍이도 불편했다. 차는 훌륭했고 중국

차처럼 노란색이었다. 맛이 진하고 강했으며 향기가 좋았지만, 설탕은 넣지 않았다.

다시 하인들이 왔다. 그들은 각각 옷칠한 나무받침대, 담뱃대, 담배, 점토로 만든 조그만 화로, 불붙은 석탄, 재떨이를 가지고 와서 가지고 온 그 순서대로 우리 앞에 놓았다. 이것들을 다루려니 몸을 움직이기가 더 힘들었다. 일본인들은 헐렁한 옷을 입고 바닥에 앉아 이것들을 잘 다루었다. 담뱃대에 담배를 다져넣고 뜨거운 석탄으로 담배를 피우고 재를 떨었다. 그런데 우리는 의자에 앉아서 어떻게 해야 하나? 나는 여우와 학의 손님접대를 다시금 상기하였다.

우리는 일본 담배가 어떤지 이미 알고 있었지만, 그들이 가져온 담뱃대에 담배를 피우는 것을 의무라 생각했다. 이 골무 비슷한 것을 담뱃대라 부를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다. 그 담뱃대는 코담배나 잎담배 한 줌도 넣지 못할 정도로 작았다. 아마 나는 앞에서 일본 담배는 너무 순하고, 가는 실처럼 부서진다고 말했던 것 같다. 일본 담배는 너무 잘라서 담뱃갑 속에 있는 것을 처음 보았을 때는 마치 검붉은 먼지 덩어리 비슷해 보였다.

기치베는 부산을 떨었다. 우리를 처음 응접한 홀로 뛰어갔다가 현관으로 가기도 했고, 다시 우리에게로 뛰어왔다. 그런데 그는 우리에게 하나 물어보러 왔다고 했다. 군악대를 좀 쉬라고 불러도 되겠냐는 것이다. “좋습니다. 그러세요.” 그에게 대답해주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장교를 보내 군악대에게 포도주를 한 잔 이상 마시지 말라고 미리 경계시켜 두었다.

우리가 담배를 끄자마자 하인들이 다시 들어왔다. 그들은 매끈하게 다듬어지고, 조금 평범하긴 했지만 아름다운 나무상자를 각각 가지고

왔다. 우리들 앞에 나무상자를 놓았다. 연장자에게는 다리가 있는 상자를,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다리가 없는 상자를 놓았다. 열어보니 당과(糖菓)들이 있었다. 케이크 같은 종류의 무언가 큰 조각과 심장 모양으로 생긴 단단한 젤리가 있었다. 그리고 맛있는 설탕으로 만든 물고기 모양의 과자가 있는데, 무슨 기름으로 칠해져 채색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작고 말린 당과들이었다. 설탕을 씹은 과일들이었는데 그중에 당근도 있었다. 제과 기술로서 무모하리 만한 용기가 아닌가? 하지만 “설탕 칠한 신발창도 먹는다”라는 우리 속담을 미루어보면 당근도 나쁘진 않다. 그렇다. 틀어박혀만 있어서는 많은 것들을 생각해내지 못한다.

마침내 기치베가 뛰어 들어와서, 그가 몇 번을 왔는지 모르겠다. 우리가 쉬었으면 영주께서 우리를 기다리신다고 말했다. 다시 말해서 그가 바르게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지켰으면 영주가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게 맞는 말일 것이다. 정말로 우리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에 지쳤다. 이것을 그들은 일한다고 말한다. 우리는 다시 우리를 응접했던 홀로 갔고 대화가 시작되었다.

먼저 우리가 홀로 가지고 온 의자에 앉았고, 그다음 영주가 바닥에서 4분의 1 아르신¹⁶ 정도 높이의 단상에 앉았다. 기치베와 료다, 두 사람은 바닥에 이마를 대고 우리 의자 옆에 엎드려 있었다. 더운 날씨였다. 굵은 땀방울이 기치베의 얼굴을 따라 줄줄 흘렀다. 그는 바닥에서 영주 쪽으로 존경의 눈길을 보내며 그의 말을 끝까지 들은 다음 고개를 들어 우리에게 통역을 하고는 다시 바닥에 이마를 대었다. 료다는 항상 엎드려 있었는데, 단지 못마땅한 듯 날카로운 시선을 영주에게도 우리

¹⁶ 러시아의 길이 단위. 1아르신은 71.12cm.

에게도 던지고는 했다. 선임자는 기치베였다. 료다는 단지 통역의 검증
을 위해서 입석한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혼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다. 주위에는 영주의 모든 관리들과 수행원들이 벽을 따라 가지런히 앉
아 있었다.

깊은 침묵이 깃들었다. 영주는 옷칠한 상자에서 서류를 꺼내어 들릴
락 말락한 목소리로 하지만 명료하게 읽기 시작했다. 그가 읽기를 끝내
자마자 앉아 있던 사람들의 열 중에서 한 노인이 느릿느릿 일어나서 영
주에게 다가갔다. 무릎을 대고 서서는 아니 무릎을 꿇는다고 말하는 것
이 더 정확하겠다. 절을 하고 서류를 받았다. 기치베에게 다가가서 다
시 무릎을 꿇고는 절은 하지 않고 그에게 서류를 건네주고는 자기 자리
에 앉았다.

이후에 갑자기 까마귀 울음소리 같은 귀청을 켜는 듯한 딱딱한 기치
베의 목소리가 울렸다. 그는 네덜란드어로 서류의 내용을 우리에게 전
달했다. 그는 감히 웃을 수가 없었고 숨을 들이마셨다. 찡그린 얼굴과
흐느껴 우는 소리가 끊이 없었다.

서류에는 막부가 우리의 편지를 수령하겠다는 승낙의 내용이 들어
있었다. 제독의 질문에 내가 대답하려 입을 여는 순간 영주는 두 번째
서류를 집어들었다. 똑같은 순서로 그가 읽었고, 또 그 노인이 받아서
는 똑같은 의식으로 기치베에게 전해주었다. 두 번째 서류에서 이야기
된 것은 “편지는 받을 것이나, 그 편지에 대한 조속한 답변이 있지는 않
을 것이다” 라는 것이다.

편지를 읽어보지도 않고 조속한 답변이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하
는 것은 논리적이지는 않아 보였다. 하지만 일본인들과 일을 하면서는
얼마간은 유럽의 논리를 포기하고, 이곳이 극동임을 기억해야만 한다.

내가 앞서 말했듯이 일본인들은 고칠 수 없는 완고한 민족이다. 하지만 만약 필요가 있다면 논리적이며 사고적이며 다른 사람의 설득을 받아들일 줄 아는 민족이기도 하다. 이런 것은 그들이 경험해서 아는 모든 일들의 경우 정당하다. 하지만 반대로 그들에게 새로운 것일 경우 일을 질질 끌고 유심히 살피고 상황을 살피며 기다리고 꺾을 부린다.

그들은 지금까지 유럽인들에게서 좋은 일보다는 나쁜 일들을 많이 보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독립정책은 논리적이다. 포르투갈 선교사들은 그들에게 많은 일본인들이 쉽사리 받아들이고 믿은 종교를 가지고 왔다. 하지만 로올라의 제지들은 일본에 자신들의 욕망들도 가지고 왔다. 오만, 권력과 금·은에 대한 사랑, 심지어 믿기 어려운 양으로 빼내간 우수한 일본 구리에 대한 사랑, 그리고 기독교적 사랑 이외의 각종 사랑. 여러분들은 이것의 결과를 잘 아실 것이다. 바르톨로뮤의 밤¹⁷과 세상으로부터의 소외다.

하지만 만약 다음의 것들을 한번 상기해보자. 우리 오래된 국가들의 유년시기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이해할 수 없었던 모든 새로운 것과 발견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의사들을 어떻게 불태워 죽였고, 물리학자들과 천문학자들을 어떻게 박해했는지 말이다. 그러면 일본인들이 외래인들로부터 벗어나려는 고집스런 희망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조심스러움과 옛 상처를 반복하지 않으려는 두려움이 일본인들에게서 우리를 멀어지게 하고, 그들의 성장을 방해하고, 그래서 그들에게 남은 것은 타고난 영리함과 교육의 이름을 가지고 모든

¹⁷ 바르톨로뮤의 대학살(massacre of St. Bartholomew)이라고도 한다. 1572년 8월 24일 파리의 신교도들에 대한 가톨릭교도들의 대살륙의 밤을 이야기한다.

것에 대해 거짓 개념을 준 몇몇 경험들뿐이라는 것은 놀랍기만 하다.

서류를 읽고 있는 동안 나는 영주와 신하들의 얼굴을 유심히 살펴보며 얼굴들을 분류해보았다. 영리한 얼굴, 생기발랄한 얼굴, 바보 같거나 지적능력의 부족으로 멍청한 얼굴, 또한 수수께끼 같거나, 속이 나타나지 않거나 능청맞은 얼굴도 몇몇 있었다. 비록 그들이 평소에 즐린 듯하고 맥없이 바라볼지라도 많은 이들의 눈에는 불이 숨겨져 있었다. 애들 같은 척하거나 아니면 매우 우둔한 것처럼 하고 있지만 그들 내부의 잠자고 있는 욕망, 깨워지지 않은 욕구들을 관찰하는 것은 흥미로웠다. 그들은 뒷사람 앞에 있을 때 될 수 있는 한 우둔한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 같아 보인다. 그래서 이 자리에 존경에서 비롯된 멍청해 보이는 얼굴들이 많은 것이다. 만약 영주가 다른 모든 이들보다 현명해 보인다면, 이것은 아마도 그가 모든 이보다 뒷사람이어서 그럴 것이다. 하지만 에도에서 그는 틀림없이 우둔해 보일 것이다.

여기 우리의 친구들이 있다. 예를 들어 바바 고로다이몬은 이곳에서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 그는 존경으로 인해 심지어 여위기까지 했다. 관리들은 감히 숨을 쉬지도 못하고 마치 전선에서처럼 똑바로 앉아 있었다. 나는 누군가와 눈으로 인사를 나누려 했지만 헛된 일이었다. 사브로도, 오이-사브로스케[大井三郎助]도 어떤 역관들도 우리를 본 척하지 않았다.

하지만 뒷사람에 대한 그들의 존경에서 나는 두려움이나 비굴은 보지 못했다. 그들의 존경은 무언가 단순했고, 진실했으며, 거의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어떤 감정으로 행해졌다. 그래서 보기가 불쾌하지 않았다. 바닥에 엎드리는 것이나 부동자세로 있는 것, 희극적인 엄숙함은 이것이 희극이 아니라면 아마도 동양식의 발레, 우리를 위해 보여준

공연이었을 것 같다. 다른 때였다면 분명 일본인들은 그렇게 바보같이 마치 밀랍인형처럼 앉아 있지 않았을 것이고 그런 멍청한 얼굴을 짓지도 않았을 것이며 바닥에 엎드리지도 않았을 것이다. 우리가 의장대와 군악대를 가는 곳마다 데리고 다니지 않았더라면, 서로 간에 좀 더 단순하고 진실하게 일이 진행되었을 것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이 되었다.

이 회합에서 나는 또 그들의 실크가운, 치마와 망토가 밝고 강렬한 색이 없는 것이 마음에 들었다. 빨간색, 노란색, 녹색 등 원색은 하나도 없었다.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모두가 혼합된 색이었고 부드럽고 완화된 색조였다. 일본인들이 마치 앵무새처럼 알록달록 그려진 그림들을 믿지 마시기 바란다. 그리고 이곳의 일반사람들은 내가 싱가포르의 어느 한 농장에서 보았던 남자, 여자와 아이들 무리와 복색이 전혀 닮지 않았다. 그곳에서 나는 말레이시아인이나 인도인들이 입는 선명한 색상의 옷들의 혼합에 놀라서 자연사 박물관에 새들을 수집해놓은 것처럼 여겨지기도 했다. 여기에서는 하층민들 대부분에게서 우선 눈에 띄는 것이 첫째로는 내가 말한 것처럼 옷을 벗고 다니는 것이다. 그다음은 옷도 한 가지 색이 대중을 이루는데, 밝은 색깔은 아니고 대부분 푸른색이다. 다른 상층민의 옷들에서는 여러 색의 혼합이 허용되는데, 그래도 그 색의 선별에는 엄격함과 취향이 있다.

면도한 머리들, 우둔해 보이는 시선 그리고 돌출된 위턱까지는 이르지도 못하고 옷만 눈으로 대강 보고는 나는 내가 어디에 있는지 잠깐 잊어버렸다. 극동이 아니라 마치 극서에 있는 느낌이었다. 옷 색깔이 마치 유럽의 여인들에게서 볼 수 있는 색이었다. 나는 노인들의 비단으로 된 치마에서 적어도 다섯 개의 밝지 않은 색깔을 보았고, 나머지 사람들을 보면 어떤 사람은 단색으로 된 회색이거나 암회색의 치마였고,

다른 사람들은 암청색이나 아델라이드(Adelaide)색, 회녹색(vert de gris), 밝고 선명한 녹색(vert de pomme)이었다. 한마디로 우리의 새로운 유행 색들, 환상적 색깔들(couleurs fantaisie)이 거기에 있었다.

영주는 한 가지 색의 가운과 치마를 입고 있었다. 망토는 다른 사람들의 그것과 형이 달랐다. 다른 사람들의 망토는 등과 옷소매가 단색이었고, 손이 나오는 부분에서 옷소매가 넓었다. 우리 부인들의 망토와 흡사했다. 영주의 옷소매는 옆 부분이 잘라져 있고, 그곳에서 이어서 붙인 천이 나와 있는데 흡사 작은 날개 같았다. 이 옷은 나중에 알게 된 바로는 우리의 약식 제복에 해당하는 중급 예복이었다.

무릎을 꿇고 앉는 관습은 내가 어디선가 읽은 바에 따르면 동양 민족들은 발을 보이는 것, 특히 윗사람 앞에서 보이는 것을 점잖지 못한 것으로 여기는 것 때문에 생겨나지 않았나 싶다. 잘 모르겠다. 적어도 그들은 우리 의자에 앉아서는 격식을 차리지 않았고 필요한 것보다 더 위의 맨다리를 드러내도 조금도 난처해하지 않았다. 그들이 우리를 윗사람으로 여기지 않는다 하더라도, 만약 그런 관습이 있다면 습관에 따라 맨다리를 드러내는 것을 삼갔을 것이다. 동양이 우리와 앉는 방식에서 차이가 나게 된 것은 가장 단순하고 자연스러운 이유로 인해 발행하지 않았나 싶다. 유럽은 덤지가 많다. 우리는 빛을 찾으려 하고, 집을 지을 때 큰 창문을 내고 빛에 더 가까이 하기 위해 높은 곳에 앉는다. 그래서 우리는 의자와 탁자가 필요하다. 아시아에서는 반대로 태양으로부터 숨으려 한다. 이것 때문에 창문이 거의 없다.

그런데 같은 자리에서 앉기도 하고, 식사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고, 일도 해야만 한다면 모든 사람의 발이 깨끗해야만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동양에서는 방에 들어갈 때 신발과 샌들을 벗어야만 한다. 그들

의 이마가 땅에 닿을 정도로 하는 절은 무릎을 꿇고 앉는 관습에서 유래되었다. 뒷사람이나 손님 앞에서 있는 것은 그들의 관습에서는 무례한 것이다. 일본인들은 손님을 맞이해서 바닥에 앉는다. 그런데 바닥에 앉아서 땅에 닿을 정도로 절을 하는 것 말고 어떤 다른 방법으로 정중하게 절을 할 수 있겠는가?

영주는 우리를 약간 준엄하게 쳐다보면서 얼굴에 차가운 엄숙함과 엄격함을 띠고 위엄 있게 말하였다. 하지만 우리들을, 그에게는 새로운 우리 얼굴들, 행동 방식, 머리모양과 금실과 은실로 지은 제복, 그리고 우리들 상호간의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태도를 흥미를 가지고 보았다. 우리는 영주가 어떻게 자신의 진정한 일본식 위엄을 유지하려고 애쓰는지를 보면서 저절로 나오는 미소를 눈에 띄지 않게 했다.

하지만 이것은 오래 지속되지 않았다. 갑자기 영주가 왜 에도로부터 답을 금방 받을 수 없는지를 설명하기 시작하면서 그 이유들 중에 거리를 들자, 제독은 그에게 가장 단순하고 자연스러운 질문을 하였다. “만약 우리가 에도로 우리 배를 타고 바다로 간다면 일을 상당히 빨라지게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바람이 좋으면 에도까지 일주일 정도면 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주가 갑자기 변하였다. 그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일까? 신중하고 냉정하며 엄숙한 어조와 위엄 있는 표정은 어디로 사라진 것인가? 일본 각하께서는 당황해하셨다. 그는 갑자기 자신의 위엄을 내려놓더니 다르게 앉고 다르게 사람을 보기 시작했다. 그다음 머리를 왼쪽으로 조금 기울이고 부드러운 미소를 띠고 부드럽고 간드러진 목소리로 조용하고 오래 이야기하였다. “히, 히, 히.” 단지 기치베의 대답만 들렸다. 그는 바닥이 위로 뒤집어진 보트처럼 어떤 무더기 같은 모양을 하고는 바닥에 엎드려서는 그가 발음하는

“히” 소리에 온몸을 발작적으로 바르르 떨었다. 영주는 말하기를 “나가 사키 말고 일본의 다른 두 개의 항구에서 외국의 배를 보는 것은 일본인의 눈에 고통스럽다. 우리가 직접 간다고 해도 그것으로 답을 빨리 받을 수는 없다” 등등이었다.

‘사무적인’ 이야기가 끝난 후에 상호 간에 정중한 인사가 시작되었다. 양측이 확신시킨 바로는 만나게 되어 매우 기쁘다는 것이었다. 우리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정말로 우리는 영주를 보는 것이 흥미로웠다. 더욱이 우리는 프리깃함에서 한 달을 나가보지 못하였다. 그래서 어떤 경우라도 이 만남이 기분전환이 되었다.

좋지 못할 때 손님은 타타르인보다 나쁘다는 말이 있다. 이런 의미에서 영주에게 러시아인들은 정말 타타르인들보다 나빴다. 우리가 도착했을 때 오사와는 떠나기까지 다해서 두 달을 남겨놓고 있었다. 이 사건, 즉 우리의 도착은 일본에는 너무나 중요해서 일본 정부는 나가사키에 두 명의 영주가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정말로 오사와 분고노가 우리의 방문을 원망할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닌가?

정중한 인사를 교환하고 나서 영주는 일어나서는 나가려고 하였다. 하지만 제독은 아직 몇 개의 질문을 더 건의하였다. 영주는 에도에서의 허락 없이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모르는 각종 질문들을 경계하면서, 그것들을 다음 시간으로 미루기를 청하였다. 그는 허리 굽혀 인사하고는 사라졌다. 우리는 뒤돌아 갔다. 우리들 뒤로는 관리와 역관들 무리가 따랐다. 그 무리에 바바 고로다이몬도 있었다. “안녕하시오, 바바.” 내가 이야기했다. 어떤 언어로 이야기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는 반가이 고개를 끄덕였다. 거기서 우리는 그를 거의 마지막으로 보았다. 그날 그는 우리 편지를 가지고 에도로 보내졌다. 그는 행복했다. 그도

또한 1년간의 근무를 마치고 영주와 함께 가족들에게로 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부인의 품으로, 아마 부인들의 품으로일지도 모른다. 일본은 다처제가 금지되지 않았다.

휴게실을 지나자 역관들이 우리를 멈추어 세웠다. 그들은 우리의 길을 막아서서는 식사하기를 간청했다. 방에는 음식이 차려진 크고 아름다운 식탁이 있었다. 식탁에는 접시들, 각종 형태의 병들, 마테이라 포도주, 보르도 포도주, 없는 것 없이 놓여 있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유럽식이었다. 아마도 식탁이나 식기 그리고 포도주, 음식들도 네덜란드인들에게서 가져온 듯싶었다. 제독은 자신의 필수적인 조건을 반복하라고 명령했다. 즉 영주가 아침식사에 참가하는 것 말이다. 기치베는 절을 하면서 양손을 으쓱해보였고, 발작적인 웃음에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 그리고 우리에게 열심히 권하면서 식탁 쪽으로 움직였다. 나머지 사람들도 그의 곁에 달라붙어서 미소를 지으면서 무릎을 꿇으며 인사하였다. 모든 게 헛된 일이었다. 우리는 아침 식탁을 결눈질하였지만, 역관들의 말을 듣지 않고 확고히 지나쳐갔다. 우리가 현관을 나오자마자 음악이 연주되기 시작했고 의장대는 전권 대사에게 경례를 하였다. 그리고 우리는 이전의 순서대로 선착장으로 움직였다.

선착장에서 갑자기 나는 파제예프의 손에서 그리고 다른 우리 하인들에게서 상자들을 보았다. 우리 앞에 놓아두었던 당과가 들었던 그 상자다. “내가 들고 있는 게 뭐야?” 내가 물었다. “무슨 광인덱쇼.” “어디서 가지고 왔지?” “중국인들이 준게 아니구요, 일본인들이 주었습쇼.” “왜 주었는데?” “모르겠습니다.” “알지도 못하는데 왜 받은 거지?” “왜 안 받으십니까?” 그가 이야기했다. “자 여기 가지세요. 집으로, 나으리들께 가지고 가세요라고 했습쇼.” “넌 그걸 알아들었고?” “알아들었습

죠, 각하. 알아듣지 못할 게 뭐가 있어요?” 그가 말했다. “곽을 주면 그건 나오리게 가져다주라는 거죠.”

이 상자는 지금 내 서랍장 위에 놓여 있다. 손만 대면 뭘 부숴버리는 파제예프의 오른손이 한번 그 상자를 건드리긴 했지만, 이 상자는 아마도 러시아까지 갈 것이다. 그 상자 속에는 지금은 일본 담배가 들어 있다.

“여러분들한테 뭘 줬어요?” 우리는 선착장에서 약사들에게 물었다.

“물 한잔씩이요.” 침울하게 몇몇 목소리가 대답했다.

“정-말-로?” 누군가 물었다.

“그대로입니다. 나오리.”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고?”

“마셨죠.”

“왜 그랬어?”

“우리 생각에는 그게 물이 아닐 거라고…….”

“그래, 물은 좋았고?” 내가 물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바닷물이 차라리 낫죠.” 한 사람이 대답했다.

“그게 건강에는 좋을 겁니다.” 내가 이야기했다.

술 취하지 않은 예술가들은 나를 향해 우울한 시선을 던졌다. 수병들은 약사들에게 일본식 대접이 어땠는지 물어보느라 오랫동안 그들을 붙잡고 길을 내주지 않았다.

우리가 돌아가려고 움직이기 시작하자 일본 보트들이 다시금 우리 뒤를 쫓기 시작했다. 고향을 지르고 앞을 다투어 우리를 따라잡으려 했지만 다시금 헛된 일이었다.

일기

9월 15일~11월 11일까지

9월 15, 16일. 어제는 우리가 부른 일본인들이 왔다. 두 명의 오퍼바니오스이다. 그들에게 일본 보트들이 너무 우리 가까이에 정박해 있어서 한다고 비난했다. 그들에게 말하기를 그 보트들을 강제로 멀리 견인해버릴 것이며, 보트들이 만들어놓은 라인 밖으로 다닐 것이라고 하였다. 우리 수송선에 보트들이 사방에서 들러붙었다. 어디에 갔다 왔는지, 얼마나 오래 있었는지 등등의 질문들을 자세히 물어보았다. 이것으로 부족했나보다. 역관들이 다시 우리에게로 와서 식사문제 때문에 P-트를 불러냈다. 정말로 그들에게 식사문제를 표명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온 것이다. 그는 회를 내었고 역관들이 먼저 이 문제에 대해 물어보지 않았고 그들이 우리의 호의를 악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늘은 일본인들이 영주의 대답을 가지고 왔다. 만약 우리가 원한다면 내부 정박장에 정박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해안에 너무 가깝게 가지는 말 것이다. 그 이유는 우리가 선착장으로 가는 일본 보트들의 이동을 방해하는 것처럼 이야기하였다. 오늘 오사와 분고노 후임으로 새로운 영주가 도착했다고 하였다. 새로운 영주는 미즈노[水野] 치구고노 카미 사마다. 우리에게 에도로부터 온 새로운 역관인 에이노스케[榮之助]도 왔다. 나는 자느라 아무도 보지 못했다. 에도에서 온 사람들은 에도에 미국인들이 왔다는 기색도 나타내지 않았다. 그들은 우리가 그것을 모르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유럽에서도 자기들 일본에서처럼 예를 들어 전단 전체가 어디로 이동했다는 걸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국가

간의 전쟁을 다른 국가가 모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제독은 수송선을 다시 상하이로 보내고 싶어 했다. 유럽이 전쟁인지 평화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말이다.

따듯했고 좋았다. 할아범은 두 번이나 내 선실을 능청맞게 들여다보았다. “당신 선실은 다시 따듯하군요.” 그는 아침에 말했다. “그렇지 않으면 조금 추웠구요.” 하지만 내 선실은 답답할 정도로 무더웠다. “훌륭해요. 따듯해요.” 그가 내방에 들어오면서 아래턱에서 땀을 닦아내며 평소처럼 말했다. 실제로 그들에서도 레오뮴르 온도계¹⁸로 21도였다.

17일. 낮과 저녁, 밤 내내 페테르부르크로 보내는 서류를 작성했다. 방문객들에게 신경을 쓸 시간이 없었다. 그런데 그들은 우리에게 내부 정박장에 정박하라는 권유를 다시 하러 왔다. 우리는 그들이 지정해준 곳보다 더 멀리에 정박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들은 영주에게 미리 알려 주러 갔고 내일 대답을 가지고 오기를 원했다. 해안에 대해서는 아직 한마디도 없었다. 우리가 떠나지나 않을까 기다리는 것이다. 아마도 에도에서 러시아에서 온 편지를 읽고 무슨 일인지를 파악할 때 까지, 그리고 해안에 상륙할 필요가 없기를 바라면서 영주에게 장소를 제공하지 말라고 명령한 것 같다.

18, 19, 20일. 고케닌과 역관들이 왔다. 한 고케닌은 새로운 사람으로 멍청한 얼굴을 하고 있었는데 에도에서 다른 영주와 함께 온 사람이었다. 나는 새로운 역관 에이노스케와 인사하였다. 그는 영어로 말은 몇 마디 못하였는데 알아듣기는 거의 알아들었다. 그는 네덜란드인들

¹⁸ 레오뮴르 온도계(Reaumur thermometer). 프랑스의 물리학자 르네 레오뮴르가 고안한 온도계다. 열씨온도계(列氏溫度計)라고도 한다.

에게서 배웠는데, 네덜란드인들 중에 영어를 아는 사람은 몇 안 된다. 에이노스케는 프랑스어도 조금 배웠다. 그가 말하기를 그에게는 많은 책이 있는데 대부분 네덜란드어로 된 책이지만 프랑스어 책도 있다고 하였다. P-t의 말에 따르면 그는 네덜란드어를 잘 안다고 하였다. 그들은 우리가 원하는 곳에 정박하라는 초청장을 가지고 왔다. 심지어는 프리깃함이 두 번째 정박장에서 나가사키에 더 근접한 정박장으로 가는 통로로 이동하라고 매우 열심히 권하고 고집했다. 제독은 반대로 우리 배들이 길게 열 지어 자리 잡기를 원했다. 코르벳함은 내부 정박장의 입구 근처에 정박하고, 스쿠너와 수송선은 그 통로에 자리 잡고, 프리깃함은 두 번째 정박장에 그대로 남아서 자신의 뒤를 지키길 원했다. 그렇지 않고 프리깃함이 통로로 들어가게 되면 일본인들은 프리깃함의 뒤쪽에 자신들의 보트들로 라인을 만들어 두 번째 정박장을 막아버릴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면 두 번째 정박장에서 단정을 타고 다니는 것은 불가능해진다. 그들은 나중에 결국 이것을 이루어냈다. 하지만 당시 우리는 이것을 알았고 동의하지 않았다. 그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간청하고 설복을 시키려고 하였는지. 그들은 단지 우리가 더 편히 지내기를 위해 애썼다고 주장하였다. “여러분들은 우리 손님입니다.” 에이노스케가 이야기했다. “생각을 해보세요. 정원에 비가 오고 있습니다. 손님 중 윗분(프리깃함을 시사하면서)에게 우산을 권하는데, 그런데 그분은 거절을 하시고 ……” “아랫분들(작은 배들)에게 양보를 하려고 그러는 거죠.” P-t가 덧붙였다.

일본 보트들은 우리 배들이 멀리 나가는 것을 방해하기 시작했다. 심지어는 우리 배들에게 돌아오라고 손을 흔들기까지 했다. 즉시 붉은 깃발을 올려서 고케닌들을 불렀다. 그들에게 만일 보트들이 가까이 접

근하면 강제로 멀리 치워버릴 것이라고 하고 그런 일이 안 생겼으면 한다고 선언했다. 전반적으로 고케닌들을 무뚝뚝하게 맞이했고, 그들이 제독을 보기를 원했지만 아예 접견을 해주지 않았다. 제독은 그들에게 이렇게 선언하라고 명령했다. “당신들의 관습대로 따르면서 많은 사정을 봐주었다. 해안에 가지 않았고, 에도로 바로 갈 수 있었음에도 에도가 아니라 나가사키로 왔다. 그런데 당신들이 이런 것을 전혀 인정해주지 않으니, 우리는 우리 배로 돌아다닐 것이다.”

19일에 새 장소로 배를 견인해서 이동했다. 배 두 척을 견인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를 대비해 180척의 보트가 왔다. 그들은 프리깃함에 바짝 붙어 있었다. 노 젓는 사람들은 보통 때와 마찬가지로 벌거벗고 있었다. 일부는 단순하고 조잡한 푸른 반가운을 입었다. 조그만 여자아이들이 많았는데(그들은 모두 단정하게 옷을 입고 있었다), 어른 여자는 한 명도 없었다. 우리는 창문으로 그들에게 빵과 돈을 던졌고, 럼주 한 잔씩을 주었다. 그들은 모두 욕심 사납게 던져주는 것을 잡았다. 항구의 대포에 많은 사람들이 기어 올라갔다. 고향소리, 왁자지껄 떠드는 소리!

코르벳함이 견인되어 갔고, 그다음 수송선을 견인했다. 그리고 새 장소에 우리도 갔다. 하지만 일본인들의 도움 없이 우리 돛으로 갔다. 지금 우리 배는 해안에 더 가까이 정박해 있다. 나는 온종일 망원경으로 집과 나무들을 보았다. 모두가 조그만 농가이거나 포진지들이었는데, 대포들은 허물어진 포가에 얽혀 있었다. 나는 농가의 내부를 보았다. 농가들은 창문이 없고, 단지 들어가는 입구만 있다. 벌거벗고 있는 남자들과 또한 허리 위쪽을 벗고 있는 여자들을 보았다. 그 여자들은 단순한 푸른색 치마를 입고 있는데 그게 다였다. 문턱에서는 어디서나 마찬가지로 아이들이 뛰어다니고 놀고 있었다. 개 짖는 소리가 아주 드

물게 들렸다.

21일. 오늘은 더웠다. 그러나 저녁 때 거센 바람이 일기 시작했다. 두 번째 닻을 던졌다. 일본인들은 보이지 않았다. 날씨가 쌀쌀해졌지만 그게 이유는 아니다. 게다가 마지막 만날 때 차갑게 헤어졌다.

저녁에 매우 아름다운 광경이 펼쳐졌다. 지는 해가 갑자기 가까운 두 개의 산 뒤로 보이는 먼 언덕에 부딪혔다. 그 두 개의 산기슭에 나가사키가 있다. 어렴풋한 녹음이 순간 선명하게 빛났다. 빛은 녹음을 떠나서 산을 밝게 비추고 나서 그다음 도시로 떨어졌다. 그리고 산은 이미 어두워졌다. 빛은 분지들을 각각 들여다보고 나서 가파른 비탈들을 어루만졌다. 그것들도 어두워지고 다음에 나가사키 왼쪽에 있는 세 개의 조그만 언덕에 한꺼번에 빛을 끼얹었다. 그리고 마침내 해안 전체를 따라 금색의 빛을 퍼부었다.

바닷가의 작은 만들, 농가들, 포진지들, 마치 거대한 꽃다발처럼 절벽의 끝을 따라 무성하게 자란 관목들이 갑자기 밝게 빛났다. 모든 것이 그림이었고 시였다. 포진지와 일본인을 제외하고 모든 것이 말이다. 어떤 빛도 이것들과는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을 것이다.

14일. 아무 일도 없었다. 심지어 아무도 없었다. 아마 일본인들은 감시선들에도 불구하고 정박장을 따라다니려 하는 우리의 완강함에 화가 났는지 모른다. 아니면 냉랭하게 그들을 맞이한 것에 화가 났을 수도 있다.

9월 25일은 '팔라다'호에 깃발을 올리고 크론슈타트 정박장을 떠나 온 지 즉, 항해가 시작된 지 만 일년이 되는 날이다. 우리에게겐 축제날이다. 기도와 만찬이 있었다. 일본인들을 초청하였다. 최고참 바니오스, 새로운 영주와 에도에서 방금 도착한 하기와라[萩原]-마타사가 왔다.

일본인들을 다시 한번 기분 좋게 해주었다. 제독의 선실로 불러서는 과실주와 차를 대접하고 해안의 장소에 대해 물어보았다. 그들은 하루나 이틀 지나서 에도에서 답을 받기를 희망한다고 이야기했다. 그들에게 말해주기를 만약 그들이 통로로 가는 입구를 막고 있는 보트 사슬을 풀어주기만 한다면 우리는 프리깃함도 통로로 옮기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들은 처음에 평소처럼 자신들의 법을 들먹이다가, 그다음에는 감시선에 고용한 사람들은 이것으로 생계를 유지한다고 말하였다. P-1는 제독의 명령으로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그들의 법도 영원한 것이 아니고, 불과 200년 정도 되었는데, 즉 외국인에 대해 이동을 제한하는 법은 상황을 고려해서 폐기할 때가 되었다. 에이노스케는 매우 영리하였고 근거를 가지고 대답하였다. -“당신은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왜 우리에게 그런 법이 있는지(그때 그는 손으로 보여주었다. 그런 법이 어떤 법인지, 외국인의 이동을 제한하는 법을 말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말로는 하지 못하였다). 그 법이 바뀌어야만 한다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유럽의 배들은”, 그가 덧붙였다. “꾸준하게, 또 많이 우리를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나가사키는 불과 10년입니다. 그래서 바꾸어야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일본인들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한다. 하지만 일본인들이 찾아온 손님들의 손과 발을 묶어놓는 걸 겁내지 않은 것이 언제부터였는가? 그들에게 서한을 보냈다고 유럽의 정부를 무례하다고 하는 것은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바다로 나온 지 일주년을 맞아 여전히 흥겨웠다. 음악이 연주되었고 가수들은 노래를 불렀다. 수병들도 지휘부에서 여분의 술을 받아 잔치를 벌였다. 재미있는 장면들이 있었다. 장교휴게실로 서기 한

명이 고참 장교를 찾아와서 악사 마카로프가 그의 등을 부숩었다고 호소했다. “아픈가?” 그에게 물었다. “예, 그렇습니다.” 하고 그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 미소는 얼근하게 취한 사람의 미소로 거기에 노여움과 기쁨이 모두 들어 있는 그런 미소였다. “글을 전혀 쓸 수가 없습니다.” 그가 덧붙였다. 물기어린 눈을 하고 바로 그 미소를 지으며, 마치 글을 쓰듯 손으로 허공에 쓰려고 애를 썼다. “마카로프는 취한 건가?” “예, 그렇습니다.” 마카로프를 불러왔다. 그는 서기보다 덜 취했고, 엄숙하고 우울한 표정을 유지하고 있었다. “넌 왜 애를 구타한 건가?” 질문이었다. “나는 구타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놈 가슴을 때렸을 뿐입니다.” 그가 말했다. “맞습니다. 가슴입니다.” 서기가 확인조로 말했다. “왜 가슴을 때린 거야?” “주먹으로 얼굴을 건드려서요.” 마카로프가 대답했다. “네가 건드렸어?” “예, 그렇습니다. 건드렸습니다.” 서기가 대답했다. 모두가 껄껄 웃었다. 두 사람을 내보내고 화해할 것을 명령했다.

저녁에는 다른 코미디가 있었다. 취침 신호를 하기 시작했다. 나팔을 부는 수병이 갑자기 전혀 다른 신호를 한 것이다. 당직장교가 엄하게 그를 중지시켰다. 모든 일들이 끝났을 때 당직장교는 그에게로 다가갔다. 수병은 본래 그다지 기민하지 못한 친구였고, 그것이 얼굴에 나타나 있다. “넌 무슨 신호를 한 거야?” 장교가 물었다. 침묵. “넌 무슨 신호를 한 거냐고?” “실수했습니다.” 그가 대답했다. “잊어버렸습니다.” “밥 먹는 것도 넌 잊어버리냐?” “전혀 아닙니다.” “하루에 몇 번이지?” “두 번입니다.” “언제?” “점심 먹을 때하고 저녁 먹을 때죠.” “아침 먹을 때는?” “예 그리고 아침 먹을 때죠.” “그러면 몇 번이 돼야 하지?” “두 번입니다.” “어째서 두 번이야. 점심은?” “예, 그때 먹습니다.” “저

냇은?” “저녁입니다.” “그리고 아침은?” “예, 먹습니다.” “그럼 몇 번이야?” “두 번 ……” “아침 먹을 때는?” “그건 먹은 게 아닙니다. 그건 죽이니깐요.”

27일. 한 명의 일본인도 오지 않았다. 아침은 맑고 신선했다. 바람이 조금 있었다. 온도는 영상 15도 아니면 16도를 넘지 않았다. 우리 승무원들이 단정을 타고 돌아다녔고, 일본인들이 마음에 들지 않게 멀리까지 돌아서 들어갔다. 일본인들의 작은 보트들은 큰 단정들에 뒤쳐 떨어졌다. 왜 우리 단정 뒤를 따라가는지 알 수가 없다.

서늘했다. 단정들은 맞바람을 타고 길게 그리고 짧게 지그재그로 나아가기도 하고, 갑자기 방향을 바꾸기도 하고, 돛을 번갈아 좌우로 돌리면서 요리조리 가기도 하고, 한 배가 다른 배의 바로 앞을 지나가기도 했다. 즉 서로 교차해서 가기도 했다. 일본인들은 멈추어 서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랐다. 나는 뒷갑판에 서 있었다. 한 일본 보트가 옆을 지나면서 우리 단정들을 가리켰다. 나는 단정들이 멀리 돌아다닐 것이다 라고 몸짓으로 대답해주었다.

우리 배와 코르벳함 장교들이 고골의 〈결혼〉과 〈민사소송〉을 공연했다. 무대는 코르벳함의 중부갑판이었다. 나가사키 정박장에서 〈민사소송〉 공연이라니. 나는 그것을 준비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 연습이 진행되었고, B.K.가 모든 것을 지휘했다. 나는 보러가고 싶지 않았다. 내 생각에 보고 있기가 안타까울 것 같았다. 하지만 괜찮았다. 나쁘지 않았다. M.Z.는 어디 내놓아도 손색이 없었고, 그는 타고난 유머가 있다. 게다가 그는 우리의 훌륭한 희극배우들은 많이 보았다. L.은 매파 역할로 웃겼다. 모든 게 원작에 따라, 또 배우들의 서투름으로 매우 재미있었다. 코르벳함에서 돌아오면서 나는 그림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장면

들 중의 하나를 보았다. 믿지 못하실 것이다. 잔잔한 물 위의 달, 조용히 흔들거리는 프리깃함의 실루엣, 주위에는 잠들어 있는 어두운 언덕 그리고 보트들과 산에 보이는 불빛들. 나는 아이바조프스키¹⁹의 그림들을 떠올렸다.

28일 그리고 29일. 일본인들이 영주에게서 답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하기를, 영주는 통로의 보트들을 완전히 철수시킬 수 없다고 하였다. 이것이 어제였다. 그리고 오늘, 즉 29일에는 영주가 통로 중간을 완전히 폐쇄하고 해안가의 통로 양 옆을 개방해서 보트 하나씩 다니게 하기를 원한다고 알렸다. 제독은 이렇게 말하기를 명령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그는 자신의 단정들에게 코르벳함의 중앙 통로를 감히 막고 있는 그 보트들을 강제로 끌어내라고 명령할 것이다. 역관들은 그들과 농담을 하는 것이 아님을 보고는 바로 자리를 떠났다. 차는 마시지 않았다.

어제는 송어 비슷하게 생긴 신선하고 훌륭한 생선들을 가지고 왔다. 엄청나게 커서 한 마리로 삼십 명이 먹을 것 같았다. 날씨는 여름날 같았고 한낮에는 그늘에서도 17도였다. 하지만 밤에는 추웠다.

내 일기는 마치 죄수의 일지와 비슷하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겠는가. 여기는 거의 감옥과 같고 또 그렇다. 자연은 아름답고, 사람들은 영리하고 기민하고 강하지만, 아직 정상적이고 합리적으로 살 줄을 모른다. 우리가 여기서 배에서만 갇혀 사니 지루해서 죽지 않는 것

¹⁹ 이반 아이바조프스키(Ivan Aivazovsky, 1817~1900). 우크라이나의 가난한 아르메니아계 가정에서 태어나, 상트페테르부르크 미술아카데미에서 수학했다. 바다를 주제로 한 많은 그림을 그렸다.

이 이상해 보일지도 모르겠다. 지루할 틈이 없다. 모든 사람에게 일이 있다. 제독은 아무 일이 없는 사람을 보지를 못한다. 누군가 일이 없는 것을 보기도 하면 곧바로 무언기를 권한다. 서류를 쓰라고 하고, 누군가에게 어떤 책을 읽어보라고 충고하기도 한다. 심지어 본인이 직접 도서관에서 책을 고르는 수고를 담당하기도 한다. 그리고 그 책을 통독하라고 하거나 일부를 번역하라고 지시한다.

30일. 특별히 언급할 일이 없다. 바니오스들을 불렀으나 나타나지 않았다. 아마도 우리에게 화가 난 것 같다. 그들이 우리의 왕래를 막으려고 하자 그들의 보트들을 끌어내버릴 거라고 위협해서일 수도 있고, 그들과 좀 더 단호하게 행동하기 시작해서일 수도 있다. 그들이 식료품을 가지고 왔다. 크고 둥근 가재였는데 모양이 거미와 비슷하게 보였다. 하지만 이 가재는 내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 가재들은 집게발이 없었다. 목도 마찬가지로 없었는데, 즉 가재한테서 좋은 부분들만 없는 것이다. 발은 괜찮았는데 딱딱했다. 게 몸통 중간에는 쓸데없는 자질구레한 것들이 많았다. 그래도 썩 밑바닥을 채울 만큼의 흰 살은 있었다.

저녁에는 성모수호축일 전야 철야예배가 있었다. 예배를 마치고 나는 뒷갑판을 따라 걸어다니다 뜻하지 않게 M.B.와 신호수 표도로프의 대화를 듣게 되었다. 그는 실수로 취침 신호 대신에 기도 신호를 한 바로 그 수병이다. 이 표도로프는 극단적 단순함으로 남달랐다. “망원경으로 달을 봐.” 그에게 뒷갑판을 걸어다니던 B.가 이야기했다. “거기서 서너 사람이 보이면 바로 나한테 이야기해.” “알겠습니다.” 그는 쳐다보기 시작했다. 그리고 오랫동안 그렇게 쳐다보았다. “왜 아무 말이 없어?” “저기에 두 사람밖에 없는데요, 나으리.” “그 사람들이 뭘 하는데?” “아무것도 안하는데요.” “그래 계속 보고 있어.” “어떤 사람들이

야?” B.가 물었다. 그 수병은 말이 없었다. “말해봐!” “카인과 아벨입니다.” 그가 대답했다. “또 저기 저 두 별을 잘 보고, 별 이름이 어떻게 되는지 기억해둬. 이건 금성이고 저건 목성이야.”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 두 별에 무슨 일이 생기거든 보고해.”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심각하게 그쪽을 쳐다보기 시작했다. 조금 있다 나는 그에게 우리가 영국에서 나온 뒤에 어떤 곳들을 거쳐 왔는지 물어보았다. 그는 침묵했다. “말해보라니까!” “희망(희망봉)에 있었어요.” “그 전에는?” “잊어버렸습니다.” “기억해봐.” 그는 말이 없었다. “어디에 갔었지?” 또 침묵했다. “여러 포도주 이름들을 기억해보라구. 그럼 이해가 될 거야.” 침묵. “어떤 포도주가 있지?” “거품 포도주요.” “음, 프랑스 포도주는 어떤 게 있지?” “라인 포도주요.” “그럼 마테이라 포도주는?” “맞습니다. 마테이라가 있었죠. 우리가 거기 갔었죠.” 그가 덧붙였다. “별들은 어떻게 됐어?” 갑자기 B.가 물었다. 표도로프는 걱정스럽게 주위를 살폈다. 별 하나가 없었다. 이미 수평선 너머 숨어버린 것이다. “별들이 어디 있어?” “하나만 남았는덱쇼.” “다른 별은 어디에 있나?” “알 수가 없습니다.” “저 별 이름이 뭐지?” 침묵. “뭐냐니까?” “마테이라입니다.” 생각 끝에 F.가 대답했다. “그럼 다른 별은 이름이 뭐야?” “피테르²⁰입니다.” 그가 이야기했다. 이것이 다른 오락거리를 가지지 못한 우리에게는 즐거움이었다.

10월 1일. 우리에게 축일이고, 자연도 축제날이다. 우리의 맑고 서늘한 가을날들을 기억해보라. 숲이나 정원의 긴 가로수 길 어디선가에

²⁰ 목성(Jupiter)의 러시아어 발음은 ‘유피테르’다. 표도로프는 유피테르를 다 기억하지 못해 ‘피테르’라고 대답한 것이다.

서 시든 나뭇잎이 가득 덮여 있는 길을 걸어갈 때, 또 그늘로 가면 서늘하다가 햇볕에 나오기만 하면 마치 여름처럼 밝게 비추고 따뜻해지고 심지어는 더워지기까지 하고, 하지만 창문을 열어놓기만 해도 북쪽에서 세차고 유쾌한 바람이 쏘살같이 들어와 창문을 닫아야만 한다. 하늘은 푸르고 모든 것은 빛나고 아름답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위도가 32도이긴 하지만 날씨는 우리 날씨 같다. 단지 일몰 전의 저녁 하늘은 장엄한 것이 우리의 일몰과 달랐다. 오늘도 그러했다. 희미한 녹색의 기이하고 환상적인 색조에는 무언가 우울한 것이 있다. 조금 지나자 녹색은 보라색으로 변하고, 높은 하늘에는 갈색과 연한 황색의 조그만 구름 떼가 지나간다. 그리고 마침내 온 수평선이 태양의 마지막 흔적인 진홍색과 금색으로 온통 뒤덮인다. 열대지방과 매우 비슷했다.

일본인들은 오지 않았던 것 같다. 아이구, 죄송하다. 왔었다. 생선과 가재를 가지고 왔었다. 바니오스들은 아직 오지 않았다. 그들은 모습을 드러내기를 겁낸다. 보트들을 쫓아버리는 걸 막지 못할 걸로 생각해서 그럴 수도 있고, 또 그들이 우리의 온화함을 보고는 등한시해서 오지 않는 것일 수도 있다. 우리가 지금 단정을 타고 나가사키로 직접 간다면 당장 나타날 것이라는 건 의심의 여지가 없고 말할 필요가 없다. 만약 그들을 놀라게 해서 영주를 불러낸다면 그는 올 것이다. 하지만 그때는 제독이 이미 채택한 우리의 행동 방식, 온화함과 정중함을 바꾸어야만 한다.

하지만 가끔씩은 그들을 절차를 밟아 겁주는 것도 필요하다. 예를 들면 오늘 저녁 8시쯤 어떤 행렬이 있었다. 큰 배 한 척을 등불을 밝힌 스무 척의 작은 보트들이 견인해서 끌고 가고 있었다. 행렬은 요란한 고함소리와 함께하고 있었다. 배들은 섬에서 도시로 가고 있었다. 우리

배의 K,N,P.와 N,N.(우리 배에 와 있던)은 두 척의 단정으로 코르벳함으로, 즉 통로 쪽으로 가고 있었다. 단정의 P.에게 장작개비가 날아들었고, N.에게는 물을 끼얹으려 하였다. 물에 맞지는 않았지만 어리석은 군중의 불손한 행동이었다. P-는 바로 방향을 바꾸어서 보트로 다가갔다. 거기엔 스무 명 정도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보트 바닥에 숨어서 모두가 온순해져 있었다.

2일 그리고 3일. 그랬었다. 공포는 작용을 아주 잘한 것 같다. 어제 10월 2일에 일본인들에게 전갈을 보냈다. 만약 바니오스들이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 장교들 중 한 명을 그들을 찾으러 도시로 보낼 것이라는 통보와 함께 보냈다. 저녁 늦게 역관이 바니오스들은 내일 12시에 올 것이라고 말해주려 왔다.

11시에 세 명이 왔다. 오이-사브로스케, 에도에서 온 다른 한 사람과 새로운 세 번째 사람. 그들은 마치 역관들이 잘 설명을 못한 것처럼 모든 것을 그들에게 덮어씌우면서, 오랫동안 오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했다. 그리고 말하기를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어제 프리깃함에서 일본인들이 보트 두 척을 강제로 멀리 떼어내 버렸다. 나는 이것을 직접 보지 못했는데, 들리는 말로는 우리 단정들이 다가가서 그들의 닻을 들어올리고 끌어낼 때 일본인들이 어떻게 손을 흔들어댔는지를 보는 게 매우 재미있었다고 한다. 바니오스들은 이것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도 없었다. 그들에게 보트에서 던진 장작개비와 다른 어리석은 행동들에 대해 말했다. 그들은 몰랐다는 핑계를 대면서 미안하다고 했다. 어제의 행렬 - 보트들이 열을 지어 간 것 - 은 히젠번의 영주가 네덜란드인들을 방문한 것으로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종교 축제는 아니었다. 해안에 대해서는 매일 대답을 기다리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오늘은 토요일이다. 평소처럼 식료품을 가지고 왔고, 다시 철야기도
를 방해했다. 각종 채소와 생선 말고 돼지는 없다면서 조그만 살아 있
는 사슴인가 다마사슴²¹ 인가를 가지고 왔다. 돼지는 더 이상 없고, 새끼
돼지들만 남았는데 번식을 시키려면 그것들이 필요하다고 했다.

바니오스들과 함께 역관 료다와 쇼자가 왔다. 나는 일본어를 귀 기
울여 들어보았는데, 매우 낭랑한 언어나는 것을 알았다. 이 언어에는
모음이 우세하였는데, 특히 어미에서 그랬다. 다른 동양 언어들에서처
럼 투박한 음이나 후두음이 전혀 없었다. 바니오스들은 러시아어가 마
치 중국어와 비슷하다고 말했다. 고마웠다. 우리는 많은 물건들, 부채
들, 옷칠한 상자와 그 밖의 여러 가지를 가지고 와달라고 주문했다. 가
지고 올지는 모르겠다.

4일, 일요일이다. 평소대로 오전 예배가 시작되었다. 예배가 끝난
다음 역관들이 와서 보트들을 멀리 끌어내달라는 우리의 청을 이행했
다고 말했다. 하지만 부탁을 하나 했는데 우리가 직접 보트들을 끌어내
지는 말라고 했다. 우리는 전날 저녁 그들에게 선언하기를 보아하건대
영주의 명령이 이행되지 않는 것 같으니 우리가 각하를 도와드리는 수
고를 하겠다고, 우리가 보트를 끌어내겠다고 하였던 것이다. 저녁은 매
우 훌륭했다. 어두워지자 우리는 도시로 이어지는 해협에서 마치 두 개
의 별 같은 것이 우리에게로 헤엄쳐오는 걸 갑자기 보았다. 하지만 그
건 일본인들의 불빛은 아니었다. 무언가 더 선명하고 생생하며, 갑자기
환히 빛나기 시작했다. 우리는 야간 망원경으로 보기 시작했다. 하지만

²¹ 등에 하얀 점들이 있는 유럽산 작은 사슴. 학명은 Dama dama다.

모든 불빛이 꺼져버렸다. 단지 두 척의 보트가 움직이고 있는 것만 보였다. 그 보트들은 선미로 다가왔다. 그리고 갑자기 아름다운 선율의 노래가 울려 퍼졌다. 세라나데였다! 이것은 코르벳함의 장교들이 가수들인 캄차달인 아이들과 러시아와 집시의 노래들 중에 세라나데를 부를 생각을 해낸 것이다. 그들은 프리깃함 주위를 달빛 속에서 한참 돌다 신호불을 붙인 것이다. 우리는 뒷갑판에 서서 말없이 노래를 들었다. 제독은 그들이 노래를 끝내자 감사를 보내고 장교들을 차 마시자고 불렀다. 조그만 가수들도 또한 차를 실컷 마시게 했다. 일본 보트 한 척이 선명한 불빛을 보고 다른 보트들에서 떨어져 다가왔으나 그렇게 가까이 다가오지 않았다. 아마도 새로운 경적소리를 들은 것 같다. 그래서 멈추어 서서는 한 자리에서 오랫동안 흔들거리고 있었다.

5일. 오늘은 비가 왔다. 하지만 거의 여름처럼 따뜻했다. 그래서 심지어 고양이 바시키도 뒷갑판에서 떠나지 않고, 외가름대 아래 앉아 있기만 했다. 우리는 휘장과 창으로 장식한 두 척의 보트가 감시선들에게 명령을 전달하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나자 보트들이 퇴각하더니 훨씬 더 먼 곳에 자리를 잡았다.

제독은 더 이상 보트들에 대해 언급하지 말라고 명령했다. 단지 일본 보트들이 우리 단정 뒤를 따라다닐 경우에만 그들을 견인해서 끌고 오라고 하였다.

6, 7, 8, 9일 그리고 10일. 사슴을 도축하여 여러가지로 요리해 먹었다. 커틀렛으로도 하고 구워서도 먹었다. 훌륭했다. 소고기보다 더 나았다. 더 부드럽고 연했다. P.A.T.는 사슴고기를 백안시켰다. 그는 가재나 토끼 등도 먹지 못했다.

디저트로 새로 보는 과일이 나왔다. 여기 과일인데 네덜란드어로는

kaki²²라고 했다. 붉은 노란색이고, 부드럽고 달콤했으며, 시원한 것이 자두와 비슷했으나 자두는 아니고, O.A.가 알려주기로는 무화과의 일종으로 포르투갈 사람들이 여기로 가져온 것 같다고 하였고, 포르투갈에서는 카코 무화과라고 부른다고 한다. O.A.는 중국에는 이런 과일이 많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금은 사슴이나 과일에 신경 쓸 틈이 없다. 새로운 것과 중요한 것들이 너무 많다.

10월 7일은 우리가 크론쉬타트를 출발한 지 정확히 1년이 되는 날이다. 이날은 간소하게 보냈다. 나는 생생히 기억한다. 1년 전 처음으로 바다로 나와 새로운 삶을 시작할 때를, 평온한 나의 방과 침대에서 배의 좁은 간이침대와 다리 아래서 흔들리는 갑판으로 옮겼을 때를, 바다가 어떻게 우리를 호의적이지 않게 맞아주었는지를, 바람이 휘파람소리를 내며 불어대고, 파도가 어떻게 쳤는지를 말이다. 그리고 눈과 비, 치통…… 그리고 친구들과의 작별도 기억한다.

나는 마침내 일본 여자들을 보았다. 남지들과 똑같은 치마에 목까지 올라오는 상의를 입었고, 머리만 면도를 하지 않았다. 좀 더 단정한 여자들은 뒷머리채를 머리핀으로 고정하였다. 그들 모두 거무스레했고, 얼굴이 아름답지는 않았다. 그들이 버릇없이 행동한다고 말했는데, 나는 모르겠다. 그걸 본 적도 없고 일본 여자들의 평판에 먹칠하고 싶지 않다. 지금 많은 일본 여자들이 프리깃함 주위에서 서성거린다. 모두 못생겼고, 검은 이빨을 하고 있다. 대다수가 똑바로 우리를 쳐다보고 그리고 웃는다. 그렇지만 그들 중 용모가 좀 낫고, 잘 차려입은 여자들은 부채로 얼굴을 가렸다.

²² 감.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중요한 것들이 아니다. 그럼 중요한 일은 어디에 있나? 10월 9일 점심식사를 마쳤는데 고케닌들이 온다고 알렸다. 이것도 중요한 일은 아니다. 우리는 익숙해져 있었다. 당직장교가 평소대로 K.N.P.에게 알리기 위해 보냈다. 고케닌들을 선장실로 안내했다. 나도 그곳에 있었다. “아, 오이-사브로스케, 기치베.” 나는 손을 내밀며 그들을 즐겁게 맞이했다. 하지만 그들은 말없이 겨우 절로 대답하면서 손을 잡았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그들은 매우 상냥하고 정중한 사람이다. 특히 사브로스케는 농담을 잘하고 잘 웃는 사람이다. 그런데 거기서는 …… 그들 모두 숙연한 표정을 하고 있고, 누구도 웃지 않았다. 대체 이진 뭐지? “사브로스케, 어디 아프시오?” 내가 물어보았다. 아무 반응이 없었다. 왜 이렇게 갑갑한 건지,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대답은 없었다. 기치베 혼자만 항상 윗니를 보이고 평소처럼 분주히 돌아다녔다. 바니오스 앞에서 뛰어다니기도 하고, 돌아오면서 카 소리를 내기도 하고, 마지못해 웃기도 하였다. 그리고 에이노스케도 거기에 있었다. 이 사람은 균형 잡힌 얼굴 윤곽에 시선이 대답했다. 그곳에 있는 사람 같지 않았다.

에이노스케와 쇼자 나라바요시는 대화 중에 느낀 것이지만, 이따금 질투를 나타낼 때가 있고 그런 시선으로 우리와 유럽의 모든 것들을 보았다. 그들은 자신의 상황을 느끼고 인식하고, 우울해하고, 말없이 온순한 저항을 하는 것 같다. 이것이 젊은 일본(Jeune Japon)이다. 사다고라는 네덜란드인들을 살피고 돌보기 위해 붙여둔 보모이고 네덜란드인들에게는 무서운 사람이다. 료다는 반대로 높고 완고한 일본인들 부류에 속한다. 그들 부류는 옛것을 옹호하는 딱딱한 껍질 속의 사람들이다. 무엇으로도 그 껍질을 부술 수는 없다. 그들은 모든 옛것들에서 아

름다움을 발견하고 변화를 원치 않으며 새로운 모든 것을 죄악으로 여긴다. 사다고라는 늙고 투박한 냉소주의자고, 료다는 반대로 아침하고 굽실거리는 간교한 자다. 기치베는 그들 사이에 정확히 중간(juste milieu)이다. 기치베는 그들보다 좀 더 참신하다. 그는 새로운 것에 대한 뿌리박힌 혐오도 없고 일본의 통치체제에 대한 믿음도 없다. 하지만 그는 아직 새로운 것을 따라잡지는 못하였다. 그리고 야시로, 기치베의 아들, 그리고 많은 소년이 더 있다. 모두가 역관이 될 사람들이다. 그들은 직무를 대대로 물려받는다. 아들은 대부분 아버지의 자리를 차지한다.

바니오스들은 제독과 이야기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나와 P.는 고심하기 시작했다.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 거지? “아마도 해안가 장소에 관해서일 거야.” 그가 이야기했다. “하지만 기쁘지 않은 소식이 틀림없는 것 같군.” 내가 덧붙여 말했다. 나는 제독에게 그들의 청을 이야기했다. 그는 자신의 선실로 오게 하라고 지시했다. 모두가 앉았다. 침묵이 깃들었다. 사브로스케는 가슴에 머리를 완전히 떨어뜨렸고, 다른 한 바니오스는 시력이 나쁘고 덩치가 육중한 노인이었는데 뚱뚱한 얼굴에 흐리멍덩한 눈으로 모든 것을 쳐다보고 가끔씩 하품을 했다. 세 번째는 체구가 작아 그들 사이에서 완전히 가려졌는데 이웃한 동료들의 표정이나 포즈를 흉내 내고 있었다. 에이노스케는 생각에 잠겨 침묵하고 있었다. 기치베 혼자만 점잔을 피우며 앉아서 그에게 말하라고 할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 우리는 무슨 일이 있을지 기다리고 있었다.

마침내 사브로스케가 깊게 한숨을 쉬고는 눈을 가늘게 뜨고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어쩌나 조용히 이야기를 하는지 마치 입술이나 혀, 목구멍이 없는 것 같았다. 그는 한숨을 쉬며 이야기했고, 한숨을 이어 내

쉬며 말을 마쳤다. 기치베는 자신이 늘 짓는 미소를 하고 명확한 시선으로 고개를 숙인 채 탄식과 슬픔 없이 간단하게 다름 아니라 쇼군이 별세했다고 이야기했다.

우리는 잠시 굳어졌다. 그다음 괜찮아졌다. “말씀해주시오.” 제독이 관리들에게 말했다. “내가 그들과 슬픔을 같이한다고 말시오.” 바니오스들은 절을 했고, 몇몇은 다시금 한숨을 내쉬었다. 사브로스케는 다시 속삭이듯 이야기를 시작했고, 기치베가 외치는 히, 히, 히 소리만 죽기 직전의 딸꾹질처럼 들렸다. 그다음 기치베는 깊이 숨을 들이쉬더니 평소대로 사이를 두고 천천히 요란한 웃음소리를 목에 꽉 채워 통역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무언가 거절을 전달하고 있다는 표시다. 이 웃음으로 그 거절을 완화시키고, 쓴 약에 사탕을 바르는 것이다. “에도에서 …… 이 애통한 일 때문에 …… 대답을 빨리 받는 것은, 호, 호, 호, 불가능합니다.” 그는 마침내 자신에게서 마지막 단어들을 짜내듯 그렇게 말을 마쳤다. 여기에 대한 대답으로 반대 이유를 서면으로 보내겠다고 하였다. “모두가 장례문제와 새로운 쇼군의 즉위로 바쁩니다.” 기치베가 통역을 계속했다. “장례와 즉위 모두 의식을 필요로 합니다.” 등등. 해안에 장소는 제공을 해줄 것인지 물어보라고 지시했다. 사브로스케는 대답을 길게 이야기했다. 기치베는 그것을 다 듣고 이야기했다. “에도에서 그 문제에 대해 ……” 그때 그의 목은 웃음으로 완전히 채워졌다. “어떤 허가도 받지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세 번이라도 받을 수가 있을 시간이었소.” 그에게 엄하게 지적했다. “왜 대답이 없는 거요?” 기치베는 질문을 통역했다. 그다음 말하기 시작했다. “에도에서 이 문제에 대해 어떤-호, 호, 호-허가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건 이미 우리가 들었소.” K.N.P.가 통역했다. “허가가 있을 것 같습니까, 그리고 그

허가가 곧 나올 것 같습니까? 우리는 크로노미터를 측정해야 합니다. 당신들은 우리의 정중함과 관심을 인정해주지 않는군요. 다른 사람들 이라면 벌써 예전에 스스로 해안에 내려갔을 것이다. 지금 우리가 보건 대 나가사키는 단순히 외국인을 속이기 위해 유인하는 함정이다. 수도에서 멀고, 협상에 싫증 나고, 손님들은 지쳐서 떠난다. 이것이 당신들의 목적이다. 하지만 전 유럽이 이것을 알게 되면 어떤 배도 이리로 오지 않을 것이고, 에도로 바로 갈 것이다. 의심하지 마시오 …….” 기치베는 다시 전달했고, 다시 자신의 말을 시작했다. “에도에서 …… 받지 못했습니다. 호, 호, 호 …… 그 어떤 ……”

누가 인내심을 잃기라도 한다면! “영주에게 물어보시오, 그는 우리에게 장소를 줄 의향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내일 답을 줬으면 하오.” 이 말로 모임이 끝났다.

그다음 그들에게 차와 과실주를 대접했다. 그들은 한잔씩 마셨고 고개를 들고 슬픈 어조를 그만두고는 즐겁게 이야기하기 시작했고, 주위의 벽과 그림들, 가구들을 명칭하게 바라보았다. 완전히 유쾌해졌다. 슬픔은 흔적도 없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이 피를 부려 꾸며낸 게 아닌가 하는 추측을 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말에 따르면 쇼군은 8월 14일에 죽었다. 그런데 우리는 10일에 도착했다. 아마도 쇼군은 작년에 죽었는데 우리가 떠나지나 않을까 하는 희망으로 그들이 이야기를 했을 수도 있다. 그들을 믿는 건 힘들었다. 그들은 자신의 백성들에게도 적어도 오랫동안 그 사건을 숨겼을 수도 있다.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할지 무엇을 해석하고 추측해야 할지 몰랐다. 제독은 영주에게 다음과 같이 편지를 쓰라고 명령했다. 우리는 에도에서 올 러시아의 편지에 대한 답을 기다리고 있다. 그들이

말한 대로 그 편지는 쇼군의 죽음에 대한 통지와 길이 엇갈렸다. 하지만 어떻게 그런 통지가 에도에서 나가사키까지 오는데 두 달이 넘게 걸릴 수가 있단 말인가? 3주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말이다. 깨닫지가 않다! 쇼군이 나중에 죽었거나, 미리 알았지만 우리에게 알릴 필요가 없어 이야기를 안 했거나, 아니면 아예 안 죽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세 번째 추측은 가능성이 없는 것이 자신의 군주를 깊이 존경하는 이민족이 외국인들을 내보내려고 그런 구실을 사용하지는 않을 것이다. 제독은 편지에 다음 내용을 첨가하라고 명령했다. “쇼군의 죽음은 우리의 첫 번째 서류들을 수령하기 전에 일어났다. 그리고 그 일이 그 서류들을 수령하는 것에도, 또한 러시아의 전권사절과 영주가 만나는 의식을 정하는 것에도 방해가 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앞으로의 일들도 방해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큰 제국의 국가적 일들의 흐름은 중단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막부의 대답을 기다리며, 우리를 이곳에 오게 한 일이 최종적으로 해결되지 않고서는 일본 해안을 절대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쇼군의 죽음에 대해 알림으로써 반드시 답을 받으려는 제독의 의도를 바꾸게 하려던 일본인들의 극단적 수단도 성공하지 못했다. 아마도 자신에게 손님으로 온 외국 배를 보는 것이 실제로 일본의 눈에는 고통스러웠을 것이다. 하지만 일본인들은 그런 심각한 반대에 부닥치면 제독이 떠날 거라고 의심의 여지 없이 기대했던 것이다. 그들은 2년쯤 지나 답을 보내주고, 물론 답은 부정적이고, 그리고 이렇게 일은 정해진 시간 없이 계속 지연된다.

하루가 지나 일본인들이 해안의 장소에 대한 영주의 답을 가지고 왔다. 기치베는 다시금 시작했다. “에도에서 …… 받지를 못했습니다.”

등등. 제독은 그들을 접견하지 않았다. P-t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제독에게 영주의 답을 전했으며, 영주께서 아무런 답도 주지 않으니 제독이 무슨 일을 벌이지 모르겠다고 이야기했다. 이것은 우리의 사랑스런 주인님들을 놀라게 했다. 그들은 한번 별 중요치 않은 일로 우리에게 왔는데, 실제로는 우리가 무언가 일을 벌이지 않나, 우리가 하려는 일을 우연히 말하지나 않나 알아보기 위해 온 것이다. 우리는 일을 벌이려고 계획했다. 스스로 크로노미터를 가지고 해안에 내려가려 했다. P-t는 이것에 대해 말을 비쳤다. 그들은 모두 영주는 이것을 지시할 수 없다고, 그렇게 지시를 하면 영주가 벌을 받는다고 대답했다. “만일 우리가 스스로 해안에 내려가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이런 일을 했다면, 그때는 벌을 받지 않는 겁니까?” 라고 그가 물었다. “그건 친구의 행동이 아니지요.” 대답이었다. “그러면 우리는 크로노미터를 검사해야만 한다고, 검사를 하지 않으면 바다로 나갈 수가 없다고 당신들께 이야기를 했는데 당신들은 장소를 제공해주지 않습니다. 이것도 친구의 행동인 거요?” “에도에서 …… 호, 호, 호 …… 받지를 못했습니다.” 기치베가 시작했다. 그들은 자신의 법과 관습을 구실로 대기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 기치베가 와서 영주에게 보내는 답을 받아갔다. 그가 떠나자마자 바니오스들이 나타났다. 오늘은 11시에 왔다. 그들은 편지를 넘겨주었으며, 하지만 에도에서 답을 받지 못했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러 왔다. 그다음에 왜 파펜버그 산 주위에 갔었냐고 물었다. “그냥 가고 싶어서요.” 그들에게 대답했다.

프리깃함에는 특별한 일이 없었다. 바니오스들은 제독이 뭘 하려는지 알아내려고 매일 다녀갔다. 오늘은 두 명의 젊은 역관과 두 명의 온더바니오스가 왔다. 그들은 보트를 타고 너무 멀리 돌아다니지 말아달

라고 우리에게 부탁했다. 왜냐하면 우리 보트 뒤를 따라다니라고 명령이 내려왔는데, 그들 보트는 우리 보트를 따라잡을 수가 없다는 것이다. “그럼 왜 따라다니십니까?” “명령이 내려왔어요.” 푸른 가운을 입은 키가 큰 노인이 이야기했다. “여러분들은 우리를 방해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라고 명령이 내려왔어요! 우리도 그 명령이 빨리 바뀌었으면 하고 있습니다.” 그가 덧붙여 말했다.

나에게는 수병 중에 몇몇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다. 그중 하나가 듀핀이다. 어깨가 넓고 키가 작고 옹골찬 수병인데 포병이다. 그는 어깨만 넓은 것이 아니었다. 그는 불꽃 듀핀이라 불렸는데, 왜냐하면 그가 불을 살피는 일을 하였기 때문이다. 어느 구석에서 “심지”라는 고함소리가 들리면 그는 불을 공급하기 위해 갑판을 따라 있는 힘껏 질주했다. 그보다 더 단단하고 건장한 체격을 가진 사람은 보기 힘들었다. 나는 자주 그와 이야기하였다. “뎃군, 듀핀.” 그에게 이야기했다. “그렇습니다. 따듯합니다. 좋습니다. 각하.” 그가 대답했다. 더워서 견딜 수가 없어 절망적인 상태인데 어떻게 따듯하다는 건지. “일 마치고 나서 찬물 너무 많이 마시지 말게.” 내가 농담 삼아 말했다. “아니면 밤에 습기 찬 데 누워 있지 말고.” “알겠습니다. 각하.” 그는 심각하게 대답했다. “털양말을 너한테 선물하지. 신어, 조심하고.” 그리고 파제예프에게 양말 한 켤레를 그에게 주도록 지시했다. 듀핀은 열대지방에 와서도 그것을 신고는 나를 만나면 감사 인사를 하였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각하. 지금 좋습니다. 따듯합니다.” 그가 이야기했다. “좀 춥군. 듀핀.” 이곳에 갑자기 추위가 닥쳤을 때,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 용으로 만든 프록코트를 입어야 되었기 때문이다. “예, 그렇습니다. 각하. 선선하군요. 좋습니다.” 그런데 자신은 맨발이었다. “넌 왜 맨발이야?”

내가 물었다. “발은 열이 안 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갑판을 장화 신고 밟고 다니면 안 됩니다.”

10월 13일. 새로운 일은 전혀 없었다. 추웠고 화창했다. 매우 훌륭한 날씨였다. 모든 것들이 밝았고 축제날 같았다. 언덕들과 바닷물은 빛났다. 해협의 섬들과 물위의 바위들이 강한 빛의 굴절로 인해 바닷물에서 완전히 떨어진 것처럼 보인다. 섬과 바위들이 마치 공중에 매달려 있는 것 같다. 저녁노을은(아침노을은 나는 한번도 보지 못했다) 온 수평선을 황금빛으로 물들였다. 별들이 빛나기 시작했다. 목성과 금성이 먼저 나타났다. 금성은 마치 큰 촛불처럼 밝게 빛났다. 저녁에 우리는 망원경으로 토성을 보았다. 토성의 고리가 잘 보였다. 목성의 위성이 세 개가 보였다. 네 번째 위성은 목성 뒤로 숨어 있었다.

10월 17, 18일 그리고 19일. 우리 배들을 기다렸고, 걱정하기 시작했다. 수송선은 계절풍 때문에 늦어져서 역풍에 오느라 하루에 20마일씩 온다지만, 스쿠너선은 어찌된 것인지? 간지 이미 두 달이 되었다. 스쿠너선에게 7주 이상 넘기지 말라고 했었다. 여러 가지 추측들을 하였다.

18일 저녁 제독은 지시하기를 바니오스들에게 알려서 그들이 만일 원한다면 일이 없어도 배에 다니기를 계속하게 하라고 했다. 이렇게 손님으로 와서 가능한 한 우리의 관념과 생활상에 그들이 가까워지게 하려는 것이다. 젊은 역관들이 모든 것을 헛갈리게 해놓았다. 그리고 우리에게 한번도 오지 않았던 두 명의 온더바니오스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 물어보러 왔다. 우리가 일 때문에 그들을 부른 것으로 생각했던 것이다. 오늘 19일에 다시 두 명과 오이-사브로스케가 ‘영주의 작은 부탁을 가지고’ 왔다. 그들이 이야기했다. “내일 20일 치쿠젠의 영주가 자

신의 병영과 군대를 보러 해협을 이쪽 선착장에서 다른 선착장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코르벳함을 조금 저쪽 편으로 옮겨주실 수는 없습니까. 왜냐하면 거의 100척의 보트들이 영주와 같이 갈 건데 그들이 통과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들에게 선박, 특히 군함이 이 자리에서 저 자리로 옮기는 것보다는 보트들이 군함을 비껴가는 것이 훨씬 더 편할 것이라고 대답하였다. 그렇게 그들은 떠났다.

사브로스케와 함께 뚱뚱하고 키가 큰 온더바니오스가 왔다. 내가 음악상자를 가동시키고, 그것을 열었더니 그는 아이처럼 그리고 약간 멍청하게 원통형 레코드의 움직임을 보았다.

점심 식사 시간 이후에 듣기를 어떤 영주가 행렬과 함께 지나갔다고 하였다. 오늘 날씨는 마치 우리의 7월처럼 너무나 좋고 따뜻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있지 않은 쾌청한 날씨였다. 하지만 저녁마다 늘 안개가 끼었고, 밤마다 축축했고 매우 추웠다. 좀 따분했다. 새로운 소식은 없고, 작업들은 어쩐지 활기없이 이루어졌다. 잠을 자고, 맛있는 생선을 매일 먹었다. 수프로, 파이로, 차갑게도, 구워서도, 가재들도 마찬가지로였다. 집게발이 있는 것, 집게발이 없는 것, 껍질이 단단한 것, 수염이 있는 것, 수염이 없는 것, 둥근 것 그리고 긴 것. 이미 몇몇 사람들은, 나도 그 속에 포함되지만, 이 수도원 음식에 소화불량을 불평하기 시작했다. 파제예프는 읽고 쓰기를 배우고 있다. 나는 그에게 쓰기 견본을 써주려 하였지만, 그는 나한테서 배우는 것을 피하였다. 나는 기름종이를 가지고 공부하고 있는 그를 만났는데, 그 종이에겐 괴상하게 꼬불꼬불하게 쓴 문자들이 쓰여 있다. 파제예프는 그 글자들을 열심히 베끼고 있는데, 견본에 있는 것보다 더 꼬불꼬불하였다. “누가 이것 써줬어?” 내가 물었다. “아가프카가 써줬는데요.” 그가 대답했다. “나한테 쓰는

걸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럼 넌 무슨 보답을 해주고?” “보드가 두 잔
이요.”

25일. 나는 일기를 오래 쓰지 않았다. 뭘가 따분했고, 아팠다. 그러는 사이 기록해야만 될 많은 것들이 이것저것 있었다. 첫 번째는 20일에서 21일 밤에 지독한 뇌우가 있었다. 전날 밤과 그날 비가 내렸다. 그 후 저녁 무렵에 번개가 번쩍이기 시작했다. 비와 번개는 밤이 되자 더 심해졌다. 밤은 캄캄했고, 지척을 분간할 수 없었다. 번개는 참을 수 없는 섬광으로 온 만과 산을 온통 물들였다. 피뢰침을 살펴보았다. 번개 치는 소리가 대단했다. 번개가 번쩍하고 나서 한참 있다 낮은 소리로 천둥이 으르렁거리기 시작했다. 이것은 번개가 멀리서 친다는 것이다. 하지만 잠깐 뒤에 갑자기 다시 빛이 번쩍했다. 거의 새빨간 색이었다. 그리고 그 순간 갑판 바로 위에서 황하고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는 1분마다 마치 산에서 뿔개가 쏟아져 떨어지기 시작하는 듯하였다. 처음에는 반음 정도였다가 나중에 온 화음으로 으르렁거렸다. 쳐다보고 있자니 눈이 아팠고, 듣고 있는 것도 지쳤다. 7시쯤 시작했는데 밤 3시가 되어 그쳤다. 한번은 번개가 너무 가까이 떨어져 보초 서고 있던 수병이 외쳤다. “불이 앞쪽 체인에 떨어졌다!” 두 번째 번개는 파펜버그 섬에 떨어졌고, 세 번째는 선미 가까운 바닷물에 떨어졌다. 킴퍼나 골로브닌,²³ 그리고 다른 이들이 괜히 일본의 뇌우가 무섭다고 쓴 게 아

²³ 바실리 미하일로비치 골로브닌(Vasily Mikhailovich Golovnin, 1776~1831). 러시아의 항해가·여행가. 부제독과 페테르부르크 학술원 회원을 지냈다. 1808~1811년 ‘디아나’호로, 1817~1819년까지 ‘캄차카’호로 세계일주 항해를 하였다. 1816년 페테르부르크에서 출판된 그의 책 『1811, 1812, 1813년 일본인들의 포로로 있었던 골로브닌 대위의 모험에 대한 수기. 부록: 일본과 일본

니었다. 다음 날은 매우 더웠고 찌는 듯했다. 그다음에 서늘해지더니, 지금까지 날씨가 좋다.

마침내 23일 아침에 일본인의 대포들이 발사되었다. “배가 오고 있다.” 어떤 배인지 우리는 흥분했다. 다들 그 배를 보려고 어떤 이는 그 배를 맞으러 나갔고, 어떤 이는 망루나 돛대 이음부에 올라갔다. 혹 영국인들이 아닌지? 아니다. 그 배는 상하이에서 서신과 편지, 식료품을 가지고 오는 우리 수송선이었다.

오이-사브로스케가 21일 기치베와 에이노스케와 함께 왔다. 에이노스케는 제독과 내가 그에게 권한 책을 단호히 거절하였다. 두려워했다. 고케닌들은 전권대사와 이야기했으면 한다고 했다. 그들을 선실로 안내했다. 그들은 마침내 에도에서 대답을 받았다고 선언했다. 굉장한 소식(Grande nouvelle)! 우리는 기뻐했다. “무슨 대답이요? 어떤 대답인지? 어떤 문제요?” 질문들이 쏟아졌다. 우리는 초조히 기다렸다. 우리를 에도로 부르지는 않나, 아니면 다른 걸 말해주는 것이 아닌지 ……

하지만 기치베는 숨을 들이마시고는 자신의 미소 중에서 가장 달콤한 미소를 지었다. 이건 나쁜 징조다. “에도에서 ……” 그는 목이 메고 신음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대답을 보냈습니다.” “그런데요?” “당신들의 편지는 거기에 …… 무사히 …… 도착했다고 합니다.” 그는 마침내 말을 마쳤다. 마치 짐수레라도 옮긴 것처럼 온통 땀에 젖어 있었다. “그래서요?” “무사히 …… 도착했다고 ……” 그가 말을 반복했다. “그건

인에 대한 그의 의견』은 러시아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고, 즉시 영어·프랑스어·독일어·네덜란드어 등으로 번역되었다. 그의 책은 일본에서는 네덜란드어로 1821~1825년에 처음으로 출판되었다.

들었습니다. 그것 말고는요?” “더는 …… 단지 ……” “그건 우리 편지에 대한 대답이 아니죠.” 그에게 지적을 해주었다. 그들은 자기들은 죄가 없다는 등 변명하기 시작했다. 제독은 며칠 뒤에 이것보다 더 낮고 현명한 다른 대답을 받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다음 해안의 장소에 대해 그들에게 물었다. “에도에서 ……” 기치베가 신음소리를 내며, 미소를 지으면서 말하기 시작했다. “받지를 못했습니다 ……” 그리고 자신의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압니다. 대체 이진 뭐요, 대답이 있긴 할 겁니까? 이진 보견대 영주의 잘못이요. 그는 이 일에 대해 생각해보기를 원치 않는 것 아니요?” 바니오스들은 아니라고, 그의 잘못도 그들이 잘못된 것도 아니라고 변명했다. “에도에서 ……” 등등.

29일. 무더위에 대해 불평한지도 한참 되었고, 고기를 먹지 못하고, 포도주 한잔도 못한 지가 오래되지 않았나? 그런데 지금은 조금 부끄럽게도 추위를 하소연해야 한다. 날씨는 청명했고 밤에는 달이 떴다. 북동 계절풍은 세찬 추위를 동반하고 불어왔다. 다시금 모두가 남쪽으로 가고 싶어 했고 줄곧 마닐라 이야기만 했다.

어제 28일 점심 식사 후 잠들려고 하는 참에 바다에 단정을 타고 나가지 않겠냐고 했다. 가끔 가다가 우리는 단정을 타고 바다를 돌아다님으로써 일본인들에게 바다는 모두에게 속한 것이며 그들이 이것을 방해할 수는 없다는 것을 일깨워주고는 하였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유럽인들을 위해 이 권리를 고수했다. 우리는 단정을 타고 다니면서 오래전부터 일본인들의 약을 올렸다.

하지만 뱃사람들에게 보트 타는 것이 어떤 것인 줄 아는지요. 여러분들은 아마도 작은 쪽배나 보트로 못이나 호수의 꿈꾸는 수면 위를 소심하고 게으르게 기어다니는 것을 생각할지 모른다. 음악소리가 울려

퍼지고 부인들을 태우고 말이다. 아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나는 뱃사람들과 보트를 타겠다는 제안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지 않기를 충고드린다. 그것은 마치 미친 말에 여러분을 태우고 산책을 하자고 권하는 것과 똑같기 때문이다. 뱃사람들은 반드시 돛을 펴고 보트를 탄다. 이렇게 타는 것을 많은 이들이 좋아하지 않는다. 게다가 강한 바람이 불 때도 돛을 편다. 즉 단정이 옆으로 기울고 하얀 머리를 한 파도들이 뱃전 위에서 물을 끼얹거나 가끔은 배 밖으로 퍼부을 때도 말이다.

바람은 북동쪽으로 불었다. 매우 강하고 급작스러운 돌풍이었다. 우리 단정은 출발하자마자 바로 선미돛, 선수돛, 선미의 삼각돛으로 날개를 펼치고는 옆으로 심하게 기울여 어떤 삼두마차보다 더 빨리 질주했다. 우리가 파펜버그 섬과 이오시마 섬 사이의 해협에 가까이 가자 늘 그랬던 것처럼 여러 군데서 일본의 관용선들이 바다로 나왔다. 우리가 그들을 멀리로 끌어가기 버리고 난 후부터는 우리 주위에 둥글게 열을 지어 있지는 않고 해안가에 몸을 숨기고 있다. 그 배들은 우리를 저지하려고 나온 것이 아니라 - 우리가 어디로 가든 그들은 따라오지 못한다 - 단지 뱃사람들에게 감시선의 의무를 다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온 것이다. 그들은 바다로 나오고, 노를 젓고, 서둘러 제일 끝에 위치한 곳과 절벽들까지만 갈 뿐이다. 그곳은 열린 바다로 가는 출구다. 거기 작은 만에 숨어서 기다린다. 그러다 우리 단정들이 도로 나타나면 일본인들은 다시 그 뒤를 쫓아 고함을 지르고 소란을 피우며 무리지어 따라간다. 마치 그들이 바다에서 우리 단정들을 따라다니는 것을 항구의 자기편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말이다. 우리는 껄껄 웃었다.

우리 단정이 세 번째 정박장으로 가는 관문으로 나오자마자 일본 배들이 바위와 포진지들 가까이 바짝 붙더니 거기에 멈추었다. 파펜버그

섬은 우리에게서 잠깐 바람을 앗아갔다. 잠시 무풍이 만들어졌다. 하지만 우리가 섬을 지나자 단정은 맹렬히 달렸다. 파도는 높았고, 단정은 선수를 높이 들어 마치 말처럼 뒷발로 섰다가는 다시 그 파도를 지나 폴쩍 뛰면서 선수로 파도를 내리쳤다. 거기서 일본 배들이 어디로 갈 수 있단 말인가? 수병들은 말없이 단정 바닥에 앉았고, 우리들은 긴 의자에서 손으로 뱃전을 붙잡고 한군데 모여 있었다. 왜냐하면 단정이 기울어지면 우리 모두 한쪽으로 몰리기 때문이다.

하지만 추웠다. 나는 손을 옷소매나 품속에, 아니면 주머니에 넣었다. 우리들의 코는 파래졌다. 우리는 거의 해안 가까이에서 다가가면서 바다에서 첫 번째 정박장으로 들어올 때 왼편에 있던 아름다운 만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나는 전에 우리가 들어올 때 그 만을 보지 못했다. 그때 나는 근처 해안과 포진지들, 언덕들을 보느라 정신이 없었다.

만은 훌륭했다. 해안에는 마을과 계단식 경작지가 보였다. 그 계단식 경작지는 절벽 꼭대기까지 그리고 바다로 향해 있는 거친 낭떠러지에 이르기까지 빈틈없이 경작되었다. 바다에 면한 낭떠러지는 암석 덩어리들이 곧추서서 바다로 떨어지는 형태여서 어떤 야생 염소도 거기서 기어오를 수 없는 그런 곳이다. 한 치의 땅도 경작되지 않은 곳이 없다. 그리고 점점 더 산으로 올라가고 있다. 어느 곳이나 쌀과 채소가 파종되어 있다. 산은 측면을 따라 턱진 곳을 만들기 위해 절단되어 있다. 그리고 그곳이 무너지지 않도록 전 해안에 해놓은 것처럼 측면을 작은 돌로 단단하게 해놓았다. 왜냐하면 쌀을 재배하는 데는 많은 양의 물이 필요한데, 그 물이 계단처럼 턱진 곳을 따라 흐를 때 그곳이 붕괴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가축을 보았고, 다음에 많은 아이들을 보았다. 몇 명의 일본인이 농가에서 나와 한데 서서는 우리가 멈추었다 해안으로

다가가고 또 이쪽저쪽으로 방향을 바꾸면서 멀어지는 것을 보고 있다. 우리는 높은 곳에 있는 몇 개의 정자와 사원들을 보았고, 해안선과 평행으로 나 있는 긴 잣나무 가로수 길을 감상했다.

사원이 우리의 개념으로 건축적인 측면에서 주변과 그 주위의 집들 위로 우뚝 솟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 마시기 바란다. 아니다, 그건 우리 식이다. 여기서는 다른 집보다 조금 더 큰 농가이고 지붕이 조금 더 높을 뿐이다. 아니면 오래되고 황폐한 정원에 있는 세월이 흘러 잿빛으로 변한 큰 정자다. 캠퍼가 그렇게 많은 사원들 수를 말한 것은 이상할 것이 없다. 높은 곳마다 사원들은 실지로 많이 있다. 하지만 망원경으로 보지 않거나, 지금 우리가 이 만에서 하듯이 해안에 가까이 다가가서 보지 않으면 그 사원들을 알아볼 수가 없다.

만일 이 만이 유럽인들 손에 있었더라면 매우 훌륭한 교외촌락들이 여기에 자리 잡았을 것이다. 그렇게 될 것이고, 아마도, 곧 …… 얼마 전에 우리에게 식료품을 가지고 온 상급 역관 중의 한 명인 마타베(又兵衛)가 무어라고 이야기한 줄 아십니까? 그에게 물어보았다. 왜 일본에는 배들이 선미가 절단되어 그쪽으로 파도가 치는지, 또 키는 왜 그렇게 높고 둔한지? 그는 법이 그렇다고 했다. 그다음에 말하기를 그건 나쁘다고 했다. “일본도 지금 상황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가 덧붙였다. “곧 변혁을 생각해야만 합니다.” 마타베는 평범하고 선하며 성실한 얼굴을 하고 있는 민첩하지 못하고 불품이 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아마도 그렇게 말했던 것 같다.

어제 더 어떻게 할 수 없을 만큼 경작되어 있는 언덕들을 보면서 나는 홍콩을 그리고 특히 그곳의 한 지역을 다 차지하고 있는 상업기관인 자딘매디슨²⁴을 떠올렸다. 홍콩에도 산이 있는데 이곳의 산과는 비교가

안 된다. 벌거숭이 암석들이지만 많은 접안에 편하고 해안은 수심이 깊으며 배들은 바람에 안전하게 보호된다. 자딘은 무엇을 하였는가? 중국인들을 고용하여서 산을 파서 없애고 거대한 상업기관과 상점들을 건축하였다. 그리고 이 건물들보다 더 높게 훌륭한 저택을 짓고 가로수 길을 만들었으며 열대지방에서 자라는 모든 것들을 심었다. 그리고 마치 영국에서 사는 것처럼, 화이트 섬²⁵에 사는 것처럼 살고 있다. 나는 홍콩에서 경작된 땅을 한군데도 보지 못했다. 하지만 도처에 거리와 길, 선착장을 만들기 위해 파헤쳐진 산들을 보았다. 중국인들은 홍콩에 3만 명쯤 있는데, 굶어 죽을 걱정은 하지 않는다. 그들은 유럽인들에게 궁전을 건축해주는 것, 땅을 파 있는 것 - 중국 본토에서처럼 농사를 짓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 배에서 판매원으로 일하는 것, 그리고 마침내 자신을 파는 것이 이익이 된다는 것을 알아냈다. 여기도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 마타페가 정확하게 예언했듯이 말이다.

나는 보트를 타면서 퐁퐁 얼어붙었다. 다섯 시간이 다 되어가고 있다. 가을 태양은 수평선 너머로 숨으려 서두르고 있고, 우리는 바다에서 어둠기 전에 되돌아가려고 서두르고 있다. 일본의 포진지가 있는 산

²⁴ 자딘매디슨(Jardine Matheson Limited), 중국 이름은 이화양행(怡和洋行), 사전양행(渣甸洋行)이다. 1832년 동인도회사 소속 무역선의 선장이던 스코츠 윌리엄 자딘(Scots William Jardine)과 제임스 매디슨(James Matheson)이 광둥성 광저우에 설립하여 아편과 중국차(홍차)의 무역에 주력하였다. 창립한 지 2년 후에 동인도회사의 대중국 무역독점이 폐지되자 아편전쟁을 계기로 상하이·홍콩 등에 진출하였으며, 1859년에는 일본 요코하마[橫濱]에도 지점을 설치하였다. 1883년에는 인천항에 진출하기도 하였다.

²⁵ 화이트 섬(Isle of Wight), 영국 잉글랜드 남단 영국해협에 있는 섬이다. '화원(花園)의 섬'으로 불리는 관광지다.

에서 떨어져나온 바위들 사이를 통과하였다. 그 포진지에서는 일본인들이 각각의 포마다 포집을 만들고 있다. 우리 포병 K.I.L.이 포집을 얼마나 조롱하였는지 모른다. 그가 말하는 바에 따르면 포집이 사격 각도를 방해한다는 것이다. 일본 감시병들이 뭐라 욕을 하더니 우리를 향해 돌멩이들을 던졌다. 하지만 그 돌멩이들은 겨우 그들의 발 근처에 떨어졌다. 우리는 크게 웃었다. 우리 뒤의 단정에게도 똑같은 일이 있었는데, 거기서도 웃음소리가 들렸다. 파펜버그 섬에 가자 다시 섬 기슭에서 바람이 멎었다. 단정은 바람에서 벗어나자 똑바로 섰다. 돛이 돛대를 탁탁 때리기 시작했다. 수병들은 노를 젓기 시작했고, 나는 파펜버그 섬을 눈여겨 살펴보았다. 섬의 서쪽 측면에 큰 암석 하나가 조그마한 암석들 무더기와 함께 떨어져 나와 있고, 그 사이로 파도가 쳐 거품이 일고 있다. 파펜버그 섬에서 저 멀리 떨어진 곳에도 여기와 똑같은 한 무더기의 암석들이 있는데, 파도가 세차게 때리고, 둥글게 하고, 홈을 내어서 마치 거인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다양한 자세로 있는 것처럼 보였다.

나가사키에서 도해가 출판된다면, 이 암석들을 반드시 그릴 것이다. 그리고 파펜버그 섬도 마찬가지로 크리시 섬²⁶이나 그 외에 털이 부속한 작은 섬들도 그려질 것이다. 문헌에 보면 언젠가 파펜버그 섬에서 천주교도, 즉 교황의 선교사들을 바다로 던졌다고 한다. 그 때문에 이 섬을 그렇게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실제로 그렇게 던질 만한 곳들이 있다. 섬은 주위 전체가 10사젠이나 조금 더 높은 가파른 절벽으로 되

²⁶ 크리시 섬(Krysij ostrov). 러시아어로 쥐섬이라는 뜻이다. 일본명은 네주미시마[鼠島]로, 일본어 뜻을 그대로 옮긴 명칭이다.

어있다. 단지 섬의 동쪽 먼 해안가에 일본인들이 지나다녀서 생긴 오솔 길이 있고 포진지가 세워져 있다. 포진지는 여기서 늘 그렇듯이 장막이 쳐져 있다. 그리고 섬의 꼭대기에는 희귀한 솔밭이 들어서 있어 산 전체가 내가 썼던 대로 머리카락이 빠죽 선 사람의 머리 모양을 하고 있다. 일본인들은 대체로 언덕에 희귀 수종을 심어놓는 것을 좋아한다. 그래서 그 언덕은 가짜 장미꽃을 꽃아놓은 부활절 쿨리치²⁷와 닮아 보인다. 크리시 섬에서는 언젠가 스페인 사람들이 살해당하고, 상품을 실은 배가 불탔다. 이 섬에 언젠가는 좋은 정자가 세워질 것을 의심하지 않는다. 이 섬은 다른 용도로는 쓰일 데가 많지 않다.

우리가 파펜버그 섬에 가까이 가자마자 해안가에 숨어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던 일본 배들이 우리 뒤에서 몰려왔다. 소리지르며 왔으나 가까이 오지는 않았다. 그렇게 모두 사이 좋게 도착했다. - 그들은 자신들의 골짜기와 후미진 곳으로, 우리는 프리깃함으로, 나는 추워서 오랫동안 주먹에 입김을 불었다.

11월 1, 2, 3일. 비가 오기도 하고, 맑기도 하고, 따듯하기도 했는데, 오늘처럼 심지어 덤기도 했다가는 갑자기 우리 조국처럼 춥기도 했다. 일본인들은 벌써 3일째 와서는 네덜란드 상선이 마침내 물건을 싣고 바타비아로 가는데(우리는 이곳에서 이 배를 예전에 만났다고 내가 이야기했는지 모르겠다), 영주가 부탁하기를 -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 우리가 그 배에 가지 않았으면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말하도록 지시하기를 유럽으로 가는 편지들을 그 배에 건넬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두 유럽

²⁷ 쿨리치(kulich). 러시아에서 부활절에 만들어 먹는 빵으로, 원통 모양으로 길쭉하게 만든다. 빵의 윗부분을 시럽이나 과일로 장식하기도 한다.

국가의 배가 서로 간에 왕래하는 것을 방해하려는 생각이 어떻게 영주의 머릿속에 떠올랐는지 놀라웠다. 역관들이 다시 왔다. 거의 밤이 다 되었을 때였는데, 부탁하기를 적어도 편지를 건네주는 것은 코발스키 관문 너머의 바다에서 해달라고 했다. 그들은 백성들이 그걸 보고 자신들의 정부가 힘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을 원치 않았다. 그들은 그들의 말이 먹히지 않는 것을 수치스러워했다. 그럴 수 없다고 말했다. 역관들이 선언하기를 영주가 아마도 해안에 접안하는 걸 허락하지 않을 것이고, 보트로 가로막을 것이라고 했다. “한번 그렇게 해보시오.” 그에게 이야기했다. “유쾌하지 않은 결과가 생긴다면 영주가 그것에 책임져야 할 거요.”

기쁜 일이고 축제날이다. 스쿠너선이 도착했다. 오늘, 3일, 일본 대포들이 발사되었다. 돛대 이음부에 오른 수병들이 스쿠너선을 멀리서 알아보았다. 1시쯤 스쿠너선은 우리 옆에 닻을 내렸다. 얼마나 많은 소식들을 가지고 왔는지!

5일, 우울했다. 해야 할 일들이 있고, 걸으려는 평온했고 날씨도 아름답다웠지만 우울했다. 나는 어제 저녁 무렵 우리 수송선에 갔다. 선장도 거기로 갔으며, 나는 O.A.를 데려갔다. 우리가 저녁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K,N,P가 나타나서 제독이 결정을 바꾸었다고 말했다. 마닐라여 안녕! 우리는 에도로 간다. 이윽고 말과 논쟁들. 말하기를 건빵이 부족한데 어디로 가는 것이냐고 했다. 제독은 에도에서 상하이로 수송선을 보내 몇 개월 치 식료품을 가득 실어오게 할 생각이었다. 하지만 식료품의 부족 말고도 맞바람으로 불고 있는 북동계절풍도 에도로 가는 것을 방해하고 있었다. 오늘 바니오스들을 불렀다. 오이-사브로스케, 기치베 그리고 쇼자, 짝을 맞춘 또 한 명의 바니오스인 사브로스케(바

니오스들은 항상 짝을 맞추어 다닌다)가 도착했다. 사브로스케는 자신의 다분히 멍청하고 순진한 시선으로 매번 나를 매우 다정하게 쳐다보았다. 그리고 현명함이나 타이름은 기대할 수 없지만, 대신에 잼이나 사탕, 어떤 일에 대한 묵인은 얼마든지 얻을 수 있는 의심할 바 없이 선량한 아주머니나 유모, 응석을 받아주는 그런 여인을 떠오르게 했다.

우리가 나가사키를 떠날 것이라고 선언하자 모두가 기뻐하였다. 기치베 혼자만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 더 울적해하기도, 더 즐거워하기도 않았다. 그는 스스로는 아무것도 물어보지 않고, 어떤 것에도 흥미를 느끼지 않으면서 질문과 대답들을 통역해주었을 뿐이다. 언젠가 왜 영어를 배우지 않았냐는 P-t의 질문에 그는 대답하기를 네덜란드어도 배운 것을 후회한다고 했다. “왜요?” “제가 좋아하는 건.” 그가 말했다. “아무것도 안하고 노는 걸 좋아하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에도로 간다는 것을 알았다면 바니오스들은 기뻐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것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단지 내일 한 번 더 와서 두 영주와 역관들에게 보내는 서류와 선물들을 가져가라고, 그리고 될 수 있는 한 물과 식료품을 더 많이 보내달라고도 부탁했다. 그들은 우리가 이 식료품으로 에도로 가는 길의 식량으로 비축하려 한다는 것으로 의심하지는 않았다. 내일은 무슨 일이 있을까?

6일. 오늘은 아침과 저녁에 바니오스들이 왔다. 그들에게 걱정이 닦였다. 두 영주 모두 근심스러워했다. “왜 갑자기 떠날 생각을 하신 겁니까? 어느 날 갈 건지, 어디로 가는 건지?” 더 물어보고 싶어 했으나 물어볼 생각을 못하였다. 이야기를 안 해줄 것이라고 스스로 느낀 것이다. 오늘 그들은 즐겁지가 않았다. 바니오스들과 함께 그들 중 제일 윗사람인 하기와라가 왔다. 그들을 제독실로 불렀다. 그들은 막부로 보내

는 서류를 영주가 받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다음 바니오스들은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다. “뭐가 이렇게 갑자기 떠나게 만들었습니까?” “여기서 더 이상 할 일이 없어서요.” 그들에게 대답했다. “떠나는 이유를 영주에게 보낸 편지에 설명했습니까?” “그 편지들에는 나의 의도가 설명되어 있소.” 제독이 말하라고 지시했다.

그들이 말하기를 선물은 영주나 바니오스, 역관들 모두 받을 수가 없다고 했다. “불가능합니다(Onmogelijk!)” “에도에서,” 기치베가 목이 메기 시작했다. “이것에 관해서 허가를 …… 받지 못했습니다.” “안 돼요.” 우리가 말했다. “그러면 당신들과 일이 있을 때, 우리도 절대 받지 않겠소.”

기치베는 언제 가느냐, 돌아올거나 캐묻고, 언제 나갈 것인지 말해달라고 간청하면서 뱀처럼 몸을 구불거렸다. 하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 곧(Spuedig), 이제 곧(Zeer Spuedig)이라고 P-t가 그에게 대답했다. 그들은 최소한 떠나기 하루 전에는 말해달라고 부탁했다.

우울이 그들을 덮친 것 같았다. 그들이 놀릿감이 될 순서가 되었다. 우리는 교묘하게 질문에 답을 피해가면서 그들을 기만하였다.

그렇게 그들은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근심에 싸여 떠나갔고 우리는 앉아서 식사를 하였다.

우리는 왜 일본인들이 우리의 출발에 갑자기 불안해하는지, 왜 떠나기 하루 전에 말해달라고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아마도 그들은 대답을 받았는데, 자신들의 습관대로 보여주길 늦추고 있는지도 모른다. 저녁에 다시 그들이 왔는데, 좀 더 영리하게 물어보지 않을까 해서 이번에는 에이노스케를 데리고 왔다. 하지만 그것도 소용이 없었다. 어디로 가십니까? 그들이 알기를 원했다. “바람이 이끄는 대로 갑니다!”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대답했다. 마침내 우리는 제독이 말한대로 가까운 근방에 있을 것이라고, 즉 일을 마치지 않고는 일본 연안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대답은 나가사키에서 받을 것이지 않습니까.” 그들이 지적했다. 우리는 아무것도 이야기하지 않았다. 그들에게는 재난 그 자체였다. “여러분들은 상상이 가십니까.” 에이노스케가 이야기했다. “우리 처지를 말입니다. 알아보라고 명령받았는데, 우리는 여기 올 때와 똑같은 상태로 돌아갑니다.” “내 처지도 상상해보시오.” P-가 대답했다. “제독은 자신의 의도에 대해 한마디도 나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내가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떠났다.

7일, 나가사키 정박지에서 벌어진 이 일본인들과의 코미디. 8시를 알리는 종소리가 방금 울렸고, 깃발을 올렸는데 역관들이 나타났고, 그들 뒤로 오베르-바니오스들, 하기와라, 사브로스케 그리고 또 다른 한 사람이 있었는데 겉보기에 소심하고 불품 없어 보였다. 그들은 우리에게 불만스러운 것이 있는지 끈질지게 캐물었다. 그다음에는 제독을 만나기를 청했다. 항상 하던 대로 모두가 제독실에 자리를 잡았고, 깊은 침묵이 깃들었다.

하기와라는 한 10분 정도 길게 이야기했다. 우리는 이야기가 끝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기치베는 그의 말을 통역하기 시작했는데, 자기 식으로 짤막하고 딱딱 끊어서 통역했다. 보건대 뜻만 전한 것 같았다. 표현 방법이나 자세한 것, 뉘앙스는 모두 사라졌다. 그는 총명하지 못하면서도 고집이 세었다. 만약 네덜란드어로 뭐라고 날카롭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눈치챌 만큼 그는 매우 완화시켜 일본어로 통역하거나 아니면 아예 일부러 말을 하지 않았다. 제독은 불만스러워 했고 그

를 통역에서 배제시켜 달라고 부탁하기를 원했다. 에이노스케는 정반대로 다 이해했고, 세밀한 점까지 설명하려고 노력했다.

그들은 이렇게 시작했다. “제독이 머물러 있기를 동의하지 않으시니, 영주도 제독을 붙잡지는 못하겠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한 가지 상황을 생각하시고 제독께서 이것에 따라 행동하기를 권유하십니다. 그것은 이것입니다. 영주께서는 10일쯤 뒤에, 11일 이상은 절대 아니고, 아니 아마도 7일 뒤에는, 오고 있는 길에서 무슨 일인지 늦어지고 있는데, 대답이 도착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 이렇게 대답했다. “석 달간 기다렸는데 7일 연장하는 것은 대수롭지 않다. 하지만 우리는 배를 수리하고, 크로노미터를 검사하는 등의 일을 하려면 해안에 장소가 필요하다. 더 나아가서 만일 그 대답이 우리 일을 진척시킨다면 여기 남아 있을 것이고, 반대의 경우에는 우리가 필요한 곳으로 떠나겠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선장실에 있을 때부터 역관들이 하나씩 자신이 타고 온 배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것을 알아챘다. 바니오스들은 대답하기를 역관들은 제독의 이 선언을 영주에게 알리는 것이라고 했다.

갑자기 문 근처에서 소음과 말소리가 들렸다. 에이노스케는 일어나서 문으로 가더니 급히 돌아와서 두 명의 바니오스들이 더 도착했는데 보초서는 수병들이 들여보내지 않는다고 했다. 그들에게 들여보내라고 명령했다. 두 명의 낯익은 얼굴이 들어왔으나, 이름은 모르겠다. 그들은 인사를 하고는 하기와라에게 다가가서는 종이를 건넸다. 나는 그들이 에도에서 온 대답을 가져온 것을 눈치챘다. 하기와라는 짐짓 놀란 체하며 그것을 읽어보고는 사브로스케에게 건넸다. 그는 다 읽어보고 또 다른 사람에게 건네주었다. 그렇게 해서 그 종이는 기치베에게까지

왔다. 그들은 ‘아’ 하고 감탄을 했다. 기치베는 거의 첫 단어부터 목이 멎 뻔했다. “편지를 …… 에도에서 온 …… 편지를 받았습시다.”

나는 참지 못하고 그들에게서 몸을 돌려서는, 꺾꺾 웃고 싶은 강렬한 욕망을 겨우 억눌렀다. 이런 어릿광대들이라니! 얼마나 교묘한가. 우리 일정을 늦추려고 10일간의 기간을 요청했다. 에도에서는 이미 대답을 보냈는데 말이다. 종이에겐 항상 그랬듯이 다 해서 여섯 줄이나 일곱 줄의 글이 있다. “네 명의 전권대사인 고위 관리가 - 그 종이에 쓰여 있기를 - 에도에서 제독과의 면담과 회담을 위해 올 것이다.”

우리는 어깨에서 무거운 짐을 벗었다. 식료품도 없이 단시일 안에 에도로 갔다가 다시 거기서 출발할 필요가 없어진 것이다.

전권대사들이 언제 오는지 물었다. “에도에서 …… 그것에 대해서는 …… 받지를 못했습니다.” 하기와라와 사브로스케는 그 종이를 보여주면서 어떤 기적이 벌어졌는지 우리에게 티를 내기 시작했다. 대답이 올 거라고 금방 이야기했는데 정말 대답이 왔다는 것이다. 거기서 다들 참지 못하고 그들도 우리도 모두 웃기 시작했다. 편지는 고로주²⁸인 아베 [阿部] 이세노[伊勢] 카미 사마가 두 영주에게 쓴 것인데, 전권대사가 갈 것이라고만 쓰여 있고, 그들이 누구며, 언제 가며, 출발을 했는지, 지금 가는 도중인지는 한마디도 없다.

일본인들은 해안의 장소에 대한 영주의 대답을 저녁때 가지고 오겠다는 약속을 하고 떠났다. “이전에 하셨던 말, 즉 나가사키를 떠난다는

²⁸ 고로주[御老中]. 로주[老中]는 일본 에도 시대 막부 및 번의 직책명이다. 쇼군의 직속으로 국가 정사를 돌보는 고위 직책이다. 고[御]는 존경의 뜻을 나타내는 접두사다. 곤차로프의 원문에는 고로치유(Gorochi'ju)로 음차하고 있다.

말은 더 이상 안 하시겠지요.” 떠나면서 그들은 이렇게 말했다. 그리고 마치 그들이 전에 했던 말들을 씻어내기라도 하듯이 입 주위의 땀을 닦아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계획에 닥쳐온 변화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했다. 나는 일본인들이 아직 출발하기 전에 견디지 못하고 갑판으로 나갔다. 선장은 돛을 묶으라고 명령을 내렸다. “쓸데없는 일이야.” 내가 말했다. “돛을 풀라고 다시 명령할 텐데.”

점심식사를 마치자 바로 일본인들이 와서 이야기하기를 비록 영주에게는 허가할 권리가 없지만 모든 것을 자신이 책임지고 장소를 제공하겠다고 했다. 저녁 때쯤 다시 와서는 예전 우리 전권대사였던 레자노프가 있었던 리바치 만을 쓰지 않겠냐고 이야기했다. 제독은 어떤 경우에도 장소를 받아들이기 전에 먼저 사람을 보내 살펴보겠다고 대답했다. P.K.와 G.가 살펴보러 떠났고, 웃음과 실망을 가지고 돌아왔다. 그곳이 적합하지 않다고 말했다. 텅 빈 곳이고, 모래와 암석들뿐이라는 것이다. 이 민족과는 인내를 가져야 한다. 이렇게 4일째 모두 해안의 장소에 대한 이야기였다.

우리가 돛을 거두기는 했지만 제독은 에도가 아니라 상하이로 가서 유럽의 상황이 어떤지 알아보고, 몇 개월 치 신선한 식료품을 보충하려고 했다. 일본인들에게는 장소가 적합하지 않다고 선언했다. 영주는 다른 장소는 없다고 대답했다. 화가 난 것 같았다. 우리는 여기, 그리고 저쪽에 장소가 있다고 반박했다. 아름다운 장소가 없겠는가. “만약 장소를 주지 않으면 우리는 떠날 것입니다.” 우리가 이야기했다. “우리에게 식료품을 보내주십시오.” “줄 수 없소.” 영주가 대답했다. “예전처럼 네덜란드인들에게 조금씩 요청해보시오.” 그는 그렇게 해서 우리를 묶어놓기를 기대했다. “그러면 우리는 식료품 없이 떠나겠습니다.” 그에

게 이렇게 답했다.

10일. 오늘 나가사키 만의 입구, 키바치 만에 일단의 사람들이 무리지어 있는 것이 갑자기 보였다. 거기서 바니오스와 역관들이 땅을 살피고 넓이를 재고 작은 말뚝을 박고 있다. 다른 장소를 준비하는 것이 분명했다. 하지만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고 푸릇한 녹음만 있는데, 그 푸른 것도 쌀과 채소를 심어놓은 것이라 밭 디딜 곳이 없다.

영주는 우리가 다른 장소도 거부한 것을 알고는 그에게는 더 이상 장소가 없으며 우리가 지적한 장소는 오무라[大村] 영주의 땅이라 권한이 없다고 대답했다. 두 영주는 모두 이런 일들이 있는 다음 안심했다. 그들은 우리에게 전권대사가 임명되었고, 장소도 제공한다고 선언했다. 즉, 만일 우리가 전권대사나 장소 문제로 떠난다고 해도 그들은 이미 잘못이 없는 것이다.

제독은 전권대사가 나가사키에 우리보다 먼저 도착할 경우를 대비하여 전권대사들에게 주는 편지를 전달하고 싶다고 부탁했다. 이 편지와 함께 영주에게 보내는 서한도 있었는데, 그 서한에서 제독은 영주에게 이렇게 통지했다. “제독은 짧은 시간 내에 일본으로 돌아올 것이며, 나가사키에 들를 것이다. 그리고 그때 만약 나가사키에 전권대사나 그의 제안에 대한 답이 없을 경우에는 곧바로 에도로 갈 것이다.”

바니오스들은 영주에게 보내는 서한에 무슨 내용이 있느냐고 물어보았지만 말해주지 않았다. 영주에게 우리가 어디로 가며, 얼마나 있을 것인지 말해주지 않은 것처럼 말이다. 우리는 모두 일본인들이 우리를 만류하고는 장소를 제공하고 전권대사들이 오고 있다고 말할 것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아무 일도 없었다. 영주들은 우리가 에도로 가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안심했다. 우리는 바람이 좋으면 오늘 출발할 것이

라고 이야기했다.

3시쯤 우리는 닻을 걷었다. 나가사키에 체류한 지 정확히 석 달 만이다. 8월 10일 도착해서 11월 11일 떠났다. 나는 자려고 누웠으나 사람들의 발소리, 닻줄 쌓아놓는 소리에 깨었다. 배가 첫 번째 정박장인 코발스키 관문으로 나왔을 때 나는 밖으로 나왔다. 얼마 전에 나는 저기서 보트를 탔다. 저기 우리가 살펴보았던 만이 있고, 저기 파넌버그 섬이 있다. 저 멀리 있는 산들의 낮익은 움푹한 곳과 골짜기들. 저기 가메노시마, 이오시마가 있고, 저 왼쪽에서는 노모반도가 푸르스름하게 보인다. 그리고 여기 활짝 열린 공간, 무한함이 있다. 바다에 왔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X. 상 하 이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또다시 물에 떠다니는 삶, 또다시 바람의 의지대로 움직이거나 바람의 자비에 따라 평온해지겠지. 지금 바람은 얼마나 울부짖고 또 얼마나 차가운지! 나는 석 달 동안 바다가 낯설게 되었다. 그래서 모두들 각자 제자리를 잡고 서 있는 것을, 네 명의 조타수가 타륜의 손잡이를 움켜쥐고 키에 마치 붙어 있듯 하는 것을, 수병들이 돛대의 망루에 기어 올라가는 것을, 우리 프리깃함이 날개를 펼치는 것을, 그리고 할아범이 후갑판에서 지도까지, 다시 지도에서 후갑판까지 왔다 갔다 순례하는 것을 대단히 불만스럽게 바라보고 있었다.

우리는 6이나 7노트로 측면에서 부는 역풍을 타고 항해했다. 우리 뒤에는 일본 정크선이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를 보기 위해 오랫동안 따라왔다.

나는 플란넬 외투를 입고도 추워서 어디에 몸을 두어야 할지를 몰랐다. 침대에 누워서 숨 담요를 덮었다. 그래도 여전히 추웠다. 앞으로도 더 따뜻해지지는 않을 것이다. 상하이[上海]는 북위 31도 아래에 있지만 추위가 있고는 한다.

지금까지 이틀간의 항해는 좋았다. 수요일에 우리는 닻을 올렸고, 오늘 토요일에 이미 상하이에 가까이 왔다. 총 450마일가량을 항해했다. 이것은 700베르스타가 넘는 거리다. 어제는 바람이 세게 불었지만, 흔들림은 심하지 않았다. 바람은 고르고 날카로웠으며 차가웠다. 파도는 크지 않았지만 심술궂고 지속적이었다. 마치 사람이 화가 나서 심하게 욕을 퍼붓고, 그리고 그 분노가 끝을 알 수 없을 정도로 지속되는 것 같았다. 전함은 왼쪽으로 기울어서 항해를 계속했으며 팽팽한 장력 때문에 살짝 몸을 떨었다. 다리 아래에서 뭔가 살아 있는 어떤 것, 힘을 써서 매 순간 터질 준비가 되어 있는 어떤 긴장된 혈관이 느껴진다. 돛

대와 돛에 그리고 배의 전체 골조에 가해지는 공기의 압력이 발에 특히 잘 느껴진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니 어제보다 따뜻하다. 우리는 순풍에 바람을 지고 가고 있다. 즉 바람이 선미에서 곧장 불고 있다. 속도는 5노트로 가고 있고 바람은 적당하다. “갑판에 전원 집합. 닻을 내리고 정박한다.”라는 말을 바로 듣고 후갑판으로 달려갔다. 그렇게 우리는 정박하였다. 그러나 어떤 우울한 바위들, 어떤 야생의 장소들이 있는데, 관목 숲은 없다. 여기에 마을이 있었다고 말들 한다. 그렇지만 어디에? 바위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16일. 어제 우리 인원들이 스쿠너선을 타고 상하이로 떠났다. 나는 언제가 갈 때가 있을 거라 기대하면서 가지 않았다. 우리는 여기서 앞으로 한 달간 정박해 있을 것이다. 같이 가자고 불렀지만, 나는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상하이가 어떤 곳인지, 어디에 가보아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중국의 도시에 들여보내 주는지 먼저 알아봐야 한다. 그리고 만약 유럽인 거주지역에서만 지내야 하고, 그 지역만 볼 수 있다면 왔다 갔다 수고를 할 필요가 없다. 똑같은 영국인들에, 똑같은 로스트비프에, 똑같은 깊이 감사한다(Much Obliged)와 고맙다(Thank You)일 테니 말이다. 그렇지만 중국인들의 구역에는 혼잡과 무질서가 존재한다. 도시에는 폭도들이 있고 군대가 주변에 주둔하고 있다. 중국 연극을 보거나, 중국인의 식사에 초대받는다거나, 새의 둥지를 맛보거나 하는 희망은 없다. 비록 그들이 우리들이 있는 가운데 서로 싸움을 할지라도 말이다.

여기에서 상하이까지 80마일 정도 될 것이라고 말했는데, 실제로는 105마일이었다. 이것은 184베르스타에 해당하는 거리다.

23일. 어제 아침부터 스쿠너선을 멀리서 보았다. 우리 배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돛대가 매우 높았고, 맞바람을 향하여 돛을 번갈아 좌우로 돌리면서 우리에게 오고 있었다. 사방에서 파도가 그 스쿠너선을 덮치고, 또 그 배는 물속에 잠겼다 떠올랐다 하면서 오고 있는 것을 선장 O.Abb.와 나는 선장실의 창문으로 보았다. 스쿠너선은 방향을 돌리고 싶어 했지만 돌리지 못하다가 결국 방향을 틀어서 다섯 시가량에 우리 프리깃함 가까이에 닻을 내렸다. 우리는 이 일이 우리와 관계가 있으리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스쿠너선에는 우리의 K.N.P.와 S.P.Sh.가 타고 있었다. 그들은 상하이에서 야채, 살아 있는 황소들, 닭, 오리들, 말 그대로 신선한 식료품과 새로운 소식들, 그렇지만 신선하지 않은, 즉 지금은 11월인데 8월자 소식들을 가지고 왔다.

중국에는 폭동이 있었다.¹ 러시아에서는 터키와의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 개인 편지들은 모두 두 개를 가지고 왔다. 나는 상하이로 오라는 부름을 받았다. 다시 망설이고 주저했다. 어떻게 하지? 무엇을 하지? 추위와 나태가 완전히 사로잡았는데 특히 추위가 그렇고 나태 역시 두 드리졌다. 어제 나는 선장실에서 잠을 잤다. 나에게서는 옷을 벗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나는 글을 쓰고 다른 손을 조끼 안에 감췄다. 다리가 얼어붙었다.

나는 이렇게 생각했다. 상하이는 잠겨 있어서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 폭도들이 들여보내 주지 않는다. 그들이 군인들과 싸우는 것을 우리는 보았다. 가야 하는데 그건 아마도 중국 땅에서 150베르스타 떨

¹ 1853년 9월 상하이에서 샤후다오후이[小刀會]가 일으킨 봉기를 말한다.

어진 곳에 있으면서 중국에 가지 않는 것이 부끄럽기 때문일 것이다. 터키와의 전쟁에 대해서도 결정된 것이 없다. 그것과 함께 우리가 이전에 원했던 것처럼 여기서 한 달 동안 머물 것인지, 아니면 지금 우리에게 식량이 없기는 하지만 일본으로 갈 것인지도 결정되지 않았다.

…… 당신은 지금 상하이에서 어떤 눈부신 역할을 하고 있는지, 또 앞으로 어떤 눈부신 역할을 하게 될 것인지 결론을 내릴 수 없을 것이다. 현재 상하이는 이 지역의 바다들에서 교역량의 엄청난 수치로 홍콩·광저우(廣州)·시드니를 능가하고 있고, 캘커타 다음으로 첫 번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아편이다. 아편을 위해 중국인들은 자신의 차, 실크, 금속, 약품과 염색 물품, 팜, 피, 에너지, 지혜, 모든 삶을 내주고 있다. 영국인들과 미국인들은 이 모든 것을 냉정하게 취하면서 돈으로 바꾸었고, 또한 아편에 대한 이미 오래되고 무디어진 비난을 냉정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그들은 얼굴을 붉히지 않고 비난을 들으며 서로를 구실로 삼았다. 영국 정부는 침묵하고 있는데, 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다. 왜냐하면 행정부의 고위직에 있는 많은 관료들이 인도에 있는 자신의 농장에서 양귀비를 기르고 있고, 배에 실어 양쯔강으로 보낸다. 상하이에 도착하기 16마일 전쯤 되는 지역인 우순강에 아편 배들이라고 불리는 선단이 서 있다. 거기에 마약을 보관하는 장소가 있다. 다른 배들은 짐을 싣고 와서 부리고 하는데, 이 아편 배들은 불법적으로 짐을 팔기만 한다. 이런 매매는 금지되어 있으며 심지어 중국 정부의 비난을 받고 있다. 그러나 힘없는 저주가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물론 세관으로 아편을 가져갈 수는 없지만, 누군가 비밀리에 세관을 통과한다면 그건 고관만이 할 수 있다.

여기의 세관들은 중국 정부에 별 쓸모가 없다. 세관 관리들은 예전
에 부처가 앉아 있던 그 자리, 즉 절에 쓸데없이 앉아 있을 뿐이다. 중
국인들은 탐욕스럽게 아편에 덤벼들었고 빠르게 상품을 내부로 숨기고
있다. 중국 정부는 아편이 거기에서 발견될 것이라고 확신이 들 때만
배에서 물건을 살필 권한이 있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결코 찾아내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매수된 중간 상인들이 항상 미리 주인에게 알려
주어 짐을 강으로 던지거나 다른 곳으로 보내버리기 때문이다. 그러면
정부는 의심하는 척하기만 하고 외국인과의 관계를 끊지 않으며 그 때
문에 조사는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다. 영국 정부는 인도에서 양귀비를
심는 것을 무력으로 금지시키지 않는 것에 대해 변명하기를 중국에서
아편이 뿌리내리지 않도록 살피는 것은 영국 정부의 일이 아니라 흑인
매매에 반대하는 성스러운 동맹에 참여하고 있는 중국 정부의 일이라
는 것이다.

그러나 1,000개의 돌을 던져보았지만 소용 없었던 안에 또 하나의
작은 돌을 쓸데없이 던져야 할까? 이상하지 않은가. 일은 논쟁의 여지
가 없이 분명하다. 비난받는 쪽은 죄를 인정하면서 침묵한다. 재판은
선고를 내렸지만 선고를 이행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일이 독이든 무엇이든 상관없는 물건의 판매에까지 관련되자마자
동물을 사랑하는 이 민족의 후안무치는 어떤 영웅주의에까지 이르게
된다. 영국인들의 속물근성의 다른 예는 더 놀라울 정도다.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총과 화약이 없으면 영국인들은 한 번의 전쟁으로 그들의
약탈과 분노에 영원히 종지부를 찍을 수 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화약
을 실어나르는 것은 사형에 처할 정도의 죄로 금지되었다. 그러는 사이
에도 아프리카 흑인들은 계속해서 총을 사용했다. 그들이 어디서 군사

용 무기들을 가지게 되었는지는 오랫동안 의심받지 않았다. 그러나 어느 날 항구 중 한 군데에 있던 영국 배들에서 아프리카 흑인들에게 가져다줄 화약이 든 몇 개의 상자들이 다른 물건들과 함께 폭발했다. 영국인들은 자신들의 동족을 대접하기 위해 이 물건들을 날랐던 것이다. 정말 끔찍이도 나쁜 상업적 민족이다.

여기 무역의 결과를 당신에게 말하기가 두렵다. 35년 전에 유럽인들이 중국 전역으로 대략 총 1,500만의 은에 상당하는 액수의 상품을 실어날랐다. 그중 아편이 4분의 1 조금 넘는 정도였다. 12년 전쯤, 아직 중국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수입은 두 배로 증가했다. 즉 총 3,000만의 은에 해당하는 액수보다 더 많으며 아편의 반입이 이미 5분의 4를 차지하고 5분의 1만 다른 상품들이다. 이것이 중국 전체에서 벌어진 상황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상하이 한 곳에만 훨씬 더 많은 아편이 들어오고 있다. 상하이는 중국 무역에서 논쟁의 여지 없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상하이는 이웃 도시들인 아모이·닝보[寧波]·푸저우[福州]를 계산에 넣지 않고도 압도적 위치를 차지한다. 이 이웃 도시들은 자신들의 활동 범위와 자신들의 상품 종류를 가지고 있고, 이것은 지금까지도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광저우와 홍콩은 북쪽에 무역을 개방한 그때부터 자신의 의미를 일부 상실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북쪽의 많은 생산품은 가장 가까운 출발점을 찾았고 이 두 장소로 오는 생산품의 흐름은 감소되었다. 그러나 완전히 몰락할 위험은 거의 없다. 100만 명에 달하는 주민을 자신의 벽 안에, 그리고 자신의 관할구역과 가까운 지역 안에 10배 이상의 주민들을 가둔 광저우는 항상 다른 지역에서 일과 물건 매매를 찾을 필요가 없도록 주민들을 위한 시장이 되어줄 것이다. 더구나 광저우는

직물 제조 도시다. 즉 이 도시는 남쪽 항구로 물건들의 넓은 흐름을 다른 쪽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쉽지 않다. 특히 이 항구가 선임자의 특권을 자기 쪽에서 아직 가지고 있을 때는 더욱 그렇다. 홍콩 역시 상하이의 명성에 뒤떨어지지 않지만 어느 정도 상실하게 될 것이며 창고로서의 역할도 이미 잃었다. 즉 많은 배들이 이전에는 홍콩으로 짐을 싣고, 또는 짐을 싣기 위해서 향한 반면 지금은 상하이로 직접 향하고 있다.

상하이의 부상의 원인은 큰 강이 있는 유리한 지리적 위치에 있다. 이 큰 강의 상류에는 인구가 많은, 말하자면 난징[南京]이나 쑤저우[蘇州]와 같은 몇 개의 상업 제조 도시들이 있다. 상하이는 인구로 따지면 적은 곳이다. 상하이에는 총 30만 명의 주민이 있다. 이 인구는 중국 도시들로 보면 적은 편이다. 하지만 상하이는 양질의 실크와 차를 생산하는 도시들과 지방들에게는 근교의 상업지역 역할을 했다. 실크와 차는 종이, 모직과 기타 다른 유럽과 미국의 제품에 대한 대가로 중국이 지불하는 가장 중요한 두 개의 품목이다. 다만 아편 매매는 은화보다는 금속 화폐로 더 많이 이루어진다.

새로운 여행가들 중 한 명으로 덴마크의 코르벳함 ‘갈라테아’호를 타고 스텐 빌 장군의 지휘 아래 세계일주 여행을 했던 노피치 장군은 그들이 방문한 지역의 무역에 대해 수집한 정보를 특별 부록으로 출판했다. 이것은 성실하고 유익한 일이었다. 비록 노피치가 1847~1848년에 중국에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로 무역 통계는 특히 총계에서 많이 변했지만 몇몇 일반적인 결론과 정보는 지금까지 효력을 지니고 있다. 덧붙여 말하자면 그의 효과적인 충고를 인용하지 않을 수가 없다. 물건들이 중국으로 갈 때는 중국인들의 취향과 관습에 엄격하게 일치시켜야 한다. 예를 들면 옷감이나 다른 비슷한 물건들은 중국인들이 좋아하는

전형적인 형태, 그들에게 익숙한 색깔, 그들에게 익숙한 치수로 제작되어야 한다. 노피치는 심지어 어떻게 물건을 쌓는지, 어떤 상표를 제공해야 하는지 등과 같은 사소한 것이지만 유익한 지침을 주고 있다. 또한 중국인들에게 견본을 보여주고 상품이 마음에 들면 다음번에 가지고 오겠다는 약속을 하지 말라고 충고한다. 그는 “중국인들은 물건을 보고 나서 취향에 맞으면 그 자리에서 사는 것을 좋아한다.”고 말한다.

지금 중국에서 폭동이 일어난 상황을 볼 때 무역은 최고의 정점에서 위기를 맞게 될 것이다. 무역에 가해진 이런 충격은 멀리 영향을 미칠 것이다. 홍콩, 싱가포르, 인도, 영국과 미국은 이 충격을 지진과 같은 것으로 느낄 것이다. 비록 매매, 특히 아편 매매가 중단되지 않는다 해도 모든 중국 자본가들은 흩어지고 내부로 사라질 것이며 거래는 이전과 비교해서 형편없이 이루어질 것이고 모든 것이 나름대로 심화되는 것이다. 상하이 자체에서 상점과 집들은 문을 닫고 부유한 상인들은 도망쳤으며 나머지 사람들은 폭도들에게 배상금을 냈다. 이 상인들 중의 한 사람은 가톨릭 신자로 밝혀져 스페인의 화폐로 8만 피아스타를 세금으로 징수당했다. 그러나 통상 6천이나 7천 정도로 일은 마무리 되는 것으로 보인다.

예전과 같은 수량은 아니지만 배들은 세관 곁을 지나쳐 물건을 도시와 외곽으로 계속해서 실어나르고 있다. 그러나 타오타이²⁾는 영국 영사를 언급하면서 세금 지불을 요구하였고 관세법을 명백히 어기는 것에 항의했다.³⁾ 영국 영사는 지방 정부가 무역을 보호해줄 힘이 없어 상인

2) 타오타이[道台]. 군 행정의 수반이자 행정 수반.

3) 1853년 상하이의 타오타이가 봉기군에게 붙잡힌 후 영국과 미국의 영사들은

들이 스스로 걱정해야 하는 판에 관세를 요구할 지방 정부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대답했다. 어쨌든 일은 전쟁이 끝날 때까지 해결되지 않을 것이고, 전쟁은 언제 끝이 날지 보이지 않았다. 결국 상하이 전쟁은 금방 끝나지는 않을 것이다.

양쯔강에서 보다 위쪽에 위치한 난징은 지금 폭도들의 중요 근거지가 되었다. 거기에 폭도의 대장이 살고 있으며 왕위 요구자인 홍수전⁴도 살고 있다. 난징 폭도들은 상하이를 아주 하찮은 지점으로 여기고 그 때문에 그리로 원병을 보내지 않았다. 프랑스 전권대사 부르블롱⁵은 난징으로 배를 타고 수행원과 함께 갔다. 홍수전은 그를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의 비서에게 그를 만나라고 지시했다. 만약 새로운 정부가 확정된다면 새 정부는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에 대한 프랑스인의 질문에 홍수전은 그의 국민들은 기독교인으로서 유럽인들에게는 형제이며 이런 의미에서 행동할 것이지만 그들은 그 어떤 의무도 없다고 대답했다. 프랑스인은 그렇게 돌아갔으며 무엇인가를 가지고 갔다. 그러나 유럽인

나중에 청나라에게 전달하겠다고 하면서 관세를 자국의 영사관이 직접 징수하게 하였다. 이것은 1854년 중반 타오타이가 풀려나고 나서도 계속되었다.

- ⁴ 홍수전(洪秀全, 1814~1864). 청말의 농민전쟁인 태평천국운동(1851~1864)의 지도자. 1851년에 평화롭고 평등한 지상천국을 수립할 것을 목적으로 군사를 일으켜 태평천국을 세우고 자신을 천왕이라 칭했다. 과거에 여러 번 응시하였으나 실패하고, 실의 속에서 지내다가 광저우의 노상에서 얻은 프로테스탄트 계(系)의 그리스도교 입문서 권세양언(勸世良言)을 읽고, 환상에 빠져 자신이 천제(여호와)의 둘째 아들, 예수의 동생이라 믿게 되었다. 그가 만든 상제교는 구약성서의 천부 여호와와 관념과 중국의 전통적인 대동사상(大同思想)을 합체화한 것이다.
- ⁵ 부르블롱(de Bourboulon). 1851~1863년 중국의 프랑스 전권대사였다. 난징에는 1853년 11월 28일 도착하였다.

들은 이 대답을 깊이 새겨야 할 참고사항으로 받아들였다. 폭동을 일으킨 이 인간 쓰레기는 자신을 기독교인으로 공포하였다. 이 기독교는 프로테스탄트들이나 또는 동방에서 온 네스토리우스 교도들을 통해서 정착된 것이며 불교와 혼합되었다.

그러나 기독교는 모든 가능한 방법으로 거기에 도달하고 있다. 그리고 기독교의 정착에 무엇이 작용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중국인들의 종교적 무관심이다. 중국인들에게는 광신적 행위가 없으며 심지어 불교도들에게서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 공자의 가르침은 종교가 아니라 단순한 일상적인 도덕이며 그 어떤 종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실질적인 철학이다. 사실 가톨릭의 신부는 대체로 자신들의 추종자들에게서 요구하는 그런 열렬한 중국 국민을 만날 수 없을 것이다. 이 국민은 완전히 재교육되지 않는 한 오래 기다려야 한다. 그러나 광신적인 저항도 만나지 못할 것이며 지금까지 만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다만 정치적 경계로서 정부 측의 게으른 시스템적 저항만 있다.

아마도 중국인들의 실질적이고 산업적인 정신은 가톨릭의 정심보다 프로테스탄트의 정신에 더 가깝다. 프로테스탄트들은 무역을 시작하고 결국 종교를 들여왔다. 중국인들은 전자에 기뻐했으며 알게 모르게 중국인들에게 어떤 식으로든 방해를 하지 않는 후자를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나 가톨릭 신자들은 종교를 시작하고 중국인들에게 종교사상 비슷한 것이 지금까지 아무것도 없었던 반면 가톨릭의 순수함과 사심 없는 숭배와 함께 종교를 즉시 전파하려고 한다. 사실 그들에게는 하늘의 영혼에 대한 숭배가 있지만 이런 숭배는 민중의 몫으로 돌려지지 않고 아마도 내가 어느 날 언급했듯이 보그드이한⁶만의 특권과 임무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상하이에서 나는 중국어로 된 세 권의 책을 선물받았다. 신약성서, 지리 서적과 이솝우화였다. 이것은 프로테스탄트 선교사들의 과업이었다. 그들은 런던에서 책을 번역하고 인쇄했는데, 얼마나 많은 부수의 책을 인쇄했는지 말하기도 겁난다. 수백만 권이 중국으로 유입되었고 공짜로 배부되고 있다. 나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이런 출판에 거액을 기부했던 영국 부자의 이름을 들었다. 메더스트⁷는 가장 적극적인 선교사들 중의 한 사람이다. 그는 중국에서 30년 동안 살고 있으며 계속해서 기독교의 전파를 위해 열심이며 유럽 책들을 중국어로 번역하고 여러 곳으로 다닌다. 그는 지금 상하이에 살고 있다. 우리 중국 연구자들은 그의 집에 들러 그가 출판한 많은 책들, 유럽에서는 아주 드문 책들을 얻었다. 그는 몇 권을 그들에게 선물했다.

기독교의 성공에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한 가지가 있다. 그것은 기독교를 전파하는 사이에 나타나는 경쟁심이다. 유감스럽게도 그것은 일부 이미 존재하고 있다. 가톨릭 신부들은 자신의 신도들에게 프로테스탄트가 출간한 책을 금지한다. 말하자면 프로테스탄트들은 상하이에서 몇만 권에 달하는 자신들의 책을 들여와서 나눠주었다. 이런 출판물은 대다수 가톨릭 신자인 중국인들에게 전달되었고 가톨릭 신자인 중국인들은 그 출판물들을 자신들의 스승들에게 가져다주었으며 그렇지

6 보그드이한(Bogdykhan), ‘성스러운 군주’라는 의미. 16~17세기 러시아 문서에 중국의 황제들을 일컫는 용어.

7 월터 헨리 메더스트(Walter Henry Medhurst, 1796~1857), 영국의 프로테스탄트 선교사. 1816년부터 극동의 나라들에서 선교활동을 하였다. 1842년 중국의 항구들이 열리자 상하이로 건너와 14년에 걸쳐 활동하였다. 상하이 봉기 당시 메더스트는 봉기군의 지도자와 외국 영사들 사이에서 중재역할을 하였다.

않으면 불태워버렸다.

코박 4일이나 걸려 새들 군도⁸에서 집으로 돌아갔다. 여기서 집은 석 달 동안 집에 있는 것처럼 편안하게 살았던 나가사키를 우리는 그렇게 불렀다. 우리는 이틀이면 갈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늦어졌다. 맞바람을 고려하지 않았으며 그 바람은 우리를 거의 한 장소에 약 40시간을 잡아 두었다. 이번의 짧은 이동에서는 그 어떤 특별한 것도 일어나지 않았다. 나는 배의 흔들림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는데 그것은 바다에서 특별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떠난 지 4일이 다 되어갈 무렵에 고도 섬을 보았으며 그런 다음 모든 것이 어둠 속으로 숨어버렸다. 이때까지는 빨리 도착하려고 부산을 떨었지만, 거기서는 빨리 도착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기 시작했다. 돛을 줄이고 동이 뜨기 전에 입구에 도착하지 않으려고 시속 5마일 정도로 가기 시작했다.

우리는 몰래 나가사키로 숨어 들어갔다.

이른 아침에 나는 소음과 발소리를 들었다. 햇볕에 물들어 있는 낫익은 언덕의 새파란 꼭대기들이 가끔 나의 창에서 퍼뜩 나타났다 사라졌다. 파제예프는 차를 가지고 와서는 절차상 모든 외국 배에 서류를 가지고 나타나는 일본인 한 사람이 벌써 종이를 가지고 왔다고 말했다. “우리는 정박한 거지?” 내가 물었다. “아직 아닙니다.” “우리가 정박장에 있는 것 아닌가?” “예, 그렇습니다.” “일이 어떻게 된 거야?” “돛을 이리저리로 돌리면서 가고 있습니다. 맞바람입니다. 반 베르스타 정도 다가가지 못했어요.” 그러나 도착했고, 명령이 내려졌다. “만에서 나가라.” 그다음 “돛을 내려라.” 정박했다. 나는 갑판으로 나갔다.

⁸ 새들 군도(Saddle Islands).

해가 난 러시아의 9월의 날씨처럼 조금 춥지만 고요했다. 나가사키 항만은 하늘처럼 파랗고 물은 조금 철썩거리고 있다. 언덕들은 예전 그대로인데 바뀐 것도 있다. 마치 태양에 타버린 것처럼 갈색이 되었다. 작년에 이맘때보다 한 달 늦은 시간에 마테이라 섬의 산들이 그랬던 것을 보았었다. 그리고 여기처럼 그곳에서도 군데군데 어린 녹음들이 보였다. 하지만 차이가 있는 것이 마테이라에서는 꽃피는 정원들, 아이비와 포도가 벽을 따라 레이스처럼 꼬여 있고 꽃들은 담장 너머에서 수줍어하며 내다보고 있고, 1월에도 실측백나무와 금매과나무, 코끼리지치 풀 냄새가 섞인 훈풍이 분다. 그곳에는 사원들, 별장들, 포도주와 여인들이 있다. 충만한 삶이 있다. 여기는 무와 당근이 심어져 있는 텃밭, 담장들은 있지만 꽃은 없고, 사원이 아니라 목조로 된 절이 있다. 여자들이 있지만, 어떤 여자들인가? 삶의 첫 번째 페이지가 아니겠는가. 게다가 추웠다!

다시 예전처럼 일이 진행되었다. 바로 저쪽에서 일본인들이 오고 있다. 바니오스들이다. 그들과 함께 쇼자도 있다. 그들은 도착한 것에 인사를 하러 왔다. 선장실에서 P.와 이야기를 나눈 후 제독에게 인사를 드리러 후갑판으로 갔다. 오이-사브로스케는 어린아이의 얼굴을 하고 있지만 여기서 가장 연장자였다. 그는 제독 앞에 앉자마자 마치 장난치듯 주변에서 눈으로 뭔가를 찾았다. “아, G.G.!” 그는 나를 보자 어린아이의 목소리로 소리치며 웃었다. 그러나 진지한 질문이 그를 멈추게 했다. “여기에 전권대사들이 왔습니까?” “삼 일 후에 올 겁니다.” 그가 쇼자를 통해 대답했다. “만약 오지 않는다면,” 덧붙여 말하라고 명령이 내려졌다. “우리는 가려고 했던 예도로 갑니다. 시간은 소중한고 그걸 허비하지 않을 겁니다. 아마도 전권대사들이 여기에 있는데, 당신들은

우리에게 말하려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그들은 여기에 없습니다.” 그들은 단언하기 시작했다. 이 위협이 그들에게 얼마나 잘 작용을 했는지 그들은 지금 당장이라도 숨어버릴 듯했다.

저녁에 나는 내 선실에서 책을 읽고 있는데 벽 너머에서 마치 나뭇개비를 쪼개는 듯한 소리가 들렸다. “거기에 무슨 일이야?” 내가 물었다. “일본인들이 저기 있습니다.” “또 왔어? 누가 나무 쪼개는 소리를 내는 거야?” 그건 기치베가 말하는 것이었다. 나는 선장실로 갔고 거기서 에이노스케, 기치베, 바니오스들 중에 직위가 높은 하기와라 마사사, 또다시 온 오이-사브로스케와 두 명의 대리인 관리들을 만났다. 모두 낯익은 얼굴들이었다. “안녕하시오, 에이노스케, 안녕하시오, 기치베.” 기치베는 나의 이름을 목청껏 외쳤고 에이노스케는 손을 내밀었으며 사브로스케는 미소를 지었고 하기와라는 황소처럼 고개를 숙이고는 나에게 주먹을 내밀었다. 거기에는 그 대리인 일본 관료도 있는데 그는 어느 날 마음씨 좋은 아줌마처럼 부드럽게 나를 바라보았다.

그들은 제독에게 안내되었다. “영주들께서는 무사히 도착한 것에 대해 축하드리고 안부를 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기와라가 말했다. 기치베는 의자에서 네 번 몸을 돌리면서 껍껍거리듯 말했고 각 음절을 또박또박 발음하면서 웃음에 목이 메었다.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 영주들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그들에게 대답했다. 기치베는 대답을 통역했다. 머리를 뻑뻑 밀은 네 명의 일본 바니오스들 모두가 한번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 다시 하기와라가 뭔가를 말했다. “영주들께서는 건강에 대해 물으라고 명령했습니다.” 기치베가 통역했다. “감사합니다. 그들도 건강하시길 바랍니다.”라고 대답하라고 명령했다. 절을 다시 하였고 답을 하였다. “아주 건강하십니다.” “영주들께서는 전권대사의 건

강이 앞으로도 만족스럽길 원합니다.” 기치베가 계속했다. 그들에게도 똑같이 기원해주었다.

만약 일본 바니오스들에게 과실주를 내오지 않았거나, “전권대사들이 나가사키에 왔나요?”라는 질문을 다시 하지 않았다면, 이 대화가 언제 끝이 날지 알 수 없었을 것이다. 그들은 전권대사들은 아직 오지 않았으며 아침에 우리에게 실수로 말한 3일 후가 아니라 5일 후에 올 것이며 더구나 이 5일은 12월 8일이나 9일부터 세야 한다고 말했다. 그들에게 말을 끝낼 기회를 주지 않았다. “만약 토요일에,” 그들에게 말했다(그날은 수요일이었다). “전권대사들이 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떠날 겁니다.” 그들은 흥정하기 시작했고, 전권대사들이 도착할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간청하기 시작했다. “그때 원하는 대로 하세요.”라고 덧붙였다.

보건대 영주는 우리를 붙잡아두라는 명령을 받은 것이 분명하였고, 우리가 무슨 일을 시작하든 그 모든 것에서 책임을 피하기 위해 고위인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긍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아마도 전권대사들은 정말로 여기 있을지도 모른다. 어떻게 사실을 밝힐 수 있을까? 그들 쪽에서 속일 수 있는 수단을 모두 동원하고 있는데, 그들은 어떤 한 전권대사가 도중에 병이 났으며 나머지 세 명은 그 없이는 일을 시작할 수 없다는 등등을 우리에게 말할 수 있다. 그리고 그들의 말을 검증해볼 방법은 없다.

이미 아침부터 우리는 에도로 갈 경우를 대비해서 그들에게 오래 정박해 있을 정도의 물과 식료품을 요청했다. 바니오스들은 오는 편에 많은 가축과 채소, 과일들을 가지고 왔고, 사탕은 상자가 아니라 귀짝으로 가지고 왔다. 영주가 보낸 선물이라는 것이다. 그들에게 말해주기를

우리는 이미 선물을 한번 거절한 적이 있다. 왜냐하면 영주가 우리에게서 아무것도 받으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시 한번 설득이 시작되었다. 기치베는 우리를 설득하기 위해 발꿈치까지 내려오는 자신의 겨울 겹옷에서 완전히 기어나왔지만 헛수고였다. 식료품은 다시 보트에 실으라고 명령했다.

그때 역관들은 영주들에게 가서 그들의 대답을 알아보도록 허락해달라고 요청했다. 바니오스들은 남았다. 그들에게 그림을 보여주었고, 풍금을 켜주는 등 그들의 흥미를 끌려고 온갖 노력을 했다. 그러는 사이 영주의 선물은 피라미드처럼 갑판에 놓여 있었다. 발이 묶여 있는 돼지들은 일어서려고 필사의 노력을 했으며 날카로운 비명을 질렀다. 광주리에 딱 차 있는 수탉들은 그 좁은 공간에서도 자기들끼리 싸웠다. 닭들은 정신없이 꼬꼬댁거렸다. 갑판에 마늘, 무, 오렌지 냄새가 풍겼다. “하이, 하이, 하이.” 기치베는 선실에서 예전처럼 같은 말을 반복했으며, 에이노스케는 알랑거리는 조용한 목소리로 나에게 영국인같이 혀 짧은 소리로 우리가 어디에 갔다 왔는지 물었다. “중국예요.” 내가 말했다. “무엇을 보았습니까?” “많은 걸 보았지요. 말이 난 김에 하자면 폭도들과 황실군이 싸우는 것도 보았지요.” “또요?” “또라면 ……” 나는 그가 무엇을 얻어내려 하는지 알고 있었지만 그를 괴롭히고 싶었다. “또 미국인들도 보았지요.” 내가 말했다. “누구라구요?” 그가 생기 있게 내 말을 가로막았다. “페리 제독을 ……” “페리 제독을요?” 그가 더욱 생기 있게 말을 받았다. “그를 만나지는 못했고 미국 코르벳함 ‘사라토가’호의 선장을 보았어.” “사라토가 ……” 이것들 모두는 일본인들에게 익숙한 배 이름이다. 그 배들은 에도에 있었다. “페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미국에 있습니까?” 그가 자신의 코를 거의 내 코에 바짝 들

이대면서 물었다. “아니, 미국이 아니라 아모이에 있어.” “아모이요?”
“아니면 닝보에 있어.” “닝보요?” “아마도 홍콩에 있을지도 모르겠군.”
내가 무심하게 말했다.

반시간 후에 그는 하기와라에게 이 대화를 전했다. 나는 ‘아모이, 닝
보, 홍콩’이라는 명칭을 들었다. 하기와라는 그것을 적었다.

“당신들은 상하이라도 가려고요?” 내가 에이노스케에게 말했다. “거
기서 유럽 도시의 모형을 볼 수 있을 거예요.”

“네.” 그가 대답했다. 나는 더 이상을 원했던 것 같다. 나는 세계일주
를 떠나고 싶은 것인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은 나를 미혹시키고 있다.

“우리는 바로 러시아로 떠날 겁니다.” 내가 말했다. “거기서는 도시
들, 사원들, 궁전들이 있고 군대도 볼 수 있을 겁니다.”

“러시아로 가시면 안 됩니다.” 그가 생기 있게 말을 가로챘다. “거기
에는 여자들이 없잖아요.”

“누가 당신에게 그런 말을 했습니까?” 내가 말했다. “여자들이 없
니. 많아요(Plenty). 당신은 결혼했습니까?”

“네. 저는 10개월 된 딸이 있습니다. 최근에 천연두 예방접종을 했
지요.”

“그런데 여자들이 있든 없든 무슨 상관입니까?” 내가 물었다.

그는 웃었다. 일본 돈 후안이라니.

저녁 무렵에 영주에게서 선물을 받겠다는 승낙이 왔다. 전권대사들
의 도착에 대해서는 영주는 전권대사들이 정부의 완전한 신뢰와 막대
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덧붙이면서 다시 토요일 대신 목요일까
지 기간을 달라고 요청했다. 이것은 모두 우리가 전권대사들의 도착에
관심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였다. 바니오스들은 전권대사들이 600명의

수행원과 함께 오며 그 때문에 천천히 올 수밖에 없고 네 명 모두 동시에 오지 못하고 각자 온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만약 영주가 목요일에 전권대사와의 만남을 보증해준다면 우리는 기다릴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우리는 에도로 갈 것이라고 대답하도록 했다.

그 결정은 그들을 매우 기쁘게 했다. 그래서 그것으로 짐작해보건대 만약 네 명 모두가 아니라면 한 명의 전권대사라도 여기에 있다는 결론을 지을 수 있었다.

영주에게서 온 사탕과 식량이 갑판에서 재빠르게 치워졌고 우리 쪽에서 줄 선물들의 배정에 몰두했다. 이날 저녁에 일본 바니오스들이 돌아오는 편에 첫 번째 영주 오사와 분고노에게 보내는 선물만 보냈다. 공작석으로 만든 탁상용 시계, 동으로 만든 조각상들, 그리고 두 개의 크리스털 꽃병이었다. 그 외에 리큐어, 세리주, 몇 개의 막대 설탕을 보냈다. 그들에게는 각설탕은 없고 가루설탕만 있다.

다른 영주와 오퍼 바니오스들, 두 명의 고참 역관과 나머지 젊은 역관들, 총 20명에 달하는 사람에게 줄 선물을 골라야 했다. 대단한 소란이 일어났다. 수송선의 온 선창을 헤집어서 거울, 천, 직물, 회중시계 등을 구했고 그런 다음 누구한테 무엇을 줄지를 정해야만 했다. 이 일에 적지 않은 수고를 해야 했다. 우리는 중요한 사람들의 이름은 알았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몰랐기 때문이다. 그들은 얼굴로만 기억했다. 그 때문에 우리는 목록에서 그들 이름 밑에 사팔눈, 말라깽이, 곰보, 절름발이라고 표시를 했고 다른 사람들은 닮은 러시아 지인들의 이름을 붙였다. 어쨌든 이것은 순조롭게 되었다. 대략 이틀 동안 선물을 실어날랐다. 다른 영주에게는 큰 거울과 카펫, 두 개의 다채로운 색깔의 실내용 등을 선물하였다. 일본 바니오스들에게는 거울, 모직 천, 겹옷을 만

들 직물을 나눠주었다. 무언가 도움을 준 사람이면 그 누구도 잊지 않고 챙겼다. 물과 식료품을 나르는 일을 감독한 가장 하급 관리에게는 가운데 작은 물건들을 주었다.

일본인들에게는 모직 천이 없어서 그들 모두가 그 천을 사용하는 방법을 아는 것은 아니었다. 그들이 그 천이 무엇인지 알도록, 그리고 입고 다니는 것에 익숙해지도록 일부러 그 천을 일본인들에게 선물했다. 필요성이 있었다. 겨울에 그들은 린넨 소재의 가운데 세 겹 네 겹 껴 입고 다닌다. 그런데 모직 천 하나면 그것들보다 더 따듯하다. 하지만 평민들은 해가 비쳐 따듯해질 때 벌거벗은 채로 돌아다니고, 추울 때는 어깨에 누더기를 걸치고 다닌다. 가난한 사람들을 보는 것은 불편했다. 가난한 사람들은 일본 관료들이 선실에 앉아 있을 때 배에서 세 시간 가량을 기다리면서 가슴과 어깨, 다리를 헐벗은 채로 드러내고 추워서 새파랗게 되어 떨었다.

또한 일본인들에게 거울을 선물했는데, 그들은 거울 대신에 반들반들한 금속이나 도자기를 사용하고 있다. 그림들과 온도계, 컴퍼스, 여성용 휴대 가방도 나누어주었다. 한마디로 말해 모든 것들이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고 수요를 만들 수 있는 것들이었다.

다음 날, 24일, 크리스마스이브에 날씨는 아주 좋았다. 그런 날을 잊기는 힘들다. 하늘과 바다는 하나의 푸른 덩어리가 되었다. 공기는 따뜻했고 움직임이 없었다. 나가사키만은 얼마나 좋은지, 햇볕을 듬뿍 받은 나가사키는 무언가 훌륭해 보였다. 갈색의 언덕들 사이 어딘가에서 쌀, 밀 또는 채소가 새롭게 파종되고 새싹이 올라와서 선명한 파란색을 띠고 있다. 바다를 쳐다보면 그것은 끝없이 펼쳐진 감청색 휘장이었다.

이날 일본 바니오스들과 함께 시노와라[篠原] 토모타로[智太郎]라는 새로운 관리가 나타났다. 그는 전권대사들의 수행원에 속한 사람이었고 마치 먼저 도착한 척을 했지만 그들과 함께 온 것이 분명했다. 그들은 영주가 회동에 대해 책임진다는, 즉 전권대사와의 만남이 목요일에 이루어진다는 보증을 가지고 왔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남게 되었다.

마침내 우리의 일본 체류 중 가장 흥미로운 시기가 왔다. 이런 식으로 일이 시작되었다. 이 일을 위해 두 나라에서 온 파견단들이 동시에 도착했다. 우리는 진행될 일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토론하였다. 하지만 이 어리고 뒤떨어져 있지만 교활한 민족과 올바른 결론을 내는 것은 불가능했다. 이전의 편지들 중 하나에서 나는 그들의 행동 방법에 대해 말한 적이 있다. 여기에서는 아무리 인간적 마음과 경험이 있다고 해도, 그 민족의 세계관과 도덕, 풍습에 대한 열쇠가 없는 곳에서는 이성과 논리의 일반적 법칙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어렵다. 마치 문법과 어휘를 모르고서 그들의 언어로 이야기하는 것이 힘든 것처럼 말이다.

어제 우리는 일본인들에게 전에 보여주었던 그 장소들 말고 다른 좋은 장소를 우리에게 제공해주어야만 한다고 미리 이야기를 해두었다. 그들은 이 일에 미리 설명을 준비하고 있었다. 하기와라는 바로 품속에서 도면을 꺼내더니 우리를 어느 장소로 데리고 갈 건지 가리켰다. 도시 가까이 있는 어떤 곳이었다.

“그곳에는 절이 있습니다.” 그가 덧붙여 말했다. “승려들은 잠시 거기서 나가 있을 겁니다.” 절 말고도 집이 한두 채 있는데, 그 집에 사는 관리들도 마찬가지로 나가 있게 할 것이다. 내일 K.N.P-t.는 제독의 명령에 따라 그곳을 살펴보러 갈 것이다. 영주들은 우리 비위를 맞추어 주려고 온 힘을 쓰고 있거나 아니면 적어도 비위를 맞추어주려는 모습

을 보여주는 척하는 것 같았다. 석 달 전과는 완전히 반대다. 우리의 도착이 에도에 준 인상, 에도에서 우리와의 협상을 위해 고위관료를 임명한 것, 그리고 마침내 아마도 우리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영주에게 내려졌을 지침들, 이 모든 것들이 영주들의 거만한 콧대를 많이 꺾어놓았다.

이번에 우리는 나가사키에 들어올 때 어둠 속에서 아주 조용히 들어와서 노모반도에서도 우리를 알아채지 못했고 우리가 닳을 내렸을 때 야 포진지에서 포를 쏘아 도시에 우리의 도착을 알렸을 정도였다. 우리는 일본인들을 불시에 놀라게 했다. 정박지에는 한 척의 감시선도 없었고, 세 시간쯤 지나서야 나타났는데 우리에게 바짝 붙어 있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배들을 멀리 끌어내도록 단정들을 보냈다. 스쿠너선과 수송선은 나가사키만 깊숙이 들어갔으며 우리는 마치 집에 온 것처럼 자리를 잡았다. 감시선들은 사라져서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다. 영주들은 우리가 원하는 바를 미리 알아차렸다.

오늘, 26일에 관리들이 선물에 대해 다시 감사인사를 하러 와서는 또 장소의 도면을 보여주었다. 우리도 그들에게 식료품에 대해 고맙다고 인사를 했다.

크리스마스는 마치 우리가 러시아에 있는 것처럼 지나갔다. 일본인들을 배웅하고 나서 철야예배를 끝까지 들었다. 어제는 아침예배와 간단한 기도를 드리고 서로 축하를 하고 나서 제독의 방에서 식사를 하였다. 그 후에는 음악이 연주되었다. 에이노스케는 모두 정복을 입을 것을 보고서 어떤 축제인지를 물었다. 비록 그들과 기독교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피해야 했지만, 나는 그에게 말해주었다(우리의 모든 것에 대해 그들에게 조금씩 가르쳐야 한다). 그런 다음 이리로 왔다.

아마도 다시 신의 말이 이곳에 스며들고 십자가가 우뚝 세워질 시간이 멀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이미 그 어떤 힘도 그것을 쫓아내지는 못할 것이다. 언제일까? 신은 우리가 수줍은 첫걸음이라도 그것을 향해 내딛게 할까? 여기 정부와는 소란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 전 세계와 동떨어져 있으려는 (정부의) 시스템은 굳건하다. 세계와 가까워지는 것에 반대하는 모든 조치들이 채택된다. 일본 국민들에게 우리의 생활양식을 알게 하고 일본인들을 유럽인들 쪽으로 끌어들이는 것은 쉽지 않다. 아직 유인할 것도 유혹할 것도 없다. 일본 정부는 이것을 알고 사치스러운 모든 물건들, 특히 새로운 물건들을 들여오는 것을 엄격히 금하고 있다. 우리의 선물들은 관리들의 손에 전달되지 않았다. 에이노스케는 어제 물건 목록이 에도로 갔다고 말했으며 만약 거기서 허락이 오면 그때 그것들을 나눠줄 것이라고 했다. 그들은 모든 것에 금지가 있다. 오늘 P-t는 일본 바니오스들에게 은시계들을 선물로 주었다. 그 은시계들은 다른 선물 목록에 포함시켜 보내는 것을 깜빡한 것이다. 다른 선물들 목록에 첨부하는 것보다 그렇게 주는 것이 더 간단하지 않은가? 아니다. 그러면 안 된다. 영주에게 물어야 한다. 그러면 영주는 막부에게 막부는 쇼군에게 쇼군은 일본 천황에게 물어볼 것이다. 오늘 일본인들에게 다시 말해주기를 전해 말했던 두 사람 대신 세 사람이 P.와 함께 장소를 살펴보러 갈 것이라고 했다. 다시 의심은 이런 사소한 일에서도 일어난다. 심지어는 오랫동안 협의를 한 후에도 거절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리고는 말을 듣지를 않았다.

그리고 이렇게 모든 것에 하나의 변하지 않는 질서가 있다. 이것을 파괴하고, 일본인들을 건전한 의미로 돌리는 것은 오직 하나 힘 말고는 다른 어떤 것으로도 불가능하다. 일본인들은 오랫동안 자신의 도시들

에 외국인들이 자유롭게 다니고 국내에서 왕래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고, 외국인과 교역을 시작하기로 결정한 그때에도 개인적인 관계를 가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만일 지금 일본인들이 예전에 네덜란드인들과의 관계에서 사용했던 그런 규제들로 외국인들과의 교역을 이미 조절할 수가 없다고 하면 반대로 외국인들도 일본인들이 자발적으로 완전히 유럽의 방식으로 행동하게 만들 수가 없는 것이다. 계획도 신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한 가지 희망은 그들의 소심함이다. 유럽인들 쪽에서의 협박과 일본인들 쪽에서의 평화의 바람은 일본인들이 몇 가지 제한들을 폐지하도록 교섭해서 얻어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내가 전에 말했던 것처럼 말 그대로 대외적인, 긴급한 상황만이 그들의 시스템을 흔들어놓을 수 있다. 비록 국민들이 스스로 개혁의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말이다.

오늘 러시아 달력에 따르면 12월 28일에 하키와라, 오이-사브로스케와 사브로가 전권대사들이 도착했다고 말하기 위해 왔다. 에이노스케와 기치베는 예식용 실크 가운과 새 상의(항상 검은색)에 실크 치마를 입고 있다. 첫 만남은 목요일로 예정되었다. 제독은 전권대사들이 프리깃함으로 오기를 원했다. 왜냐하면 제독은 이미 일본 땅으로 한번 갔었고 러시아 정부에서 보낸 서류를 전달했으니 따라서 지금은 그들이 제독에게 대답을 알려주기 위해 그 대답을 스스로 가지고 와야만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될 것인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장소를 보고 와서는 좋다고 말했다. K.N. 포시에트와 함께 V.A. 림스키-코스사코프, I.V. 푸루겔름과 K.I. 로세프가 다녀왔다. 장소는 협에서 내부 정박지로 들어가는 입구 옆에 있는 왼쪽편 곳에 있었다. 오늘 바니오스들에게 말하기를 그 장소로 가는데 멀지 않도록 프리깃

함을 해안 쪽으로 끌고 가야 한다고 했다. 또다시 곤란과 의논, 그리고 결국 항상 같은 대답이 돌아왔다. “영주께 물어보겠습니다.”

영주에게 물어보았다. 그는 말하기를 무엇인가를 그 장소에서 치위야 하고 관리와 승려들은 거기서 이동하지 않았다고 했다.

어제와 오늘은 만남에 대한 이야기가 진행되었다. 제독은 만약 1월 1일(13일)에 만남이 성사되지 않는다면 나가사키에 머무를 수가 없다고 선언했다. 제독은 전권대사들이 자신에게로 오기를 바란다고 말하라고 명령했지만, 그들은 대답하기를 여정이 피곤했다고 말하면서 자기 쪽으로 오라고 부탁했다. 제독은 그들이 평소처럼 일을 질질 끌 기회를 놓치지 않을 것이라고 의심하면서 그들에게 몇 가지 조건들을 제시했고, 저녁까지 시간을 준다고 선언했다. 바니오스들은 저녁에 전권대사들이 동의했다고 말하러 와서 그 조건들에 대한 기록을 그들에게 주기를 요청했다. 우리는 주었다.

오늘 30일 잠이 깨자마자 말해주기를 기치베와 에이노스케가 아침 6시부터 우리 배에 앉아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일이 빨리빨리 돌아가기 시작했다. 기치베에게는 특히 불행이 따로 없다. “누워서 아무 것도 하지 않는 것을 좋아한다.”라고 그는 여러 번 말했다. 바니오스들이 도착했고 네덜란드어와 일본어로 된 서류를 가지고 왔다. 이 서류에는 모든 조건에 대한 동의가 명시되어 있는데 다만 두 가지 조항만 예외를 두었다. 한 가지는 우리 선원들이 지정된 장소에서 내일 비켜 달라는 것이다. 말하기를 장소가 아직 완전히 준비되지 않아서 3일을 기다려 주기를 요청했다. 두 번째는 전권대사들이 다음 날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이틀 후에 온다는 것이다.

제독은 왜 그렇게 되었는지 추측하는 수고를 스스로 지지 않았다.

게다가 일본인들이 길일과 흉일을 믿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사소한 것으로 일을 지연시키지 않고 일을 바로 착수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직접 가는 것이 좋겠다고 동의를 했다.

만남의 중요한 조건들은 전권대사들 중의 한 명이 집 입구에서 제독을 영접하는 것, 그리고 점심이나 아침 식사를 대접할 때 일본인들도 같이 있으면 한다는 것이다. 후자는 오사와가 원하는 바가 아니었다. 그의 원칙은 그 없이 음식을 대접한다가 아닌가. 그리고 우리 의장대는 군악대를 제외하고 40명으로 구성하며, 장교들은 저번보다 세 배 많아질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총 9척의 단정에 타고 갈 것이다. 마침내 우리 쪽에서는 전권대사를 응당한 존경으로 맞이하며 만일 그들이 원하는다면 예포를 쏠 것이다.

마지막에 전권대사들은 자신들이 도착하기 하루 전에 축포에 대해 알려달라고 말했다. 그러나 제독은 그들이 축포를 받아들일 것인지에 대한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서 우리의 단정들이 전함을 떠나자마자 축포를 쏘기로 결정했다. 그들은 소란을 떨 것이다. 나머지 모든 것은 이전과 마찬가지로일 것이다. 즉 배들은 깃발들로 장식될 것이고, 수병들은 등현례⁹나 기타 등등을 할 것이다.

⁹ 등현례(登舷禮). 해군에서 승무원 전원이 양쪽 뱃전에 벌려 서서 하는 예식의 하나.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XI.

1
8
5
4
년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1월 1일(13)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당신은 지난해를 어떻게 보내고 새해를 맞이했나요? 항상 그렇듯 모여서 놀 하던 대로 춤을 추고 떠들고 카드놀이를 하고 자정에 하는 싸움을 기다리면서 여러 번 하품을 하고 결국 고대했던 순간을 맞이해서 잔을 잡았겠죠. 5년, 10년 전과 다름없겠죠.

생애 처음으로 나는 지난해의 마지막 날을 다르게, 이전과는 다르게 보내는 일이 발생했다. 나는 이날 일본 귀족 집에서 식사했다. 만약 당신이 지루해하지만 않는다면 내가 어제 보았던 전부를 상세하게 이야기할 테니 들어보세요. 어제의 모든 장면을 독특하고 분명하게 표현해 내기가 힘들군요. 한 가지 약속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어제는 어떻게 보냈는지에 대해 진솔하게 이야기하겠다는 겁니다.

아침 11시에 우리들을 전함에서 싣고 가기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예정된 시간보다 얼마나 늦게 도착하는지 알 수 있도록 시간을 정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상류사회에서는 의례적인 일이죠). 상류사회 사람들과 같은 대우를 받으며 우리는 12시 반에 운반되었다. 당신은 ‘운반되다’라는 말에 웃음을 짓고 있군요. 상류사회에서 그 말은 일상적인 말은 아니지만 여기서 우리들 사이에서는 ‘운반된다’라는 말은 고상한 말에 속하죠.

우리는 운반되었다. 길이가 1베르스타 정도 되는 9척의 보트를 타고 갔다. 도시로 가는 첫 여행길과 같은 그런 순서로 갔다. 대위인 대장 포시에트가 기슭에서 보초를 만나 조정하기 위해 제독의 소형 보트를 타고 앞에 갔고 그다음엔 긴 보트를 타고 경비병을 포함해서 15명이 타고, 그 뒤를 이어 군악대가 탄 대형 보트가 뒤따랐다. 그다음에 의자와 하인들을 태운 대형 보트가 뒤따랐다. 다음 두 척의 보트에는 다른 배

들에서 온 대략 15명의 장교들이 자리했다. 결국 제독의 보트에는 제독 본인을 제외하고 4대의 배에서 온 사령관들 운코프스키, 대위 코르사코프, 나지모프, 무루겔름, 법률담당 대위인 크리드네르, 중국어 통역관 고수케비치와 당신의 보잘것없는 하인이 자리했다. 그다음에 두 대의 구명용 보트와 장교 몇몇을 태운 대형 보트가 뒤따랐다.

사람들은 예전처럼 ‘만세’ 삼창하면서 마당을 지나 우리를 안내하기 시작했다. 다채로운 깃발들은 다시 한순간에 시들어갔고 갑자기 위에서 던져진 꽃다발처럼 보였다. 음악은 국가가 연주되었다. 인상은 처음과 똑같았다. 나는 폭죽을 초조하게 기다렸다. 이젠 새로운 거니까. 나는 일본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보고 싶었던 걸까?

그렇다. 나는 처음에 지정된 시간 30분 전에 도시에서 영주를 따르는 나이 든 관리가 ‘전권대사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하러 왔다는 것을 잊었다. 일본 관습에 따라 그 뒤를 따라 귀족들과 또 다른 관료의 꼬리가 늘어졌다. 관리는 차 한 잔과 두 잔의 세리 브랜드를 마시고 가버렸다.

귀족들이 폭죽을 터트릴 것이니 전함에서 좀 더 멀리 떨어져 있으라고 모든 일본 선박에 명령하도록 제독이 통역관들에게 말하라는 임무를 포시에트에게 맡기자마자 일본인들이 배에 타기 시작했다. 그는 폭죽을 터트리지 말아달라고 일본 측에서 반대와 요청이 나올 것을 예견하고 미리 이를 알리려고 하지 않았다. 귀족들은 이런 갑작스런 소식에 꼼짝하지 않았다. 한 사람이 내려가려고 사닥다리에 발을 옮기는데 발을 올려놓은 채로 몇 분 동안 멈춰 있었다. 군중은 모두 그 뒤에 멈춰섰고 고위관리는 이미 자신의 배에 앉아서 다른 사람들을 기다렸다. 귀족은 정신을 차린 후 그에게 소식을 전하기 위해 뛰어갔으며 그 즉시

그들이 영주에게 알리러 갈 때까지 축포를 터뜨리지 말고 기다려 달라는 요청을 하려고 돌아섰다. 그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우리는 그들에게 재촉했다. “좀 더 빨리 가세요. 우리도 지금 갑니다.” 배에서 움직이지 않고 모두들 사닥다리에 서서 묻고만 있었다.

우리는 일본인들이 당황해하는 것을 보고 웃음을 참을 수 없었다. 나는 ‘Misverstand’라는 단어를 통역관에게서 듣고 무슨 말인지 알아보고 다가가자. 통역관은 일본인 포대에서 축포에 대해 예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오해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인도 포를 쏘아 올리려고 할 것이라는 사실이다. “필요 없어. 발사.” 그들에게 말했다. “축포에 대응해줘야 해.”라고 하면서 말이다. 모두들 쉽게 떠나지 못하고 있었다. “시간이 됐어요. 시간이 됐어요.” 그들을 재촉했다. “이제 발포할 겁니다. 무기 있는 곳으로 가세요.” 오래전에 그렇게 말했어야 했는데. 사다리를 오르던 짚신소리는 다시없을 정도로 다정했다. 그들은 떠났고 모든 배는 철수했다.

우리도 자리를 떴다. 다만 우리 보트들은 마지막 배의 뱃전에서 연기가 나며 발포되자 전함 앞쪽으로 갔다. 갑자기 산이 깨어났으며 마치 어떤 거인이 박장대소를 하는 것처럼 메아리가 터져나왔다. 또 한 발이 발포되었고 그 뒤를 이어 코르벳함에서 한 발, 다시 우리 함대에서 발포되었다. 산에서는 웃음소리가 터져나왔다. 반복해서 발포되었다. 두 척의 선박이 한순간 경쟁했고 서로를 추격하기도 했다. 산들은 깨어났고 영주들은 아마 산보다 더 정신이 번쩍 났을 것이다.

영주가 첫 만남에서 표현했던 것처럼 만약 일본인의 눈이 일본에서 낯선 배를 보는 것이 괴롭다면 일본인들의 귀는 타국의 대포가 터지는

소리를 듣는 것이 더욱 고통스러울 거라고 생각되었다. 그들의 대포는 작았고 푼소리는 산을 깨우지 못했다. 나는 배들, 일본의 보트들을 보았다. 그 어디에도 그 어떤 움직임도 없고 다만 두 마리의 개가 왔다 갔다 하며 숨을 자리를 찾지만 그 어디에도 없었다. 그 개들은 발포하자 산으로 뛰어갔고 거기서 포성의 메아리를 쫓았지만 끝나버렸다. 포성은 잠잠해졌고 산은 다시 잠들었으며 개들도 조용해졌고 높은 곳에는 일본의 긴 옷을 입은 몇 사람이 보였다. 우리의 노 젓는 사람들은 조용했지만 노를 가슴에 꼭 안고 있었다. 우리는 이미 만으로 향해 멀리 깊숙이 들어왔고 발포해서 나온 연기는 느린 무늬를 만들면서 물 위를 미끄러져 바다를 향해 조용히 갔다. 저 멀리, 배에서 약하게 음악소리가 들렸다.

우리는 익숙한 아름다운 만, 언덕·바위·숲을 지나 앞으로 빠르게 움직였다. 나는 처음에 이 모든 산과 숲이 절·별장·정자·조각상들로 이루어져 있고 만의 물은 배와 돛대더미들로 가득 차 있으며 기슭은 유럽 사람들에게 점령되었다는 사실에 몰두해 있었다. 아마조나들이 뛰어다니는 공원길이 내 눈에 띄었다. 그러나 도시에 더 가까이 가자 러시아·미국·영국의 전진기지들이 나타났다.

일본인의 선박들이 다시 우리를 추월하려고 서두르면서, 특히 도시로 더 가까이 가려고 온 힘을 다했다. 그러자 노 젓는 사람들은 잠자코 있기도 하고 갑자기 절망적인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오실리아 사람들이야, 오실리아 사람들이야.” 우리의 노 젓는 사람들은 그들의 고탈소리에 사로잡혀 노를 두드리고 그러다 갑자기 정신이 든 것처럼 다시 물을 조용히 퍼올리기 시작했다.

마침내 도착할 시간이 되었으니 자제해야 한다. 일본, 특히 이 신비

로운 나라에서 “말대로 일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이 입증될 수도 있다. 이 속담은 여기서 탄생된 것은 아니지만 동쪽의 이웃들에 전해졌고 다른 많은 것처럼 우리에게도 전해졌다. 그러나 우리는 성장했고 속담은 우리의 민담에 남아 있다.

반대로 일본에서는 지금까지도 일이 빨리 성사되지 않으며 이런 약점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조차 환영받지 못한다. 우리 배에서 나가사키까지 족히 3시간 15분은 타고 가야 한다. 일본인들은 종종 우리에게 오고는 하는데 우리들을 도시에 초대하기 위해서, 갈아타는 데 쓸데없는 시간을 버리지 않기 위해서일까? 결코 아니다. 왜일까? 상부에 물어야 하며 상부는 쇼군에게 물으며 쇼군은 천황에게 보낼 것이다.

일본 선박은 끊임없이 우리 선박과 함께 붙어 있기를 원했다. 이를 벗어나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 한 척의 배는 다른 배를 가로질러 갔고 일본인들이 기슭으로 우리를 보내주면 안 된다는 명령을 받았음에도 지금 보낼 수밖에 없다는 듯 모두 안절부절못했다.

그다음엔 이전처럼 진행되었다. 다시 말해 악단, 경비병, 모두는 자신의 자리에 있었다. 그리고 일본 군대도 길 양쪽으로 늘어섰다. 군인들은 머리에 종이로 만든 모자를 쓰고 무기를 들거나 커버를 씌운 무기를 들고, 다리는 벌리고 무릎은 앞으로 내밀고 있다. 내가 다시 알아채지 못했던 말도 여기에 있고 노리몬도 장로도 잠이 오는 눈을 하고 통역관 무리도 귀족도 있다. 일본인들은 우리보다 먼저 집으로 가려고 가운을 걸치고 체통을 잊은 채 신발을 잃어버릴 정도로 폴짝 뛰면서 우리 뒤를 따랐다. 현관에는 그런 인물들이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다. 그런데 현관에 어떤 이상한 머리 장식을 한 전권대사들 중 어린 자가 명령에 따라 서 있었다.

우리는 그를 잘 살펴볼 수 없었다. 그는 앞으로 걸어갔고 우리는 그 뒤를 따랐다. 응접실 옆방에는 처음보다 좀 적은 관리들이 앉아 있었다. 우리는 영접실로 우르르 들어갔다. 그 어떤 소음과 움직임도 이런 평화로운 갤러리에서는 들리지 않았다. 하얀 종이 허수아비들 속에서 서로 눈에 띄지 않게 그림자처럼 일본인 관리들이 가끔 네 발로 기면서 여기까지 미끄러져 들어왔다. 그러나 곧이어 아주 강한 발걸음들이 울려 퍼졌다.

우리가 영접실로 들어간 그 순간에 반대편에서 스크린들이, 마치 무대처럼 움직였으며 거기서 천천히 한 사람씩 전권대사들 전부가 움직였다. 어떤 노인이 나타났다. 늙어서 그의 입은 계속 조금 벌어져 있었다. 그 뒤를 따라 다른 사람이 뒤따랐는데 대략 45세 정도로 보이고 커다란 갈색 눈에 영리하고 민첩한 얼굴을 하고 있다. 세 번째 사람은 매우 나이 든 사람으로 마르고 거무스름하며 시선을 낮게 하고 마치 평생 은거생활을 한 듯 조금 새와 비슷한 얼굴을 하고 있다. 네 번째 사람은 중년의 나이로 매우 평범하고 아무런 표정이 없는 그런 얼굴을 하고 있다. 그런 얼굴들에서 당면한 일상적이고 평범한 근심 외에 다른 것에 대해서 거의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읽을 수 있다.

그들은 네 줄로 서 있었고 우리는 서로 인사를 나눴다. 전권대사들 옆 오른쪽에 두 명의 나카사키 영주가 자리했고 왼편에 에도에서 온 또 네 명, 중요한 인물로 보이는 사람들이 자리했다. 전권대사들 뒤편에는 그들의 경호원들이 칼을 차고 앉았으며, 창문 왼편에는 에도에서 온 듯한 관리들이 나란히 앉아 있었다. 적어도 우리는 그들 사이에서 지인들을 알아볼 수 없었다.

총 네 명의 전권대사는 민화처럼 살짝 주름이 잡힌 풍성하고 두터운

실크 소재로, 무늬가 있는 넓은 외투를 입고 있으며, 솔이 달린 소매는 매우 넓었다. 앞부분에는 같은 옷감으로 턱받이가 걸려 있다. 외투 아래는 평상복인 가운과 치마, 물론 실크 옷들이 있다. 제일 윗사람은 초록색 천이며 두 번째는 모아르처럼 하얀색 천이며 다만 드문드문 줄무늬가 있다. 네 명의 전권대사 모두와 영주들 역시 머리에 양귀비 장식 이 있고 맨 윗부분 바닥에 여성의 광주리와 비슷한 형태로, 우리나라 여자들이 버섯을 따러 갈 때 들고 다니는 광주리 비슷해 보이는 테두리가 있는 작고 검은 왕관이 있다. 이런 왕관들은 내가 후에 알게 된 것처럼 파피에마세(종이반죽)로 만들고 있다. 전권대사들의 왼편에 자리했던 두 명의 관리의 왕관은 그들과 똑같은 형태이고 다른 두 사람의 왕관은 하나는 삼각형이고 다른 사람은 사각형이며 둘 다 평평하다. 윗사람의 왕관들은 턱밑으로 하얀색 레이스가, 아랫사람들은 검은 레이스가 고정되어 있다. 모두 아무것도 없을 수도 있지만 세 번째 전권대사와 두 명의 영주, 또 한 명의 관리의 넓은 바지는 다리보다 1아르신이 더 길다. 영주들은 힘겹게 다리를 들면서 겨우 걸었다.

이런 복장은 어떤 계급인지, 직책은 무엇인지를 나타낸다. 대체로 이 모든 복장은 우리의 제복 정장처럼 아주 화려했다. 약간 숙인 머리에 이런 걸옷을 입고 이마에 상자를 달고 길게 늘어진 바지를 입고 흐트러지지 않은 자세로 서 있는 일본인의 형상을 보면서 언젠가 어떤 장난꾸러기가 결코 걸어나가지도 뛰지도 움직일 수조차 없는 아주 불편한 옷을 인간에게 입히려는 과제를 부여받은 것이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일본인들은 그렇게 옷을 입는다. 이런 옷을 입고 움직인다는 것은 어렵다. 그 옷은 그걸 입고 앉아서 점잖게 있도록 고안된 것이다. 발 뒤꿈치를 세우고 무릎 꿇고 앉아 있는 일본인들을 본다면 이런 모든 군

인 복장이 앉아 있는 상태에 결코 좋을 수 없다는 것과 그 복장이 위엄 있어 보이고 아름다움도 잃지 않는다고 말할 것이다. 몸을 심하게 물결처럼 뒤틀고 있는 이런 값비싼 실크 소재 옷감들은 위상의 점잖음과 부동을 유지하고 있는 게으르고 살아 있는 덩어리를 아름답게 에워싸고 있다.

잠시 입을 다물고 있는 양측은 머리에서 발끝까지 눈으로 훑어보면서 서로 쳐다보았다. 우리는 그들을 그들은 우리를. 얼마 전에 권위와 자존심으로 우리를 맞이했던 지인 오사와 분고노는 뒤로 옮겨가서 전권대사의 귀에 바짝 얼굴을 갖다 대며 시선을 아래로 깔고 오른쪽도 왼쪽도 돌아보지 않고 서 있다. 그는 가끔씩 남의 눈을 피해 우리를 곁눈질했다. 그는 어떤 달은 비번이어서 예도로 갔지만 지금 우리들의 총애를 받아 1년 반 동안 머물고 있으며 얼마나 더 머무를 수 있을지는 모른다. 다른 영주 미즈노 치코고노는 얼굴은 현명해 보이지 않지만 진심 어린 표정을 하고 있다.

전권대사들이 말하고 싶다는 신호를 하자 순간 양쪽 구석에서 그들의 발 아래로 두 마리의 뱀처럼 에이노스케와 기치베가 기어왔다.

그들은 마루에 이마를 대고 이런 상태에서 겨우 숨을 쉬면서 이야기를 들었다. 최고 전권대사가 시작했다. 우리는 그에게 눈을 고정했다. 최고 전권대사는 처음부터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모든 민족에게는 그런 노인들이 도처에 있다. 햇살 같은 주름살은 눈과 입술을 감싸고 목소리에는 노인의 지혜롭고 예의 바른 선함이 빛나고 있다. 오랜 삶과 실질적인 지혜의 결실이었다. 이런 노인을 보지 못한 사람은 그를 할아버지로 삼고 싶을 것이다. 그 외에 그에게는 상류층의 교육을 받은 매너가 있다. 그는 말하기 시작했지만 입술과 혀는 이미 힘을 잃었다.

그는 천천히 말했다. 그의 말은 액체가 이 병에서 저 병으로 옮겨가듯 조용하고 고르게 흘러갔다.

기치베는 머리를 들어 조금 움직이더니 인사를 통역했다. 노인은 제독에게 도착한 것에 대한 인사를 했고 그에게 건강하기를 기원했다. 제독 역시 인사로 답했다. 기치베는 땅에 머리를 조아리고 통역했다. 노인은 다시 형식적인 인사를 함선의 지휘관에게도 했다. 그러나 오보사바의 입에서 나온 매우 훌륭한 공식적인 감정의 표현은 웬일인지 그에게 전달되지 않았다. 그는 마치 어떤 다른 진솔한 말을 하고 싶다는 듯 아주 부드럽고 친절하게 우리를 바라보았다. 사실 나중에는 말했다. 그러나 지금 그는 통역관의 직책을 맡고 있는 포시에트에게 인사를 계속 했으며 다음에 모든 장교에게 인사를 건넸다.

노인은 왼편에 서서 과거에 행사진행자 같은 직책을 맡았던 관리처럼 끝내더니 속삭이듯 '에이노스케'라고 말하며 두 번째 전권대사를 가리켰다. 에이노스케는 재빨리 두 번째 전권대사의 발 아래로 기어갔고 마루에 이마를 댔다. 그는 똑같은 인사를 그런 식으로 반복했다. 통역관들은 기어서 세 번째, 네 번째 전권대사에게 갔고 마지막으로 영주들에게로 갔다. 네 명 모두는 차례로 러시아 이름을 또박또박 발음하면서 인사를 반복했다. 제독은 그들에게 자신과 모든 사람을 대변해서 정중하게 인사로 답했다.

모든 것이 서서 이루어졌고 모든 사람들은 대열을 이루고 있었다. 실크 치마를 걸친 이들은 셀 수 없이 많다. 아마도 모임은 매우 성대한 것이었던 모양이다. 기치베와 에이노스케 역시 실크 옷을 걸쳤으며 검거나 푸른색의 두터운 겹옷에 하얀 계급장을 등과 어깨에 달고 실크 가운을 입고 치마와 하얀 종이 스타킹을 신었다.

인사를 하는 동안 나는 영주와의 첫 만남이 어떠했는지 또 잊고 있었다. 이것은 똑같은 식으로 두 번째일 뿐이었지만 더 분명한 색채를 지녔다. 눈과 생각은 관객의 새로움에 익숙해질 수 없었다. 나는 이 모든 것이 현실이라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어떤 순간에 나는 어린아이이고 유모는 나에게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에 대한 신기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 같았으며 나는 유모의 손에서 잠들고 꿈에서 이 모든 것을 보고 있는 듯했다. 그래 나는 정말 어디에 있는 것일까? 내 주변에 있는 이런 면도를 한 이마와 미라처럼 검은 뺨과 숙인 머리, 반쯤 감긴 눈꺼풀, 길고 넓은 복장, 절제된 호흡과 우리 귀에는 잘 들리지 않는 둔탁한 소리를 내는 입술을 겨우 움직이며 미동을 하지 않는 이들은 누구인가? 고대인들이 수천 년의 무덤에서 일어나서 모임에 온 것일까? 그들은 걸어다니고 웃고 출출까? 우리 인간 생활, 우리의 슬픔과 기쁨을 알까? 아니면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오랜 꿈을 꾸다가 잊은 것일까? 어떤 집이고 방일까? 창문에는 종이가 붙어 있고 토굴 안에 있는 것처럼 방 안은 어둡고 축축하며 학이 그려진 황금색 병풍이 주변에 있는데 오랜 세월 내려온 엠블럼일까? 지붕은 평범한 사각 나무기둥이 받치고 있으며 천장이 없고 판자로 지었으며 최초의 사람들이 생각해 낸 것과 같은 원시적인 구조물의 집이다. 나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

나 자신이 놀라워하고 있는 환상은 오래 계속되지 않았다. 노쇠한 가장 나이 든 노인 한 사람이 가슴에서 얇은 종이 한 묶음을 꺼내더니 그중 한 장을 찢어서 코를 풀고 종이를 심연에 버리듯 자신의 깊이를 알 수 없는 소매에 던졌다. '아, 이 사람들은 살아 있는 사람들이구나!'

우리는 쉬면서 점심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는 동안 차를 한잔 마실 것을 권유받았다. 세상에, 우리는 살아 있는 사람들 사이에 있는 거였

어. 여기서 먹는구나. 일본식 식사다. 나는 게걸스럽게 타인, 즉 타민족들의 음식 묘사를 읽었을 것이며 세세하게 암기해서 말했을 것이다. 당신이 중국인 집에서, 일본인들 집에서 식사하고 싶다고 느낄 정도로 말이다. 이런 나의 꿈은 실현되었다. 나는 런던에서 에도에서 남의 음식을 조금씩 맛보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다. 어떻게 내오고 어떻게 앗는지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사로잡았다.

‘휴식 시간’에 특히 관심을 기울이기를 요청하는 차가 나왔다. 이것은 빵은 최고급 차다. 그 차는 켐퍼가 상세하게 말한 똑같은 산에서 나온 것이다. 이 차의 일부는 특히 쇼군과 천황의 저택에서 사용하는 것이며 좀 더 하급의 일부는 고위관료들을 위한 것이다. 그 차는 분말로 되어 있고 끓는 물과 함께 찻잔에 넣는다. 그러면 차가 준비되는 것이다. 차는 훌륭했으며 강하고 향기로웠지만 그 차는 우리에게는 그다지 맛있게 여겨지지 않았다. 왜냐하면 설탕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한결같이 하늘을 찌를 듯이 칭찬해냈다.

차를 마신 후에 파이프와 담배가 나왔고 그다음에 사탕이 나왔는데 모서리를 이은 것이 아닌 통짜로 되어 있는 매끄럽게 자른 소나무 상자에 담겨 있다. 얼마나 순수하고 섬세하게 만든 것인가! 그 사이에 이 상자는 사탕을 담아 손님들의 집으로 보내도록 한순간에 만들어졌다. 물론 그 상자는 빠르게 옮겨진다. 사탕은 설탕가루가 묻어 있는 갈린 콩으로 만들었으며 다시 뭔가 그 비슷한 것이 나왔는데 그다음엔 다양한 종류의 생선, 사과 등이 나왔고 붉은 쌀과 하얀 쌀로 된 것들이 나왔다.

우리 주위에는 통역관들이 마루에 앉아 있었으며 귀족들 중에서 나는 하기바리와 오이-사브로스케만 보았다. 그들은 영주 집에서 우리를

두려워 쳐다보려 하지 않았지만 에도에서 우리를 융숭하고 존중하는 의미의 영접을 하게 된 전권대사들이 올 때까지 그다지 존경하지 않았던 것 같다. 그 당시 그 외 사람들은 어디에 앉아야 할지 안절부절하면서 손을 쥐고 미소를 지으며 대접하고 있었다.

30분이 지나서 행사주관자는 우리를 식사에 불러들였다. 그는 좁아서 모두 함께 식사하지 못하고 단체가 여러 방으로 흩어져야 함을 사과했다. 제독 I.S.U., K.N.P.와 나는 다시 영접실로 안내되었고 우리와 함께 최고 전권대사 둘만 식사를 했으며 나머지들은 밖으로 나갔다. 홀은 거기서 비좁게 앉을 필요도 없이 60명이 앉아서 식사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넓었다. 그러나 일본인들은 우리들 각자를 위한 특별 밥상을 내왔다. 전권대사들은 요리를 받을 높은 자리에 앉아 있었다.

손님들 수에 맞게 6명의 하인이 나타나서 내 생각에는 생선으로 여겨지는 종이에 싼 뿔가를 쟁반에 담아 날랐다. 그들은 쟁반을 들고 순간 나갔다가 들어와서 그것들을 치우고 우리를 위해 삼목으로 특별 제작한 빈 밥상을 우리 앞에 놓았다. ‘그런데, 관습은 전혀 원시적이지 않은데’ 하고 나는 생각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우리의 관습입니다.” 노인이 말했다. “밥상에 ‘이것’을 넣은 요리가 나오고 이제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것은 호의의 상징이죠.” 그러나 이것은 내가 처음에 생각했던 생선이 아니라 모양이 비지가¹를 닮은 어떤 끈 같은 것이다. 나는 그것을 해초로 받아들였지만 그것을 매개로 바위에 달라붙어 있는 어떤 달팽이의 얇은 막으로 보였다. 보건대 그들의 이것은 호감, 집착, 또는 문자 그대로 ‘끈적거림’의

1 러시아 음식 중 하나로 연골성 생선의 뼈를 말린 것.

상징이었다.

다시 마술을 부린 것처럼 6명의 젊은이(아주 조금의 민첩함이 있었다면 말했을 것이다)가 나타났는데, 내가 조금의 낚새라도 알아차렸으면 말했을 것이다. 나는 관대하여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지만 우리 개념에서 볼 때 전반적으로 모임에는 인간적인 아름다움 그 비슷한 무엇이 없었다. 노인은 지혜와 선의가 담긴 노인답게 사람을 끌어당기는 아름다움이 있었으며, 두 번째 전권대사는 얼굴에서 풍기는 영리함과 용기로 마음을 끌었다. 오보사바[誤報娑婆]도 나름 괜찮다. 얼굴에는 생각이나 감정을 감추고 있지만 만약 감정을 드러낸다면 우리에게 대해 혐오감을 가질 때다. 나머지 모두는 자세히 보지 않았다. 에이노스케는 바보는 아니다. 그는 유럽인을 닮았기 때문이며 생각과 교육의 흔적이 얼굴에 드러나 있다. 그러나 어떤 면에서 기치베 역시 마찬가지로였다. 그들은 우리와 전권대사들 사이에서 두 마리의 사냥개처럼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마루 위를 누비고 다녔다. 당신이 생각하는 거요? 아니, 통역하기 위한 거예요.

그 사이 하인들은 손님들 각자 앞에 붉은 칠이 잘된 작은 대좌(臺座)²를 놓았다. 그것의 길이는 우리나라 여성들이 다리 아래에 놓는 의자 정도였다. 하인이 다가와서 민첩하고 정확하게 대좌를 들고 존경의 표시로 머리를 숙이며 자기 무릎 위에 놓았다가 민첩하고 정확한 동작으로 손님 앞에 조용히 놓았다. 하인들이 여섯 번 왔고 여섯 개의 대좌를 놓았다. 그러나 아무도 그 어느 것에도 손을 대지 않았다. 모든 대좌가 칠을 한 목조 잔³으로 꽉 채워졌다. 크기와 형태는 손잡이만 없는 찻잔

² 일본과 한국이 사용하는 밥상을 여기서 주춧대로 해석하고 있다.

과 비슷하다. 각각의 잔은 나무 차받침대로 덮었다. 파란색 도자기 잔들도 있다. 먹을 것과 콩이 담긴 크지 않은 것들도 있다. 이 모든 것에는 두 개의 작은 막대기⁴가 주어졌다.

‘그런데 이걸 식사를 하지 말라는 건가.’ 나는 단단하지도 부드러지도 않은 음식을 결코 잡을 수 없는 매끄럽고 하얀 아주 몽푹한 뜨개바늘⁵을 쳐다보면서 생각했다. 어떻게 무엇으로 먹지? 나의 옆에 있는 U도 그런 생각을 하는 듯했지만 배고팠는지 두 개의 막대기를 잡고 슬프게 그것들을 바라보았다. 전권대사들은 웃으며 마침내 식사를 시작하려 했다. 이때 다시 하인들이 들어와서 각자 우리를 위해 준비한 은 숟가락과 포크를 접시에 놓았다.

“차려놓은 모든 것들이 먹을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노인이 말했다. “우리가 시작하겠습니다. 각자 마음에 드시는 잔을 열고 드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잔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잔을 열면서 옆 사람에게 속삭였다. 소금이 없는 밥이다. 소금은 보이지도 않으며 빵도 없다.

나는 밥이 든 잔을 들었다가 원래 자리에 놓았다. ‘여기에는 무엇이 들어 있지?’ 나는 다른 잔을 열면서 생각했다. 거기에는 어떤 검은색 곡물이 들어 있었다. 나는 숟가락으로 먹어보았다. 우리 부라크⁶ 같은

3 밥공기와 반찬 그릇을 찻잔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들이 보기에는 찻잔과 닮았기 때문이다.

4 젓가락.

5 젓가락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다.

6 비트의 뿌리로 만드는 것.

것인데 맛있었다. 뿌리도 있다.

“우리는 매 식사마다 밥을 먹습니다.” 두 번째 전권대사가 언급했다. “음식이 이미 식었다면 바꿔드릴까요?” 행사진행자는 넓고 둥근 얼굴과 편편하고 어느 정도 조여지고 넓은 아랍인 코를 가졌으며 두 명의 전권대사들이 앉아 있던 상단 아래에 서서 눈에 띄는 시선과 행동으로 서비스를 지휘하고 있었다.

에이노스케 뒤에는 두 명의 하인이 무릎 꿇고 앉았는데 한 사람은 찻주전자와 들고 다른 한 사람은 뜨거운 밥이 든 칠이 된 목조 대접을 들고 있다.

그 사이 우리는 잔에서 잔으로 옮겨다녔으며 가끔 서로 ‘드셔보세요’라는 말을 주고받았다. P.는 나에게 낮은 소리로 말했다. “파란 잔에 있는 게로 만든 비트 샐러드가 맛있어요. 게는 빵은 생선이나 연어 알로 버무려져 있어요. 거기에 초록색 채소들도 곁들어 있어요.” “나는 그걸 전부 다 먹었어요.” “당신은 생물 생선을 맛보았어요?” 나는 대답했다. “아니요, 그게 어디에 있는데요?” “바로 여기에 가늘게 잘라져 있어요.” “아 정말 이것이 생물 생선이에요? 나는 거의 반을 먹었는데.” 그는 얼굴을 찡그리며 말했다.

다른 잔에는 우리의 솔란카⁷를 담은 생선과 함께 곡물이 있었다. 나는 열었는데 다섯 번째인지 여섯 번째인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거기에는 생선 조각이 아주 맑고 신선한 뜨거운 물과 같은 육수에서 헤엄치고 있었다. 나는 이것이 우하⁸라고 생각했으며 손가락으로 네 번 정도 떠

7 고기와 생선으로 만든 수프로 향신료를 곁들인 음식.

8 생선 수프.

서 먹었지만 별로 맛이 없는 것 같았다. 이것은 정말 뜨거운 물 그 이상은 아니었다.

나의 옆 사람은 막대기로 먹으려고 노력했으며 흥분했다. 우리 모두는 우리를 둘러싼 일본인들이 여러 번 미소 짓게 만들었다. 대다수가 우리가 음식을 신뢰하지 못하고 애쓰는 것과 처음에 그것을 조심스럽게 맛보는 것을 보면서 여러 번 소매로 입을 가렸다. 그러나 나는 세 번째 잔에서 맛보는 것을 그만두고 그 어떤 분석도 하지 않고 나머지를 먹었으며 똑같은 숟가락으로 종종 밥으로 달려가서 조금씩 떼다. 튀긴 생선, 삶은 굴, 굴과 비슷한 맛의 조개 종류들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O.A.G.는 그때 해삼이었다고 말했다. 나는 검고 흐물거리며 끈적거리는 뭔가를 먹었다. 뭔가 달콤한 것이 내 입안으로 들어왔는데 마치 달콤한 빨간 주스로 채워진 배 같았다. 그다음에 이빨 사이에서 짜고 씹이 많은 것이 부서졌다. 짠 것은 일본 사람들이 소금에 절인 무다. 과일 도자기 잔에 달걀로 반죽한 어떤 반죽이 터졌다. 그것 역시 삶은 당근이었다. 그다음에 뜨거운 물속에 삶은 풀들과 함께 오리 날개가 떠다녔다.

모든 밥상 뒤에는 각 손님들 앞에 또 하나의 특별한 밥상이 놓여 있으며 그 위에는 튀긴 생선 하나가 위로 꼬리와 머리가 굽어진 상태로 통째로 있었다. 한참 전부터 그것을 내 쪽으로 가져오려고 손을 뻗었지만 두 번째 전권대사가 나의 움직임에 알아챘다.

“이 생선은 언제나 우리 식탁에 올라옵니다.” 그는 말했다. “그러나 그 음식은 지금 먹어서는 안 됩니다. 손님 집으로 사탕이랑 보내드릴 겁니다.” 하나의 좋은 요리도 있었지만 사람들은 먹지 않았다. 아, 이런 것들은 나에게 상징이고 그림의 떡이야.

하인은 모두에게 다가와 손을 뻗었다. 나는 그가 빈 잔들을 치우려 한다고 생각하고 그에게 세 개를 건넸지만 그는 잠시 후 똑같은 음식이 든 다섯 개를 나에게 가져왔다. 어떻게 하라는 거야? 나는 생각하고는 곡물을 먹으려고 다시 시도했으며 다시 삶은 생선을 맛보기 시작했지만 나의 옆 사람들이 행동하는 것을 그만두어서 가만히 있었다. 주인들은 우리가 먹는 것을 매우 마음에 들어 했다. 노인은 부드럽게 우리 각자를 보았으며 진심으로 막대기로 먹으려는 나의 옆 사람의 노력에 웃음을 지어보였다.

식사가 끝날 무렵 하인들은 김이 나는 찻주전자를 들고 나타났다. 우리는 호기심을 가지고 거기에 무엇이 들어 있는지 보았다. “지금 사케를 마셔야 합니다.” 노인이 말했다. 그리고 하인들은 붉고 거의 편편한 칠이 잘된 잔에 뜨겁게 데운 음료를 따르기 시작했다. 우리는 잔을 들고 마셨다. 이전에 예비식량 물품에 몇 병의 사케 항아리가 우리에게 배달되었는데 그 당시 사케는 우리 마음에 들지 않았다. 따뜻한 사케는 아주 좋았다. 맛은 약하고 진이 빠진 럼주 같았다. 사케는 쌀을 승화시킨 술이다. 그다음에 다시 따라주었다. 우리는 거절하기 시작했지만 노인은 세 번까지는 마셔야 한다고 설명했다. 우리는 세 번 마셨고 우리의 주인들도 역시 그렇게 했다. 식사할 때 우리는 뜨거운 밥을 계속해서 제공받았다. 사케 다음에 다시 김이 나는 찻주전자가 나왔다. 나는 또 사케는 아닐 거라고 생각했지만 노인은 지금 ‘뜨거운 물’을 마시고 싶지 않느냐고 제안했다. 농담하는 거야? 세심한 마음을 발견했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그에게 대답했다. 나는 이미 일본식으로 식사를 했다면 완전히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때문에 나는 뜨거운 물도 마셔보았다. 내가 러시아 식탁에서 맛보았다면 좋지 않았을 것이다.

“뜨거운 물을 부어서 밥을 드셔보시겠어요?” 노인이 제안했다. 우리는 원하지 않았다. 그 사이 두 사람의 전권대사들은 밀이 편편한 잔을 놓고 거기에 끓는 물을 부었다. 그들은 다 마셨다. 그들은 뜨거운 물로 갈증을 가라앉힌다고 설명했다.

주인들은 친절했다. 그들의 이름을 말할 시간이다. 노인의 이름은 추추이 히제노카미 사마, 두 번째는 카와지 소이에몬노카미 …… 아니 카미가 아니라 지오 사마, 이것은 모두 같다. 지오와 카미는 똑같은 지위를 의미한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알라오 토산노카미 사마, 네 번째는 잇었다.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두 사람은 숫자와 대단히 중요하다는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서만 첨가된 것이고 본질적으로 그들은 고개를 숙이고 앉아서 말없이 위의 두 사람의 말을 듣고 있다. 아마도 듣지 않고 그저 앉아 있는 듯했다.

식사 후 어떤 독특한 향기의 차가 나왔다. 보니 바닥에 못처럼 생긴 머리가 있다. 어떤 원시적인 느낌이 나는 것이 이 나라에만 있는 차인가!

노인은 내내 미소 지으며 다정스럽게 우리를 보았다. “우리는 수백 마일에서 왔습니다.” 그는 중얼거리기 시작했다. “그런데 당신들은 수천 마일에서 오셨습니다. 우리는 결코 서로 만난 적이 없으며 서로의 사이가 너무 멍니다. 그러나 지금 서로 인사를 하고, 앉아서 대화를 나누고 함께 식사를 합니다. 이것은 정말 신기하고 기쁜 일입니다!” 우리는 그 당시 서로 공통적으로 받은 느낌을 이렇게 예의 있게 표현한 것에 대해 그에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른다. 우리는 친근감에 대한 놀라움으로 똑같은 생각과 똑같은 인상을 받았다. 나는 몇몇 음식에서 유럽 음식과 유사한 점을 발견하고 일본인들이 귀족들처럼 요리를 무시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고 말했다. 사실 하얀 소스가 뿌려진 생선은 최고였다. 만약 이 모든 것에 빵을 곁들였다면 배부를 때까지 먹을 수 있었을 것이다. 빵이 없어서 위장에서는 뭔가가 허전했다. 배가 부르지만 부른 것 같지 않고 그렇다고 더 이상은 결코 먹을 수 없다. 식사 후 평소처럼 졸음이 아니라 몽상을 쫓아내고 있다. 그러나 나는 일본 식탁에 대해 쓰고 그 외에 그들이 마치 피마자유로 음식을 준비한 듯하다고 생각하고는 웃음을 지었다. 그러나 그들은 일반적인 식물성 기름은 드물게 사용하고 다만 풀을 곁들였다. 나머지는 사케와 콩을 섞어서 튀기고 물에 삶았다. 그런 다음 우리는 주인에게 극동의 모든 민족들 중에서 일본인들이 생활력, 예절의 세련됨에서 제일이라 여기며 지금 이를 체험으로 보았다고 말했다.

마침내 식사가 끝이 났다. 모든 것이 치워졌고 5분 후에 차와 사탕이 이미 우리가 본 상자에 담겨 나왔다. 거기에 마름모, 리본, 하트, 그다음에 생선 모양으로 된 대나무 가지 비슷한 것들이 있는데 하층민에서 귀족에 이르는 일본 식탁의 알파와 오메가, 더 나아가 설탕가루가 묻은 어떤 빵은 가루와 쌀로 된 캔디가 있었다.

마침내 모든 것이 치워졌을 때 제독이 여기에 온 업무상 전권대사들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하고 싶다고 말했으며 오늘 대답해달라고 요청했다. 노인은 종이 꾸러미를 꺼내 조심스럽게 종이 한 장을 찢어 코를 풀더니 소매에 감추고, 그다음에 짧게 일본 관습에 따라 첫 번째 인사를 나눌 때 일반적으로 업무에 대한 대화는 피하는 것이며 손님 접대의 예의와 법칙에 따른 것이라고 반박했다. 제독은 결코 우리 사이에 발생한 우호관계를 해치지 않을 것이며 이 질문들은 어떤 현명한 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두 마디 네·아니오로 답할 수 있는 것이라고 언

급했다. 우리는 그들이 일에 대해 말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대체로 식사 후 고위귀족들도 하위귀족들도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감탄사들이 더 자주 나왔다. 가슴에서 터져나오는 소리는 사방에서 들렸다. 일에 대해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았지만 그건 괜찮았다.

제독은 내일 종이에 써서 두 가지 질문을 보낼 테니 그에 대해 저녁까지 답하라고 했다. “우리가 어떻게 약속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들은 반대했다. “질문이 무엇인지 언제 알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들에게 질문은 알고 있으며 무엇을 답할 수 있는지 알고 있다고 전달했다. 그들은 무엇이든지 하겠다고 약속했고 우리는 막역한 친구처럼 헤어졌다.

우리는 왔던 것과 같은 절차로 음악을 들으면서 밝고 따뜻한 날씨 속에서 전함으로 돌아왔다. 우리는 선착장으로 가는 도중에 커튼을 열어 밖을 보았고 좁은 거리, 빈약한 나무들과 숨어 있는 여인들을 보았다. “하찮은 사람들이 숨기는 잘하는군.” 몇몇이 말했다. ‘포도는 시어’라고 당신은 말할 것이다. 그러나 여인들은 정말 이빨이 검었다. 그들은 다만 결혼 전에는 자연스러운 하얀 이를 간직하지만 결혼을 하면서 어떤 요소로 검게 만든다.

우리 하인으로 일했던 파제예프는 그들 모두가 대접받았다고 말했지만 이번에는 좋았다고 말했다. “너희들은 무엇을 받았어?” 나는 물었다. “붉고 하얀 죽이요. 정신이 혼미해지더군요.” “왜?” “생선이 젤리 같았어요. 소금도 빵도 없고 말입니다.”

우리를 따라 전함 쪽으로 수많은 배가 나타났고 나이 든 관리가 우리가 만족했는지를 물었다. 이것은 다만 핑계일 뿐이고 그가 우리를 배웅하고 전함까지 완전히 배달하는 임무를 받은 것이다. 우리에게 어떤

일, 불행, 불쾌함이 일어나는 것은 안내자들에게 달려 있다.

한 시간이 지난 후 우리 마차에는 상자들이 쌓아올려졌다. 커다란 상자에는 식탁에 올라온 오래되고 익숙한 생선이 있고 다른 상자에는 달고 매우 맛있는 빵이 있으며 세 번째 상자에는 사탕이 있다. “생선은 저리 치워.” 나는 파제예프에게 말했다. 저녁에 나는 생선을 어떻게 했는지 물었다. “친구들과 먹었어요.” 그가 말했다. “맛있었어?” “냄새가 지독했지만 맛있었습니다.” 그는 대답했다.

다음 날 1854년 1월 1일, 에이노스케가 내일 일정을 조정하기 위해 왔다. 그는 축제의상을 입은 우리 모두를 보고서 이유를 물었다. 새해가 다가오고 있음을 그에게 설명했다. 그는 축하인사를 했으며 우리는 그가 술을 엄청나게 잘 마실지도 모르니 샴페인을 주라고 명령했다. 그와 같이 온 두 명의 귀족은 마셨다. 그들은 얼굴이 달아올랐다. 에이노스케는 영어·네덜란드어·프랑스어를 나가사키 말과 섞어서 너무 많이 마신 것에 대해 죄송하다는 말을 했고 이를 확인하면서 개 가죽으로 된 만틸라⁹를 걸치는 것을 잊었다. 그는 미국인들에게서 샴페인 마시는 법을 단숨에 배웠고, 그들과 6일 내내 지냈다.

그러나 겨울은 한창이었고 영상 6도여서 공기는 신선했다. 하늘은 맑았고 밤은 밝았다. 물은 강하게 활기를 띠었다. 대체로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것을 미루어볼 때 나가사키는 날씨로 보면 세계에서 축복받은 지역 중 하나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고른 날씨로 북쪽에서 부는 바람은 청명하며 남쪽에서 부는 바람은 비를 동반한다. 그러나 우리는 맑은 날을 더 많이 보았다.

⁹ 스페인·멕시코 여성이 머리와 어깨를 덮는 베일.

내일은 없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들리지도 보이지도 않는 축제는 준비되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 이 축제는 모두들 시간과 상황 앞에서 무기력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중요한 사실이다. 오래전에 모든 극동의 민족들, 특히 일본인들은 우리, 유럽인들을 개보다도 못하게 여겼을까? 영주는 우리를 그런 어리석음으로 맞으려 했다고 말해야 할 것이다. 더 예의 있게 말해서 자만심을 가지고 맞이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 네 명의 일본 고위관리들이 제 발로 우리에게 놀러왔다. 아마도 일본인들에게는 외국인들과의 관계에서 극히 드문 예일 거야! 그들은 이를 더 연장할 것을 요청했으며 처음에 약속했던 금요일 대신에 일요일로 했다. 그들은 여기서 어떤 축제 같은 것들을 경험했고 그 때문에 연기했다.

그래 그 외에도 에이노스케는 하기바리와 함께 축포에 대해 설명하려고 왔다. 우리는 어제 만났을 때 이에 대해 우리에게 뭔가를 말할 것이라 예상했다. 그러나 한마디가 없었다. 주인들은 철저하게 손님 접대의 법칙을 존중했다. 대신에 지금 하기바리는 축포에 대한 영주의 비난을 가지고 왔다. 그는 처음에 농담이 섞인 답을 들었지만 그런 다음 그들 자체가 우리 축포를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에 대한 아무런 결정권이 없었다는 것을 알아챘다. 그 때문에 우리는 그들이 받아들일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축포를 발사했다. 그들이 지나치게 흥분하지 않도록 요청하기 시작했다. “지금 결론은 없어. 만약 전권대사들만 축포를 터트리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렇게 할 것이다.” P.는 답했다. “원하지 않습니다. 원하지 않아요.” 그들은 확인했다. “그러나 만약 다른 제독이 여기에 온다면,” 에이노스케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그러면 발포하겠죠?” “우리는 어떤 제독이 여기로 올지는 확실하게 말할 수

없어요.” 그에게 답했다. “그 때문에 발포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질문 속에는 다른 뉘가가 있다. 즉 영국인들이 오겠냐는 질문이다. 일본인은 어느 날 우리 다음으로 다른 민족들도 무역을 제안하러 올 것이라는 전제를 표했다.

우리 모두가 이미 잠자리에 든 새해 저녁에 전권대사들로부터 두 명의 관리들이 여분으로 남겨 둔 두 명의 통역관들, 에오자와 리오다와 함께 왔으며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고 왔다. K.N.P.는 잠들었다. 나는 갑판을 걸어다녔고 그들을 맞이했다. 종이에는 지금 전권대사들이 그들에게 제시된 질문에 대한 답을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러시아에서 온 편지에 대한 상부의 답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을 읽어보면 제독은 아마도 이 질문에 대한 답이 필요하지 않을 거라고 했다. 할 것이 아무것도 없고 기다려야 했다.

우리는 유럽 배에 타본 적이 없는 손님들을 맞이할 준비에 전념했다. 이 이틀 동안 분주하고 소란한 일에 얼마나 돈을 썼는지. 유럽에서 했듯이 한 식탁에 모든 손님들을 섞고 앉히는 것은 불가능하다. 여기서 직위에 따른 엄격한 절차를 준수한다는 것은 절차를 준수하지 않음으로써 적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대체로 그들과 소통하는 데 있어서 극도의 조심성이 요구된다는 점이다. 더구나 예법에 대한 연구는 다른 학문들이 아직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중요한 학문이 되고 있다. 발테리는 일본에 대해 말하면서 우리의 예의는 오히려 무례가 된다고 언급한다. 예를 들면 손님 앞에 일어나는 것은 그들에게는 예의가 아니며 앉아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는 존경의 의미로 모자를 벗지만 그들은 신발을 벗는다. 우리는 집에서 나가면서 비옷을 입지만 그들은 마치 집안

으로 들어갈 때 벗을 것 같은 넓은 바지나 치마를 입는다(그들은 우리를 방문하면서 신발을 벗지 않았는데 발테리 시대의 일본 관습이 변할 것일까?). 우리의 금발 머리와 하얀 이는 그들에게 적대감을 불러일으킨다. 일본 여성들은 심하게 이가 검다. 이가 검댕이보다 더 검지 않을지라도 머리 보다는 검을 것이다. 어떤 사람들이 지칭했듯이 우리 여성들은 흉허물 없이 넓은 블라우스를 입지만 그들에게는 심하게 거부감을 불러일으킨다. 우리나라에서 아이를 낳을 때 엄마도 아이도 따뜻한 물로 씻는다. (그렇지?) 그러나 그들은 차가운 물로 씻는다. 왜 발테리가 이런 모순을 인용하면서 위에서 언급했듯이 그들이 식사할 때 음식에 뜨거운 물을 붓고 우리는 차가운 물을 붓는지를 언급하지 않았는지 모르겠다. 아니면 그들은 이것을 최근에 고안해낸 것일까?

그래, 이 모든 것이 이와 같다. 이런 비유는 더 계속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나는 일본인이 직접 걸어다니거나 서 있는 것을 보지 못했다. 지속적으로 반쯤 굽히고 손은 계속 무릎에 대기하고 있으며 고개를 숙이는 사람이 없는지 양쪽을 쳐다본다. 다만 자신과 동등한 누군가를 보면 그 순간 무릎은 구부러지기 시작하며 그에게 다리가 있다는 것을 미안해하는 듯하다. 그런 다음 그는 재빨리 반으로 꺾는 것처럼 고개를 숙이고 손은 무릎까지 내리며 잠시 동안 이런 상태로 있다. 갑자기 곧게 하다가 다시 숙일 것이다. 그렇게 세 번 이상을 한다. 그러나 때때로 두 사람의 일본인들은 만났을 때 이런 상태로 걸어다가 만약 멈춰서 이야기를 해야 할 필요가 없다면 구부리면서 갈 것이다. 그들의 하인들은 필요할 때 즉시 마루에 엎드릴 수 있도록 역시 반쯤 구부리고 무릎까지 두 손을 엮고서 뛰어다닐 것이다. 고위인사 앞에서 일본인은 재빨리 마루에 엎드리며 무릎을 꿇고 앉아 납작 엎드려 절을 한다. 최

고 전권대사들 곁에서 머리는 아래로, 절을 한 상태로 있다. 그들 모두는 습관대로 고위인사들 앞에서도 낮게 머리를 숙이고 앉는다. 전권대사들은 그들이 나가사키에 있는 동안 이런 상태로 존경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여기는 것일까? 에도에서도?

1월 4일 아침에 전함은 축제 분위기에 쌓였다. 모래와 자갈로 씻고 문지르면서 밤에 갖는 나의 고요에 손상을 입히면서 갑판이 캠퍼스처럼 하얗게 되었다. 동쪽은 태양빛에 광채를 냈다. 삭구는 우리 공동의 애완동물인 고양이 바시카가 자리하고 있는 아름다운 코일들처럼 놓여 있다. 모든 것이 화려하게 치장되었다. 후갑판에는 신호기들로 천막이 만들어졌고 그 안에는 네 명의 전권대사들을 위한 담요 방식과 그들의 수행원들을 위한 의자들이 놓여 있다. 청소를 한 행정실에는 그들을 위한 특별 식탁에 방식들이 놓였다. 다른 탁자는 제독과 그 수행원들 중 세 명을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작은 탁자에는 일본 행정진행관이 자리하게 되었다. 통역관들을 위해 두 개의 의자가 준비되었지만 그들은 감히 거기에 앉지도 음식을 먹을 수도 없었고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었다.

11시경에 귀족들은 최고 전권대사들이 제독에게 보내는 선물들을 들고 왔다. 모든 물건들은 평범한 나무 상자 속에 들어 있고 상자들은 쟁반 비슷한 나무 다리가 달린 대좌에 놓여 있다. 이런 대좌들은 일부 우리 탁자들로 대체되었다. 일본인들은 바닥에 선물을 놓는 것을 예의 없다고 여긴다. 상자마다 다시 '예법'의 상징인 종이 꾸러미가 들어 있다.

그런데 그들은 왜 이런 물건들을 보냈을까? 우호의 표시일까! 한 사람은 검게 칠이 된 절·정자·산·나무들이 황금색으로 조각된 작은

상자를 보내왔다. 칠은 특히 두텁고 검었으며 10년 동안 본 적도 없고 들 하는데 거울처럼 깨끗했다. 그렇게 칠이 된 물건은 그 어디에도 없다. 다른 상자는 붉은 황금색을 띠고 칠 속에 빠진 불꽃처럼 얼룩덜룩했다. 작은 상자와 함께 하찮은 것들이 있었다. 일본인들이 허리띠에 달고 다니는 가루를 넣을 담배 케이스와 어떤 부속품들이 있다. 다른 사람은 편지를 쓰기 위한 도구들, 떡·붓·두루마리와 심지어 색칠이 된 초와 함께 황금 장식이 달린 잉크병을 선물했다.

그러나 가장 눈에 띄고 값비싼 선물은 질 면에서도 의미 면에서도 칼이었다. 선물은 그들에게는 의심할 여지 없는 우정의 표현이다. 일본 칼의 칼날은 말할 것도 없이 세상에서 최고였다. 칼은 외부로의 유출이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다. 에이노스케가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면 그들의 칼날은 죄인의 사형집행인을 통해서 시험된다. 장인은 칼을 제조해서 사형집행인에게 바로 건네고 그는 몇 개의 머리를 단번에 벨 수 있는지를 시험한다. 장인은 칼날에 쓰러져간 머릿수를 새겨넣는다. 이것은 마치 칼의 가치를 말하는 듯했다. 제독에게 선물된 것은 에이노스케의 말에 따르면 세 명의 머리를 자른 것이다. 일본인들은 칼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긴다. 칼날은 항상 거울처럼 빛나고 앞에서 언급했듯이 그 칼날에 닿으면 살지 못한다. 에이노스케의 칼은 그에게 선물된 친구며 그의 말에 따르면 500년가량 되었다.

나는 칼의 의미를 모르지만 카와지(川路)의 선물인 칼날의 광채와 모양에 매료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칼집은 상어 가죽으로 만든 것 같으며 녹을 방지하기 위해 실크 속에 보관된다. 노인 추추이는 이 칼에 달린 값비싼 장식, 칼자국 등을 선물했다. 선물은 중요한 것이며 특히 우리 업무가 시작될 때 그랬다. 전권대사들은 이 선물이 일본과 러시아의

관계를 표현하고 있다고 여러 번 우리에게 이해시키려고 했다. 더구나 선물이 정부의 명령에 따라 당연히 합의의 의미로 만들어진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의 결정 없이는 어느 일본인도 감히 받을 수도 줄 수도 없는 것이다. 에이노스케는 한번 조용히 P.에게 말했다. 우리 선물이 어느 일본인에게 빈 병을 선물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게 뭐지요?” 그 사람이 물었다. “그것을 돌려보낼 수 있게 해주세요.” 에이노스케는 설득력 있게 요청했다. “물에 던져버리세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오면 당신이 직접 던져주세요.” 온갖 수출입 금지에 대한 경계는 어떠한가! 시스템은 어떤가! 건물이 매우 굳건히 닫혀 있고 열쇠가 없을 때 무역, 기독교의 유입, 계몽에 대한 희망이 존재할 수도 있는 것일까? 이 모든 것이 어떻게 그리고 언제 올까? 그러나 의심할 여지 없이 즉시는 아닐지라도 올 것이다.

중국에서는 개혁이 시작되었고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내가 상하이에 갔을 때 거기서 남경조약에 따라 유럽인들이 일정한 경계를 넘어 더 이상 나가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그 사이에 우리는 주변을 구석구석 돌아다녔고 페테르부르크에서처럼 상하이를 거의 알아갔다. 중국에서 다섯 개 항구를 발견한 이후 10년이 흘렀다. 유럽인들이 거의 그 항구를 점령하고 있다. 모든 것은 점차적으로 조금씩 이루어져가고 있다. 예를 들면 중국에 있는 외국인들은 하루에 걸쳐 말을 타고 집으로 가야 할 정도의 나라 깊숙한 곳까지 들어가도 좋다는 허락을 받았다. 상하이에 있는 미국 영사는 바다에서 80마일 떨어진 산속 어딘가에 별장을 지었다. 지방 영주가 이를 반대했을 때 영사는 여러 지방에 퍼져 있는 가톨릭 선교사들은 이미 더 먼 곳에 수도원들을 가지고 있다고 대답했다. 영주가 거기서 그들을 쫓아낸다면 그때 자신도 별장을 버릴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선교사들을 결코 쫓아낼 수 없다. 그들은 뿌리 깊이 박혀 있기 때문이다. 홍콩에 있는 가톨릭 주교는 중국인들 가운데 50만 명의 가톨릭 신자들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그들 모두는 비밀리에 선교사들을 보호하고 있으며 정부의 감시로부터 그들을 숨기고 자신들 속에 살게 했으며 물심양면으로 돕고 있다. 사령부는 매수되었고 선교사들은 자신의 일을 분명하게 하고 있다. 영주는 선교사들에 대해 알고 있었고 때문에 영사의 반박에 침묵했다.

한번은 이 영사에게 영주가 와서 왜 다섯 개 항구만 개방되어 있는데 베이징[北京] 바로 코앞에 있는 여섯 번째 항구에 아편을 실은 배가 그의 소유로 되어 있는지 집요하게 물었다. 그러나 '왜'라는 것에 그는 다시 반박했다. “유럽인들에게는 개방되지 않은 주산항에 오래전부터 영국 배들이 정박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쫓아내십시오. 나도 베이징으로 배를 보내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영주는 주산항에 영국 배가 왜 정박해 있는지 알고 있었고, 그들을 쫓아내지 않았다. 그렇게 영국 배는 원하는 곳을 다녔다.

하나의 약점이 잡히자 영주는 열 가지를 허락하고 입을 다물어야 했다. 그렇지 않으면 그에게 좋지 않은 일이 벌어질 것이다. 그 자신은 법을 어긴 첫 번째 사람이 된다. 그러나 유럽인들은 더욱더 자유를 지니게 되고 베이징에서 유럽인들이 벽 밑에 있을 때, 그리고 타인의 영향이 밀어닥치는 것을 막아내기 힘들게 될 때 이에 대해 알게 될 것이다.

그러나 다른 상황때 때문에 이에 대해 즉시 예상할 수 없다. 여기서 다른 장소에 있는 주민들은 게으름과 무례로 인해 기꺼이 자신을 유럽인들의 보호 아래 두게 되는 것이며 그들은 곧 유럽인들에게 주인의 자리를 내주게 된다. 반대로 상인인 중국인들은 이익 면에서, 돈을 목

적으로 하는 정신 면에서, 투기를 부리는 능력 면에서 영국인들과 미국인들보다 뛰어나며 국내의 무역을 자신들의 손에서 내놓지 않으려 한다. 그 때문에 어느 누구도 중국 내에서 성공하지 못했고 심지어 거기서 그 어떤 직접적인 관계를 맺을 수 없었다. 무역은 차 재배자들과 실크 제조자들로부터 직접 상품을 매입하기 위해 내부를 들락거리는 중국 중개자들을 거쳐서 이루어진다.

만약 일본도 외국인들에게 문호개방을 해야 하는 운명에 처했다면 이것은 좀 더 천천히 일어날 것이다. 일본을 전쟁으로 이끌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런 면에서 일본은 중국보다 커다란 이점을 지니고 있다. 만약 일본이 유럽인들에게 군사 기술을 전수받고 자신의 항구를 굳건히 한다면 일본은 모든 공격에서 안전할 수 있다. 하나의 변화는 일본을 파괴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만약 누구든 일본에서 내란을 일으키고 제국의 권력에 반대해서 지방의 군주들이 무장을 한다면 일본은 악화될 수 있다. 그러나 일본이 외국인들의 영향에서 교묘하게 피해가고 그들에게 뭔가를 양보하고 공포 속에서 예전처럼 자신의 것을 유지하며 그들이 허락 없이, 빈 병도 가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면서 현재의 자신의 체제를 유지한다면 일본은 오래된 자신의 근원, 옛 종교, 일상의 규범, 삶의 방식의 감소함과 절제로 살아갈 수 있다. 현시점에서 동시에 일본을 개방할 수도 있다. 일본은 그 어떤 전쟁도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약하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 영국식으로 들어가야 한다. 즉 예를 들면 일본 항구로 가서 기슭에 검문 없이 대야 한다. 들여보내지 않으면 주먹질을 시작하고 모욕을 주고 전쟁을 시작하는 것이다. 아니면 다른 방법은 아편을 가지고 가는데 이런 엄격한 조치에 반대하면 전쟁을 선포하는 것이다.

전권대사들은 오랫동안 우리를 기다리게 했다. 우리는 이미 오래전부터 후갑관을 따라 왔다 갔다 했고 두어 번 뜨거운 만두 또는 커틀릿을 먹으러 조리실로 뛰어갔지만 그들 모두 오지는 않았다.

결국 1시경에 기슭에서 우리 쪽으로 소함대가 다가왔다. 50척 내지 60척의 보트들 가운데 두 개의 관처럼 생긴, 황금 활, 화상의 상외단과 권표가 박힌 붉은 소재의 관처럼 생긴 두 척의 덮개가 있는 큰 배도 천천히 오고 있다. 요트들은 노 젓는 사람들을 위해 주변에 갤러리가 있는 이층구조로 돼있다. 위에는 수행원이 자리하고 아래에는 전권대사들이 있다. 작은 요트 대부분은 밧줄로 큰 배들을 끌었다. 큰 배의 앞쪽에 술을 든 일본인이 서서 그것을 흔들면서 고향을 지르면서 예인선들을 인도했다. 고향소리는 어마어마했으며, 두 척의 관 모양의 배는 앞의 사다리에 갖다붙이고 일렬로 섰다.

귀족들과 통역관들은 자루에서 나오듯이 기어나왔고, 갑판에 불을 밝혔다. 그 뒤를 이어서 50명의 경비원들이 나왔다. 일본인들은 우리에게 의례를 양보하려 하지 않았다. 수행원과 사람들의 접대를 위해서, 질서를 준수하기 위해서 몇몇 장교들이 임명되었다. 결국 전권대사들도 나왔다. K.N.P.와 나는 들어올 때 그들을 맞이했고 제독은 자신의 선실 문 옆에 있었다. 후갑관에는 연주를 하면서 경비병들이 호출되었다. 그들은 전함을 살펴보도록 명령받았고 기꺼이 받아들였다. 나는 노인이 오리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다. 그는 어떻게 된 것일까? 그러나 그는 놀라울 정도로 활기에 넘쳤으며 갑판을 돌아다녔고 가장 낮은 곳에 있는 병기고로 내려가서 그 어떤 피곤한 기색도 보이지 않았다. 그들은 모든 곳을 둘러보았고 질문을 해댔다. 만약 뭔가 덮여 있는 것을 발견하거나 금지된 것을 발견하면 살짝 들어보고 저기에 무엇이 있

는지, 왜 그런지 물어봤다.

그들은 제독실로 안내되었다. 그 선실은 아주 깨끗하게 정돈되었다. 선실은 벽 또는 바닥식으로 칸막이가 있으며 문은 붉은 나무로 만들고 마루와 갑판이 있으며 카펫이 깔려 있다. 창문에는 붉은색과 초록색의 휘장이 쳐져 있다. 네 명의 전권대사를 위해 다채로운 영국 담요로 덮인 넓고 높지 않은 소파가 준비되었다. 잠시 동안 앉아 있다가 모두들 위 텐트로 갔다. 전권대사들은 세상에서 오랜 세월 살아온 섬세한 사람들처럼 행동했다. 유럽의 배, 가구, 장식 등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모든 것이 그들을 감탄시켰다. 한 걸음 땀 때마다 그들에게는 새로운 것이었다. 그들은 다음 날 이를 인정했지만 여기서는 놀라움이나 환호의 시선이나 행동을 보이지 않았다. 그들은 음악도 처음 들었으며 그들 중 단 한 명만 오페라실에 앉아서 우리 음악 애호가гаа 하듯이 박자에 맞추어 머리를 흔들었다.

차가 나왔다. 그러는 사이 수병은 모두 갑판에 정렬했고 무기에 대한 강습이 시작되었다. 그런 다음 행진이 있었다. 4백 명이 돛대 주위, 후갑판에서 물탱크까지 행진했다. 그러나 무엇보다 효과적인 것은 경적을 울릴 때였다. 모든 맨홀에서 사람들이 쏟아져나와 쥐처럼 사방으로 자신의 무기를 들고 달려갔다. 나는 이것에 익숙했지만 관람객들은 흥미로워하는 듯 보였다. 이와 비슷한 것을 한 번이라도 본 적이 없는 사람들 아닌가! 그들에게 무기의 작동법을 보여주었다. 그들은 제독에게 감사 인사를 했고 모두에게 감사하다고 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독이 말했다. “매우 기쁩니다!” 400명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다시 효력이 있었다.

식탁이 차려졌다. 전권대사들과 행사진행자를 위해 제독실의 응접

실에 차렸다. 다른 식탁에는 제독과 우리 세 사람이 앉았다. 식당에는 전권대사들의 수행원 11명이 앉았고 공동선실에는 또 10명의 사람들이 앉았다. 경비병을 위해서는 포병 데크에 자리가 배정되었다.

비록 일본인들도 유럽식으로 식사를 하겠다고 부탁했지만 포크와 나이프가 아닌 젓가락이 제공되었다. 그들은 빵을 먹지 않아서 뜨거운 밥이 무한정 제공되었다. 그들은 접시에 담아 먹는 것이 익숙하지 않았다. 그들에게 수프와 우하¹⁰를 찻잔에 담아 제공했다. 수행원들이 식사하는 식당의 식탁에는 잼과 피로그¹¹가 담긴 접시들이 놓였다. 손님들은 이 접시들에서 시작해 수프까지, 달콤한 피로그와 사탕을 전부 먹어 치웠으며, 제공되었으니 천천히 먹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다. “이건 뭐죠?” 그들은 음식마다 물었고 뭔가를 기대하는 듯했다. 그들에게 더 많은 생선이 제공되었지만 통역관은 그들이 거의 먹어보지 못하는 고기를 기다린다고 말했다. 손님들은 고기에 대한 혐오감이 없으며 오히려 매우 좋아했다. 일본인들은 노동에 쓸 기축이 부족해서 명령이 없으면 먹지 못한다. 그들을 위해 특별히 준비된 우리의 고기 음식은 양고기로 만든 필라프¹²와 햄이었다. 그 당시 전함에는 소고기가 없었다. 그 외의 음식들은 생선이나 살아 있는 것들로 만들었다. 손님들은 기꺼이 양고기를 먹었는데 특히 네 번째 전권대사가 좋아했다. 그는 한 접시를 다 먹은 다음 손수 빈 그릇을 주었다. 더 달라는 표시였다. 식탁보·냅킨·소금그릇 이 모든 것이 그들의 관심을 끌었다. 그리고 그들

10 생선 수프.

11 만두처럼 속에 여러 가지 소가 들어간 빵.

12 쌀이나 으깬 밀 등의 곡식으로 만드는 음식.

에게 공평하게 나눠줘야 했다. 손님들은 일본과 유럽의 차이를 조금은 알 수 있을 정도로 우리의 식사 예절을 살펴보았다. 다만 그들 중 한 사람 카와지는 잠시 일본 관습을 유지했다. 크림 같은 걸쭉한 피로그가 스펀지 케이크와 함께 나왔다. 그는 맛볼 생각을 했고 마음에 들었던 것 같다. 그는 주머니에서 종이를 꺼내 접시에 남은 것을 모두 그 속에 싸고 꼭 쥐더니 순식간에 감췄다. “내가 어떤 미인에게 주려고 가져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는 말했다. “아닙니다. 제 부하들에게 주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대화는 모르는 사이 여자들에게 옮겨갔다. 일본인들은 좀 시니컬했다. 그들은 아시아의 모든 민족들처럼 감정적이었으며 이런 약점을 감추지도 않고 추구하지도 않았다. 만약 이에 대해 더 상세하게 알고 싶다면 캠퍼나 톤베르그를 읽어보시라. 후자는 자신의 여행에서 이에 대해 한 장을 할애하고 있다. 나는 일본 내부에 없었고 일본인들과 살아보지 않았다. 때문에 이런 주제에 대해 그들의 대화에서 어떤 것만 취할 수 있을 뿐이었다.

나와 P.는 식탁에서 자주 나와 그들에게 샴페인을 따라주었으며 어떤 음식이 필요한지를 보았고 또는 무엇으로 요리된 것인지를 설명했다. 그들은 우리의 친절함과 세심함에 안절부절 못했고 어떻게 고마워해야 할지 몰라 했다.

그들은 적당하게 마셨으며 큰 호기심을 가지고 조금씩 따라 술을 맛보았지만 키가 크고 덩치가 좋은 네 번째 전권대사를 제외하고 잔을 비우지는 않았다. 그 사람은 네 잔을 다 비웠다.

그들은 업무와 내일의 만남에 대해 암시받았다. 그러나 전권대사들은 대접받고 즐거운 대화가 오고 간 우리 축제를 즐겼으며 일에 대해서

는 완전히 잊었다고 대답했다.

통역관들은 바닥을 기어다녔다. 나는 일부러 통역관들을 다른 방으로 초대했다. 통역관들은 중요한 인물, 고귀한 신분이 참석해 있을 때 완전히 불가능한 일처럼 손도 발도 식사로부터 피해 있었다. 그러나 그들 목구멍은 바짝 말랐다. 기치베는 마치 그의 주위에서 개들이 짖어대는 듯이 바닥에서 사방으로 돌았다. ‘히, 히, 히’는 그가 부단히 그 사람에게도, 다른 사람에게도 반응하는 것이었다. 참석하지 않았던 식사 끝 무렵에 그는 아주 목이 쉬어서 움직임이 둔해졌다. 나는 그와 에이노스케에게 샴페인을 한잔 따라주었다. 그들은 이를 거부하기 시작했지만 카와지는 머리를 흔들었으며 그들은 카와지에게 머리를 조아리고서 탐욕스럽게 마셨다. 그런 다음 나에게 감사의 시선을 보내고 이마까지 잔을 들어올리며 감사의 표시를 했다.

나는 다른 방을 보았다. 거기에서 주연은 완전히 불타올랐다. 몇몇은 빨개지고 기분 좋은 웃음으로 보아 옆방 사람들 역시 우리 술을 맛보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나는 그들 사이에서 말끔히 면도하고 변발을 한 한 사람을 알아챘다. 이 사람은 의사였다. 의사와 주술사는 머리카락이 다 없었다. 그는 우리 의사들에게 충고했으며 매우 생기가 있었고 네덜란드어를 약간 했다. 디저트로 뜨거운 사케와 님은 멀 와인¹³을 그들에게 대접했다. 전권대사들은 더 많은 호기심으로 조금 마셨다. 그런 다음 우리는 그들의 관습을 모방해서 전권대사들 각자 앞에 사탕 상자를 놓았다. 그들은 그때 만족감이나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고 감탄사를 내뱉었다. 목조 모자이크가 있고 붉은 고급 목재로 만든 상자들이

¹³ 포도주를 데운 다음 향료·설탕·달걀 노른자 따위를 넣은 술.

너무 좋았던 모양이다. 다채로운 사탕도 눈길을 끌었다. 그런 다음 그들은 모스크바, 페테르부르크, 우리 군인, 영국에서 매입한 여자 머리그림, 과일, 꽃 등의 모양이 묘사된 채색 조각들을 선물받았다. 만족과 놀라움의 감탄사가 또다시 나왔다.

결국 저녁 무렵에 타민족의 습격은 그들을 방문해달라는 요청과 함께 모두 사라졌다.

다음 날 1월 5일 이른 아침에 통역관들이 손님 수에 대해서 물으러 왔다. 조금이 될 것이라고 말하자 그들은 더 많이, 고참 장교들 전부라도 초대할 것이라고 했다. 그들은 진짜 융성한 대접이 바로 이날 예정되어 있으며 잘 차린 식사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잘 차린 식사에 어떻게 가지 않겠는가? 가려 하지 않던 대다수가 갔다.

정말 선착장에 많은 사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으며 큰 소동이 일어났다. 다채로운 치마를 입은 고위 관료들이 마중하러 나왔다. 나는 원뿔형의 모자를 쓴 군인들을 제외하고 이번에는 긴 대나무 장대 위에 물고기 부레로 만든 등불을 들고 있는 하인들을 유심히 보았다. 선착장의 맞은편 쪽으로 곧장 감시초소처럼 생겼는데 지은 지 얼마 안 되어 보이는 새로운 갤러리가 있었다. 거기에 무릎을 꿇고 네 줄로 50명가량의 일본인들이 앉아 있었다. 위쪽, 테라스 왼쪽과 앞쪽에, 주위에 그런 갤러리들이 있다. 기억나지 않는데 그 갤러리들이 전에도 여기에 있었는가? 그러나 바로 저기 말도 있었어! 결국 나는 그것도 보았다. 처참한 몰골의 암갈색 말은 음악을 두려워해 뛰었고 사다리로 돌진했다. 기병대는 겨우 그 말을 저지했다. 아마도 그는 일본 기병대의 대장인 듯했다. 그러나 우리 곁에 경비병은 적었으며 행진은 그렇게 웅장하지는 않았다.

일본인 전권대사들과 수행원들은 예전처럼 매우 예의 바르게 옷을 입었다. 추추이와 카와지는 최고회의에서 편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어디에 있나요?” 그들에게 물었다.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나라에서 오래된 상인 집안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쇠로 장식한 하얀 케이스와 술이 달린 실크 상자를 가리키면서 대답했다. “누가 편지를 받을 겁니까?” O.A.G.가 제독의 명령에 따라 중앙으로 나왔다. 행사진행자는 인사를 하고 다가와서 실크 상자를 열었다. ‘정말 그렇게 대단한 편지인가?’라고 나는 호기심을 가지고 상자를 보면서 생각했다. “받아주세요.” 통역관이 말했다. G.는 상자를 받아들고 손에 꼭 쥐었다. 그는 ‘휴게실’로 갔고 우리는 그 뒤를 따랐으며 우리 뒤를 따라 가방이 운반되었다. ‘왜 커다란 가방이 있지?’라고 나는 가방을 의심스럽게 보면서 생각했다. 그것을 열어보자 거기에 조금 더 작은 다른 가방이 있고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는 조금 더 작은 것들이 있었다. 바로 이 네 번째 가방도 실크였으며 다섯 번째는 상자였다. 그러나 왜 이 상자는 무겁지? 뚜껑을 열고 그 안에 여섯 번째이면서 마지막 상자를 보았다. 하얀 칠이 된 나무로 만들었으며 구석에 목이 박힌 은으로 된 섬세한 수공품이었다. 그러나 이 상자에 러시아에서 온 편지에 대한 답으로 고로치에가 보낸 문서가 놓여 있었다. 그 문서는 양피지 같은 황금으로 된 두꺼운 종이 위에 쓰여 있고 몇 개의 실크 커버로 싸여져 있었다. 얼마나 머리가 비상한 사람들인가!

이 이후에 행사진행자는 쇼군이 러시아 전권대사에게 선물을 보내왔다고 설명했으며 받을 것을 요청했다. 선물들이 존경의 의미로 받아들여진다는 의미로 각각을 두 손으로 받아야 했다. ‘진기한 것들을 선물한 거야.’라고 모두들 생각했다. “쇼군 자신에게서 온 거잖아!” “뭘 선

물한 거지?” 우리는 선물을 받으러 홀로 간 P.에게 속삭이며 물었다. “목화솜이야.” “어떤 목화솜?” “실크 목화솜, 실크소재로 된 것 말이야.” “실크 소재면 좋은 거지.”

이때 하인들은 침대 비슷한 대좌를 들고 왔다. 그 위에는 천 조각들과 목화솜이 놓여 있었다. 두 가지 색, 하얀색과 붉은색 천은 무늬가 있었다. 그러나 고귀한 집에서는 결코 창문에 휘장을 치지 않는다는 것은 너무도 단순한 사실이다. ‘그들에게는 좋은 것이 없거나 쇼군이 줄 수 없는 것일까?’ 우리가 전권대사들의 옷에서 보았던 것보다 더 좋은 천들이 리옹에서 만들어지고 있다. 그러나 일본인들은 타인의 시선을 자신들의 부로 끌어들이지 않기 위해, 그리고 무역을 포기시키려는 목적으로 실크를 보여주지도 않고 선물하지도 않는 것이다. 더구나 그들에게 실크는 철과 함께 유출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일본에서 실크는 적다. 원료는 중국에서 들어오며 그들은 자신들이 이용할 목적으로 재료를 만들고 있다.

중고 비싼 재료는 일본 남단의 접근할 수 없는 작은 바위 위에서만 들어진다. 어떤 배도 그 바위에 도달할 수 없으며 죄인들은 알려진 기간에 예비식량을 공급받는다. 그러면 그들은 밧줄로 식량을 위로 끌어올린다. 섬 자체는 작고 경작을 할 수 없다.

결국 편지와 선물이 든 가방이 나타났고 모든 것을 치웠다. 행사진행자는 다시 쇼군이 식사에 초대하라고 명령했다고 말하러 왔다. 식사는 보다시피 화려하게 준비되었다. 열두 개의 대좌나 탁자가 우리들 각자에게 놓였다. 각각의 탁자 위에는 두 개씩 세 개씩, 다른 것 위에는 더 많은 음식이 든 잔이 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작은 탁자들과 상자들이 인형처럼 놓여 있다. 그 위에는 야채로 만든 꽃과 아주 솜씨 좋게

만든 꽃이 있다. 꽃 아래에는 전채요리들이 놓였다. 맛이 기가 막힌 놀러놓은 노란 상어알, 익히지 않은 생선, 붉은 파스텔라¹⁴ 치즈처럼 생선으로 만든 것들이 놓여 있다.

특별히 작은 식탁에는 각각 마치 진짜 날개와 꼬리, 머리를 가진 도요새를 닮은 새가 나무 막대기 위에 놓여 있다. 내가 무엇을 먹어야 할지 몰라서 생각에 잠겨 있을 때 행사진행자인 나카무라 타메야가 나에게 다가와서 맛볼 것을 제안하면서 새를 가리켰다. ‘새가 날개 속에 있는데 어떻게 먹지?’ 나는 그 새를 손에 쥐고 생각했다. 그러나 날개 사이에 굵고 잘게 자른 새의 고기가 붙어 있었다. 들새는 매우 맛있었다. 나는 새를 전부 먹어치웠다. 나카무라는 내가 다른 것을 먹을 것인지 눈치를 보내며 물었다. “네.” 나는 확실하게 말했다. 하인은 뛰어들어와 새가 놓였던 작은 대좌를 들고 나가서는 다른 것을 들고 왔다. 그러는 사이 나는 그 밖의 것들에도 관심을 보였다. 마카로니와 조금 유사한 클로츠키¹⁵가 들어간 달콤한 진한 수프를 먹었다. 거기에 있는 것을 나는 먹을 수가 없었다.

더구나 전체적으로 삶은 버섯으로 만든 진한 수프, 소스가 들어간 고기 국물에 있는 생선, 삶은 나물, 삶은 계와 오리, 절인 야채가 나왔다. 처음과 모든 것이 똑같았지만 많은 것이 첨가된 것이다.

굵은 꼬리와 머리가 있는 생선은 처음 것과 같았는데 다만 이전 것보다 훨씬 더 컸다. 이것은 붉고 살이 많은 생선인데 네덜란드어로

14 마시멜로로 만든 막대기.

15 찹쌀로 새알을 만들어 넣는 것처럼 밀가루 반죽 조각을 뜯어서 고깃국이나 우유 등에 넣는 것. 수제비와 비슷하다.

Stein-brassen, 일본어로는 ‘타이’라고 한다. 일본에서는 진미 요리며 정말 맛있었다.

조화와 날개가 달린 들새는 나에게 그런 장식으로 잔뜩 멧을 부린 오래된 유럽의 잊혀진 요리를 생각나게 했다. 오래전에 당근과 비트로 형상을 조각하고 요리에 무늬를 넣고 캔디로 사원을 만드는 등의 솜씨를 그만두었나? 현재도 지방마다 그런 정밀한 것들을 볼 수는 있다. 가장 최근에 생긴 식료품점은 맛을 북돋우지 않는 장식을 피한다. 시각을 즐겁게 하는 것은 식료품점이 해야 할 일은 아니다. 식료품점은 햄으로 사탕을 만들고 마요네즈로 꽃을 만드는 것과 같은 작은 예술을 무시한다.

다시 우리는 사케를 마셨고 일본인들은 그에 더해 뜨거운 물을 마셨다. 다시 단것들을 내왔는데 다만 이전 것보다 훨씬 큰 것이었다. 특히 접대자들은 어떤 향아리에서 달콤한 반죽을 내더니 먹으라고 우리에게 진심으로 권했다. 거기에는 맛이 일부는 감자와 비슷하고 일부는 귀리 분말을 담은 파랗고 하얗고 붉은 캔디들이 있었다. 양귀비 역시 역할을 했지만 무엇보다도 쌀이 역할을 했다. 쌀로 별·삼각형·평행사변형 등을 만들었다. 반죽으로 ‘블린’ 비슷한 뭔가를 만들었는데 속에는 설탕 가루가 들었으며 원시적인 형태로 마치 갈대에서 얻어진 것 같았다. 끈적끈적한 비투스카¹⁶ 등이었다. 그다음에는 초콜릿처럼 거품이 있는 으깬 비싼 차가 나왔다.

특히 나는 이런 요리에 각종 식물성 기름이 없다는 사실이 만족스러웠다. 일본인들은 하루에 세 끼를 먹고 매우 절제한다. 사람들이 일어

¹⁶ 긴 두루마리처럼 말려진 빵.

나는 아침에(그들은 매우 일찍 일어나는데 심지어 새벽에 일어난다), 그런 다음 점심 무렵에 먹고 끝으로 6시에 식사를 한다. 그들의 양은 식성 좋은 사람의 전채요리의 양에도 못 미칠 정도로 적다. 일본인들이 먹는 잔은 매우 작으며 다 채우지 않는다. 잔에 작은 생선 조각을 얹고 다른 잔에는 세 개의 버섯이 뜨거운 물속에서 떠다니며, 소스를 끼얹은 생선은 한입에 바로 들어갈 정도로 작았다. 모든 식사가 그렇다. 이전에 포로로 잡힌 선원들이 먹을 것을 적게 준다고 한 골로브닌이 옳았다. 일본인 본인들 생각에는 충분하다고 봤지만 그들에게는 적었던 것이다.

우리는 이런 융숭한 식사 준비를 위해 시마바라 지방 군주의 요리사가 초대되었다고 나중에 알게 되었다. 시마바라는 나가사키에서 대략 20마일 정도 떨어진 니모 곶의 저쪽에 있는 커다란 만이다. 시마바라 군주가 궁전으로 갈 때 일본인들이 말하기를 요리사는 자신의 예술을 뽐내려고 그를 쫓아 그리로 간다고 한다.

해질 무렵 우리는 주인들과 헤어져 음악을 들으며 집으로 돌아왔다. 우리 뒤를 따라 관료들이 우리가 만족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왔으며 선물을 실어날랐다. 이 선물들은 너무 성가시게 하는군! 상자들을 물속으로 던지는 것이 서툴다. 일본인들은 우리가 선물을 소홀히 다루고 돌자리가 없는 것을 보면서 이야기할 것이다. 커다란 물고기를 넣기 위해 상자들이 만들어졌고 사탕을 위해서도 특히 그렇고, 달콤한 빵을 위해서 다시 특별히 상자를 만들었다. 나는 몇 개의 작은 대좌를 방치했다. 만약 내가 나른다면 인내와 동시에 사소한 내용물의 전형을 보게 될 것이다.

쇼군에게서 받은 선물, 목화솜 등이 운반되었으며 모두 갑판에 모아 놓았다. 지나다닐 테가 없었다. 그것은 전함 모두를 뒤덮을 정도로 많

았다.

다음 날 나가사키로의 우리의 여행과 회담도 계속 진행되었다. 우리는 그 어떤 격식도 차리지 않고 두 대의 마차를 타고 다녔다. 마차 한 대에는 제독과 우리 네 사람, 즉 P-t, G., P-v와 내가 타고 다른 한 대에는 의자와 함께 하인들이 탔다. 우리가 기슭에 의자를 놓아두겠다고 제안하자 영주 집에서는 두 손 두 발 들고 이에 반대하고 나섰다. 그는 그 자신이 거기서 자면서 의자들을 지켜야만 한다고 말했다. “불이 나면 다 타버릴 겁니다”라고 하면서 그는 “이 집에 쥐도 많이 있어서 망쳐놓을 겁니다”라고 말했다. 우리 모두는 웃었고 그는 참지 못하고 씩 웃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우리 책임입니다.” 제독이 반박했다. “당신들은 책임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의자 하나라도 손상이 되면 저는 어쨌든 책임을 져야 할 겁니다.” 그가 말했고 동의는 하지 않았지만 만약 우리가 의자들을 우리 스스로 신고 다니는 것이 싫다면 의자들을 일본 배에 도로 날라다줄 것을 제안했고 그렇게 되었다.

장소를 내주라는 명령이 떨어졌고 영주는 집의 완공을 위한 기간만 요청했다는 등등에 대해 내가 썼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러나 여러 날이 흘렀고 약속은 그대로였다. 즉 우리를 위한 장소는 아직 제공되지 않았다. 영주에게 불만을 표하자 미소를 지었다. 영주는 스스로 행동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였다. 물론 그에게는 우리의 출발까지 일을 지연시키라는 임무가 내려졌고 이를 훌륭하게 수행했다. 결국 결코 더 이상 지연시킬 수 없어서 영주는 장소를 마련했다고 말했으며 동의할 수 없을 정도의 조건에서 그 장소를 이용할 것을 제안했다. 예를 들면 귀족들이 기슭으로 우리를 배웅하고 배로 돌아가는 것을 배웅하는 것이다. 제독은 그들에게 장소가 필요 없다고 말하라고 명령했으며 이런 조건

에 대한 서류를 돌려보냈다. 일본인들은 그것을 원했다. 그들은 외국인들이 기슭에 드나들게 해서는 안 되었다. 만약 그들이 우리에게 장소를 제공한다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제공해야만 했을 것이다. 그들은 이런 이유 때문에 거절하거나 가능한 한 그것의 경계를 짓고 결국 이 사건을 없던 것으로 하기를 바랐다.

나는 제독과 전권대사들 간의 나가사키 회의의 주제에 관여하지 않는다. 이 회담은 머지않아 파노라마처럼 내가 당신에게 우리 여행의 외면적 측면만 제시하는 이런 소극적인 편지가 아니라 더 중요한 다른 종류의 기술을 위한 자료로 삼을 수 있다.

우리는 종종 나가사키를 거의 하루 걸러 돌아다니고는 했다. 관료들은 비록 우리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요청했는데도 매번 우리 뒤를 쫓아와서 길을 친절하게 알려주었다. 그들은 외국인들이 자신들의 에스콰트를 받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했다. 그들은 왜 그러는 걸까? 그들은 돌려보내라는 명령을 받았고 그들의 배가 전함에서 떨어져나가면 어느 정도 거리가 생길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나오면 노젓는 사람들은 노젓가락을 뽑는다. '오실리안, 오실리안'. 그러면 우리를 쫓아오려고 애쓰기 시작할 것이다.

두 번째 회담으로 지정된 날의 날씨는 험악했다. 강풍이 밤부터 불어대고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다. 일본인들은 우리가 올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않아서 나타나지 않았고 기슭에서 우리를 기다리지도 않았다. 그러나 우리는 비옷을 입고 우산을 들고 출발했다. 강물처럼 물이 우리 몸에서 흘러내려도 우리는 괜찮아서 배를 타고 갔다. 일본인들은 입을 벌렸다. 그들은 험한 날씨를 맞은 파리처럼 구석에 앉아 있었다. 집 안에는 공기를 덥히기 위한 화로, 크지 않은 난로들이 놓여 있었

다. 그러나 공기는 따뜻하지 않았다. 손만 덥힐 수 있는 것이었다. 그들은 이것으로 어떻게 견디는 거지? 나는 이해할 수 없었다. 우리는 거의 매번 회의 때 외투를 입었다. 이것은 거의 대부분의 일본인이 나에게 다가와서 비버털 칼라를 만지는 이유일 것이다. 그들에게 모피가 있는 지에 대한 질문에 수달·여우 같은 짐승이 있다고 대답했다. 그러나 그 누구도 모피옷을 입고 다니지 않는다.

제독은 만나는 시간을 정할 것을 제안받았다. 그는 한번 이를 후로 정했지만 우리에게 놀란 일본인들은 더 일찍, 즉 다음 날로 정하자고 요청했다. 문제는 카와지가 에도에 있는 자신의 부인에게 가기를 원했고 그가 회담을 서둘러야 했다는 데 있다. “몸은 여기에 있지만 마음은 에도에 있습니다.”라고 그는 여러 번 말했다.

우리 모두는 카와지를 궁극적으로 추추이 노인과는 다른 의미에서 매우 좋아했다. 카와지는 아주 영리했으며 자신의 지혜를 우리에게 반대하는 교묘한 논리로 사용했는데도 존중받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데 그의 말 한마디·시선·매너조차도 건전한 지혜·기지·직관력과 노련미가 넘쳐났다. 지혜는 어디에서도 똑같다. 민족·옷·언어·종교, 심지어는 생활관이 달라도 영리한 사람들에게는 바보들이 모두 가진 것처럼 한 가지 공통된 특징이 있다.

나는 카와지가 고급스러운 부채에 의지하면서 그에게로 대화가 쏠릴 때 보고 듣는 모습이 마음에 들었다. 말의 절반까지는 그의 입이 반쯤 벌어지고 시선도 조금 생각에 잠겨 있다. 긴장된 관심의 표시다. 살짝 간 주름의 무늬가 변화하는 이마에서는 눈에 띄게 관념들이 차례로 머리로 모여들고 그가 들은 공통된 의미가 형성되어가는 방식이 드러난다. 말의 절반 이후 중요한 의미가 포착될 때 그의 입은 다물어질 것

이고 이마에서 주름이 사라지며 얼굴 전체도 빛날 것이다. 그는 이미 대답할 것을 알고 있다. 만약 상대방의 질문이 이야기된 것 외에 또 다른 숨겨진 의미가 있다면 카와지는 자기도 모르게 가벼운 미소를 드러낸다. 그가 말하기 시작하면 한참 계속되며 자신의 의미 속에 잠겨 있을 때 그의 눈은 지혜로 빛난다. 만약 노인이 말했다면 카와지는 눈의 빛을 잃고 마치 그의 일이 아니라는 듯 노인을 보지 않는다. 그러나 이마 주름의 생생한 놀이와 눈꺼풀과 눈썹의 전율은 그가 우리보다 더 많이 그의 말을 들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아마도 모든 회담은 카와지에게 맡겨질 것이고 추추이는 중요한 일에 더 많이 파견될 것이며 아마도 그의 유쾌한 성질대로 할 것이다.

어느 날 개인적인 대화를 나눌 때 제독은 일본인들이 쓸데없이 무역을 두려워한다는 증거를 냈다. 무역이 국민들을 만족시킬 수 있으며 어떤 민족도 무역을 해서 망하기보다 반대로 부유해졌다는 것이다.

외국인들이 그들과 무역을 할 수 있는 예를 그들에게 제공했다. “예를 들면 당신들의 집에는 우선 부족한 면이 눈에 띕니다. 창문들에는 종이가 붙여져 있죠.” 제독은 자기 주위를 보면서 말했다. “이 때문에 방안이 어둡고 추운 겁니다. 당신들에게 우리가 수입되고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배우게 되겠죠. 우리는 종이보다 더 좋고 값도 싸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요.” 그는 계속 말을 이어나갔다. “감차카와 다른 지역 가까운 곳에 많은 물고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소금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소금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생선을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일본의 주식이 되는 소금에 절인 생선을 가져다줄 겁니다. 왜 당신들은 쌀의 가공에 모든 일손을 이용합니까? 철을 채굴하는 데 일손을 이용하십시오. 그러면 순다 열도에서 쌀이 당신들에게 올 겁니다. 당신들은 더 풍

요로워질 수 있어요.” “네.” 카와지는 자신의 넓은 눈꺼풀을 갑자기 올리면서 말을 막았다. “외국인들이 생선, 유리와 쌀 등 필요한 물건들을 실어다준다면 좋은 일이지. 그러나 만약 그들이 어제 당신들이 나에게 선물한 그런 시계, 우리의 눈이 돌아갔던 시계를 신고 온다면 일본인들은 당신들에게 후자를 건넬 겁니다.” 그러나 그는 숫자판이 있는 평범한 시계가 아니라 달의 변화를 가리키고 두 개의 온도계가 있는 멋있는 탁상용 천문시계를 선물받았다. 우리 모두는 웃기 시작했고 그도 웃었다. “그러나 시계가 무척 마음에 들었다는 증거로 이 말을 받아주십시오.” 그는 덧붙였다.

이후의 일에 대해서 말하고 싶었지만 뭔가가 옮겨지지 않았다. “아니요. 우리는 이미 이 대화를 끝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웃고 나서 카와지는 천천히 발꿈치를 귀족스럽게 올리더니 덧붙였다.

유럽인이 아닌 그가 어떻게? 어느 날 식사 중에 종이에 피로그를 숨기고 다음번에는 매우 마음에 들어 했던 안초비¹⁷로 만든 콩을 접시 채웠던 것은 뭘까? 이것은 지방의 관습, 그 이상이 아니다. 그는 지금까지 접시와 숟가락을 본 적이 없었고 두 개의 막대기로 먹었으며 자신의 진한 수프를 잔에서 바로 마셨다. 그가 어떤 음식을 맛보고 나서 푸들처럼 그의 다리 옆에 앉아 있던 에이노스케에게 접시를 아무렇게나 건네주었던 것에 대해 나무랄 수 있을까? 통역관은 땅에 엎드려서 접시를 잡고 나머지를 먹어치웠다.

나는 이 모든 것을 보았고 중국의 시장과 군중이 우리의 옛 시장과 닮아 있어서 놀라기도 했고 이런 관습이 우리 옛 관습과 유사한 점에

17 멀치젯.

놀랐다. 그리고 고대의 귀족들 발 아래에 충직한 하인, 하녀, 어릿광대들이 앉아 있었으며 우리 역시 그들에게 툇이라고 불리는 조각들을 던졌다. 우리나라에서 손님들에게서 여러 선물들이 들어왔다. 그리보예도프는 자신의 회곡에서 ‘툇’에 대해 비웃은 것이 오래된 일인가? 우리 젊은이들의 시대에 특히 일반적인 생활 속에 전혀 사라지지 않은 몇몇 생활방식과 습관이 아시아의 요람에서 우리 교육방식에 들어왔다.

전권대사들은 여덟 번이나 열 번의 회의 후에 에도로 갈 때라고 선포했다. 그들의 군주가 죽었다는 것, 새로운 쇼군이 매우 젊기 때문에 쇼군이 옛 법칙을 즉시 파괴할 것이 아니라 우선 민중 앞에 옛 법칙에 대한 존경을 보여주고, 후에 마치 필요해서 어쩔 수 없다는 듯해야 한다는 것을 이유로 들면서 몇 가지 질문에 대해서 연기해줄 것을 요청했다. 더구나 그는 60명에 달하는 모든 지방 영주들을 회의에 소집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어느 날 그들이 외국인들과의 무역을 지연시키는 문제에 대해 카와지가 답해줄 것이다. “우리에게 무역은 익숙하지 않은 새로운 일입니다. 어떻게 무엇을 거래해야 할지 생각해야 합니다. 처녀들을 시집보내는 일이죠.” 라며 “처녀는 성장하겠지만 우리의 무역은 아직 성장하지 않았습니다.”라고 덧붙였다.

일곱 번이나 여덟 번의 회의 이후에 이미 전함으로 행사진행자인 나카무라 타미야[中村田宮]가 에이노스케와 이야기된 모든 것을 기록할 네 명의 서기들을 데리고 다녀가기 시작했다. 아랫사람들은 얼마나 빨리 대장 노릇을 습득하는지, 더구나 여기서만 그런 게 아니란 말이지. 나카무라는 곰처럼 전권대사들이 앉았던 자리로 천천히 기어들어 왔고 많은 일본인들의 습관대로 주먹을 쥐어 무릎에 얹고 이마를 찌푸리고

는 예의를 차려가면서 말했다. 그러나 그에게 불행이 닥쳤다. 제독은 전권대사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중요한 서류가 들어 있는 인쇄된 봉투를 그에게 주었다.

나카무라는 무사히 봉투를 주소대로 배달했다. 그러나 다음 날 갑자기 바구니를 들고 봉투를 도로 가져가달라고 애원하면서 공포에 질려 나타났다. “왜 가져가라는 겁니까? 이것은 있을 수도 없으며 그럴 필요도 이유도 없습니다.”라고 대답할 것을 명령했다.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는 말했다. “제가 봉투를 돌려주지 못한다면 저는 감히 당신들로부터 떠날 수 없습니다. 제발 가지고 가주세요.”

전권대사들도 혼란에 빠졌다. “서류에는 어떤 뭔가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나카무라가 덧붙였다. “그들은 에도에 어떤 명령도 해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는 그들 자신도 당신들이 쓴 것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암시했다고 생각할 겁니다.” 서류를 받지 않는 것을 보면서 나카무라는 고로치에에게 직접 보낼 것을 요청했다. 이것에 동의했다.

그는 P-t가 제독의 명령에 따라 서류에 손을 내밀었을 때(이것은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니까) 너무나 기뻐했다. 그는 기뻐하면서 일본인들이 모두 달고 다니는(즉 지위가 높은 사람) 동으로 만든 향수병을 허리띠에서 풀어서 P-t에게 주었다. 우리는 모두 웃기 시작했다. 나카무라에게는 아직 뭔가 원시적인 것이 있지만 다만 외면상으로 그렇다. 그는 시선, 목소리, 움직임이 짐승과 조금 닮았다. 그는 P-t와 나를 좋아했고 계속해서 우리의 어깨를 만지면서 손을 내밀었다. 네 명의 전권대사들과 나카무라가 우리와 함께 제독실에서 식사하려고 앉았던 전함 첫 방문에서 그는 나에게 위치를 지정해주었고 건배를 제안했는데 모두를, 특히 나를 만난 것이 매우 기쁘다고 말하면서 제안했다. 그러나 나와

Pt는 아마도 우리가 접대자가 되어 정성껏 손님을 즐겁게 하고 그를 포함해서 삼페인을 따라주는 일로 관심을 샀던 모양이었다.

“우리는 당신들을 그렇게 대접할 수 없어요.” 그들은 마치 질투하듯이 걱정이 담긴 투로 말했다. 나카무라는 선장실에 있는 피아노를 매우 좋아했다. 연주하기 시작했을 때 그는 환호성을 질렀다. 코토 코토라고 그는 포르테피아노를 가리키면서 끊어서 힘주어 말했다. 일본 사람들이 연주하는 포르테피아노와 모양이 닮은 구슬리¹⁸같이 생긴 일본 악기를 그렇게 부른다.

제독이 가지고 온 서류를 읽는 동안 그가 뭔가에 정신이 팔리도록 나는 작년에 나온 여성 패션에 관련 그림들을 그에게 여럿 보여주었다. 이 그림들은 잡지에 붙어 있던 것들이었다. 여성 형상과 드레스는 커다란 효과를 불러일으켰다. 나는 이것을 알아채고는 잡지에서 그림들을 찢어 그에게 선물했다. 그는 환호성을 질렀다. 나는 또 내가 텡즈강 아래 터널에서 산 무게가 18푼트가 나가는 두루마리 형태의 런던 풍경을 그에게 선물했다. 나카무라는 기뻐했고 다음 날 나에게 좋은 담배와 두 개의 담뱃대와 두 개의 작은 담배주머니를 가지고 왔다. 그는 건네면서 ‘타바코 타바코’를 반복했다. 포르투갈 사람들이 그들에게 담배와 함께 이 말을 가져다주었다.

나는 나카무라를 맡으면서 작은 일본어 사전인 튤베르그를 잡고 대화거리로 라틴 문자로 쓰인 일본 문장을 읽기 시작했다. 나카무라와 다른 일본 대화자들 사이에 박장대소가 터져나왔다. 그 외에 거기에는 ‘미수리 집을 나에게 보여줘’라는 문장이 있다. 나는 미수리 대신에 영

¹⁸ 기타와 비파 비슷한 러시아 전통악기.

주인 오보사바의 이름을 넣었더니 손님들에게 깊은 오해와 경악을 불러일으켰다. 나카무라와 그의 대화자들, 두 명의 통역관은 영주의 이름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책을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나카무라는 나의 재치를 알아채고는 나에게 손가락으로 위협하며 큰소리로 웃었다. 그러나 그는 비록 곰 같은 외모를 지니고 있지만 눈치가 빠르고 활동적인 사람이었다.

에이노스케는 모든 사람들과 반대로 행동했다. 그는 카와지의 통역관이었고 때문에 회담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통역했다. 그는 알았지만 다른 전권대사들의 말을 거의 듣지 않았다. 카와지가 없을 때 그는 넘어지듯 의자에 앉았다. 대체로 그가 어른이라는 것을 숨기지 않았고 회담이 끝날 무렵 처음보다 훨씬 더 거칠게 행동했다. 그는 개의치 않고 흥청거렸다. 에이노스케는 종종 삼페인을 청했고 나카무라가 있을 때 한 번, 그렇게 네 잔을 마셔서 스스로 판단해 들은 말을 통역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다른 통역관을 데리고 가겠다는 말을 들었다. 기치베는 잊혀졌다. 그는 이빨을 보이며 구석에 앉아 사방에 대고 하이(네)라고 해댔다. 그는 ‘기치베’, ‘기치베’ 라고 사람들이 부를 때 이쪽도 일본인들 쪽으로도 빠르게 돌아보면서 그는 ‘하이’라고 말했다. 나는 ‘치키베!’라고 어느 날 농담조로 불렀다. 그는 내쪽으로 ‘하이’라고 말하면서 나에게 기어왔지만 실수라는 것을 알아채고는 선하게 웃더니 도로 기어갔다.

우리가 나가사키로 갔을 때, 우리는 매일 정오 3시경에 반케트¹⁹라는 차와 사탕의 전채요리를 대접받았다. 우리도 나카무라와 그의 모든

¹⁹ 연회.

수행원을 대접했으며 그들은 기꺼이 우리에게로 왔다. 영주의 관리들은 그 이상은 나타나지 않았다. 왜냐하면 문제는 전권대사들과 그들과 함께 왔던 관료들에게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그들은 만족스럽게 고기를 먹었고 체리술을 마셨다. 매번 그들은 즐거워했고 마법 등불, 증기선 모델, 레일을 보았다. 그들은 증기에 놀라면서 기계 스스로가 돌진하는 것을 입을 벌린 채 바라보았다. 그들을 위해 작은 오르간들이 연주되었고 결국 우리의 계속되는 음악은 천둥소리처럼 커졌다.

제독은 나카무라에게 전함에서 있을 두 번째 송별 식사에 전권대사들을 초대한다고 말하라고 지시했다. 그 사이에 일본식 음력 1월 1일에 시작되는 그들의 새해가 도래했다. 이날은 1월 17일이었다. 제독은 두 명의 고위 전권대사들에게 체리술과 알코올, 소 일부, 피로그로 구성된 두 개의 자신의 초대장과 선물을 보냈고 그다음에 작은 오르간·그림·앨범 등을 보냈다.

우리 식으로 1월 20일에 다시 전권대사도 오기로 약속했고 그리고 왔다. 그들은 와서 전함에 기꺼운 마음으로 왔다고 말했다. 그들에게 차가 대접되었고 그다음에 제독은 일에 대해 말하기 시작했다.

식사 전에 다시 포병 갑판에 있는 그들에게 주의를 주었다. 그러나 이 때문에 그들은 마음을 졸일 것이다. 익숙하지 않은 사람에게에는 갑자기 400명이 북소리를 내며 포대로 뛰어갈 때 끔찍할 것이다. 그러므로 깨끗하게 있지 못하고 넘어질 것이다. 대포를 풀어서 움직여서 장전하고 발사하고(예를 들어 두드리는 관처럼 즉 뇌관처럼) 다시 갑판으로 가지고 온다. 거의 5아르신의 무기가 장난감처럼 날아다닌다. 포탄은 사람들을 괴롭히며 뇌관의 발사와 두들김, 군대의 소리, 이 모든 것을 본다는 것이 고통스러우며 일본인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것이다. 이런 만

죽감을 우리 손님들은 전혀 좋아하지 않는 듯 보인다. 노인 추추이는 바보처럼 놀라워했다. 빨리 멈추라고 명령이 내려졌다. 전야에 그들은 자신을 위한 것처럼 했지만 사실은 에도에서 내려온 명령에 따라 새로운 가늌자가 있는 소총 한 대와 몇 개의 뇌관을 선물해달라고 에이노스케를 보냈다. 그러나 제독은 가장 친근하고 지속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만 그런 물건들을 선물할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거절했다.

경보 이후에 돛 훈련이 시작되었다. 몇 분 만에 돛을 내리고 치우는 것이다.

다음에 이전과 같은 식이 아니라 유럽식으로 모두 함께 즉 네 명의 전권대사들 모두, 그다음에 타미야와 우리 일곱 명이 모두 식탁에 앉았다. 나머지는 공동선실에 식탁이 차려졌다. 기치베와 에이노스케는 다시 마루에 두 명의 최고 전권대사들의 다리 옆에 앉았다. 모든 음식들은 유럽식으로 나왔다. 나는 카와지가 그 음식들을 먹을 수 있도록 도왔고 P-1은 추추이를 도왔다. 카와지는 모든 것을 맛보았으며 음식마다 질문했고 노인은 그에게 주어진 것은 무엇이든지 마치 무의식적으로 씹는 듯 보였다. 그들은 처음보다 기꺼이 더 많이 마셨으며, 우리의 촉배를 주도하는 법을 배웠고, 우리에게도 자신들에게도 계속해서 술을 따랐다. 우리는 조금 마셨지만 그들은 매번 자신의 잔을 즐겁게 다 마셨다.

식사 중간에 카와지는 조금 흥분하기 시작했다. 노인은 아무렇지도 않았다. 샴페인이 나왔다. 마개가 튀어나왔고 술 거품이 밖으로 흘러나왔을 때 그들의 눈이 커졌다. 에이노스케는 노련한 사람처럼 그들에게 이 술의 특성을 서둘러 설명했다. 제독은 건배를 제안했다. “우리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기를.” 카와지는 샴페인 한 잔과 과일주 세 잔을 마신

후 식탁에 머리를 대고 잠시 그렇게 있다가 잠이 든 것처럼 취해서 흔들거리며 빠르게 물었다. “그가 제독과 우리를 자기 집에 마지막으로 초대한 건 언제일까요?” “언제라도 그에게는 그렇게 번거로운 일이 아닐 겁니다.”라는 대답을 들었다. 그러나 그는 날을 지정해주시기를 요청했다. 제독이 이를 후라고 지정했을 때 카와지는 이날까지 제독이 요구한 서신은 준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카와지는 모든 것을 분명히 했다. “만날 때까지 안녕히 계세요.” 그는 우리가 나가사키를 떠나 어디로 돌아갈 것인지, 러시아로 돌아갈 것인지 알고 싶어 했다. 에이노스케는 어느 날 제독실에 있는 식탁을 재기 시작했다. “왜 그러세요?” 그는 질문을 받았다. “똑같은 것을 만들려고요.” 그는 대답했다. “당신들을 다시 초대할 때 쓰려고요.” 그는 이런 경우에 우리들이 의도를 드러낼지를 생각했다. 그러나 그는 아무런 말도 듣지 못했다. 우리는 “안녕히 가세요.”라는 말만 했다. 그리고 어디에 언제라는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이것은 그들을 놀라게 했다. 에도에 갑자기 나타나는 걸까? 그러면 전권대사들은 모든 노력이 사라지고 나가사키에 그들이 오는 것은 쓸데없는 일이 되어버린다. 그들은 우리를 에도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말하자면 우리가 미국인들과 충돌하지 않도록 하고 지금의 무역을 개방하지 않기 위해서다. 아마도 동일한 회담을 두려워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물론 여러분은 일본인들이 미국인들을 위해 세 개의 항구를 개방했다는 것을 신문을 통해 알고 있을 것이다. 제독은 이 이후에 일본의 격리가 협정 없이 저절로 끝나야 한다고 생각한다. 더구나 일본인들이 무역 비슷한 그 어떤 것도 하려 하지 않으면서 그들 사이에 존재하는 이 문제를 고심하지도 해결하지도, 장작·식량·배달·물에 대한 지불

에 대해 듣지 않으려 하는 동안에는 포경선들은 왕래할 기회를 잃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포경선에도 이로울 것이며 특히 장작은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니까. 그들이 고래를 잡고나서 대양에서 고래로부터 지방을 태워야 한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지금 대다수의 포경선이 항해하고 있다. 배가 방문하고 식량과 물을 얻기 위해서만 개방되었던 일본 항구에서 포경선들이 무역을 하지 않도록 어떻게 살펴보겠다는 건지, 더구나 빨리 사라지면 어떻게 하겠단 말이지? 일본인들은 기슭으로 내려와서 상품들을 선적하는 것을 방해할 것이다. 여러 번 논쟁이 오가고 아마도 주먹질도 있을 수 있다. 처음에는 개인적인 일로 시작되겠지만 거기서 …… 이 모든 것이 진행되는 과정은 뻔한 일이다.

나는 식사를 하는 동안 카와지의 손에 들린 부채를 잠시 보았다. 종이를 펼쳐놓은 것같이 평범하며 팜 나무로 만들었다. 나는 그에게 돌려주려 했지만 에이노스케가 통역한 바에 따르면 그는 '기억'의 징표로 내가 가졌으면 한다는 것이다. 나는 감사인사를 했으나 오래 머무는 게 싫어서 나의 시계에서 황금 단추를 풀어 그에게 주었다. 그는 잠시 멈춰서더니 통역사가 말한 나의 인사말을 듣고 고맙다고 하면서 내 선물을 받았다. 그런 다음 식탁에서 물러나 에이노스케에게 뭔가를 속삭였다. 그것은 바로 카와지와 추추이가 나와 P.에게 줄 담뱃대가 든 상자 두 개를 선물하려고 준비했다는 것이다. 아마도 그는 나에게서 황금 단추를 받고나서 그의 선물이 너무 약소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기치베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식사 후 나의 주위를 돌기 시작했고 자신의 습관대로 웃으면서 신음했다. 그는 두 번 정도 나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결국 참지 못하고 세 번째에 내가 네덜란드어를 모른다는 것에 신경 쓰지 말라고 말했다. “추추이와 카와지 각하는 당신과 P.가 자신들이 주

는 작은 선물을 받아달라고 했습니다.” 에이노스케는 그가 말을 채 끝 내지도 않았는데 식당으로 데리고 갔다. 담뱃대를 전부 P.에게 선물했다. 그는 내 덕에 두 배의 선물을 받은 것이다.

다음 날 카와지는 나에게 세 조각의 실크와 동으로 된 담배 파이프와 담뱃대와 함께 네 개의 팜 나무로 만든 치보크²⁰를 보내왔다. 동은 황금처럼 빛났다. 사실 일본 동에는 금이 많이 섞여 있다. 나는 추추이에게 금칠이 된 은수저, 흑금 상감된 우리 목공 수저를 선물했고 그가 그 수저로 먹는 습관을 들이기를 바랐으며 ‘러시아 사람들과 식사할 기회를 더 자주 만들어 주길 희망하면서’ 자신의 아이들을 가르칠 것이다. 그는 나에게 두 개의 작은 상자를 답례로 보내왔다. 하나는 자개로 상감한 것이며 또 다른 하나는 여행할 때 음식을 넣어 다니는 상어가죽으로 짠 목조 식기였다. 이것은 매우 독특한 물건이었다. 내가 돈지갑을 선물했던 세 번째 전권대사는 나에게 담배 지갑 여섯 개와 칼 손잡이를 선물했다. 일본인들은 자신의 칼 위에 여러 가지를 새겨넣으며 작은 칼을 가지고 다닌다. 내가 선물받은 강철 손잡이는 꽃·새·일본어가 새겨진 것으로 섬세한 세공품이었다. 나카무라는 동으로 된 일본의 잉크·붓·먹을 보내왔다.

제독에게 보낸 선물들은 갑판과 선실을 전부 채웠다. 물건 자체는 별로 크지 않았지만 각각의 선물을 담기 위해 상자들이 특별 제작되었고 마치 100년은 걸려야 할 정도로 섬세했다. 대부분의 선물은 매우 뛰어난 것이었고 하나는 우아하고 다른 하나는 우리에게는 드문 것들이었다. 도자기 꽃병과 잔들은 훌륭했고 칠이 된 것들은 더 좋았다. 작은

²⁰ 터키의 긴 담뱃대.

탁자들·작은 장들·책장, 심지어 스크린까지 보내왔다. 일본 정장을 차려입은 인형, 단도, 단도의 장식품 등도 포함되어 있다. 콩들도 보내왔다. 이것은 가벼운 벌이었다. 관료들 중의 한 사람은 콩이 든 큰 통 15개 정도를 선물했다. 사케, 말린 생선, 상어알을 보내왔다. 영주는 다시 채소들을 보내왔는데, 이 모든 것은 작별인사였다.

식사 후 제독은 카와지에게 황금 시계를 주었다. “지금 당신에게 선물한 쇠사슬에 다는 겁니다.” 라고 그는 덧붙였다. 카와지는 환호성을 질렀다. 그는 마치 그런 선물에 대해 묻는 듯 회의에 참석했고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시골 하인들에게서도 찾아보기 힘든 자신의 두텁고 볼품없는 은시계를 보여주었다. 추추이는 역시 금시계인데 좀 더 작은 시계와 실크 천 두 조각을 선물받았다. 다른 두 개의 천 조각도 받았다.

8시에 그들은 떠났다. 그들이 전함에서 10사젠 정도 멀어지자 갑자기 처음에 불꽃이 나타나더니 다음에 불이 약하지만 번쩍였고 그다음엔 갑자기 모든 전함이 마치 불이 붙은 듯했다. 그리고 멀리 외곽은 환상적인 백골 불꽃(청백색의 지속성 불꽃으로 해난신호·무대조명용)이 환하게 빛났다. 갑판 위의 바늘을 볼 수 있을 정도였으며 붉은빛이 너무나 밝게 전함과 멀리 떨어진 일본 배들을 뒤덮었고 더욱더 밝게 붉은빛이 물 위에 비쳤다. 이것은 효과가 있었다. 다음 날 일본인들은 이에 대한 이야기만 했다. 그들은 어떻게? 무엇이? 무엇에서? 라고 질문했고 이것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보여달라고 요청했다.

토요일에 우리는 그들에게 갔다. 방안은 날이 화창했는데도 어둡고 습했고 추웠다. 점심시간까지 인사하고 우정을 교환하는 데 시간을 보냈다. 그리고 영주들과도 화해했다. 제독은 비록 그들과의 관계가 기습에 자리를 내주는 일로 인해 조금도 유쾌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영주들

은 지도부의 명령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 유감이 없으며 오히려 친절하게 식량·물 등을 일부 제공해준 것에 대해 감사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만약 지도부가 외국인과 어떠한 관계든 가질 생각이 있다면 모든 고귀한 민족들의 불편이 모욕적으로 느껴질 그런 불편함을 없애는 것에 대해 생각할 때라는 것을 지도부에 건의해달라고 그들에게 요청했다. 영주는 이에 대해 자신의 지도부에게 전하겠다고 대답했으며, 공급이 때때로 부족함의 이유로 요구한 만큼 충분히 제공되지 않은 것에 용서를 구했다. 영주들에게 실크 옷감이 배달되었다. 그들은 무엇으로 답례를 해야 할지 몰라 했다. 우리가 그 안에 무엇이 들어 있는지 궁금해할 마음도 안 생길 정도로 상자가 많았다.

전권대사들의 집에서 행해진 작별 식사는 완벽했고 좋았다. 파가 곁들여지고 콩과 양념이 곁들여진 진한 수프는 매우 맛있었다. 그 안에는 무엇으로 만들었는지 알 수 없는 고기완자가 떠다녔다. 나는 다시 만족스럽게 압축된 붉은 상어알, 소스를 곁들인 생선을 먹었고 뜨거운 밥 두 공기를 먹어치웠다. 나카무라는 우리를 따라 했고 끊임없이 우리 모두에게 와서 진심으로 즐겁게 해주었다. “뭐 더 필요한 것 없어요?” 라고 주인들이 물었다. “아닙니다.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밥이나 사케 한 잔 더 하실래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배불러요.” “그럼 뜨거운 물이라도 마시겠습니까?”라고 노인이 부드럽게 물었다. 우리는 이것도 거절했다. “치위도 될까요?” “그렇게 해주세요.”

식사 후 ‘연회’가 차려졌다. 사탕은 파란 파양스 도자기의 넓은 접시 위에서 반짝거렸다. 여기에도 이런 것들이 있다니! 쌀가루가 흩뿌려진 노랑고 빨간색들이었으며 전부 먹을 수 없었다. 이 모든 것은 접시와 함께 포장되어 우리에게 보내졌다. 파제예프는 기뻐 날뛰었다. 다음에

우리 각자 앞에 상이 놓이고 그 위에는 옷감과 쇼군에게서 온 선물들이 놓여 있었다. 리넨, 실크와 종이같이 보이는 옷감들이 있었다.

장교들은 모두 일본 군주의 이름으로 얇고 거의 투명한 도자기 잔 한 세트(12개)가 든 상자를 받았다. 아마도 옷감이 선물로서는 아주 귀한 취급을 받는 듯했지만 이 옷감들을 이렇게 가볍고 거의 투명하며 독창적인 잔으로 바꾸는 데 주저하지 않은 것이다.

전권대사들은 다시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오호츠크 해인지, 다시 말해 페테르부르크로 가는지를 알려고 했다. “이제 중국으로 갈 겁니다”라고 그들에게 말했다. “오호츠크 해는 얼어서 갈 수가 없어요.” 이런 비밀스러움은 분명히 그들 마음에 들지 않았을 것이다. 카와지는 쓸데없이 눈을 찌푸리고 입술을 잘근잘근 씹었다. 우리는 그를 쳐다보며 웃었다. 만약 우리가 에도로 간다면 그에게는 불행이다.

제독은 그들이 공포에 떨게 내버려두지 않았다. 그는 우리가 봄 전에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그들에게 설명하려고 했다. 그러나 다만 그들이 반박하지 않도록 떠나면서 말하려고 했다. 그 때문에 우리가 배에서 내렸을 때 그들은 이에 대해 설명을 들을 수가 있었다. 작별인사로 추추이와 영주들은 아직 보내지 못한 선물들을 보냈다. 전자(추추이)는 제독, P. 선장과 나에게 많은 상자를 선물했고, 후자들(영주들)은 모두를 위한 생물과 채소를 보냈다.

바람은 항해하기 좋았고 날씨는 잠잠했다. 우리는 이미 다른 배들과 나란히 갈 필요는 없었다. 제독은 그들을 먼저 보내고 우리는 돛을 올리고 나서 1월 24일에 남쪽을 향해 망망대해를 항해했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XII.

마
늘
라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2월 15일에 우리는 마침내 세계에서 가장 큰 만 중의 하나인 마닐라 만에 들어섰다. 입구 중간에 등대가 있는 작은 섬 코레히도르가 놓여 있다. 그 주변 왼편에는 섬에서 어느 정도 떨어져 있고 서로 조금씩 떨어진 거리에 온전히 드러나 있는 말과 수녀 석상이 튀어나와 있다. 오른편에는 작은 돌이 죽 이어져 이랑을 이루고 있다. 우리는 바람을 거슬러 나아가면서 저녁 6시경 만으로 들어갔다. 코레히도르에서 보트 한 대가 나와 우리 쪽으로 왔다. 아마도 ‘괜찮은지 알아보기’ 위함일 것이다. 그런데 그 배가 우리 뒤에 있는 게 아닌가! 우리가 9노트¹씩 가고 있는데 중국 배도 아니고 인도 배도 아닌 어떤 이상한 배가 쫓아와서 10시경 기슭에서 5베르스타 정도 떨어진 마닐라 항로에 돛을 내렸다.

우리는 항로로 조용히 조심스럽게 다가갔으며 바람은 잠잠했다. 밤이 왔다. 당신은 빛이 없어도 밝고 따뜻하며 짙고 고요한 열대의 밤을 모를 것이다. 바람 한 점, 소리 하나 없고 별들만이 떨고 있다. 남십자성, 카노푸스, 우리의 곰자리와 오리온 자리 사이에 정확하게 황금 단추인 쥬피터 자리가 노란 빛을 내고 있다. 카노푸스는 보석처럼 빛나고 아르고 선의 다른 창백한 별들이 그의 광채 속으로 함몰되고 모두 함께 은하수의 소용돌이 속으로 가라앉는다. 얼마나 화려한가! 그러나 쉿! 종소리가 들려! 나는 오랫동안 교회 종소리를 듣지 못했다. 낮고 길게 울려 퍼지는 소리는 항로를 따라 퍼져나가더니 잠잠해졌다. 나는 도시의 불빛을 쳐다보았다. 주의의 모든 것은 저녁노을 속으로 사라졌다. 나의 머릿속에서 호기심이란 즐거운 감정이 피어올랐다. 가톨릭을 믿

1 1시간에 1해리를 달리는 속도.

는 남쪽의 그림과 형상들이 망각의 잔해들에서 떠올랐다. 나는 갑자기 고대의 수도원에 가서 노을 속의 교회들을 보고 파릇한 잔디와 나란히 있는 옛 터들을, 황금 냇마들을 걸친 가난한 자를, 스페인 사람들의 게으름을, 스페인 여자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싶어졌다. 내가 떠올린 감정과 장면들 때문에 피곤해지고 낮설어졌다.

1854년 2월

우리는 2월 16일 아침에 겨우 일어났고 나는 마닐라를 보기 위해 남쪽으로 나왔다. ‘마닐라는 어디에 있는가?’ 나는 주변을 보면서 생각했다. 텅 비었다! 우리는 어제처럼 바다에 있었다. 멀리 기슭은 푸르스름하게 보였다. 우리는 류손 기슭 아래로 가면서 매일 보았다. “마닐라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라고 나는 물었다. “바로 저기, 저기요.” 노인이 손가락으로 멀리 가리키면서 말했다. “당신은 저기를 보지 말고 바로 여기를 봐요!” 그는 나의 어깨를 돌리면서 덧붙였다. 기슭의 경계가 겨우 분명하게 보였다. 거기에는 뭔가 하얀 것이 있었다. 집도 아니고 교회도 아니다. 뒤편 저 멀리 산이 있다. “이게 마닐라예요?” “네, 바로 이게 카비타예요.” 노인이 다시 내 어깨를 오른쪽으로, 마닐라 뒤편으로 돌리면서 말했다. 그러나 거기에는 이미 집도 교회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기슭의 줄무늬 모양을 꿈속에서 보는 듯했다. 이 띠와 우리 전함 사이에 어선의 흔들리는 듯이 보였다. 우리로부터 멀지 않은 곳에 프랑스 군함 “솔베르트”와 몇 척의 상선이 있었다. “그런데 마닐라는 보이지 않는군요!” 내가 말했다. “보일 거예요!”라고 할아버지가 반박했다. “우리는 마닐라에서 대략 2마일 반 정도 떨어져 있어요.” “좀 더

가까이 갈 수는 없는 거예요?” 내가 물었다. “우리 전함은 어떡해! 여기는 깊이가 6이나 5사젠 정도예요. 상선은 다른 문제지요. 그 배들도 강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기슭으로 갈 사람 있어?” 1시 넘어서 사람들이 말했다. “지금 배가고 있어.” 우리 몇몇은 작은 배에 올라탔다. 모두들 하얀 옷을 입었다(아니면 이 태양 아래 결코 다닐 수 없다). 그리고 천막을 쓰고 갔다. 그러나 역시 더웠다. 손, 발, 어깨가 우연히 드러나기라도 하면 탔다. 푸른 물은 조금도 흐르지 않는다. 우리가 지나간 배들은 마치 자는 듯 보인다. 그 위에서는 개미 새끼 한 마리 움직이지 않았다. 갑판에는 한 사람도 없었다. 커다란 만 어딘가에 꿈꾸는 파리처럼 배들이 떠다닌다.

우리가 가까워질수록 기슭은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했다. 회색의 긴 벽들이 나타났고 그 뒤에는 종탑이 있고 그다음에는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다. 돌로 된 제방으로 덮인 강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열려 있다. 오른쪽 기슭, 하구 바로 옆에는 커다란 등대가 있다.

파시그 강은 수려하고 빠른 강이다. 그 강에는 많은 움직임이 있다. 기슭은 두세 줄로 배들, 중국 범선, 요트들이 정박해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힘겹게 지나갔으며 여러 번 노를 옆에 놓아야 했다. 배 위에서는 내리고 선적하는 움직임이 있었다. 이제는 이것이 커다란 항구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사방에서 붉게 그을리고 벗은 몸들이 일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었다. 모두 인도 사람들이다. 왼편 기슭에는 성이 있다. “바로 이것이 마닐라구나!” 이미 영주 집에 가뒀던 B.K.가 성을 가리키면서 말했다. “이것은 스페인 도시야. 여기에 모든 권력이 있지.” “그런데 이건 뭐지?” 우리가 반대편 기슭을 가리키면서 물었다. “이것은 교외인 비논도야. 여기에서 무역이 행해지고 외국인들이 있지.” 바로 이것이

내가 알아낸 전부다.

“어디에 정박하지?” “하나는 여기에 정박하고 다른 하나는 좀 더 가서 다리 옆 어딘가에 세워.” “더 가까운 곳에 세우자!” 누군가가 말했다. “왜 가까운 곳에 세워?” 다른 사람이 반박했다. “좀 더 가자.” “여기가 좋겠어.” 논쟁이 시작되었다. 대다수는 빨리 정박하자고 했다. 그러나 여기의 흐름은 우리를 여울목으로 끌고 갔고 닻이 녹조 속에서 아무렇게나 돌아다녔다. “한들을 왼쪽으로 해! 한들을 왼쪽으로!” 한 사람이 말했다. “밀어, 바로잡아.” 다른 사람이 명령했다. “바로 그렇게! 이제 정박하자.” “아니, 저리, 저 선착장으로 가자.” 대다수가 결정하고 갔다. 그러나 우리가 나중에 보았듯이 여기에 정착해야 했다.

우리는 강을 따라 계속 떠내려갔다. 한 기슭에 아주 더러운 창고들, 집들, 긴 담벼락들이 있고 그 어디에도 풀은 보이지 않았으며 드물게 돌 울타리 너머에 바나나 잎 두세 장이 햇빛을 받으려고 활짝 펼쳐져 있다. 성의 오른쪽에 작은 풀이 자라고 있다. 저쪽으로 아이들이 고향을 지르며 달려가고 그들에는 등에 무시무시하게 뿔이 달린 버팔로들이 누워 있거나 물속에서 목을 내밀고 있다. 벽 위에는 커다란 붉은 술 견장을 달고 창기병 샤코(깃털 장식에 있는 군모)를 쓰고, 천 제복을 입고 띠를 한 보조들이 걸어다닌다. “성은 견고해 보여.” 라고 우리들이 포병과 벽의 두께를 살피면서 말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 다리도 있다. 우리는 배와 요트 사이에 있는 선착장의 돌계단을 따라 힘껏 뛰어서 거리로 나왔다. 아이구, 얼마나 폭폭 찌는지! 뜨겁고 숨 막히는 공기가 우리를 사로잡았다. 땀집에 들어온 느낌이었다. “정말 이게 마닐라야?” 좀 젊고 마닐라라는 이름과 뭔가 화려한 것을 연결시키는 것에 익숙한 우리 일행 중 하나가 말했다.

“화려함, 시식은 어디에 있는 거지? 이런, 불쾌한 냄새가 나!” 갑자기 그가 덧붙였다. 정말 좋지 않은 냄새가 났다. 우리는 상점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는 거리로 들어갔고 갑자기 냄새의 원인을 알아냈다. 상점에서 새파랗게 면도한 중국인들 머리와 교활한 면상들이 보였다. 바로 아시아인들이다. 그들이 없는 곳이 어디야? 그들은 사방에 마늘, 백단향과 식물성 기름 냄새를 풍기고 있다. 이곳의 중국인들은 싱가포르와 홍콩에서보다는 깨끗했고 그들의 가게는 우리 응접실과 비슷하게 약간 단정했으며 위층에 살림집이 있다. 여기에는 상인들과 소목장이들은 그다지 눈에 띄지 않았다. 거리에는 튀기고 굽는 먹거리는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벗은 사람들은 많다. 이런 하얗고 연약한 몸들을 보는 것은 기분이 좋지 않다. 어떤 음식이 양고기 일부와 햄 조각 사이에 전시되어 있는 듯 보였다.

우리는 아침에 들렀던 프랑스 호텔에서 숙박하고 마차를 빌릴 수 있는지 물을 사람을 찾았다. 거리에는 아무도 없었다. 가끔 인도인이나 중국인이 짐을 들고 뛰어 지나가고 다시 거리는 텅 비었다. 개나 돼지만이 울타리 옆 그늘에 누워 있다. 우리는 영어와 프랑스어로 중국인과 인도인들에게 질문했다. “호텔이 어디에 있어요?” 마주치는 사람들은 우리를 멍하니 보거나 질문에 “시노르?”라고 대답했다. 우리는 스페인어를 한마디도 하지 못하면서 마치 스페인어 문장을 작문이라도 하듯 머리를 짜내기 시작했다. 계속된 회의 끝에 마침내 질문을 할 수 있을 정도의 다섯 마디를 만들어냈다. “여기에 프랑스 호텔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는 막사 비슷하게 생긴 노란 건물 그늘에 한가하게 서 있는 군인에게 이 말을 했다. 다른 군인은 초소에 서 있었다. 첫 번째 사람이 우리를 보고 생각하더니 중국 집들이 늘어서 있는 곳을 따라 안내했

다. 상점들에서 계속 비누·신발·양념·차 등을 가지고 우리에게 왔다. 마침내 군인은 마차와 말이 많이 있는 어떤 집으로 우리를 인도했다. 말을 씻어주던 마부들이 우리를 의심스럽게 쳐다보았고, 우리는 그들을 보다가 우리 모두는 군인을 보았다. “우리는 그에게 무슨 말을 한 거지?” 우리들 중 하나가 더위, 거리의 지독한 냄새, 폭염에 지쳐서 물었다. “그가 우리를 마구간으로 데리고 온 것은 뭔가 좋은 일인 거야!” “그렇지만 스페인어로 뭔가를 이야기했으니 그가 여기로 데리고 온 거겠지.” 누군가가 위로의 말을 덧붙였다. “프란체스카, 프란체스카”라고 우리는 군인들에게 반복했다. 마부들 중 한 사람이 뭔가를 군인에게 말했고 군인은 우리를 다시 집들을 지나 안내했다. 거리는 아름다웠다. 가게들은 가면 갈수록 좋았다. 마침내 안내자는 어떤 문 앞에 멈춰고 우리에게 그리로 들어가라고 지시했다.

우리는 유럽 가게의 느낌을 받았지만 그 안에는 주인이 무엇을 파는지 바로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이것저것 다 차지하고 있었다. 거기에는 두세 개의 탁상용 시계, 장갑이 든 상자, 술이 든 몇 개의 상자, 포르테 피아노가 있고, 옷감이 놓여 있고, 황금 사슬이 걸려 있고, 책장, 아름다운 작은 탁자, 장, 소파, 창문 위에는 꽃병 등, 탁자 위에는 어떤 기계, 다음에는 종이, 향수들이 무더기로 밀집해 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살펴볼 시간이 있었다. 왜냐하면 가게에는 아무도 없었고 아무도 우리에게 오지 않았다. 5분가량 지나자 젊고 키 큰 금발의 매우 잘생긴 프랑스 남자가 평소처럼 세련되게 옷을 입고 나타나서 우리를 발견하고는 놀랐다. 그 뒤에는 키가 크지 않은, 약간 늙은 아주 못생긴 프랑스 여자가 우아하게 옷을 입고 나왔다. 그녀 역시 놀라서 우리를 바라보았다. 우리는 주인과 함께 한꺼번에 떠들기 시작했다. 우리는 열기에, 폭

염에, 텅 빈 거리에, 스페인 사람 외에 다른 말을 하는 그 누구도 알아볼 수 없고 아무리 해도 호텔을 발견할 수 없는 것에 불평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지금은 시에스타 시간이라서 모두들 자고 있으며 그 때문에 거리에는 평민 외에는 아무도 다니지 않으며, 평민은 프랑스어도 영어도 하지 못하고 대신 스페인어·중국어·포르투갈어를 하며, 시에스타 전과 후에는 거리에 평민들 외에 누구도 다니지 않으며 평민이 아닌 사람들은 모두 마차를 타고 다니고 스페인어로만 말한다고 우리를 진심으로 위로했다. “호텔은” 그들은 마지막 위로로 우리에게 덧붙였다. “있습니다. 뮤슈 데미앙이라는 매우 좋은 호텔이 있는데 프랑스인이 운영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서 너무 멀리 있어요. 괜찮다면 콜리²가 거기로 당신들을 인도할 겁니다. 당신들은 그에게 레알이나 그 이상을 지불하시면 될 겁니다.”

프랑스 여자는 마닐라에는 총 6명의 프랑스인과 매우 소수의 미국인과 영국인 상인이 있으며 그 외에는 모두 스페인 사람들이라는 것, 그들 모두는 자거나 먹는다. 그녀 자신은 가톨릭 신자지만 다른 종교, 심지어 루터파도 존중하며, 스페인 사원들에 매우 가보고 싶지만 여성들은 들어갈 수 없다는 것과 같은 실질적인 정보를 위로의 의미로 덧붙였다. 이 말을 하면서 그녀는 마음 깊은 곳에서 한숨을 쉬었다. “그런데 마닐라에는 신부님들이 많습니까?”라고 내가 물었다. “우리는 보지 못했어요.”라고 그녀가 대답했다. 주인들은 작별인사를 하면서 만약 가구가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방문해달라고 했다.

우리는 다시 인도인, 또는 파제예프가 부르듯 집시 안내자를 따라

² 인도나 중국인 하급 노무자.

배회하기 시작했다. 그는 밀짚모자를 쓰고 맨발에 푸른 바지 위로 흰 와이셔츠를 내놓은 채 텅 빈 거리를 따라 중국인들이 심하게 냄새를 풍기는 많은 상점에서 떨어지려고 애를 썼다.

우리가 돌로 된 준비한 상점들 아래를 걸어가고 있을 때는 견딜 만했으며, 상점들은 끝나고 다른 거리가 시작되었다. 교차로와 광장이 나왔다. 광장을 따라 걸어가야 했다. 우산은 거의 보호가 되지 못했으며 발은 구두 안에서 불타고 있었다. 우리는 정박했던 다리 곁을 지나갔다. 그 너머에 큰 교회가 보였으며 앞의 새 거리에는 다시 상점들이 즐비했고 우리가 갔던 그곳보다 훨씬 더 나빴다.

온갖 인도인·중국인들과 마주쳤고 드물게 혼혈인들이 있었다. 땅아내린 젖은 머리를 등 쪽으로 늘어뜨린 한 혼혈여자는 먹을 감은 후 태양 아래에서 말리고 있었다.

혼혈인들은 다른 나라에서 와서 마닐라의 토양에 이식된 꽃들이다. 즉 중국인·인도인과 다른 종족의 혼합인 것이다. 스페인 혼혈들은 기회가 있는 곳에서 스페인인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바람을 지니고 있지만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매우 가무잡잡한 얼굴과 검은 머리는 모든 행보에 스페인인이 아닌 피가 흐르고 있는 것이다. 그들 자신도 이것을 이해하고 인정하고 있다. 여성들은 독특한 복장을 하고 있다. 순종 스페인 여성들의 검고 독특한 머리 장식과는 다른 밝은 줄무늬 모양과 심지어 다채로운 치마와 머리에 쓰는 만틸라³를 착용하고 있다. 이미 여기서 스페인 부모들에게서 태어난 아이들은 여기 사교계에 있는 유럽계 스페인에 비해 몇 퍼센트 더 낮은 평가를 받으므로 본토인 반도에서

³ 스페인·멕시코 여성이 머리·어깨를 덮는 베일.

태어나고 교육을 받는 특권을 소중히 한다. 어느 젊은 스페인 여성이 있다. 그러나 사실 나는 모든 사실을 여관으로 가는 도중이 아니라 후에 알게 되었다. 왜 뛰어야 하는지 말이다. 만약 내가 잊지 않는다면 때가 되면 이야기할 것이다.

거리 · 집 · 상점들, 이 모든 것들은 토속적이고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세계 어느 곳이나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지방도시를 포함해서 지방 도시들을 닮았다. 그런 긴 담장, 풀이 무성한 집이 없는 긴 골목, 공허함, 거래를 할 때 보이는 절충주의, 활발함의 부재가 존재한다.

어느 골목 옆에서 우리 가이드는 멈춰 서서 자신을 쫓아오라고 하더니 햇볕에 익은 바나나들이 보이는 두 개의 담장 사이를 걸어갔다. 이 골목에는 집이 전혀 보이지 않았고 대신 풀이 훌쩍 자라 있었으며 그늘에는 다른 거리들보다 훨씬 더 많은 돼지와 개들이 누워 있었다. 마침내 바로 저쪽에 집 두 채가 나타났는데, 한 채는 저 멀리에 있고 다른 한 채는 꺾어진 곳에 있다. “이 길이 곧 끝나가는 걸까?” 열기에 기진맥진한 우리가 말했다. 타갈로그 사람이 집들 중 첫 번째 집, 아주 더러운 대문에 멈춰 섰다. “폰다!”라고 타갈인이 단호하면서 분명하게 말했다. “폰다가 뭐야? 우리를 호텔에 데려다 줘!” 우리 중 누구는 프랑스로, 누구는 영어로 소리쳤다. 다행히도 어떤 젊은 남자가 나와서 영어로 여기가 폰다, 즉 호텔이라고 설명했다. “말과 마차는 무엇이라 하죠?” 우리가 화가 나서 물었다. “주인은 마차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그가 대답했다.

우리는 안심하고 안식의 그늘 밑으로 들어갔다. 마차와 말들로 가득 찬 마당을 뛰어 지나가서 계단으로 들어가 사방으로 트인 갤러리가 다

른 방으로 이어져 있는 커다란 식당에서 정신을 차렸다. 계속해서 방들이 있는 복도가 이어져 있었다. 얼마나 멋있는지! 햇볕은 없었다. 사방에 통풍이 되고 있지만 유감스럽게도 여기서는 바람이 항상 당신에게 서비스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북쪽에는 바람을 피하라고 하지만 여기서는 찾으라고 한다. 호텔은 싱가포르를 연상시켰다. 긴 홀, 긴 식탁, 천장에 붙어 있는 커다란 부채가 그렇다. 사방에 창문 크기의 움직이는 틀이 있다. 발코니도 있고 배 위, 더 정확히 말해 발코니 위와 같이 막혀 있는 광 위의 지붕도 있다.

인도인 하인과 소년들이 대부분인 군중들이 호기심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았다. 그러나 타갈인은 대체로 키가 크지 않고 짧아 보였다. “레모네이드!” 우리가 물었고 모든 하인 군중은 순식간에 사라졌다. 그래서 마루·식탁·의자들, 이 모든 것이 홀 안에서 눈에 들어왔다. 그때 나는 바닥·천장들, 이 모든 것이 매우 성급하게 건설되었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바닥의 판자 틈을 통해 마당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아래에서 오고가는 모든 말이 방에서 들렸고 그 반대이기도 했다. 나는 창문틀에 우리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았고 우리 대신에 뭔가 다른 것이 있었다. “운모야.” 우리들 중 하나가 말했다. “아냐, 이것은 함석이야.” 다른 사람이 단호하게 말했다. “얼마나 강한지 봐!”

하인들이 나갈 때와 같은 소음을 내며 말처럼 뛰어 들어왔는데 레모네이드 몇 병을 가지고 왔다. 우리는 급하게 레모네이드를 마시고 그런 다음 주인은 어디에 있으며 그를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그들은 다시 귀를 멍멍하게 할 정도의 발소리를 내며 바깥으로 사라졌다. 주인 무슈 데미앙이 나타났다. 그는 외모로 봤을 때 35세 정도로 보이며 선한 얼굴에 하얀 재킷을 입고 밀짚모자를 쓰고 정중하지만 소란스럽지 않았

다. 그는 매우 평범하지만 긍지가 있었으며 수다스럽지도 허풍스럽지도 않았는데 이런 모습은 프랑스인들에게서 거의 볼 수 없다. 그는 탁자와 함께 방을 내주는 값, 즉 아침·점심·저녁 식사를 제공하는 값은 하루에 1.5피아스터라고 설명했다. 그는 마차도 제공하며 마차와 말 두 필은 하루에 2.5피아스터며 반나절을 쓰면 1.25피아스터라는 것이다. 그리고 10시에 아침식사를 하고, 4시에 점심을 하고 차를 마시며, 8시에 저녁식사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원하신다면 그때 식사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요리사들이 시원찮아요.” 그는 덧붙였다. “훌륭합니다. 무슈 데미앙!” B.K.가 부드럽게 말했다.

“말씀해주세요.” 우리가 주인에게 묻기 시작했다. “도시를 어떻게 구경할 수 있죠?” “가능합니다.” 그는 대답했다. “당신들은 무엇을 보기 원하십니까?” “무엇보다도 스페인 도시, 명소를 보고 싶어요.”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교회는?” “가능합니다.” “말을 내주라고 하세요. 우리가 타고 갈 수 있도록.” “교회는 결코 볼 수 없습니다. 닫혀 있어요.” 데미앙이 말했다. “언제 들어갈 수 있죠?” “아침 8시까지. 더 늦으면 더 워요.” “그럼 담배 공장은 볼 수 있나요?” “아닙니다. 아침 11시 전에 가야 하고 정오까지는 모두 쉬러 갑니다. 더우니까요. 당신들은 영주에게서 받은 허가증이 있나요?” “허가증이요?” 우리가 물었다. “네!” “아니요!” “그러나 만약 당신들이 도시에 어떤 지인이 있다면 소장과의 인사를 하면 인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이에 대해 갑자기 혼란스러워졌다. “우리는 섬 내부를 돌아다니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성 마태오 동굴, 개펄을 구경하고 싶은데…… 우리에게 말을 내줄 수 있나요?” 우리가 계속 요구했다. “가능합니다. 원하시는 만큼. 다만 여기 지도부는 외국인들이 내부로 들어오게

놔두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당신들을 위해서 아마도 영주가 허락해줄
 겁니다. 당신들은 드문 손님들이니까요.” “일본보다 나은 게 뭐야?” 내
 가 화가 나서 말했다. “할 건 아무것도 없고 마차를 나에게 내주라고 명
 령하세요.” 내가 덧붙었다. “나는 도시를 돌아다니며 당연히 담배를 살
 겁니다.” “지금 마차를 내줄 수 없어요.” “농담하세요, 데미앙씨?” “전
 혀요. 여기에서는 이른 아침부터 정오까지 다니고 그다음 저녁 5시부
 터 10시, 11시까지 다녀요. 그렇지 않으면 말이 쓰러질 겁니다.” “담배
 를 파는 상점은 어디에 있죠? 가르쳐주세요. 우리가 걸어갈 테니.” “국
 영상점이 하나 있는데 거기서는 항상 담배를 팔지는 않아요. 공장에 가
 야 합니다.” “갈수록 태산이군! 공장에 갈 수 없다면서요?” “힘듭니다.”
 “담배를 어디서 구할 수 있죠? 우리는 거리에서 사람들이 담배 피우는
 걸 봤어요.” “개인 상점에는 있지만 더럽습니다.” “당신에게는 없나
 요?” “없습니다. 저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서는 각자 자기 것
 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깨를 으쓱했지만 데미앙은 미소를 지었다. 그는 우리 상황
 을 즐기고 있었다. “지금 우리는 뭘 해야 하죠? 가르쳐주세요.” “여기
 서 쉬세요. 지금 세 시니까 네 시에 식사를 드리겠습니다. 원하신 만큼
 식사를 하시고 다음에 당신들을 위해 좀 더 일찍 제가 바로 마차를 내
 드리라고 명령하죠. 타고 가세요. 제가 담배를 지금 사오라고 보내겠습
 니다.” “우리는 식사를 했어요.” 우리가 대답했다. “아침식사를 했습니
 다.” B.가 서둘러 덧붙었다. “왜 식사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관
 습, 습관을 배워야 하잖아요.” “그런데 창틀에 유리 대신에 무엇을 끼
 워넣은 거죠?” 내가 주인에게 물었다. “자개입니다.” “왜요?” “그것들
 은 방안으로 거의 햇빛이 들게 하지 않아서 덥지가 않죠. 여기서는 지

진 때문에 우리가 혼하지 않아요.”

우리는 가장 통풍이 잘되는 창가에 앉아서 커다란 그늘이 드리워진 가로수 길이 있는 담으로 경계가 쳐진 마당, 교육을 받기로 되어 있는 듯 보이는 군인을 보고 있었다. 저 멀리 그들 너머에는 드물게 보이는 잔디가 깔린 집들의 지붕이 보였다. 다른 쪽 발코니에서는 풍경이 더 좋았다. 발코니는 파시그로 나 있는데 그를 따라 움직이는 배, 인도 국적 배들의 생생한 파노라마가 펼쳐졌다. 성의 벽 너머에서는 원형 돔과 교회 십자가들이 보였다. 여관으로 여러 사람들이 드나들었다. 모두들 하얀 재킷을 입고 더러운 와이셔츠를 입은 인도인들, 이도 저도 아닌 중국인들이었다. 버펄로가 위에 여러 가지 짐을 싣고 지나갔다. 버펄로는 더위에서도 운송수단으로 이용되며, 말과 같은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 듯했다.

여관에서는 점심식사 무렵이 되자 더 활기를 띠었다. 방에서 거주자들이 잠이 깨지 않은 얼굴로 나타났다. 어떤 매우 험스럽고 키 큰 은발의 노인이 연초록의 프록코트를 입고 있는데 우리에게 말했던 것처럼 아일랜드인이며 연대장으로 스페인에 근무하고 있었다. 창백한 프랑스인은 매우 검은 머리에 매우 하얀 재킷과 팡탈롱을 입고 있는데 마치 종이터미에 싸여 있는 듯하며 부드러운 가성과 흥부음을 내는 사람이다. 다음에 열기에도 불구하고 거리에서 영국인 선장 몇몇이 왔다. 얼마나 어깨가 넓은지! 얼마나 땅딸막한지. 다리들이 안으로 굽거나 바깥쪽으로 활처럼 굽었다. 그들은 네 사람이었으며 버펄로 무리처럼 화랑을 자로 잰 듯 다부지게 지나가자 마루가 심하게 흔들거렸다. 이런 유형의 사람을 앞쪽에서 쳐다보면 파랗고 두텁고 뺨뺨한 재킷, 팡탈롱, 모자와 그 아래에 얼굴 대신에 붉은 고깃덩어리, 그 가장자리에는 붉고

뻗뻗한 머리카락, 커다랗고 뻗뻗하고 거의 퍼지지 않는 주먹을 보게 될 것이다. 누구에게 이런 주먹이 적의나 우정의 표시로 와 닿게 될지, 애 통할 노릇이다. 뒤에서 보면 똑같지만 모자가 어깨에 닿을 정도로 내려와 있다. 그의 주변은 항상 변화가 없다. 하얀 재킷도 밀짚모자도 그 어떤 부드러움도 없다. 또 몇몇 얼굴들이 있는데 총 12명 정도가 나타났다. 하인들은 민첩한 움직임을 보였다. 그들 각자는 음식을 들고 재빠르게 계속해서 달려가고 달려오며 식탁을 모두 차렸다. 그렇게 해서 식탁보가 보이지 않을 정도가 되었다.

먹을 게 없군! 고기는 질기고 살아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나물은 완전히 밭에 있는 것 같고, 그 외에 버터를 바른 옥수수가 있다. 그러나 과일은 적었다. 제철이 아니니까.

식탁은 영국과 프랑스식의 혼합이었다. 예를 들면 야채는 프랑스식으로 준비되었고 고기와 생선은 영국식으로 자르지 않은 채로 나왔고 여기에 특별히 프랑스식 레구⁴와 콩, 피클이 보태졌다. 비록 모든 요리들이 식탁에 순식간에 차려졌지만 마치 영국인들이 받아들여듯 서로 그걸 잘라달라고 요구하지 않았다. “왜 이렇게 많은 거지?” 20~30가지의 요리를 보면서 자기도 모르게 말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처럼 두세 가지 요리면 좋지 않나?” 그러나 난 무엇이 더 좋은 것인지 모르겠다. 말하자면 20가지의 요리를 조금씩 맛보거나 아니면 식사 후 두 시간가량 다른 사람들이 그렇듯 저녁까지 살아 있을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으로 피곤해지니까 두 가지만 배불리 먹는 게 좋은지 말이다.

식사를 하는 동안 하인들은 미친 듯이 분주하게 다녔고 서로 밋이

4 스투의 일종.

부딪치고 사납게 날뛰다가 갑자기 가만히 멈춰서 우리를 보고 뭔가를 또 주문하라는 눈짓을 한다.

식사 후 좀 더 시원해졌다. 모두들 흠뻑 젖었다. 나는 작지만 훌륭하고 통통하며 쾌활한 말 한 쌍이 끄는 멋지고 크지 않은 마차를 받았다. “우선 마닐라로 마차를 몰아달라고 하세요.” 나는 주인에게 말했다. “그런 다음 교외로 가서 좀 더 멀리 더 유명한 곳으로요.” “칼리사도로 가고 싶지는 않으세요?” 그가 물었다. “칼리사도가 뭐예요?” “그건 성 주변의 산책길인데 해변을 따라서 가는 거죠. 저녁마다 그리로 모두 마차를 타고 가려고 하죠.” “좀 늦었군요.” 내가 말했다. 그는 오랫동안 뭔가를 마부에게 말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우리가 아침에 호텔까지 걸어왔던 아직 뜨거운 거리를 따라 말을 몰았다. 나는 빨리 도시에 대해 익히기 위해 부지런히 주위를 보았다.

우리는 지금 이미 사람들 무리, 타갈인과 중국인들, 부분적으로 혼혈인으로 뭉치는 교외를 따라 달렸다. 사람들은 모두 일터로 가거나 일터에서 나왔다. 아마도 다른 사람들은 시원해지는 것을 기뻐하며 집에서 산책 나오고 상점을 돌아다니며 떼로 몰려서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우리는 도시로 돌아오면서 마을 사이에서 있는 막사와 광장에 눈이 고정되었다. 수천 명까지 자리할 수 있는 커다란 노란 건물은 길 양편으로 나 있다. 연대장은 경비초소 옆에 있는 안락의자에 앉아 있다. 안락의자는 잘 손질되고 커다란 작은 초원 위의 트인 공간에 있다. 젊은 장교들은 사병들을 교육시키고 있다. 훈련은 여기서 아침 10~11시까지, 오후 5~8시까지 진행된다.

사병들은 모두 타갈인이다. 그들이 6천 명가량 된다고 말하는 이도 있고 9천 명가량 된다고 하는 이도 있다. 장교들과 임명이 안 된 장교

들은 스페인 사람이었다. 광장 전체에 맨발의 인도 신병들이 소대별로 행진했다. 그들을 임명이 안 된 장교들이 인도했고 장교들은 장난꾸러기처럼 대나무 막대기를 들고 주위를 돌았다. 막대기는 지칠 줄 모르게 움직였으며 헐벗은 발뒤꿈치, 어깨, 때때로 직무태만자의 뒤통수를 갈겼다. 나는 좀 빨리 자리를 떴다.

공장은 교외인 비논도에 있는 커다란 사각 건물이며 이층으로 되어 있고 몇 개의 별채와 부속건물들, 많은 대문과 문이 있고 내부에는 커다란 마당이 있다. 정문 옆에서 경비들과 이야기를 나누던 사람들이 우리를 들여보내지 않았다. 그때 위에 있는 세관 장교가 다가왔다. 우리는 그에게로 향했고 그 사람도 들여보내지 않았다. 사람들은 모두 공장 관리소에서 표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는 그리로 갔는데 다행히 멀지 않은 곳에 있었다. 여러 문과 부서를 지난 후 마침내 메모를 받았고 출발했다. 그때 경비들은 또 메모를 이리저리 건네고 이리저리 살펴보고 위로 안내했는데 5분경 후에 어떤 나이 든 타갈인이 우리를 아까 있던 곳으로 데리고 왔다. 우리는 햇볕을 받으며 구워지고 있었다. 그러나 이 마지막 상황은 마부와 말에게 더 심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마차에 앉아 있었기 때문이다. 타갈인은 우리를 오라고 초대했으며 경비 중 한 사람이 우리와 함께 움직였다.

우리가 대문을 통과하고 마당을 지나 계단을 올라가는데 집안에서는 마치 망치가 많이 있는 듯 더 강하게 더 자주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우리는 담배 더미, 텅 빈 상자, 담뱃잎 조각 등이 쌓여 있는 몇 개의 창고를 지났다. 그런 다음 위로 올라가서 주위에 나무 기둥이 일렬로 지탱하고 있을 정도로 약한 천장이 있는 긴 홀로 들어갔다.

홀 안 바닥의 낮고 긴 나무 벤치 앞에는 17살 이상의 600~700명가

량의 타갈 여자들이 일렬로 앉아 있었다. 각자는 둥글고 매끈한 돌을 손에 쥐고 있고 바닥에는 일렬로 담뱃잎 더미가 놓여 있다. 여자들은 더미에서 잎을 골라내서 자신 앞에 있는 벤치에 놓고 돌로 서로 말이 들리지 않을 정도로, 심지어는 꼼짝할 수 없을 정도로 세차게 뿜고 있었다. 몇 사람은 우리를 돌아보았고 검고 기만한 눈동자 몇도 우리를 돌아보았다! 모두 말이 없다. 누구도 말 한마디 하지 않으며 눈만 쩍쩍하게 움직였는데 손은 더욱 세게 움직였다. 그들은 이렇게 세게 두드리는 소리에 익숙하지 않은 귀 때문에 찡그린 우리의 표정을 알아챘을 것이다. 강하게 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우리의 얼굴에 고통스런 찡그린 표정이 강하게 드러나는 것을 보면서 대부분은 웃음을 참고 있었다. 그들에게 이 일은 나름 예기치 못한 오락, 농락이었다.

나의 젊은 동행자들은 소음에 그다지 크게 당황하지는 않았다. 그들은 몇몇 일하는 여자들 앞에 멈춰 서서 자신들끼리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서로의 말을 듣는 방법을 궁리하고 있었다. 나는 뭔가를 묻고 싶었지만 무슨 말을 하는지 나 자신도 들리지 않았다. 흠 안 제일 위에 어떤 기름 냄새가 진동했다. 물론 담배 냄새인데 아주 불쾌했다.

그러나 바로 그때 우리는 흠에서 나왔다. ‘이제 끝이다.’ 나 스스로를 위안했다. 우리는 정말 나갔지만 다시 다른, 정확하게 그 뒤에 저 멀리 또 하나의 흠이 보였다. 우리의 걸음마다 앞으로 또 하나 또 하나가 열렸다. “여기에 몇몇의 여성들이 있는 거야?” 내가 두 개의 흠 사이의 작은 틈에 멈춰 서서 물었다. “8천 명에서 9천 명 가량 있습니다.” “세상에!” “그래요! 현 영주는 공장을 증설하고 개선하려고 합니다. 매우 이익이 좋으니까요.” “8천 명 내지 9천 명!” 나는 조사를 받는 듯 밀집되게 줄을 지어서 앉아 있던, 대부분 어리석어 보이지 않는 사람들과 갈

색의 이 얼굴들을 보면서 놀라서 반복했다.

모든 홀 안에는 우리가 출현할 때와 똑같은 행동이 반복되었다. 즉 인도 여자들 쪽에서 처음에 호기심 어린 시선을 보내고 다음에 강한 두들김과 억제된 미소, 우리 쪽에서는 당황한 시선, 고통에 찡그린 표정, 어서 빨리 벗어나려고 하는 것 말이다. 그러나 공장에는 엄격한 예의가 지켜지고 있다. 인도 여자들은 웃지 않고 말하지 않는다. 그들은 다만 두들기기만 한다. 그들은 매우 조심스럽게 행동한다고들 말한다. 이를 위해 모든 조치들이 받아들여졌다. 두세 명의 나이 든 타갈 남자들과 두세 명의 관리인을 제외하고 여기서는 한 명의 남자도 없다.

다른 방들에서는 어떤 노파들은 담배를 맡고 있고, 다른 노파들은 그 것들을 자르고 있으며, 세 번째 노파들은 비비 꼬고 계산하는 등의 일을 하고 있다. 우리는 모든 방을 지나가지는 않았다. 이것은 예에 불과했다.

출입구 전에 있는 마지막 방 사무실에는 부서들 중의 하나를 맡고 있는 알포라도르가 앉아 있다. 그는 영어로 말했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러시아인이라는 것을 알아보고서 페테르부르크에서 많은 주문을 한다고 말했으며, 그는 몇 달 전에 여러 이유로 불편한 마닐라 방법 대신에 담배를 마는 하바나 방법을 도입하기 위해 하바나에서 복사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마닐라 담배는 하바나 것보다 결코 떨어지지 않으며 여기서는 만드는 방법들이 부족할 뿐이며, 그 외에 켈련은 좋다고 말했다. 그는 켈련에 여러 중요한 성분을 첨가했다고 하면서 심지어 켈련이 담배 자체의 맛을 여러 단계까지 변화시킨다고 말했다. “하나의 담뱃잎과 여러 번 만 두 가지 시가를 맛보세요.” 그가 우리에게 두 가지의 담뱃잎으로 만든 켈련을 내밀면서 말했다. “이것은 품질이 좋은 것들입니다. 하나는 하바나식으로 더 둥글게 더 비스듬히 만 것이고 다른 하나

는 지금처럼 직접 만 겁니다. 하나는 오늘 만든 것이고 다른 하나는 어제 만든 것입니다.” 그는 마치 시가에 대해 크게 찬양하듯 말을 맺었다.

나는 손에 든 두 가지 담배를 의심스럽게 돌렸다. “어제 오늘 만든 것이란 말이죠.” 나는 말했다. “이런 것을 대접하다니!” 그리고 창 밖으로 던져버릴 생각이지만 예의 바르게 주머니에 넣었는데, 마차에 타고 난 다음일 것이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피워보세요.” 라고 알포라도르가 강하게 말했다. 나는 할 일이 없어서 피우기 시작했다. 갑자기 가벼운 기분 좋은 연기가 흐르기 시작했다. 놀랍게도 담배는 피우기에 가벼웠고 비록 재가 아주 희지는 않았지만 담뱃잎은 훌륭했다. “이거 아주 좋은 담배군요!” 내가 말했다. “이런 담배는 절대 살 수가 없는 건가요?” “아닙니다. 이것은 하바나 퀴련입니다. 완제품은 없지만 두 주 지나면 가능합니다.” 그는 이 방에서 담배를 맡고 있는 노파들에게서 등을 돌리고 더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다. “나는 당신에게 몇천 개를 준비해 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겨우 몇 시간 동안만 여기에 머물 겁니다. 왜 상점에는 이것들이 없죠?” 내가 말했다. “여기 여성들은 퀴련에 익숙지 않습니다. 그 때문에 하바나 방법으로 천천히 일하고 있는 거죠. 지금 다른 시가를 피워보세요. 여기 퀴련이오.” 나는 피웠고 정말 첫 번째 것보다는 아닐지라도 좋았다. 아니면 그렇게 여겨지는 것일지도. 왜냐하면 알포라도르가 암시했기 때문이다. “이 정도도 절대 살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물었다. “그런 것은 있습니다. 훨씬 더 낮은 두 번째 질이죠. 상점에서 볼 수 있을 겁니다.” “양쪽이 잘라진 시가는 거기서 볼 수 있나요?” “치루타⁵요? 많아요. 네 많아요!” 그가 말했다. “세 번

⁵ 양쪽 끝이 잘린 시가.

째, 네 번째 질이죠. 모두들 피우는 평범한 거예요. 인도에서 미국까지 시작해서 인도양과 동쪽의 대양 전역에 퍼져 있죠.”

정말 우리는 싱가포르나 중국에서 치루트 외에 다른 담배는 본 적이 없다. 알포라도르는 두 주 전에 시가를 준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으며 그를 만나기를 원할 때 입구에서 내밀 수 있는 메모를 우리에게 주었다. 우리는 그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떠났으며 공장 견학과 친절한 스페인 사람들에 매우 만족했지만 담배 없이 돌아가야 했다.

그런데 바로 여기가 서커스하는 장소이고 수탉들이 있다. 서커스 장소는 앵무새들이 있는 거대한 대나무 울타리 안이며 모든 것이 다 보였다. 바깥쪽에서는 그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저 멀리서까지 볼 수 있고, 그 안에는 관객을 위한 갤러리가 세 개의 층으로 되어 있으며 중간에는 투사들을 위한 둥근 무대가 있다. 지붕은 원뿔이며 대나무 막대기들로 엮여져 있다. 때문에 다 들여다보이지만 그 안 위쪽에는 환기를 위한 몇 개의 환기구가 있다. 우리는 힘겹게 많은 인파를 뚫고 입구 쪽으로 갔으며 1레이알⁶씩 지불하고 울타리 안으로 들어갔다. 울타리 안은 관객들을 500명까지 수용할 수 있지만 사람들은 100명 정도 왔다. 후자는 관객이 아니라 참가자들이었다. 저마다 겨드랑이에 수탉이 있었다. 관객은 모두 타갈인·중국인·혼혈인들이었다. 우리는 위 갤러리로 가서 힘겹게 세 개의 빈자리를 찾았다. 여성들은 결코 이런 트인 갤러리, 특히 위층에는 앉을 수 없다. 그러므로 서커스에는 남성과 수탉만 있고, 여성과 암탉은 전혀 없었다. 대신에 얼마나 많은 수탉이 있는지! 얼

⁶ 옛 스페인 작은 은화.

마나 사나운지, 끊임없이 들리는 울음소리는 울타리 안 가득 울리고 그 주변까지도 울려 퍼졌다.

싸움판 위에는 아직 아무것도 없었다. 거기에는 타갈인 출신의 한 매니저가 분홍색 옥양목 와이셔츠를 입고 판돈을 거두며 돌아다니고 있었다. 나는 인도인들이 얼마나 조심성 없이 금화도 섞여 있는 달러 몇 움큼을 투자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 매니저는 돈을 바닥, 싸움판의 모래 위에 한 더미씩 놓았다. 한쪽 구석에는 싸움 준비가 되어 있는 수탉을 안은 타갈인들이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바로 그때 두 명의 타갈인이 나타났고 투계의 힘과 투지의 정도를 관객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 사이에 그 수탉들을 부딪치면서 수탉들을 흥분시키기 시작했다. 그러다 무관심한 듯 서로 등을 돌렸다. 그들이 가버리고 싸움판은 텅 비었다. “뭐 하는 거야?” 내가 물었다. “수탉들이 관객에게 신뢰를 못 주었고 그 때문에 아무도 그들에게 판돈을 걸지 않은 거예요.”

구석에서 다른 두 명의 경쟁자가 나왔고 그들이 이전처럼 싸우지 않도록 수탉의 꼬리를 쥐고서 투계들을 흥분시키기 시작했다. 수탉들은 싸웠고 수탉들의 벼은 붉었으며 주인들이 꼬리를 잡아당기자 바로 서로에게 달려들었다. 수탉들은 희망이 있었다. 관객들 사이에서 강한 흥분이 일어났다. 군중은 흥분하기 시작했으며 파도가 갑자기 소리를 내듯이 언성이 올라가고 점점 더 세졌다. 모두 달려들든 손을 내밀었으며 서로 소리를 지르고 협상을 하고 어떤 이는 노란 수탉에게, 어떤 이는 하얀 수탉에게 판돈을 얹었다. 그리고 우리 쪽으로 몇 개의 손이 뻗어 나왔다. 판돈을 걸면서 사망에서 우리의 어깨와 등을 건드렸다.

그러는 사이 수탉 주인들은 투계의 한쪽 발에 붙어 있던 강철 박차

에서 가죽 덮개를 제거했다. 매니저는 신호를 올렸다. 모두들 조용해졌다. 수탉들은 서로에게 달려들었다. 그중 한 녀석은 자유가 된 첫 순간을 이용해서 세 번 정도 날개를 치고 마치 무거운 짐을 벗어던지기를 원하듯 울었다. 조금 더 참을성이 덜한 다른 녀석은 주인의 겨드랑이 밑에 앉아서 울어댔다. 그 수탉이 노래를 한 다음 자신의 세계적인 일에 관심을 기울이더니 자기 주변 바닥에서 쪼을 거리를 찾기 시작하더니 두 번 정도 다리로 땅을 긁었다. 그러나 주인은 수탉을 잡고 쓰다듬더니 턱을 당겨 주인의 손에서 떨어져나간 다른 수탉에게 던졌다. 그때 두 투계의 목 주변 깃털에서 칼라가 일어나더니 두 마리는 머리를 구부리고 서로를 겨냥했다. 오랫동안 수탉들은 털을 곤두세우더니 마침내 둘은 갑자기 튀어 들어갔다. 그리고 한 놈은 다른 놈을 뛰어넘었고 순간 다시 전투 자세를 잡더니 다시 몸을 숙였다. 다음 세 번 정도 강하게 쓰러뜨렸다. 몇 개의 깃털이 사방으로 날아다녔다. 다시 한 놈이 다른 놈을 뛰어넘었고 박자로 그 수탉을 할퀴었다. 다른 수탉 역시 뛰어넘더니 상대편을 옆으로 넘어질 정도로 할퀴었다. 그러나 그 순간 일어나서 새롭게 맹렬하게 적을 공격했다. 그때 더 이상 아무 것도 파악할 수 없었다. 수탉들은 한 덩어리가 되어 싸웠고 종종 넘어지고 강하게 서로의 벼를 꿰뚫었으며 서로 옆치락뒤치락했다.

“이런 광경은 우리나라 시골에서도 매일 볼 수 있는 거야.” 나는 B.에게 말했다. 그러자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피 튀기는 싸움이 일어나면 아줌마가 부지깽이를 들고 달려가거나 채찍을 든 마부가 싸움을 말리려고 하거나, 소년이 돌을 던지거나 하죠.” 곧 하얀 수탉이 한쪽 날개를 떨어뜨리고 튀어서 절뚝거리면서 달려가다가 다시 넘어지고 결국 싸움판에서 미끄러졌다. 날개는 피로 범벅이 된 길을 만들면서 땅

위에 질질 끌렸다.

어쨌든 이런저런 수탉의 강한 일격으로 관객의 간헐적인 비명이 울려 퍼졌다. 그리고 패배자가 달려갈 때 군중은 야만적이고 공격적이 되었으며, 길게 울부짖었다. 끔찍해졌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났고 모두 소리쳤다. 그들에게는 어떻게 저런 얼굴, 저런 열정이 있는 것인지! 이 모든 것이 수탉의 싸움에서 비롯된 것인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런 것은 보지 못했어요.” 라고 B.가 말했다. 사실 이 순간은 낯선 관객들에게는 가장 멋진 순간이었다.

승자의 주인은 자신의 수탉을 잡고 돈을 쥐었다. 그 상대방은 잠자코 군중 속으로 사라졌다. 관객들 역시 조용히 서로에게 걸은 달러를 건넸다. 다른 두 사람이 나타났고 똑같은 일이 반복되었다. 즉 수탉들을 괴롭히고 박차로 무장시켰다. 똑같은 흥분, 똑같은 언성이 관객들 사이에 반복되었다. 수탉들은 벗어났다. 한 순간이 지나자 커다란 붉은 수탉이 회색 수탉의 다리를 찢었다. 그 수탉은 발라당 누웠고 다리는 위로 뻗어졌다. 주위에는 피와 깃털들이 흩어졌다. 패배한 수탉을 어떤 더러운 타갈인이 가져갔고 수탉의 가슴에서 깃털 한 움큼을 벗겨 커다란 자루에 넣더니 수탉을 주인에게 넘겨주었다. “그들은 자신의 수탉을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지?” 내가 프랑스인에게 물었다. “치료해주겠죠?” “모릅니다.” 프랑스인이 말했다. 나는 이 질문을 왼편에 있는 옆사람, 중국인에게 물었다. “시뇨르?” 그는 나에게 물음으로 답했다. 나는 중국인들이 영어로 말하는 홍콩에 있는 것도, 싱가포르에 있는 것도 아니며, 결국 중국에 있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잊었다.

가끔 패배한 수탉의 주인은 수탉을 손에 쥐고 아직 싸울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며 계속해서 싸우게 해달라고 했다. 그리하여 패배한 수탉

이 내기판돈을 얻는 일이 발생했다. 타격에서 회복된 후 그의 수탉은 적수의 다리에서 벗어나 적수를 울타리 밑으로 쳤고 적수가 누워서 날개를 겨우 퍼덕거릴 정도로 수탉은 맹렬했다. 그 수탉은 적수를 부리로도 박차로도 계속해서 공격했다.

우리는 한 시간가량 앉아 있다가 떠났다. 흥행은 태양이 지기 전까지 계속된다고 했다. 정부는 사육을 위해 서커스 장소를 내주고 큰 돈을 벌었다. 나는 아마 위에서 언급했을 것이다. 얼마나 많은 돈을 수탉 싸움에서 벌어들이는지를. 톤초라는 지방에서는 세금으로 8만 달러를 받는다. 다른 지방에서는 1만 5천 달러, 어떤 곳은 20달러다. 타갈인들은 때때로 내기에 수천 달러까지 내놓는다. “나는 여기 투우가 있다는 소리를 들었다.” 내가 프랑스인에게 물었다. “결코 볼 수 없나요?” “소용없습니다.” 그는 대답했다. “이것은 스페인 투우의 패러디입니다. 여기 투우사들은 임명을 받지 못한 장교들이며 불쌍하고 쓸모없는 소들과 싸우는 거죠.”

아침에 출발하기 3일 전쯤 P.는 나에게로 왔다. “우리 은행원의 밧줄 제조공장을 둘러보지 않겠습니까?” 그는 나에게 말했다. “은행원 집 주인들 중의 한 사람인 미국인 머퍼가 우리를 안내할 겁니다.” 나는 은행원의 공장으로 가는 것이 별로 내키지 않았다. 나는 가능한 한 자신의 집에서 모두를 자주 보고 싶어 하는 그의 바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그의 집을 방문하지 않았다. 방문하는 동안 마닐라에서 고기·들새가 아니라 이곳의 공기를 마시는 최상의 시간이 도래한 때, 들과 해안가로 나가 꽃이 피고 초원이 있는 교외를 산책하고, 한마디로 생동하는 때에, 즉 다섯 시에 부득이 하게 식사에 초대되었기 때문에 가지 않았다. 이런 때 식사하라니.

나는 특히 내가 모르는 길을 따라 공장까지 가야 한다는 것을 알았을 때 P.와 머포와 함께 갔다. 이 길은 아주 외지고 인적이 드물었다. 그 때문에 더욱 내 마음에 들었다. 나는 마닐라 근교에 손이 닿지 않는 들과, 완전히 잊혀진 것 같은 장소가 이렇게 많다는 것이 놀라웠다. ‘아니면 그들은 이곳을 묵히고 있는 걸지도.’ 나는 텅 빈 넓은 들판을 보면서 생각했다. ‘여기 토양은 우리나라 북쪽 땅처럼 휴식이 필요할지도, 아니면 주의를 기울이지 않거나 게을러서?’ 질문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K.I.L.이 나와 함께 갔다. 그는 좋은 농부이고 실질적인 주인이며 여러 세월 러시아에서 커다란 영지를 소유하고 있지만 그의 지식은 밀, 클로버 등에 멈췄다. 그는 열대성 토양에 대해서는 나 이상 아는 바가 없다.

우리는 넓은 들과 몇 개의 구조물이 들어차 있는 공장으로 갔다. 이 공장에서 가장 놀라운 것은 그 공장에 있는 밧줄이 전 세계적으로 만드는 방식처럼 대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바나나 비슷한 나무의 섬유질로 만든다는 것이다. 머포는 그것을 플랜틴이라고 불렀다. 섬유질에서 나온 인피는 색이, 마치 뭐라고 해야 하지? 그래 연한 담갈색이다. 섬에서 꾸러미로 배달되며 무엇보다도 빗질이 되어 있다는 것이다. 빗질을 할 때 재료는 코코넛 기름으로 살짝 칠해진다.

우리는 사순절 기름 냄새가 나는 인피 더미 사이를 겨우 걸어갔다. 두세 번 빗질을 하는데 처음에는 거칠게 커다란 이빨이 있는 것으로, 그다음에는 길게 가는 빗으로 가닥가닥 빗는다. 그러면 기계가 밧줄로 꼬는 것이다.

기계는 미국에서 들여온 것이다. 여러분은 공장에서 이런 강철판과 바퀴들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알다시피 그것들은 분리되고 윤이 나며

얼마나 멋있는지, 여기서도 마찬가지다. 홀 어딘가 장식으로 세워놓았을 것이다. 굵은 밧줄을 꼬는 기계가 레일을 따라 움직이고 있는 광들은 길이가 500걸음 정도 된다. 노동자는 전부 타갈인이며 장인은 미국인들이다. 소년들은 하루에 반 레알을 받으며(대략 은화 7코페이카) 오전 6시에서 오후 6시까지 일해야 한다. 어른은 1레알씩 받으며 필요하다면 특별수당을 받고 밤에도 일한다. “물론 싸지요.” 농부 L.이 말했다. “그렇지만 대신에 그들은 가죽 재킷도 장화도 장갑도 1년 내내 필요 없잖아요. 더구나 그들을 공장에서 먹이잖아요.” 세 사람의 장인은 각각 1년에 1,800·1,500·1,000달러를 받는다. 상품은 미국으로 더 많이 가는데 일부는 굵은 밧줄이고 일부는 패키지와 섬유질로 간다. 거기에 ‘플랜틴’으로 만든 밧줄은 대마로 된 밧줄처럼 배에서 선호한다. 그러나 구동장치, 즉 움직이는 도르래 장치를 위해서만 필요하며 서 있는 장치나 타르가 칠해진 부동의 삭구는 대마로 만든다.

싱가포르에서처럼 마닐라의 선박용품점에서는 세계 다른 사람들이 선호하는 러시아·타이완[台灣] 삭구가 판매된다. 그러나 그것은 나무로 된 것보다 더 비싸다. 우리나라 배에서는 몇몇 마닐라 삭구를 쓰고 있다. 그 삭구로 돛을 달 경우 귀를 멍멍하게 하는 음악이 울려 퍼진다. 정확하게 천 개의 썰매가 얼음 위를 지치는 것과 같다. 얼마 지나지 않아 지나갈 것이고 닳아빠질 것이다. 공장에서는 1년에 13만 달러어치를 생산한다. 공장은 현재 마닐라에 있는 미국인 집의 대표자인 스타르 지스,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 머포, 그의 형의 미망인의 소유로 되어 있다. 형은 2년 전쯤에 공장을 공격해서 파괴하려던 인도인들에게 살해당했다. 스페인 정부는 지금까지 죄인들을 찾지 못하고 있다. 미국 제독 페리는 그들을 찾는 것을 돕기 위해 자신의 소함대를 이끌고 이리로

을 거라고 했다.

몇 년 전 공장에는 화재가 일어났다. 왜? 거기서는 노동자들이 담배 피우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아마도 마닐라에서는 흡연이 금지되었는데 한 소년이 남몰래 담배를 피웠던 것 같다. 감시인이 나타나자 타갈인은 자신의 죄를 감추는 법을 몰라서 인피 더미에 담배를 넣은 것이다.

교외인 산타크루츠를 지나 우리는 도시로 돌아왔다. 나의 친구들은 어떤 마르가리타로 파인애플 섬유로 만든 스카프와 옷감을 사러갔고 나는 집으로 갔다.

우리는 출발하기 위해 서둘렀다.

마침내 오늘이 아니라 내일 닻을 내리기로 얘기되었다. 전함으로 가야 했다. 나는 마지막 이틀 동안 한번 더 교외를 둘러보고 칼리사도, 에스콜토, 로자니오, 상점들에 갔다. 어제 나의 트렁크를 집으로 보냈고 오늘 점심 이후에 소형 보트를 타고 나도 출발했다. 우리와 함께 프랑스인과 스페인인 한 명도 갔는데 스페인인은 전에는 선원이었고 지금은 자신을 사령관이라고 하였다. 이날 전함에는 우리 젊은 사람들이 받아들인 몇몇 스페인 가족들이 오기로 약속되어 있었다.

우리가 소형 보트에 닻을 때 갑자기 손님들이 이미 타고 가기로 했고, 단체의 일부가 우리보다 먼저 가야 한다고 말하러 왔다. 그러나 우리도 양보할 수 없잖은가! 우리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소란을 떨었는지! 우리가 파시그에서 막 노를 저어가려 할 때 돛을 내리라고 명령받았고 움직였다. 기슭 밑은 아주 고요했으며 소형 보트는 고요하게 흘러갔다. 그러나 우리는 저 멀리 손님들을 태운 덮개 달린 바크(배)가 파도를 타고 출렁이는 것을 보았다.

낮 3시경부터 6시까지 예측할 수 없는 마닐라 항로에는 거의 항상

바람이 하루 중 다른 시간대보다 더 신선하게 분다. 이날 바람은 다른 날보다 더 신선하게 불었고 파도를 일으켰다. “우리가 저들을 추월하자.” B.가 말했다. “시트를 당겨, 시트를 당겨!” 그는 부단히 지휘했다. 돛이 바람에 올라갔다. 배는 한쪽 옆면이 물속에 완전히 잠겼다. 반대편 옆면을 잡지 않고서는 결코 배 안에 앉아 있을 수 없다. 우리는 다리로 아이스크림이 든 통에도, 손님을 위해 명령받았고 배 바닥에 무질서하게 놓여 있는 사탕·오렌지·망고가 든 상자에도 의지했다. 그러나 노 젓는 자리에서 우리는 저 멀리 밀려났다. “암초를 피해 갈 수 있을까?” B.K.가 물었다. “해야지. 그러면 더 가만히 가야 해. 손님들 앞으로 갈 수 없어.” B.가 말했다. “그들은 프랑스 증기선 뒤편에 있어. 그 배들을 끌어야 해!”

우리 배는 후편이 일어나 코로 물을 쳤으며 국자처럼 퍼올려 물보라가 양쪽 면에서 일어났다. 완전히 뒤집히지만 않는다면 완벽하게 앞질러 갈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모험을 했지만 추월했다. 그러나 B.에게는 후자가 전자보다 더 두려웠다. 만약 아이스크림이나 사탕에 바닷물이 들어간다면 스페인 여자를 무엇으로 즐겁게 한단 말인가?

뱃전에 진동이 계속된다는 것 또한 문제다. 보트를 뱃전까지 들어 올릴 뻔했다. 지금 이 순간을 이용해야 하는 거야. 사다리에 뛰어올랐지만 놓쳤다. 파도가 배를 다시 저쪽으로 밀어내고 끌고 갔다.

우리가 갑판으로 뛰어 올라가자마자 손님들이 우리에게 바짝 붙었다. 그들은 모두 7명가량 되는 스페인 사람들이었다. 세 명의 부인과 두 명의 스페인 여자들, 엄마와 딸이며 한 명은 영국 여자였다. 그 외에 초대된 사람들은 흔들리는 것이 두려워서 오지 못했다. 손님들은 아마도 내가 알아챘듯이 짬뽕이 묻은 차·아이스크림·과일들을 대접받았

다. 왜냐하면 손님들 중 한 사람이 망고를 망설임 없이 깨물었는데 갑자기 멈춰서 과일을 살펴보기 시작했다. 그다음에 우리를 보았다. 비록 우리가 퍼올리지는 않았지만 역시 바닷물이 배 안으로 튀어오르는 것을 막을 수 없던 것이다.

영국 여자와 무슨 말인가 대화를 시작했지만 스페인 여자들과는 별로 대화하지 못했다. 아가씨는 총명해 보였고 매우 상냥했다. 그녀는 포르테피아노를 잘 연주하지 못했고 영국 여자는 노래를 그다지 잘 부르지 못했다. 나는 아가씨가 하나의 언어로 뭔가를 이해하지 못할 경우 다른 언어로 이해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아가씨에게 날씨에 대해 뭔가를 말했는데 반은 프랑스로 반은 영어로 했다. 그러나 그녀는 아마도 음악에 대해 반은 스페인어로 반은 내가 생각하기에 타갈어로 대답했던 것 같다.

결국 우리는 마닐라와 헤어졌고 지금은 바로 루손의 풍경 속으로 조용히 가라앉았다. 나는 기슭으로 옮겨갈 때부터 한번도 가지 않았던 나의 선실로 들어갔다. 선실 안에는 담배 상자들, 속옷, 드레스 더미가 산을 이루고 있었다. 파제예프와 나는 어떻게든 구석으로 모든 것을 치워 나의 선실을 반으로 줄였다. “밀짚모자는 어디에 있지?” 내가 물었다. “바로 저기 있어요.” 파제예프가 천장을 가리키면서 말했다. “네가 저기다 어떻게 붙였지?” 모자들이 천장에 매달려 있는 것이 의심스러워서 내가 물었다. 그러나 매우 간단했다. 그는 세 개 또는 네 개씩 모자를 서로 겹쳐서 천장에 못으로 박았던 것이다. 단단히 박았겠지?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XIII.

마닐라에서 베리아 해안들까지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우리는 2월 27일 저녁 마닐라에서 출발했다. 도착할 때와 마찬가지로 또다시 무풍을 만나 루손 섬을 따라서 천천히 움직였다. 그렇게 5일째 느릿느릿 갔지만, 섬을 벗어나자마자 강한 북동 계절풍이 우리의 이마에 불어왔다.

우리는 처음에는 돛의 한 폭만 줄였으나 점차 네 폭을 다 줄이게 되었다. 힘들고 느리게 우리는 갔다. 아니 한군데서 왔다 갔다 했다고 말하는 것이 더 낫겠다. 우리는 오랫동안 맞바람에 배의 방향을 계속 바꾸며 갔으나 8일째 되는 날 어제 있었던 그 자리에 다시 되돌아왔다.

나는 배가 앞뒤로 흔들리는 것을 견딜 수가 없었다. 그러나 그것도 양옆으로 흔들리는 것보다는 나았다. 이쪽에서 저쪽으로 밀려가지는 않으니 말이다. 하지만 멀미하는 사람은 그것도 견디기 힘들다.

우리 배들은 우리와 함께 모여 있었다. 하지만 제독은 그 배들을 여기지기로 보냈다. 수송선인 '멘쉬코프 공'호는 정황을 알아보기 위해 상하이로 보냈고, 스쿠너선은 바탄 섬¹으로 정박할 장소와 식료품을 준비하기 위해 보냈으며, 코르벳함은 또 어디론가 보냈다². 자신은 한국의 연안에 있는 해밀튼 섬(거문도)³으로 가서 그 곳에서 수송선을 기다릴 예정이었다.

우리 배들과 헤어지자마자 바람이 세어졌고, 우리 배의 앞돛대가 주돛대보다도 더 좋지 않게 완전히 뒤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것이 갑자기

1 바탄(Bataan) 섬. 인도네시아 리아우주에 있는 섬이다.

2 푸티아틴 제독은 코르벳함 '올리부차'를 캄차카의 방어를 위해 페트로파블로프스크 항으로 보냈다.

3 거문도의 해밀튼 항을 가리킨다. 곤차로프는 원문에서 해밀튼 항을 계속 해밀튼 섬으로 기록하고 있다.

드러났다. 총체적인 정보였다. 더 이상 가는 것은 위험할 수가 있었다. 북쪽에서 거센 바람을 만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앞돛대는 화를 면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필리핀을 벗어난 지 3일째 되는 날 앞돛대에서 갑자기 뭐가 쪼개지는 소리가 났다. 서둘러 앞돛을 내렸다. 항구에 들러야만 한다. 그런데 어디로 가야 하나? 홍콩으로 가는 것이 제일 좋은데, 하지만 그렇게 되면 바로 영국인들의 손님이 되는 것이다. 루손 섬에서 멀지 않은 바부얀 제도⁴와 카미긴 섬,⁵ 피오 퀸토 항⁶으로 다시 내려가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바탄 섬에 먼저 들러야만 했다. 스쿠너선에게 우리를 기다리지 말고 북쪽으로 더 항해하라고 알려주기 위해서였다. 우리는 바탄 섬까지 계속 맞바람을 향해 돛을 번갈아 좌우로 돌리면서 갔다. 바람은 온 힘을 다해 울부짖었고, 나는 선실에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문을 닫아놓으면 무더위 숨이 막혔고, 반쯤 열어놓으면 마치 숲에서처럼 시끄러웠다.

어제 9일에서 10일 밤까지 하루 동안 조류가 우리를 계산한 것 보다 북쪽으로 35마일을 떠밀어놓았다. 어젯밤은 배 위치를 관측하기가 좋았는데도 이렇게 되었고, 우리는 바탄 섬보다 더 위쪽에 위치하게 되었다. 그렇지만 순풍을 만나 바탄 섬까지 얼마나 재빨리 내려갔는지! 이

4 바부얀 제도(Babuyan Islands). 필리핀 제도 북쪽 연장부에 있는 도서군. 바탄 제도와 발린탕 해협 남쪽, 루손 해협에 자리잡고 있다. 루손 섬 북쪽 32km 지점에 위치한다. 24개의 화산성 산호 섬으로 이루어져 있다.

5 카미긴(Camiguin) 섬. 필리핀 보홀 해에 있는 산악성의 섬. 필리핀 제도에서 가장 아름다운 섬으로 꼽힌다. 주요항구는 맘바하오다.

6 피오 퀸토(Pio-Quinto) 항. 피오 퀸토는 피오 5세라는 뜻이다.

섬이 바로 그 바탄 섬이다. 작년 7월, 한 달 내내 태풍, 중국어로 하면 ‘타이푼’, 즉 센 바람이 이 섬 주위에 우리를 묶어놓았다. 우리는 그때 동쪽 해안에서 헛되이 선착장을 찾았다. 동쪽 해안에 선착장은 없었다. 그래서 이번에는 남서쪽 해안에서 금방 찾았다. 스쿠너선은 이미 거기에 정박해 있었는데, 미국인 고래잡이들도 있었다.

섬은 그리 나쁘지 않았다. 온통 언덕이었으며, 그 언덕들은 녹음으로 가득했다. 만은 남풍에 가려져 있지 않아서 닳을 내리는 것은 위험했다. 비록 이 계절에, 다시 말하면 북동 계절풍이 부는 이 시기에는 남풍이 없어서 그 만이 좋기는 했지만 말이다. 그것에만 기대하면 안 된다. 갑자기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절벽들(그것들도 녹음이 가득했다) 사이에 바람이 불지 않는 잔잔한 곳과 선착장이 있었다. 수심은 고르지가 않아서 50사젠이었다가 그다음은 38사젠, 그리고 갑자기 7사젠이 되기도 했다. 해안에 다가가자 우리 앞에 수도월이 펼쳐졌고, 그다음에 스페인 식민지 행정관리의 집과 녹음에 쌓인 마을이 나왔다. 해안을 바라보니 기분이 좋고 유쾌했다. 사람들이 해안으로 갔으나, 나는 가지 않았다. 아마도 독일인들이 고향에 대한 향수(Heimweh)라고 부르는 병이 나를 덮친 것 같다. 그냥 집으로 가고만 싶다. 신께서 버틸 힘을 주시기를! 멀리서 나를 유혹했던 새로운 아름다움이 사라지고, 내 앞에는 불안과 미지만이 있다.

오늘 아침 신부님(padre)과 스페인 행정관리가 우리 배에서 아침 식사를 하였다. 나는 선실에서 나가지 않았다. 나가지가 싫었다. 하지만 그들과 같이 온 두 명의 원주민 소년들 - 그들의 종이였다 - 이 우리 군악대가 연주를 시작하자 갑자기 입을 짝 벌리고는 정신을 잃고 구경하는 것을 창문을 통해 반가이 보았다. 그들의 놀라움은 곧 만족으로

바뀌었다. 그 소년들은 갑판에서 그들 근처에 앉아서는 군악대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다. 그들은 멀미가 났다. 작고 노란 얼굴이 파랗게 질렸고, 대포 뒤로 몸을 숨겼다. 갑자기 신부님이 소년을 불렀다. 그 아이가 듣지를 못하자 신부님은 그 아이의 뒤통수를 갈겼다. 마치 해적에게 갈기는 듯 했다.

소들과 채소가 우리에게 도착했다. 화물운반용 보트에서 소 한 마리를 들어올릴 때 소를 묶어놓은 밧줄이 배에서 흘러내리더니 목 주위에서 멈췄다. 소는 숨을 헐떡거리기 시작했지만, 재빨리 갑판으로 들어올려서 줄을 풀어주었다. 화물운반용 보트에서는 한 수병이 소가 보트로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해서 소가 떨어지는 동안 물로 뛰어들어 수영하는 편을 택했다. 하지만 소는 떨어지지 않았고, 그의 예방책은 만인의 웃음을 불러왔다. 거기에는 내 웃음도 있었다.

식료품을 신자 우리는 닻을 거두고 돛대들을 수리하러 카미긴 섬으로 향했다. 우리는 밤에 섬을 빠져나왔다. 그리고 작은 섬들이 흠뻑 젖어 있는 곳에 이르자 안전을 위해서 바시 해협⁷의 작은 섬들 근처에서 돛을 조금만 펴고 새벽까지 서 있었다. 나는 잠을 잤는데, 아침 녘이 되자 꿈결에 우리 배가 순풍을 받아 빠른 속도로 달리는 소리를 들었다. 이렇게 갈 때는 배가 항상 양옆으로 흔들린다. 우리는 4시쯤에 카미긴 섬에 닻을 내릴 생각이었다. 총 거리가 60마일쯤 되었고, 그러면 속도는 10노트쯤 하면, 즉 시간당 9마일이나 17베르스타 좀 넘게 가면 된다. 하지만 이런 계산에서 고려해야 되는 것이 조류다. 이곳에서 조류

7 바시 해협(Bashi Str.), 타이완의 남단과 필리핀의 최북단 바탄 제도 사이에 있는 해협.

는 반대로 흐르고 있다. 순풍은 우리를 10노트로 날라주지만, 조류는 5노트쯤 뒤로 옮겨놓는다.

5시쯤 되어 우리는 카미긴 섬으로 다가갔다. 하지만 어찌나 천천히 움직였는지 해가 지고 나서도 우리는 여전히 섬 입구에 있었다.

그런데다가 섬 주위에서 우리는 가는 곳마다 솔로이를 만나 바로 그것에 빠져버렸다. 여러분들은 ‘솔로이’가 무언지 아십니까? 신이 당신들이 그걸 모르게 하시기를 빕니다. 솔로이는 바람과 조류가 만나는 것이다. 당시에 우리는 북동풍을 받고 있었고, 조류는 남서방향이었다. 이게 무슨 별이란 말인가! 우리는 그렇게 거대하고 사나운 파도는 결코 경험해보지 못했다. 바람은 세지 않았으나, 물결은 서로 반대편에서 맹렬하게 부딪혀 산처럼 솟구쳐올랐는데, 그렇게 이루는 산의 모습이 참으로 다양했다. 한 파도가 일어나서 정확히 피라미드 모양을 이루고 나서는 당연히 그렇듯이 사방으로 흩어지려 한다. 다른 파도가 갑자기 흩어지려는 앞선 파도에 장벽을 만들고 막아서고, 배의 그물망 위로 훌쩍 솟구쳐오른다. 그다음 한쪽으로 물을 빼내서 깊은 골짜기를 만들고 이동 중에 바람의 힘을 받지 못하고 있는 배를 그곳에 빠트려버린다. 뒤쪽에서는 승리한 파도가 배를 밀치고, 배는 옆으로 기울어져 고통스럽게 누워 있다. 파도는 갑판을 때리고 배는 온통 물을 뒤집어쓴다. 배에게 닥치는 재난은 작은 배들은 종종 물에 잠기고, 큰 배들도 돛대를 잃기도 한다. 다행히도 바람이 우리를 재빨리 장애물이 없는 트인 장소로 옮겨주었다. 하지만 그곳에 들어가지는 못하고 다시 열린 바다에서 밤을 지새야 했다. 닻을 내리고 씻고 누워 잘 수 있기를 희망했다.

이미 다음 날 아침, 3월 11일에 우리는 북쪽 입구를 통해 피오 쿤토만으로 들어갔고 정박지를 보호해주고 있는 동명의 작은 섬 뒤쪽에 정

박했다. 만은 넓었고 해안은 뚫을 수 없을 정도로 우거진 초목으로 덮여 있었다. 섬에는 휴화산이 있었다. 야자나무·바나나도 있고, 조가비들이 지천이었다. 내가 보고 있는데 수병들이 P-t에게 각종 조가비 한 자루를 가져왔다. 나에게도 가져오라고 주문을 하였다. 의사는 황금색·붉은색·노란색 나는 새를 여섯 마리나 잡았다. 그 새들의 배를 가르고 내장을 긁어내고는 면직물로 된 종이로 채워넣었다. 나는 상륙하면 안 되었다. 관자놀이의 류머티즘이 생생한 통증으로 자신에 대해 상기시켰다. 나는 프리깃함에서 거센 물결이 마치 벽처럼 해안에 달려들어 높이 내려치고는 널따랗고 하얀 술장식처럼 흩어지는 것을 바라보았다. 대양은 마치 이 섬을 보살피 주는 것 같았다. 해안과 장난치면서 어떨 때는 포효하고 화를 냈다가 어떨 때는 사방에서 다정스럽게 사랑하는 연인을 안아주었고, 해안가에서 물결을 일으키기도 하고, 반짝거리는 조가비나 불가사리, 아니면 대양이 만든 아름다운 산호를 마치 어린이가 장난감처럼 가져다주었다.

파제예프는 오늘 해안에 다녀왔다. 그리고 나에게 조가비를 가져왔다. 하나같이 조악한 것들이었다. 게다가 자기보다 훨씬 무거운 조가비를 지고 다니는 살아 있는 가재도 있었다. “참 웃기네요!” 그가 말했다. ‘아마 누구한테 안 좋은 일이 벌어졌구만.’ 나는 파제예프의 성격을 알기에 이렇게 생각했다. 그리고 그러했다. “우리 아이들이 말입니다,” 그가 계속했다. “마치 콩처럼 생긴 꼬투리를 잔뜩 먹었거든요. 그리고 나도 하나를 먹었는데 괜찮았어요. 먹을 만했는데 입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안 다물어지고. 그런데 그놈들은 배가 탈이 나서 엄청 토해내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파서 신음소리를 내고 있구요.” “어떻게 알지도 못하는 식물을 먹을 수가 있어?” 내가 뭐라고 했다. “여기 독이 있는 것들

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가 또 하나 찾아낸 것이 있습니다.” 파제예프가 계속 말했다. “무슨 호두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사과 비슷하기도 했구요, 어떤 건 빨강고 어떤 건 파랗는데요. 우리는 빨간 걸 하나씩 먹었습죠. 엄청 시큼하더라구요. 파란 것도 먹어볼까 했는데, 그때 몇 놈이 갑자기 아프다며 신음소리를 내더라구요. 웃깁니다! 그리고 나으리들한테도 웃긴 일이 있었죠.” 그는 웃지 않으려 애쓰면서 덧붙였다. “단정을 해안에 대려고 할 때 파도가 들이닥쳐 전복되어버렸습니다. 모두들 넘어져서 마치 목욕하듯이 물을 뒤집어썼습니다. 저기 있습니다!” 창문을 가리키면서 그가 덧붙여 말했다. 정말로 모두들 흠뻑 젖어 있었다.

19일, 오늘은 해안에서 점심을 먹기로 되어 있었다. 공기 중에는 깊은 고요와 참을 수 없는 더위가 있었다. 해안으로 가까이 다가갈수록 살아 있는 산호의 썩은 듯한 냄새가 더욱 심하게 풍겼다. 그것들은 해안가 여기저기 산재해 있고 밀물에 잠겨 있다. 산호들을 배에 가져오면서 이 냄새가 전함으로 옮겨왔다. 모두 산호를 한 무더기씩 가져왔다. 파제예프는 나를 절망스럽게 만들었다. 그는 매번 나에게 조가비를 가져왔는데 달팽이들이 죽어 있거나 썩고 있었다. 선실에서 제발 가지고 나가기만 해도 좋겠다!

이미 3일째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 우리 막사에서 멀지 않은 질퍽한 개울에 매일 2아르신 크기 되는 어떤 동물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어제는 그놈이 죽은 오리를 먹어치웠다. 오리·닭 그리고 양들 모두를 전함에서 해안으로 옮겨놓았는데, 오리 하나가 죽어서 그 동물의 똥이 되어 버렸다. “그래 그놈이 어떤 동물이야?” 수병들에게 물어보았다. “뱀 같

은 꼬리를 하고, 발이 두 개입니다.” 한 수병이 말했다. “그리고 입에 두 개의 뾰족한 침이 있습니다.” 다른 수병이 말했다. “이건 용입니다, 각하.” 한 하사관이 생각을 하더니 결론을 내렸다. “삼 일간 그놈을 지키고 있는데요, 단번에 잡을 수는 없습니다. 자주 나오긴 하는데 잠깐 나타나거든요. 오늘은 노로 그놈 등짝을 내려치기까진 했습니다. 지금은 그곳에 가축 담당하는 미헬카 케른이 총을 들고 앉아 있습니다.” 나는 개울로 달려갔다. 가다가 두 군데서 빠질 뻔했다. 그러나 숲을 통과해 거기까지 가는 것은 불가능했다. 고사리와 마호가니 나무의 두꺼운 줄기들이 벽처럼 서 있고, 덩굴들이 그물처럼 펼쳐져 있다. 수병 하나가 나에게 오솔길을 알려주었다. 그리고 나는 개울가로 다가갔다. 한곳에서 그 개울은 웅덩이를 이루고 있는데, 거기에는 나무그루터기, 시든 줄기와 마른 나뭇잎들이 가득 차 있었다. 관목들 사이로 나는 총을 들고 꼼짝 않고 서 있는 한 사람을 보았다. “거기서 뭘하는 거야?” 내가 물었다. “용을 기다고 있습니다, 각하.” 거의 숨을 쉬지 않고 그가 속삭였다. 그 근처에는 두 마리의 오리가 널브러져 있었는데, 한 놈은 위장이 파먹혀 있었다. 그 놈 주위로 파리들이 구름을 이루어 웅웅거리고 날아다녔다. 진미가 떨어진 것이다. 다른 오리는 아직 건드리지 않았는데, 미헬카 케른은 그 놈에게 기대를 걸고 있었다. 그리고 나도 그와 함께 기다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는 끝까지 기다리면 어떤 포상이 기다리는지는 몰라도 나에게겐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나는 인내심을 잃고 다시 막사 쪽 깨끗한 장소로 와버렸다.

막사들 중 하나에 우리 선원들이 무리지어 모였는데, 누군가를 둘러싸고 있었다. 나는 발걸음을 재촉했다. 보니 둥글게 에워싼 무리 안에 G가 서 있는데 무언가를 손에 쥐고 있었다. “당신 손에 그건 뭘니까?”

내가 물었다. “한번 보세요.” 그가 대답하고는 내 바로 코앞에 1아르신 크기 정도 되는 도마뱀을 들이댔다. 앞발과 뒷발이 등으로 해서 덩굴로 묶여 있었다. 도마뱀은 병적으로 눈을 깜빡거리고 가끔씩 길고 가는 혀를 내밀었다가 순식간에 다시 숨겼다. “이게 바로 오리를 잡아먹은 놈이구만!” 내가 말했다. “아닙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그놈은 훨씬 커요!” 나를 향해 몇 명의 목소리가 고함을 질렀다. “그리고 이런 놈이 아닙니다.” 무리 속에서 누군가 말했다. “날개가 있다니까요.” 소려시아 출신의 수병 하나가 덧붙였다. 나는 논쟁을 시작하지 않고 막사로 갔다. 거기에는 발 디딜 곳이 없었다. 각종 색깔과 크기의 조가비와 가재들의 박물관이 되었다. 그것들 중 어떤 것은 무척 큰 것도 있고 풍성한 태양 아래서 이 지역의 모든 것들처럼 놀랍도록 눈부신 색깔을 한 것도 있었다. 막사에는 세 명의 원주민이 바닥에 앉아 있었다. 그들은 머릿수건이나 낡은 윗도리, 낡아빠진 단화를 얻기 위해 이곳 자연에 풍부한 모든 것들을 G-oh에게 가지고 왔다. 한 사람은 살아 있는 뱀을 가지고 왔고 다른 사람은 조가비 한 자루를 들고 왔는데, 그걸 구하기 위해 그는 어깨에 그물을 메고 여울 위에 치는 파도 속으로 들어갔었다. 세 번째 사람이 가지고 온 것은 새와 딱정벌레였다.

나는 다 피운 시가 끄트머리를 땅에 던졌다. 그들은 그것을 잡아채서는 게걸스럽게 차례대로 피우기 시작했다. 나는 시가를 하나씩 그들 모두에게 주었다. 그들이 그 선물을 얼마나 기뻐하며 절을 하면서 받았는지 모른다! 좀 있다 나는 막사 바깥에서 널빤지에 눕고 싶었다. 그들이 득달같이 달려들어 시중을 들었다. 널빤지를 닦고는 그 아래 자갈을 깔았다.

이 해안을 보는데 눈이 매우 익숙해졌는데도 숲이 가득한 이 해변의

전체 풍경을 매번마다 살펴보거나 나무 한 그루나 관목 하나, 빨치럼 생긴 가지에 시선이 고정되기도 하고 어떤 떨림이 자기도 모르게 영혼을 휘감기도 한다. 아무리 마음이 무정한 사람이라도 자연의 이 기적들에 경이의 풍성한 공물을 바칠 것이다. 얼마나 풍부한 생명력인가!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눈앞에서 이루어진 것인가! 얼마나 풍부한 우아한 창조가 달팽이 하나, 파리 한 마리, 그리고 화려한 형태로 옷을 입고 있는 구부러진 나뭇가지에 깃들여져 있는지.

우리는 막사에서 식사하였다. 산호 냄새가 너무 심해서 거의 먹을 수가 없었다. 식사는 전부 다 생선으로 차려졌다. 생선수프, 구운 생선 그리고 커다랗고 화려한 색깔의 바닷가재. 하지만 바닷가재는 저녁에 먹으려고 남겨두었다. 그놈의 목은 마치 실크 재질같이 매우 깨끗하고 야생적인 색깔이고, 갈색의 줄이 있다. 등은 파란색이고 안쪽과 바깥쪽이 다르며 빛이 났다. 수염은 4아르신 길이에 불그스럼했다.

이곳의 물고기들은 이곳의 다른 모든 것들처럼 다양하고 화려하며 기이하다. G-ch에게 물고기들을 끝도 없이 가져왔다. 그것들은 줄에 꿰어져 있다. 거기에 어떤 이상한 점이 없었을까? 한 묶음에는 머리들만 있는데 입은 모기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다물어놓았다. 다른 묶음에는 배만 있고, 세 번째 묶음에는 전부 물고기 등만 있고, 네 번째 묶음에는 꼬리부터 입까지 같은 크기의 몸통이 있는데 가시들이 있었다. 처음 보면 가죽 지갑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모두가 울긋불긋한 무늬로 덮여 있다. 디저트로 바나나가 나왔는데 몇몇은 그것을 좋아했지만 나는 먹을 수가 없었다. 전분이 많고 지나치게 달콤해서 옛기름에 담긴 당밀과자를 기억나게 했다.

식사를 마치고 나서 모두들 흠어졌다. 누구는 다른 개울에서 미역을

잠았고, 누구는 해안을 따라 방위를 측정했다. 그리고 몇몇은 막사에 남아 잠을 잤다. 나는 해가 지자 배로 갔다.

파제예프는 조가비를 가지고 나를 맞았다. “제발 이 쓰레기로 나를 성가시게 하지 않을 수 없겠나?” 나는 조가비들이 든 상자를 밀면서 말했다. 그는 그 상자를 마치 굴 요리처럼 내 앞에 딱하니 내려놓았던 것이다. “한번만 보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훌륭한데요.” 그는 상자에서 빨모양의 조가비, 빨간 조가비, 얼룩이 있는 파란 조가비를 골라내면서 나에게 말했다. “여기 이것, 이것. 그리고 이건 또 얼마나 좋습니까!” 그는 코앞에 그것들을 들이밀었다. 그것에서 썩은 냄새가 났다. “이건 뭔가?” “그건 제가 깨끗하게 닦았습니다. 거기 달팽이들이 있었거든요.” 그가 말했다. “쉬어서 상했더라고요.” “저리 치우게! G.에게 갖다 주라구.”

오늘은 해안에서 모두 배로 이동했다. 진함에서 준비는 모두 끝났다. 눈금판이 올라갔고, 앞돛대는 마치 끈으로 묶듯 당겨 뻗었다. 나중에 혹시 배에 수리할 때를 대비해서 숲에서 나무들을 베어왔는데, 물론 전부 마호가니 나무들이다. 물에서 양과 오리, 닭들을 끌고 왔다. 용도 끌고 왔는지 아니면 자유롭게 오리 시체를 먹어치우도록 남겨두었는지 나는 모른다.

3일째 프리깃함에서 해안에 세워둔 표적을 향해 포환, 폭탄 그리고 화염탄을 발사했다. 내일은 배의 닻을 걷어올린 상태에서 똑같이 해볼 것이다. 영국인들을 만났을 경우에 대비해서 포탄들의 효력을 보려고 하는 것이다.

바다에 아무리 익숙해졌어도 돛을 걷어올릴 때마다 잠깐 쓸쓸함을 겪게 된다. 몇 주일, 어떤 때는 몇 개월을 향해하는 것은 만족이 아니라

필요악이다. 항해를 계속하다보면 꿈도 육지의 꿈을 꾸지 않게 된다. 꿈에 선실 창문에 누워 있다. 그 창문은 거품이 이는 심연에서 불과 아 르신 높이에 있는데, 거품이 만드는 무늬들을 감상하고 있다. 그리고 배의 측면이 물에서 3사젠 정도 높아졌다. 안개 속에서 어떤 새로운 섬 을 보았는데 거기로 가고 싶다. 그런데 암초들이 방해한다.

오늘은 두 가지 사건, 즉 두 개의 기분 전환거리가 있었다. 고래가 만으로 들어와서 해안가에서 놀았다. 그리고 해안가에 옮겨놓은 우리 닭들이 100마리쯤 되는데 사방으로 날아 흩어졌다. 기이했다. 나는 능 력이 갑자기 며칠 만에 너무 발전되어 숲속에서 그것들을 잡을 수가 없 었다. 닭들은 숲속의 새들처럼 나무를 따라 날아다녔다. 만일 닭들이 야생화되면 언젠가 아마도 예측된 상태에서 상실했던 비행 능력을 획득한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뗏목을 올리고, 순풍을 받아 나갔으나 불과 3마일쯤 가자 역풍이 불었 다. 배를 이쪽 측면으로 기울여서 가다가 다시 다른 쪽 측면으로 기울 여 갔다. 그렇게 역풍을 향해 뗏목을 번갈아 좌우로 돌리면서 갔다. 3일 째 되는 날 바탄 섬을 통과했다. 어제 아침에는 바시 제도의 북쪽 섬들 에 도착했다. 그다음 날인 오늘은 무풍을 만나 1, 2노트로 가고 있다. 천만다행인 것은 구름이 끼어 더위가 견디지 못할 정도는 아니었다. 언 제 도착할지는 신만이 아신다. 누구는 2주를 예상하고, 누구는 6주를 점쳤다. 아침에 후갑관을 P.와 함께 거닐면서 나는 말했다. “지겹군요. 뭇가 조금 오락거리 될 만한 게 벌어졌으면 좋겠네요.” 운명은 나의 불 평을 마치 듣기라도 한 듯 열대지방에서의 바다에서만 볼 수 있는 구경 거리를 주었다. 그곳에서는 흔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흥미 있는 구경거 리였다. 그것에 대해서는 하도 많은 사람들이 썼기 때문에 만일 내가

이 광경의 참가자, 가장 가까운 목격자가 아니었다면 나는 아무것도 언급하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는 방금 식사를 마쳤고, 나는 평소처럼 선장실에 시가를 피우러 갔다. 긴 의자에 앉아서 불을 가져오기를 기다렸다. 선장은 팔걸이의자에 앉아 있었다. 무더웠고 문과 창문은 활짝 열려 있었다. 채 5분을 앉아 있지 않아 우리 머리 위쪽에서 뭐가 움직이고 어수선했다. 사람들이 분주해지고 발을 구르기 시작했다. 선장은 자신의 책무에 따라 선실에서 나가려고 서둘렀다. 그전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알아보기 위해 창문을 통해 살펴보았다. 그리고는 그 상태로 창문에 붙어 있었다. 나는 밧줄이나 그런 것이 끊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다. 하지만 후갑판에서 많은 사람들이 “당겨, 당기란 말야!”라고 갑자기 외치는 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안 돼, 멈춰! 당기지마, 줄이 끊어진다!”라고 외치고 있었다.

나는 창문으로 달려갔고, 아래쪽에서 뭉툭하고 기이한 낯짝의 괴물이 나를 쳐다보고 있는 것을 보았다. 손가락 하나 반 크기의 갈고리에 포획된 상어가 창문에서 2나 3아르신 거리에서 물 위에 매달려 있었다. 갈고리는 그놈의 위턱에 박혀 있었다. 그 녀석은 고통에 겨워 입을 활짝 벌리고 있었다. 위쪽에서 보니 주위로 하얗고 작지만 기늘고 예리한 이빨이 잔뜩 박혀 있는 깊숙한 아가리가 멀리 보였다. 턱 전체가 흡사 톱처럼 보였다. 상어는 몇 사젠이 될 만큼 매우 컸다. 꼬리는 물속에서 흔들거렸고 다른 나머지 부분은 수면 위로 나와 있다. 상어는 밧줄이 움직이는 대로 우리에게 등을 보여줬다가 배를 보여줬다가 조용히 흔들거리고 있다. 그놈의 등은 보랏빛 색조가 섞인 짙은 푸른색이고, 배는 선명한 하얀색인데 분필로 진하게 칠해놓은 듯했다. 상어는 우리에게

게 자신을 잘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었던 것처럼 5분여를 미동도 없이 그렇게 매달려 있다. 단지 검고 커다란 둥그런 눈동자만이 세계 움직였다. 물론 고통 때문에 그랬겠지만. 꼬리 주위에는 상어와 항상 같이 다니는 물고기 두 마리가 소란스럽게 왔다 갔다 하고 있다. 검은색 줄이 있는 노란색의 조그만 물고기들인데 별명이 ‘길안내인’이다. 가끔씩은 상어와 함께 서너 마리씩 헤엄쳐 다니기도 한다. 상어가 꼬리로 주위의 물을 멀리 튀겨내면서 갑자기 움직였고 몸을 떨기 시작했다. 둥글게 몸을 구부리더니 선미에 부딪혔다가는 다시 물에 부딪히고는 다시금 조용히 매달려 있다.

나는 이 광경을 열중해서 쳐다보았다. 이 경험으로 페테르부르크에서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을지 아무도 모른다. 나는 말하자면 첫 번째 줄의 관객이다. 그리고 만일 등장인물이 뭐든 골짜기 삼켜버리는 능력만 뛰어나고 풀리지 않는 단단한 가죽으로 둘러싸인 이 둔해 보이는 낫짜만 아니었다면, 나는 유기적으로 발전된 얼굴 표정에서 고통과 절망의 미묘한 느낌을 읽어냈을 것이다.

상어의 무게와 벗어나려고 하는 몸부림에 갈고리가 조금씩 휘고, 밧줄에서는 우지끈 소리가 나기 시작했다. 한번만 더 상어가 힘을 주었으면 밧줄은 버티지 못했을 것이고, 상어는 갈고리와 밧줄 일부, 그리고 찢어진 턱을 가지고 바다로 가버렸을 것이다. “잡고 있어! 버텨! 빨리 끌어당겨!” 그 사이 우리 머리 위에서 소리가 울려 퍼졌다. “줄이 끊어진다. 끝을 쥐!” (여기서 ‘끝’은 단정들이 배에 집안하거나 다른 비슷한 상황에서 단정에게 던져주는 밧줄이다.)

상어는 잠시 쉬고 있다. 그놈 내부에, 아가리 깊숙이 턱뼈가 보이고, 그다음으로 창백한 분홍색 살이 그리고 더 깊이 까맣게 비어 있는 공간

이 보인다. 밧줄로 커다란 고리를 만들어 상어에 씌웠다. “그렇지, 그렇지!” 위쪽에서 목소리들이 잘하고 있다고 소리쳤다. “날개 밑으로 밧줄을 걸어 고정시켜!” (수병들은 지느러미를 날개라고 부르고 있었다. 실제로 형태나 크기에서 날개와 비슷했다.) 날개를 걸어 고정시키자 상어는 이제 완전히 잡힌 셈이 되었다. 상어를 위쪽으로 끌어당기기 시작했다. 그때 그놈은 온힘을 모아서는 몸을 굽혔다가 피면서 꼬리로 선미와 선미 부근에 매달려 있는 단정들, 그리고 꼬리가 닿는 곳에 있는 모든 것들을 때리기 시작했다. 나는 창문에서 물러서야만 했다. 왜냐하면 꼬리 끝부분이 창문을 때렸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무것도 그놈을 구해주기 않았다. “저리 비켜!” 후갑판으로 상어를 끌어올리면서 고향을 질렀다. 사람들의 불안한 발자국 소리들이 났고, 그다음 무거운 몸통이 떨어지는 소리 그리고 이어서 갑판에 부딪히는 소리가 났다.

나는 K.와 함께 후갑판으로 가기 위해서 문쪽으로 내달렸다. 문을 열자 수병들이 후갑판에서 떼를 지어 뒷걸음치는 것이 보였다. 상어가 방금 선미갑판으로 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어떻게 저들을 뚫고 나가지? 그 순간 상어가 만약 …… 하지만 호기심이 그것들을 극복했다. 우리는 뚫고 나가서 후갑판으로 뛰어 들어갔다.

그곳에는 20명가량의 사람들이 상어 몸통을 감은 밧줄 끝을 움켜쥐고 있다. 상어 몸통은 갑판에 부딪히고 기어다니며 꼬리로 휘젓고 있어 모든 게 풀어헤쳐졌다. A.A.K.는 도끼를 움켜쥐고 아가리 아래쪽을 내리쳤다. 피가 흘러나와 갑판을 흥건히 적셨다. 누군가 큰칼로 날째게 배를 갈랐고 거기서 내장이 쏟아져나왔는데 마치 지저분한 천 조각들 같았다. 상어는 갑자기 잠잠해졌다. 그때 B.Sh.가 지렛대를 잡더니이

지렛대는 두께가 손만한 나무봉으로 대포를 움직일 때 쓰인다) 그것을 입속에 쑤셔넣었다. 지렛대는 입속으로 거의 다 들어갔다. 입은 4열로 된 이빨들을 드러냈다. 아래턱은 발작적으로 움직였다. 이 동물의 등을 위로 돌렸고 밧줄로 외가름대에 묶였다.

우리는 무리지어 그 주위에 섰고, 수병들은 그곳에 뻣뻣이 물려들었다. 어떤 사람은 로프를 타고 기어 올라갔다. 모두들 상어가 살아 있는 징조를 보이지 않는지 살펴보았다. 징조가 없었다. “아냐, 이미 끝났어.” 몇몇이 말했다. “만신창이가 되어서 이미 죽었어.” 다른 사람들은 반대로 죽었다는 사실을 의심하였고, 상어가 얼마나 질긴지 예를 들었다. 가끔씩 상어는 가사상태로 세 시간이 지나도 발작적으로 부주의한 사람들의 손과 발을 물어뜯는다는 것이다.

갑판에서 피를 닦아내라고 명령했다. 물과 밀대를 든 수병들이 왔다. 청소한 후 그들 중 하나가 도끼를 들더니 상어의 지느러미를 조금 잘라내기 시작했다. 다른 사람은 칼로 여러 군데를 베어내었다. 그건 호기심에서 상어의 껍데기는 얼마나 두꺼운지 가죽 밑에는 어떤 게 있는지 보려고 그러는 것이다. 우리의 자연관찰 애호가도 도착했다. 상어 주위에 앉더니 껍데기를 만져보고 머리와 눈을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했다. 입에서 지렛대를 빼고는 피투성이가 된 얼굴에 물을 부었다. 지켜보고 있기가 지겨워진 많은 이들은 흩어졌다. 상어를 치워야 될 때가 왔다. 밧줄들을 풀었고 상어를 다시 배가 위쪽으로 가게 돌려서 저쪽으로 끌고 가려고 하였다. 누군가 칼로 상어 등을 한번 더 베어낼 생각을 하였다. 그러자 갑자기 상어가 푸드덕 몸부림을 치더니 꼬리로 오른쪽 왼쪽으로 때렸다. 모두들 펄쩍 뛰어 물러섰다. 한 수병이 미처 물러서지 못해서 심하게 두 대를 맞았다. 한 대는 장판지를 다른 한 대는 조금

위에 …… 그는 있던 곳에서 미끄러져 자빠졌다. 모두들 껄껄 웃었고, 다시금 동물을 고분고분하게 만들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놈한테서 밧줄도 풀어버리고 지렛대도 입에서 뱉어버려서 그렇게 만들기가 그리 쉽지는 않았다. 이곳저곳 칼에 찔려 만신창이가 되고 내부 장기가 나와 걸려 있어도 상어는 갑판을 때리고 뱀처럼 몸을 꼬아서 꼬리로 빠르고 세차게 곡선을 그리며 배 가장자리로 움직였다. 아무도 다가갈 생각을 못하였다. 이것은 마지막으로 상어에게 유리한 순간이었다. 조금만 더 몸을 구부리거나 조금만 더 세게 꼬리를 흔들었으면 상어는 배 밖으로 떨어졌을 것이고 적어도 자신에게 친숙한 자연에서 죽었을 것이다. 하지만 상어가 순간 조용해지자, 우리 선원들이 다시 지렛대와 도끼를 들고 나섰다. “그놈 머리를 때려.” 목소리들이 고함쳤다. “발 조심해, 저리 비켜!”

상어한테 두 대를 얻어맞은 수병이 상어 가장 가까이에서 맴돌았다. 그 수병은 화가 나서 아직 얻어맞은 고통이 사라지지 않았는데도 지렛대를 들고 상어를 쫓고 있었다. 지렛대로 상어 머리를 내려치려고 애를 쓰면서 자기가 맨발인 것도, 그리고 그의 발이 상어 입에 거의 닿아 있는 것도 모르고 있었다. 하지만 워낙 돌발적으로 꼬리를 흔들어 대서 머리에 명중시키기가 무척 어려웠고 지렛대는 그놈의 등에 떨어졌다. 하지만 그것은 보아하건대 상어에게 아무런 충격도 주지 못했다. 마침내 그 수병은 두 번 머리를 때리는 데 성공했다. 상어는 방향을 바꾸었다. 하지만 몸을 구부리고 기어가는 것은 예전과 똑같이 빠르고 힘차다. 다른 사람이 도끼로 머리 아래쪽을 내리쳤다. 동물은 잠잠해져서 천천히 기어갔다. “머리를 잘라, 머리를 자르라고!” 그에게 고함을 질렀다. 수병은 다시 내리쳤다. 그러자 상어가 갑자기 힘차게 내달리기

시작했다. 그는 세 번째로 내리쳤다. 상어는 다시 한 번 내달렸는데, 하지만 이미 그 힘이 약해졌다. “됐어, 이제 안식일이야!” 그가 네 번째로 내리쳐서 머리를 몸통에서 떼어내면서 이렇게 말했다. 하지만 아직 안식일이 아니었다. 몸통은 아직 천천히 구부러지고 있었다. 하지만 점점 약해졌다. 그리고 머리는 턱이 경련을 일으키며 움직이고 있었다. 모두 들 흠어졌다.

이 구경거리로 그때 마침 우리가 벗어나고 있던 열대지방과의 이별이 기념되었다. 다시는 그곳으로 돌아가지 못할 것이다.

저녁에 제독에게 차를 마시러 가다가 나는 공동선실 승강구 위에서 멈추어 섰다. 탁자에 놓여 있는 이 큰 프라이팬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보고 싶었던 것이다. “구운 상어를 드셔보시지 않겠습니까?” 탁자에 앉아 있던 사람들이 물어보았다. “아닙니다.” “그러시면, 상어로 만든 수프는요?” “농담하시는 거죠.” 내가 말했다. “먹을 수는 있는 겁니까?” “훌륭합니다!” 몇몇이 대답했다. 하지만 나는 나중에 알게 되었는데, 그들은 바로 그렇게 칭찬한 ‘훌륭한’ 음식을 건드리지도 않았다.

상어 껍데기는 나무에 윤을 내는 용도로 목수들에게 매우 귀중하게 여겨진다. 그것 말고도 상어 껍데기로 물건들을 덮어씌우기도 하는데, 일본에서는 갈손잡이를 싸기도 한다. 나에게 한 일본인이 조그만 여행용 가방을 선물했다. 상어 껍데기가 씌워졌는데 매우 아름다웠고, 무늬가 찍힌 양가죽과 조금 비슷해 보였다. 그다음에 나에게 4분의 1아르신 정도 크기의 조그만 물고기를 보여주었다. 상어 등에 달라붙어 있던 것으로 상어 등과 색깔이 같았다. 우리는 그 물고기를 그냥 간단하게 ‘흡착어’라고 불렀다. 그놈의 한 면에는 상어의 울퉁불퉁한 껍데기 자국이 보였다.

어제, 3월 25일에는 고래잡이들을 보았다. 포획한 고래에서 기름을 뽑아내기 위해서 난로를 때고 있었다. 불꽃과 연기가 마치 화재 현장에 서처럼 멀리서도 잘 보였다. 오늘은 열대지방에서 벗어났다. 하지만 여전히 더웠다. 그렇지만 무풍이 순풍으로 바뀌었고, 11노트의 속력으로 나르듯 항해했다. 그것 말고 또 뭐가 있나? 그렇다! 원숭이가 배 밖으로 떨어져서 순식간에 파도 속으로 사라졌다. 우리 배에는 원숭이는 총 세 마리가 있다. 오늘은 황혼녘에 프리깃함으로 어떤 새 한 마리가 날아왔는데 빙빙 돌면서 점점 더 가까이 다가왔다. 매우 지쳐 보였고 아마도 집에까지 갈 기대를 하지 않는 듯했다. 두 번 정도 단정에 내려앉았다가 다시 떠나갔다. 나는 K.와 함께 후갑판을 걸었다. 새들은 보이지 않았다. 갑자기 수병이 새 한 마리를 우리에게 가지고 왔는데 한 손으로는 새의 목을 다른 손으로는 발을 꼭 잡고 있었다. 그 새는 어디에도 쓸모없는 바다오리의 한 종류인 ‘멍청이 새’였다. 그 새를 G.에게 갖다주라고 수병에게 명령했다. G.는 비소로 동물들을 독살한 다음 배를 가르고 내장을 긁어낸다. 나는 이것을 배신이라고 말하면서 반대했다. 멍청이 새에 대한 것 말이다. 그 새는 피난처를 찾았는데 죽이려고 하다니! 그러면 안 되는 것이다. 멍청이 새를 닭장에 잠시 가두어놓았다. 내일 아마 풀어줄 것이다.

3월 29일. 우리는 항해를 계속했다. 그렇지만 조선의 조그만 섬인 해밀튼까지는 아직도 300마일이 남아 있다. 해밀튼 섬은 우리가 스쿠너선과 만나기로 한 곳이며 적합한 항구를 가지고 있다. 순풍이 불면 우리는 200마일 정도 질주해나가기도 했고, 무풍을 만나면 3노트씩 갔다. 지금은 폭우가 3일째 내리고 있다. 거리(우리는 상갑판을 이렇게 불렀다)로 나갈 수가 없었다. 그 대신에 조용했다. 나는 일을 할 수가 있게

되어 기뻐다. 북쪽으로 이동함에 따라 확연히 추워졌고 비도 남쪽의 비와 같지 않았고, 또 여름비가 아니었다. 모두들 모직천으로 된 옷을 꺼내어 입었다. 예제는 한 수병이 선실층 갑판에서 열대지방의 곤충들 중 가장 맹독성인 지네(Centipes)를 잡았다. 지네는 불그스름했고, 길이가 1과 2분의 1베르쇼크⁸였고, 마디로 이루어졌다. 그런데 지네는 다리가 100개가 아니라 모두 24개다.⁹ 처음에 나는 지네가 가재목인 줄 알았다. 지네한테 물렸을 때 조치를 빨리 취하지 않으면 치명적이다. 지네는 사람에게도 두렵다. 큰 동물들은 지네를 보면 도망간다. 하지만 지네에게 가장 두려운 존재는 병아리다. 병아리는 지네를 보면 달려가서 부리로 쪼아서 다리만 남기도 몽땅 먹어버린다.

그런데 우리 배에는 모든 것들이 조금씩 다 있는데, 특히 바퀴벌레가 번식을 많이 하였다. 아마도 우리는 그것들을 마닐라나 카미긴 섬에서 데리고 온 것 같다. 지금은 안개와 비를 뚫고 많은 수의 제비들이 우리에게 엄청 날아왔다. 제비들은 남쪽의 더운 곳에서 기후가 온화한 북쪽으로 힘들게 가고 있는 중이다. 나쁜 날씨와 밤을 만나 제비들은 먼 바다에 있게 되었고, 떼를 지어 프리깃함 주위를 선회하였다. 매번 선회할 때마다 배에 점점 가까이 다가오더니 마침내 기진맥진한 제비들은 갑판과 단정, 로프에 내려앉았다. 그 제비들을 많이 모아가다 바퀴벌레들을 잔뜩 먹어서 다음날 대부분 놓아주었다. 분명한 것은 제비들이 프리깃함 주위를 즐겁게 선회하였고 점차 사라졌다. 그때 참새들도

⁸ 베르쇼크(Vershok). 옛 러시아의 길이 단위로 4.445cm이다. 1.5베르쇼크면 6.6cm 정도가 된다.

⁹ 러시아어로 지네는 Stonozhka로 '100개의 다리'라는 뜻이다.

나타났다. 단정 위에 곡식 알갱이를 뿌려주었더니 참새들이 실컷 먹고는 날아갔다.

하지만 차고 세찬 바람이 불어오자 지네도 바퀴벌레도 다 사라졌다. 돛을 세 칸이나 줄였고, 오늘 3월 31일에는 네 번째 칸도 접어서 줄였다. 두 번째 돛에 조임 밧줄을 걸고 보조 세로돛을 설치했다. 북동쪽에서 찬바람이 불었다. 열대지방에서 벗어난 지 5일이 지나는데 갑자기 추위가 닥쳐오다니! 아니었다. 영상 10도였다. 바람도 잠잠해졌다. 다행이다!

우리는 나가사키에서 60마일 떨어진 거리에 있고, 나가사키 쪽으로 순풍이 불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그곳에 들를 생각이 없다. 먼저 해밀튼으로 가야 한다.

4월 4일. 마침내 4월 2일에 해밀튼에 도착했다. 스쿠너선은 그곳에 이미 와 있었다. 하지만 상하이로 보냈던 수송선은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 닻을 내리기 시작했을 때 나는 후갑판으로 나가서 해안을 보았다. 우리 수병들이 말하기를 항구는 매우 편하다고 했다. 하지만 해안이 거의 없었다. 자그마한 섬은 전체가 다 해보야 3마일 정도고, 절벽 투성이에 암석들이었다. 군데군데 보잘것없는 관목들이 있고, 나무들은 드물게 무리를 이루고 있다. “이건 전부 동백나무네요.” 스쿠너선의 선장인 코르사코프가 말했다. “수병들은 해안가에 만들어놓은 바나에서 동백나무를 엮어 증기욕을 하지요.”¹⁰ 우리들 중 몇몇은 바로 상륙했다.

¹⁰ 바나는 러시아식 증기탕을 말한다. 러시아에서는 잎이 달린 나뭇가지를 엮어 증기탕에서 자신의 몸을 두드린다. 보통 자작나무나 참나무를 엮어서 만들고, 동백나무는 흔치 않은 경우다.

나는 멀리서 섬을 보았는데 별로 매혹적이지 않았다. 그래서 섬에 가는 걸 서두르지 않았다. 자그마한 만의 생기 없는 바닷물 위 여기저기에 조선인의 농가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다. 보이는 것은 초가지붕뿐이고, 드물게 군데군데 주민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다. 모두들 마치 수의를 입은 것처럼 흰옷을 입고 있다. 마침내 우리는 극동에 속한 맨 마지막 민족을 보게 되었다.

조선은 정치적인 측면에서 독립국이라 부를 수 있다. 조선은 자신의 군주가 통치하고, 국가의 일을 스스로 결정하며, 자신의 언어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조선의 군주들은 왕위에 오를 때 중국 황제의 승인을 받는다. 이 승인 하나로도 조선의 중국에 대한 종속이 잘 나타난다. 그리고 중국에 대한 종속을 알 수 있는 또 다른 사실은 중국 황제에게 새해 축하를 하기 위해 매년 200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중국에 다녀온다는 것이다. 이것은 자기 집에 살고 있는 독립한 아들이 아버지의 집에 의존하는 것과 비슷해 보인다.

안타깝게도 조선의 내부 상황과 통치, 부와 생산물들, 주민들의 풍습과 관습에 대한 정보는 아직까지 많지 않다. 아바쿰 신부는 조선 왕이 중국 황제에게 승인을 받는 관습이 아직까지 신성하게 지켜지고 있다는 사실만 나에게 여러 번 이야기했다. 조선에서 보낸 사절들은 선물과 새로운 왕에 대한 승인 요청을 가지고 베이징에 온다. 황제는 통상적으로 승인해준다. 그리고 선물을 받고는 사절들에게 더 융숭히 선물을 내린다. 그렇지만 황제는 조선의 일에 관여하지는 않는다. 언젠가 조선 정부가 중국에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다. 조선의 해안에 도착한 유럽의 배들 - 아마도 영국 배인 것 같다 - 에게 조선 정부는 중국 정부가 서양 배들에게 한 행동을 그대로 따라서 떠날 것을 명령했다는 것이

다. 이 보고에 중국 황제는 조선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언명하라고 명령하였다. “황제는 그들의 일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니 그들이 원하는 대로 처리하도록 하라.”

또한 중국인들과 조선인들은 양국 간에 주민들이 거주하지 않는 지역을 일정부분 남겨두기로 합의를 했다는 것도 잘 알려져 있다. 이렇게 한 이유는 인접한 국가로 서로 만나는 것을 피하고 그와 동시에 양 국민 간의 불유쾌한 충돌이나 불화의 소지도 피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 단정이 프리깃함에서 해안으로 다가가고 있을 때 우리는 마을에서 많은 여자와 아이들이 몹시도 두려운 모습으로 산으로 도망쳐 달려가는 것을 보았다. 해안으로 내려가려 할 때 남자들이 무리를 지어 우리의 손과 옷 앞자락을 꼭 붙잡고는 우리들을 마을로 들여놓지 않으려고 애를 썼다. 그래서 그들에게 여자들은 안심해도 되며, 러시아인들은 단지 해안을 살피고 둘러보려고 내려온 것이라고 중국어로 글을 써 주었다. 그러자 조선인들은 다니는 것을 방해하지는 않았지만, 다만 우리들을 마을에서 멀리 떼어놓으려고는 하였다.

한 시간 뒤에 우리 일행들이 돌아왔는데 촌장으로 보이는 두 명의 노인을 데리고 왔다. 그들 뒤를 따라 조선 보트가 도착했는데 일본의 보트와 흡사하나 선미가 흠이 파여 있지는 않았다. 그 보트에는 서너 명의 노인과 맨발에 헝클어진 머리를 한 지저분한 평민들이 많이 타고 있었다. 그리고 평민이건 평민이 아니건 간에 모두들 흰색의 종이나 풀잎(Grass-Cloth)으로 만든 폭이 넓은 가운을 입었다. 그 가운 아래에는 속옷을 대신하여 다른 옷들을 입었다. 게다가 모두 가운과 똑같은 재질로 만든 훌륭한 바지를 입었다. 고위층 사람들은 옷이 희고 깨끗했고, 하층민들은 희지만 더러웠다. 많지는 않았지만 몇몇 사람들은 밝은 노

란색이나 하늘색 가운을 입었다.

그들이 신고 있는 샌들은 일본 것과 비슷했는데 어떤 이들은 갈대나 짚으로 만든 것을 신고고, 다른 이들은 종이로 만든 것을 신고다. 가장 놀라운 것은 모자 종류였다. 그들은 머리를 유구인들¹¹처럼 사방에서 위로 빗어 올려 하나로 묶었고, 그 위에 모자를 썼다. 이런 모자라니! 모자의 꼭대기는 너무 좁아서 하나로 묶은 머리채를 겨우 가릴 뿐인데 반해 챙은 마치 우산처럼 넓었다. 이 모자들은 갈대 같은 것으로 만들고, 마치 머리카락처럼 촘촘히 엮어져 있다. 그리고 실제로 머리카락과 비슷해 보이기도 한다. 더욱이 모자는 검은색이다. 그들이 왜 이런 모자를 쓰는지 추측하기 힘들었다. 그 모자들은 투명하고 내비쳐서 머리를 비와 햇빛, 먼지로부터 보호해주지 못한다. 게다가 여러 다른 형태와 종류의 모자들이 많이 있다. 피나무 껍질로 만든 것도 있고, 바다 식물로 만든 고깔모자도 있다.

나는 우리를 찾아온 손님들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누가 뭐라 하든 이들 중국인·일본인·조선인·유구인들은 한 가족의 자식들이다. 중국인은 손윗사람뻘이며 숫자도 많아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들이 닮았다는 것은 쉽게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말레이시아인을 처음 보았을 때 그들을 이 네 민족 중 하나에 포함시키지는 않을 것이다. 조선인들은 유구인들과 더 닮았다. 하지만 유구인들은 체구가 작는데 반해 조선인들은 반대로 체격이 매우 큰 종족이다. 조선인들은 수염을 기른다. 그들 수염의 대부분은 길고 뻗뻗해서 마치 말총같아 보인다. 어떤 이들은 수염이 뺨과 얼굴의 아랫부분 전체를 덮고 있다. 다른 이

¹¹ 유구인(琉球人). 일본 남쪽 오키나와 섬 사람을 말한다.

들은 반대로 아래턱에만 수염이 난다. 많은 사람들이 커다란 구리테 안경을 쓰고 있는데 끈으로 머리에 둘러매고 있다. 근시 때문에 쓰는 것이 아니라 아마도 눈 질환 때문에 쓰는 것같이 보였다. 사람들 속에서 나는 눈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이 많은 것을 발견했다.

1786년 에도에서 일본인 린시페이가 쓴 『삼국통람도설-조선, 유구, 예조(마쓰마야)』라는 제목의 책이 나왔다. 클라프포트가 어떻게 이 책을 구해서는 중국의 지리서들에서 내용을 보충하고 첨가하여 프랑스어로 번역하였다. 그런데 이 책에는 조선인들에 대해 언급하는 부분이 있다. “조선인들은 키가 크고 체격이 일본인이나 중국인, 그리고 다른 민족들보다 훨씬 단단하다. 조선인이 일본인보다 두 배 이상 먹는 것이 지적된다. 조선인들은 능청맞고 태만하며 고집이 세고 노력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손님들을 식탁에 앉히고 차와 흑빵, 건빵과 림주를 대접하였다. 그런 다음에 그들과 중국어로 생생한 필담을 시작했다. 그들은 눈이 붓을 쫓아갈 수가 없을 정도로 빠르게 썼다.

무엇보다 먼저 그들은 우리가 어떤 야만인들인지 물었다. 북쪽 야만인인지 남쪽 야만인인지? 우리는 그들에게 글을 쓰기를 그들이 우리에게 닭과 채소, 물고기를 가져오면 우리가 그것에 대해 돈을 치르거나 아니면 림주나 천, 기타 물건들로 값을 쳐주겠다고 했다. 한 노인이 그 쪽지를 들고 입에 힘을 주어 수탉처럼 볼이 불룩하게 하더니 희극적인 근엄함과 억양을 넣어 강조를 해가면서 우리가 쓴 것을 노래 부르듯 말 끝을 길게 뽑으면서 낭독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우리나라 거지들이 부르는 나사로에 대한 고른 노랫소리를 어느 정도 연상시켰다. 쪽지를 다 읽고 나서 노인은 중국어로 답을 썼다. ‘존경하는 닭은 우리에게 없습

니다.’ 하지만 이진 거짓말이다. 우리 일행은 닭을 보았다.

나머지 사람들은 그러는 동안 빵을 먹고 차를 마셨다. 한 사람은 버터에 손가락을 넣어보기도 했고, 다른 사람은 빵조각을 잘라 먹고는 남은 조각을 우리들 중 누군가의 입속에 집어넣었다. 세 번째 사람은 아무것도 타지 않은 순수한 림주를 한잔 또 한잔 연달아 두 잔을 마셨는데도 얼굴을 찡그리지 않았다. 나머지 사람들은 우리의 옷과 식탁보, 장화를 만졌고, 보건대 그들에게 너무 마음에 든 나사지를 손으로 쓰다듬었다. 그들은 특히 우리의 하얀 피부에 매우 관심을 보였다. 그들은 우리 손을 잡고는 거기서 눈을 떼지 못하였다. 비록 그들 자신의 손도 조금 거무스름하고 심지어 깨끗한데도 말이다. 즉 상층 계급의 손이 그렇다는 말이다. 평범한 노동하는 민중의 손은 전혀 다른 문제다. 어디 서든 마찬가지지만 말이다.

노인에게 다시 한 번 쓰기를 우리는 식료품을 공짜로 얻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리이러한 물건으로 값을 치르겠다고 하였다. 그는 다시 한 번 이 물건들의 이름을 다 읽어보고는 우리를 잠깐 쳐다본 다음 ‘푸지’¹²라고 말했다. 이게 무얼 의미하는 것인가. 안 된다는 건지, 하기 싫다는 건지? 그에게 그 말을 중국어로 써주기를 청했다. 그는 썼는데, “나는 모른다.”라는 뜻이었다. 그가 이해를 못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그에게 옥양목 조각과 림주, 건빵을 보여주었으나, 그는 ‘푸지, 푸지’만 되풀이했다.

우리는 얼굴이 엷고 민첩한 다른 조선인에게 물어보았다. 그는 놀라

¹² 부지(不知)가 곤차로프에게는 ‘푸지’로 들린 듯하다. 원문에는 Puddi로 표기되어 있다.

은 속도로 중국어를 쓰던 바로 그 사람이다. 그는 쪽지를 다 읽었다. 그리고 쪽지에 천, 빵, 보드카를 의미하는 단어들 모두를 손가락으로 세어보더니 ‘푸지’라고 말했다.

세 번째 사람에게 쪽지를 건네주었다. “푸지 푸지.” 생각에 깊이 잠겨 그도 그 말만 되풀이했다. 아바쿰 신부가 새로운 설명을 하기 시작했다. 노인은 오랫동안 주의 깊게 듣고 있다가 마치 무슨 일인지 알았다는 듯이 갑자기 활기차게 손을 흔들기 시작했다. “마침내 알아들었구만.” 우리는 기뻐했다. 노인은 아바쿰 신부의 옷소매를 잡고 붓을 쥐더니 다시 ‘푸지’라고 썼다. “아마도 주기를 원치 않는 것 같아.” 우리는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더 이상 그들을 성가시게 하지 않았다.

조선인들은 대체로 태도나 손님 대접에서 일본인이나 유구인에 비해 거친 편이다. 비록 그들 모두 중국 문명이라는 하나의 문명에 속해 있긴 하지만 말이다. 그렇지만 우리는 조선에서 아직 상층 계급 사람을 만나지 못했다. 이 민족들의 생활양식에 대해 말하는 참에 잠깐 중국의 집과 나머지 세 민족의 집 내부 장식의 차이점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중국인들은 집에 가구와 탁자들, 안락의자·침대·결상·긴 의자 등이 있는 반면 나머지 세 민족들은 바닥에 앉고 바닥에서 식사한다. 이 때문에 식탁의 역할을 하는 바닥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이들 민족은 방에 들어갈 때 신발을 벗는다. 하지만 중국인들은 그러지 않는다.

조선인들은 선실에서 구세주의 성상을 보았다. 그리고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라는 그들의 질문에 힘들게 대답을 해주자 그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성상을 향해 몸을 깊숙이 숙여 경건하게 절을 하였다. 그 사이에 전함에 100명이 넘는 조선인들이 모여들어서 더 이상 전함에 들

어오지 못하도록 해야만 했다. 그들은 오랫동안 있다가 마침내 떠났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하였다. 하지만 한번은 해안에 내려가서 내 발로 조선의 땅을 밟아볼 필요는 있었다. 어제는 우리 일행들 예닐곱 명이 보트를 타고 마을들 중 한군데로 출발하였다. 그들 중 두 명은 새를 쏘기 위해 총을 가지고 있었고, 세 번째 사람은 권총을 두 정 소지하였다. 해안가에서 밀집한 군중들이 일행을 마을에서 떨어지게 하려고 애쓰면서 우리 주위를 압박해왔다. 하지만 우리의 목적은 단지 마을을 통과해서 들판과 구릉으로 가려는 것이라는 걸 알려주고는 그들을 쉽게 비켜서게 하였다. 우리와 더 이상 할 일이 없다는 걸 알자 그들은 우리가 마을 내키는 대로 돌아다니게 하는 것보다는 우리 길안내를 자원해서 해주는 편을 택했다. 우리는 여전히 마을 안으로 들어가보고 싶어 했지만 그들은 마을 주변을 따라 우리를 데리고 다녔다. 하지만 우리 자신도 폭이 두 걸음 정도밖에 안 되는 길로 깊이 들어서고 싶은 마음이 금방 사라졌다.

우리는 시멘트라고는 하나도 없이 고르지 못한 돌들로 거칠게 쌓은 두 담장 사이를 걸어갔다. 담장 너머로는 초가지붕만 보였고 더 이상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이 담장에서도 유구인들이 담 쌓는 것과 비교하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그곳에는 면밀함, 인내, 질서와 솜씨가 있고, 여기는 게으름, 무성의와 솜씨 부족이 있다. 실제로 조선인들은 '노력'을 싫어하는 것이 틀림없다. 우리가 담장 너머를 들여다보려거나 대문을 들어서려고 하면 조선인들은 얼마나 소동을 일으키던지! 그들은 심지어 우리 일행의 옷 앞깃을 꼭 잡고는 못 가게 하거나 가끔은 매우 거칠게 밀기도 하였다. 하지만 그 보답으로 그들의 팔을 때렸더니 곧바로 굴복하였다. 물고 싶어서 어쩔 줄 몰라 길가는 사람 뒤를 따라가지

만 물지 못하는 개들과 비슷했다.

그들은 우리가 좁다란 골목길을 지나서 들판으로 나가 언덕을 오르
기 시작하자 진정하였다. 마을 사람들 대부분이 우리 뒤를 따라왔다.
마을을 벗어나자 그들은 매우 친절해져서 편리한 오솔길을 가르쳐주
기도 하고 우리에게 꽃을 꺾어 주기도 했으며 좋은 풍경을 보여주기도
했다.

우리는 밀과 보리가 파종된 들판을 따라 걸었다. 군데군데 매우 적
긴 했지만 벼와 동백나무 그루터기들이 보였다. 그것 말고는 전부 절벽
과 바위들이었다. 모든 것이 벌거벗었고, 궁핍하고 서글프게 보였다.
주민들이 우리에게 식료품을 줄 수 없었던 것은 당연하였다. 그들 자신
이 굶어 죽지 않을 정도의 식량을 겨우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밀물에
밀려온 미역을 담궈서 먹고 조개도 먹는다. 오늘은 우리에게 물고기 스
무 마리 정도와 물을 네 통 가지고 왔다. 그리고 노인이 품속에서 말린
해삼(바다 연체동물의 일종으로 후이 있다)을 짠 종이 꾸러미를 꺼냈다. 그
에게 푸른 면직물과 눈이 아픈 아들을 위해 물약을 선물했다.

섬의 북쪽을 따라 산책했다. 그곳에는 마치 두 개의 호수 같은 아름
다운 두 개의 만이 있는데, 만 주위를 나무들이 둘러싸고 있었다. 우리
는 산책을 마치고 마을로 돌아왔다. 우리 사냥꾼들은 도중에 세 마린가
네 마리의 새들을 쏘아 죽였다. 마을 해안가에는 돛자리가 깔려 있고,
그 위에 우리 전함에 왔던 두 노인이 앉아 있는데, 우리에게 앉으라고
권했다. 마을 사람들 거의 모두가 희귀한 손님을 보기 위해서 뛰어나
왔다.

그들은 또다시 우리를 유심히 살펴보면서 옷과 머리카락, 손의 피부
를 만졌다. 나에게서는 장화를 벗겨서 살펴보았다. 그런 다음에 양말,

우산, 군모를 벗겨 살폈다. 대화는 아바쿰 신부와 고쉬케비치가 중국어로 필담으로 진행하였다. “당신들은 몇 살입니까?” 우리들 중 누군가에게 그들이 물었다. “서른에서 마흔 정도입니다.” 그들에게 대답했다. “용서하십시오.” 그들이 말을 하기 시작했다. “우리는 당신들이 예순이나 일흔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지극히 동양적인 칭찬이다. “당신은 나이가 여든 살 정도인 것이 틀림없습니다. 당신은 나에게 아버지나 할아버지뻘입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아첨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들은 지나가는 말로 우리가 오래 있을 것인지 물어보았다. “만일 오래 있다면, 우리는 국법에 따라서 정부의 이름으로 당신들에게 식사를 대접해야 합니다.” 일본인들과 완전히 같았다. 하지만 그들에게 대답해줄기를 이틀 정도 뒤에 우리는 떠날 것이며 따라서 그들의 대접을 받을 수가 없다고 했다. 모인 사람들 속에서 나는 손에 염주를 들고 있는 한 조선인을 보았다. 아마 불교 승려인 것 같았다. 머리에는 피나무껍질로 만든 모자를 쓰고 있었다.

4월 5일, 어제는 조금 불쾌한 일이 벌어졌다. 우리 일행 중 3명이 해안으로 출발하였다. 조선인 무리가 그들을 에워싸고는 해안에서 더 이상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다. 그들은 우리 일행을 위협하고 심지어 구덩이에 밀어넣으려고까지 했다. 우리 일행은 프리깃함으로 돌아왔고 무장한 수병들을 동반해서 다시 해안으로 갔다. 엄격한 조치를 취해야 한 했다. 오늘 아침 노인이 일찍 와서 매우 긴 사죄의 글을 썼다. 그가 말하기를, 발생한 사태를 매우 슬프게 생각하며 우리가 죄인들을 지적해 주지 못해서 그들을 엄하게 처벌할 수 없는 것을 안타까워했다. 그는 부탁하기를 화를 내지 말아달라고 했고 조선인들은 ‘사해지간’에서, 즉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잘 모른다’며 그 일을 해명하려 하

였다. 노인과 그와 함께 온 동료들에게 차와 보드카, 건빵을 대접하였다. 그리고 그들과 영원히 작별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오랫동안 작별인사를 나누었다.

실지로 ‘사해지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들이 알 길이 없다. 유럽인들은 조선을 거의 방문하지 않는다. 여기를 마지막으로 방문한 사람은 벨체로 아마도 1842년일 것이다. 그는 용감한 여행자이자 재치 있는 작가로 자신의 여행들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다. 그는 두 번이나 세계일주를 했고, 지금은 극지방을 여행 중이다. 그의 여행들은 모험의 연속으로 하나하나가 흥미롭다. 그에게 일어나지 않은 일이 무엇이겠는가? 누구도 것처럼 폭풍을 견뎌낸 사람은 없다. 폭풍우를 만나 홍콩에서는 돛대를 잘라내야만 했고, 보르네오 어딘가에서는 배가 옆으로 기울어졌는데 3주 만에 외부의 도움을 받지 않고 바로 세웠다. 그는 진정한 바다 늑대다. 그것 말고도 그는 자신의 모험을 매우 재미있게 이야기한다. 그는 자신의 프리깃함으로 가보지 않은 곳이 없다. 조선에도 들러서 해밀튼 섬을 기술했으며, 이웃한 큰 섬인 켈파트 섬¹³에도 갔었다. 그의 말에 따르면 그곳에는 도시들과 요새들이 있으며 인구도 꽤 많다고 한다. 우리 주위의 수평선을 따라 곳곳에 섬들이 흩어져 있다. 조선의 군도는 헤아릴 수 없이 많다. 조선은 아직도 항해자들과 상인들·선교사들·학자들에게 광활한 미개척지를 제공한다.

우리는 마침내 극동의 거의 모든 지역을 구성하고 있는 네 민족을 보게 되었다. 한 민족과는 매일 중요한 왕래를 가졌으며, 다른 민족과는 피상적으로나마 알게 되었고, 세 번째 민족에게는 손님으로 가 있었

¹³ 켈파트(Quelpart), 제주도의 유럽식 명칭이다.

고 네 번째 민족은 지나는 길에 둘러보았다. 이 네 민족 모두 하나의 가계에 속한다. 만일 이 네 민족을 하나의 가계로 묶을 수 있는 것이 네 민족이 하나의 인종적 기원을 가진 것이 아니라면 - 몇몇 사람은 일본인이 아이누인에게서 발생했다고 주장한다 - 교육이라는 두 번째 발생으로, 또 문화·풍습·관습, 또 부분적으로 언어·종교·의복 같은 것으로 하나의 가계로 묶을 수 있다.

이 네 민족들 모두는 하나의 공통된 용모·성격·사고방식 등 한마디로 말하면 주요한 특징들에서 보면 공통되는 정신적 삶을 형성하고 있다. 하지만 한 민족을 다른 민족과 구별되게 하는 수많은 미묘한 차이들이 있기도 하다. 하지만 그들의 용모는, 또 그들의 그 삶이란! 카피르족,¹⁴ 흑인들, 그리고 인도양의 섬들에 거주하는 말라이 사람들을 보는 것은 나에게 큰 즐거움이었다. 하지만 중국 문명권에서 중국적 삶의 공통된 흐름을 살펴보는 것은 나에게 깊은 우울을 불러일으켰다. 나는 내가 가까이 하게 된 이 지역 사람들을 자세히 관찰하고, 이 지역에 있었고 이 민족들을 아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카피르족, 흑인들, 말라이 사람들은 파종을 기다리는 미개척지다. 중국인과 그의 친척인 일본인들은 척박하고 형편없이 황폐해진 밭이다. 중국인들은 이 가계에서 만형이다. 그들은 다른 어린 아우들에게 문명을 나누어주었다. 그런데 이 문명이 대체 어떤 것인지, 그 문명이 어디서 멈추어 섰는지, 어떻게 노쇠하게 되어 삶과 유리되게 되었는지, 그리고 일본열도와

14 카피르(Kaffir)족, 남아프리카의 반투어를 쓰는 원주민의 총칭. 16세기부터 포르투갈인들이 남아프리카의 흑인 주민을 가리키는 말로 썼으나 점차 인종비하적인 용어가 되었다.

아시아 대륙 남동지역의 거대한 인구의 모든 힘을 아직까지 어떻게 마비시키고 있는지 여러분들은 아는지요.

이 척박해진 토양을 무엇으로 다시 살릴 수가 있을까? 이 썩어버린 거대한 덩어리를 다시금 발효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새로운 힘들이 필요한 것인가? 조그만 유럽 대륙에 오래된 과즙이 지나치게 발효되어 시어졌을 때 우리 대륙에 얼마나 다양한 요소들이 모여들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새로운 혈관들이 열려져서, 그곳으로 얼마나 많은 신선하고 젊은 피가 유입되었는지 기억하시는가? 지금 보스포러스 해협에서 아라비아 만에 이르기까지 잠들어 있는 쇠약해진 동양을 흔들어 깨우기 위해 우리 가까운 곳에서 어떤 일들이 맹렬히 진행되고 있는지 보기 바란다. 이곳의 막대한 인구 앞에 이 일은 무엇이겠는가? 하지만 일은 시작되었다. 그렇지만 어렵고 아직 애 쓴 보람도 나타나지 않는다. 그 일은 오래된 썩은 뿌리들과 잡초를 뽑아내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중국은 이때까지 살아왔던 방식으로는 더 이상 살아갈 수가 없다. 중국은 자신의 쇠약이라는 중압에 떨어져서 나가지도 움직이지도 못하고 단지 경련하듯 숨을 쉬고 있을 뿐이다. 단일성과 전체성이 없고, 그러한 거대한 전체를 움직이는 데 필수적인 유기적인 국가적 생명을 위한 여건들도 없다. 정치적 원칙은 국민들을 분리되지 않는 하나의 몸체로 공고히 하지 못하고, 종교는 그 몸체를 내부에서 따뜻하게 해주지 못한다.

중국인들에게는 국가라는 조직을 결합 없이 움직이는 데 필수적인 세 가지 요소인 민족성, 애국심 그리고 종교가 없다. 중국인은 있으나 중국 민족은 없다. 나에게 러시아의 한 중국 학자가 말해준 바에 따르면 심지어 그들의 언어에는 조국이라는 단어조차 없다.

브라만교의 인도나 이교의 이집트를 기억한다면 이런 것들이 새로운 것은 전혀 아니지만 그래도 이 모든 것이 이상하기는 하다. 인도와 이집트는 노쇠하였고 마치 피폐한 들판에 종자를 바꾸어 뿌리듯이 다른 민족들에게서 힘과 생명력을 빌려와야 했다. 여러분들은 인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고 또 지금 일어나고 있는지 알 것이다. 새로운 부흥을 위해 어떤 새로운 씨를 뿌려서 얼마나 힘들게 이 들판이 다시 살아났는지 말이다. 이집트도 마찬가지다. 중국은 이 둘보다 더 노쇠하였으며 따라서 스스로 다시 살아날 희망은 더 적다.

중국인들은 많지 않은 도덕적 진리들 몇 개, 그리고 그마저 삶의 원칙들이 발전할 때 곧 빈약해진 도덕적 진리들 몇 개로 삶에 내보내졌다. 중국인들은 유년기에 겨우 접어들 수 있었으나 곧바로 노쇠해버렸다. 중국인들은 개인적·가족적 원칙들을 발전시키고 뿌리내리게 하는 것까지는 할 수 있었으나 사회적·국가적 삶까지 성숙하는 데는 이르지 못하였다. 아니면 언젠가 그 단계까지 성숙하였으나 국가적이거나 다른 어떤 형태의 중앙집권화도 불가능하게 만들어버린 무한정 증가하는 인구 속에 아마도 사라져버렸을 것이다.

가족 다음으로 중국인들은 자신의 개인적인 일에 몰두한다. “신은 너무 높고, 황제는 너무 멀리 있다.” 라는 러시아 속담은 어느 곳에서도 적용되지 않는다. 중국에서는 이 속담이 필요가 없다. 황제가 매년 어느 날 직접 자기 손으로 땅을 갈기도 하고 학자들을 시험보기도 하기 때문이다. 중국인들은 하지만 이것이 농담이며 정부와 국민 사이에는 심연이 놓여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법률과 진리는 많고, 그것을 집행하는 사람들은 더 많다. 하지만 이것도 또한 정부와 국민들이 의식적으로 연기하는 농담이며 희극이다. 법률은 오래전에 죽었고 그 자리

를 법에서 벗어나는 데에 지불하는 요금표가 하나의 전체적인 체계로 대신하고 있을 정도로 실생활에서 유리되었다. 그래서 중국인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한다. 만일 그 중국인이 관리라면 그는 하급관리들에게 뇌물을 받고 자신도 또 고위관리에게 뇌물을 준다. 만일 그가 군인이라면 그는 봉급을 받고도 아무 일을 하지 않으며 전쟁터에서는 도망친다. 그는 전투를 하기 위해 복무한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자신의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복무한다고 생각한다. 상인은 자신의 가게만 알고, 지주는 땅과 땅에서 난 자신의 곡식을 팔아줄 사람만 안다. 그들 모두는 국가의 전체성이나 안녕에 대한 생각은 전혀 없이 행동한다. 그래서 중국인들에게는 조합이나 어떠한 사회기관도 없고, 그래서 중국인들은 이민을 가려 한다. 지방은 서로 간에 잘 연결되어 있지 않다. 강과 몇 개의 운하를 제외하면 도로는 거의 없다. 상품을 운반해야 될 때에는 상인이 사람들을 고용해서 대충 되는대로 좁은 길을 만든다. 이로 말미암아 중국인들은 모든 것에 이미 무관심하다. 얼굴에는 무관심이나 일상의 자질구레한 걱정들만 있을 뿐이다. 그리고 무엇에 대해 걱정할 것인가? 앞으로 나갈 필요가 없다.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으니 …….

중국인들은 황제에게서보다 신에게서 더 멀리 떨어져 있다. 고대 중국 종교를 신봉하는 사람들은 하늘의 신들에게 기도드릴 수가 없었다. 그것은 금지되어 있다. 황제가 모두를 위해 기도드린다. 그리고 불교 신자들은 기도하기 위해 승려를 고용한다. 그리고는 스스로는 절에 들르지 않는다.

학문과 예술에도 그러한 지엽성과 부동성이 나타나고 있다. 학문은 아득한 옛날부터 그대로다. 진리가 한번 기록되었고 습득되었다. 그리고 한 번도 바뀌지 않았다. 학자들은 말하기 힘들어졌고, 유아적 상태

로 떨어져서 학자들 없이 민중의 건강한 판단력으로 살아가는 보통사람들에게 웃음거리가 되어버렸다. 예술가들은 쓸데없는 일에 몰두하고 있다. 너무나 견과류 열매 껍질을 파서 자신의 정원·정자·배들을 깎아내어 만들고, 마치 바늘처럼 뾰족한 붓으로 꽃들과 여러 색깔의 옷들을 그리고 있다. 그것들은 500년 전에도 그랬던 것들이다. 다른 본보기들은 그 어디에서도 빌려올 데가 없다. 자신들의 모든 원천들은 고갈되었고, 삶은 마치 단조롭고 조용하게 한 방울씩 흘러내리는 계단식 폭포와 닮았다. 그 폭포의 흘러내리는 물 아래서는 활력이 생기기보다는 줄음이 온다.

하지만 나는 유럽과 중국 사이에 있는 좁은 오솔길을 따라 거닐면서 두 손이 서로 만나는 것을 본다. 한 손은 장님의 손으로 눈이 보이는 사람이 그를 향해 내민 손을 잡으려 찾고 있다. 나는 유럽의 집들과 중국의 오막살이 사이를 거닐었고, 유럽의 선박과 중국의 정크선 사이를, 기독교 교회들과 암자들 사이를 거닐었다. — 일이 맹렬히 진행되고 있다. 어떤 배들은 신약성경 인쇄본들과 중국어로 번역된 과학 교재를 가져오고 있고, 다른 배들은 가장 투박한 것부터 가장 세련된 것까지 모든 종류의 독을 실어온다. 나는 총성을 들었다. 양측에서 독을 교환하는 것이다. 이 모든 것들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 어떤 것이 먼저 뿌리를 내릴까, 구원일까 독일까. 알 수가 없다. 하지만 어찌되었든 간에 개혁은 시작되었다. 무장봉기자들은 오래된 합법적 왕조를 되살리기 위해 이미 구름처럼 몰려갔고, 스스로를 기독교인이라 불렀다. 물론 매우 의심스러운 절충주의적 기독교인들이긴 하다.¹⁵ 하지만 마침내 그들

¹⁵ 무장봉기자를 언급한 부분은 아편전쟁 직후 일어났던 태평천국의 난을 가리킨

은 이해한 것이다. 그들의 성공은 기독교 문명의 깃발 아래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말이다. 그리고 이것은 많은 것을 의미한다. 그들은 기독교를 동에서도 서에서도 가져왔다. 가톨릭 수도사에게서도, 개신교도에게서도, 아시아 대륙을 힘들게 뚫고 나간 방랑자들에게서도 기독교를 받아들였다.

일본인들은 좀 더 세련되고 발전된 민족인 것 같다. 그들의 인구가 중국인보다 10배 적다는 것은 이상할 것이 없다. 게다가 일본인들은 자신의 섬에서 고립되어 있어서 정부 권력은 국가를 조화롭게 통치하는데 별반 어려움을 느끼지 않았다. 그곳의 심사숙고해서 정교하게 만들어진 국가적 삶의 체제는 외부의 영향이 없으면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모든 것이 이 체제에 종속되어 있다. 일본의 최고 권력도 또한 이 체제에 종속되어 있다. 만일 체제가 무너지기 시작한다면 최고 권력이 가장 먼저 넘어갈 것이다. 중국인들은 유아기에서 노쇠해버린 자신의 문명과 그와 똑같은 소외체제로 일본인들과 조선인들, 유구인들을 감염시켰으나 대륙에 사는 그 자신들은 그 체제에서 먼저 빠져나왔다. 일본인들은 중국인들보다 성장할 가능성이 더 크다. 만일 그들의 체제가 무너지면 그들은 빠르게 인간답게 될 것이다. 그리고 지금 얼마나 많은 성공의 담보물들이 있는가! 젊은이들은 그들에게 모든 것들이 너무 발효되어 있고 그래서 외부로부터의 새로운 수혈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다. 태평천국의 난을 일으킨 홍수전은 기독교 입문서인 권세양언(勸世良言)을 읽고 상제교를 만들었는데 이는 구약성서의 천부 여호와의 관념과 중국의 전통적인 대동사상(大同思想)이 합해진 것이다.

일본인들은 중국인들과 공통된 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일본인들 또한 이기주의자라는 것이다. 하지만 다른 시각에서 보면 한 민족에게는 국가적 원칙, 중앙집권화된 최고 권력에 대한 의식이 없는 반면, 다른 민족에게는 반대로 국가적 원칙, 최고 권력에 대한 의식이 가장 높은 곳에 자리 잡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공포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들의 이러한 의식은 공공의 행복을 촉진시키려는 자유로운 갈망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공의 행복에 대한 걱정을 스스로 짊어지고 있는 권력에 대한 사랑과 감사의 감정에서 유발된 것도 아니다. 그들은 그냥 두려운 것이다. 일본인은 항상 무언가를 두려워한다. 자신이 저지른 실수이든 아니면 남들로부터의 중상이든지. 그리고 실수와 중상 뒤에 따라오는 피할 수 없는 처벌을 두려워한다. 일본인은 정부체제가 틀림없이 작동되고 있으며, 자신들을 감시하고, 엄격하게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리고 그들은 처벌을 피해 도망갈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다. 중국인들은 이런 것에 대해 별로 걱정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이런 체제가 이미 오래전에 공공의 행복에 대한 무관심과 이기주의로 인해 파괴되었기 때문이다. 중국에서는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내가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누구의 아래에 있는 사람은 자신의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 선물을 받고, 그 사람은 또한 자신의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 받는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한다.

유구인들에 대해서 말하자면 자신들의 가운을 벗어던지고, 대나무 지팡이와 부채를 총과 칼로 바꾸기 위해서는, 그리고 다른 모든 이들과 같게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15년이나 20년이면 충분하다. 유구인들은 인구가 적고, 약하다. 그들이 아직도 두려워하고 있는 일본에게서 떨어져

나오기만 한다면, 샌드위치 제도가 변화했던 것처럼 유구인들도 모든 것이 빠르게 변화할 것이다.

중국에 관해 읽고 들은 것을 떠올리면서 위에 말한 민족들의 생활을 유심히 살펴보고 있을 때 이런 생각들이 내 머리에 떠올랐다! 아마도 중국 학자들, 특히 중국 애호가들은 이런 생각의 많은 부분을 반박할 것이다. 하지만 나는 내가 말한 것들을 반드시 진실이라고 하지는 않겠다. 나에게서는 그렇게 보였다. 것이다.

내일은 닻을 올리고 일주일 예정으로 나가사키에 간다. 그다음 조선 해안을 지나 사할린 쪽으로 가서 그리고 더 멀리 우리의 영토로 들어갈 것이다. 지금 우리 영토로 가기에는 이르다. 거기에는 아직 얼어 있다. 심지어 여기 조선의 남쪽 해안에서도 위도 34도 아래에서는 마치 우리 페테르부르크의 이맘때처럼 춥다. 그렇지만 서쪽에서는 같은 위도에서, 예를 들면 마테이라 섬에서는 작년 1월에 더웠다.

4월 2일에 우리 수송선이 해밀턴 섬에 도착하여 우리와 하루를 함께 보냈다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었다. 유럽에서의 소식들은 우리가 마닐라에서 들었던 것과 똑같은 것들이었고, 대신 상하이에서의 새로운 소식들이 많았다. 나는 유럽인들이 개입하지 않고는 일이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되었다. 타오타이의 군대가 소동을 일으킨 것이다. 이 군대는 규율이라고는 없는 망나니들 무리로 군대라기보다는 도적들에 가까울 것이다. 상하이에서 밤에 다니기가 안전하지 않게 되었다. 병영의 군인들이 무리지어 유럽인 거주지역으로 몰려와서는 지나가는 행인들을 공격하였다. 그러던 와중에 그들은 밤에 부인과 함께 산책하던 한 영국인을 공격하였다. 그들은 부인을 병영으로 끌고 갔다. 영국인은 부인을 지키려다 열린 군데나 부

상을 입었다. 그중 한 곳은 매우 치명적인 부상이었다. 다른 유럽인들이 때마침 그를 도우러 와서 몹쓸 놈들을 쫓아냈다. 이 일은 모든 영국인과 선원들, 젊은 사무원들을 일어나게 만들었다. 그들은 라이플과 피스톨로 무장하고, 심지어 대포 1문도 가지고 병영으로 가서 그곳에 몇 발의 포탄을 쏘아 많은 사람들을 죽였다.

그런 일이 있는 다음 유럽의 영사들은, 미국 영사도 마찬가지로, 타오타이에게 그의 병영을 철수해서 다른 쪽으로 옮기라고 통지하였다. 지금은 포위된 도시 주변이나 유럽인 거주지역 주변은 모두 깨끗하다. 하지만 유럽인들은 이미 자신들이 안전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무리를 짓거나 무장을 하지 않고는 다니지 않는다. 상인들은 사무실에서 책상에 앉아 있는데, 근처에는 장탄된 리볼버 권총이 놓여 있다. 이 모든 일들이 어떻게 끝날지는 신만이 아실 것이다.

오늘 닻을 올리려고 했지만 바람이 역풍이었다. 지금은 수난중간이어서 우리는 육식을 피하고 있다.

다음 날 4월 7일 오후 3시에 닻을 걷어올렸다. 9일 1시가 넘어 나가사키 정박지에 닻을 내렸다. 나가사키까지의 이동은 마치 강에서 배가 가듯 훌륭했고 정숙했다. 일본인들은 우리가 그렇게 빨리 도착한 것을 믿으려 하지 않았다. 하지만 거기까지는 다 해봐야 180마일밖에 되지 않는다.

오퍼바니오스 오이-사브로스케가 우리 모두를 다시 보게 되자 얼마간은 기뻐서 또 얼마간은 우둔해서 껄껄 웃기 시작했다. 기치베는 우리에게 포진지에 보트로 접근하지 말아달라는 나가사키 영주의 부탁을 전하면서 예전처럼 무릎을 굽혀 인사하였고, 신음소리를 내었으며 발작적인 웃음으로 얼굴이 붉어졌다. 그는 영주가 혹시 우리에게 상부로

부터 받은 뭔가를 알려줄 게 없냐는 우리의 질문에 또한 예전과 마찬가지로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에도에서 …… 대답을 …… 받지 못했습니다(nit erhalten).”

다른 역관인 에이노스케는 에도에 있었고, 그곳에서 ‘미합중국 사람들’을 돌보고 있었다. 우리는 ‘이 사람들’이 평화적으로 회담을 진행하고 있고, 우리와 마찬가지로 그들도 보트에 태워 이곳저곳 데리고 다니지만 해안에 내려가게 하지는 않는다는 등등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그들의 배 한 척이 암초에 걸려 정박지에서 가라앉을 뻔했다는 것도 알았다. 사람들은 이미 일본 보트에 옮겨탔고, 뚫어진 구멍은 메웠다. 미국 인들은 에도에 들어가지는 못했고, 에도의 만에만 있었다. 그 만은 물이 얕았다. 그리고 에도까지 배로 30베르스타 지점까지 접근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았다.

그런데 나는 마닐라에서 에도의 집들과 절을 그린 그림들을 영국 신문인가 미국 신문인가에서 본 적이 있다. 그 그림들은 페리 함대의 장교인가가 베껴 그린 것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지볼트의 그림들을 베낀 것 이라고 덧붙이는 걸 잊고 쓰지 않았다. 일본에서 미국인들이 거둔 성공이나 통상조약에 대해 신문들이 얼마나 떠들어댔는지는 말을 하지 않겠다. 미국인들에게 세 개의 항구를 개방하였다는 건 아마도, 아니 사실일 것이다. 물과 석탄, 식료품의 보급을 위해서 항구를 개방하였다. 하지만 진정한 제대로 된 통상까지는 아직 한 발짝도 나가지 못했다. 만일 우리가 일본에서의 성공을 목청껏 외치고 그 성공을 신문에 실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이미 오래전부터 일본에서 교역을 하고 있었을 것이다.

식료품은 네덜란드인들을 통하지 않고 영주가 직접 조달해주기로

했는데 게다가 돈을 받지 않으려 했다. 이 모든 행동은 식료품을 공급해주는 것이 될 수 있는 한 교역처럼 보이지 않게 하려는 것이었다. 일본인은 자신들이 처음에 저지른 실책을 시정해보려고 무척 노력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 사람은 우리들에게 반하는 조치들을 취함으로써 자신의 상급자들에게 잘 보이고 싶어 했다. 그 사람이란 두 번째 영주 미즈노 치구노노 카미 사마를 말한다. 그는 첫 번째 영주 오사와 분고노 카미 사마의 보호 아래 아직까지 영주로 일을 하고 있다. 첫 번째 영주는 전권대사들과 함께 에도로 떠났다. 그리고 이 두 번째 영주는 혼자서도 사태를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했다. 하지만 그에게 우리는 예전처럼 네덜란드인들을 통해서 돈을 지불하고 구입하는 식으로 식료품을 받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만일 일본인들에게 직접 식료품을 받을 경우에는 그들이 매번 식료품값에 해당하는 선물을 받는 조건에서만 하겠다고 통고했다.

이런 방법은 영주를 몹시 놀라게 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일본인들과 직접 현물 교역을 하는 것과 흡사하기 때문이다. 해볼 것이 더 없자, 각하께서는, 즉 영주는 이렇게 말을 전하라고 사람을 보냈다. 역관들이 혼동을 한 것 같다. - 이것은 그들이 어떤 조치를 시도해보았는데 성공적이지 못했을 때 흔히 하는 핑계다 - 본인은 예전처럼 네덜란드인들을 통해 식료품을 조달하는 데 동의하고 있으며, 단지 얼마간의 식료품을 선물로 받아달라고 부탁한 것이다. 그 식료품에 대해서는 답례 선물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 그는 어제 일본 보트들이 우리 단정이 돌아다니는 것을 방해하려고 우리 단정들을 밀어낸 것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우리 단정들을 할 수 있는 데까지 밀어내보았다. 마침내 쥘론느이가 자신의 단정으로 일본 보트들 중간으로 돌진

해서 일본 보트 한 척에서 뱃머리가 떨어져나갔다. 그것을 프리깃함으로 가져왔다.

밤 12시가 넘는 시간에 오이-사브로스케가 그 일을 해명하기 위해 왔다.

나가사키가 이번에는 어쩐지 슬프게 보였다. 언덕의 녹음은 희미했고, 나무들의 녹음은 빈약했다. 게다가 추웠다. 4월이 북쪽에 있는 우리나라의 이맘때보다 더 춥다는 건 중요치 않다. 우리나라에서는 가벼운 외투를 입고 다니기 시작할 때인데, 여기는 아직도 겨울 공기다. 기치베가 어제 와서 말하기를 한 달이 지나서야 따뜻해질 것이라고 한다.

오늘은 4월 11일, 부활절이다. 관례에 따라 예배를 보았다. 3척의 배 모두에서 사람들이 와서 오전예배에 참석하였다. 예배를 마친 후 재계 후의 첫 육식을 하였다. 나가사키에서 가져온 달걀에 정성들여 그러서 색깔을 입혔으며, 부활절 인사를 서로 나누었다. 식탁에 닭다리·로스 트비프·쿨리치¹⁶가 나왔다. 축제는 역시 축제다. 육지와 똑같았다!

4월 12일. 식료품을 엄청나게 날라왔다. 오늘 오이-사브로스케와 역관들을 식사에 초대하였다. 하지만 그들은 두 시가 아니라 다섯 시에 왔다. 나는 그들을 보지는 못했는데, 들리는 말로는 엄청 먹었다고 한다. 오이-사브로스케는 태어나서 처음 고기를 먹었다. 그리고 또한 처음으로 겨자를 먹었다. 겨자를 보더니 우리가 미리 말하기도 전에 갑자기 한 숟가락을 먹었다. 그의 이마가 붉어지고 눈물을 흘렸다. 영주에게 14아르신 길이의 나사지, 동으로 만든 사모바르 그리고 소금에 절인

16 쿨리치(Kulich). 원통형의 빵으로 부활절에 러시아의 가정에서 꼭 먹는다.

고기 한 통을 그가 보낸 선물에 대한 답례로 보냈다. 모레는 닻을 걷고 시베리아의 해안으로 가려고 한다.

14일. 어제는 나머지 식료품과 영주가 보내는 작별 선물들을 가지고 왔다. 채소와 가금류, 기타 여러 가지였다. 일본인들은 제독실에서 차를 마셨다. 그들에게 몇 번 선물했던 사모바르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여주었다.

저녁에 우리 선원들이 춤을 추고 노래를 불렀다. 보트들에서 많은 일본인이 모여들었다. 평범한 일본인들, 노 젓는 사람들, 하인들이었다. 그들은 놀라서 입을 벌리고는 우리 선원 두 명이 마치 힘든 일을 하듯이 오랫동안 격렬하게 춤을 추는 것을 바라보았다. 한 사람은 조타수로 위로 올라간 연한 갈색의 수염에 웃음기 없는 준엄한 얼굴이고, 다른 사람은 검은 구레나룻을 기른 나이 많은 도선사로 손에는 딸랑이를 들었다. 한 사람이 지쳐서 못 박힌 듯 서 있으면 그때 다른 사람이 꺾충 뛰어오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조용히 뛰어오르다가 점점 더 빨리 뛰어올랐다. 뛰어올라서는 아래를 내려다보면서 한 다리를 다른 다리보다 번갈아 바꾸고는 그다음 땅에 떨어졌다. 그리고 한쪽 다리는 굽히고 다른 쪽 다리는 내치면서 다리를 엇바꾸면서 앉았다 일어섰다 하면서 뛰어올랐다. 가끔씩은 고함을 지르기도 했다. 합창단이 노래를 불렀다.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말없이 진지하게 지켜보았다. 일본인들은 그 자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춤이 끝나자 그들은 춤을 보고 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말없이 얼굴에 웃음기 없이 흠뻑 젖었다. 노래를 부른 가수들도 춤꾼들도 그렇게 흠뻑 젖었다.

15일. 어제는 한 일본인이 내 선실에서 마닐라 짚으로 만든 시가 케이스를 보았다. 그는 오랫동안 그 케이스를 흘린 듯 바라보았다. 나는

그에게 그것을 선물로 주겠다고 제안했다. 그는 처음에는 사양하더니 내가 강하게 청하자 그것을 받아 품속에 넣었다. 나와 포시에트는 그가 그것을 받기로 마음먹은 것에 놀랐다. 더구나 다른 사람들도 보고 있는데 말이다. 하지만 놀라움은 곧 멈추었다. 선실에 돌아와보니 시가 케이스는 일본인들이 앉아 있던 긴 의자에 놓여 있었다. 갑갑한 민족이다. 아무것도 물어볼 수가 없다. 물어보면 거짓말을 하거나 입을 다물어버린다. 기치베가 아파서 오지 않았다. 우리는 그가 어디가 아프냐고 물어보았다. 그의 아들이 말하기를 위가 상했다고 했다. 다른 일본인은 머리가 아프다고 했고, 세 번째 사람은 다리가 아프다고 했다. 다음 날 본인은 목이 아팠다고 말했다. 실제로 그는 기침을 했다. 그들에게 뭔가를 물어보면 첫 번째 하는 행동은 말을 하지 않는 것이고, 두 번째는 탈레랑처럼 거짓말을 한다. 탈레랑은 심장이 시키는 첫 번째 행동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냐하면 그 행동은 가끔 좋은 행동일 때가 있기 때문이다. 한번은 일본에서 교역에서 첫 번째 위치를 차지하는 도시가 어느 도시냐고 물어보았다. “오사키.” - 라고 그들은 대답했다. - 두 번째 사람들은 “야시코”¹⁷ (일본의 서해안에 있는)라고 했고, 세 번째 사람들은 “미아코”라고 했다. 네 번째 사람들은 …… 그들은 갑자기 너무 말을 많이 했다는 걸 알아차리고는 겁을 내면서 입을 닫았다. 나는 사브로스케에게 입체경¹⁸을 보여주었다. “일본의 경치를 보고 싶소?”라고 독일어와 영어, 네덜란드어를 섞어서 역관을 통해 그에게 물어보았다.

¹⁷ 야시코, 혹은 에시코라 호칭된다. 지금의 명칭은 오사카다.

¹⁸ 입체경(Stereoscope). 하나의 물체를 다른 각도에서 찍은 두 장의 사진을 동시에 보게 하여 물체를 입체적으로 보이게 하는 기기.

그리고 아마도 지볼트의 그림이었던 것 같은데, 그것을 보여주었다. “피란도, 피란도!”¹⁹ 게이스트라, 혹은 첫 번째 나라바요시라고 불리는 역관이 놀라워하면서 말했다. 피란도는 포르투갈인과 스페인인들이 예전에 교역을 하던 장소로 나가사키의 서쪽에 위치해 있다. 오이-사브로스케는 화를 내면서 그에게 뭐라 말을 했고 그는 두려워하며 침묵했다. 어디에서나 아주 사소한 부분에서도 조직적인 거짓과 은폐가 있다. 그것은 일본으로 오는 길을 내주지 않으려는 공포에 근거하고 있다. 마닐라에 있을 때다. 일본이 곧 개항할 것이라는 말들이 오갈 때 프랑스인 주교가 대답한 말이 아직도 들리는 듯하다. “대포의 도움으로요. 여러분, 대포의 도움으로 말입니다(A coups des canons, messieurs, a cours des canons).” 라고 그는 말했다.

오늘 일본인들이 답례 선물을 가져갔다. 그 시간에 우리는 닻을 올리고 있었다. 스쿠너선은 일본 근처의 섬들을 측량하기 위해 갈 것이고, 그 일을 마친 다음에는 상하이로 갈 것이다. 우리는 시베리아 해안으로 갈 것이다. 하지만 그 전에 조선의 해안에 들르려는 것 같다. 수송선은 우리와 함께 갈 것이다. 향후의 회담을 위해 아니바²⁰로 전권대사를 초청하는 편지를 에도에 보냈다.

내가 말하는 것을 잊은 게 있는데 우리가 떠난다고 영주에게 알렸을 때 그는 무척 기뻐했다. 그는 기뻐서 많은 감자와 생선, 옷칠한 탁자와

19 피란도(Firando). 지금의 히라도(Hirado, 平戸)를 말한다. 히라도는 나가사키 현에 있는 히라도 섬에 위치해 있으며 1550년 개항되어 일본 최초로 포르투갈·네덜란드·영국과 무역을 한 곳이었으나, 1636년부터 나가사키가 대신하게 되었다.

20 아니바(Aniva). 사할린 섬 남쪽에 위치한 러시아의 도시.

상자를 선물로 보냈다. 그에게 탁상시계를 답례의 선물로 보냈다. 하지만 우리가 떠나면서 말을 전하기를 에도로 가지 않는다고 하자 그에게 무엇보다 중요해진 것은 선물이었다. “집으로 곧 돌아가실 건가요?” 오이-사브로스케가 나에게 물었다. 그는 별안간 나를 붙잡고 싶어 했다. “일본에서 일이 끝나면요.” 내가 대답했다. “그런데 당신은 에도의 부인한테 언제 가나요?” “모릅니다.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가 말했다. 거짓말을 하고 있다. 분명히 자신이 떠나는 날, 시간, 분까지 알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진실을 말하면 안 된다. 왜 진실을 말할 수가 없냐 하면 실제로 그는 진실이란 것을 모르는데도 모른다. 거짓말은 일본인에게 어떤 이익도 가져다주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거짓말에 대한 보답으로 그들에게 더 크게 거짓말을 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우리가 일본에 도착하자마자 그들은 자세히 캐묻기 시작했다. 우리가 어디에 들렀는지, 지금은 어디에서 오는 길인지, 어떤 해안에 상륙했는지 등등. 그들에게 대답해주기를 유구 섬과 바탄 섬에 들렀다고 했다. 그들은 이 바탄 섬이 어디에 있는지 찾기 시작했다. 어제는 지도에서 찾지 못하겠다고 자인하고서는 지도에서 보여달라고 부탁했다. 일반 지도에는 이 섬의 이름이 표기되어 있지 않다. 전체 군도가 바시라는 이름으로 표기되어 있을 뿐이다. 해도에서 그 섬을 보여주었더니, 그들은 섬의 형태를 베껴 그렸다. 이것은 물론 다음에 에도에 자세히 보고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다. 이렇게 서로 간의 거짓은 끝이 없다. 그들의 의심과 스페인 사람들에 대한 오래된 증오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마닐라에 들렀다는 것은 말하지 않았다. 우리가 루손 섬을 방문한 것에 대해서 그들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는 신만이 아실 것이다.

하지만 일본에 온 지 3일째 되는 날 일본인들은 도시들에 대해서 이

야기하다가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다시 한 번 뜻하지 않게 입 밖으로 말을 해버렸다. 일본 열도의 서해안에 있는 야시코, 혹은 예시코 인가 하는 도시가 일본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들 중의 하나라는 것과 그 도시 맞은편에 위치한 사도 섬은 광물자원이 무진장 많다는 것이다. 제독은 이제 가는 길에 그 곳을 둘러보고 싶어 한다.

16일, 벌써 이틀째 고토 열도[五島列島]와 그 열도를 둘러싸고 있는 암석들을 돌아가고 있다. 해안을 측량하고 있는데, 조류가 방해해서 저쪽으로 밀어놓는다. “일본 물건은 좋으나, 고토를 돌아가기 힘들다.”는 중국 속담이 괜히 있는 것이 아니다. 특히 그들의 배로 고토를 돌아가는 것은 힘든 일이다. 고토 열도의 섬은 모두 5개인 듯하다.

무풍이다. 날씨는 매우 좋다. 화창하고 따듯했다. 우리는 해안가에서 이리저리 방향을 바꾸면서 항해하였다. 우리 일행이 고토에서 해안의 방위를 측정하였다. 멀리서 일본의 보트들이 보였다. 해안에는 식물이 하나도 없다. 빨간 생선알들이 마치 벽돌가루를 많이 뿌려놓은 것처럼 반점을 이루어 바다 여기저기를 뒤덮고 있다. 이 생선알은 밤마다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인광을 내며 반짝인다. 어제는 그 빛이 너무 강해서 배 밑에서 마치 화염이 뿜어나오는 것 같았다. 심지어 돛에서도 그 불빛이 반사되었고, 뒤쪽 선미에서는 넓게 불타는 빛이 뿜어나갔다. 지금 주위는 어둡고, 잔잔한 바다는 빛을 내지 않는다.

18일, 쓰시마 섬을 통과했다. 날씨가 좋으면 쓰시마에서 조선과 일본의 해안이 보인다. 군데군데 어부들의 쪽배들이 다니고 있고, 그것 말고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이 바다에는 활기가 없고 모든 것들이 죽은 듯하다. 일본인들이 말하기를 조선인들은 아주 드물게 그것도 우연히 그들에게 들르는데, 물건을 팔거나 사기 위해서 들른다고 한다.

일본과 조선이 이렇게 가깝고, 이 두 나라는 상하이와 또 가까우니, 여기가 유럽의 무역과 항해를 위해 얼마나 넓고 자유로운 공간이 될 것인가! 조선은 일본에서 100마일 정도 떨어져 있고, 더 멀리 북쪽까지는 175에서 200마일 정도 떨어져 있다. 즉, 175, 300, 350베르스타 떨어진 거리다. 그리고 일본에서 상하이까지는 700베르스타 조금 더 되는 거리다. 영국에서 일본까지 가는 우편은 동인도를 거쳐 두 달이 걸린다. 이 나라들이 하나의 고리로 연결되어 유럽으로 편지와 상품 등을 보내게 될 때가 곧 올 것인가? 그때 일본의 해안을 일본 본토와 쓰시마로 나누는 이 만들에서는 어떤 삶이 맹렬히 끌어오를 것인지, 이 해양 민족들에게 의지를 주시기를!

오늘, 19일에 무풍이 갑자기 거의 폭풍으로 돌변하였다. 처음에는 북동쪽에서 돌풍이 불어닥쳤는데 그다음에는 계속해서 센 바람이 불기 시작하더니 마침내 강한 바람이 불어와서 돛대들의 밑쪽 두 번째 돛대를 4쪽씩 줄였다. 배의 요동은 이상하게도 사선으로 쳐서 매우 불쾌했고, 바다에 익숙한 사람들조차 약간 멀미를 하게 했다. 그렇지만 나는 멀미를 하지 않았다. 머리만 조금 아팠을 뿐인데, 요동 때문이었을 것이다. 저녁과 밤이 되자 잠잠해졌다.

어제와 오늘, 20일과 21일, 우리는 조선반도에서 2베르스타 정도 떨어져서 갔다. 위도는 36도였다. 후갑판에서 조선반도를 측량하였다. 하지만 볼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군데군데 얼마 안 되는 풀과 나무들로 덮여 있는 텅 빈 해안들뿐이었다. 드물게 마을들이 보였는데 그곳에는 해밀튼에서 본 것과 같은 그런 농가들이 서로 바짝 붙어 있었다. 군데군데 해안을 따라 주민들이 다니고 있었다. 바다에는 많은 보트들이 있었는데, 아마도 어선들인 것 같았다.

저녁 5시경에 만에 닿을 내렸다. 조선 해안 지도는 다 해봐야 한 개나 두 개인데 부정확하다고 말들 한다. 그리고 실제로 갑자기 우리 앞에서 북쪽으로 해안이 나타났다. 하지만 지도에는 그것이 없다. 밤에 잘 모르는 해안을 계속 가는 것은 불편하다고 생각되어 우리는 새벽까지 멈추어서 있었다. 바람은 북쪽으로 부는 순풍이었다. 날씨는 따듯했고, 해가 났다. 우리 단정들 중 하나가 해안에 접안했다. 주민들은 해밀튼에서처럼 도망갔고 법석을 떨었다. 그리고 해밀튼에서와 같이 우리를 맞이했다. 즉 우리를 들여놓지 않으려고 해안에 몽둥이를 들고 무리지어 모였다가, 우리들 중 몇 명이 가진 총을 보고는 좌우로 물러서 길을 내주었다. 그들은 중국어로 종이에 썼다. “어떤 사람들인가? 어느 나라, 어느 도시, 어느 마을 사람들인가? 어디로 가는 것인가?” 단정에 탄 사람들 중에는 아무도 중국어를 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들에게 러시아어로 프리깃함의 이름, 연·월·일을 적어주었다. 주민들은 손짓으로 물을 얻기 위해 왔느냐고 물었다. 아니라고 대답해주었고, 그렇게 서로 헤어졌다.

25일. 조선의 해안들, 그리고 그것뿐이다. 측량을 계속하였다. 우리는 이미 위도 39도에 있다. 더 나갈 수 있었으나, 바람이 이틀 동안 역풍이었고, 덕분에 우리는 한 장소에서 헛되이 흔들거리고 있었다. 해안은 안개 속에 숨어버렸다가 어제 갑자기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

조선에 대해서는 겨울에 매우 춥고 여름에는 또 매우 더워서 척박하고 가난하다고 쓰고 있다. 적어도 조선의 해안들은 이 말을 더할 나위 없이 잘 증명해주고 있는 것 같다. 위도 37도부터 해안에는 산이 많았고, 저 멀리에는 뾰족한 산봉우리들이 엄청나게 많았다. 하나하나가 다 높았고, 주름진 이마 같은 모습을 하고 있어 보고 있으니 마음이 쓸쓸

했다. 산봉우리들마다 군데군데 눈인지 모래인지 하얗게 보였다. 바다에 가까운 해안은 지대가 낮고, 모래로 덮여 있으며 텅 비어 있다. 초목이라고는 빈약한 풀들과 여기저기에 관목들이 있다. 군데군데 조그만 마을들이 바짝 붙어 있다. 해안가에는 가끔 보트들이 쓸쓸하게 미끄러져 가고 있는데 아마도 하루의 양식을 구하러 물고기·해삼·연체동물들을 잡을 것이다.

오늘 갑자기 그 보트들 중 한 척이 우리에게로 향했다. 거기에는 일곱 명가량의 조선인이 타고 있었는데 모두들 지저분한 하얀 가운을 걸쳤고, 또 그런 저고리와 조끼를 입고 있었다. 모두 같은 색의 솜을 넣은 헐렁한 바지를 입었으며, 그중 한명은 모자를 쓰고 있었다. 멀리서 우리는 그들이 외치는 소리를 들었다. 그들에게 갑판으로 올라오라고 알렸다. 하지만 그들이 올라왔을 때 우리는 그들의 방문이 기쁘지 않았다. 그들과 의사소통을 할 수가 없었다. 그들은 중국어로 말을 할 줄도 쓸 줄도 몰랐다. 게다가 모두 취해 있었다. 수병들은 무리지어 그들을 둘러싸고는 그들이 입은 가운과 한 묶음으로 모아 묶은 머리를 보고 여러 이야기를 했다. “리투아니아인보다 더 나쁜걸!” 한 수병이 말하는 것을 나는 들었다. “리투아니아가 다 뭐야, 체르케스인보다 더 안 좋아!” 다른 수병이 반박했다. “이런 민족이라니!” 건빵을 주었고, 그들은 떠났다. 그들 중 한 명이 떠나면서 그들과 중국어로 의사소통을 해보려 했던 O.A. 고쉬케비치를 껴안고 키스했다. 우리는 웃었고, 가여운 오시프 안토노비치는 청하지도 않은 다정스런 행동의 흔적을 어떻게 지워야 할지 몰랐다.

우리는 브로튼²¹의 지도를 자세히 확인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그는 지난 세기 말에 밴쿠버와 함께 여행을 했다. 단지 서로 다른 배를 탔을

뿐이다. 밴쿠버는 아메리카 서쪽 해안을 측량했고, 브로튼은 아시아 대륙을 다녔다. 그는 유구 열도 근처의 미야코 섬에서 난파당했는데, 지역 주민들은 그를 구조하고 잘 대해주었다. 그의 지도는 정확하지 않아서 끊임없이 수정해야만 했다. 그래서 조선의 모습은 이제껏 지도들에서 흔히 보아왔던 것과는 많이 달라져야만 할 것이다. 브로튼의 지도에서 표시되어 있는 깊은 만을 계속 찾았지만, 그의 지도에 명기된 그 위도에서는 찾을 수가 없었다. 그 대신에 그 지도와는 다르게 좀 더 북쪽에서 넓은 만이 나타났다. 그 만으로 들어가면서 그것이 어느 정도까지 클지 생각하지 못했다. 그 만 전체에는 섬들이 가득 있었다. 우리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계속해서 새로운 작은 만들이 나타났다. 수심은 어느 곳이나 훌륭했다. 만의 중심부에 있는 바위섬으로 들어가서 우리는 닻을 내렸다. 바다는 사방에서 해안으로 차단되어 이미 보이지 않았다. 과도로부터 안전했고, 만 안쪽 바다는 매우 넓었다. 여기에 군함대나 상선단 전체가 정박해도 될 것이다. 사방에서 꽃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으며 여기저기에 조그만 내만들과 절벽들, 여기저기에 외로이 흩어져 있는 민둥바위들이 보였다. 이 모든 것들은 나가사키와 조금 비슷

21 윌리엄 로버트 브로튼(William R. Broughton, 1761~1821). 영국의 해군장교. 1790~1793년까지 차담호의 선장으로 밴쿠버가 이끈 아메리카 북서해안 탐사에 참가했다. 1793년 이 탐사함대의 세 번째 배가 될 프로비던스호의 지휘를 맡기 위해 영국으로 돌아갔으며, 1796년 북아메리카의 해안에 도착했으나 밴쿠버의 배들이 이미 18개월 전에 몬트레이 항을 떠났음을 알게 된다. 이후 브로튼은 당시 가장 덜 알려져 있던 아시아 남쪽 지역으로 측량을 위해 떠난다. 조선의 동해안 일대를 항해하기도 했으며, 부산 동래의 용담포에 기항했다가 경상관찰사 이형원의 명을 받고 퇴거했으며, 영흥만에 이르러서는 스스로 브로튼 만(Broughton's Bay)이라 명명한 후 연해주까지 항해하였다.

해 보였다. 단지 해안이 나가사키와는 달리 푸르지 않았고, 멀리서 보였던 것처럼 그렇게 쓸쓸하지도 않았다. 2, 3마일 거리에서 봤을 때 빈약한 이끼처럼 보였던 녹음은 가까이에서 보니 나무들과 관목이었다. 파랗게 파종이 많이 되었고, 산비탈이나 해안가 근처의 모래톱 근처 여기저기에 조그마한 촌락들이 있었다.

오늘은 점심 식사 후 4시가 넘어서 다섯 명에서 해안으로 갔다. 사모바르, 고기잡이 그물과 총을 챙겨갔다. 마침내 우리는 유럽인들이 아마 한 번도 발을 디더보지 않았을 해안에 들어섰다. 선교사들은 멀기도 하고 텅 비어 있는 이곳에 올 이유가 전혀 없다. 브로튼은 다른 만을 이야기하고 있거나, 아니면 이곳을 둘러볼 때 해안에는 상륙하지 않았던 것 같다. 그랬더라면 만을 제대로 기술했을 것이다.

우리 단정은 높은 언덕의 기슭 부분에 있는 모래톱에 멈추어 섰다. 그곳에는 고기 잡는 그물이 장대에 걸려 펼쳐져 있었고, 폭이 2아르신 정도 되는 자그마한 하천이 흐르고 있었다. 해안 전체에 조개껍데기가 흩어져 있었다. 마을 근처에는 소나무 말고도 여러 나무들이 자라고 있었는데, 그것들은 내가 이제껏 어디에서도 보지 못한 나무들이었다. 어떤 나무는 잎이 녹색이 아니라 잿빛이었고, 다른 나무는 어린 레몬 나무처럼 선명한 녹색이었다. 그다음에는 잎사귀가 하나도 없는 나무들이 있었는데 저주받은 무화과나무처럼 말라버린 회색빛 줄기와 가지들만 있었다. 그런데 이 회색 줄기와 가지들에 종이 다른 관목들이 자라고 있었고, 가장 신선한 봄의 신록을 피우고 있었다. 아름다웠지만 기이하기도 했다. 볼에 빨갱게 연지를 바르고 곱게 차려입은 노파처럼 부자연스러웠고 과장스러웠다!

유감스럽게도 우리 배의 자연애호가들 중 아무도 이번 일행에 끼어

있지 않아서 이 나무들에 대해 물어볼 사람이 없었다. 우리는 밑물로 질척해진 모래를 따라 농가들 쪽으로 갔다. 그 농가들을 우리는 아까 그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주민들은 그러는 사이에 멀리서 무리지어 모여 있었다. 그 무리들 중 네 명이, 그들 중 한 노인은 긴 지팡이를 짚고 있었다. 풀 위에 나란히 앉아 있는데, 아마도 의식에 따른 영접이나 연설, 환영인사 같은 것을 준비하는 것 같았다. 인간들은 모두 어린 유아 시기에는 과장된 것, 걸치레 장식, 거드름 피우는 것을 좋아한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을 쪽 훑어보고 고개를 한번 숙여주고는 무관심하게 해안을 따라 마을 쪽으로 계속 갔다. 그들이 우리를 얼마나 야만인들, 막돼먹은 놈들로 생각했는지 모른다! 그들은 온갖 거드름 피우던 것은 잊고 우리 뒤를 고함을 치면서 따라왔는데 보건대 육인 것 같았다. 그리고 우리에게 마을로 들어가지 말라는 신호를 하였다. 하지만 우리도 그곳으로 가려고 하지 않았다. 그리고 해안을 따라가는 길에 우리를 막아선 산까지 갔을 뿐이다.

한편 우리는 농가들이 진흙으로 발려 있는 것을 보았다. 해밀튼에서는 그런 집이 없었다. 아마도 이곳의 겨울은 장난이 아닌 것 같다. 하지만 지금은 아직 따듯해서 우리는 프록코트를 벗고 조끼만 입고 다녔다. 하지만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는데도 참기 힘든 더위였다. 조선인들은 우리를 따라왔다. 키가 크고 건장한 민족으로 운동선수들 같았다. 거칠고 검붉은 얼굴과 손을 가졌다. 그들은 일본인들처럼 행동거지가 나약하거나, 꾸미거나 간교하지 않고, 유구인들처럼 겁이 많지도 않으며, 중국인들처럼 이해가 빠르지도 않다. 좋은 군인들이 이 민족에게서 나왔을 법하다. 그런데 조선인들은 중국의 학문에 감염되어 시를 쓴다! 아바쿰 신부는 그들에게 종이에 중국어로 썼다. 우리는 러시아인이

며, 해안에 산책하러 왔으며 당신들의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이다. 그들 중 한 명이 그것을 다 읽고 나서 질문을 썼다. “러시아인들이여, 돛을 펴고 바람이 이끄는 대로 당신들은 무슨 일로 우리 땅에 오게 된 것인가? 그리고 당신들 모두는 건강하고 안녕하신지? 우리는 천하고 평범한 사람들이나, 보기에 당신들은 특별하고 높은 사람들 같다.” 그리고 이것을 다 시로 썼다.

나는 크리드네르 남작과 함께 일행보다 앞서서 가고 있었으므로 그들에게 뭐라 답을 해주었는지는 모른다. 조선인들은 우리가 멈추어 서자마자 우리를 에워쌌다. 그들도 또한 해밀튼의 주민들처럼 큰 호기심을 가지고 우리 옷을 살펴보고, 손과 머리, 다리를 만져보고 자기들끼리 생기 있게 속삭였다.

한편 우리들은 그물을 던져 가자미 한 마리, 불가사리 하나, 해삼 한 마리를 잡았다. 갑자기 강한 북동풍이 불어 무더위를 순식간에 한기로 바꾸어버려 나는 간신히 프록코트를 걸칠 수 있었다. 조간난 구름들이 산들을 덮었고, 바닷물이 들끓기 시작했고, 파도는 낮은 소리로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우리 주위에서 큰 오리·붉은 코 도요새·갈매기·비둘기 그리고 많은 작은 들새들이 바닷가를 따라 날았다. 여기저기서 총성이 울려 퍼졌고, 저녁 식사에 훌륭한 요리가 곁들여져 나왔다. 하지만 나는 어떻게 하면 빨리 프리깃함으로 돌아갈까 하는 생각만 하였다. 차 준비를 아직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벌써 석양이 지고 있었다. 우리는 프록코트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모피 옷을 입어야만 할 추위가 닥쳤다. 초원에서 말을 방목하였는데, 키가 망아지만 했다. 그런데 그 말들은 망아지가 아니라 다 자란 말이었다. 우리는 뿔 있는 가축의 흔적과

수레의 바퀴 자국을 보았다. 아마도 조선인은 살림을 잘 돌보는 사람들인 것 같다.

나는 해안을 따라 큰 보트가 있는 쪽으로 갔다. 그 보트는 곳 너머 거의 바다 쪽으로 가버렸기 때문에 3베르스타 정도를 걸어가야만 했다. 곧 솔리펜바흐 남작과 고쉬케비치가 나와 합류했다. 고쉬케비치의 가방에서는 무언가 살아 있는 것이 꿈틀거렸다. 그는 벌써 별의별 잡동사니를 다 모았다. 손에는 꽃과 풀 한 다발을 들고 있었다.

마침내 보트를 멀리서 보고 다가갔다. 마침 보트는 닻을 올리고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우리는 프리깃함에서 적어도 3베르스타는 떨어져 있었다. 달이 떠올랐지만 안개가 너무 심해서 프리깃함이 눈에서 사라졌다 갑자기 나타났다가 했다. 시야에서 프리깃함을 완전히 놓친 게 한번이 아니었고 그때는 별을 보고 길을 잡았는데 그 별들도 사라져버리곤 했다. 우리는 구름 속에서 항해를 했다. 그 구름은 산과 언덕, 바닷물, 그리고 마침내는 하늘과 달까지 가려버리면서 믿을 수 없는 속도로 퍼졌다. 습기가 지독했다. 모자와 프록코트가 축축해졌다. 해안에서는 불빛이 선명하게 깜박거렸다. 고집불통 우리 동료들이 차를 마시기 위해 남아 있었다.

한 시간 반에 걸쳐 겨우 집에 갔다. 그런 다음 선실의 탁자에 차를 마시려고 앉았을 때 그 만족감이 어땠던지! 그때 고쉬케비치에게 엄숙하게 뱀을 가지고 왔다. 보아뱀 말고 그런 큰 뱀을 우리는 보지 못했다. 길이가 2아르신 정도 되었고, 몸이 굵었다. 그놈은 양철 상자 안에서 꿈틀거리고 있었다. 뱀을 알코올이 든 큰 유리병으로 옮겨 담으려 하였다. 뱀은 나오지 않으려고 오랫동안 고집을 부렸다. 하지만 상지에서 끄집어내자 우리들도 후회막심이었다. 갑자기 그놈이 바닥을 기어

가기 시작했고 힘들게 잡았다. 수병은 그 뱀을 관목 속에서 발견했는데 그 관목 위에는 황새와 까치가 앉아 있었다고 한다. 왜 그들이 모여 있었는지 알 수가 없다. 아마도 크릴로프가 쓰지 않은 우화를 연출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28일. 오늘은 안개 때문에 측량할 수도, 해안을 살펴볼 수도 없었다. 그 대신 조선인 한 무리가 우리에게 왔다. 우리 배에서 음악이 연주되기 시작하자 그들이 어떤 얼굴을 했는지 나는 내 선실에서 보았다. 한 사람은 선실에서 포르테피아노 소리를 듣고는 놀라서 바닥에 넘어졌다.

5월 1일부터. 동해와 조선의 해안.

우리들은 날마다 만의 수심을 측량하기 위해서 배에서 내려갔다. 그렇지 않은 날은 사냥을 했다. 강을 따라 내륙으로 20베르스타 정도를 올라가서 도시가 있는지 찾기도 했다. 나는 이 산책에 참가하지 않았다. 여행은 책과 같다. 책은 제일 마음에 드는 페이지에서는 멈추고 다른 페이지들은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대충 읽는다. “뭇라구요, 연구되지 않은 새로운 지역들입니다. 이진 발견이라구요! 곧 이런 장소들은 완전히 없어지게 될 겁니다.” 나에게 이렇게 이야기들을 할 것이다. 하지만 그런 지역이 없어지는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유아기에 있는 그 지역 주민들과 있는 것은 지루하다. 게다가 조선인들은 우리에게 완전히 새로운 발견도 아니다. 위에서 말했지만 조선인은 중국인에게서 정신적인 면을 가져왔다. 물질적인 면은 그들에게 누가 주었는지 나는 모른다. 한두 마을을 보고, 한두 무리의 사람들을 만나보면 다 본 것이나 마찬가지다. 어디나 똑같은 다닥다닥 붙어 있는 농가들, 농가 주위의 갈아놓은 밭들. 모두들 입고 있는 넓고 흰 가운, 넓은 광대뼈, 클로

버 카드의 A를 닮은 코, 턱수염 대신 말갈기 같은 묶음, 그리고 벌어진 입과 멍청한 시선. 그리고 시로 글을 쓰고 노래 부르듯 말끝을 길게 빼며 글을 읽는다. 도대체 이곳에서 길게 주의를 기울일 데가 어디에 있던 말인가?

만일 자유롭게 도시에 들어갈 수 있어서 다른 주민들과 그들의 생활 모습을 볼 수 있으면 좋으려만 들어가게 허락해주지 않는다. 자연도 특별히 뛰어난 점이 없다. 지역은 새롭게 만나는 다른 지역들이 다 그렇듯이 그것이 새로운 만큼만 흥미로운 법이라고 학자 여행자들은 말할 것이다.

조선인들에게서 내가 발견한 특징이 하나 있다. 그들 나라나 도시들의 상황에 대한 질문에 그들은 정말로 이야기를 해주고, 그들이 무얼 하는지 어떤 일에 종사하는지 기꺼이 말해준다. 그들은 우리가 정박한 만의 이름을 이야기해주었고, 해안, 곳, 섬들, 마을의 이름들도 알려주었다. 심지어 이곳이 지금 그들의 왕의 고향이라는 이야기도 했다. 또 알려주기를 여기서 남쪽으로 배로 하루 정도 가면 이 나라의 상품들이 모이는 큰 교역장이 있다고 했다. 우리는 그 곁을 이미 지나쳐 왔다. “어떤 상품들인가?” 그들에게 물었다. 곡물들, 즉 밀·쌀 그리고 금속류로는 철·금·은 그리고 다른 다양한 많은 상품들이라고 했다.

심지어는 그곳에 교환을 위해 물건을 가져가도 되겠냐는 우리의 물음에도 그들은 긍정적으로 대답했다. 일본인·유구인·중국인들이 이런 것을 모두 이야기해주었을까? 결코 아니다. 보건대 조선인들은 아직 경험을 통해 배우지를 못했고, 대외적인 삶을 살아보지 못해서 자신의 정책을 만들어내지 못한 것 같다. 아직 만들어내지 못했다면 그게 더 좋을 수도 있다. 유럽인과의 친교와 자신의 재교육으로 향하는 불가

피한 발걸음을 더 빠르고 더 쉽게 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는 시골 마을 사람과 농부들만 보았을 뿐이다. 상급 계급과 정부는 당연히 국가들 간의 교류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정책에 대한 개념도 있다. 그들은 중국인·일본인·유구인과는 교류하고 있다. 유럽식 교류나 삶의 방식을 그들은 당연히 모른다. 이곳에서 주민들은 우리에게 러시아인이나 러시아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우리는 기분 나쁘지 않았다. 그들은 영국인이나 프랑스인에 대해서도 들어본 적이 없다. 우리도 어느 스텝 지역에 사는 아무 농부에게 물어보면 영국인·스페인인 그리고 이탈리아인에 대해 많이 알 것인가? 조선인들이 중국인과 일본인을 제외한 모든 민족을 ‘야만인들’이라는 이름으로 섞어놓듯이 그도 독일인이라는 이름 아래 영국인·스페인인·이탈리아인을 한데 섞어놓지 않겠는가? 그렇지만 조선인들은 우리에게 대해 알아야만 한다. 즉 여기 사는 농부들이 아니라 그들의 정부가 말이다. 조선인들은 베이징에 오고는 한다. 우리 아버کم 신부와 고취케비치는 그곳에서 그들을 만났고, 심지어 그들의 부탁으로 러시아에서 뭇가를 주문하기도 했던 것 같다.

이곳에서 또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기를 조선의 수도에는 일본인 숙박소 비슷한 것이 있는데 거기에는 300명에 이르는 일본인이 살고 있고 자신들의 물건을 판다고 하였다. 대체 어떤 일본인들인가? 그들이 조선인들과도 교역하느냐고 묻자, 일본인들은 폭풍에 밀려 조선의 해안에 오는 경우처럼 우연히 교역을 한다고 대답하였다.

조선인은 자신들이나 자신들의 나라를 차오신, 혹은 차우신²²이라

²² 차오신(Chaosin)·차우신(Chausin)은 조선이라는 말을 러시아인들이 이렇게

부르는데, 코레야²³라는 명칭은 그들의 옛 왕조들 중 하나에 관계된다.

내가 보기에는 조선인들에게 유럽인에 대한 불신이 아직 뿌리내리지 않았고, 유럽인들에 대해 문을 걸어 잠그지 않았으며, 그리고 조선 정부가 외국인과의 통상을 금하는 강력한 조치들을 취하지 않은 때인 지금 관계를 맺는 것이 더 편할 것으로 생각된다. 조선의 민중들은 변화에 매우 목말라 있다. 그들이 유리병과 동으로 만든 단추, 도자기, 그리고 접하는 모든 것에 얼마나 달려드는지 모른다. 나사천으로 만든 우리의 프록코트에 그들의 눈동자가 얼마나 돌아갔는지, 나사천을 쓰다듬어보고 장화를 만져보기도 하였다. 빈 병을 얻기 위해 갈대로 만든 자신들의 커다란 모자를 기꺼이 주었다. 우리 모두는 이 모자를 바꾸어 가졌다. 그런데 파제예프가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모자를 하나 바꾸어서는 나에게 가지고 와서 선실에 걸어두었다. “다른 분들은 다 있습니다. 나리만 없으시다니까요.” 그는 고집스럽게 이렇게 대답하고는 모자를 못에 걸었다. 그 모자는 벽 전체를 차지했다. 또한 갈대로 만든 담뱃대인 동 파이프²⁴도 많이 바꾸었다. 그들에게는 그것 말고는 더 이상 바꿀 것이 없었다. 그들에게 식료품을 요청했는데 잠시 생각하더니 푸지로 대접했다. 그리고 수탉 세 마리를 가지고 왔다. 소·양·돼지는 없었다.

3일째 되는 날 우리는 강으로 보트를 타고 나갔는데 거기서 어떤 책

듣고 전사한 것이다.

²³ 코레야(Koreja). 러시아어로 한국, 조선은 ‘코레야다.

²⁴ 장죽·곰방대를 이야기하는 것 같다. 조선 담뱃대인 장죽과 곰방대는 담배를 재우는 대통[雁首]과 입에 무는 물부리가 금속으로 되어 있고, 몸통인 설대[煙道]는 가는 대로 만든다.

임자 같은 사람을 보았다. 말을 탔으며 악사들과 함께 있었다. 그에게 차를 대접했다. 나사천을 선물하려 했으나 그는 감사의 뜻을 표하고는 거절하였다. 말하기를 상관의 허락 없이는 받을 수가 없으며, 그들의 국법은 엄하고 그 법에 따르면 선물을 받으면 안 된다고 하였다.

우리가 정박해 있는 동안 군중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몰려왔다. 아직 야만성이 상당히 있는 자연의 아이들인 그들은 새로운 외부인들을 적의감을 가지고 바라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 3일째 되는 날 저녁에 우리 일행 중 하나가 절벽 근처에서 수심을 측정하고 있었다. 그리고 조선인들이 그 절벽에 무리지어 모여 있었다. 그러다가 단정을 향해 돌을 던지기 시작했다. 그들을 향해 공포탄을 쏘았는데, 하지만 그들은 총포에 대해 잘 모르는 것 같았다. 어제 아침 그 절벽에서 가장 가까운 마을로 해명을 요구하는 서류를 보냈다. 조선인들은 저녁에 답을 보냈는데, 용서를 구하면서 '아무 생각 없는' 아이들이 돌을 던졌다고 말했다.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이곳의 남자들은 14베르쇼크 정도의 키에 턱수염을 기르고 정수리에 머리를 모아서 묶고 다닌다. 그리고 소년들은 우리나라 소녀들처럼 머리를 땅고, 머리 가운데서 가르마를 하고 다닌다.

이 답을 다 읽자마자 우리 일행 중 한 조가 돌아왔다. 그들은 강으로 10베르스타 거리로 떠났던 사람들이었는데, 모두 매우 흥분해 있었다. 큰 위험이 그들을 위협했던 것이다. 한 강가에 많은 사람이 모여 있었다. 그들 중 몇몇이 우리 일행에게 어떤 종이를 보이면서 손짓으로 배를 대라고 요청하였다. 그리고 배를 대자 조선인들은 종이는 주지 않고 한 남자를 데리고 와서 땅에 꿰어앉히고는 삼같이 생긴 몽둥이로 때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난 후에 삼으로 때리던 바로 그 사람을 똑같이 꿰

어얏히고 때리기 시작했다. 우리 일행은 이 희극이 너무 황당해서 비켜섰다. 그러자 때를 맞은 사람들 중 하나가 일행 뒤를 쫓아와 수병들 중 한 사람을 붙잡아서 무리 속으로 끌고 들어갔다. 거기서 그를 이쪽저쪽으로 끌고 다니려 하였다. 하지만 수병들이 달려들어 떼어놓았다. 조선인들은 달려든 수병들도 공격하기 시작했지만 수병들이 완력으로 민첩하고 맹렬하게 조선인 몇 명을 붙잡아서 두들겨패자 나머지 사람들이 물러났다. 우리 일행이 보트에 타자 조선인들은 돌과 어망추를 던지기 시작했고 몇 명은 피가 날 정도로 다쳤다. 그러자 그들을 향해 들새 사냥에 쓰는 산탄총을 발사했고 한 사람에게 부상을 입힌 것 같았다. 그렇게 하자 공격이 어느 정도 멈추었으나 조선인들은 우리 일행이 강가에서 떠날 때까지 돌을 계속 던졌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무장한 병력을 실은 보트들이 사건이 벌어진 장소로 출발했다. 마을 사람들 모두 부인과 재산을 챙겨서 도망갔고, 노인들만 남아 있었다. 그들이라도 필요했다. 노인들에게 벌어진 사건의 해명을 요구했다. 노인들은 절을 하면서 해명하기를 몇몇 몫쓸 놈들이 무리가 소요를 일으키도록 만들었는데 그들은 그 사태를 진정시킬 수가 없었다고 하였다. 그들은 자신들을 용서해주기를 부탁하며, “아비는 자식들의 행동에 책임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들은 덧붙여 말하기를 죄를 지은 자들은 부상을 입었고 그리고 그중 한 명은 치명상을 입었으니 그것으로 이미 벌받은 것이라고 하였다. 그들과 어떻게 해볼 것도 없었다. 하지만 우리가 멈추어선 첫 번째 장소에서 조선인들의 수도로 발송하기 위해 사건에 대한 서류를 제출해야만 했다.

오늘 오후 1시가 넘어서 우리는 닻을 올렸고 지금은 바다에서 가볍게 흔들거리고 있다. 밤에는 달이 떴지만 추워서 마치 러시아에 있는

것 같았다.

나는 여러분께 말해주는 것을 하나 잊었는데, 우리는 방금 떠나온 큰 만을 자세히 측량하면서 돌아가신 라자레프 제독을 기리기 위해 그 만에 그의 이름을 붙였다.

5월 5일. 동해; 조선해안. 우리는 오늘 방금 위도 41도에 진입했다. 갑자기 불어온 순풍도 우리를 움직여주었다. 계속 해안가를 따라서 갔다. 측량이 계속되었다. 조선은 43도 지점에서 끝난다. 거기서 부터는 만주 해안이 시작된다. 오늘 바다를 따라 떠다니던 보트들에서 조선인 무리들이 프리깃함으로 다시 모여들었다. 나는 나가보지 않았다. 형클어진 머리를 한 거무스름한 누런 얼굴 두셋이 내 선실을 들여다보았다. 그 고함과 소음이란! 우리 배의 전체 400명의 선원들이 움직일 때도 그런 소음은 없다. 한 조선인은 포시에트의 선실에서 손가락을 훑쳐서 자신의 혈렁한 바지 속에 숨겼다. 손가락을 빼앗고, 도둑놈의 머리채를 잡아서 선실에서 끌고 나왔다.

점심 식사를 마치고 나는 우리가 지나온 해변을 바라보았다. 전부 현무암으로 된 험하고 가파른 절벽들이 산처럼 뺨뺨이 들어차 있다. 가파르고 험했다. 저기서 난파당하는 항해자들은 불행하다. 구조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해안까지 도달한다 하더라도 그 절벽을 올라가는 것은 미끄럽고 수직으로 서 있는 벽을 오르는 것과 마찬가지로 때문이다. 어디에서도 집과 숲을 볼 수가 없다. 희끄무레한 녹음이 군데군데 산들의 거친 능골을 덮고 있다. 해안이 갑자기 서쪽으로 돌아가서 우리도 만곡을 따라가고 있다. 곧 만주와 국경을 이루는 강인 타만, 아니면 튜이멘, 아니면 타이-멘²⁵ 인지 하는 강이 나올 것이다.

두 시간 전 자정 즈음에 크리드네르가 고래가 어떻게 숨을 쉬는지

들어보라고 후갑판으로 나를 갑자기 불렀다. “로프가 삐걱거리는 소리 말고는 어떤 것도 들리지 않네요.” 조금 들어보고는 내가 말했다. “잠깐만요, 잠깐만요 …… 들리십니까?” 그가 말했다. “정말로 안 들립니다. 이건 마닐라산 폴로 만든 로프가 삐걱거리는 ……” 하지만 그때 갑자기 선미 아래에서 굵고 육중한 지속적인 숨소리가 들려왔는데, 마치 우리 옆으로 증기기관차가 지나가는 것 같았다. “어때요, 들리죠?” 크리드네르가 말했다. “예, 그런데 이게 정말 고래입니까?” 갑자기 다시 한 번 숨소리가 들렸다. 이번에는 더 세계 아래에서 바로 우리 발밑에서 울렸다. “이게 뭔지, 자네는 모르는가?” 나는 마음에 들어 하는 신 호수 표도로프에게 물어보았다. 그는 마침 그 자리에 있었다. “이건 고래가 아닙니다.” 그가 대답했다. “이건 모두 물귀신들입니다. 물에 많거든요!” 그가 심드렁하게 깊은 바다를 향해 손을 흔들고는 이렇게 덧붙여 말했다. 그리고 돌아서더니 자신이 고래보다 조금 약하게 숨을 내쉬었다.

5월 9일, 마침내 국경의 타이만강을 찾았다. 우리는 그 강에서 6마일 거리에서 정박했다. 어제 우리는 하루 온종일 그 강을 측량하고 측정하러 다녔다. 말들하기를 이 강은 폭이 2.5베르스타 정도 되는 넓은 강이며, 수로가 편하다고 했다. 물론 여러분들은 이 지역들의 측량에 열성적으로 참여한 내 이웃 페슈로프가 지금 이 시간 저 벽 너머에서 작성하고 있는 조선의 모든 해안과 강들에 대한 상세하고 전문적인 기록을 앞으로 열심히 읽게 될 것이다. 나는 여러분께 단지 컴퍼스와

²⁵ 두만강을 말한다. 러시아어로 타만(Taman), 튜이멘(Tjujmen), 타이-멘(Tajmen)으로 음차되어 있다.

자로 확인되지 않은 가장 일반적이고 표면적인 지식만 전하기로 하겠다. 우리는 오늘이 아니라 내일 얼마간 기쁜 마음으로 조선과 작별할 것이다. 우리 일행은 벌써 조선의 반대편 강변에 있는 국경 경비대를 보았다. 저기서부터는 만주가 시작되는데, 그 지역의 해안은 라 페루즈²⁶가 조사하였다.

누가 조선에 대해 무엇이랄고 알고 있는가? 단지 중국인들만이 부분적으로 교류할 뿐이다. 즉 그들은 조선에서 매년 조공을 받는다. 그리고 또 일본인들이 조선과 소규모의 교역을 한다. 그 사이에 잠깐 이아킨프 신부²⁷가 쓴 만주, 몽골 그리고 기타 지역들의 통계자료집 2부에서 자오선 8도를 따라 자리 잡고 있는 이 지역에 대해 말한 것을 보도록 하자.

조선 국가, 또는 차오-산²⁸은 트로이인과 고대 그리스인들의 시기에 형성되었다. 이곳에서는 자신들의 일리아드가 일어났고, 자신들의

²⁶ 라 페루즈 백작(comte de La Pérouse, 1741~1788). 프랑스의 해군장교, 항해자. 1785~1788년에 태평양 조사 탐사대를 이끌었다.

²⁷ 이아킨프 신부(Iakinp, 1777~1853). 속명은 니키타 야코블레비치 비추린(Nikita Jakovlevich Bichurin)이다. 대수도원장, 동양학자, 여행자. 러시아 중국학의 창시자들 중 한 사람이다. 시골의 성직자 가족 출신으로 카잔 신학교를 졸업하고 그곳에서 교수로 일했다. 1808~1821년에 북경에 거주하며 제9차 중국 선교단을 이끌었다. 선교 활동에 소홀했다는 이유로 신성종무원의 재판에 회부되어 1823~1826년 발람 섬에 유배되기도 하였다. 유배에서 풀려난 후 상트페테르부르크 황립 학술원 회원으로 선출되었다. 1819~1851년에 중국과 이웃 나라들에 관한 14권의 책과 100여 개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중국어 외에도 만주어·티베트어·한국어를 공부하였다고 하며, 러시아 한국학의 토대를 놓은 사람이기도 하다.

²⁸ 차오-산(Chao-sjan), '조선'의 또 다른 러시아어 음차다.

아이아스·헥토르·아킬레스가 있었다. 그들의 일리아드가 호머의 뒤에 오지는 않을 것이다. 나는 타고난 사냥꾼인 조선인들이 시를 쓴다고 이미 한 차례 말했다. 심지어 조선의 어떤 여왕은 이웃 영토를 정복하고는 직접 그 사건에 대한 송가를 지어 중국 황제의 궁궐로 보냈다고 한다. 황제는 그것을 받고 대단히 만족스러워했다고 이아킨프 신부는 쓰고 있다. 단지 이곳의 아가멤논이나 헥토르의 이름들이 우리의 시에는 전혀 들어맞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래도 시도해보기로 하자. 베이-만, 치츠이, 웨이-유-츄이²⁹ 등등. 일리온³⁰과 비슷한 도시는 프힌-산³¹이라고 부른다.

하지만 이것은 모두 조선 역사의 알려져 있지 않은 시기다. 조선의 역사는 기원전 3세기부터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다. 조선의 최초의 주민은 만주족의 한 종족으로, 시베리아인은 그들을 통구스인이라 불렀다. 그 종족에 중국에서 온 사람들이 합쳐졌다. 기원후 통구스인의 한 사람인 가오가 가오-리³² 왕국을 건설하였다.

이아킨프 신부는 유럽인들이 가오-리라는 이 명칭을 어떻게 하다 보니 코레야로 바꾸었다고 말한다. 이것은 그럴듯한 말이다. 아직까지도 태평양의 많은 섬의 주민들, 그중에는 일본인, 카낙족(샌드위치 제도)의 그리고 유구인도 포함되는데, 그들은 글자 R로 글자 L을 대신해서

²⁹ 베이-만(Vej-man)은 위만조선의 위만(衛滿), 치츠이(Tsitszy)는 기자조선의 기자(箕子), 웨이-유-츄이(Vej-ju-tsjuj)는 위만의 손자인 우거왕(右渠王)이다. 모든 인명이 중국어 발음으로 음차되어 있다.

³⁰ 일리온(Illion), 고대도시 트로이(Troy)의 그리스어 이름.

³¹ 프힌-산(P'khin-sjan), 평양.

³² 가오(Gao)는 고주몽을, 가오-리(Gao-li)는 고구려를 말한다.

쓴다. 어떤 사람들은 일본과 중국의 거리 단위를 리(Li)라고 부르고, 다른 사람들은 리(Ri)라고 부른다. 어떤 사람들은 류쿠 제도를 리우키우(Liu-kiu)라고 부르고, 다른 사람들은 리우키우(Riu-kiu)라고 부르며, 세 번째 사람들은 마침내 루쿠(Ru-ku)라고 한다. 많은 사람이 호놀룰루(Honolulu)를 호노루루(Honoruru)라고 부르고 쓴다. 가오-리(Gao-li)를 코-리(Ko-ri)로 바꾸지 못할 이유가 없지 않은가? 그리고 이렇게 개칭된 것에는 유럽인들에게 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조선인 자신들에게 책임이 있다. 내가 그들 앞에서 코레야라고 발음하자 그들은 다 같이 코리·코리를 반복했다. 그리고 곧 아바쿰 신부를 통해서 설명을하기를 이것이 그들의 고대 왕가의 이름이라고 했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인들이 바꾼 것이라고는 코-리에서 코레야로 만든 것뿐이다. 그리고 거기에 달리 할 것이 많이 있는가?

가오-리 왕국이 세워진 이후 중국인·일본인·몽고인이라는 운명이 이 왕국을 희롱하러 왔다. 즉 다시 말하자면 정복하고 파괴하고 옛 왕조를 전복시키고 새로운 왕조를 세웠다. 조선의 왕들은 그 운명과 싸울 충분한 힘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자진하여 중국의 강국에 복종하는 편을 택했다. 중국은 조선을 자신의 영토로 만들기도 하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조선의 독립을 다시 회복시켜주기도 했다. 그러나 5세기에 몽고가 중국에 밀려들어 왔을 때 조선은 그들에게도 굴복하였다. 가끔 조선인들이 갑자기 노여움을 느끼고 중국에서 벗어나려고 생각도 하였지만 오래가지 않았다. 중국인들이 그들을 정복하거나 아니면 조선인들 스스로 다시 후견을 요청했다.

이 복종과 중국을 상국으로 인정하는 것에 대한 대가로 중국인들은 조공국에게 자신의 지식들을 선사해주었는데, 그 지식들 중 일부는 언어

다. 그래서 조선인은 조금 중요하거나 학문적인 것은 중국어로 쓰고, 좀 단순한 것은 자신의 언어로 쓴다. 나는 조선인의 책을 보았는데 글자가 중국인 것처럼 알아보기 어렵거나 복잡하지 않았다. 그 밖에도 중국인은 조선인에게 자신의 직물제품과 시 쓰는 기법을 선사했다. 가끔씩은 이런 일도 있었는데, 중국인은 조선인을 보호하면서도 동시에 몽고인이나 투구스인이 조선인에게서 조공받는 것을 막지 않았다. 마침내 14세기 말에 지금도 조선을 통치하고 있는 이씨 가문이 중국을 통치하는 만주 왕조에게 공물을 바치거나 아니면 선물을 보내고서 왕위에 올랐다.

이아킨프 신부의 말에 따르면 조선은 여덟 개의 지방 혹은 도로³³로 나뉘어져 있다. 나는 당신의 청각을 이 여덟 지방의 명칭들에서 벗어나게 해드리겠다. 만일 흥미가 있거든 이 저명한 중국 학자의 책을 직접 보기 바란다. 무슨 새소리처럼 들리는 명칭들이 작은 글씨로 뽀뽀이 쓰여져 있고, 우리는 이름만 알고 있는 이 지역에 대한 민속적·지리적·인문적 정보들이 가득 차 있는 그 책의 페이지들을 읽다보면 학자 신부님의 맹렬한 지식욕과 거대한 인내 앞에 경건한 마음을 품게 된다. 그리고 위에 언급한 조선에 대한 단편적 지식을 이 학자에게서 조심스럽게 훑친 것은 모두 여러분들을 위해서다. 아마도 여러분들은 이것으로 충분하여서 이 이름들의 미로에 스스로 가지 않을지도 모르겠다. 언제 가볼 건가요? 어제 본 오페라의 감명이 금방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5월 18일 우리는 타타르 해협³⁴에 들어섰다. 하루 동안 순풍이 우리

³³ 당시 조선의 행정구역이 팔도(八道)임을 말한다. 도(道)의 의미를 그대로 가져와서 '도로'라고 적고 있다.

³⁴ 타타르 해협(Tatar Strait), 유라시아 대륙과 사할린 섬을 가르는 해협으로 북쪽

를 잘 날라주었고, 그다음 무풍이 지속되었다. 그런 다음 마쓰마에³⁵ 해안에서 추위와 비, 안개를 동반해서 북풍과 북동풍의 역풍이 불어왔다. 열대지방에서 갑자기 급변했다! 우리는 추위를 어떻게 피해야 할지 몰랐다. 밤이 오면 옷을 벗고 눕는 것이 고통이었다. 그러나 일어나는 것은 더 힘들었다.

가끔씩 우리는 해안을 보기도 했는데, 그 해안을 따라 우리는 북쪽으로 가고 있다. 하지만 다시금 안개가 해안을 덮어버렸다. 밤마다 이따금 킁킁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누구는 바다사자가 킁킁하고 우는 것이라고 말했고, 누구는 바다표범이라고 했다. 바다표범 같았다. 바다표범만이 킁킁거리면서 울 수가 있기 때문이고, 낮에 가끔씩 바다표범들이 머리를 내밀고 서로 앞을 다투어 달리면서 무리를 지어 전함 주위에서 놀기도 하기 때문이다. 아니면 신호수 표도로프가 생각하듯 물귀신 인지도 모르겠다.

어제 17일에 놀라운 만남이 있었다. 점심을 먹고 있는데, 어떤 스쿠너선이 보인다고 했다. 깃발을 올리고 대포를 발사하라는 명령이 내려졌다. 그 스쿠너선은 우리 깃발을 올렸다. 브라보! 스쿠너선 '보스톡'호가 유럽에서 소식과 편지들을 가지고 우리에게로 오고 있다. 모두가 활기를 띠었다. 한 시간이 지나 우리는 신문을 읽었고 3월에 유럽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게 되었다. 설명·판단·예상들이 오갔다. 우리 배들은 러시아 해안으로 가라는 명령을 받았다. 무슨 일이 있는 건지? 곧

으로 오호츠크 해, 남쪽으로 동해와 연결된다.

³⁵ 홋카이도[北海島]를 가리킨다. 마쓰마에는 홋카이도 섬의 남서쪽에 위치한 도시로 외국인 여행자들은 이 도시 이름으로 전체 섬을 불렀다.

도착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 명령이 우리를 기다리는 장소까지는 다해서 250마일 거리가 남아 있을 뿐이다.

가을 마냥 춥고 적적했다. 북쪽의 우리나라에서는 가을이면 모든 것이 움츠러들고, 사람들은 외부의 느낌들을 받아들이기를 오랫동안 거부하면서 생각에 깊이 잠기게 되고, 본의 아니게 우울해진다. 하지만 그것은 겨울 전에 그런 것이고, 여기는 봄인데도 그와 똑같다. 자연에서 아름다움으로 모든 생명의 소생을 미리 알려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모두가 해안에 상륙하고 싶어 했다. 게다가 식료품이 거의 떨어져 가기도 했다. 식탁에는 소금에 절인 고기와 채소가 자주 올라오기 시작했다. 우리 배의 동물의 왕국에는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하는 두세 마리의 양과 제대로 서 있기 싫어하는 두세 마리의 돼지, 대여섯 마리의 닭 그리고 오리 한 마리와 고양이 하나만 남아 있다. 보충할 때가 되었다.

20일. “새로운 소식이 있나?” 나를 깨우러온 파제예프에게 물었다. “지금 닻을 내리고 정박할 겁니다.” 그가 이야기했다. “굵은 밧줄을 꺼내오라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실제로 나는 지친 여행자에게 너무 기쁜 소리를 들었다. 선창에서 닻을 매는 밧줄을 꺼내오는 요란한 소리다.

여러분들이 배에서 쓰는 굵은 밧줄에 대한 이야기를 선원들에게서 들으면 완전히 믿지는 않을 것이다. 굵은 밧줄은 코끼리 여섯 마리를 묶어도 끊어지지 않는다. 그것은 150푸드³⁶의 닻을 지탱한다. 그리고 ‘삼으로 만든 밧줄’을 이야기할 때면 그건 정말 좋은 밧줄이다.

아침은 아름다웠고, 하늘은 열대지방처럼 푸르렀고 투명했다. 열대

³⁶ 푸드(Pud). 러시아의 무게단위로 1푸드는 16.38kg이다. 150푸드는 2,457kg이 된다.

지방처럼은 아니었지만 따뜻했다. 그렇긴 해도 플란넬 외투를 입어야
그럭저럭 갑판에서 다닐만 했다. 우리는 모두 해안에 내릴 생각만 했
다. 정오가 되자 해안까지 10여 마일이 남았다. 모두가 갑판으로 나왔
고, 나도 우리의 임시 선착장이 될 어떤 만으로 배가 입항하는 것을 보
러 나왔다. 배가 들어갈 입구를 발견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만에서
는 실수를 하면 안 된다.

“저 곳 뒤에 입구가 있을 겁니다.” 할아버지가 말했다. “곶을 우회해서
돌아가야 되요.” “키를 오른쪽으로! 왜 왼쪽으로 기울이고 있어?” 조타
수를 보고 그가 덧붙여 말했다. 10분쯤 지나서 밑에서 누군가가 올라왔
다. “입구가 어디 있어요?” 그가 다시 물었다. “저기 곶을 ……” 할아
범이 말을 하려다가 쳐다보니 곶이 없었다. “이게 무슨 조화람! 곶이 어
디 있지? 방금 전에도 있었는데.” 할아버지가 이야기했다. “윗돛대의 돛
을 펼쳐라!” 당직장교가 소리치르기 시작했다. 돌풍이 추위·비·안개
를 몰고 왔다. 전함은 심하게 기울어졌고, 해안은 보이지도 않았다. 무
든 것이 하얀 연무 속에 휩싸여버렸다. 100사젠 거리에서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심지어 우리 배 옆 이쪽 편이나 저쪽 편에서 항상 향해
하던 스쿠너선도 보이지 않았다. 빨리 해안에서 떨어져야 했다! 돌풍이
지나가고 우리가 만에 들어가기를 바랐다. 아니었다. 바람은 지나가지
않았고, 안개도 마찬가지로여서 돛대 위쪽을 감싸버렸다.

저녁나절은 그렇게 지나갔다. 우리는 해안에서 10마일이 아니라 16마
일 거리에 있게 되었다. “뭐, 내일은 동트기 전에 만에 들어갈거야.” 우
리는 자리 들어가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 “무슨 새로운 소식 있나?”
아침에 일어나서 파제예프에게 다시 물었다. “바시카가 종달새를 먹었
습니다.” 그가 말했다. “뭐라고, 어디서 잡아서?” “그물에서 잡았답니

다.” “왜 뺏지 않았어?” “선수 쪽으로 가버려서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애석하구만. 다른 소식은 또 없어?” “더는 없습니다.” “어떻게 더 없을 수가 있어. 닳을 내리고 정박했어?” “어디에 정박한단 말입니까? 날씨를 좀 보세요! 선미갑판에서 선수갑판도 안 보입니다.”

우리는 해협을 따라 바람 부는 쪽으로 엇거슬러 나가면서 위치를 유지했다. 그렇게 다시 온종일을 떠돌아다녔다. 바람은 사납게 불었다. 파도는 그렇게 크지 않았지만 매서웠고 예기치 않게 배를 옆으로 밀면서 배를 불쾌하게 요동치게 했다. 다음 날 저녁 무렵 나는 갑판으로 올라가보니 모두들 후갑판에 무리지어 있었다. “무슨 일입니까?” 하고 물었다. “이제 들어갑니다.” 라고 대답했다. 정말로 우리는 매끈한 수면의 내부 수역으로 가는 넓은 관문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만 내부의 그 정박장은 거칠고 꺾이지를 듯한 해안이 빙 둘러싸고, 시선이 통과하지도 못하게 우거진 소나무·자작나무·진나무·낙엽송들의 작은 숲이 차 있었다. 진한 송진 냄새가 우리를 에워쌌다. 우리는 큰 만을 통과하여 오른쪽과 왼쪽에 긴 혀처럼 해안으로 깊숙이 들어가 있는 두 개의 다른 작은 만을 보았다. 그러면서 큰 만은 스스로 2마일 정도 멀리 물러났다. 바다는 미동도 없고 공기는 조용했다. 그런데 곳 너머 바다에서는 바람이 난폭하게 불었다. 우리가 들어간 작은 만에는 이미 우리를 앞질러 ‘멘쉬코프 공’호가 해안가에 바싹 붙어 정박해 있고, 해안에는 천막들을 쳐놓았다. 천막 주위에는 십여 명의 사람들이 무리지어 있고 개들이 뛰어다녔다. 우리도 닳을 내렸다.

이 지역이 대체 어떤 곳인가? 우리는 어디에 있는 것인지? 나도 몰랐고 누구도 알지 못했다. 누가 이렇게 외지고 인적이 드문 곳에 왔을 것이며, 올 것인가?

이곳에는 누가 살고 있나? 어떤 민족인가? 민족들은 많으나 아무도 살지 않는다.

자신들만의 방법으로 전 세계의 민족들과 의사소통이 가능한 우리 수병들이 도대체 어떤 언어로 이야기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아무튼 이야기를 해본 이곳의 민족은 자신들을 오로촌·만구·케켈이라고 했다. 이것이 대체 무엇인지, 부족명인지 그들의 성인지 모르겠다. 우리들 중 많은 이들이 그들을 퉁구스라는 공통의 이름으로 불렀다. 그들은 여기에 살지 않고 이 지역 저 지역을 옮겨다녔고 바다로는 물고기를 잡으러 왔다. 그들을 뒤따라 곧 곰이 올 거라고 이야기했다. 그 사람들 바로 뒤에 말이다. 우리도 그들과 똑같이 물고기를 잡았다. 물고기가 지천이었다. 가자미·농어·송어 종류들. 그리고 곧 있으면 이때 나타나는 물고기들인 연어와 청어 등도 올 것이다. 우리에게는 지금 물고기들이 있고, 또 식탁에도 물고기들이 나왔다. 해안에는 말 대신 30여 마리의 여원 개들이 돌아다니고 있었다. 하지만 해안에서 보니 그 울창한 숲에서 개를 타건 말을 타건 다니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다. 걸어도다니기도 힘들 지경으로 보였기 때문이다. 나는 숲속의 진펄에서 느릅나무를 만져보려 했지만 그루터기와 나무줄기에 걸려 비틀거렸다.

그 해안은 어떤 해안인가? 그 만은 무슨 만인가? 여러분들은 물어볼 것이다. 중국에 속해 있는 만주의 궁벽한 해안이 뻗어 있는 것이다.

6월이다. 아니었다. 해안은 나에게 해로운 것 같았다. 숲을 통과해서 걸으면서 나는 피곤하고 괴로웠다. 어제 숲에서 방수포를 깔고 잠을 잤는데 오한이 났다. 물에서의 생활에 완전히 낯설게 된 것이다. 전함에서, 바다에서가 더 좋았다. 나의 작은 선실이 나에게겐 좋았다. 몸을 돌리기도 힘든 자신의 조그만 구석에 익숙해진 것이다. 거기서는 침대에

높거나 의자에 겨우 앉을 수 있을 뿐이고 그다음 문 쪽으로 한 발자국 내디디면 그것이 전부다. 고물뚝대, 로프 뭉치들 그리고 뱃전 너머 바다를 보는 것에 익숙해졌다.

숲을 따라 걸었다. 숲은 쓸모없고, 열대지방의 그것이 아니었다. 열대지방의 숲에서는 헤치고 나갈 수가 없거나, 헤치고 나간다고 해도 수종들의 아름다움이나 다양함을 즐길 수가 없었다. 그런데 여기서는 어디서든 헤치고 나갈 수가 있지만 나무들이 마치 초처럼 천편일률적으로 서 있다. 전나무·낙엽송·가문비나무, 다시 가문비나무·낙엽송·전나무, 가끔씩 자작나무. 어디를 둘러봐도 다 이렇게 높은 말뚝처럼 가까이 서 있다. 여기서는 모든 나무들이 서로 자라는 것을 방해하고 결과적으로 어떤 나무도 다른 나무를 이기지 못한다. 열대지방에서는 만일 한 나무가 주위의 생명을 박멸하면 그 자신은 엄청 무성하게 자라난다.

우리는 떠돌아다니는 민족인 만균·오로치, 아니면 시베리아식 이름으로 통구스인들과 교류를 가졌다. 우리에게 통구스인 아폰카가 자신의 동료 이반과 함께 자주 우리에게 왔다. 우리들은 그들을 아폰카와 이반으로 불렀다. 그를 고용해서 큰사슴, 아니면 시베리아식 명칭으로 빨사슴을 사냥해서 고기를 우리에게 가져다주게 했다. 이미 세 마리를 사냥했는데 고기가 총 25푸드였다. 나는 그 고기가 소고기보다 더 맛있었다. 그는 곰도 사냥했다. 얼마 전에 그는 우리 일행 중 한 명을 숲으로 사냥하는 데 바래다주었다. “일에 대한 대가로 뭘 원하지, 아폰카?” 그 사람이 물었다. “돈?” “아니.”라는 대답이었다. “그럼 면직물, 아마포?” “아니야.” “그럼 뭘 원해?” “유리병을 줘.”

그는 대체 무엇으로 동물들과 싸울까? 나는 번쩍거리는 금속제 낚시

대와 멋진 마호가니 낚시찌에 기타 도구들을 가지고 물고기를 잡으러 갔던 사람들이나 아니면 영국제나 프랑스제 총을 들고 사냥을 갔던 사람들 모두 거의 항상 빈손으로 돌아온다는 걸 눈치챘다. 아폰카는 사슴과 곰을 부싯돌로 점화하는 총으로 사냥했다. 그 총은 자기가 직접 만들었거나 아니면 아주 예전에 고래잡이들에게 뿔 주고 얻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제 계속 고장나서 그가 사냥하고 올 때마다 매번 우리 수선공이 고쳐주었다. 얼마 전에 공이로 격발되는 총신 두 개짜리 괜찮은 총을 그에게 주었다. 그는 숲으로 갔다가 곧 돌아왔다. “무슨 일이야?” 그에게 물었다. “이 총 받으시오.” 그가 말했다. “이 총으로는 쓰지를 못하겠어.” 그는 나에게 곰 가죽을 가져다주기로 약속했다. ‘유리병 하나’를 받기 위해서 말이다.

길랴크족³⁷에 대해서 말하면 그들은 이곳에서 바람에 부러져 떨어진 나뭇가지 무더기 아래서 영하 36도에도 살아간다고 했다. 심지어는 쫓겨 먹이 아이를 데리고 있는 엄마들도 그렇게 산다고 한다. 몸을 녹이고 싶으면 모닥불을 피우고, 송어와 곰 마늘³⁸ (마늘의 한 종류)을 먹는다.

하지만 그들은 수가 적고 비어 있는 장소가 지천이다. 프리깃함 옆으로 카약을 탄 반쯤 야만의 이 지역 사람들이 드물게 겁을 내면서 스쳐지나갔다. 아폰카만이 자신의 사냥 전리품들을 가지고 숲과 강을 건너 중국과 우리 국경까지 왔다. 그는 모든 언어를 조금씩 했고, 주로 그

³⁷ 길랴크(Gilyak)족. 러시아 극동지방의 소수민족인 니브흐(Nivkh)족의 옛 이름. 아무르 강 유역과 사할린 섬 북쪽에 거주한다. 길랴크는 ‘노를 짓는 사람들’이라는 뜻이며, 니브흐는 ‘사람’이라는 의미다. 현재는 5,800명 정도 남아 있다.

³⁸ 곰 마늘(*Allium ursinum*). 야생 마늘이라고도 하며 유럽 대부분 지역에서 이른 봄에, 보통 습한 숲에서 찾아볼 수 있다.

언어들을 다 섞어서 말했다. 또 야만인들의 언어를 할 줄 알았다. 그는 겁내지 않고 우리에게 왔는데 항상 선원들에게 술을 줄 때를 노려서 왔다. 누군가 그에게도 술을 대접하면 그는 마시고 취해서는 고맙다는 말도 하지 않았다.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돌아서서는 가버렸다.

나는 무성한 수풀을 겨우 뚫고 나갔는데 굵은 통나무 양 끝에 앉아 있는 두 사람을 보았다. 그 통나무는 우리 배들을 수리하는 데 필요한 자재였다. 한 사람은 키가 크고, 조용하고 두려움 없는 얼굴을 한 잘생긴 사람으로 우리 선원 중 한 명이었다. 다른 사람은 키가 작고 거무스름하며 색깔이나 무성한 것이 꼭 곰털과 비슷해 보이는 머리카락에 거의 편평한 얼굴인데 그 얼굴에서는 용감한 냉담함이 나타났다. 그는 이 지역 사람이었다. 그 사람을 같이 일하자고 부른 것 같았다. 러시아 사람은 그 통나무를 도끼로 찍고 있었다. 그리고 이 지역사람은 통나무가 움직이지 않게 다른 쪽 끝에 앉아서 파이프로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나무조각과 파편이 마치 비처럼 그의 얼굴과 머리에 날아갔다. 그는 파편조각들이 눈에 들어가거나 할 때마다 매번 서두르지 않고 규칙적으로 눈을 깜빡였다. 그리고 머리를 흔들어 곰털 같은 머리에 앉은 조각들을 떼낼 생각을 하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두었다. 러시아 사람은 나무를 힘껏 찍었고 도끼를 나무 깊숙이 박았다. 매번 내려칠 때마다 그의 가슴에서 무언가 반응하였다. 그는 나무 찍는 걸 끝내고 도끼를 이 지역 사람에게 건네주었다. 그러자 그는 파이프를 건네주었고, 러시아 사람은 통나무 끝에 앉아서 담배를 피우기 시작했고, 그는 나무를 찍기 시작했다. 나무조각과 파편이 카자크의 눈에 날아들었고, 그는 자신의 차례인양 눈을 깜빡거리기 시작했다.

이 우울한 지역에서의 항해라니! 날씨는 또 어떤지! 아침에는 춥지

도 덥지도 않지만, 밤에는 꽤 추웠다. 안개는 자기 코를 보지 못할 정도로 모든 것을 가려버린다. 어제는 장교들을 실은 우리 단정들에게 전함이 있는 장소를 알려주기 위해 대포를 발사하고 북을 쳤다. 바람은 대부분 세차고 차가왔고, 조용할 때가 드물었다. 7월 중순에 말이다!

하지만 여행도 이제 끝나가고 있다. 바다에서의 길었던 여행을 육지에서 치료해야 할 필요성을 느낀다. 아직 일주일 정도 시간이 있다. 그다음 주면 나는 고국의 해안에 발을 디딜 것이다. 거기로, 거기로! (Dahin, dahin!) 하지만 여러분들을 곧바로 보지는 못할 것이다. 나는 시베리아를 거쳐서 가야만 한다. 그 길은 넓고 안전하고 편하지만 길고 또 길다! 게다가 시베리아는 손님 접대를 잘하고, 멋진 곳이다. 눈을 질끈 감고 귀를 닫은 채 급행 마차를 타고 그곳을 통과하는 게 가능하겠는가? 시베리아에서 여러분께 편지를 한 번만 쓰게 되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러나 사람은 참으로 이상하다. 육지에 가고 싶지만, 프리깃함을 떠나는 것도 아쉽다! 하지만 이 배가 얼마나 아름답고 우아한지, 이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이들인지 여러분들이 아신다면, 내가 억지로 팔라다호를 떠난다는 것에 놀라지 않으실 것이다.

찾아보기

ㄱ

가겐 섬 153
가메노시마 섬 153
가타카시마 153
게르만 해 54
고글랜드 섬 114
고쉬케비치 432
고토 섬 268
고틀란드 47
광저우 265
구슬리 332

ㄴ

나가사키[長崎] 143, 275
난징[南京] 263
난징조약 126
노모반도[野母半島] 144, 154
닝보[寧波] 262

ㄷ

다마스슴 225
데제르타 제도 87
도거 뱅크 57
도버 64

ㄹ

라자레프 439
라 페루즈 441

래구 358
레자노프 172
루손 섬 378
류쿠 제도 443
리투아니아 120
린시페이 401

ㄴ

마닐라 만 345
마테이라 섬 76, 269, 415
마쓰마에 445
만틸라 305, 352
말레이 반도 120
멘쉬코프 377
미야코 156
미즈노 치구고노 418
미키도[御門] 156

ㄷ

바르톨로뮤의 밤 204
바부얀 제도 378
바타비아 116, 245
바탄 섬 131, 377, 378, 423
반케트 333
발트 해 50, 57
뱅크 57
보그드이한 266
보닌 제도 131
보른홀름 섬 47
보스포르스 해협 409
본라르라르스키 138
부라크 298

브로튼 427, 428
 블라디미르 그리고리예비치 98
 비스케이 만 85
 비지가 296
 비투슈카 323

人

사이먼스타운 106
 새들 군도 268
 삼 120
 솔란카 299
 슌드 해협 50, 119
 솔리펜바흐 432
 스카게라크 해협 52
 스피트헤드 64
 시마바라 324
 쓰저우[蘇州] 263

○

아라비아 만 409
 아모이 262
 아바쿰 398
 안초비 329
 에도 269
 영국해협 56
 오사와 분고노 418
 오희츠크 해 341
 우하 299
 유구 섬 423
 유구인 400
 이아키프 441~444
 이오시마 섬 154
 일리온 442

ㅈ

자딘매디슨 242
 자바 섬 144
 주산열도 126
 지볼트 417, 422

ㅊ

추홀로마 68
 치루타 363
 치보크 338

ㅋ

카나리아 제도 94
 카미긴 섬 378, 396
 카보베르데 제도 96
 카테가트 해협 52
 카프스타드 106
 카피르족 408
 캄차카 160, 328
 커티우스 169
 코르사코프 397
 코친차이나 120
 콜히다 36
 쿨리 351
 쿨리치 245, 419
 켈파트 섬 407
 크로노미터 250
 크론슈타트 41, 56, 227
 크리드네르 439~440
 크리스마스 섬 114
 크리시 섬 244
 크릴로프 168



클라프로트 401
 클료츠키 322
 키마치 만 253

E

타타르 해협 444

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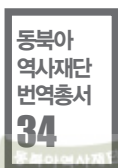
파스틸라 322
 파시그 강 347
 파펜버그 섬 152
 팔마 섬 94
 페리 272, 417
 페테르부르크 56
 포르투산투 섬 87
 포시에트 421
 포즈머스 56
 폭풍의 곳 111
 폴스 만 105, 111
 푸저우[福州] 262
 프힌-산 442
 피니스테레 곳 86
 피로그 316
 필라프 316

III

해밀튼 377, 397
 해밀튼 섬 407
 화이트 섬 64, 243
 희망봉 122

등장인물

B.(A.A.; A.A.B.; M.B.)= 소위 볼쨰 42~43, 73, 100, 112, 221, 356, 367
 B.K.= 대위 남작 그리드네르(본문 크리드네르) 39, 107, 119, 137, 199, 219, 347, 355, 372
 B.Sh.= 대위 쉘리펜바흐(본문 술리펜바흐) 42, 391
 I.S.U.(I.S.; U.)= 팔라다호 함장 소령 은콥스키(본문 운코프스키) 75, 296, 298
 I.V. 푸루겔림= 소령 푸루겔림 279
 K.(A.A.K.)= 소위 콜로콜리제프 42, 391, 395
 K.I.I(L.; K. I.)= 대위 로세프 81, 84, 219, 244, 279, 369
 K.N.P(K.N.; K.N.P-t)= 소령 뽀시에트(본문 포시에트) 163, 172, 177, 179, 181, 200, 212, 214, 217, 224, 228, 230, 233, 246~247, 249, 259, 279, 296, 307, 314, 325, 331, 382
 L.A.P.= 중위 뽀뽀프 95
 M.Z.(Z.; Зелёный)=소위 질료누이 100, 112, 219
 N.N.S(N.N.)= 대위 사비치 113, 224
 O.A.G.(O.A.; G.; G-ch)= 외무부 통역관 고쉬께비치(본문 고쉬케비치) 55, 227, 246, 300, 320, 325, 385~387, 395, 427
 P-v= 소위 뽀수로프 325
 P.A.T.(P.; P.A.)= 대위 찰스멘네프 43, 59, 97, 126, 160, 179, 226, 229, 269, 299, 311, 317, 321, 337, 341, 368, 388
 S.P.Sh.(S-ch)= 대위 슈바르츠 259
 V.A.K.(V.A.)= 대위 코르사코프(본문 코르사코프) 53, 279



전함 팔라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초판 1쇄 인쇄 2014년 5월 28일

초판 1쇄 발행 2014년 6월 5일

지 음 이반 알렉산드로비치 곤차로프

옮 김 문준일

펴 낸 곳 동북아역사재단

등 록 312-2004-050호(2004년 10월 18일)

주 소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81 임광빌딩

전 화 02-2012-6065

팩 스 02-2012-6189

e-mail book@nahf.or.kr

© 동북아역사재단, 2014

ISBN 978-89-6187-327-7 93910

* 책값은 뒤표지에 있습니다. 잘못된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

* 이 도서의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시도서목록(CIP)은 서지정보유통지원시스템 홈페이지(<http://seoji.nl.go.kr>)와 국가자료공동목록시스템(<http://www.nl.go.kr/kolisnet>)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CIP제어번호: CIP2014016240)